

매산동

수원의 관문, 수원역이 자리한 마을

제1부
매산동의
지리와
역사적 변천

● 매산동의 생활터전과 지리적 환경	손승호
1. 마을의 위치와 지리적 특징	009
2. 마을 이름과 행정구역의 변천	027
3. 지도로 보는 매산동의 변화	030
4. 토지이용과 경제활동	047
5. 매산동에 터전을 잡은 사람들	062
6. 살기 좋은 마을로의 발전	068
●● 철도교통과 수원역의 변천	정가형, 김요셉
1. 최초의 근대 교통, 경부선 철도의 등장	073
2. 경동철도의 부설 : 수려선과 수인선	082
3. 우리나라 최초의 도시철도 1호선의 개통과 이후의 변화	093
4. 수원역을 오간 열차와 전동차	096
5. 폭발적인 수원역 이용수요	105
6. 수원역사(驛舍)의 변천	107
7. 마무리하며	112
●●● 매산동의 식민지적 변화와 일본인 사회	한동민
1. 경부선의 개통과 매산동의 변화	117
2. 수원역을 중심으로 한 역세권의 형성	124
3. 수원 일본인 사회의 형성	128
4. 수원 일본인 사회의 중심, 일본인학교	133
5. 수원 일본인의 정신적 구심, 수원신사(水原神社)	138
6. 매산동 일본인 사회와 일본인 상점	141
●●●● 근대 관광, 수원을 주목하다	조성운
1. 근대 관광의 성립	171
2. 수원역과 근대 관광	181
3. 1910~1920년대 수원 관광단	184
●●●●● 수원역 일대의 도시화와 도시개발	황병주
1. 인구 변동을 통해 본 수원역 일대의 변화	201
2. 수원역 설치와 도시화 효과(1905~1945년)	210
3. 해방 이후 수원역 일대의 변화(1945~1950년대)	221
4. 산업화와 수원역 일대의 도시개발(1960~1980년대)	229

제2부
매산동의
상권과 시장

● 역전시장의 어제와 오늘	이승연
1. 수원의 첫 얼굴, 매산동 전통시장	249
2. 흙바닥 좌판시장에서 현대화된 상가로 변신하다	254
3. 상권의 쇠락과 노화, 위기의 역전시장	269
4. 기로에 선 역전시장, 도약을 꿈꾸다	278
●● 매산시장 골목을 누비다	김연희
1. 매산시장에서 만난 사람들	285
2. 매산시장의 형성	290
3. 매산시장의 상인과 이용객 현황	299
4. 매산시장 상인회의 활동	307
5. 매산시장, 다문화의 중심지	316
6. 매산시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319
●●● 도로에서 시장으로 : 수원역지하도상가의 변화기	송지영
1. 지하 대피로에서 시작된 수원역지하도상가	325
2. 변화의 과정	335
3. 발전을 위한 노력	349
4. 더불어 살아가는 수원역지하도상가	357

제3부
매산동 사람들의
노동과 삶

● 대한방직 수원공장과 노동문화	이동현
1. 대한방직 수원공장의 설립과 발전	363
2. 대한방직의 생산관리와 노동과정	374
3. 노동자의 일상생활과 문화	389
●● 직장을 위해 매산동으로 이주한 배계진	김미엽
1. 남양 출신 막내의 성장기	403
2. 중학교 4학년 때 한국전쟁을 만나다	405
3. 체신부 공무원을 거쳐 '경부고속도로를 누비던' 시절	408
4. 일기 쓰는 노인회 회장님	412
●●● 금형 기술자 조성현의 매산동 정착기	김미엽
1. 인천 송현동 둘째 아들의 성장기	415
2. 산업역군이 되어 금형 기술자로서 한길을 걷다	417
3. 인심이 좋았던 매산동	420
4. 70대 청년인 매산경로당 총무 조성현	422
●●●● 수원 인쇄골목의 열정 가득한 세대 : 매산동 대동지업사 김덕진	김형아
1. "수원 토박이라고 볼 수 있어요"	426
2. 열정의 청춘시대	431
3. 대동지물상사를 인수하다	434
4. 인쇄기술의 변화와 인쇄골목의 쇠락	441



제4부 매산동의 사회문화적 변화

● 매산동 여관에 머물다	김현미
1. 주막에서 여관으로	449
2. 수원의 근대식 여관	451
3. 매산동에 여관이 많은 이유	456
4. 변화하는 매산동의 여관	463
5. 매산동의 여관을 말하다	467
●● 매산동 소극장 전성시대	김형아
1. 영화계의 르네상스 끝에 찾아온 불황과 새롭게 떠오르는 재개봉관	479
2. 재개봉관 아카데미극장	487
3. 소극장의 번성	490
4. '영화법' 개정과 극장의 변화	495
●●● 수원역 성매매 공간을 둘러싼 갈등과 협력	최희진
1. 그곳으로 들어가다	501
2. 수원역 성매매 집결지의 형성과 변천	505
3. 사회적 공간으로서 수원역 성매매 집결지	512
4. 수원역 집결지 폐쇄를 둘러싼 사회적 갈등	519
●●●● 수원역 로데오거리의 소비문화	이정수, 윤정인
1. 수원역 로데오거리로 들어서기	525
2. 수원역 로데오거리의 소비 스타일	533
3. 수원역 로데오거리 소비경관의 특성	545
4. 수원역 로데오거리를 떠나며	556
●●●●● 주민의 건강과 행복을 최우선으로 하는 곳, 매산동 대한대우아파트	이진희
1. 푸르지오 혹은 대한대우라는 이름	561
2. 지나간 시대의 흔적	569
3. 뜨거웠던 청약 열기와 IMF사태	572
4. 혼란의 시기를 거쳐 화합과 안정의 나날로	574
5. 너무너무 좋아서 하는 동호회 활동	578
6. 이동지역 또는 소비지역이라는 이미지	580
7. 걸어서 가는 팔달산, 수원천, 광교저수지	582
8. 살기 좋은 아파트를 위해 솔선수범한 주민들	583
9. 한 번 살아 보고 싶은 아파트	586

제5부 수원 다문화 1번지

● 매산동의 화교문화와 송무반점	이승연
1. 우리 곁의 이웃, 화교	591
2. 유기서 가족을 통해 본 화교문화와 정체성	597
3. 수원에서 5대째, 추억을 공유하다	613
●● 수원시 한국계 중국인 주거지 분포 특성과 형성 요인	황상표
1. 수원시 한국계 중국인 주거지 분포 특성	620
2. 수원시 한국계 중국인의 주거지 형성 요인	629
●●● 중국동포거리의 형성과 지속	안중수
1. 중국동포거리 형성의 배경	647
2. 중국동포거리 형성 과정	652
3. 중국동포에 대한 인식 악화와 동포들의 자구책	662
4. 중국동포거리의 달라진 풍경과 지속성	667



01 매산동의 지리와 역사적 변천

- 매산동의 생활터전과 지리적 환경
- 철도교통과 수원역의 변천
- 매산동의 식민지적 변화와 일본인 사회
- 근대 관광, 수원을 주목하다
- 수원역 일대의 도시화와 도시개발



손승호 인천대학교 강사

제1장

매산동의 생활터전과 지리적 환경

1. 마을의 위치와 지리적 특징

1) 수원 화성과 수원역을 이어 주는 매산동

경부선 철도의 수원역이 자리하고 있는 매산동은 팔달구와 권선구의 경계부에 위치한 다(그림 1). 현재 수원시의 시작이라 할 수 있는 수원 화성이 매산동의 동북쪽에 접해 있다. 매산동은 1905년에 서울에서 부산으로 이어지는 경부선 철도가 개통한 후 수원 화성의 남문에 해당하는 팔달문과 그 주변의 문밖마을에서 경부선 철도의 수원역으로 이어지는 신작로가 개설되면서, 인구와 상업의 집적을 통해 도시화가 점진적으로 진행되었다. 19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지금의 매산동은 수원의 주변부적인 위치였지만, 이후 철도와 자동차 도로가 개통하고 사람과 물자의 이동이 빈번해지면서 변화한 시가지로 변모하게 되었다. 수원의 시가지가 평면적으로 확대되어 지금과 같은 수원시 행정 경계가 획정되면서, 매산동은 수원시에서 거의 정중앙에 자리한 마을로 발전하였다.

20세기 이전 수원 화성과 그 주변 지역에 저잣거리가 조성되고 화성 주변에 사람들이 모여 살던 시기에 매산동은 전형적인 농촌의 모습을 보였다. 매산동의 서쪽 끝 지점에 수원역이 들어서고 동쪽으로는 수원 화성이 자리하였으며, 1930년대에 개통한 협궤철도



그림 1 매산동의 위치와 법정동 구성

인 수려선과 수인선이 수원역을 기점으로 삼아 운행을 시작하였다. 매산동이 지금의 모습을 갖추 수 있었던 주요한 계기는 철도교통로의 개통과 그에 따른 시가지의 발달이라 할 수 있다.

행정동 매산동은 수원시 팔달구에 편제되어 있으며, 매산로1가·매산로2가·매산로3가 등 3개의 법정동으로 구성된다. 3개의 법정동은 수원역에서 동쪽으로 이어지면서 1~3가의 순으로 자리한다. 시가지의 역사가 오래된 곳은 과거에 사용되던 좁은 범위의 이름이 지금의 법정동으로 굳어진 경우가 많으며, 법정동은 도시사회의 변화 또는 인구 규모의 증감 등에 무관하게 그 이름을 유지하는 경향이 강해 여간해서는 그 이름이 바뀌지 않는다. 매산동은 행정동과 법정동의 명칭이 정확하게 일치하지는 않지만 지명의 근간은 동일하다. 매산동의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주민센터는 수원역에서 도청오거리로 이어지는 매산로의 북쪽에 자리하며, 도로명 주소는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41(매산로2가)이다. 매산동의 면적은 총 0.81km²이고 이는 수원시 전체 면적의 0.7%에 불과한 면적이다. 법정동

별로는 매산동1가 0.24km², 매산동2가 0.23km², 매산동3가 0.34km²이다.

우리나라의 주요 대도시에서는 오래전부터 사람들이 거주하거나 경제활동을 영위하면서 비교적 좁은 범위를 하나의 공간 단위로 인식해 왔기 때문에, 현재 법정동의 근간을 형성하는 향촌의 공간 단위도 좁은 장소를 배경으로 구성되었다. 이에 대도시의 중심부에 있는 지역일수록 법정동의 범위가 좁기 때문에, 행정업무를 처리하는 다수의 법정동을 하나의 주민센터에서 관할하는 경우가 지배적이다. 시가지 발달의 역사가 오래된 도시 중심부에서는 주거환경 및 생활환경이 열악해지고 도시공간이 노후해짐에 따라 인구가 도시 외곽으로 이전하면서 상주인구의 공동화 현상이 심화된다. 도심 공동화의 진행으로 개별 법정동의 인구 규모가 축소되면서 행정 수요가 감소하기 때문에 여러 개의 법정동을 하나의 행정동에서 관할하는 게 일반적이다. 매산동 역시 주거지 기능을 점차 상실함에 따라 수원시의 도심 공동화를 유발하는 동시에 도시공간의 침체현상이 시나브로 나타나고 있다.

수원역에서 동쪽으로 뻗은 매산로를 중심으로 남쪽과 북쪽에 시가지가 입지한 매산동은 간선도로를 따라 동서 방향의 시가지가 골격을 이루며, 동쪽은 수원 화성의 진산인 팔달산 방향으로 돌출된 형태로 이루어져 있다. 팔달산 남서쪽의 기슭인 동쪽 동북쪽에는 경기도의 행정업무를 총괄하는 경기도청과 경기도의회가 자리하고 있다. 동쪽은 세류로를 기준으로 팔달구 교동과 경계를 이루고, 북쪽은 육교사거리에서 고등동삼거리까지 연결되는 팔달로에서 시작하여 고등동삼거리에서 갯매산삼거리로 이어지는 갯매산로, 그리고 갯매산로56번길, 고화로13번길, 고화로20번길 등을 사이에 두고 팔달구 고등동과 경계를 맞대고 있다. 서쪽은 경부선 철도 건너편의 권선구 서둔동과 마주하고, 남쪽으로는 권선로의 구간인 수원역 고가도로를 경계로 권선구 세류동이 맞닿아 있다.

신규로 개발된 시가지의 도로망이 직교형으로 구성되는 데 반해 오래된 시가지를 구성하는 도로망은 크고 작은 도로가 혼합된 미로형인 경우가 많다. 매산동과 그 주변에 자리한 지역의 시가화 시기가 비교적 오래되었기 때문에 인접 행정동과의 경계를 한눈에 명확하게 확인하기는 어렵다. 매산동의 북쪽에 자리한 고등동과의 행정 경계는 특히 그러하다. 도로의 폭이 넓은 간선도로망을 따라 행정 경계가 설정되었더라면 매산동을 수원시의 지도에서 찾아보는 것이 어렵지 않을 것이다. 즉 매산동을 동서로 관통하는 간선도로를 기준으로 동서 방향의 행정 경계가 설정되었으면 좋았겠지만, 행정 경계의 설정은 간선도로망이 확충되기 이전에 이미 형성된 것이고 또한 거주하는 주민들의 생활권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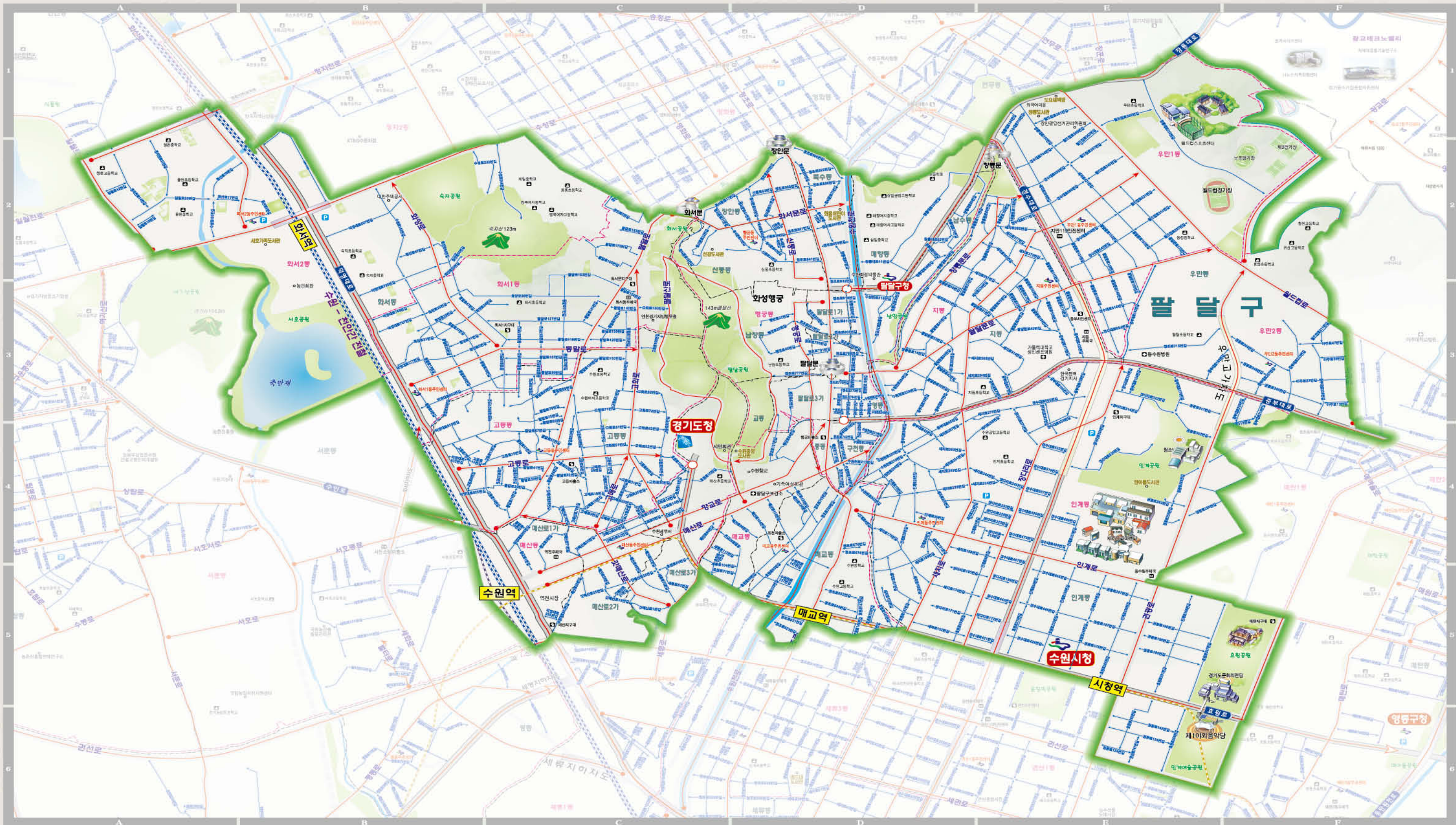


그림 2 팔달구의 도로망



그림 3 2017년 수원시민회관에서 바라본 매산동 일대(수원시 포토뱅크 제공)

고려해야 하므로, 우리나라에서는 계획적으로 만들어지는 시가지를 제외하면 반듯한 도로망을 기준으로 행정 경계가 설정되는 경우는 지극히 드물다.

2) 저평한 평지로 이루어진 마을

침식분지의 형태로 이루어진 수원시는 심층 풍화와 차별침식의 영향으로 완만하고 저평한 지형적 특징을 나타낸다. 수원시에 자리한 산지는 수원의 진산 역할을 하는 광교산(582m)에서 이어지는 산줄기에서 산세를 뚜렷하게 확인할 수 있지만, 수원시의 시가지가 발달한 곳에서는 산지의 발달이 상당히 미약하다. 수원 화성을 건립하고 당시 수원의 읍치가 화성으로 옮겨옴에 따라 수원의 진산에 해당하였던 팔달산은 광교산의 산줄기로부터 다소 떨어진 곳에서 독자적으로 솟아 있는 산지로 간주해도 무방하다. 산지를 제외한 대부분의 시가지는 구릉지나 충적지에 발달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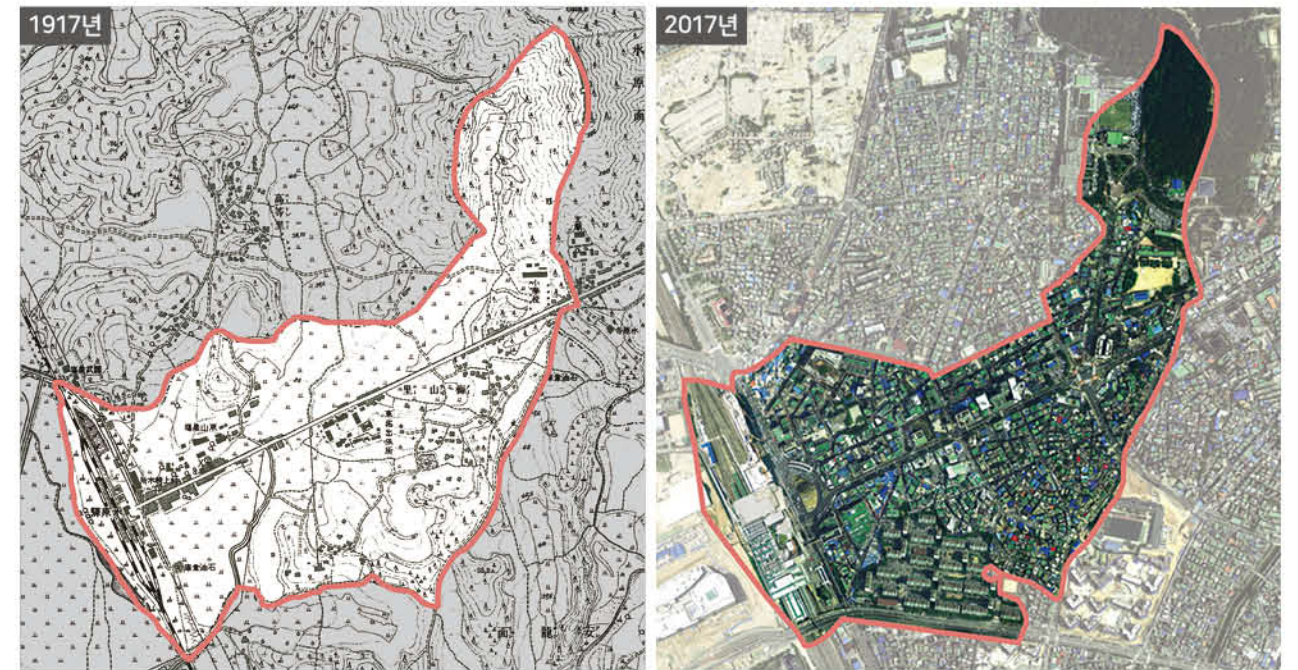


그림 4 매산동의 과거와 현재(1917년과 2017년)

매산동은 그 위치가 수원시 북쪽의 시 경계부에 자리한 광교산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 산지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은 곳으로, 수원을 흐르는 주요 하천이 화강암으로 이루어진 풍화층을 차별 침식하여 만든 낮은 구릉지와 충적지에 자리한다.¹⁾ 매산동의 서쪽으로는 서호를 지나 남쪽으로 흐르는 서호천이 있으며, 매산동의 동쪽으로는 수원 화성을 관통하여 남쪽으로 흐르는 수원천이 있다. 서호천은 수원비행장의 서쪽을 흐르다가 황구지천과 만나며, 수원천은 수원비행장의 남쪽에서 황구지천으로 흘러들어 간다. 즉 매산동은 서호천과 수원천의 사이에 자리한 곳이다. 그러나 이들 하천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기에는 다소의 거리가 떨어져 있다. 서호천과 수원천의 사이에 형성된 매산동의 시가지 구역은 대체로 저평한 평지로 이루어져 있으며, 매산동의 북쪽은 팔달산의 남서쪽 기슭으로 이어진다.

매산동 일대의 해발고도는 팔달산에서 서쪽의 수원역으로 향하면서 낮아진다. 팔달산 정상 해발고도가 약 145m이고 매산동의 북쪽 경계 부근에 조성된 팔달공원의 해발고도는 약 120m에 달한다. 여기에서부터 서쪽으로 향하면서 경기도청의 해발고도는 76m, 매산로에 자리한 도청오거리의 해발고도는 약 46m, 수원역의 해발고도는 35m 내외이다. 현재의 시가지 모습으로는 매산동의 원래 지형을 확인하기가 쉽지 않다. 이 때문에



그림 5 매산동과 매산로

이 글에서는 시가지 개발이 이루어지기 이전인 1910년대 지형도를 통해 매산동의 본래 지형을 살펴보았다.

1910년대 모습을 보여 주는 <그림 4>에서 수원역의 정면에서 동북 방향으로 뻗어 수원 화성으로 이어지는 도로가 지금의 향교로이다. 1910년대에 향교로 일대는 일부 구역에만 상가와 취락이 들어서 있었고 도로에서 조금만 멀어져도 거의 농경지로 이루어진 전형적인 농촌의 모습이 나타났다. 매산동은 고등동과 경계를 이루는 북쪽이 다소 높고 남쪽이 낮은 형태로 자리한다. 남쪽으로 갈수록 고도가 낮아지고 평탄한 지형이 펼쳐짐에 따라 지금의 수원역 앞쪽에서는 일찍부터 벼농사가 진행되었다. 동시에 지금의 매산로 일대에서도 평지를 활용한 벼농사가 이루어졌으며, 그 북쪽의 고등동 방향으로 구릉지의 토양조건 때문에 벼농사보다는 밭농사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수원역의 서쪽은 서호천의 주변에 넓게 형성된 논이 조성되어 있다. 이와 같은 지형 때문에 매산동 일대는 일찍부터 농경지로 조성되기에 좋은 조건을 갖추었다. 그러나 지금은 농경지를 비롯한 대부분 지역의 토지이용이 대지 또는 도로로 전환되어 과거의 모습이나 지형적 특징을 알아보기 쉽지 않다. 현대의 매산동은 매산로 주변에 상업업무용 건물이 도로를 따라 길게 늘어서 있으며, 그 뒤편으로는 주거지역이 자리한다. 매산동의 주거지역은 대부분 5층 내외의 다세대주택으로 구성되지만, 수원역 동남쪽에는 고층의 아파트단지가 입지해 있다.

3) 수원의 관문, 사통팔달의 도로망

경부선 철도가 수원을 통과하기 이전에는 수원 화성이 수원의 중심지 기능을 수행하였으며, 시가지도 수원 화성 일대에서만 발달하였다. 그러나 경부선 철도가 통과하고 수원역이 지금의 자리에 건립되면서 매산동은 수원의 중심지인 동시에 교통의 요지로 발돋움하였다. 경부선 철도가 수원 화성의 서쪽을 남북으로 가로지름에 따라 수원 화성과 수원역을 연결하는 도로가 부설되고 도로 주변에서는 도시화가 진행되었다. 경부선 철도가 수원 시가지의 구조적 변화를 유발한 중요한 요인으로 등장한 것이다. 수원시를 관통하는 철도를 비롯한 주요 간선도로가 일찍부터 매산동을 지나면서 매산동은 수원을 다른 도시와 연결해 주는 교통 여건이 매우 양호한 지역으로 발전할 수 있었다.

수원은 경부선 철도 개통 이후 수려선 철도(1931년 개통), 수인선 철도(1937년) 등의



그림 6 2002년 수원역 유동인구(수원시 포토뱅크 제공)



그림 7 2000년 수원역 일대 교통량(수원시 포토뱅크 제공)

개통에 힘입어 일제강점기부터 교통의 요지로 기능하였다. 이 3개의 철도가 만나는 지점이 바로 수원역이었다. 수려선은 1930년 12월 조선경동철도주식회사가 남한강변 여주 지방에서 생산된 미곡을 교통 요지인 수원으로 수송하기 위해 건설하였으며, 수원역-여주역에 이르는 73.4km를 운행하였다. 이 철도는 수원역에서 경부선과 교차하여 수원천의 서안을 따라 팔달문의 남쪽으로 이어진 후 용인 방향으로 연결되었다. 수인선은 경기 내륙의 철도교통 요지인 동시에 주변 농촌 배후지로부터 수집된 농산물의 집산지 역할을 하던 수원을 항구도시인 인천에 연결하기 위해 1937년 8월에 부설되었다. 수인선은 수원역-남인천역의 52.8km 구간을 운행하였다.²⁾ 수려선과 수인선은 수원역의 역할을 강화하고 수원역 정면에 펼쳐진 매산동 일대의 시가지 발달을 더욱 촉진시키는 동시에 주변 지역과의 연계를 강화시켜 주는 기능을 수행하였다.

1970년대 들어 고속교통망이 발달하고 자동차의 보급이 보편화하면서 수려선과 수인선은 도로교통과의 경쟁에서 서서히 뒤쳐지기 시작하였다. 이 때문에 이들 두 철도는 사라졌지만,³⁾ 수원역은 경부선 철도를 비롯하여 수도권 광역 전철이 통과하는 주요한 결절점으로 변화하였다. 수도권 전철 1호선은 1974년부터 수원역까지 운행을 시작했으며 2003년부터는 수원시를 통과하여 충청남도 아산시까지 연장 운행하고 있다. 2013년 11월에는 수도권 광역 철도인 분당선이 수원역까지 운행을 시작하였다. 한편 일제강점기부터 1995년 12월까지 운행했던 수인선 협궤철도의 노선과 유사한 경로를 따라 새롭게 복원된 수인선 철도는 2020년에 수원역까지 운행할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수원역이 수인선과 분당선의 중착역으로 편제되는데, 향후 수인선과 분당선이 직접 연결하여 운행하도록 하는 계획도 수립되어 있다. 매산동에 수원역이 자리하고 있어서 교통 여건이 좋다고 할 수도 있지만, 수원시에 철도역이 수원역 하나라는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수원역은 우리나라에서 5번째로 이용 승객이 많은 철도역인 동시에,⁴⁾ 서울 이외의 전철역 가운데 이용객이 가장 많은 역이다.

매산동을 통과하는 간선도로에는 국도 제42호선, 국도 제43호선, 국가지원지방도 제98호선이 있다. 국도 제42호선과 국도 제43호선은 물론 국가지원지방도 제98호선은 수원역에서 매산동 구간을 지나 수원 화성의 팔달문 남쪽에 있는 중동사거리까지 노선을 공유한다. 국도 제42호선은 수원시를 동서로 통과하는 도로로 안산시에서 수원시를 거쳐 용인시로 연결된다. 수원역 북쪽의 서둔동에서 수원역으로 이어져 팔달문 남쪽의 중동사거리에서 동쪽으로 방향을 틀어 용인시로 진입한다. 국도 제43호선은 수원시



그림 8 2000년대 수원역 일대 도로망과 시가지

그림 9 2004년 수원역 일대의 교통량(수원시 포토뱅크 제공)





그림 10 수원역 앞 버스 정류장(수원시 포토뱅크 제공)



그림 11 수원역 앞 버스 정류장(수원시 포토뱅크 제공)

로이며, 수원역 남쪽의 평동에서 수원역으로 이어져 팔달문 남쪽의 중동사거리에서 북쪽의 팔달문으로 연결된다. 국가지원지방도 제98호선은 수원역의 남쪽에서 수원역으로 이어진다.

철도역은 단순히 승객이 열차를 이용하거나 물건을 하역하는 종착지의 개념이었으나, 현대에는 철도역을 중심으로 다양한 상업 및 업무기능이 집적하는 역세권의 구심점으로 작용한다. 철도역에서 대략 500m 반경 내의 지역을 역세권에 포함시킨다. 수원역에 입지한 대형 백화점을 비롯하여 역세권에 자리한 많은 상가로 수원시에서는 수원역의 역세권이 매우 강력하고 활발하다. 따라서 수원역 일대는 유동인구도 많은 지역임에 틀림없다. 수원역 일대로 모여드는 활동인구는 수원시는 물론 인접 도시에 거주하는 사람까지를 포함한다. 이들이 수원역으로 이동하기 용이하게 해 주는 교통수단은 철도뿐만 아니라 육상의 대표적 대중교통 수단인 버스이다. 과거에는 수원역 앞쪽에 버스정류장이 설치되었지만, 현재는 수원역 뒤편에 버스정류장이 설치되면서, 수원역은 철도교통이 여의치 않은 화성 시민이 수도권 광역 전철을 이용할 수 있는 주요한 환승지점이 되었다. 화성 시민뿐만 아니라 수원시에 거주하는 시민들도 수도권 전철이나 일반 철도교통을 이용하기 위하여 수원역으로 모여들면서 수원역은 수원시는 물론 그 주변 도시의 주민들에게 교통수단을 변경할 수 있는 중요한 환승지점으로 역할하고 있다. 수원역 앞은 경기도에서 버스 이용객이 가장 많은 정류소이다.

수원역의 환승기능이 강화됨에 따라 수원역으로 진입하는 버스 노선도 많아졌다. 수원역 주변의 버스승강장은 많은 버스를 수용하고 승객들이 환승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모두 26곳에 설치되어 있다. 수원역의 유동인구는 하루에 50만 명을 넘어서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과거에는 수원역 앞쪽으로 버스정류장이 집중해 있어 수원역 일대의 교통문제가 심각한 수준이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원시에서는 수원역 서편에 수원역환승센터 건립계획을 수립하여, 2014년 7월에 착공하고 2017년 6월에 수원역 환승센터를 개장하였다. 수원역환승센터는 수원역 동쪽 광장에 밀집된 대중교통 정류장을 분산시키기 위해 설치된 것으로, 이를 통해 교통 혼잡의 문제가 해결되면서 교통난이 완화되었다. 수원역환승센터 설치와 더불어 수원역에서의 대중교통 환승 편리도가 높아진 덕분에 수원시는 2017년에 대중교통 시책 평가에서 최우수 지방자치단체로 선정되기도 하였다.

매산동의 가로망을 구성하는 도로의 도로명은 가장 중심이 되는 매산로와 덕영대로를



그림 12 수원역환승센터(수원시 포토뱅크 제공)

비롯하여, 향교로, 갯매산로, 고화로, 효원로, 팔달산로, 세류로, 권선로, 팔달로 등이 있다. 매산동의 서쪽에서 남북방향으로 뻗은 덕영대로가 가장 넓은 도로이다. 수원시의 도로망에서 덕영대로와 매산로가 주간선도로의 기능을 수행하고 효원로와 팔달로는 보조간선도로의 기능을 수행한다. 향교로는 매산로의 북쪽에서 매산로와 평행하게 뻗어 있는 도로이고, 효원로는 매산동의 동쪽에서 경기도청으로 이어지는 도로이다. 권선로를 비롯하여 세류로, 팔달로, 갯매산로 일부는 매산동과 인접 동의 경계 역할을 한다.

근대적 교통수단이라 할 수 있는 철도교통로가 개통된 이후 수원시 이외의 지방에서 수원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수원역을 거치지 않을 수 없었으며, 철도를 이용한 교통은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수원역이 매산동에 자리한다는 데에서 매산동은 수원의 첫 얼굴이라 불리기도 한다. 매산동은 수원역을 통해 외부 지역과 수원을 매개해 주는 역할을 한다는 데에서 수원시의 관문(gateway)이라 불릴 자격이 충분하다.

2. 마을 이름과 행정구역의 변천

1) 마을의 이름

매산(梅山)이라는 이름은 우리나라에서도 전국적으로 분포한다. 매화나무가 많이 자라는 산이라는 의미를 지녀 대체로 구릉지나 산록에 자리한 장소의 이름으로 사용된다. 그러나 수원시 매산동(梅山洞)은 매화나무와 관련된 이름이 아니다. 매산의 '매'자는 매화나무를 의미하는 한자에서 유래한 것이 아니라 물을 의미하는 순우리말의 옛말을 한자로 표기한 데에서 생겨난 이름이다. 이 과정에서 음이 비슷하면서도 뜻이 좋은 매화나무 '매'자를 빌려 쓰게 되었다는 것이다.⁵⁾

매산은 직역하면 '매화의 꽃동산'이라는 의미를 가지지만, 실제 매산동의 지형적 특징이나 자연환경과 연관시켜 해석할 수 없다는 견해도 있다. 그 이유는 마을 이름이 풍수지리에서 땅의 모양을 특정의 동물이나 식물에 빗대어 표현하는 형국(形局)의 관점에서 유래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매산이라는 지명에는 실질적인 자연환경보다 고결한 인격의 도야를 이상으로 삼았던 주관적 환경의 의미를 땅의 이름에 간직하고 싶은 마음이 내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매산동은 주관적 의미를 안고 매화와 연계되어 있으며, 팔달산 기슭에 형성된 골짜기라는 의미를 지닌 '골'이 '되'로 둔갑한 변형의 과정을 밟고 있는 셈이다.⁶⁾

수원시에는 매산동 외에도 매(梅)자와 관련된 지명이 많이 있지만, 이들 모두 매화나무와는 전혀 관계가 없고 물과 관련된 지명이다. 여기에서 잠깐 수원시의 지명에 대해 살펴 보도록 하겠다. 과거 수원의 이름은 모수국(牟水國), 매홀(買忽), 수성(水城), 수주(水州) 등으로 불리었다. '모수'란 글자의 뜻은 각각 보리와 물인데, 보리는 벌(原)의 뜻으로 추정되고 물은 오늘날과 같은 뜻의 물(水)이다. 즉 모수란 이름은 지금의 수원과 같은 의미이지만, 순서만 바뀌었을 뿐이다. '매홀'의 '매'는 『삼국사기』에 따르면 수(水)·천(川)·정(井)의 의미로 번역되어, 공통적으로 물과 관계가 있다. '수성'과 '수주'는 공통적으로 물의 의미를 가진다. '買'이라는 지명은 수원이나 화성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현재는 거의 찾아볼 수 없는 지명이다. 그렇지만 수원에서 사용되고 있는 매향(梅香)·매교(梅橋)·매산(梅山)·매탄(梅灘) 등의 지명에 포함된 '梅'는 '買'와 같은 음을 따서 표기한 지명으로 추정된다.⁷⁾ 따라서 우리가 다루고 있는 매산동의 지명도 물과 관련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2) 행정구역

매산동의 전신이라 할 수 있는 매산리는 1700년대 중반에 처음으로 공식적인 마을 이름으로 사용되기 시작한 듯하다. 1789년(정조 13)에 간행된 『호구총수(戶口總數)』에는 광교면(光敎面) 매산리(梅山里)라는 기록이 있다. 그러나 1831년(순조 31)에 편찬된 『화성지(華城志)』에서는 매산리에 관한 기록을 확인할 수 없는 것으로 보아 18세기에서 19세기로 넘어가던 시기에 매산리는 크게 주목받지 못했던 듯하다. 1789년 수원부의 읍치(邑治)가 옮겨오기 전, 매산동 일대는 수원부에 속하는 한적한 시골 마을이었다. 1789년 9월 수원부의 읍치를 팔달산 동쪽 기슭으로 옮기고, 1796년에는 팔달산 주변 지역의 행정구역이 수원군 남부면과 북부면으로 나뉘었다. 지금의 매산동 일대는 당시 수원군 남부면에 편제되었다.

일제강점기인 1914년 4월 1일에 단행된 행정구역 개편을 통해 수원군 남부면 매산리 일부(경부선 철도 노선의 동쪽)가 수원군 수원면 매산리로 조정되었다. 당시 수원면에 편입되지 않았던 남부면 매산리의 나머지 지역은 일형면(日荊面) 서둔리(西屯里)에 편제되었다. 서둔리는 지금의 서둔동으로 경부선 철도의 서편에 자리하는 곳이다. 이렇게 본다면 조선시대까지 매산리의 공간 범위는 지금보다 훨씬 넓었을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현재 매산동의 행정 경계는 일제강점기인 1914년에 단행된 행정구역 변경에 따라 그 이전 시기 매산리의 일부 지역에 한정하여 획정된 것이다.

1931년 4월 1일 수원군 수원면이 수원읍으로 승격되었으며, 1936년에 매산리는 일본식 행정구역 명칭인 ‘매산정(梅山町)’으로 불리기 시작하였다. 당시의 매산정은 1정목(丁目)·2정목·3정목으로 분할 편제되었다. 해방 후인 1949년 8월 15일 수원읍이 수원시로 승격되고 일본식 행정구역 명칭을 없애면서 매산정 1정목·2정목·3정목은 각각 매산로1가·매산로2가·매산로3가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해방 이후 일제강점기 시가화 구역을 대상으로 설치되었던 행정구역 명칭인 정(町, 초메 또는 마치로 불렸음)은 동(洞)으로 고쳐졌지만, 여러 정목(丁目)을 거느리던 경우에는 정(町)이 로(路)로 바뀌었고 그 하위의 정목(丁目)은 가(街)로 변경되었다. 1963년 1월 1일 행정구역 통합 때, 매산로1가~매산로3가를 통합적으로 관할하는 행정동으로 매산동이 설치되었다.⁸⁾ 1988년부터 수원시에서 구제(區制)가 실시됨에 따라 매산동은 권선구(勸善區)에 편제되었다. 매산동은 2003년에 영통구가 신설되고 수원시의 행정체계가 재구성되면서 권선구에서 팔달구로 소속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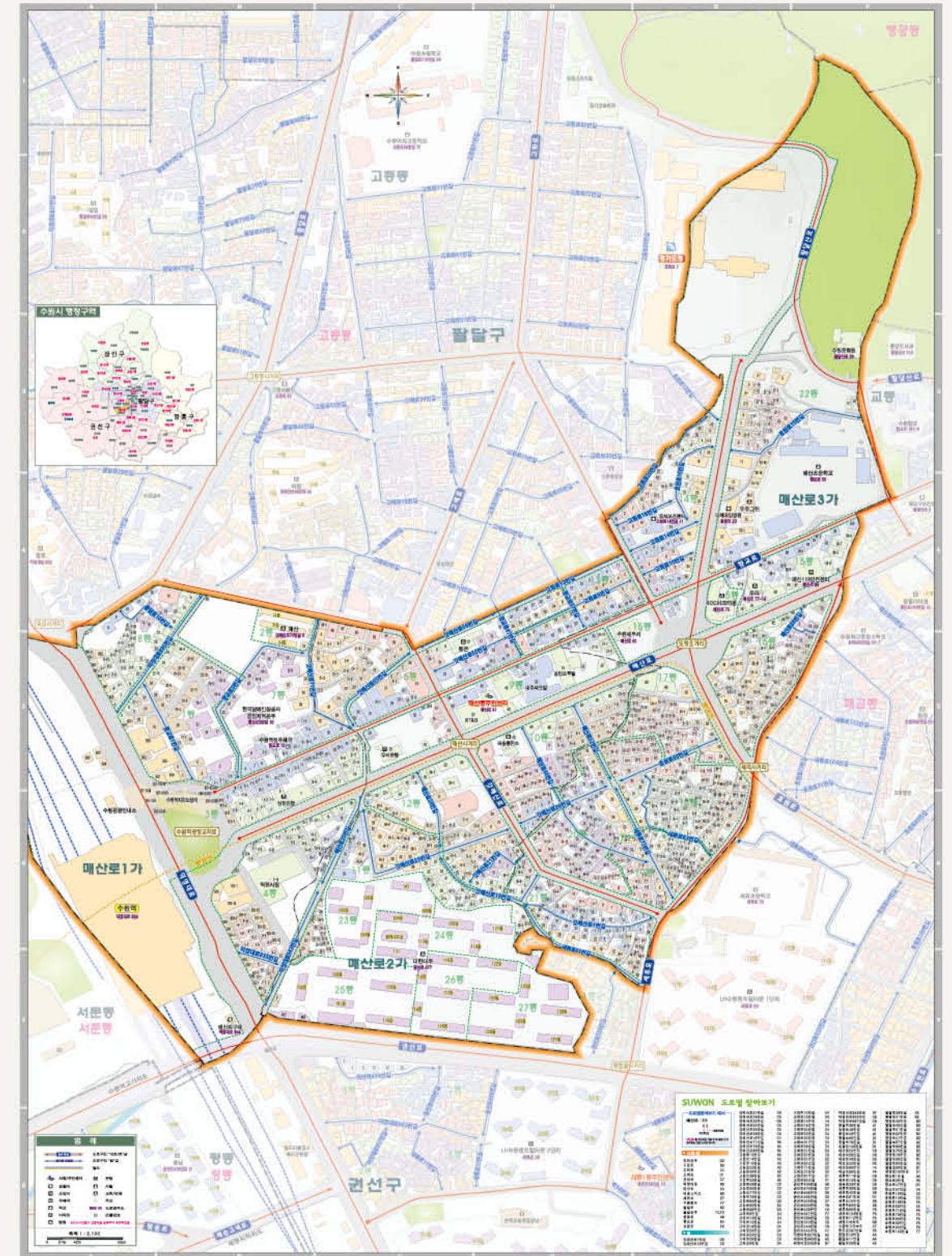


그림 13 매산동 행정구역

변경되어 지금에 이르고 있다. 팔달구는 1993년에 신설되었다.

3. 지도로 보는 매산동의 변화

1) 크게 주목받지 못했던 조선 후기

근대 이전에는 매산리의 존재감이 크지 않았다. <그림 1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조선 후기에도 매산리 일대는 그리 주목받지 못하던 곳이었다. 『1872년 지방지도』는 조선 후기 각 군현의 상황을 묘사한 지도로 수원 화성을 비롯하여 팔달산 남쪽의 향교, 화성을 가로지르는 수원천, 축만제에서 흘러 내려오는 서호천 등이 명확하게 표기되어 있다. 『대동여지도』는 전국을 그린 지도이므로 당시 수원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보여 주지는 못한다. 1800년대 후반에 제작된 두 지도에는 매산동을 지나 서둔으로 이어지는 도로가 표기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를 통해 매산동이 일찍부터 수원 화성과 수원의 서부지



그림 14 조선 후기 수원부와 매산동
왼쪽은 『1872년 지방지도』 「수원부」이고 오른쪽은 『대동여지도』이다. 원으로 표시된 곳이 지금의 매산동이다.

역을 연결하는 교통로에 위치한 곳이었음을 짐작할 수 있지만, 존재감은 크지 않았던 것 같다.

『구한말지형도』는 일본의 간첩대가 1880년대 우리나라의 상황을 조사한 후 1894년부터 제작했던 지도인데, 이 지도에서는 매산이라는 마을의 이름을 비롯하여 매산동 일대의 당시 지형적 특성과 토지이용을 개략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그림 15). 『구한말지형도』는 우리나라에서 조선시대에 제작된 지도에 비해 정확하고 상세하게 그려진 지도로 축척이 1/50,000인 대축척지도이다. 당시 수원의 중심지는 수원 화성과 그 주변이었다. 수원 화성 주변 지역은 팔달문 남쪽에서 형성되었던 문밖마을이 대표적이다. <그림 15>에서 보는 바와 같이, 팔달문 남쪽의 문밖마을은 수원천을 따라 남북 방향으로 길게 자리 잡았다.

수원 화성의 서쪽으로 고등촌과 매산리가 보인다. 고등촌은 지금의 고등동에 해당한다. 고등촌의 남쪽에 있는 매산리는 집단적인 시가지나 취락이 형성되어 있지 않고 소수의 가옥들이 산재하는 형태로 묘사되었다. 매산리를 중심으로 남쪽의 세동(細洞, 지금의 세류동)과 북쪽의 고등촌으로 이어지는 조그마한 도로가 나 있으며, 동쪽으로는 수원향교를 지나 팔달문으로 향하는 도로가 나 있다. 세동에서 매산리의 동쪽을 지나 수원 화성으로 통하던 당시의 도로는 현재까지도 그대로 남아 있으며, 지금의 세류로에 해당한다. 세동에서 매산리를 통과하여 고등동으로 향하던 도로는 지금의 갯매산로이다. 당시 매산동은 저평한 토지를 배경으로 벼농사가 활발하게 이루어졌으며, 동측의 팔달산 기슭과 골짜기에서는 일부 밭농사가 이루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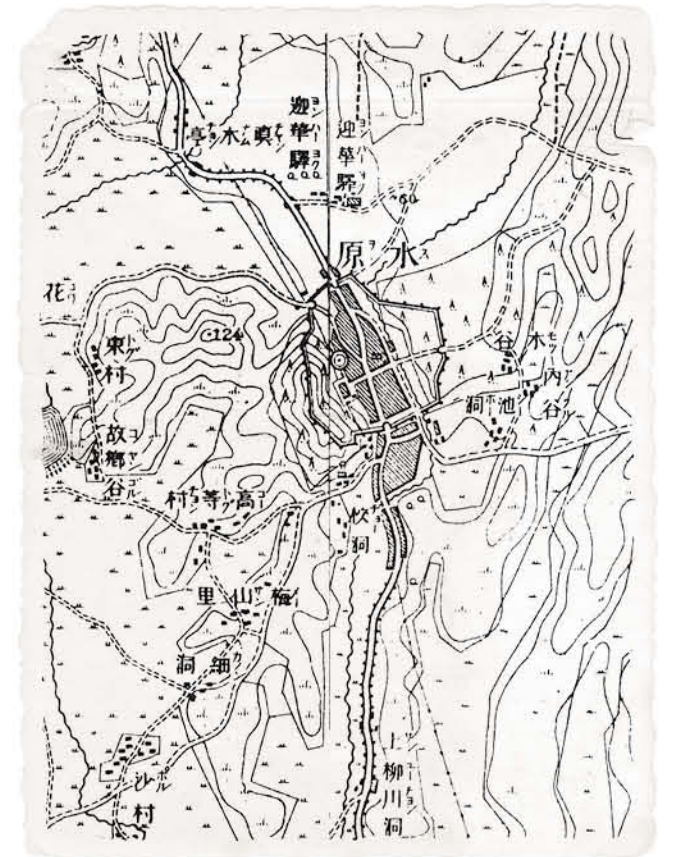


그림 15 1880년대 매산동 일대(『구한말지형도』, 「남양」, 「수원」)

2) 경부선 개통과 시가지 형성기

경부선 철도가 개통한 이후 매산동은 많은 변화를 경험하였다. 20세기 초반 가장 유용한 교통수단은 철도였으므로, 수원으로 진입하거나 수원을 떠나는 사람은 매산동을 거치지 않을 수 없었다. 철도 교통로는 일반 자동차 교통로와 달리 기존 시가지를 둘로 나누는 분리 기능을 수행하는 경향이 강하지만, 1900년대 초반 수원 시가지는 화성과 그 주변에 제한적으로 발달했던 관계로 경부선 철도는 수원시 도시공간의 분리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지는 못하였다. 단지 수원에서는 교통수단 접근성 또는 시가지 발달 및 경제활동이라는 관점에서 수원에서는 국적에 따른 주거지 분화가 미약하게나마 나타나면서 거주공간의 분리가 진행되었을 뿐이다. 즉 편리한 교통수단에 접근하기 용이한 수원역과 그 일대는 일제강점기 당시 한국인보다는 일본인 또는 외국인들이 주로 점유하였으며, 한국인들은 수원 화성 일대에 주로 거주함으로써 국적에 따라 분리된 주거공간이 형성된 것이다.

수원역 일대에 상업활동이 입지한 것과 더불어 일제강점기 수원에는 공업단지가 들어서기 시작하였다. 수원은 조선시대에 건설된 수원 화성을 중심으로 시가지가 들어섬에 따라 오랜 기간 동안 폐쇄적 공간으로 발전했지만, 경부선 철도 개통과 함께 도시공간이 서쪽 방향으로 평면적인 확장을 하면서 개방적 구조로 변화하였다.⁹⁾ 즉 매산동은 수원시가지가 근대 도시의 기반을 다지고 평면적으로 팽창하는 데에 프런티어 역할을 수행하게 된 것이다.

오래전부터 수원에서는 농업이 발달하였다. 1921년에는 수원 일대의 수리시설을 정비하고 주변의 농경지에 관개용수를 공급하는 사업이 실시되었으며 수리조합을 설립하여 관리하도록 하였다. 또한 농사개량을 위한 사업도 실시하였는데 매산리의 동산농장(東山農場)을 비롯하여 수원역 북쪽에 자리한 국무농장(國武農場) 등지를 대상으로 농사개량을 실시하였다.¹⁰⁾ 일본인 대규모 농사회사로 식민지 농업경영을 실시했던 동산농사주식회사(東山農事株式會社) 소유의 동산농장은 1907년 북수리에 본부를 설치하고 매산리와 그 주변의 대규모 토지를 소유하였다. 동산농장은 1912년부터 지동 일대에서 식민지 경영을 하며 새로운 농업기술을 보급하였으며, 1919년 이후에는 매산리에 사무실을 두고 농장을 경영하였다(그림 16).¹¹⁾

매산동 일대에서는 농업뿐만 아니라 금융업도 일찍부터 발달하였다. 1918년 10월 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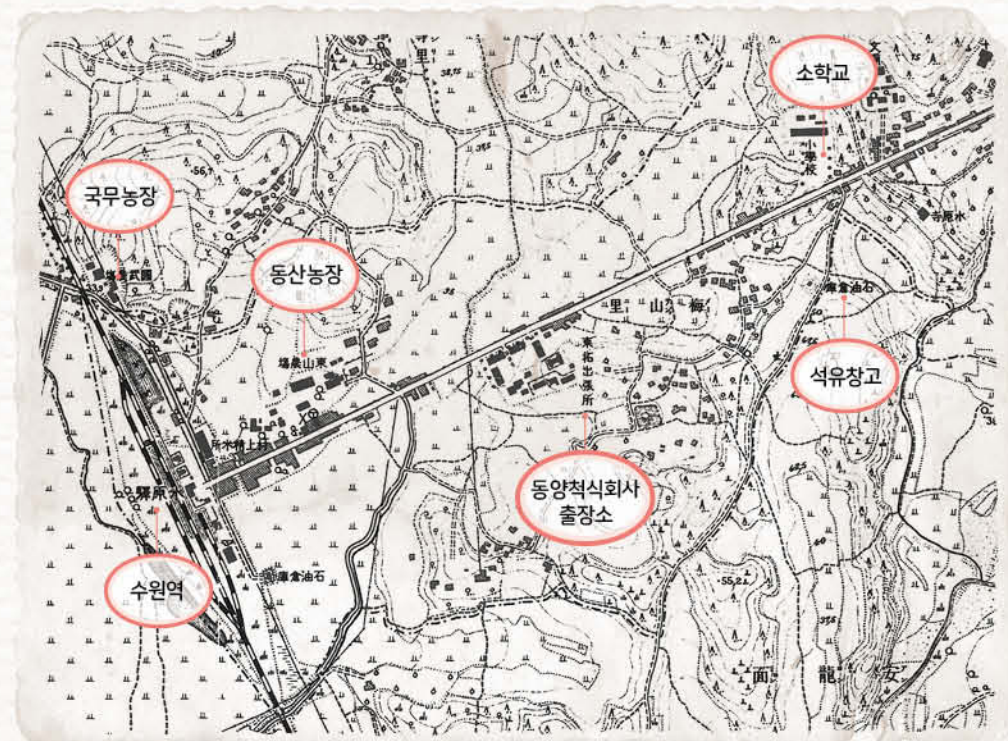


그림 16 1910년대 매산동과 그 주변 지역



그림 17 1910년대 향교로(사카이 마사노스케, 『발전하는 수원』, 1914)

립된 조선식산은행(朝鮮殖産銀行)은 1918년 12월에 매산리에 은행 파출소를 설립하였고, 이 파출소는 이듬해 4월에 조선식산은행 수원지점으로 승격하였다. 매산리에 은행 지점이 들어선 것만 보더라도 당시 매산리의 경제활동이 활발하여 돈이 잘 돌았음을 알 수 있다. 조선식산은행은 1952년 한국산업은행에 흡수되었다. 이와 동시에 수원역 동쪽에서는 일본인의 상업활동이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그들은 상점을 열거나 숙박업소를 운영하기도 하였고 건축업·운수업·정미업·식당 등의 분야에서 영역을 확장해 나갔다. 이와 같은 경제활동은 수원역과 그 주변 지역을 일본인의 시가지로 발전시키는 기폭제 역할을 하였으며, 수원역에서 팔달문으로 이어지는 매산로 주변이 상가와 주택으로 이루어진 시가화 구역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3) 1940년대 최초의 도시계획 수립

우리나라에서는 1934년에 수립된 ‘조선시가지 계획령’에 근거하여 최초의 현대식 도시계획이 시작되었지만, 수원시에서는 1944년에 최초로 수원시가지 계획이 결정되었다. 1944년 8월 10일 고시(총독부고시 제1053호)된 시가지 계획구역의 면적은 29.39km²이었다. 매산동은 당시 수원도시계획구역에 포함되어 도로가 정비되고 신규의 도로가 개설되었다.

일제강점기에 매산동은 수원역과 화성 사이를 잇는 향교로를 따라 상업이 번창하고 밀집 시가지가 형성되면서 변화한 시가지로 발전한 반면 향교로에서 거리가 있는 고등동 방향의 산록과 팔달산 기슭은 큰 변화를 겪지 않았다(그림 18). 향교로를 따라 시가지가 확장되면서 향교로 남쪽에도 향교로와 평행하게 수원역에서 교동에 이르는 구간에 새로운 도로가 개설되었다. 이 도로는 지금의 매산로이다. 그 도로는 1932~1936년에 도로 개설 공사가 진행되었다. 당시 공사에서는 산을 깎아 내는 과정에서 일부 구간이 붕괴되어 많은 인명 피해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수원역에서 세류동의 남쪽을 돌아 수원천을 따라 남문 주변의 문밖마을로 이어지는 수려선의 철도 노선과 인천으로 연결되는 수인선의 노선도 1940년대 지도에서는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다. <그림 18>에 제시된 지도 가운데 A는 1945년에 미군이 작성한 지도로 지명 표기는 우리나라의 발음과 일본식 발음이 병기되어 있다.¹²⁾ 지도 B는 우리나라에서 1957년에 간행된 것인데, 지도에 포함된 지리정보는 1945년에 미군이 제작한 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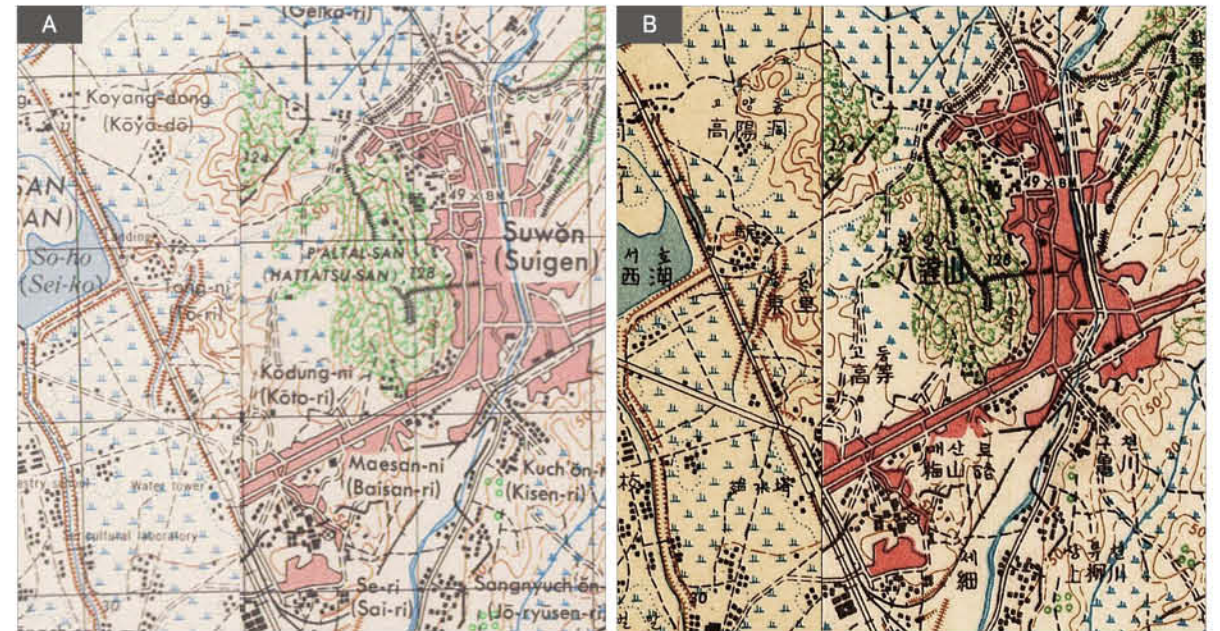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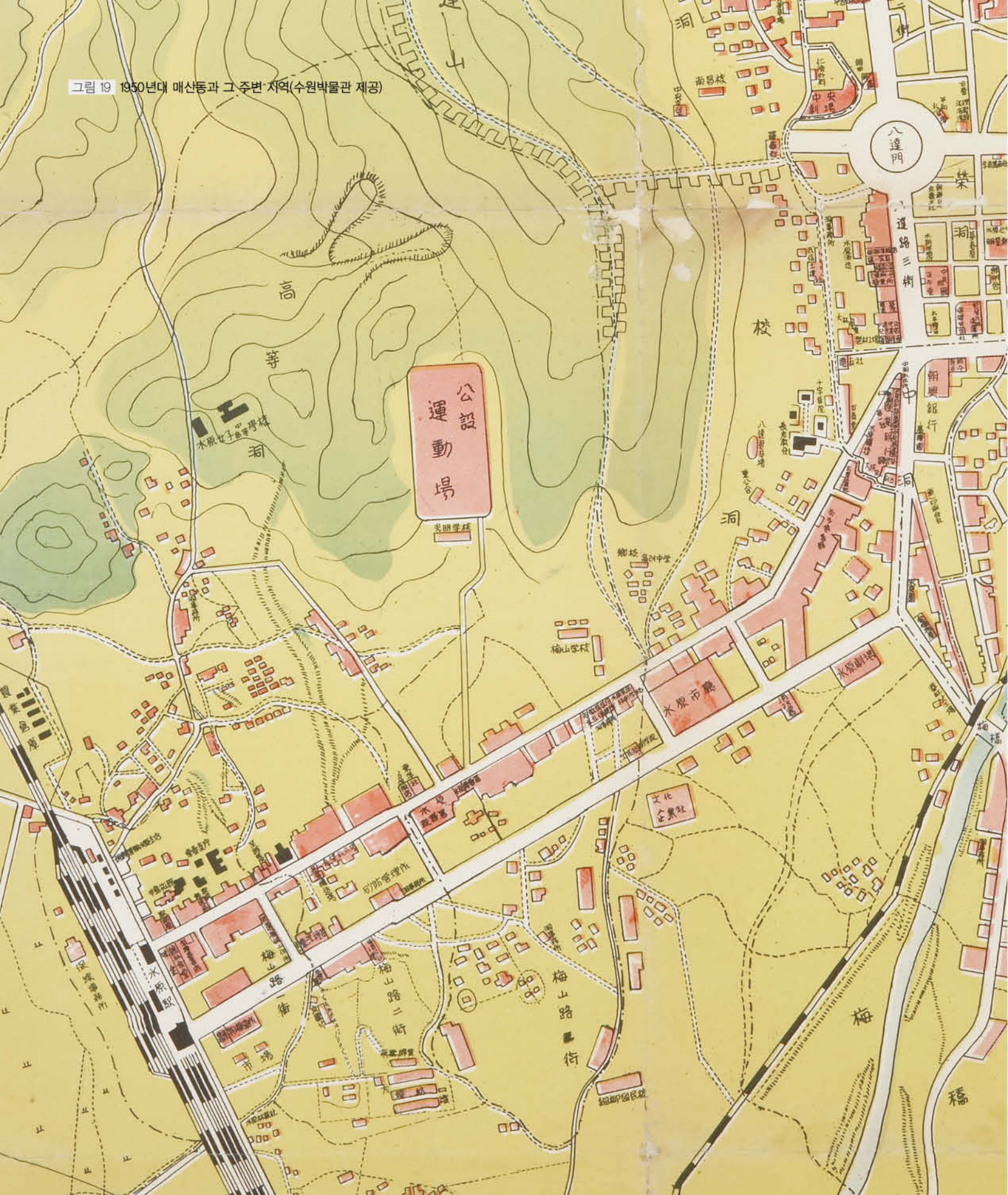


그림 18 1945년 매산동과 그 주변 지역

의 것과 거의 동일하다. 지명이 한글로 표기된 이 지도에는 각 법정동의 명칭이 기록되어 있고, 매산동은 법정동의 명칭인 매산로라고 기록되었다. 매산동의 남쪽에 자리한 세류동은 당시의 세동(細洞)과 상류천동(上柳川洞)이 합쳐진 것이다.

상주인구 및 유동인구가 많았던 수원 화성의 문밖마을에서 수원역 사이에는 생필품을 거래하던 시장이 여러 곳에 형성되었다. 매산동에서는 수원역에서 접한 매산로 남쪽의 매산로1가에 매산시장(현 역전시장)이 개설되었다. 매산시장은 수원시에서 영동시장에 이어 두 번째로 개설된 상설시장이다. 시장이 개설된 시기는 1949년 2월 5일로 알려져 있지만, 실제 시장이 문을 연 시기는 그보다 앞선 1948년 12월이었다. 1948년 12월 14일자 『동아일보』에 “매산시장 상인들이 기성회를 조직하고 장세걸 씨가 주축이 되어 1948년 6월부터 공사비 천여 만 원을 들여 근대식 점포 113호를 신축하여 같은 해 12월 6일 시장이 완성되었으며, 12월 19일부터 상설시장으로 시장을 열고 개장식을 한다.”라는 기사가 게재되었다.¹³⁾ 그뿐만 아니라 1949년 12월 24일에 발행된 『자유신문』에서도 수원 매산시장이 개시 1주년을 맞아 기념식을 실시한다는 기사에서 12월 29일에 개장 1주년 기념식을 거행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1955년 당시 매산시장에는 154개의 점포가

그림 19 1950년대 매산동과 그 주변 지역(수원박물관 제공)



입점해 있었을 정도로 규모가 컸다.¹⁴⁾ 매산시장은 1969년 9월에 역전시장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4) 1950년대 한국전쟁 이후 시가지 복구

1950년대는 우리나라의 대부분 도시가 전쟁의 피해를 입어 도시시설의 대부분이 파괴되었다가 재건되기 시작한 시기이다. 매산동 일대에서도 도시시설이 일부 사라지고 새롭게 재건되었지만 시가지의 모습과 도로망은 그 골격을 이전과 비슷하게 유지하였다. 〈그림 19〉는 1950년대 수원역과 매산동의 시가지 모습이다. 수원역은 경부선뿐만 아니라 수인선과 수려선의 종착점 역할을 하였기 때문에 철도가 여러 개 부설되어 있으며, 동쪽으로는 매산로와 향교로가 선명하게 확인된다. 이 중 실질적인 시가지와 상업시설 등은 대로인 매산로보다 향교로에 더욱 집적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향교로는 1905년 수원역 개설 이후 수원 화성과 수원역을 잇는 중심 도로 역할을 하며 그 주변으로 금융 및 인쇄 등의 주요 사업체가 설치되었던 데 비해 매산로는 1930년에 개설되었지만 수원시청이 이전해 온 1956년 이후에 중심 도로로서 기능하게 된다.

수원시는 1950년대 초반 한국전쟁으로 인한 피해가 복구되기 시작하면서 인구가 증가하고 도시적 모습을 갖추기 시작하였다. 특히 수원 화성 및 수원역 주변으로 인구가 집중하면서 수원역에서 수원 화성으로 이어지는 지금의 매산로 일대가 빠르게 성장할 수 있게 되었다. 1967년에는 중앙정부의 승인을 받은 최초의 수원도시계획이 수립되어 농업 위주의 경제체제에서 자주경제 확립을 위한 농공병진 정책을 도모하고, 시가지 구역을 대상으로 용도지역을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공원 및 녹지 등으로 세분화함으로써 현대적인 도시로 발전할 수 있는 골격을 마련하였다. 당시 매산동 대부분 지역은 용도지역이 상업지역으로 지정되었고, 북쪽 일부가 주거지역으로 지정되었다.

5) 1970년대 이후 본격화한 도시화

수원에 있던 경기관찰부가 1910년 12월 서울로 옮겨간 후 경기도의 행정중심지는 서울이었다. 그러나 해방 이후인 1946년 서울이 특별시로 지정되면서 서울에 있던 경기도청이 서울을 떠나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에 자리했던 경기도

청은 1967년 6월 23일을 기해 수원으로 다시 옮겨오게 되었다. 새로 건립된 경기도청은 <그림 19>에 표기된 공설운동장 부지인 수원시 매산로3가에서 1964년 10월 15일 기공식이 거행되었다. 경기도청이 매산동에 들어섬에 따라, 매산동은 행정기능을 비롯한 상업기능이 집적하는 한편 수원역에서 화성의 남문에 이르는 구간은 다른 지역에 비해 빠른 도시화를 경험할 수 있었다.

수원시의 도시계획구역이 1967년에 83.67km²로 넓어지면서, 기존의 수원 화성을 중심으로 한 기성시가지와 수원역 주변에 한정되어 수원의 시가지는 주변부로 서서히 확산되어 나가게 되었다. 당시의 도시계획에서 수립된 도로에는 대로 1개소가 포함되었는데, 그 대로가 바로 매산로이다. <그림 20>에서 보는 것처럼 매산로는 수원시의 중요한 주간선도로로 기능하였다.

1970년대에도 수원시에서는 여러 차례에 걸쳐 도시계획이 수정되고 구역의 면적도 변경되었다. 매산동에 적용된 도시계획은 1976년에 수정된 바 있다. 당시 수원시의 도시규모가 매우 빠르게 성장하자 도시 내의 주거환경을 보전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추구할 필요가 있어 매산로3가 경기도청 앞 일대에 지정되었던 상업지역의 일부를 주거지역으로 조정한 것이다.

수원시의 도시계획은 1980년대 들어 개발 위주의 정책으로 전환되었다. 이는 기성시가지의 충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장소에서 신규의 시가지를 개발하는 것이었다. 결국 수원의 중심시가지 역할을 수행했던 수원 화성 주변 지역과 매산동 일대의 경제활동이 위축될 수밖에 없었으며, 매산동과 그 주변 지역은 쇠퇴의 길을 걷기 시작하였다. 이는 매산동의 인구가 1980년대에 감소했던 사실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수원시청을 비롯한 공공기관의 이전과 신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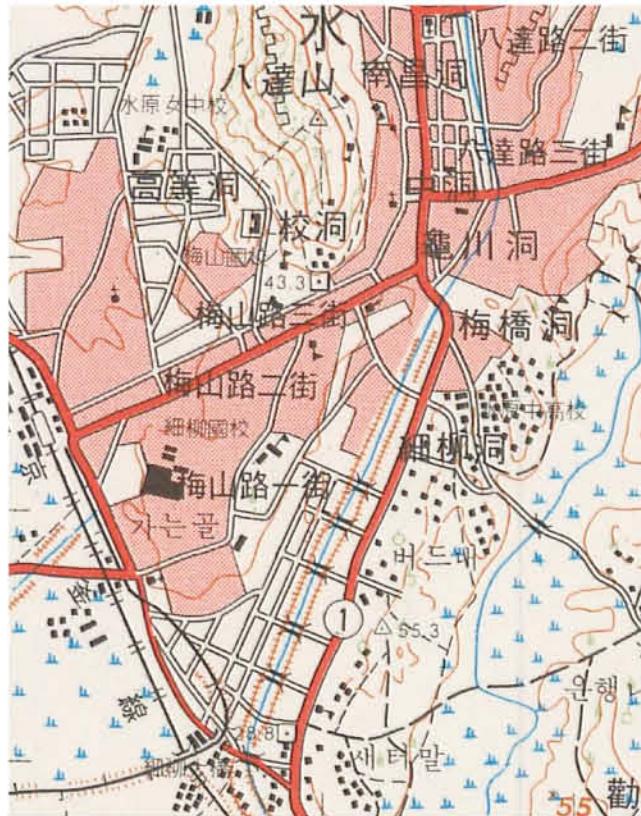


그림 20 1974년 매산동과 그 주변 지역



그림 21 1964년 경기도청 유치 축하 퍼레이드가 펼쳐지고 있는 매산로(이병희 유족 제공)



그림 22 1967년 수원시청(교동)-역전간 도로(매산로) 확장공사 기공식(국가기록원 제공)



그림 23 1977년 수원역 일대(수원박물관 제공)



그림 24 1979년 수원역 광장(수원박물관 제공)



그림 25 1987년 역전시가지(수원박물관 제공)

로 개발된 북수원·서수원·동수원에서의 도시화로 수원시 중심부는 급속한 공동화가 진행되면서 침체현상을 보인 것이다. 특히 도시의 중심부에서는 인구 및 산업의 이전에 따른 도심 공동화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는데, 수원시에서는 수원 화성의 팔달문에서 수원역에 이르는 구간의 침체가 가장 현저하였다.

6) 2000년대 도시공간 재편

서울대도시권에서 진행되고 있는 서울 탈출현상은 경기도에 자리한 도시의 성장을 유발하였다. 수원시 역시 서울대도시권의 탈도시화 과정에서 2000년대 들어 인구 규모 및 도시 규모가 크게 확대되었다. 수원시는 2002년에 인구 백 만 도시가 되었다. 수원시의

그림 26 대한방직 자리에 들어선 대한대우아파트



전체적인 성장과 더불어 매산동도 외형적으로는 꾸준히 발전하는 모습을 나타내었다. 제조업체가 다른 지역으로 빠져 나가고 교통문제를 비롯한 소음과 공해 문제를 유발하던 시외버스터미널과 고속버스터미널도 외곽으로 이전하였다. 그리고 기존 제조업 부지는 신규의 공동주택단지로 탈바꿈하였다. 수원시의 도시확장과 신시가지 개발에 따른 도시공간의 재편은 기존 중심지에 입지해 있던 다른 기능까지도 외곽으로 이전시키는 요인이 되었다.

수원역 앞에 있던 대한방직이 이전해 가면서 그 부지에는 1,239가구가 입주할 수 있는 대우아파트가 건설되었다. 1954년 10월 수원역 앞에 설립되었던 대한방직 수원공장은 일본인이 건설한 전직공장 부지에 미국의 원조원면과 정부의 외화대부 특혜가 결합되어 만들어진 면방직공장이다. 그러나 고도의 토지이용이 이루어지는 도시 중심부는 상대적으로 토지이용의 효율이 낮은 제조업의 입지로 적

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도시공간의 효율적 구성에 장애로 인식되기 때문에, 넓은 부지를 필요로 하는 제조업은 도시 외곽에 입지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시외버스터미널이나 고속버스터미널과 같이 수원 이외의 도시로 연결되는 버스정류장도 수원역 앞과 같은 도시 중심부보다는 간선도로나 고속교통망에 접근이 용이한 도시 외곽지역이 최적의 입지이다. 매산동은 토지이용의 효율이 낮은 도시시설 철거나 이전으로 과거에 비해 좀 더 효율적인 토지이용이 가능해졌으며, 2000년대 이후 수원역 주변의 매산동에서는 공간 재편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수원역이 2003년에 민자역사로 개장하면서 매산동에 큰 변화가 발생했다고 할 수 있다. 민자역사로 개발되고 대형 백화점이 들어서면서 매산동은 수원에서 상업은 물론 교통의 중심지로 거듭날 수 있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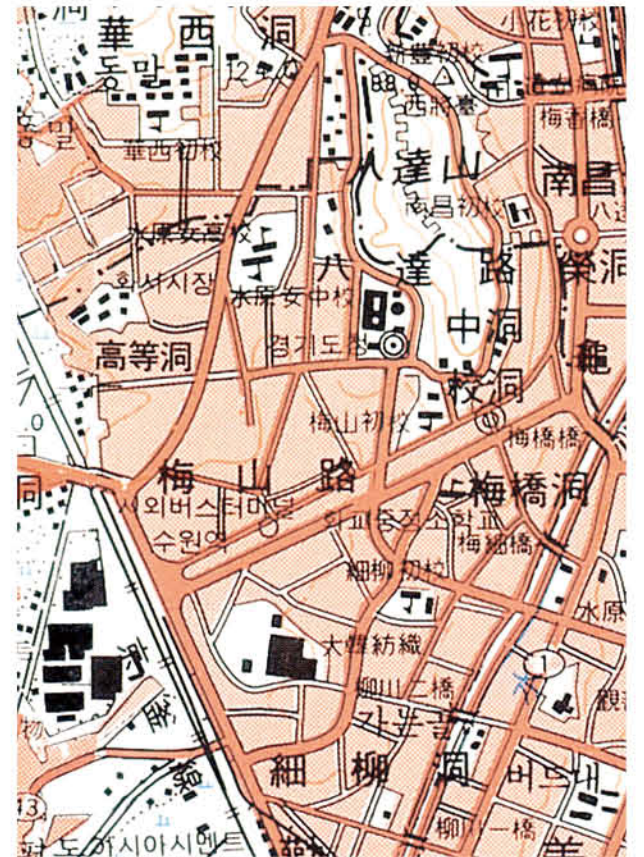


그림 27 2000년 매산동과 그 주변 지역



그림 28 수원역 일대 건물(수원시 포토뱅크 제공)

매산동의 토지이용이 변화하고 새로운 도시시설이 입지했음에도 불구하고 매산동의 일부 구역은 30~40년 전의 도시공간이 그대로 유지되면서 체질 개선이 필요한 상황에 직면하였다. 수원시 구도심의 쇠퇴가 지속됨에 따라 수원 화성의 주변 지역은 1970년대 까지 유지하던 중심지로서의 명성을 1980년대 들어 빼앗기게 되었으며, 도심 침체에 따라 기존에 수원의 중심업무지구는 점차 침체 국면에 빠지게 되었다. 수원시의 원도심과 접해 있는 매산동에도 원도심 침체의 그림자가 침입해 오기 시작하였다. 특히 매산동과 그 주변에 입지해 있던 공공기관이 다른 지역으로 이전해 감에 따라 매산동 일대에서는 공동화현상이 나타나는 동시에 주거여건의 침체와 더불어 상주인구의 감소현상까지 경험하였다.

수원시에서는 도시공간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개발하기 위해 2000년대 들어 도시 관리의 패러다임을 변경할 수밖에 없었다. 기존 하향식의 도시개발을 지양하고 주민 중심의 도시 관리정책을 구상하기에 이르렀다. 수원역에서 수원 화성으로 이어지는 구도심 일대의 체질을 개선하고 새로운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2000년대 중반부터 본격적인 택지개발사업을 추진하였다. 1970년대부터 점진적으로 시작된 토지구획정리사업이



그림 29 이전을 앞둔 경기도청 청사(수원시 포토뱅크 제공)

마무리된 지 35년이 지난 시점에서 도시 기반시설과 주거시설의 노후화가 수원시 도시 발달의 커다란 걸림돌이 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낡고 노후한 도시공간을 새로운 도시공간으로 재구조화함으로써 현대적인 도시공간을 조성하고 살기 좋은 마을로 바꾸기 위한 시도가 도시 중심부에서 진행되었으며, 매산동 역시 일부 구역의 도시시설이 노후화함에 따라 시가지의 체질을 개선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본격화하였다.

수원시 매산동에 자리한 경기도청의 이전 계획이 점차 구체화되고 있다. 1967년에 지금의 매산동에 터를 잡았던 경기도청 청사는 2020년이 되면 광교신도시로 이전할 예정이다. 경기도청의 이전은 단순히 공공기관의 위치 이동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도청 주변 지역의 상권 붕괴 및 도시 침체를 부추기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1990년대 수원역을 기반으로 경기 남부권의 상업 중심지로 성장했던 매산동과 그 일대의 수원 원도심은 지속적으로 인구가 감소하고 도시시설물의 노후화가 결합되면서 점차 침체될 것임은 자명한 사실이다. 경기도와 수원시는 협약을 체결하여 도청 주변 지역의 도시재생과 도청사 이전에 따른 도심 공동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매산동 일대를 대상으로 도시재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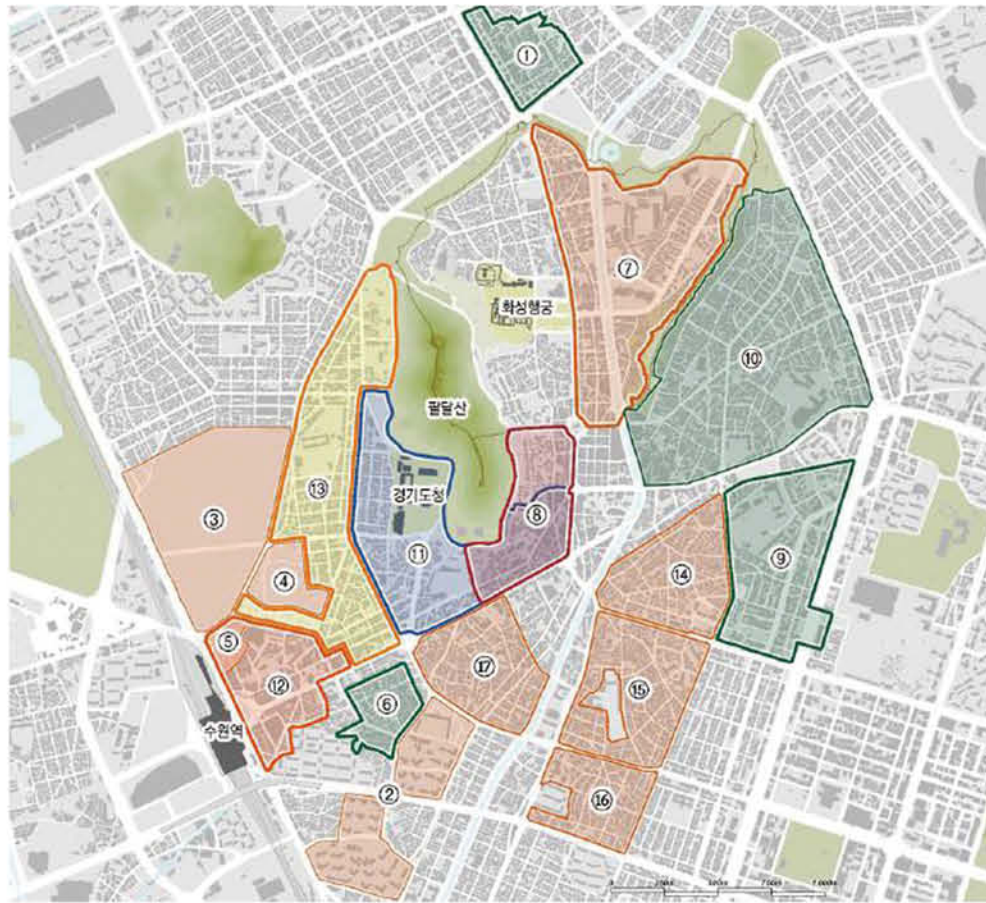


그림 30 수원시 도시정비 및 도시재생사업 현황(이태희, 『경기도청 주변지역 활성화 방안연구』, 수원시정연구원, 2018)
매산동 지역에는 ⑤ 성매매집결지 도시환경정비사업 ⑥ 매산동 도시르네상스 사업 ⑪ 경기도 도시재생 공모사업
⑫ 수원역전 도시재생뉴딜사업 ⑬ 저층주거지 등 도시재생사업이 계획되어 있다.

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하였다. 특히 경기도형 도시재생사업지구에 선정된 매산동 일대 44만㎡와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뉴딜사업지구에 포함된 매산동 일대 19만 7,800㎡의 부지에 막대한 자금을 투입하여 체계적인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이렇게 되면 매산동 일대는 주거환경이 개선되고 주민들의 삶의 질도 훨씬 향상될 것이며 문화역사 자원 등의 장소자산을 적극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지역정체성을 확립하고 침체된 상권이 되살아날 것이다.

4. 토지이용과 경제활동

1) 고도의 도시적 토지이용

매산동의 지역성 변화는 각종 활동의 변화를 통해 알아볼 수 있으며, 도시 내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활동은 토지이용의 변화를 수반한다. 즉 지목별 토지이용의 구성이 어떻게 변화하였는지를 분석함으로써 매산동의 지역성 또는 경관 변화를 확인할 수 있다. 토지의 주요한 사용 목적을 알려 주는 지목별 구성에는 도시적 토지이용을 보여 주는 요소와 비도시적 토지이용을 보여 주는 요소가 있다. 도시적 토지이용은 대지·학교 용지·도로·주차장 등을 통해서 확인하고, 비도시적 토지이용은 전·답·임야·과수원·목장 등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앞에서 확인한 것처럼 행정동 매산동은 관할구역의 면적이 0.81km²에 불과하다. 이 면적은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0년대 들어 조금 확장된 것이고, 1990년대 이전까지는 0.70km² 수준이었다. 매산동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토지이용은 상업용 건물이나 주거용 건물이 들어선 대지이다. 대지의 면적은 1980년에 0.43km²에서 2015년에는 0.47km²로 소폭 증가하였다. 대지의 면적은 증가했지만, 매산동 전체에서 대지가 차지하는 비중은 1980년에 61.7%이었던 것이 2015년에는 58.3%로 감소하였다. 같은 기간 수원시 전체에서는 대지의 비중이 1980년의 15.7%에서 2015년에는 26.3%로 증가하였다. 매산동은 이미 1970년대 이전부터 도시화가 진행된 수원의 중심시가지였기에 도시적 토지이용이 탁월하게 나타난 반면, 수원시 전체적으로 1980년대 이후에 대대적인 도시화가 진행된 차이점이 있다.

도시적 토지이용의 또 다른 지목은 도로이다. 매산동에서 도로의 면적은 1980년대 이후 증가 추세이다. 2010년대 들어 소폭 감소하였지만 변화는 크지 않았다. 매산동의 도로 면적이 차지하는 비중은 18.6%이었던 것이 2015년 들어 18.1%로 비중 역시 크게 변화하지 않았다. 수원시 전체에서 도로가 차지하는 비중이 2005년에 10.0%를 넘어섰고 2015년에 12.3%임에 비추어 보면 매산동은 도로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큰 마을이다. 매산동은 도시적 토지이용의 대표적인 두 요소라 할 수 있는 대지와 도로가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은 편이다. 이 외에 학교용지나 주차장 등의 토지이용 비율도 낮은 수준이다.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저층 건물의 수평적 확장보다는 고층 건물 위

표 1 매산동 지목별 구성의 변화

(단위 : m²)

구분	합계	전	답	대지	도로	기타
1980년	매산동 703,618	2,894	15,340	433,941	131,099	120,344
	수원시 63,584,014	12,806,152	20,096,839	9,995,711	3,528,764	17,156,548
1985년	매산동 771,818	13,278	1,396	433,945	133,723	189,476
	수원시 96,713,658	13,211,931	20,797,473	11,844,592	4,277,942	46,581,720
1990년	매산동 771,788	12,044	1,306	426,455	151,824	180,159
	수원시 105,562,273	11,416,409	20,065,070	17,532,191	7,485,691	49,062,912
1995년	매산동 761,157	9,490	1,180	419,385	148,881	182,221
	수원시 121,221,272	14,007,472	24,747,204	19,354,190	8,603,447	54,508,959
2000년	매산동 769,514	8,054	1,180	425,568	149,338	185,374
	수원시 121,128,060	12,020,697	20,642,767	23,124,144	10,579,503	54,760,949
2005년	매산동 819,171	5,776	1,180	474,242	151,521	186,451
	수원시 121,051,987	10,701,822	17,633,564	25,819,522	12,062,530	54,834,549
2010년	매산동 809,200	5,020	0	472,214	146,466	185,500
	수원시 121,008,573	10,012,138	15,884,535	26,982,028	12,931,979	55,197,893
2015년	매산동 810,202	4,305	0	472,214	146,555	187,128
	수원시 121,050,957	7,815,704	11,455,469	31,850,890	14,832,533	55,096,361

출처 : 수원시, 『수원 통계연보』, 각 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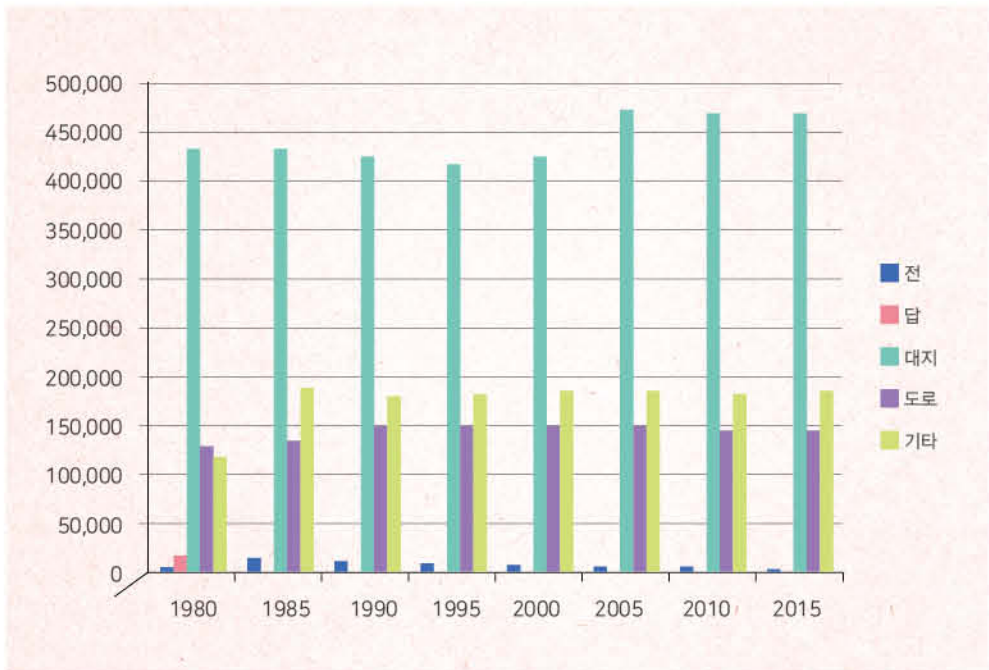


그림 31 매산동 지목별 구성의 변화

주의 수직적 확장을 통해 시가지를 추진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주택으로 따져보면 5층 내외의 중저층 건물보다는 고층의 아파트를 건설함으로써 토지이용의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대부분 도시에서 도시 중심부에 자리한 주택은 층고가 높지 않은 저층 주택이 일반적이다. 2018년 1월 기준으로 매산동에 입지한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세대수는 아파트 1,787호, 연립주택 55호, 다세대주택 961호 등 모두 2,803호이다. 한편 2018년 1월 기준 매산동의 세대수는 6,016세대이다.¹⁵⁾ 이렇게 보면, 매산동에 거주하는 전체 세대의 46.6%가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셈이다.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세대의 비율이 낮은 수준은 아니지만, 매산동에 있는 공동주택의 속성을 고려하면 토지이용은 그다지 효율적이지 않다고 볼 수 있다. 2016년 12월 기준으로 매산동에는 5층 이상의 공동주택이 2곳에 자리하고 있다. 하나는 매산로1가에 있는 매산아파트인데, 이 아파트는 1978년 9월에 입주를 시작했으며 5층 건물에 모두 30세대가 거주하는 아주 소규모의 공동주택이다. 다른 하나는 수원역 앞의 대한방직 수원공장 부지에 건설된 대한대우아파트로, 1999년 12월부터 입주를 시작한 이 아파트는 12층 높이로 건설되어 1,293세대가 거주하는 대형의 공동주택이다.¹⁶⁾ 이들 두 개의 주거단지를 제외하면 매산동에는 대부분 3층 내외의 다세대주택이나 단독주택이 자리하고 있다.

매산아파트의 건축 연대가 1978년이라는 의미는 건물의 노후화가 진행되었음을 내포한다. 매산아파트뿐만 아니라 매산동에 산재하는 다세대주택과 단독주택, 그리고 도로변을 메우고 있는 여러 상업용 건물의 건축 연대가 매우 오래되었다는 점은 매산동 시가지의 건강한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임에 분명하다. 이와 더불어 어린이공원·근린공원·체육공원 등의 공원시설이 매산동에는 전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점도 아쉬움으로 남는다. 수원시의 각동이 지니고 있는 사회·경제적 속성을 토대로 등질지역 구분을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매산동은 1990년대에 수원시 중심부에 위치한 전통적 주택지역의 성격이 강했지만,¹⁷⁾ 2000년대 들어서는 주거기능과 상업기능이 혼재하는 마을로 변모하였다.¹⁸⁾ 수원의 도시 발달 과정에서 초기에 시가지가 형성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또는 수원의 중심 시가지로 기능함에도 불구하고 상업지역으로서의 성격보다는 주택지역으로서의 성격이 훨씬 강했던 것이다. 매산동의 상업기능은 수원역 주변을 비롯하여, 매산로와 향교로에 접한 도로변에서는 비교적 탁월한 편이지만, 상업시설의 이면에는 대체로 주거지역이 조성되어 있다. 주거지역은 도시개발의 역사가 오래된 탓에 도로망은 폭이 좁은 미로형으로 발달했으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주택의 하향여과가 진행되면서 주거환경도 점차 열악



그림 32 2018년 매산동 시가지(김승일 제공)

해지는 모습이 나타난다.

지금도 건축 연대가 오래된 저층의 건물이 대부분이지만, 1980년대만 해도 매산동에서 가장 높은 건물이 5층 건물이었다고 한다. 그 이전인 1960~1970년대에는 매산동 주민들이 농사를 짓지 않으면 먹고살 만한 다른 방법을 찾기도 어려웠다고 전해진다. 매산동은 수원역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물건을 팔기 위해 상인들이 모여드는 장소였지만, 1970년대 이전에는 상가 건물이 제대로 구비되지 못해 난전을 벌이거나 도로변의 1층짜리 점포에서 상업이 발달하였다.¹⁹⁾ 그러던 상황이 급변하게 된 것은 수도권 전철이 수원역까지 운행하게 된 1980년대이다. 수원역 주변의 유동인구가 급증하면서 나름의 현대식 건물이 들어서고 매산로를 따라 수원역에서 남문으로 이어지는 도로변의 상권은 더욱 확대되었다. 매산동에 자리한 건축물의 대부분은 건축된 지 30년 이상 된 노후한 것이다. 따라서 낡고 노후한 건물을 신규의 건물로 대체함으로써 침체되어 가는 매산동을 재생하고 동시에 수원시 원도심 일대의 도시재생도 시도해야 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수원역 인근의 성매매 집결지를 정비함으로써 건전한 토지이용을 토대로 건강한 도시공간을 만들어 가야 할 것이다.

1950년대 중반 이후 꾸준히 도시화가 진행된 매산동에서 비도시적 토지이용은 거의 확인할 수 없다. 매산동에서 비도시적 토지이용을 대표하는 농경지를 구성하는 논과 밭의 비중은 모두 0.5%에 불과하다. 수원시에서 분포하는 논과 밭의 비중이 총 15.0%에 달하는 것을 고려하면 매산동의 토지이용은 나름 고도의 도시적 토지이용이라 할 수 있다. 수원시는 거대 도시로 성장했음에도 농경지가 많이 분포한다. 서호천과 황구지천 주변에 넓게 조성된 벼농사 지대가 대표적이고 광교산 자락과 저평한 구릉지에서는 밭농사도 활발한 편이다. 매산동에도 농경지는 있었다. 1910년대 모습을 보여 주는 지도〈그림 4〉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 매산동과 고등동의 경계부에 해당하는 구릉지는 대부분 지역이 농경지이거나 임야의 성격이 강하였다. 그러나 도시화가 진전되면서 기존의 농경지가 대지나 도로 등의 도시적 토지이용으로 전용되면서 매산동에서는 전과 답에 해당하는 토지가 점차 사라지기 시작했으며, 임야로 분류되는 지목은 2005년 이후 완전히 사라졌다. 현대 도시의 중심부에서 농경지가 분포한다는 것은 지극히 일반적인 현상은 아니다. 그 이유는 토지이용의 효율을 고려하면 도시 중심부에서 농업용 토지이용의 효율이 가장 낮기 때문이다. 반면 토지이용의 효율이 가장 높은 것은 상업업무용 토지이용이며 이는 곧 시가지를 구성하는 토지이용의 대부분이 대지로 이루어짐을 의미한다.

밭농사가 이루어지는 전(田, 밭)은 1980년에서 1985년 사이 매산동의 행정 경계가 확



그림 33 수원역 일대 용도구역

장되면서 면적이 일시적으로 증가하였지만 시가지가 구릉지로 확산되면서 점차 사라져 2015년에는 매산동 전체 면적의 0.5%에 해당하는 곳만이 밭으로 분류되었다. 1985년에는 매산동에서 밭의 비중이 1.7%까지 상승한 바 있다. 수원시에서 밭의 면적은 꾸준히 감소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밭이 차지하는 비중은 6.5%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벼농사가 이루어지는 답(畓, 논)은 2010년 이후 매산동에서 자취를 감추었다. 지목상 논으로 분류되었지만 실질적으로 벼농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수원시의 도시화가 본격화하지 않았던 1950~1960년대에는 매산동에서도 논을 구경하는 것이 어렵지 않은 일이었지만 1980년을 기점으로 매산동의 평지는 매우 급속한 도시화를 경험하였다. 즉 지금의 매산로 주변의 시가지가 확장되고 새로운 건물이나 주택단지가 조성되면서 평지에 많이 있던 논은 사라질 수밖에 없었다. 매산동에서 1980년에 논 비중은 2.2%이었던 것이 지속적으로 감소하였다.

2)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매산동의 시장

수원시에 등록된 전통시장은 모두 22개소이다. 전통시장에는 등록시장과 인정시장이 포함되는데, 수원시의 등록시장 3곳 가운데 한 곳이 매산동에 있는 역전시장이다. 그리고 인정시장 19곳 가운데 매산동에는 3개가 자리한다. 매산동에 입지한 인정시장은 역전지하도상가시장, 매산로테마거리상점가, 매산시장이다.²⁰⁾ 인정시장이란 상인회원이 50명 이상인 시장이다.

이 가운데 역전시장은 수원의 관문 역할을 하는 수원역 앞에 자리한 시장으로, 시장이 처음 문을 열었던 1948년에는 매산시장으로 불렸다. 그 후 1969년 역전시장으로 시장명을 변경하고 사설시장으로 허가를 받았다. 교통이 편리한 수원역에 자리하고 있는 관계로 수원시민은 물론 인근 도시의 시민까지도 역전시장을 이용하고 있어, 역전시장은 경기 남부의 대표적인 시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게 되었다. 이 시장은 일반적인 전통시장과는 달리 두 개의 상가건물에 들어서 있고, 점포수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점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지만 아직까지도 240개의 점포가 들어서 있고 종업원수는 300명에 달할 정도로 규모가 큰 시장이다.²¹⁾ 주요 취급 품목은 농수축산물과 공산품이다.

수원역지하도상가시장은 2006년 12월 18일 수원시의 인정시장이 되었다. 이 시장이 들어선 자리는 본래 차도 건너편의 수원역으로 통하는 지하도였다. 지하도에 자연스럽게 상가가 들어서면서 대형 시장으로 성장하게 된 것이다. 1990년대 말까지는 의류·잡화 등 패션 관련 업종이 많았지만, 근처에 백화점이 들어서면서 휴대폰 전문상가로 업종이 전환되었다. 수원역지하도상가시장은 2015년 10월부터 시설 현대화사업을 통해 대대적인 리모델링 공사를 마치고 2016년 5월에 재개장하였다. 노후 시설을 보수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 동시에 업종 변경을 실시하여 새로운 공간으로 재도약을 꿈꾸고 있다. 80여 개의 점포가 들어서 있으며 종업원수는 180여 명에 달한다.

매산로테마거리상점가는 2007년 10월 31일 인정시장이 되었다. 매산로테마거리는 수원역 앞쪽의 향교로를 따라 펼쳐진 변화가로 주로 젊은 연령층을 상대하는 수원시의 대표 거리이며 수원의 명동으로 불리기도 한다. 점포수는 220개이고 종업원수는 230명을 조금 넘는다. 주요 취급품은 의류와 공산품이며 다수의 음식점이 자리하고 있다. 시장이 운영된 지 10년이 조금 넘었지만 젊은이들이 많이 찾는 곳인 만큼 특유의 활기가 넘치는 곳이다. 매산로테마거리는 10년 넘게 자동차가 통행하지 않는 차 없는 거리로 운영되고 있다.



그림 34 역전시장 입구



그림 35 수원역지하도상가



그림 36 매산로테마거리상점가

매산시장은 2011년 1월 10일 수원시의 인정시장이 되었다. 매산시장은 역전시장의 동쪽에 자리하고 있는 재래시장이다. 인정시장으로 등록되기 이전인 50여 년 전부터 매산시장이 운영되었다. 특히 매산동과 그 주변 지역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을 위한 다문화 음식거리가 조성되어 있는 점도 매산시장만의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주변에 다문화 인구가 증가하면서 그들을 대상으로 물건을 파는 점포가 늘어나는 추세이다. 매산시장에는 100개 이상의 점포가 입점해 있으며 종업원수는 200명을 넘는다. 주로 취급하는 품목은 농수축산물과 공산품이다.

2015년부터 수원역 앞에서 운영 중인 4개 시장을 통합하여 고객들에게 더욱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려는 시도가 진행되고 있다. 매산동에 자리한 수원역전상권상인회(역전시장, 수원역지하도상가시장, 매산로테마거리상점가, 매산시장)에서는 매산동의 상업을 발달시키고 더욱 활기찬 시가지로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매산동의 상권을 되살리기 위

한 상인회의 시도는 도시의 물리적 재구조화만으로는 침체되어 가는 장소를 활성화할 수 없다는 인식하에 지역 주민을 비롯한 다양한 주체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새로운 도시재생 모델이라 할 수 있다.



그림 37 매산시장 입구

3) 서비스업 중심의 경제활동

한 지역의 경제적 활력을 측정할 수 있는 가장 단순한 지표는 지역 내에 입지하고 있는 사업체와 종사자의 규모이다. 수원시에서는 1997년부터 각 행정동 단위로 산업대분류에 따른 사업체수와 종사자수에 대한 조사가 실시되었으므로 그 이전 시기를 대상으로 매산동의 경제활동 입지를 알아보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매산동에 입지한 사업체수는 1996년 2,235개에서 2016년에는 2,776개로 증가하였다 〈표 2〉. 전반적인 추세는 사업체수가 증가하는 경향이지만 2001년에는 1,972개까지 감소한 적도 있다. 즉 2001년을 저점으로 사업체수는 다시 증가 추세로 전환된 셈이다. 수원시 전체에서는 1996년에 4만 6,199개이던 사업체가 2016년에 7만 4개로 증가하는 동안 사업체수가 줄어든 해는 단 한 번도 없었다. 2000년대 초반까지 매산동에서 사업체수가 감소한 것은 매산동만의 특수한 상황이 아니라 매산동을 비롯한 수원시의 기성시가

표 2 매산동에 입지한 부문별 사업체수의 변화

(단위 : 개)

산업 분류	1997년	2000년	2005년	2010년	2015년	2016년
전 체	2,186	2,055	2,107	2,232	2,754	2,776
제조업	121	95	97	86	84	73
건설업	27	20	18	13	32	33
도매 및 소매업	671	561	567	631	1,000	996
운수업	71	74	65	41	58	56
숙박 및 음식점업	788	707	665	635	723	730
금융 및 보험업	19	22	19	31	33	28
부동산업 및 임대업	125	42	61	89	91	96
사업지원 서비스업	—	122	161	89	103	106
공공행정 및 사회보장 행정	12	7	7	7	6	7
교육서비스업	40	50	56	101	93	94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21	20	40	68	80	81
기 타	291	335	351	441	451	476

출처 : 수원시, 『수원 통계연보』, 각 연도.

비고 : 1997년에는 사업지원 서비스업 부문이 별도로 조사되지 않았다.



그림 38 매산동 사업체

지에서 나타난 일반적인 현상이다. 이와 같은 현상은 중심시가지에 자리한 경제활동이 수원시의 도시공간 재편과 함께 중심부에서 주변의 신규 개발지역으로 이전해 나감에 따라 나타난 것이다.

2005년 이후 매산동에서의 경제활동 입지는 활기를 되찾아 가는 모습을 보인다. 전체 사업체수는 2010년에 2,232개로 증가하였고 최근인 2016년에는 2,776개를 기록하였다. 산업대분류 방식에 따라 매산동의 사업체를 살펴보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업종은 도매 및 소매업 부문이다. 도매 및 소매업의 비중은 1997년에 전체 사업체의 30.7%를 차지하였다가 일시적으로 감소한 후 2015년에는 36.3%까지 상승하였고 2016년에는 35.9%를 기록하였을 정도로 매산동은 상업활동이 매우 활발한 지역이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수원시 전체에서 도매 및 소매업체수 비중이 25% 내외임을 고려하면, 매산동의 상업 발달을 짐작할 수 있다. 그 외의 부문에서는 숙박 및 음식점업의 비중이 크다. 숙박 및 음식점업은 2000년대에 업체수가 감소 추세를 나타내기도 했지만 2015년에는 다소

표 3 매산동에서 경제활동에 종사하는 사람의 업종별 변화

(단위 : 명)

산업 분류	1997년	2000년	2005년	2010년	2015년	2016년
전 체	9,197	8,156	10,995	12,452	14,800	15,047
제조업	293	251	407	185	173	173
건설업	344	96	140	140	220	347
도매 및 소매업	1,654	1,456	1,965	2,327	3,032	3,000
운수업	453	580	285	135	238	223
숙박 및 음식점업	2,099	1,942	2,259	2,640	3,305	3,314
금융 및 보험업	245	161	142	466	543	424
부동산업 및 임대업	868	136	270	350	316	313
사업지원 서비스업	—	591	1,720	965	1,440	1,615
공공행정 및 사회복지 행정	2,125	1,597	2,113	2,385	2,650	2,669
교육서비스업	186	370	385	750	604	603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145	162	244	557	564	523
기 타	785	814	1,065	1,552	1,715	1,843

출처 : 수원시, 『수원 통계연보』 각 연도.

비고 : 1997년에는 사업지원 서비스업 부문이 별도로 조사되지 않았다.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숙박 및 음식점업 사업체수는 2005년까지 도매 및 소매업보다 많았지만 2015년부터는 전세가 역전되어, 그 비중은 1997년의 36.1%에서 2016년에는 26.3%로 감소하였다. 매산동에 입지한 경제활동은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으로 대변된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이들 업종의 규모가 크며, 뒤를 이어 사업지원 서비스업, 부동산업 및 임대업, 교육서비스업, 제조업 등의 부문에서 사업체수가 많다.

매산동의 사업체에 종사하는 사람의 수는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1만 명을 넘어서지 못했지만, 사업체 입지가 활발해진 2005년부터 1만 명을 상회하기 시작하였다. 종사자수는 1996년에 9,330명이었다가 2000년 들어 8,156명으로 감소하였지만 2005년부터 빠르게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표 3>. 매산동의 종사자수 규모가 가장 작았던 시기는 2000년이다. 2016년 기준으로 1만 5,047명에 달한다. 사업체당 평균 종사자수는 1997년에 4.2명이었던 것이 2016년에는 5.4명으로 늘었다.

종사자수가 가장 많은 부문은 사업체수가 가장 많은 숙박 및 음식점업이고, 그 뒤를



그림 39 수원세무서



그림 40 수원세무서 앞 사업체

이어 도매 및 소매업이다. 숙박 및 음식점업 종사자수는 2016년에 3,314명이고 도매 및 소매업 종사자수는 3,000명으로, 매산동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22.0%와 19.9%이다. 이들 두 업종의 종사자수 규모는 앞에서 살펴본 사업체수 규모와 다소 다른 양상을 보인다. 사업체수는 도매 및 소매업이 가장 많았지만, 종사자수는 그렇지 않은 이유는 매산동에 자리한 도매 및 소매업이 소형 상가 위주로 구성되기 때문이다. 사업지원 서비스업 종사자 규모도 1,615명으로 많은 수준이다.

종사자 분포에서 특징적인 점은 공공행정 및 사회보장 행정 부문의 종사자수가 매우 크다는 것이다. 이 부문의 종사자가 매산동 전체 종사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97년에 23.1%로 다른 업종에 비해 가장 규모가 컸으며, 2016년에는 그 비중이 17.7%를 기록하였다. 이 부문의 사업체수는 1997년에 12개에서 2016년에는 7개로 감소하였다. 즉 매산동에 공공기관 종사자수가 많이 분포하다는 의미인데, 이는 경기도의 행정을 총괄하는 경기도청을 비롯하여 수원세무서 등이 매산동에 자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업체수와 업종별 종사자수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매산동은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공공행정 및 사회보장 행정, 사업지원 서비스업이 상대적으로 특화된 반면, 제조업을 비롯하여 운수업, 금융 및 보험업 등은 입지가 미약한 수준이다. 매산동은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이고 일찍부터 상업활동이 전개되었다는 지리적 특성이 결부되면서, 소비자에게 직접적으로 재화와 서비스를 공급하는 소비자서비스가 수원시의 다른 지역에 비해 잘 발달한 반면 소비자와 생산자를 매개하는 역할을 해 주는 생산자서비스업의 발달은 상대적으로 더딘 편이다.

5. 매산동에 터전을 잡은 사람들

1) 2010년 이후 다시 감소하는 인구

1950년대 이전 매산동의 인구 규모를 정확하기 파악하기는 쉽지 않다. 과거의 기록에 따르면 1920년 수원군 수원면 매산리에는 277호가 거주한 것은 알 수 있다.²²⁾ 당시 수원군에는 277개 리가 편성되어 있었는데 그 가운데 200호 이상 거주했던 마을이 9개에 불과했음을 고려하면, 매산리의 인구 규모는 상당히 컸을 것으로 짐작된다. 수원역을 중심



그림 41 매산동 인구 규모의 변화

으로 상업활동이 이루어지고 수원역과 매산로 일대에 유입된 외국인의 규모도 상당했기 때문이다.

수원시를 구성하는 동별 인구를 알려 주는 현존 자료 가운데 가장 오래된 기록은 1957년 12월의 인구를 정리한 『시세일람(市勢一覽)』이다. 당시 수원시에 거주하던 한국인은 7만 3,646명(남자 3만 5,427명, 여자 3만 8,219명)이었다. 매산동은 매산로1가~매산로3가로 구분되어 인구 자료가 조사되었는데, 각 동별 인구는 매산로1가 2,910명(남자 1,398명, 여자 1,512명), 매산로2가 1,876명(남자 914명, 여자 962명), 매산로3가 2,625명(남자 1,250명, 여자 1,375명)으로 매산동 전체의 인구는 7,411명(남자 3,562명, 여자 3,849명)에 달하였다. 3개의 동을 통합한 매산동의 인구는 당시 수원시에서 세류동(7,788명)과 지동(7,447명)에 이어 세 번째로 큰 규모였다. 수원시에는 1957년에 412명의 외국인이 거주했는데, 매산동에는 모두 97명(남자 52명, 여자 45명)이 거주했을 정도로 매산동은 외국인의 규모도 상대적으로 큰 마을이었다.

우리나라에서 인구총조사가 시작된 시기는 일제강점기인 1925년이지만, 수원시 매



그림 42 주거기능과 상업기능이 혼재된 매산동

산동의 인구 자료를 자세하게 확인할 수 있는 시기는 1960년부터이다.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매산동의 인구 변화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1960년부터 증가하기 시작했던 인구는 1980년에 1만 2,863명을 기록했다가 이듬해에 1만 2,826명으로 감소하기 시작하여 1998년에 7,994명까지 감소하였다. 1999년부터 다시 증가하기 시작하여 2010년에 1만 2,889명으로 정점을 기록한 이후 2011년에 1만 2,552명으로 감소하여 2017년까지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다(그림 41).

1980년 이후 꾸준히 감소하던 인구가 1999년부터 증가한 이유는 수원역 앞에 건립된 대한대우아파트의 입주가 1999년부터 본격화했기 때문이다. 매산동의 인구가 1980년을 정점으로 감소한 것은 매산동과 그 주변 지역의 침체에 따른 현상으로 볼 수도 있고 일반적인 도시 중심부에서 발생하는 상주인구의 공동화현상에 따른 결과로도 볼 수 있다. 중심시가지의 주거환경이 열악해지고 상업업무용 토지이용이 확대되는 가운데 기존 거주민들이 도시 외곽부로 이전함에 따라 상주인구가 감소한 것이다. 상주인구의 감소는 도

시공간을 최적으로 활용하지 못하게 하는 요인이기도 한데, 이러한 문제는 대한방직 수원공장 자리에 대규모의 아파트단지가 들어서면서 어느 정도 해결되었다.

2011년부터 다시 인구가 감소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매산동이 처한 현실을 잘 반영해 준다. 앞에서 본 것처럼 매산동에서는 2000년대 들어 사업체 입지가 활발해지면서 상업업무 활동의 중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 매산동은 주거기능과 상업기능이 혼재된 일종의 주상복합지역으로 분류되었는데, 2000년대 중반 주거기능이 다소 약한 반면, 상업기능이 강한 성격을 보이기도 했지만 여전히 주상복합지역의 성격을 강하게 보여 준다. 2010년대에는 상업활동의 입지가 활발해지면서 상업기능이 주거기능을 압도하는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기존의 주거지가 상업용지로 전용되거나 신규의 주거시설이 제대로 공급되지 못하면서 주거여건이 점차 열악해진 것으로 보인다. 매산동에서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본격화한 이유도 일부 구역의 도시시설이 노후화하고 주거여건이 악화되는 상황을 극복함으로써 매산동을 살기 좋은 마을로 변모시키기 위함이다.

2) 남자인구가 많아지는 고령사회

매산동에 살고 있는 인구집단의 속성은 <그림 43>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고령화가 점진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과 남자인구가 많은 사회로 변화하고 있다는 점으로 요약할 수 있다. 65세 이상의 노년층 인구는 2000년에 626명에서 2015년에는 1,456명으로 증가했으며 2017년 말에는 1,626명으로 증가하였다. 같은 기간 전체 인구는 2000년의 8,485명에서 2015년 1만 1,261명, 2017년 1만 1,065명으로 변화했고, 노인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2000년의 7.4%에서 2015년 12.9%, 2017년 14.7%로 상승하였다.²³⁾ 이 기간에 수원시 전체의 노인인구 비율은 4.3%에서 8.5%로 증가하는 데 그쳤다. UN이 정한 기준에 따르면 매산동은 이미 2000년에 노인인구 비율이 7%를 상회하는 고령사회(aging society)에 진입했으며 2017년에는 노인인구 비율이 14%를 넘어선 고령사회(aged society)에 들어섰다. 이는 매산동의 고령화가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도시 중심부에 자리한 매산동의 지리적 특성을 잘 반영해 준다. 일반적으로 도시 중심부일수록 기동력이 약한 노인인구가 많이 거주하기 때문이다. 이와 동시에 주민들의 평균연령도 상승하였는데, 2000년의 34세에서 2015년에는 42세로 높아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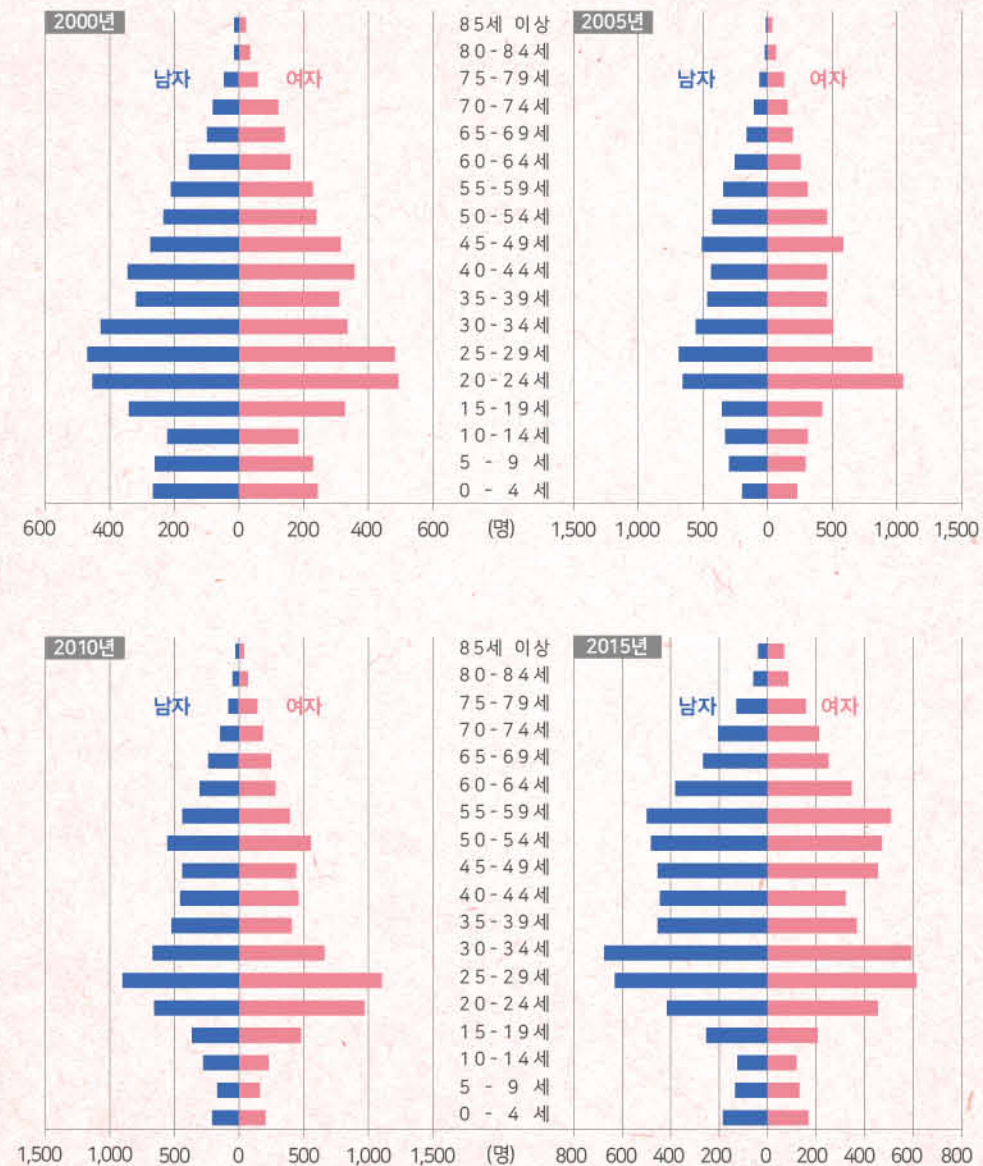


그림 43 매산동의 성별·연령별 인구 구성 변화

매산동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평균연령이 상승하고 고령화가 진행된 또 다른 배경은 15세 미만에 해당하는 유소년층의 절대적인 감소이다. 유소년층 인구는 2000년에 1,402명에서 2005년에 1,608명으로 증가했지만 이후 2010년 1,243명, 2015년 854명, 2017



그림 44 역전시장 상인회 경로당

년 762명으로 급격히 줄어들었다. 유소년층의 비중은 2000년에 16.5%를 기록했던 것이 2015년에는 7.6%로 감소했는데, 2017년에는 7%의 벽이 무너진 6.9%에 머물렀다. 한편 경제활동인구로 분류되는 청장년층(15~64세)도 2010년 1만 841명으로 정점을 찍은 후 계속해서 감소하여 2017년에는 8,677명을 기록하였다. 청장년층의 인구 비중은 2010년까지 꾸준히 상승하여 81.7%까지 올라갔지만, 2015년에는 79.5%, 2017년에는 78.4%로 감소 추세를 나타내었다.

성별 구성에서도 변화가 있었다. 매산동은 2000년까지만 해도 남녀별 구성 비중이 거의 비슷했는데, 2005년이 되면서 여자인구가 압도적으로 많아졌다. 여자인구 100명당 남자인구의 수를 의미하는 성비가 2000년에는 97.8을 기록하여 남자인구(4,195명)에 비해 여자인구(4,290명)의 규모가 조금 컸다. 그러나 2005년에는 성비가 89.8로 급감하였다. 여자인구(6,470명)의 규모가 남자인구(5,808명)의 규모에 비해 월등하게 커졌기 때문이다. 2010년에도 여자인구(6,972명)의 규모가 남자인구(6,304명)를 크게 앞질렀으며, 성비는 90.4를 기록하였다. 당시에는 25~29세층과 20~24세층에서 남녀 간 격차가 특히 크게 형성되었다(그림 43). 여초현상은 남자인구 6,157명, 여자인구 6,160명으로



그림 47 외국인 비율이 높은 매산동

인구가 많아지고 있다는 사실도 매산동의 발전에서 간과해서는 안 될 중요한 변수이다.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에 착안하여 노인 친화적 도시공간을 창출하고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다양한 해법을 모색해야 할 필요가 있다.

1990년대 이후 세계화시대를 맞이하여, 외국인을 보는 것이 장소를 불문하고 어렵지 않은 일이 되어 버렸다. 수원시는 오래전부터 외국인이 거주하기 시작했던 도시이며, 수원시의 중심 시가지를 형성했던 매산동에도 일찍부터 외국인이 정주하기 시작하였다. 1950년대에 100여 명에 불과했던 매산동의 외국인 규모는 현재 2,300명을 상회한다. 수원시의 외국인 비율이 3% 수준인 데 반해 매산동의 외국인 비율은 17%를 넘어선다. 매산동은 물론 인접한 지역에서 외국인에 의해 만들어진 경관을 보는 것은 매우 쉬운 일이다. 외국인에 의해 다문화경관이 많이 등장하고 있음을 고려하면 매산동은 한국인은 물론 외국인에게도 살기 좋은 마을로서 자리매김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다문화사회를 받아들이고 국적을 초월하여 모든 시민이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도시공간을 창출하는 것도 매산동을 살기 좋은 마을로 발전시키는 데 중요한 과제일 것이다.

- 1) 수원시사편찬위원회, 『수원시사 1 : 수원의 지리적 환경』, 2014, 42~43쪽.
- 2) 수원시사편찬위원회, 『수원시사 1 : 수원의 지리적 환경』, 2014, 488~489쪽.
- 3) 수려선은 1972년에 폐선되었고, 수인선 협궤철도는 1995년 폐선되었다.
- 4) 우리나라 철도역의 승객 순위는 서울역, 동대구역, 부산역, 대전역의 순이다.
- 5) 국토지리정보원, 『한국의 지명 유래-중부편』, 2008, 214쪽.
- 6) 오홍석, 『땅 이름 점의 미학』, 부연사, 2008, 318쪽.
- 7) 수원시사편찬위원회, 『수원시사』, 1986, 63~67쪽.
- 8) 수원시 발달구(<https://paldalsuwon.go.kr>).
- 9) 안기훈, 『지방대도시의 원도심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수원시를 중심으로-』, 경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4, 2쪽.
- 10) 「경기수리사업현황」, 『동아일보』, 1921년 7월 5일.
- 11) 수원시사편찬위원회, 『수원시사 5 : 수원의 토지소유 구조와 농업경영』, 2014, 308~309쪽.
- 12) 미군이 작성한 지도의 출처는 <http://www.koreanwar.org>이다.
- 13) 「매산시장 19일 개시」, 『동아일보』, 1948년 12월 14일.
- 14) 수원시, 『시세일람』, 1956, 153~154쪽.
- 15) 수원기본통계(<http://stat.suwon.go.kr>).
- 16) 「수원시 공동주택 현황(2016년 12월 21일 기준)」(수원시청 주택공지사항).
- 17) 김재행·장성민·장영원·남영우, 「수원시 등질지역의 구조적 변화 : 1995~2005년」, 『한국도시지리학회지』, 12(1), 2009, 45~63쪽.
- 18) 김재행, 「다변량 분석을 이용한 수원시의 도시구조 변화 : 2000~2009년」,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2, 56쪽.
- 19) 「매산동, 역사관 중심상업지역」, 『수원일보』, 2008년 1월 7일.
- 20) 통계로 보는 수원(<http://stat.suwon.go.kr/stat/stats/statsView.do?categorySeqNo=58>).
- 21) 이 글에 제시된 점포수와 종업원수는 수원시청에서 발표한 자료이므로 실제와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점포수와 종업원수의 출처는 전통시장 현황(http://www.suwon.go.kr/sw-www/deptHome/dep_eco/eco02/eco02_01/eco02-01_08.jsp)이다.
- 22) 수원시사편찬위원회, 『수원시사』, 1986, 68쪽.
- 23) 2000년부터 2015년까지의 인구는 '국가통계포털(<http://kosis.kr>)'의 자료이며, 2017년 인구는 '통계로 보는 수원(<http://stat.suwon.go.kr/stat/index.do>)'에서 제공된 자료이다.



정가형 수원시정연구원 연구원

김요셉 한국항공대학교 기계공학과

제2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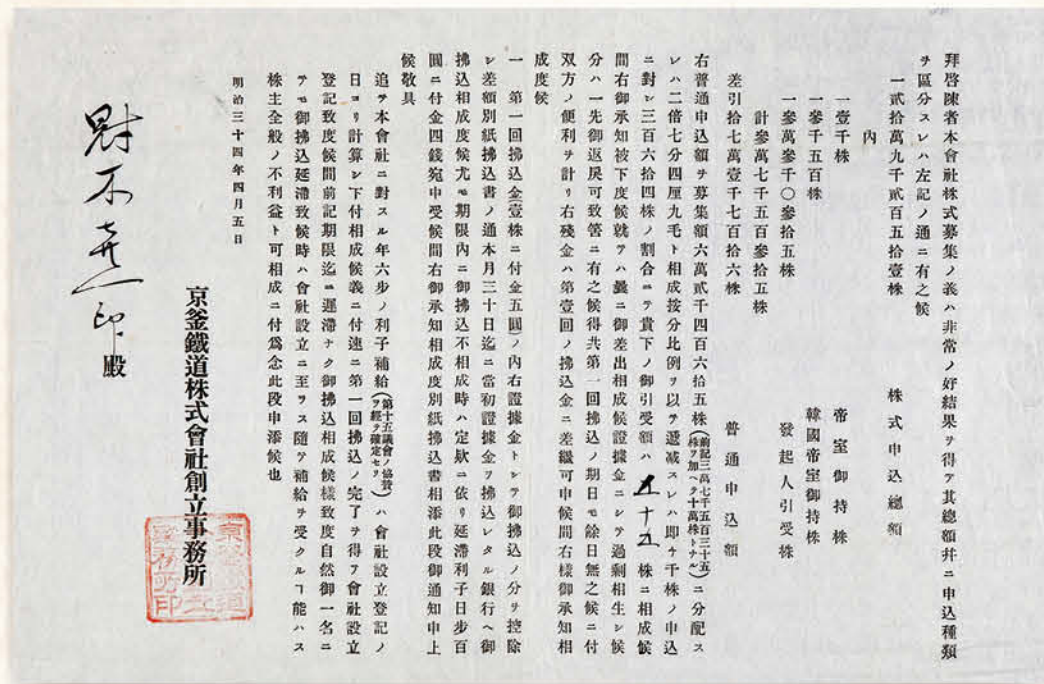
철도교통과 수원역의 변천

2018년 현재 수원시는 120만 명의 인구를 품고 있는 대한민국 제일의 기초자치단체로 성장하였으며 수도권 서울과도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도시의 발전 요건으로는 편리한 교통이 필수인데, 수원시도 수원의 지정학적 특성과 교통망의 발전을 기반으로 하여 성장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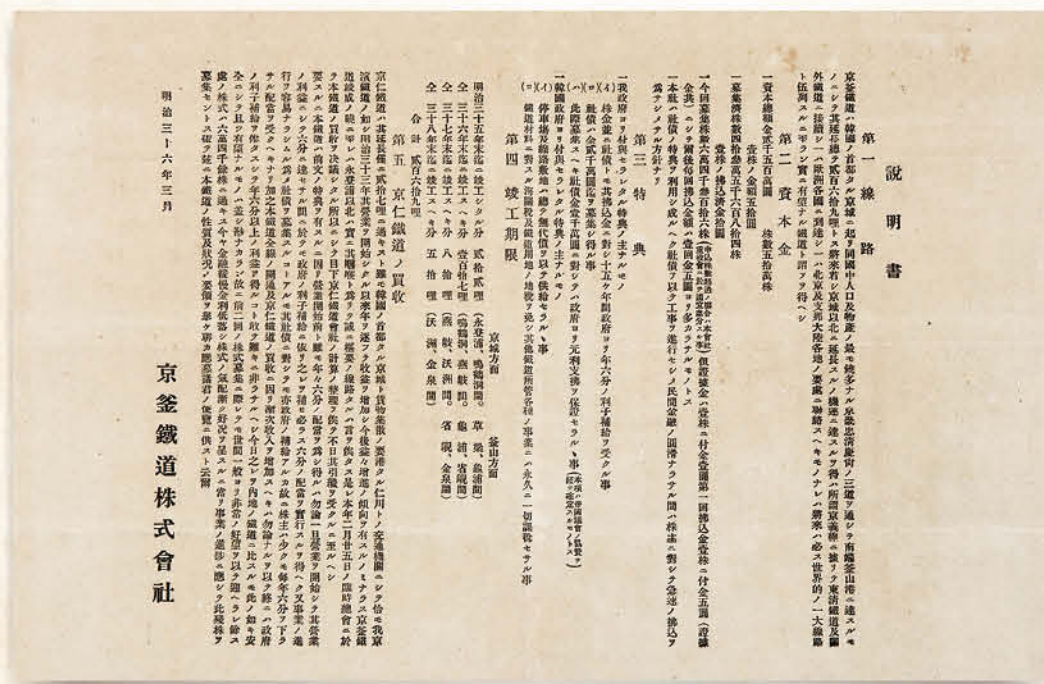
수원시는 오늘날 경부고속도로·영동고속도로 등의 도로교통, 경부선·분당선·신분당선 등의 철도교통, 이를 기반으로 한 대중교통이 특히 발달하였다. 수원 지역은 일제시기부터 근대적인 교통의 뿌리가 내려졌으며, 매산동의 수원역 일대는 철도뿐만 아니라 도로와 모든 대중교통이 모이는 경기 남부 최대의 교통 결절점으로 변화하여 그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이 글에서는 수원시 교통의 큰 축이 되어 온 수원역, 수원역을 통과했던 철도 노선들의 변화를 살펴보고자 한다.

1. 최초의 근대 교통, 경부선 철도의 등장

철도는 목재 또는 콘크리트 재질 침목 위에 철제 궤도를 부설하고 그 위로 차량을 운전하여 사람이나 물자를 나르는 시설을 부르는 것을 의미하며, 근대화의 상징이라고 할



1901년 경부철도주식회사 창립사무소 통지서(수원광교박물관 제공)



1903년 경부철도주식회사 설명서(김영준 제공)

경부선 개관, 회사의 자본 및 특전, 경부선 준공기한, 경인철도 인수 관련 내용 및 향후 발전 가능성 등을 담고 있다.

만큼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 러시아와 영국 등 서구 열강은 중국 내 철도 부설권을 차지하기 위한 각축전을 펼쳤으며, 일본도 한반도와 만주에서 식민지 사업을 펼치기 위해 철도 부설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다.

철도는 물류에서도 큰 의미를 지니며 다양한 장점을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에 철도가 부설되기 이전 장거리 화물 운송은 전적으로 수운이 담당하였다. 수운과 비교하였을 때 철도는 육상에서 대량 수송이 가능하며 가장 빠른 화물 운송수단이다. 철도 차륜은 마찰력이 낮아 에너지 효율이 높은 특성을 지니고 있으며 오늘날 이르러서도 대형, 대용량의 화물 처리는 육상 운송에 비해 압도적으로 저렴하다.

경인선을 부설한 경험이 있는 일제는 이러한 철도의 효율성과 수송력 등의 장점을 깨닫고 국가간선망인 경부선과 경의선을 통해 철도를 장악하고자 하였다. 이에 1880년대부터 경부선 철도 부설을 위해 우리나라 국토 곳곳의 지형을 탐사하였다. 1896년에는 일제 자본의 경부철도주식회사가 설립되었으며 1901년 경부선 건설 공사가 착공되었다. 공사 도중 1904년 러일전쟁이 발발하여 군사 및 물자 수송에서 경부선 철도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면서 공사가 급속도로 진행되었다. 착공 4년 만인 1905년 1월 1일에 서울-부산 간 450km에 달하는 경부선이 최초로 영업운행을 개시하였으며, 수원역도 3급 보통역으로 개업하여 승객을 맞이하게 되었다.

경부선이 수원을 통과하기까지 노선 선정에 많은 변동이 있었다. 일제의 지형답사 결과 1차에는 내륙부인 용인-죽산-청주를 통과하는 노선이 도출되었다. 2차 노선 변경안으로는 노량진-영등포-공주-논산을 통과하는 전혀 다른 노선이 도출되었다. 1차 노선안은 서울과 부산을 최단거리로 가로지르며 군사적인 목적이 강한 노선인 반면, 2차 노선안은 상공업이 발달하고 상대적으로 경제가 부흥한 지역을 통과하는 노선이었다. 결국 군사적인 목적이 강한 노선과 경제적 중심지를 통과하는 노선을 모두 만족하였다고 판단되는 절충안이 선택되었다. 최종 선정 노선은 서울을 출발하여 영등포-수원-대전-추풍령을 거쳐 대구-부산으로 이어지는 현재의 경부선 철도 노선이 확정되었다.

수원이 포함된 공사공구는 제2공구로, 안양 명학에서 평택 진위를 잇는 35.2km 구간이다. 그런데 서호 근방을 통과하는 현재의 노선과 달리 초기에는 수원 읍내를 통과하는 노선으로 계획되었다. 수원 읍내 통과노선은 현재 북수원IC 부근인 사그네에서 지지대 고개를 넘어 화서문과 팔달산 기슭을 훑고 수원비행장 부지인 대왕교통 동편으로 빠져나가는 노선으로 계획되었다. 문제가 된 구간은 지지대에서 팔달산 구간으로, 정조가 세운

1905년 경부철도 개통식(김영준 제공)

1905년 5월 25일 서울 남대문역에서 열린 경부철도 개통식 사진이다.

경부선은 1901년 기공되어 1904년 12월 27일 완공되었으며 1905년 1월 1일부터 전체 노선의 영업이 개시되었다.



京釜鐵道線路略圖



경부철도 선로약도(김영준 제공)

수원 화성의 역사적 전통성과 문화에 대한 자부심이 강한 수원 주민들은 정조의 역사성이 깃든 지지대비와 화령전이 훼손될 것을 우려하며 최초 노선 계획에 크게 반발하였다. 이것이 1902년 수원군민 집단항의사건이다. 강한 여론을 바탕으로 철도원 총재 유기환은 경기관찰사 이근명에게 사그네-지지대 구간의 공사착수를 엄금하라고 지시하였다. 이어 우회노선에 대해 실지 답사를 실시한 결과, 지지대고개 서쪽 산에 터널을 뚫을 필요가 없어 오히려 공사비가 절감되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서호를 통과하는 현재의 경부선 노선이 확정되었다.

한편, 경부선은 본래 일제의 자본이 모인 경부철도주식회사라는 민간회사, 즉 이익을 추구하는 사철로 운영되었다. 그러나 일제는 러일전쟁을 통해 경부선이 한반도에서 세력 확장을 위해 군사적으로 충분한 역할을 해 주기를 기대하였으며, 이에 사철을 국유화하는 방침을 세웠다. 을사늑약을 통해 한국의 주권을 강탈한 일제는 철도매수법안을 구실로 경부선과 경의선 등의 철도를 모두 매수하였으며 이후 건설하는 철도는 국유철도의 성격을 지니게 되었다.

일제의 대륙 진출 및 세력 확장에 따라 경부선은 국가 간선철도망으로서 경제적·군사적 효용이 높아졌으며, 1930년대에는 수송력의 한계가 나타났다. 경부선은 착공부터 준공까지 4년이라는 굉장히 짧은 기간에 공사가 진행되어 부실공사가 발생하였고 유지·보수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1908년에는 경부선과 경의선(1905년 개통)이 직결되어 부산과 신의주를 거쳐 중국 방면의 국제 급행열차인 '융희호'가 운행되기도 했다. 이들 국가 간선노선의 중요성이 확대되자 결국 이 수송력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복선화를 결정하게 되었다. 더구나 1937년 중일전쟁으로 국가의 모든 물자와 인력을 총동원해야 했는데, 모든 자원을 집중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철도의 중요성이 부각되었다. 대규모의 자원을 고속으로 운송하는, 획기적인 고효율 수송수단으로서 철도의 군사적인 중요성을 실감한 일제는 경부선 복선화 공사를 빠른 속도로 진척시켜 해방 전인 1945년에 완료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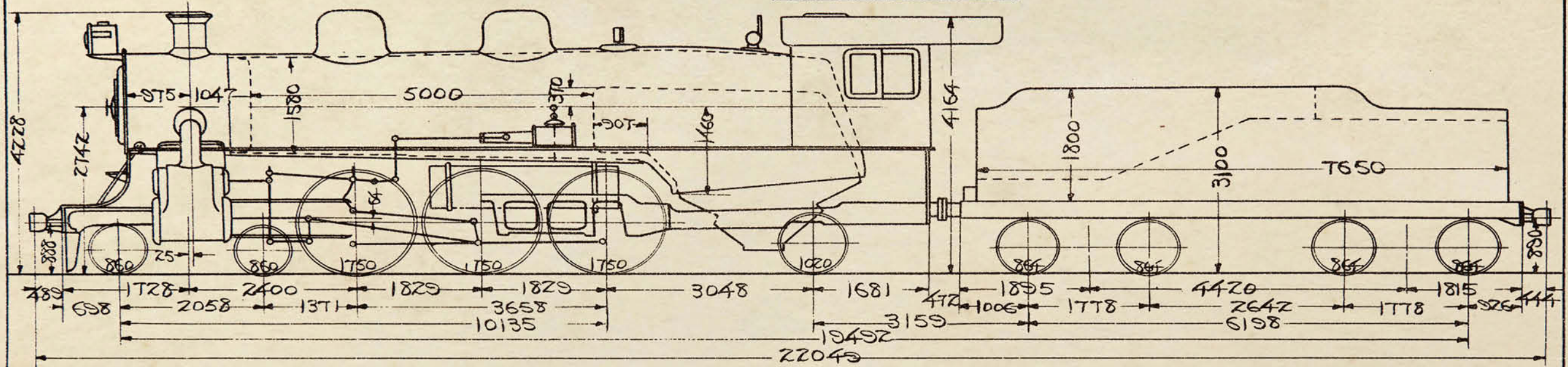
경부선은 해방 이후에도 한국에서 중추 철도로서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였으며 한국전쟁 당시에는 한강철교가 폭파되어 일시적으로 수송기능이 중단되기도 하였다. 한국전쟁 이후 유엔군의 공여와 미국의 원조로 들어온 '신차'인 디젤기관차는 서울-부산 간 소요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시켰다. 급격한 도시 확장과 도시화로 경부선 수도권 구간 교통수요가 폭증하자, 1969년에 서울-영등포 9.1km 구간을 복복선화하여 수송용량을 증대시켰다. 이후 경부선의 물동량이 비약적으로 증가하였으며, 국가 간선의 특성상 레일 중

パシフィック・テンドー機関車

番號 ST1-ST4

記號 パシシ

980R5050



汽筒径及行程	580×660	機関車	空車、時	82.00 時	粘着係数	3.9
常用最高汽壓	13.0 ㎏/平方㎝	重量	運整、時	90.80 時	牽引重量	100 35 秒時(客) 590 時
最大汽筒牽引力	14000 時	先輪上重量	運整、時	18.30 時	弁裝置	ワルシャーツ
汽罐径	山錐型 1580 最小	働輪上重量	時	54.40 時	連結器	シャロン
及型式	1780 最大	從輪上重量	時	18.10 時	制動機	空氣(WH6ET)及手用
火室寸法(長×巾)	2700×1760	炭水車	空車、時	25.00 時	空氣ポンプ	8寸複式1寸9寸單式1寸
火床面積	4.75 平方米	重量	運整、時	58.70 時	発電機	K-Z
傳熱面積	火室 14.8 時	燃料庫容積	(11.0 時) 13.0 立方尺		及轉器	ラゴネット動力及轉器
	燃燒室 4.6 時	水槽容積	22.7 時		焚口戸	フランクリン NO8A
	水管 1.7 時	最大寸法(長×巾×高)	22200×3054×4228			
	煙管 95.2 時	傳熱面積	(徑×長) 車輪径 軸頸 軸座			
	大煙管 59.8 時	先輪	860 140×336 152×178		製造所	川崎造船所兵庫工場
	計 176.1 時	働輪主	1750 254×305 267×178		組立工場	京城工場
過熱面積	61.5 時	働輪	1750 230×305 241×178		組立年月	昭和二年四月
煙管(徑×長×数)	51×4971×120	從輪	1020 216×305 230×197		備考	
大煙管()	137×4971×28	炭水車	864 127×230 165×178			

27

차량형식도(수원박물관 제공)

1935년 조선총독부 철도국에서 작성한 차량형식도이다. 이 문서는 기관차의 치수와 중량 등을 측정하는 계산법을 기재해 놓은 뒤, 탱크-텐더기관차의 구체적인 측량도면을 싣고 있다. 또한 기관차의 제조소, 조립공장, 조립일자, 개조일자 등을 기록하여 당시 운행되던 기관차의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량화 및 장대화, 침목 교체 등의 공사가 지속되었다. 1985년에는 중앙관제시스템(CTC)의 도입과 맞물려 140km/h 운전을 실현하여 서울-부산 간 새마을호의 소요시간이 4시간 10분(가장 빠른 열차 기준)까지 단축되었다. 1990년대에는 서울-구로 구간이 3복선화될 정도로 수송용량과 시설이 비대해졌으며, 2000년대 들어서 1호선 광역철도의 구간은 충청남도 천안, 아산권역까지 확대되었다. 한편 고속전동열차인 KTX의 도입은 경부선의 전철화와 개량공사를 통해 주행여건이 나아지는 계기가 되었으며, 전기기관차가 도입될 수 있는 토대가 되었다. 전기기관차는 디젤기관차에 비해 가속과 감속 성능이 좋아 소요시간 단축에 유리하고, 에너지 효율이 월등한 장점이 있다. 이에 무궁화호와 같은 객차형 일반열차의 견인기를 점진적으로 전기기관차로 전환하여 현재는 경부선을 통과하는 객차형 일반열차는 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열차가 주를 이루고 있다.

2. 경동철도의 부설 : 수려선과 수인선

수원역은 경동철도인 수려선과 수인선의 부설로 서해안과 경기도 내륙지방의 교통 중심도시로 변화하게 된다. 경동철도의 표면적인 목적은 경부선과 경의선 등 대간선 위주의 군사적 성격이 강한 철도노선 부설에서 경제적인 번영을 위한 사회간접자본 인프라 확충의 철도 건설 패러다임 전환과 교통 소외지역인 경기도 이천·여주를 수원·인천과 동서로 잇는 목적이었다. 그러나 직접적인 목적은 이천·여주 지역에서 생산되고 있는 양질의 미곡과 염전에서 생산하고 있는 소금 등을 인천항을 통해 원활하게 수탈하고 일본인들의 직접적인 경제적 침탈을 지원하기 위해서였다.

조선경동철도주식회사는 수려선을 표준궤도 규격으로 면허를 받았으나 경제 불황으로 사업비가 대폭 축소됨에 따라 공사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1,435mm 규격의 표준궤도가 아닌 762mm 규격의 협궤로 부설계획을 변경하였다. 1930년 11월 30일에 53.1km의 수원-이천 구간이, 1931년 12월 7일에 20.3km의 이천-여주 구간이 개통되었다.

수려선이 개통하자 수원에서 이천·여주 지역 농산물의 유통량이 증가하여 수원실업협회를 중심으로 곡물창고 설치를 주장하기도 하였다. 농산물의 운반뿐만 아니라 수원-여주 간선 구간의 수하물 하역과 운송이 경동철도로 집중됨에 따라 기존의 자동차와 우마차를 이용한 육상운수업 종사자는 줄지에 실업자로 전락하여 사회문제로 대두되기도 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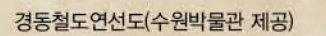
조선경동철도주식회사 영업보고서(수원박물관 제공)

였다. 이렇듯 반독점적인 상황에서 경동철도는 여객과 화물 운송실적을 통해 상당한 영업이익을 거두었다. 당초 화물 수입이 주요 수입원이 될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여객 수입이 총수입의 60%를 차지하였는데, 수원-여주 축의 여객교통은 철도의 역할이 컸음을 보여 준다.

수려선이 개통되자 경동철도의 2단계 구간인 수인선(수원-인천 구간, 52km) 부설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는데, 인천항을 통한 화물 수송 이외에 여객 수입으로 이익을 거둘 수 있을 것인지 회의론적인 시각이 많았다. 또한 공사 과정에서는 해안 간석지 등 지반이 안정되지 않은 노선을 통과한 탓에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착공한 지 1년 2개월 만인 1937년 8월 6일에 정식으로 운행을 시작한 수인선은 수려선과 연계를 통해 중부 내륙지역과 인천항 간의 화물과 여객을 수송하였으며 그 중심에는 수원역이 있었다. 수인선이 개통되기 전 인천과의 수송 교류는 하루 1~2편에 불과한 버스교통에 의존하고 있었으나 수인선 개통을 통해 수원과 인천의 인적·물적 교류가 활발해졌다. 특히 화물 수송실적은 더욱 성장세를 나타내어 내륙의 쌀

設	立	昭和三年八月廿七日
資本	金五百萬圓	
連帶鐵道 營業料程	二六六〇	
出願線	七十料	
連帶旅客自働 車營業料程	三百九十九料八	
連帶貨物自働 車營業料程	三百六十五料	



京東鐵道株式會社
(16.12.1改正) 水 原——仁 川 港 (水 仁 線)

幹程	列車番號	21	61	23	25	幹程	列車番號	22	24	62	26
0.0	水 原發	6 00	9 40	13 20	18 05	0.0	仁 川 港發	6 00	9 20	13 53	17 03
3.9	古 格發	6 10	9 50	13 30	18 15	5.0	松 島發	6 11	9 43	14 08	17 20
5.8	○ 格 漁發	6 17	9 56	13 36	18 21	6.2	○ 文 延發	↓	↓	↓	↓
10.7	○ 野 濱發	6 27	10 09	13 49	18 34	8.4	○ 南 洞發	6 19	9 52	14 13	17 29
13.7	○ 濱 一發	6 34	10 17	13 57	18 42	9.6	○ 脂 前發	6 26	10 01	14 27	17 37
15.1	○ 城 元發	6 38	10 22	14 02	18 47	10.6	○ 蘇 君發	6 30	10 06	14 31	17 41
20.0	○ 新 吉發	6 50	10 35	14 15	19 01	13.4	○ 新 元發	6 34	10 11	↓	↓
21.6	○ 城 元發	6 54	10 40	14 20	19 06	14.9	○ 城 一發	6 38	10 16	14 39	17 51
27.9	○ 新 吉發	7 18	11 08	14 47	19 34	19.7	○ 濱 野發	6 55	10 38	15 02	18 13
29.2	○ 新 吉發	7 22	11 12	14 51	19 38	22.8	○ 濱 野發	7 02	10 47	15 11	18 22
32.4	○ 新 吉發	7 32	11 26	15 04	19 51	24.2	○ 濱 野發	7 17	11 01	15 29	18 37
38.6	○ 新 吉發	7 48	11 44	15 22	20 09	30.4	○ 濱 野發	7 30	11 19	15 46	18 54
40.0	○ 新 吉發	7 53	↓	↓	20 14	32.0	○ 濱 野發	7 35	11 23	15 51	19 00
41.5	○ 新 吉發	7 57	11 53	15 31	20 19	36.9	○ 濱 野發	7 49	11 37	16 08	19 14
42.4	○ 新 吉發	8 05	12 01	15 39	20 27	38.3	○ 濱 野發	7 53	11 41	16 12	19 18
44.6	○ 新 吉發	8 09	12 05	15 43	20 31	41.3	○ 濱 野發	8 00	11 49	16 20	19 26
45.8	○ 新 吉發	↓	↓	↓	↓	46.2	○ 濱 野發	8 15	12 05	16 39	19 42
47.0	○ 新 吉發	8 19	12 16	15 54	20 42	48.1	○ 濱 野發	8 20	12 11	16 45	19 48
52.0	仁 川 港發	8 28	12 28	16 06	20 54	52.0	水 原發	8 30	12 22	16 59	19 59

(16.12.1改正) 水 原——羅 州 (水 羅 線)

幹程	列車番號	51	1	3	5	幹程	列車番號	2	4	52	6
0.0	水 原發	7 08	11 00	12 45	17 10	0.0	羅 州發	6 20	...	12 42	16 40
3.0	本 水發	7 22	11 08	12 53	17 20	3.7	○ 新 柳發	6 31	...	12 53	16 49
6.5	○ 德 新發	7 32	11 18	13 01	17 30	9.0	○ 茂 利發	6 43	...	13 06	16 59
9.0	○ 德 新發	↓	11 26	13 08	17 38	13.7	○ 西 橋發	6 57	...	13 20	17 09
12.5	○ 三 街發	7 56	11 38	13 18	17 50	15.8	○ 午 日發	7 05	...	13 28	17 15
15.9	○ 三 街發	8 07	11 49	13 27	18 01	20.3	○ 陽 智發	7 29	...	14 01	17 36
21.8	○ 三 街發	↓	12 13	13 44	18 25	24.0	○ 麻 坪發	7 38	...	14 10	17 44
24.1	龍 仁發	8 38	12 19	13 49	18 31	27.7	○ 龍 仁發	7 50	...	14 22	17 53
28.4	○ 麻 坪發	9 00	...	14 03	18 44	33.4	○ 龍 仁發	8 07	...	14 41	18 05
31.9	○ 麻 坪發	9 12	...	14 12	18 56	38.0	○ 龍 仁發	8 23	...	14 59	18 16
35.4	○ 麻 坪發	9 25	...	14 21	19 08	41.5	○ 龍 仁發	8 39	...	15 20	18 28
40.0	○ 麻 坪發	9 38	...	14 30	19 21	45.0	○ 龍 仁發	8 48	...	15 29	18 35
45.7	○ 麻 坪發	9 51	...	14 40	19 34	49.3	○ 龍 仁發	8 58	...	15 38	18 43
49.4	○ 麻 坪發	10 08	...	14 51	19 51	51.6	○ 三 街發	9 10	14 30	16 05	18 55
53.1	○ 麻 坪發	10 19	...	14 59	20 02	57.5	○ 三 街發	9 18	14 38	↓	19 01
57.6	○ 麻 坪發	10 54	...	15 21	20 23	60.9	○ 三 街發	9 39	14 59	16 33	19 15
59.7	○ 麻 坪發	11 08	...	15 31	20 37	64.4	○ 三 街發	9 47	15 07	16 42	19 22
64.4	○ 麻 坪發	11 15	...	15 37	20 44	66.9	○ 三 街發	9 58	15 18	↓	19 30
69.7	○ 麻 坪發	11 28	...	15 47	20 57	70.4	○ 三 街發	10 05	15 25	16 59	19 36
73.4	○ 麻 坪發	11 41	...	15 58	21 10	73.4	○ 三 街發	10 19	15 38	17 18	19 44
	羅 州發	11 50	...	16 05	21 19		水 原發	10 22	15 45	17 25	19 51

羅 州——原 州 (連絡自動車)
羅州發 午後 13 40 原州著 午後 15 00

原 州——羅 州 (連絡自動車)
原州發 午後 13 00 羅州著 午後 14 25

1941년 수려선과 수인선 시간표(조선총독부 철도국, 1941, 『조선철도 시간표』, 수원박물관 제공)

과 소금의 수송량이 폭증하였고, 늘어난 화물 수송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남인천역의 역사를 증축 및 확장해야 한다는 요구가 거세졌다. 여객 및 화물 수송량이 증가하자 인천 지역의 상공인을 중심으로 수인선을 협회에서 표준궤도로 변경하자는 선로 개량 요구가 나오기도 하였으나 태평양전쟁의 발발로 실현되지는 못하였다. 하지만 지역사회로부터 나온 수인선 개량 요구는 당시 수인선이 연선 지역의 경제 생태계에 어떠한 역할과 기여를 하였는지 간접적으로나마 보여 주고 있다.

개통 초기 여객과 화물을 통해 상당한 수입을 올렸던 경동철도는 1940년부터 운송 수익이 적자로 돌아섰으며 1945년 해방 이후 국철로 흡수되었다. 그러나 어려운 경제상황으로 철도를 제대로 운영할 여건이 마련되지 않아 미국의 경제원조자금으로 간신히 운영되었다. 특히 수려선의 경우 1970년대까지 단 한 번도 흑자를 내지 못하는 노선으로 전락하기에 이르렀으며 1972년 영동고속도로 신갈-여주 구간의 개통은 수려선의 여객 수요 급감에 직격탄이 되어 같은 해인 1972년에 결국 폐지 수순을 밟게 되었다.

이듬해 1973년에는 수인선에서 남인천(인천항)-송도 구간이 인천시 도시계획에 따라 도시개발이 예정됨에 따라 폐지되었는데, 이는 수인선의 주요 목적이었던 화물 운송기능이 대폭 축소됨과 동시에 노선의 효용성이 감소되었음을 의미한다. 1977년에는 42번 국도의 수원-인천 구간이 포장되어 도로 환경이 대폭 개선되었으며, 화물 운송기능이 육



수려선과 수인선 기관사로 근무했던 김지형(수원박물관 제공)
김지형은 1972년 수려선 철로 폐선작업을 맡아 수행하였다.

1966년 수인선 군사역에서 열차를 기다리는 승객들(인천광역시립박물관 제공)





1994년 수인선 수원-송도 간 운행 열차(수원박물관 제공)
수인선 송도에서 수원으로 가는 열차에 부착되어 있던 행선지 표시판이다. 송도역은 1973년 7월 수인선 남인천-송도 구간 폐지로 인해 1995년 수인선 폐선 전까지 20여 년 동안 수인선의 시종착역으로 기능했다.

로로 이탈되는 현상이 더욱 심화되어 수인선의 쇠락이 가속화되었다. 이에 철도청은 결국 화물 운송을 포기하고 여객 운송에만 집중하게 되었는데, 수인선 이용객으로 농민·어민·통학생 등 제한된 수요층만을 확보할 수 있었다.

한편 여객 수송 패러다임 변화는 수인선의 쇠락을 가속화시켰다. 철도를 이용한 주요 통행패턴이 인근 도시와의 교류보다는 서울을 위시한 수도권 집중형 개발형태로 이루어져 서울과의 연계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점차 재편됨에 따라 인천-수원 간을 왕래하는 여객 수요마저 갈수록 급감하였다. 이에 따라 영업구간이 수원-송도, 수원-소래 구간으로 점진적으로 단축되다가 결국 수원-한대앞 구간으로 축소되었으며, 경동철도는 1995년 12월 31일 운행을 끝으로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수원역에서 출발 직전의 수인선 협궤열차 뒷모습(수원박물관 제공)



수인선 마지막 열차를 운행한 박수광 기관사(박수광 제공)
수인선은 1995년 12월 31일 마지막 운행을 마치고 폐선되었다.

경동철도는 인천-수원-여주에 이르는 경기도 내륙지역과 인천항이 연결되어 지역민들에게 교통 편의를 제공하였고, 연선 도시 간 인적·물적 교류를 증가시켜 철도역을 중심으로 한 경제생활권을 형성시킨 데에도 의의가 있다. 일제의 주요 수탈 수단이라는 한계성을 지니고 있으나, 근대기 인천과 수원, 경기 내륙지역을 잇는 철도교통 네트워크의 형성은 대간선 위주로 군사적 목적의 철도 건설에서 지역과 지역을 연결하는 철도 건설로 패러다임이 전환되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오늘날 경동철도의 노선은 부분적으로나마 영업을 재개하였다. 수인선은 수원-인천 전 구간이 2019년 말 부활할 것으로 보이며, 인천 구간에서는 이미 영업운전을 시행하고 있다. 수려선은 분당선 일부 구간과 용인경전철, 경강선의 판교-여주 구간 개통과 향후 경강선이 여주 이후 강원도 방면으로 연장이 고려되고 있음을 볼 때 예나 지금이나 수려선이 다녔던 축은 현재에도 주요한 경기도 남부지역의 교통로로 활용되고 있음을 나타내 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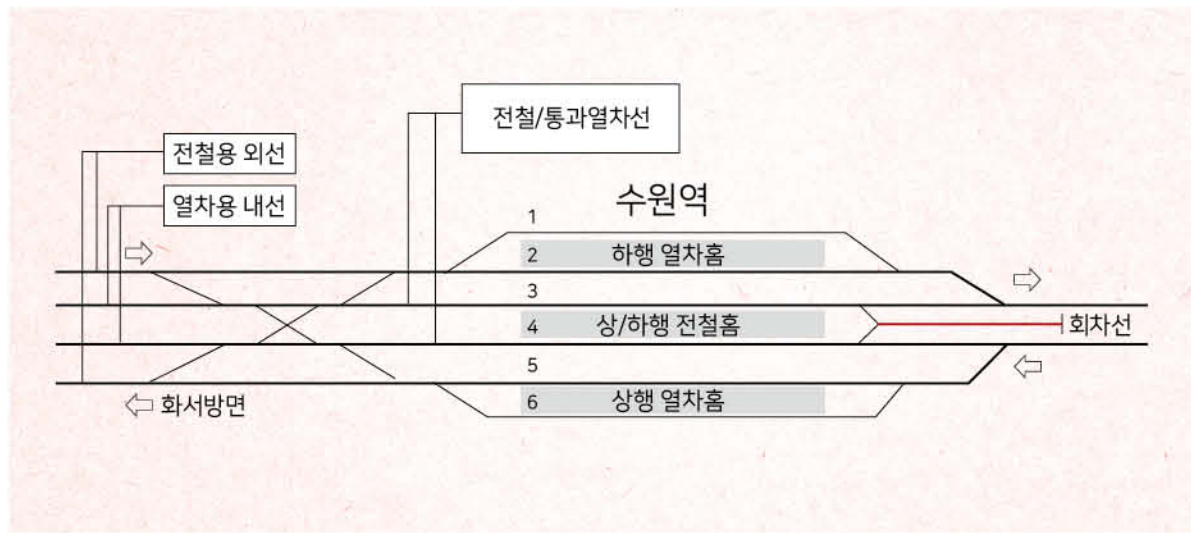
3. 우리나라 최초의 도시철도 1호선의 개통과 이후의 변화

1974년 8월 15일은 우리나라 최초로 도시철도가 개통한 철도사적으로 의미 있는 날이다. 기존 수원역이 관광호, 무궁화호, 통일호 등을 통해 전국 각지의 장거리 지역 간 통행을 연결하는 역할이 대부분이었다면 이날을 기점으로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역 도시로의 단거리 교통량을 처리하는 역할 또한 추가된 것이다.

1980년대에는 수도권 중심의 개발이 일어나게 되는데 통행 패러다임이 인근 도시와의 교류에서 서울과의 교류로 전환되면서 1호선의 중요성이 더욱 급증하게 되었다. 수송력의 확보를 결정하기 위해 1981년에는 수원-영등포 32.4km 구간에 복복선화 개통을 추진하여 수송력을 증대시켰으며, 서울-수원을 운행하는 급행 서비스 개념을 국내 최초로 도시철도에 도입하였다. 출퇴근 시간에만 한정하여 운행하였으나 운행 개시 당시에는 서울-수원 간 중간 정차역이 안양역 한 곳만 있고 일반열차 선로를 주행하여 일반열차와의 소요시간 차이가 없어 당시 서울-수원을 왕래하는 통근객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빠르게 이동할 수 있어 인기가 매우 많았다. 현재는 9호선 등 다양한 노선에서 급행열차를 운영하고 있으나 당시에는 도시철도가 단순히 모든 역을 정차하는 완행열차인 비둘기호를



수도권 전철 개통식 당일 수원역(수원박물관 제공)



병점 연장 개통 전 수원역 구내 배선도

대체하는 개념도 있었기에 급행열차의 도입은 파격적이라고 할 수 있으며 도시철도의 서비스를 다양화 하는 발판이 될 수 있었다.

한편 수원역이 1호선의 시·종착역을 담당하던 2003년까지 수원역의 내부구조는 일반 열차인 새마을호와 무궁화호 홈을 바깥쪽에 각각 두고, 1호선 전철 홈이 가운데 자리 잡은 형태였다. 이에 수원역에 정착하기 위해 진입하는 일반열차와 1호선 전동열차의 경합이 필연적으로 일어나 잦은 지연의 원인이 되었다. 이를 평면교차라고 하는데, 평면교차는 안전상의 문제와 동시에 철도 용량이 저하되는 문제점이 있었다. 특히 우선순위가 낮은 전동열차는 정시성이 매우 낮았는데, 일반열차를 먼저 보내기 위해 기다리는 일이 다반사였고 배차간격이 들쭉날쭉하여 당시 1호선 이용객의 불만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다. 2003년 병점역 연장 개통과 병점차량기지 준공을 통해 30년 가까이 수원역이 담당하던 1호선 시·종착역 역할은 병점역으로 넘겨졌다. 그 후 평면교차 해소를 통해 경부선의 용량을 높이고 1호선 수원 구간의 배차간격을 줄여 서비스 수준을 높일 수 있었으며, 정시성이 향상되어 1호선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2005년 1월에는 1호선이 충남 천안으로 연장되어 도시철도로 인한 수원역의 간접 영향권이 더욱 확대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2008년에는 온양온천과 신창까지 연장되어 충청권까지 아우르는 장거리 노선으로 탈바꿈하였다. 그리고 2013년 11월 분당선 개통으



'생태교통 2013' 도시 축제 당시 선보인 노면전차(수원시 포토뱅크 제공)

로 수원역은 1호선과 분당선의 환승역 지위를 갖추게 되었다. 분당선 개통을 통해 영통·용인·분당 방향의 승객들을 더 모을 수 있게 되었으며, 인천 지역에서 부분적으로 운행이 재개된 수인선과의 향후 직결운행이 예정되어 있다. 2019년에 수인선이 개통하게 된다면 수원역은 1930년대 수려선-수인선의 철도네트워크처럼 다시금 경기 남부지역의 십자네트워크망이 구축될 것으로 보이며 나아가 소위 '경동철도의 부활'이 예상된다.

또한 수원 시내 철도교통도 변화될 전망이다. '생태교통 2013' 도시 축제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수원시는 친환경 생태교통 수단으로 노면전차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으며, 수원 도시철도 1호선 구간인 매산로와 정조로를 중심으로 한 수원역-장안구청 구간에 대해 노면전차를 2022년까지 도입할 예정이다.

4. 수원역을 오간 열차와 전동차



1969년 관광호 특급열차 운항(국가기록원 제공)

● 관광호

지금도 많은 이들이 고급스럽고 안락했던 열차로 기억하고 있는 열차는 새마을호의 전신으로 초고속열차인 '관광호'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 이 관광호는 서울-부산 간을 대전역과 동대구역 단 두 개 역에서만 정차하며 4시간 50분 만에 연결하는 특급열차이다. 관광호의 구성은 식당차에 전용 발전차를 편성하여 상시 객실에 전기를 공급하였으며 객차마다 에어컨을 갖추었다. 1970년대 당시 에어컨은 부를 상징하는 최고급 장비로 당시 가정집에서는 냉장고도 없는 가정이 많았음을 유추해 볼 때 상당한 고급장비가 설치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차량 편성은 특1등 객실과 1등 객실만이 편성되었다. 특1등 객실은 푸른색 카펫과 전기 히터, 에어컨을 구비한 자동온도 조절장치를 당대에 이미 채용하고 있었다. 특1등 객실과 1등 객실의 차이점은 객실 승무원 호출을 위한 초인종이 좌석에 없고 화장실이 재래식인 차이점이 있었다. 서울-부산 간 특1등석 요금은 4,700원, 1등석 요금은 4,200원으로 책정되었으며, 현재 물가수준으로 서울-부산 간 30만~40만 원에 해당하는 요금 수준으로 김포공항-김해공항 간 국내선 비행기 비즈니스석 왕복 요금이 25만 원 수준임을 고려할 때 현재 물가로도



관광호 내부(국가기록원 제공)

충분히 사치스러운 가격이라 할 수 있다. 관광호는 1974년 새마을호로 이어져 최고급 특급열차의 명맥을 유지하였다.

● 새마을호

우리나라에 고속철도인 KTX가 도입되기 전 가장 빠르고 고급스러웠던 특급열차는 '새마을호'였다. 1988년 서울올림픽 유치하는 철도서비스의 수준을 다시 한 번 끌어올리는 계기가 되었으며 1980년대 빠른 경제 성장은 고급열차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켰다.



퇴역한 새마을호 차량

그러다 2004년 KTX의 등장으로 고급열차·특급열차의 자리는 KTX로 승계되었으며 이후 무궁화호와 시간 차이는 별로 나지 않으면서 비싸기만 한 열차로 새마을호의 위상이 현격히 하락하였다. 객차의 심각한 노후화는 새마을호의 몰락을 가속화시켰으며 결국 2018년 4월을 끝으로 새마을호의 운영이 종료되었으며 기존 새마을호의 기능은 후계열차인 ITX-새마을호로 승계되었다.

● KTX 열차

2010년 수원역을 경유하는 고속열차인 KTX가 운행되기로 결정됨에 따라, 수원역에도 KTX가 하루 8회 들어서게 되었다. 최초의 KTX 차량은 프랑스에서 제작되어 직수입되었으며, 이후 고속철도 차량 노하우를 습득하여 국산화된 고속철도인 KTX-산천열차도 수원역에 투입되었다. 수원역을 경유하는 KTX는 대전역까지는 기존 열차선로를 이용하고 대전역 이후부터 고속주행이 가능하다. 경부선에만 한정적으로 투입되어 전 구간 고속선을



최초 도입 당시 KTX 열차

주행하는 KTX와 비교하였을 때 시간 경쟁력에서 뒤처지고 열차 편수가 제한되어 있다는 운영상의 한계점이 있다. 그러나 적은 열차 편수에도 불구하고 수원역의 KTX 이용수요가 워낙 탄탄하여 고속철도 정착역으로 수원역의 성장 역시 기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 무궁화호

현역으로서 서민열차의 대표주자로 운행되고 있는 무궁화호는 2014년을 기준으로 1년간 무려 900만 명이 수원역에서 승차할 정도로 인기가 많은 열차이다. 그 이유는 물가 수준으로 따져 보았을 때도 운임이 굉장히 저렴하기 때문이다. 무궁화호의 최저운임이 2,600원으로 25년 전인 1993년 당시 최저운임인 2,500원과 차이가 거의 없다. 물론 운임 적용거리에 따른 차이가 있으나 서울-수원 같은 단거리 구간은 25년 전과 요금 차이가 거의 없으며 25년에 걸쳐 이루어진 물가 상승률과 현재의 물가 수준을 고려한다면 오히려 매우 저렴한 가격임에 틀림없다.



전기기관차가 무궁화호를 견인하는 모습

이러한 저렴한 가격을 무기로 대한민국 서민의 대표 일반열차로 자리매김했으며, 서울-천안 구간에서는 1호선 완행열차를 보완하는 급행열차 및 단거리 고급수요 역할을 겸하고 있다. 다만 통일호와 비둘기호 등 완행열차를 대체하면서 최하위 등급으로서 거의 모든 철도 노선에서 운영되는 무궁화호는 객차의 노후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현재 운행되고 있는 무궁화호는 경부선과 호남선 일부 구간을 제외하면 적자인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운영기관인 한국철도공사에서는 무궁화호를 감축하거나 폐지하고 경영 개선을 위한 운임 개선을 지속적으로 시도하고 있다.

장기적으로는 EMU(Electronic Multiple Unit)-150급에 해당하는 ITX-새마을호가 무궁화호의 역할을 이어받을 것으로 보이며, 무궁화호는 비교적 중단거리 위주의 운행 계통으로 재편될 가능성이 있다. 사실 1990년대 중반 장거리 통일호를 감축하고 나머지 시간대를 대부분 새마을호와 무궁화호로 승격시켜 장거리 주도권을 승계하게 하는 동시에 자연스러운 운임을 인상한 전력이

있어 무궁화호의 세대교체 역시 이와 비슷한 방식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 ITX-청춘열차

2017년에는 다소 실험적인 성격으로 국내 최초 2층 열차인 ITX-청춘이라는 특급열차가 용산-대전 간 운행을 개시하였다. 정차역이 특이하게 설정되었는데 기존의 전통적인 정차역인 영등포역 대신 2호선과 9호선 환승수요를 노리기 위해 노량진역과 신도림역이 선택되었다. 다만 열차 특성상 전철홈인 고상홈으로만 운행이 가능하여 기차선로와 전철선로를 계속적으로 바꿔 가며 운행해야 하는 탓에 상습적인 지연이 발생하였고 정시성은 낮았는데 요금은 기존 새마을호와 같은 수준으로 책정되어 가격 경쟁력을 상실하여 결국 운행이 폐지되었다.



초기 저항제어 차량 내부(한국철도공사 소속차량)

● 저항제어 전동차

1974년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도시철도가 개통됨에 따라 1호선 지상구간을 운영하고 있는 한국철도공사(당시 철도청)와 1호선 지하구간을 운영하고 있는 서울교통공사(당시 서울지하철공사)에서는 전동차 도입을 추진하였다. 1974년 당시 우리나라의 철도차량 제작기술은 동력원이 없는 객차나 화차를 제작할 수 있는 수준에 머물러 있는 수준이고 전동차를 제작할 수 있는 기술과 경험이 부족하여 1972년 대일차관계약에 따라 1973년 일본 히타치(日立)가 생산한 6량 1편성으로 구성된 저항제어 전동차를 바지선을 통해 직수입하였다.

저항제어방식은 저항기를 사용하여 전동모터에 공급되는 전류를 조절하여 전동기의 회전수를 조절하는 기술로, 비교적 간단한 구조로 설계와 제작·유지보수가 쉬운 것이 강점이다. 국내 기술진들은 대우중공업의 주도로 일본 기술을 습득하고 전동차를 분해하고 결합하면서 쌓은 노하우를 바탕으로 국산 1호 전동차를 1976년에 최초로 생산하였다. 비록 대부분의 제어부품을 비롯하여 핵심부품이 수입품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러한 부품들



우리나라 최초의 도시철도 전동차(서울교통공사 소속차량)
1호선은 운영구간에 따라 지상구간은 철도청(현 한국철도공사), 지하구간은 서울지하철공사
(현 서울교통공사)로 분리되어 있으며, 한국철도공사 최초의 전동차는 의왕시 소재 철도박물관에,
서울교통공사 전동차는 서울 신청차량기지에 유치 보관 중이다.



냉방 개조 흔적

을 단순 조립한 수준에 그쳤으나 이는 국내 철도차량 제작 역사 및 향후 차량 제작 발전의 토대가 되는 일이었다.

1980년대 초반에 들어서면서 1호선 이용수요는 예상치를 훨씬 상회하였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1989년에는 모든 편성이 6량에서 10량 1편성으로 증량되었다. 한편 지하철의 장점이 너무 부각된 탓인지 당시 혼잡률은 200~300%에 상시 육박할 정도로 엄청난 인기를 자랑하였으나 부실한 냉난방장치는 출퇴근 승객의 만족도를 저하시키는 원인이 되었다. 특히 저항제어 전동차는 제동 시 열에너지가 방출되어 출입문이 열릴 때마다 뜨거운 열이 객실로 들어와 여름철에는 가뜩이나 더운 차내 온도를 더욱 높이는 데 일조하였다. 결국 1987년에 서울올림픽을 앞두고 에어컨으로 냉방장치를 변경하였으며 열차의 개방감을 위해 출입문의 창문 크기를 늘린 차량을 도입하였다.

다만 면적이 넓은 직사각형 창문 형태의 출입문은 수도권의 집중 개발과 도시화에 따라 이용객의 폭증으로 혼잡 시 승객의 압력으로 출입문 유리가 깨져 버리는 일이 잦아져 안전 문제가 대두되었기 때문에 2000년대에 신형 차량이 도입되기 전까지 작은 정사각형 창문을 유지하였다. 저항제어방식 차량은 잔여 에너지를 모두 저항열로 발산하도록 설계되어 매우 비효율적이다. 이런 태생적 한계를 지녔기 때문에 저항제어 전동차는 사용연한이 도래되면 대부분 폐차되어 현재 극소수만이 운행되고 있다.



최신형 VVVF 전동차

● VVVF 인버터 제어 전동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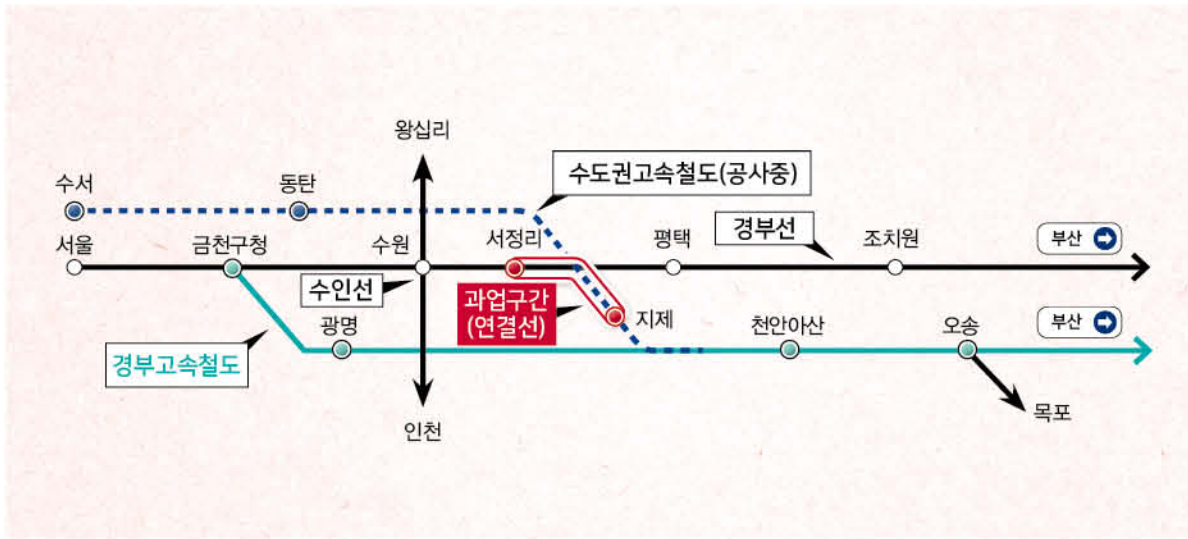
1990년대 이후에는 반도체 제어기술의 발달로 반도체 소자를 채용하여 모터의 전압과 주파수를 제어하는 VVVF(Variable Voltage Variable Frequency)형식으로 세대교체가 일어났으며, 기존 저항제어방식과 비교하였을 때 전력효율이 우수하고 교류전동기의 채용으로 유지·보수가 용이하다는 이점이 있다.

5. 폭발적인 수원역 이용수요

수원역은 서울역, 부산역, 동대구역, 대전역에 이어 5번째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일반철도 이용객수를 기록하고 있으며, KTX 정차횟수가 많지 않아 새마을호와 무궁화호 이용객수는 각각 전국 1위를 기록하고 있다. 수도권 전철 노선에서도 서울권이 아닌 수도권 소재 전철역 중 이용객수 1위를 기록하고 있어 수원역은 단일 역으로서 상당히 큰 규모임을 알 수 있다. 특히 2013년 분당선 개통을 계기로 2014년 기준 약 11만 명이 이용하는 거대한 역으로 성장하였다. 다만 서울 도심까지 환승 없이 한 번에 갈 수 있는 광역버스 등 도로교통의 경쟁력이 향상됨에 따라 수원역의 승하차량이 점점 줄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나 여전히 많은 승객이 이용하고 있다. 워낙 이용수요가 탄탄하기에 수원역을 지나는 모든 정규 여객열차는 반드시 정차하고 있다. 일반열차를 이용하기 위해 수원 시민뿐만 아니라 수원역의 접근성이 좋은 안산시·화성시·용인시·의왕시·군포시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으며, 분당선 개통 이후 접근성이 더욱 향상되어 인근 지자체 시민의 이용률이 증가하였다.

이용수요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수원역은 고속철도인 KTX의 혜택을 받지 못하였다. 그러던 중 2010년 11월부터 대전까지 기존의 경부선을 이용하는 수원 경유 KTX가 상하행 각각 4회씩 총 8회 정차하기로 결정되면서 400m 길이에 육박하는 20량 열차를 수용하기 위한 승강장 연장공사와 KTX 이용승객을 위한 안내체계를 정비하는 등 소소한 공사가 이루어졌다. 수원역 KTX 정차에 대한 시민들의 호응이 매우 높아 수원역의 철도이용객이 연간 100만 명 증가하는 효과를 거두었다.

이는 기존 KTX역에 대한 접근성이 얼마나 떨어지는지에 대한 반증이 될 것이다. 또한 단 8회만 정차하는 KTX 수요가 정차횟수가 훨씬 많은 구포역과 행신역 등을 뛰어넘으며 수원역에서 이미 좌석점유율 90%을 달성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수원시는 수원역을 경유



수원발 KTX 직결사업 개념도

하는 KTX의 증편을 계속적으로 요구하였으나 국토교통부에서는 초기에 경부선 철도용량 포화를 이유로 거절하였다. 그러나 워낙 수요가 많아 결국 한국철도공사에서는 주말 한정 4회를 추가적으로 증편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는 포화된 경부선에 꾸역꾸역 억지로 욕여넣은 임시적인 해결책에 불과하기 때문에 국토교통부에서는 결국 지제역 부근 수서고속철도(SRT)와의 연결선 건설을 통해 수원 경유 KTX를 1일 17회로 편수를 늘리고, 호남선과 전라선 등으로 행선지를 다양화시켜 수원역 KTX의 이용여건을 개선시키기로 결정하였다.

한편 KTX에 수요가 높다는 것은 철도교통에 대한 환승저항(Transfer Resistance)이 매우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교통에서 환승은 번거로움을 수반하기에 이를 기피하고 설령 시간이 더 걸리거나 요금을 더 지불하더라도 한 번에 갈 수 있는 경우 그것을 선호하기도 하는데 이를 환승저항이라 한다. 철도교통, 특히 도시철도가 아닌 일반철도에 경우 환승저항이 매우 크게 나타나는 특성이 있다. 수원역의 KTX 수요 호응도가 높은 것은 가장 가까운 고속철도역인 광명역의 접근성이 매우 떨어지는 것을 간접적으로 반증하고 있으며, 동시에 인근 도시에서 수원역으로의 접근성이 얼마나 뛰어난지를 보여 준다. 철도 운영 선진국인 일본도 노선 간 직결운행 등을 통해 최대한 환승저항을 줄여 대중교통 이용을 유도하고 있다. 수원역 경유 KTX도 경부선 본선과 고속선을 직결하여 운행하도록 하여 고속철도 자체의 접근성을 높이고 환승저항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6. 수원역사(驛舍)의 변천

수원역은 경부선 서울 기점 41.5km에 위치한 역으로, 1905년 1월 1일 경부선 개통과 동시에 보통역으로 개업하였다. 경부선은 국가 대간선망으로 여객과 화물 물동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수원역도 경부선의 주요한 역으로, 역사 건축을 통해 여객과 화물을 효율적으로 처리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에 1927년 6월 1만 원의 예산으로 역사 설계를 착수하였고, 1928년 8월 27일 낙성식을 거행하였으며 9월 1일 준공식을 가졌다. 수원역사의 형태는 특이하게도 수원의 역사성과 전통성·문화적 위치를 고려한 타인지 일제 식민지시기임에도 불구하고 한옥 형식으로 건축되었다. 옛 수원역의 모습은 의왕 철도박물관에 모형으로 전시되어 있어 당시의 형태를 확인할 수 있다. 건물 외관은 벽돌 단층에 한국식 기와로 꾸며졌으며 내부 대합실 공간 천장에는 격자무늬를 새겼고 국산 채색 도료를 사용하여 한국적인 모습을 살리고자 노력을 기울였다.

1930년대 경동철도인 수인선과 수려선이 개통한 후 수원역은 이 노선의 시·종착역 기능, 노선 간 연결기능, 환승역 기능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경기 남부지역의 교통 결절점으로 일찍이 부상하였다. 해방 이후에도 이러한 중요성을 인정받아 1949년 역의 등급이 사무관역으로 승격되었다. 그러나 한국전쟁으로 한옥으로 지어진 수원역사가



초창기 수원역 구내(사카이 마사노스케, 『수원』, 1923)

1930년대 한옥식 수원역사(수원박물관 제공)

1928년 9월 1일 한옥 형태로 신축된 수원역은 총 건축면적이 177평이고
공사비가 2만 8,000여 원이 소용되었다.





1981년 수원전철역(수원박물관 제공)



1995년 수원역(수원박물관 제공)

소실되었고 1961년 1월에 새로운 역사를 부랴부랴 착공하여 8개월 만인 9월 20일에 준공하였다. 1963년에는 서기관역으로 역의 등급이 한 등급 상승되었다.

1971년에는 수원역이 무연탄 화물 도착역으로 지정되어 당시 에너지 연료 수송의 거점이 되었다. 1974년 8월 15일에는 우리나라 최초의 도시철도인 1호선이 개통되어 이듬해 전철 역사를 준공하였다. 일반철도 승객과 도시철도 승객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1988년도에는 역사가 증축되었으며 2000년에 들어서는 경기 남부지역을 관할하는 지역관리역으로 승격되기에 이르렀다.

2003년에는 수원역의 얼굴이 세련되고 크게 변모하였다. 탄탄한 수요를 바탕으로 유동인구가 많다는 점을 노린 애경그룹과 수원역의 대수요를 처리하고 역사 확충을 통한 고객 경험 서비스 수준을 끌어올리기 위한 한국철도공사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져 연면적 2만 5,000평, 부지 6,200평의 어마어마한 규모에 민자역사가 들어섰다. 역무시설과 동시에 백화점, 영화관, 편의시설 등의 복합물을 거느린 AK플라자는 기존에 강력하게 형성되어 있던 원도심의 팔달문 상권을 뺏어 오는 데 성공하여 현재 수원시의 가장 큰 상권 중 하나로 성장하였다.

2014년 롯데몰이 등장하자 애경그룹은 기존 상권을 사수하기 위해 각종 시설을 증축하였고, 매산시장·역전시장·로테오거리 상인들은 상생협력을 강화하여 수원역 전체 상권의 경쟁력이 더 높아졌다. 이렇듯 수원역은 수원의 영향권 확대, 경제적인 성장과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고 지역 거점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였으며 도시 형성·발전과 개발에도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

한편, 수원역이 지역 거점역으로 워낙 대형화되다 보니 교통문제, 지역단절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수원 서부를 가로지르는 북북선의 경부선과 거대한 수원역은 도시를 두 지역으로 분리시켜 지역의 연담화를 어렵게 하여 동질성을 떨어뜨리고 있으며 기반시설의 불균형을 초래하였다. 토지이용의 불균형으로 개발소외라는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으며, 보행자의 교통흐름이 단절되어 생활권 자체가 단절되는 문제점이 있다. 다행히 서측 부지에 대형 쇼핑몰인 롯데몰이 입점하여 서수원 지역이 다소 활기를 띠게 되었으며 수원역 서측 환승센터 개통을 통해 생활권 단절이 상당 부분 해소되어 다행스러운 부분이 아닐 수 없다. 수원비행장 이전이나 호매실지구 개발 등의 점진적인 변화로 향후 서수원권의 발전 또한 기대되고 있으며 지역적 격차 해소 중심에 수원역이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7. 마무리하며

올해(2018년)로 꼭 113년의 역사를 짚어낸 수원역은 우리나라 발전사와 근현대 수원의 역사, 철도사와 그 궤를 같이하고 있다. 수원역은 수원 시민뿐만 아니라 이웃 지역 주민들의 관문이 되어 왔다. 향후 수인선 광역전철이 새롭게 개통되면 수원역은 1995년 이후 20년 만에 인천으로 향하는 철도가 다시 열리면서 수도권 남부의 십자 환승 철도 네트워크의 중심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고속철도 연결선 개통을 통해 KTX편의 시간 단축과 증편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에 따른 잠재수요 또한 상당하다고 볼 수 있다. 수원역은 미래에도 성장 가능성이 클 것으로 진단되며, 향후에도 수원시의 관문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수원역은 수원역뿐만 아니라 이웃 도시와도 왕래하기 편리한 교통 중심지이다 보니 다양하고 많은 교통수요가 각지에서 모여들어 교통 혼잡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수원역 버스정류장은 전국에서 가장 많은 승객이 이용하여 덕영대로와 매산로 등의 도로는 항상 넘쳐나는 승용차 교통량과 버스, 택시로 혼잡하였다. 결국 교통량을 분산하기 위해 수원역 서측에 환승센터를 건립하였는데, 환승센터 개통으로 버스 노선과 환승 유형이 변경하였으며 일부 환승유형의 경우 환승거리가 늘어나는 불편함이 있었다. 환승센터 개통 초기에 비해 전반적으로 수원역 주변 소통상황이 개선되고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었다. 그러나 아직 부자연스러운 수원역 내 동선과 안내체계가 미비한 점 등이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수원역이 위치한 매산동은 경기 남부권 상업의 중심지로 변성하였으나 인계동, 영통





수원역을 떠나 서울로 향하는 전동차

신도시 개발 등으로 상권과 버스터미널이 동수원으로 이동하면서 도시 쇠퇴 및 슬럼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에서는 2018년부터 수원역과 매산동에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여 지역의 주거복지와 주민 삶의 질을 개선하고자 계획하고 있다. 앞으로 수원역 일대의 다양한 문화역사 자원을 활용한 도시재생사업이 실시되어 매산동의 정체성이 강화되고 침체됐던 지역상권이 점차 활성화될 것으로 보여 수원역을 품고 있는 매산동의 변화가 다시 한 번 기대된다.

참고자료

- 고동환, 『한국전근대교통사』, 들녘출판사, 2015.
- 김찬수, 「선생님이 들려주는 우리고장의 역사 : 수원 팔달산 뚝을 뺀 경부선」, 『경인일보』, 2016년 6월 7일.
- 최진혁, 「수인선 협궤철도의 경관기억과 문화사」,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4.
- 조병로 외, 『조선총동부의 교통정책과 도로건설』, 한국교통사연구총서, 2011.
-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철도교통』, 『주요 정책기록 해설집 4권-교통편』, 2017.
- 국토해양부, 『철도업무편람』, 2009.
- 심재국, 「수원 역세권 지역단절 해소를 통한 도시균형 발전에 대한 연구」,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4.
- 김응국 외, 「수인선변 공동체문화 연구」, 경기연구원, 2017.
- 윤옥경, 「수인선 철도의 기능변화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3.
- 도도로키 히로시, 「수려선 철도의 성격변화에 관한 연구」, 『대한지리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11, 2001.
- 김성연, 「대중교통간 연계 환승체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수원역을 중심으로」, 아주대학교 교통공학과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3.
- 수원시사편찬위원회, 『수원시사 1권 : 수원의 지리적 환경』, 2014.
- 수원시사편찬위원회, 『수원시사 2권 : 수원의 도시공간과 도시구조』, 2014.
- 수원시, 『수원 도시 변천사』, 2004.
- 수원박물관, 『다양한 삶의 교차점, 수원역』, 수원박물관 테마전 도록, 2017.
- 국토교통부, 『2016 철도통계연보 제54회』, 2018.
- 경기도사이버도서관, 『수려선 : 수원에서 여주까지』(<http://theme.library.kr/Suryeoseon/>).
- 손승호, 「수원시 도로망의 변화와 도시공간」, 제2회 수원학세미나, 2018.
- 「경부선」, 「수원역」, 「저항제어」, Wikipedia, 2018년 5월.
- 철도동호인(<http://blog.naver.com/cr12104>).
- 서울교통공사(<http://blog.naver.com/seoulmetro01>).
- 네이버 지도, 항공사진.



한동민 수원화성박물관장

제3장

매산동의 식민지적 변화와 일본인 사회

1. 경부선의 개통과 매산동의 변화

근대 수원 100년의 역사에서 매산동만큼 역동적인 변화를 겪은 마을도 없을 것이다. 매산동의 상전벽해와 천지개벽 같은 변화는 근대 수원의 충격만큼이나 상징적이다. 한적한 시골에서 일약 수원역이 있는 수원의 관문으로, 수원을 상징하는 공간으로 거듭났기 때문이다. 수원군 남부면 매산동은 1905년 이전까지 넓은 벌판에 비해 몇 가구 살지 않았던 한적한 마을이었다. 팔달산 서쪽은 성 안 사람들의 치지에서 보면 동문 밖만큼 시골로 인식되고 있었다. 반월과 남양과 발안 등지로 오가는 길목으로 유용했던 시절이었다. 그러나 1905년 경부철도가 매산동을 지나고 철도역이 자리하면서 새롭게 각광받는 땅이 되었다.

철도의 개통 이전인 1903년 6월 한성-수원 간 전신이 개통되었다. 그리고 1903년 8월 1일 수원에서 일본으로 가는 우편수취소를 수원군 남부면 매산동에 설치하였다. 이곳은 장차 수원정거장이 마련되는 수원역 앞이었다. 이것이 이후 수원역전우체국이 된다. 물론 이미 한성우체사 수원지사가 1895년 8월 10일 설치되어 우편업무를 취급하였다가 이듬해 1896년 수원우체사로 승격되었다. 1898년 수원우체사 안성지사를 개국하였다. 그러나 일제는 조선인이 운영하던 우체업무를 가장 먼저 빼앗았다. 정보의 독점을 위한 것이었다.

이렇듯 수원역을 중심으로 일본인들과 거주지가 만들어지고 편의시설이 속속 들어오고 있었다. 수원역 서쪽 여기산 서호 옆에 권업모범장이 설치되고, 농림학교(서울농대)가 자리하면서 수원은 서쪽으로 확장되기 시작하였다. 또한 수원역을 중심으로 동산농장과 국무농장, 동척 사무소 그리고 식산은행 등 일본 이주민들을 위한 기관들이 대거 들어서면서 매산동은 본격적으로 개발되기 시작하였다. 일본인소학교와 일본 신사와 일본인이 운영하는 사찰들이 수원역 매산동을 지나 수원 읍내를 향하여 들어섰다.

경부선은 1901년 9월 21일 서울 영등포에서, 같은 해 9월 21일 부산 초량에서 일본자본 회사인 경부철도주식회사에 의해 기공되어 4년 후인 1904년 12월 27일 완공되었고, 1905년 1월 1일을 기하여 모든 구간의 영업이 개시되었다. 그해 5월 25일 서울 남대문정거장 광장에서는 성대한 개통식이 거행되었다.

깡을 내며 내달리는 기차는 근대문명의 기호이자 시간에 속박된 무자비한 근대를 만나는 것이기도 했다. 새벽 닭 울음소리에 깨어나 일하고 어둠과 함께 잠드는 순환적이고 자연적인 삶은 노동과 휴식이 철저하게 구분되지 않은 일상이었다. 그러나 기차는 ‘정시 운행’을 통해 정확한 시간을 강제하였다. 그것을 타는 자를 시대에 뒤떨어진 ‘무지한 시골영감’으로 매도해 가며 기차는 시간에 속박된 근대적 시스템을 각인시키며 이 땅의 자연스러운 존재방식을 깡을 내며 찢어 가고 있었다. 신분적 질서조차 철저히 해체해 갔다.



수원역이 들어선 매산동 일대(1924)

1900년 전후반 전 세계적으로 부설된 철도는 세계자본주의의 팽창과 산업화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교통운수의 수단이 되었다. 이는 단순한 교통운반 수단으로서의 역할만이 아니라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면에 걸쳐서 엄청난 변화를 가져왔다. 그 파급효과는 대단히 컸다. 따라서 철도 부설과 그에 따른 지역 변화는 근대화 과정을 잘 보여 주는 셈이다.

20세기 경부철도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한국에서의 철도 부설은 곧 한국의 자본주의화·식민지화·산업화·도시화·근대화 등 중층적 변화와 연결되어 있다. 경부철도가 몰고 온 사회경제적인 변화와 일상생활의 변모는 한국 사회 변동의 척도가 되었다. 특히 철도 부설의 주체가 일본제국주의였고 부설 자본이 일본 자본이었기 때문에 철도 부설 이면에는 일제의 침략성과 수탈성이 내포되어 있었다. 이는 궁극적으로 한국의 내재적인 발전을 저해하고 왜곡·억압시켰다는 점에서 커다란 아픔이었다. 그럼에도 당시 철도는 한국인의 삶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왔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

1901년 4월 경부철도 부설을 위해 일본인들이 수원을 답사하며 노선을 표시하고 다녔



1907년 수원향교에서 바라본 수원역 일대
(국립민속박물관 제공)

다. 처음 계획한 노선은 안양을 지나 지지대고개를 뚫고 서문 밖으로 팔달산 뒤쪽을 관통하며 상류천-대황교 동편을 지나는 것이었다. 그러나 수원 사람들은 팔달산이 정조의 사당인 화령전(華寧殿)의 주산이고, 지지대 역시 정조와 관련한 유적임을 들어 사그내-지지대 터널로 연결되는 철도노선을 반대하였다. 전통적인 풍수지리와 왕실의 안녕에 더하여 그 노선에 전답과 분묘가 많이 포함되었기 때문이다. 이에 남문 밖에 모여 철도의 지지대 통과 반대시위를 벌였고 대한제국 황실도 반대 입장이었다. 수원 영통 출신으로 이러한 사정을 잘 아는 당시 철도원(鐵道院) 총재 유기환(俞箕煥)은 군산포(軍山浦)-사시현(四時峴)-대대동(大垈洞)-서둔동(西屯洞)-상류천(上柳川)을 지나는 노선을 주장하였다. 결국 경부선은 수원 사람들의 뜻대로 수원읍치에서 서북쪽으로 에돌아 군포-부곡-수원역-병점으로 확정되었다. 지지대 터널을 뚫는 난공사를 피해 너른 평야지대를 관통하는 이 노선은 실상 일제의 치지에서도 공사비가 절감되는 것이기도 했다. 그렇게 1905년 개통된 경부선은 영등포-부곡-수원-병점-오산-진위-서정리-평택으로 이어지는 노선을 따라 부설되었다. 이 철길을 따라 근대적 변화가 거세게 밀려왔는데, 일본의 거대자본과 제국주의 침략의 길이었다.

경부선이 개통되자 기차는 일제의 우월한 근대문명 기술의 선전장이 되었다. 그들의 우월의식은 기차의 기적소리만큼이나 커져 갔다. 1908년 4월 1일 서울-수원 간 식당열차가 시운전되었다. 철도관리국에서 부통감 하세가와(長谷川) 대장을 비롯한 일본인 고등관, 그리고 한국 측의 고관대작들을 초청하여 새로 만든 식당열차를 자랑하였다. 이 열차는 러일전쟁 때 러시아로부터 노획한 철도로 만들었던 것이니, 일본인들의 우월감을 더욱 더 고조시킬 만한 것이었다. 더욱이 러일전쟁에 참가했던 하세가와는 이후 1919년 3·1운동 당시 조선총독이 된 일본의 대표적 군인 출신이었다.

이들은 남대문정거장에서 모여 10시에 수원으로 출발하였는데 차 안에서 오찬 향응이 있었고, 차창 밖의 풍물을 관망하면서 수원역에 도착하였다. 수원정거장에는 국기를 게양하고 둥그런 등을 매달아 분위기를 고조시켰다. 또한 수원역 광장에는 임시 운동장이 마련되어 각종 운동경기가 벌어졌다. 이후 차 안에서는 프랑스 요리가 나왔고 일본인 사무관 등이 접대를 맡았다. 물론 술시중은 기생이 맡는 등 초호화판 환대가 있었다. 수원을 출발하여 남대문정거장에 돌아왔을 때는 오후 3시 15분이었다.

이렇게 서울에서 수원까지 우아한 식당열차를 운행하며 즐거웠던 기억은 순종황제를 꼬드기는 상황까지 갔다. 경부선 기차를 이용하여 능행을 하자는 것이었다. 이에 순종황



1908년 순종황제 용건릉 참배 기념엽서(수원박물관 제공)

제는 1908년 10월 8일 용·건릉을 참배하게 되었다. 기차로 남대문역을 출발하여 수원역을 지나 대황교에 임시 정류장을 설치하여 하차하였다. 대황교부터 옛날 정조의 필로를 따라서 용·건릉을 참배하였다. 근 40년 만에 임금의 대가(大駕)가 수원에 행차하는 것이었는데, 일본인이 능행에 배종하는 경우도 처음이었고 기차를 이용한 능행도 처음 있는 일이었다.

기차는 일상에 속도를 불어넣었고, 공간적 거리를 무시하게 만들었다. 그리하여 수원은 서울에서 그리 멀지 않은 땅이 되었다. 경부선이 개통된 몇 년 뒤인 1910년 수원역을 통해 쌀과 콩 그리고 땔나무가 가장 많이 실려 나갔고, 목재·석유·연와(煉瓦)·명태(明太) 등이 수원에서 부려졌다. 특히 명태는 북쪽 원산에 집결해 등짐장수들의 발품을 통해 전국으로 유통되었던 물건이었다. 그러나 경부철도 개설 이후 명태는 원산에서 배를 통해 부산으로 와서는 곧바로 기차로 실려 전국으로 팔려 나갔다. 기차는 이들 전통적인 등짐장수들의 몰락을 가져왔고, 전통적인 장시(場市)의 재편을 가져왔다. 기차역이 지나는 장시는 비약적인 번성을 가져와 대도시를 만들어 갔다. 이런 점에서 수원·오산·평택은 제주로(濟州路)라는 전통적인 대로(大路)의 혜택을 그대로 받았던 셈이다.

1909년 순종황제 궁정열차 승차(수원박물관 제공)



2. 수원역을 중심으로 한 역세권의 형성

경부철도 부설로 발생한 상권의 변화는 한반도 전체를 들끓게 만들었다. 기차 길이 열리면서 기차역을 중심으로 새로운 상권이 형성되었다. 소위 ‘역세권(驛勢圈)’이라는 것이었다. 기차역은 장시가 있는 전통적인 도시와 일정한 거리를 두고 개설되었고, 역 주변의 토지는 헐값에 수용되어 다시 일본인들에게 불하됨으로써 역세권은 일본인들의 차지가 되었다.

이는 철도역을 중심으로 일본인들은 규모 있는 도매업을 장악하였고, 조선인들은 그 아래에서 소매업을 함으로써 식민지 경제체제가 만들어졌다. 이는 전통적인 장시(場市)의 변화를 의미한다. 수원의 상권은 전통적으로 화성의 성밖시장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었다. 그러나 경부선이 개통되고 수원역이 팔달산 서남쪽에 생기면서 수원역을 중심으로 하는 역세권이 만들어졌다.

전통적인 도시에서 일정한 거리를 두고 역을 개설함으로써 조선인들의 넓은 토지를 강제로 수용하여 다시 일본인들에게 불하함으로써 역세권은 일본인들이 장악하였다. 이는 전통적인 도시와 장시를 철도역을 중심으로 재편하면서 일본인이 새로운 상권을 장악하여 큰 도매업을 하고 조선인들은 그 아래 종속적인 소매업을 하게 만들어 식민지 경제체제를 확고히 하는 기제가 되었다.

경부선이 뚫리면서 수원의 서쪽 변두리에 불과했던 수원역 주변은 새로운 상권으로 부각되었다. 물론 수원역전 상권은 일본인들의 상권이 되었다. 이에 수원역 주변으로 일본인들이 대거 진출하면서 일본인들을 위한 편의시설도 수원역전에 집중되었다. 1906년 일본인 학교가 수원역에서 가까운 곳에 설치되었고, 수원역전우편소가 설치되었다. 또한 권업모범장을 거쳐 농사시험장과 농림학교가 서둔리에 설치된 것도 정조 때 축조된 축만제(서호)의 이점을 살리는 동시에 수원역에서 멀지 않다는 점이 크게 고려되었다. 1928년 전통식 건축으로 지은 수원역사(水原驛舍)는 당시 경주역·전주역·남원역 역사와 더불어 역사문화 도시의 의미를 살린 것으로 유명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수원에 대한 역사적 자부심은 실상 일본인들의 수원에 대한 집착을 반영하는 것이기도 하다.

수원은 남문을 중심으로 형성된 전통적인 조선인 상권과 일본인 중심의 수원역 상권으로 양분되었고, 전통적으로 경기 남부의 안성장은 경부선에서 비껴 나가면서 치명적인 타격을 입었다. 수원역 주변의 일본인의 규모는 전체 인구 가운데 11.4%를 차지하고 있

표 1 1914년 수원역 주변 인구

구분	호수(호)	인구(명)
조선인	2,273	10,083
일본인	381	1,303
외국인	3	8
소 계	2,657	11,394

출처 : 조선총독부 철도국, 『조선철도역세일반』 상, 1914, 94쪽; 박찬수, 『수원과 철도』, 『수원학연구』 2, 20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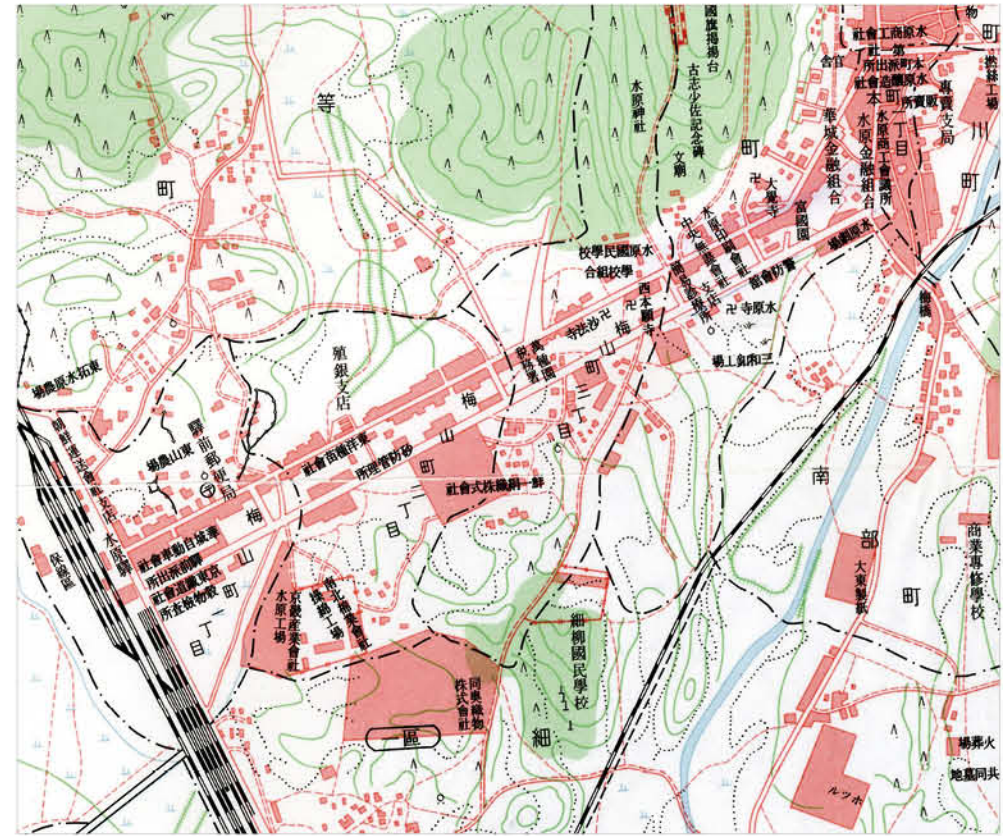
는 셈이다. 병점역 주변 총인구 767명 가운데 일본인 140명, 오산역 주변 총인구 1,006명 중 일본인 68명이었다. 따라서 수원역 주변 일본인 비율은 병점역 주변 18.2%보다 적고 오산역 주변 6.75%보다 훨씬 높은 수치를 보여 준다. 병점역 주변은 안녕리 및 황계리 일대 일본인들이 대거 이주한 때문이다. 수원역 주변의 일본인들은 관공서로는 수원군청, 경찰서, 재판소, 헌병분대, 우편국, 수비대, 권업모범장, 경기도 수원묘포 등에 근무하는 자들과 농업이민자들을 꼽을 수 있다.

…… 상계(商界)에서는 아즉까지 우리에게 상권이 있다고 할 수 있스나(다른 곳에 비하여서) 근년(近年)에 와서는 차츰차츰 日本 사람에게도 올라가는 형적(形跡)이 보이는 것 갓흐니 수원 시내만 불지라도 일본 사람들이 만히사는 역에서부터 남문까지에 날로 번성하여 가는 것과 조선 사람이 만히 사는 종로 일대가 날로 쓸쓸하여 가는 것으로만 보아도 만이 그릇타고 부인치는 못하겠다.……¹⁾

그러나 수원역 주변을 중심으로 형성된 일본인 사회와 상권은 점차 전통적인 조선인 상권을 잠식해 들어갔다. 그러한 흐름을 더욱 강화한 것은 새로운 신작로인 매산로가 1932년 새롭게 뚫리면서 그 경향성은 더욱 강화되었다.²⁾ 지금의 향교로는 정조 때 향교가 세워지면서 생긴 주요한 도로였다. 수원 팔달산 남쪽에 위치한 수원향교는 원래 수원 구읍치에 있었던 것으로 1789년(정조 13)에 팔달산 아래로 옮겨온 것이다. 경부선이 개통되면서 읍내인 화성행궁에서 향교를 거쳐 수원역까지 향교로가 주요한 간선도로였다. 그러나 향교로는 늘어나는 차량과 사람들로 길이 좁다는 여론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에



1940년대 수원역 앞 고등농림학교 학생들(서울대학교 농학도서관 제공)



1940년대 향교로와 매산로 일대

길을 확장하는 것이 논의되다가 주변의 택지와 상점을 수용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게 되자 새로운 도로를 뚫는 것으로 바뀌었다. 1932년부터 수원역에서 수원 읍내로 들어오는 새로운 도로가 뚫리게 되는데, 지금의 매산로가 그것이다. 넓은 신작로인 매산로를 따라 버스와 택시가 자유롭게 왕래하고 새로운 상점과 집들이 들어서게 되었다. 매산로가 개설된 10년 뒤인 1942년 흙길이었던 길이 아스팔트로 포장되었다. 수원역에서 팔달로까지 1,600m의 도로 포장이었는데, 가뭄 구제사업의 일환이었다. 이제 매산로는 수원역으로 가는 주요 간선도로가 되었다. 새로 뚫린 길로 수원극장이 이전 신축되고 수원역과 시내를 오가는 시내버스가 이 길을 통해 오갔다. 그렇게 매산동 일대는 수원에서 가장 번성한 마을로 변모되어 갔다.

3. 수원 일본인 사회의 형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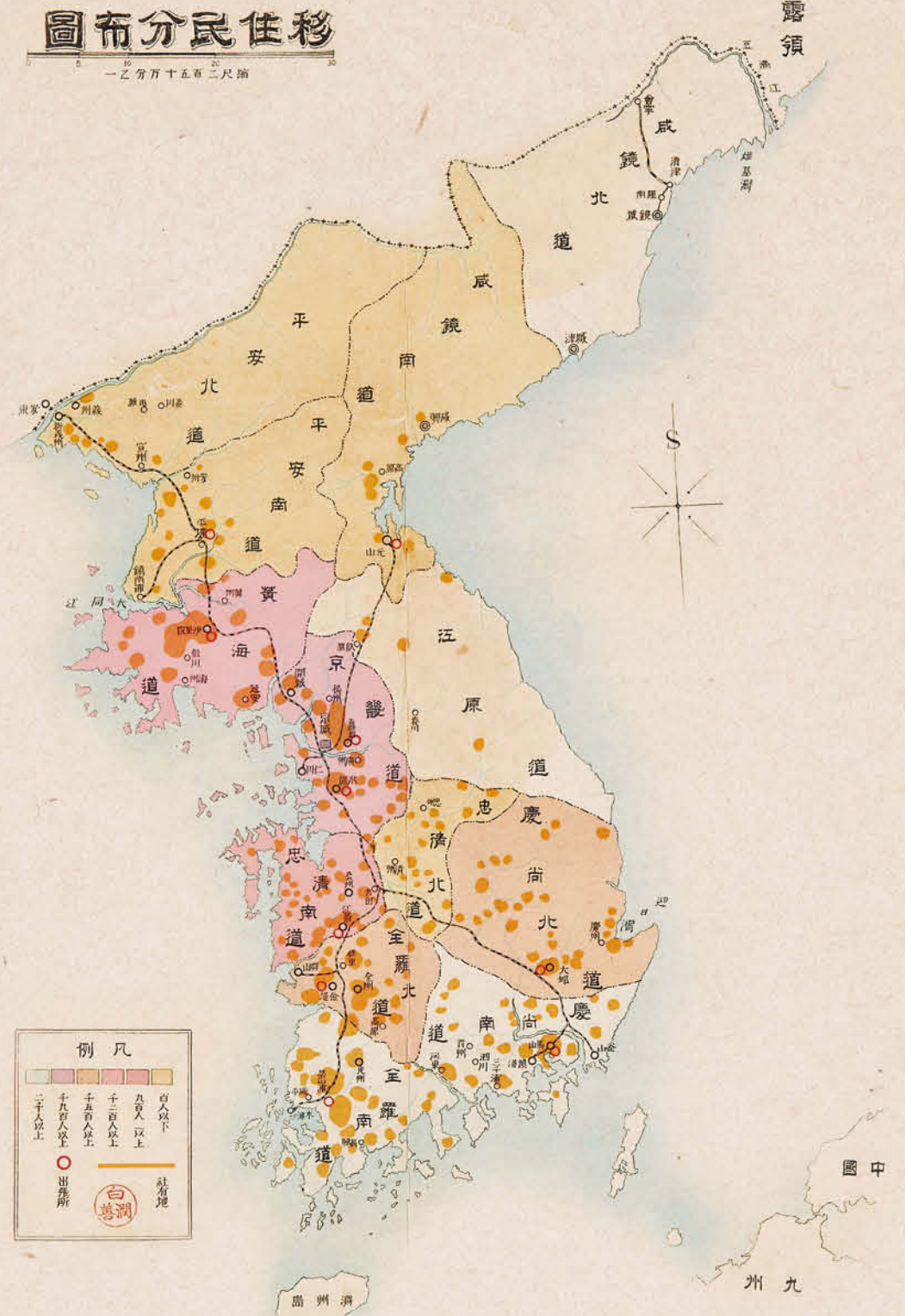
수원거류민단 초대 총대였던 노리마츠 마사야스

역세권이라 일컫는 수원역 앞의 노른자위 땅에는 일본인들이 대거 자리를 잡았고, 이들 일본인들이 주도하여 새로운 상권이 형성되어갔다. 세상이 변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보여 주는 현상이었다. 이들보다 먼저 수원에 최초로 정착한 일본인은 노리마츠 마사야스(乘松雅休, 1863~1921)였다. 그는 기독교 선교를 위해 1900년 8월 9일 부인과 아들을 데리고 서울에서 수원으로 이주하였는데, 이는 일본 개신교 역사상 최초의 해외 선교 사례였다. 정치적이나 종교적으로 아무런

배경과 후원 없이 한 사람의 신앙인으로서 한국으로 온 것이다.³⁾ 노리마츠는 1900년 9월 성 안 북수동(장안동)에 초가집 한 채를 마련하여 수원에 정착함으로써 수원에 영주한 최초의 일본인이 되었다. 성서에 근거한 순수 신앙의 회복을 목표로 하는 플리머드형제단(Plymouth Brethren)의 영향을 받은 노리마츠는 일본에서 교파에 속하지 않고 전도활동을 하다가 1896년 12월 한국으로 왔다.⁴⁾

대한제국이 식민지로 전락하기 전, 일본인에 대한 거부감이 상대적으로 적었던 때였고, 그 스스로 조선인과 같은 생활을 했던 탓에 사람들은 ‘승송(乘松)’이라 부르며 우호적으로 대하였다. 그는 수원에 정착한 이후 수원거류민단 초대 총대(總代)로, 1902년 일어를 가르치던 화성학교(華城學校)를 신평동에 설립하는 데 깊이 관여하였다. 이후 18년간 한국 선교에 힘썼던 그는 1914년 8월 가족과 함께 일본으로 영구 귀국하였다. 1921년 일본에서 죽어 화장하였다가 그의 유언에 따라 이듬해 다시 수원에 유골을 안장하였다. 조선을 사랑한 일본인으로 이 땅에 묻힌 대표적 인물이다. 그 뒤로 망우리 묘지에 묻힌 조선 민예를 사랑한 아사카와 다쿠미(淺川巧, 1891~1931), 양화진 외국인 묘지에 묻힌 조선 고아의 아버지 소다 가이치(曾田嘉伊智, 1867~1962)가 있다.

노리마츠 이후 1902년 1월 노나가(野中末吉)가 이주하여 과자점을 경영하였고, 미와(三輪政一)는 1902년 6월 화성학교에서 교편을 잡아 조선인을 가르쳤다. 이후 1903년 이



노하라(猪原), 오노(小野), 곤도(近藤), 호소카와(細川), 아마자키(山崎), 이마무라(今村), 기타자와(北澤) 등이 수원에 정착하였다.

1904년 러일전쟁을 전후로 하여 일본인들이 대거 조선으로 몰려들어 왔다. 이러한 경향은 전국적 현상으로 수원도 예외가 아니었다. 더욱이 러일전쟁이 일본의 승리로 돌아가자 일본인 이주민이 급증하여 수원의 일본인은 100명에 이르렀다. 또한 1905년 을사늑약 이후 통감부가 설치되고 경무(警務)·재무(財務) 고문(顧問)이 정국을 주도하면서 상황은 더욱 일본인들에게 유리하게 전개되고 있었다. 특히 수원의 경우 1906년 권업모범장(勸業模範場)과 농림학교(農林學校)가 정조 때 축조된 축만제 옆에 설치되면서 일본인 이주자들은 더욱 늘어나게 되었다. 이에 일본인 거류민회(居留民會)가 조직되고 일본인 소학교 등이 설립되었다.

표 2 재조 일본인회 조직과 일본인 현황

(1909년 12월 말 현재, 단위 : 명)

명칭	거류지 구역	호수	인구			호당 평균 인구	설립일
			남	여	계		
수원 거류민 총대역장	수원부 일원	360	692	555	1,247	3.46	1906년 8월 30일
경성 거류민단	경성 성내 일원	7,581	13,217	12,079	25,296	3.27	1906년 8월 15일
인천 거류민단	인천 일원	2,917	5,916	5,209	11,125	3.81	1906년 8월 15일
용산 거류민단	한강 양안	2,358	3,931	3,634	7,565	3.21	1907년 9월 15일
개성 거류민 총대역장	개성군 개성부	336	607	478	1,085	3.23	1900년 6월 17일
영등포 거류민 총대역장	시흥군 영등포 중종리, 하방곶리, 사촌리, 도야미리, 구로리	171	297	223	520	3.04	1905년 4월 24일
오산 일본인회	오산동	27	48	41	89	3.30	1907년 5월 6일
평택 거류민 총대역장	평택역 일원	38	55	57	112	2.95	1908년 5월 5일
여주 일본인회	여주 및 부근	29	46	31	77	2.66	1909년 6월 23일
안성 일본인회	안성 일원	43	62	51	113	2.63	1909년 10월 25일



황계리 일본 이주민마을(조선총독부, 『생활상태조사-수원군』, 1929)



일본 이주민 경영 과수원(조선총독부, 『생활상태조사-수원군』, 1929)

당시 수원의 일본인들은 크게 관공리, 상공업자, 농업이민자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수원의 일본인 거류민 집단은 종교인 → 상인 → 관공리, 교사 → 농업이민의 순서로 들어왔다. 일본인의 조직은 거류민회 조직으로 시작되었으며 수원은 일본인거류민단을 거쳐 수원일본인회로 점차 조직적 진화가 이루어졌다.

일본인 거류민 조직은 1900년 설립된 경기도 개성이 가장 빠른 것으로 보인다. 대개 일본인 거류민 조직은 1905년 을사늑약 이후의 일이다. 러일전쟁 전후 일본인들이 대거 조선으로 유입되고 1905년 을사늑약 이후 자신감을 확보한 일본인들은 1906년 8월 개항장을 비롯한 대도시인 인천·부산·평양·목포·군산·진남포 등지에서 거류민단을 조직하였다. 뒤를 이어 9월 원산·마산, 11월 대구에서 거류민단이 조직되었다.

수원의 경우에도 일본인들이 대거 모여 사는 대도시에서 거류민단이 조직되는 거의 비슷한 시기인 1906년 8월 30일 수원거류민 총대역장이 조직되었다. 따라서 을사늑약 이듬해인 1906년에 일본인회 조직이 결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수원거류민단 초대 총대(總代)는 노리마츠였고, 2대 총대는 미와(三輪), 3대 총대는 곤도(近藤虎之助)였는데 이들은 학교조합 관리자이기도 했다. 수원으로 일본인들이 대거 정착하면서 수원 거류 일본인들은 1908년 3월부터 일본어로 된 신문을 발간할 정도가 되었다.⁵⁾ 그러나 수원의 일본인들이 발행하던 『수원신보(水原新報)』(등사판)는 간행경비의 조달의 어려움으로 1908년 12월 15일 제50호로 폐간되었다.⁶⁾ 『수원신보』는 주간으로 발행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후 재간행을 위해 노력하였으나 현실화되지는 않은 듯하다.

한편 일본인들은 1910년 병합(강제합병)으로 경기도관찰부(경기도청)가 서울로 이전하면서 수원에 대한 인기가 다소 내려앉은 듯하였으나 다시 내왕이 많아지면서 연 30% 안팎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1912년 말 조사에 따르면 수원군의 조선인 인구는 8만 5,471명(1만 5,984호)에 일본인은 2,408명(667호)이었다.

수원 지역 일본인들은 일제강점기 내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조선에 진출한 일본인들을 출신지별로 보면 야마구치(山口), 나가사키(長崎), 후쿠오카(福岡), 사가(佐賀) 순으로 많다. 이는 조선과 가까운 지리적 관계 탓이 크다. 수원의 경우에도 사가현(319명), 후쿠오카현(203명), 야마구치현(184명), 오카야마현(岡山縣, 167명), 히로시마현(廣島縣, 162명) 순으로 많다.⁷⁾

4. 수원 일본인 사회의 중심, 일본인학교

1) 일어 화성학교

일본인들이 조선 각지에 들어와서 제일 먼저 한 사업 가운데 하나가 자체 교육기관으로 학교를 설립하고 운영하는 것이었다. 1877년 부산에 일본인들이 극히 간단한 초등교육기관을 설치한 것이 일본인 초등교육기관의 시초였다. 일본 대마도에서 가장 가까운 부산의 왜관은 오랫동안 일본인의 왕래가 있었지만 결정적으로 강화도조약으로 부산과 원산 및 인천이 개항하면서 일본인들이 들어왔기 때문이다. 이후 1883년 원산, 1885년 인천, 1889년 서울에 일본인학교가 설립되었다. 그 후 점차 증가하여 1894~1895년 갑오농민전쟁과 청일전쟁 이후 일본인들이 조선으로 대거 몰려옴에 따라 거류지가 신설되고 각지에 소학교가 설치되기 시작하였다. 즉 1898년 목포·진남포, 1899년 군산, 1902년 평양·개성·마산, 1903년 용산·통영, 1905년 강경·대구·영등포·밀양·울릉도 등에 신설되었다. 일본인들이 많이 진출한 지역이었다.

1904년 러일전쟁 이후 일본인들은 러시아를 능가하게 되면서 개항장에서 벗어나 각 지역 대도회지에 점차 세력을 뻗쳐 일어학당(日語學堂)을 세워 나갔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는 각지에 일어학교가 설립되어 운영되었고, 한국인의 서당 등에서도 일어를 가르치고 배우려는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났다. 이제 일본의 세상이 되어 돌아가는 현실의 영악한 반영이 아닐 수 없었다. 일본 세력의 확대를 눈치 챈 약삭빠른 자들의 일어 배우기 열풍이 전국을 휩쓸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일본어를 가르치는 일어학교는 일본세력의 확장과 더불어 전국적으로 선풍적인 인기를 얻으며 성장하고 있었다. 즉 인천 일어학교는 인천 감리(監理)와 영사(領事)가 창립에 관여하였고, 서울에는 해외교육회가 설립한 경성학당(京城學堂)이 있고, 부산에는 개성학교(開成學校), 평양에는 일어학당, 대구 달성학교(達成學校), 수원 화성학교 및 군산·경주·진남포·나주 등에 사립 일어학교가 있었다. 이후 밀양·동래·군산 등에도 일어학교가 설립되어 갔다.⁸⁾

수원의 경우 성 안 신흥동에 화성학교(華城學校)가 1900년부터 존재하였다. 수원중고등학교의 전신인 화성학원(華城學院)과는 다른 것이다. 처음에는 조선인 자제들을 위해서 한문과 일어를 가르치는 개량서당에서 시작하였다. 2명의 한국인 교장의 뒤를 이어 일

본인 미와 세이이치(三輪政一)가 1902년 6월 부임하였다. 노리마츠와 함께 그가 학부(學部)에 ‘화성학교’로 청원하여 인가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미와가 부임하면서 일어를 가르치면서 이후 ‘일어 화성학교’로 불리면서 명성을 얻었다. 그가 부임하여 조선인을 가르치며 화성학교를 본궤도에 오르게 하였다.⁹⁾ 개량서당이었던 화성학교를 근대적 교육방식의 일어 화성학교로 발전시킨 것으로 볼 수 있다. 미와는 화성학교 3대 교장이었지만 뒷날 사람들이 그를 설립자로 간주할 정도였다.¹⁰⁾ 따라서 일어 화성학교는 실질적으로 1902년 6월 이후 일본인들의 주도적 역할이 가능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당시 주요한 도시에 설립된 일어학교라는 것도 보통교육을 시키는 학교 내에 일본어학과를 별도로 두는 방식이었다. 부산 개성학교는 전체 학생 50~60명 가운데 일본어학과 학생은 30~40명 정도였다. 대개의 일본어학교는 전체 학생 가운데 절반 정도가 일본어과였다.

처음 학교 설립 취지는 조선인에게 일본어를 가르쳐서 양국의 친선을 도모하는 데 있다고 했다. 일어학교 설립 취지는 “한인의 교육은 생도에 한하지 않고 그 지방 일반 한인을 교화하여 일본의 정책 및 일본인을 위하는 것에 대하여 방해하지 않으며, 또한 악감정을 갖지 않도록 하여 오로지 좋은 감정으로 이를 환영하여 만사를 주선하는 노력을 아끼지 않도록 하는 데 있다.”고 밝혔다. 처음 개량학당으로 시작하여 학교로 인가되면서 일본어를 가르치는 일어학교로 변화되었고, 러일전쟁을 겪으며 일본의 우위를 확인하면서 설립 목적은 명확한 것이 되었다. 일어 화성학교의 명성은 일본의 세력 확대와 맥락을 같이하는 것이었다.

화성학교가 처음 개설된 1900년 학생수는 10여 명이었고, 1901년에도 30여 명이었으나 1902년 일본인 미와(三輪)가 부임한 이후 학생이 증가하였다.¹¹⁾ 부족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미와(三輪)는 1904년 인천 거류지에서 600엔을 거출하였고, 인천 영사(領事) 가토(加藤本四郎)의 지원을 받았다. 또한 1905년 호세가와(長谷川) 대장과 하야시(林) 공사 등이 수원 화성학교를 방문하여 보조금을 지급하기도 했다. 따라서 화성학교는 경성과 인천의 일본인 거류지 관민 유지들의 지원을 받으며 유지되었다. 신평동 일어 화성학교는 일본인 교사에 의해 운영되면서 조선인에게 일어를 가르치고 기초적인 초등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는 서울 및 인천의 일본인 사회의 지원과 미와(三輪) 개인의 열성적 노력에 따라 일어학교의 학생들이 폭발적으로 증가하였다. 그 결정적 요인은 러일전쟁의 발발과 일본의 승리에 있었다. 당시 화성학교 학생들은 러일전쟁 당시 일본군에 적극적으로 협력하

는 자세를 보였다. 즉 화성학교 학생 46명은 군자금으로 44원 80전을 기부하여 일어 화성학교 교장 미와(三輪)가 일본 영사관에 접수하였다. 동시에 일어를 할 줄 아는 4~5명은 통역을 지명할 정도였다. 따라서 1904년 3월 시점에 화성학교 학생들은 적어도 40명이 넘었음을 알 수 있다. 러일전쟁이 일본에게 유리하게 전개되면서 이후 일어 화성학교 학생들의 숫자는 100명을 넘어서게 되었던 것이다. 학생수는 학교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수원 화성학교도 100명 정도로 생도가 많은 곳 가운데 하나였다.

따라서 일어를 공부한 졸업생들은 일제의 침략에 활용될 소지가 컸으며, 실제 많은 수의 사람들이 친일의 길로 들어섰다. 군용철도 감독부 통역, 자혜병원 통역, 재판소 서기 등으로 활용되면서 일제의 식민통치 기구의 말단 관리로 편입되었다. 당시 일어의 필요성은 일제의 한반도 침략과 궤를 같이하며 한국에 대한 침탈의 현실적 도구로 활용되었던 셈이다.

실제 화성학교 졸업자였던 최규완은 졸업 직후인 1905년 5월 1일 수원 자혜의원 통역을 거쳐 통감부 통신관리국 건설부 용산출장소에서 활동하였다. 이정상은 졸업 후 재무서 서기를 거쳐 재판소 서기가 되었는데 월급 20엔에 일어수당을 1개월에 6엔씩 더 받았다. 이후 통감부 판사를 거쳐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청 판사를 거쳐 전라남도 증추원 의원으로 추천되었다. 박성근은 1908년 9월 1일부터 1919년 9월까지 수원공립보통학교 훈도를 역임하고, 1929년 3월 31일 태장공립보통학교 훈도 겸 교장이 되었다.¹²⁾

2) 일본인소학교의 탄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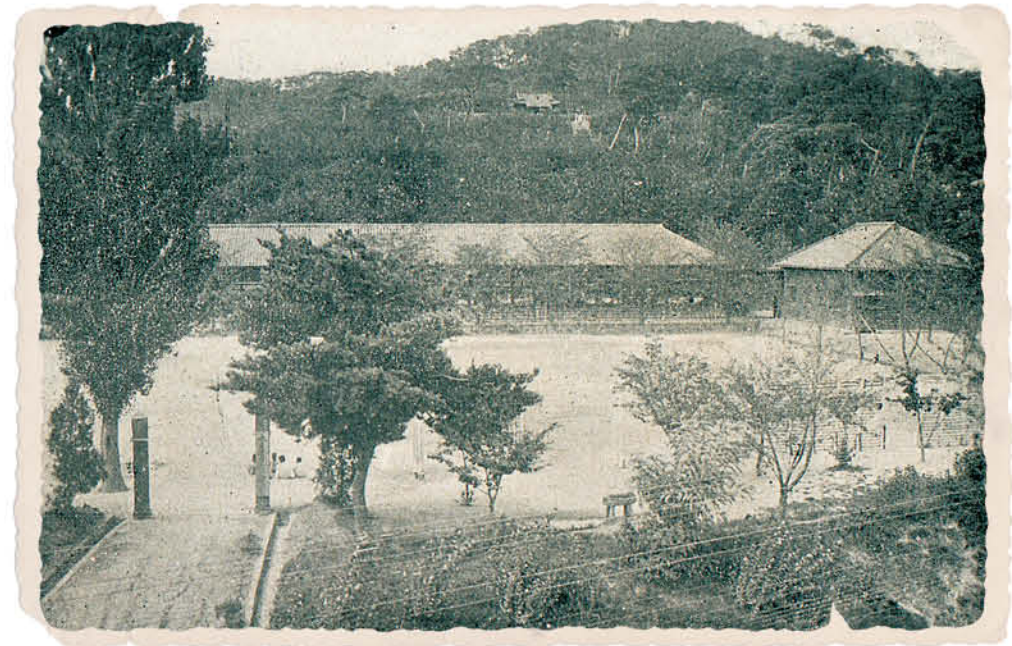
1905년 ‘재외지정학교(在外指定學校)에 관한 규정(規定)’에 따라 지정학교가 되면서 이들 학교는 직원은 물론 아동의 입학·전학 등의 관계에 이르기까지 일본에 있는 공립소학교와 같은 취급을 받았다. 더욱이 1906년 2월 1일 통감부가 설치되면서 일본인들이 대거 조선으로 이주함에 따라 일제 통감부는 새롭게 보조금 제도를 만들어 일본인 학교 설립 및 내용의 충실을 도모하였다. 이러한 결과 매년 여러 개의 일본인 학교가 신설되었는데, 1907년 말 54개교, 1908년 말 79개교, 1909년 말 102개교, 1910년 8월 총독부 설치 당시에는 약 220개교에 이를 정도였다.

수원의 일본인 거류민들이 증가하면서 일본인 자제들에 대한 교육문제가 대두되었다. 1906년 2월 25일 수원 거류민회에서는 일본인 학령아동에게 교육을 실시하는 안건을 결

의하고, 호소카와(細川久太郎), 도쿠나가(徳永仙吉), 곤도 나루미(近藤成美) 등 3명을 위원으로 선출하여 실행방안을 강구하도록 하였다. 이들이 일본인 소학교 설립의 공로자인 셈이다. 일본인 자제를 위한 학교 설립을 위해 노력하였으나 아직 학생수도 많지 않았고 교원 확보도 어려운 상황에서 독자적인 학교 설립에는 무리가 있었다. 이에 기존의 신평동 일어 화성학교 일부를 얻어 일본인들을 교육하는 방법을 선택하였다. 이에 거류민 대표와 평의원들이 통감부에 청원하여 일시금 300원과 매월 보조금 35원 지원을 확보하였다. 이는 재외 지정학교에 대하여 경상비로 매년 480원, 창설비로 평균 150원을 국고 보조하는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한 셈이다. 이들은 통감부 지원금을 통해 일어 화성학교를 확장 수리하여 일본인 자제를 가르치는 방법을 도모하였다.

이에 1906년 10월 화성학교 온돌방 일부를 빌려 일본인 학생을 가르치면서 수원의 일본인학교가 비로소 시작되었다. 이에 먼저 1906년 9월 28일 후쿠오카 출신의 오쿠조노 요시지로(奥園悦次郎)를 교원으로 임용하였다. 그리고 며칠 뒤인 1906년 10월 8일 일어 화성학교에서 일본인소학교 개교식을 거행하였다. 개교 당시 일본인 학생은 7명에 불과하였다. 화성학교에서 개교했음에도 일본인들은 '수원거류민립소학교(水原居留民立小學校)'로 불렀다.

1906년 11월 15일 경성소학교에서 재한일본인소학교(在韓日本人小學校) 회의가 열렸다. 각 지역 일본인소학교 학교장을 소집한 회의였다. 당시 참석한 학교는 군산(野田茂



수원공림심상고등소학교(사카이 마사노스케, 『수원』, 1923)

治), 조치원(星原貞範), 마산(中訂治野), 영등포(大賀義雄), 용산(宮脇嘉介), 수원(奥園悦次郎), 대구(前田篤志), 개성(岡本豊喜), 부산(高橋恕), 인천(松本鍔三郎), 평양(若林勇), 경성(横山彌三) 등 12개 학교였다.¹³⁾ 수원의 수원소학교 교장 오쿠조노(奥園)도 참석하였다. 따라서 일어 화성학교 내에 병설된 일본인을 위한 소학교였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인 수원소학교라는 의식을 지니고 있었던 셈이다.

1907년 일본인 학생이 20명으로 크게 늘면서 화성학교 교사가 비좁게 되었다. 이에 통감부 보조금 400원과 일본인 거류민들의 기부금을 모아 약 4,000원으로 팔달산 남록매산리에 학교 건물을 설계 건축하여 이듬해 1908년 1월 40평의 학교 건물을 낙성하였다. 이때 직원은 2명이었고 학생수는 32명으로 늘었다. 일본인 거류민들의 기부금과 통감부의 지원금으로 세운 일본인학교는 수원향교 옆으로 수원역과 가까운 팔달산 남록이다. 지금의 매산초등학교 자리가 그곳이다.

이로써 수원 지역 일본인 사회의 또 다른 구심점 역할을 담당하게 되는 일본인학교가 만들어지게 된 것이다. 순종황제도 1908년 11월 3일 용·건릉을 전배하고 농사모범장(권업모범장)을 방문하면서 수원 지역 각 단체에게 총 2,300원을 내려주었다.¹⁴⁾ 이 가운데



1907년 수원거류민립소학교(국립민속박물관 제공)

일본인소학교에 100원, 수원일본인회에 200원을 제공하였다. 1909년 3월 26일 제1회 졸업식을 거행하였다. 그때 졸업생은 8명으로 심상과 4명, 고등과 4명에 불과하였다. 해를 거듭할수록 학생수가 증가하여 다시 1909년 9월 새 건물을 기공하여 이듬해인 1910년 1월 교실 50명을 준공하였다. 이때 교원은 3명, 아동수는 114명이었다.

수원거류민립소학교로 시작한 일본인학교는 1910년 5월 31일 ‘수원학교조합립수원심상고등소학교(水原學校組合立水原尋常高等小學校)’로 바뀌었다가 소위 합방 이후인 1912년 4월 1일 ‘수원공립심상고등소학교(水原公立尋常高等小學校)’로 개칭되었다. 다시 태평양전쟁기인 1941년 ‘수원공립국민학교(水原公立國民學校)’로 바뀌어 일제의 패망으로 1945년 8월 15일 폐교되었다.

학생수는 1906년 7명, 1916년 300명대, 1930년 400명대로 증가하면서 수원 지역 일본인 사회의 중심적 역할을 담당하였다. 이에 비해 조선인들이 다녔던 수원공립보통학교는 1917년 9학급 400명, 1923년 16학급 940명에 이르고 있다. 그럼에도 일본인소학교가 수원을 대표하는 소학교로 인정받았고, 인근 팔달산 중턱의 수원신사(水原神社)와 더불어 일본인 사회를 지탱하는 정신적 구심 역할을 하였다. 1909년 안중근 의사에 의해 하얼빈에서 처단된 이토(伊藤博文) 추도회를 거행하거나, 학교 운동회 및 각종 행사를 통하여 수원 지역 일본인 사회를 결집시키는 핵심적 공간으로 기능하였다.

5. 수원 일본인의 정신적 구심, 수원신사(水原神社)

매산로3가 수원시민회관 주차장 자리에 일제강점기에 수원신사(水原神社)가 있었다. 1915년 곤도(近藤虎之助) 등 수원 거류 일본인 49명이 수원신사 창건을 청원하여 조선총독부로부터 인가를 받았다.¹⁵⁾ 이후 1917년(대정 6) 10월 29일 팔달산 수원향교 위에 건립된 수원신사 낙성식이 거행되었다.¹⁶⁾ 1930년대 말 조선인 학생들에게도 매주 월요일 신사참배를 강요하였다. 당시 신사에 모인 학생이 수백 명에 달했고, 국민학생들이 신사참배에 더 적극적으로 동원되었다. 그러나 일본인에게 수원신사는 그들을 묶는 정신적 구심점이었다. 일본인들이 거주하는 곳에 그들이 가장 먼저 세우고자 했던 것이 지역의 신사였다.¹⁷⁾

수원신사는 수원향교를 굽어보는 팔달산 중턱에 자리 잡았다. 수원향교 위에 신사를



수원신사(수원박물관 제공)

마련함으로써 조선인의 자존심을 짓밟는 행위를 서슴지 않았던 것이다. 각 도시마다 가장 입지조건이 좋은 곳, 광대한 넓이의 땅을 점유하여 공간적으로 도시를 제압하고 정신적으로 도시민을 지배했던 것이 신사였다. 한국의 거류 일본인뿐만 아니라 일본의 황민화정책으로 어느 정도 순화되어 가던 조선인들에게도 신사는 각 도시의 구심점 역할을 담당하는 것으로 인식되어 갔다.¹⁸⁾

신사는 일본인이 일정한 양식의 건물에 특정한 신령을 모셔 놓고 제사지내며 그곳을 신성한 터전으로 여기는 곳을 말한다. 이는 농경사회로 정착한 예부터 고을과 마을과 지켜주는 신령이 계시는 신성한 곳으로 추송되어 온 것이다. 그러나 일본의 지배계층은 이러한 원시신앙인 신도를 지배방식으로 활용하였다. 신도를 일본 천황가의 가계에 맞춰 확대 조직하고 제도화하면서 세속적 지배를 유리하게 변질시켰던 것이다.

사실 고대 불교를 수용한 이래 지배적 종교는 불교였다. 그러나 명치유신 이래 근대 천황가가 탄생하면서 살아있는 현인신(現人神)으로서 천황을 추앙하면서 신도는 새롭게 재발견되고 독립되었다. 따라서 근대적 의미의 신도로 확대 발전하였던 것이고 근대 일

본의 국가주의적 발전과 더불어 신도 또한 성장하였던 것이다. 큰 나라로 일본 스스로 전쟁의 승리를 예견하지 못했던 청나라·러시아와의 전쟁에서 승리한 이래 조선을 식민지로 만들면서 신도는 국가를 지탱하는 근간적인 종교가 되어 갔다.

명확한 교의(敎義)와 제대로 된 신학(神學) 및 지켜야 할 계율도 없어 종교·사상적 투쟁도 결여된 허술하기 짝이 없는 신도(神道)가 일본인을 광신자로 만들어 간 이유는 종교 외적 요인에서 찾아야 한다. 그것은 일본의 제국주의적 발전과 짝을 이루고 있었던 것이다. 특히 1931년 만주 침략과 1937년 중일전쟁으로 확대된 침략전쟁에서 들려오는 계속된 승전보는 신국(神國) 일본과 가미가제(神風)에 대한 자기 확신을 지니게 되었다. 이는 전쟁을 수행하던 군부와 정부를 포함하여 일반 국민들에게도 전염되어 갔고, 1930년대 이후 일본은 신도에 대한 자발적인 광신자들로 넘쳐나게 되었다.¹⁹⁾

그런데 문제는 수원신사의 자리에 있었다. 이는 수원향교 위쪽으로 자리를 잡았다는 점이다. 수원 화성의 건설 과정에서 가장 먼저 터를 잡은 것이 수원향교였다는 점에서 조선시대 향교에 대한 상징성은 절대적인 것이었다. 수원 신읍치 이전 이후 정조 스스로 수원향교 고유문을 짓고 직접 전배함으로써 그 상징성을 더욱 분명히 하기도 했다.²⁰⁾

따라서 수원신사를 수원향교를 지그시 누르는 위치에 자리 잡음으로써 수원신사 건설을 통하여 의도하는 것이 무엇이었는가를 여실히 보여 주었다. 이미 조선의 상징적 건물이었던 향교 인근으로 서구 근대 문명의 상징으로 이해되었던 영국성공회 교회가 들어 서고, 일본인학교가 신축되는 등 시대적 변화를 겪고 있었다. 조선의 정신적·문화적 상징이었던 수원향교 위에 높게 지은 수원신사는 조선을 지배하고 있는 일본의 상징을 여실히 보여 주는 것이었다. 특히 일본인 학교였던 수원소학교를 드나들며 바라볼 수 있는 위치에 수원신사가 자리 잡았다.

조선인들에게는 향교를 누르고 선 신사가 압박감으로 다가올 수 있지만, 일본인들의 처지에서 보면 눈 들어 팔달산을 바라보면 언제든지 굽어 살피는 위치에 있는 신사의 존재는 그들을 보호해 주는 신령스런 존재였던 셈이다. 이제 팔달산은 수원신사가 있는 상징의 장소로 변화되어 갔다. 화성행궁이 수원의 중심이었던 것에서 경부선 개설 이후 일본인들의 상권으로 발돋움하며 수원의 신시가지로 형성했던 수원역과 권업모범장 등에서 바라보면 수원신사와 수원소학교 등이 새로운 상징이 되었던 것이다.

신사는 일본인의 생활 기반을 형성하고 국민생활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었다. 역전에 살던 일본인 학생들은 이른 아침 신사를 참배하는 것을 자랑으로 여겼다. 유아사 가

쓰에의 단편소설 「대추」는 조선인 아버지와 일본인 어머니 사이에 태어난 김타로의 이야기이다. 이 가운데 남문 안에 사는 소년이 이누이 할아버지에게 매일 아침 6시 일어나 새벽길을 달려 팔달산 중턱에 있는 가슴을 찌를 듯한 계단을 통해 신사 본전(本殿)까지 오르는 훈련을 강요받고 있다. 한겨울이면 계단에서 뒹굴기도 하지만 ‘야마토 다마시(大和魂)’를 가진 일본인을 요구하는 기제로 수원신사가 활용되고 있다.²¹⁾

한편 수원신사의 가을축제에 수원역전 아이들은 ‘水原神社 梅山町氏子’의 깃발을 선두로 신여(神輿)를 메고 행진하였다. 물론 아이들이 노리는 것은 카라멜, 과일, 도시락인데, 평소의 싸움패들도 이날만큼은 서로 기분이 좋았다.

수원의 히로시마현 출신들의 모임이 조직된 것은 1923년경이었지만 지지부진한 상태였다. 그러다가 고등농림학교 배속장교로 히로시마 주류(駐留) 보병중좌(歩兵中佐)가 부임하는 것을 계기로 히로시마현인회를 부활시키고자 하였다. 이에 100원을 들여 현인회 깃발을 제작하고 깃발 추대식을 수원신사에서 거행하였다. 1930년 6월 28일 오후 6시부터 수원신사에서 회원 20여 명이 참석하여 회장단을 선출하였는데, 회장은 수원 주류 보병중좌가 맡는 것으로 하고, 부회장은 원로인 모리모토 슈노스케(森元俊之助)를 선출하였다. 이 행사를 위해 서울에서 경성히로시마현인회(京城廣島縣人會) 회장과 부회장 등 임원 6명이 참석하여 함께 신사를 참배하였다. 수원신사 미야자키(宮崎) 사장(社掌)에 의해 현인회 깃발 추대식이 거행되었다.²²⁾ 수원 거주 일본인들에게 수원신사가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잘 보여 준 사례라 하겠다.

6. 매산동 일본인 사회와 일본인 상점

1) 매산동 일본인 사회의 특징

일본인들은 수원역 역세권을 중심으로 1910년 당시 이미 상당한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다. 1911년 『토지조사부』의 매산리 전체 토지 20만 5,000평 가운데 10만 평(10만 753평)이 일본인 소유였다. 매산동 절반에 해당하는 규모다. 조선인 소유 10만 평 가운데 국유지 3만 평을 제외하면 7만 평이었다. 더욱이 매산리의 큰 길가의 알짜배기 땅은 대부분 일본인 소유였다.

표 3 1911년 매산동 토지소유 현황

(단위 : 평)

지목별			소유별			
구분	면적	필지수	국유 면적	국유필지수	민유면적	민유필지수
田	45,596	53	2,532	5	43,064	48
畓	68,722	57	1,047	1	67,675	56
堡	36,590	44			36,590	44
雜種地	243	1			243	1
林野	23,539	8			23,539	8
墳墓	93	1			93	1
鐵道用地	30,261	1	30,261	1		
소계	205,044	165	33,840	7	171,204	158

출처 : 조선총독부, 『토지조사부』

1905년 경부선과 경의선이 개통되면서 일본인들이 대거 한반도로 몰려오고 역세권을 중심으로 각지에 자리를 잡았다. 이에 인천에서 발간되던 일본어 신문사인 조선신보사(朝鮮新報社)는 1907년 기차를 이용하여 ‘한일무역과 농산업 등 경제상의 이익’을 도모한다는 취지로 ‘기차박람회(汽車博覽會)’를 개최하였다. 이는 기차 4량을 임차하여 3량은 상품진열차로 만들고, 1량은 상품을 싣는 화물차로 이용하여 기차역이 있는 주요 도시를 돌며 기차의 유용성을 선전하고 한국에 진출한 일본인들의 상품을 선전하여 경제적 이익을 도모하고자 했던 것이다. 기차박람회는 1907년 4월 처음 시작하여, 1910년 4월 제2회 기차박람회가 개최되었고, 다시 1914년 4월 제3회 기차박람회가 열렸다. 1914년 4월 9일 순종황제는 조선일보사가 주최한 제3회 기차박람회를 위해 특별히 하사금 300원을 내려주기도 하였다.

1907년 『조선신보』는 첫 기차박람회가 개최되었을 때 찬조자 명단을 게재하였는데, 이때 수원역의 유력한 일본인이 3명의 명단이 보인다.²³⁾ 호소카와 큐우타(細川久太郎), 미토 코마(御藤こま), 도쿠나가 센키치(徳永仙吉) 등이다. 호소카와는 3원, 미토는 한국기(태극기) 200류와 수원 명물 매산만주 200개, 도쿠나가는 맥주 1상자를 찬조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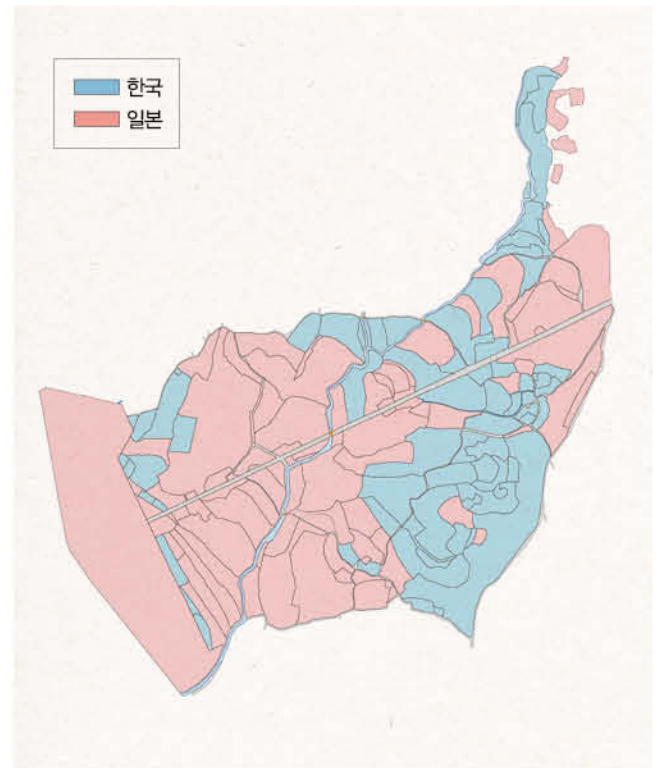
한편 1906년 2월 25일 수원 일본인 거류민회에서는 학령아동에게 국민교육을 실시하

는 안건을 결의하고, 호소카와(細川久太郎), 도쿠나가(徳永仙吉), 곤도 나루미(近藤成美) 등 3명을 위원으로 선출하여 학교 설립에 힘쓰게 하였다. 이들이 일본인학교인 수원소학교 설립의 공로자인 셈이다.

조선에 거주하던 일본인들의 중층적 구조와 심리 상태를 가장 진솔하게 기술하고 있는 것은 박열(朴烈, 1902~1974)의 애인이자 동지였던 가네코 후미코(金子文子, 1903~1926)의 글이다. 조치원과 신탄진 사이의 경부선 부강역(夫江驛) 뒤편의 부강리에 설립된 부강심상소학교를 1912년 4학년으로 편입하면서 조선에 살았던 경험을 담은 것이다. 부강역을 중심으로 한 면단위 소재 부강리의 일본인 40호의 마을 구성은 일반적인 일본인 이민사회를 잘 보여 준다.

일본인 동네는 대개 여관, 잡화점, 문방구, 의사, 우편소, 이발소, 종묘상, 과자가게, 신발가게, 목수, 소학교 선생님 등이 각 1호, 현병 5호, 농민 3호, 매춘집 2호 그리고 역장 및 역무원 4호에, 철도노동자 3~4호, 조선인을 상대로 고리대금업을 하는 집 6~7호, 해산물 등을 중매하는 집 2호, 담배, 막과자가게 등 소매점이 2~3호 등으로 구성되어 있었다.²⁴⁾ 즉 군인과 역장 및 역무원, 교사를 비롯한 공무원과 의사, 목수, 상인, 농민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가운데 가장 유력한 존재가 조선인을 상대로 하는 고리대금업자의 존재였다. 이는 수원역전 매산리의 일본인 사회도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

…… 일본인 동네의 상태는 어땠는가 하면 이들은 원래 이익을 위해 모인 집단이므로 공동체적인 정신이 있을 턱이 없고 마을을 지배하는 정신도 힘도 오직 돈이었다. 그래서 돈이 있는 집이 자연히 세력이 있어 마을의 행정-행정이라 하면 거창하지만-을 그런 사람들이 좌지우지하고 있었다. 즉 돈이 있고 빈둥빈둥 놀면서 유행이 지난 도회지풍



1910년대 토지조사사업 당시 매산리 국적별 토지소유 필지 (수원학연구센터 제공)



수원역전 일본인 거리(수원박물관 제공)

의 기모노를 입고 있는 그런 계급의 사람들이 잘난 척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중에서도 특히 유력한 집은 돈만 있는 것이 아니라 논밭이 있어 이곳에 생활 기반을 잡고 있는 사람들이었다. - 그들 중에는 고리대금업자가 가장 많았다. - 그 다음으로는 헌병, 역장, 의사, 선생님 등이 유력하였다. 여기까지는 그 부인이 '오쿠상[사모님]'으로 불렸지만 그 아래의 상인, 농민, 공원, 목수 등의 안사람은 한꺼번에 '오카미상[아주머니]'으로 불렸다. 그러므로 동네는 실제로 두 계급[제1계급과 제2계급]으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이 두 계급은 물과 기름 같은 존재로 확실히 구분되어 있었다.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서로 왕래하는 일이 없고, 경조사에도 부르는 범위가 정해져 있었다.²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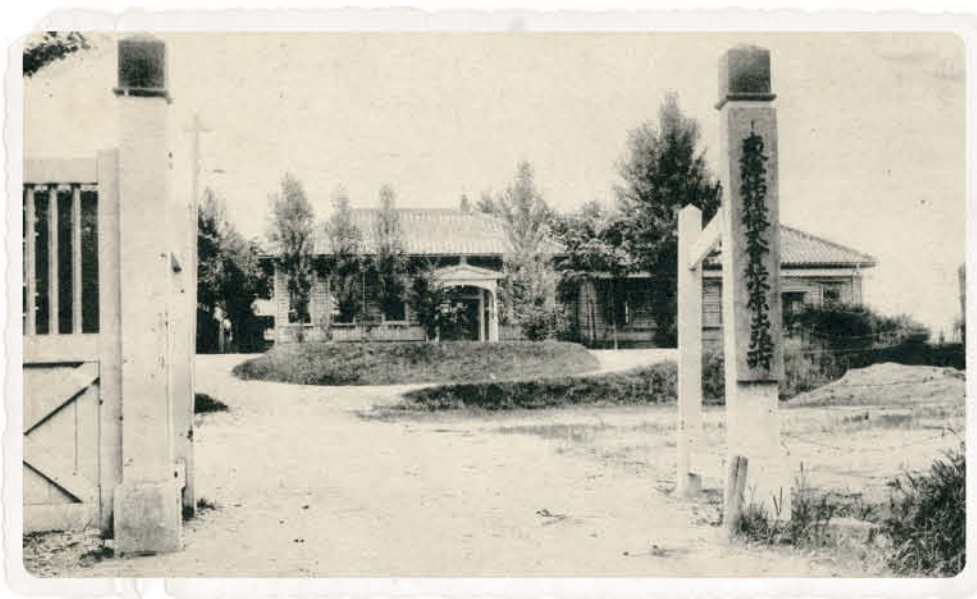
일본인 사회의 계급적 질서를 잘 보여 주는 셈이다. 수원의 경우에도 수원군청과 경찰서, 소방서, 권업모범장 등의 관공서와 수원소학교와 농림학교 교사와 이주 농민들과 다양한 상점을 운영하는 상인들이 자리하고 있다. 그럼에도 대개 서호 인근에 자리한 권업

모범장과 농림학교의 재직하는 직원과 교원들은 인근에 마련된 관사에 거주하였다. 군청과 경찰서, 소방서 등 성 안에 자리한 관공서에 다니는 공무원들 역시 대개 성 안에 거주하였다. 또한 농업 이민을 온 농민들은 농토가 있는 원천리와 평리 등에 거주하였다. 그래서 일본인소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은 성안패, 원천리패, 역전패로 크게 나뉘어 함께 모여 다녔다. 성안패는 성 안 및 북문 밖 거주자를 포함하고, 원천리패는 지동과 인계동을 포함한 넓은 지역의 농민들의 자제들이다. 역전패는 수원역전의 상인들과 서호의 권업모범장과 농림학교 관사에 거주하는 아이들이었다.

매산동에는 동양척식주식회사와 동산농장 및 국무농장이 자리 잡고 있었다. 이들 일본인 농장은 일제 강점 이전인 1894년 청일전쟁과 1904년 러일전쟁의 승리 이후 국내에 침투하여 거대자본을 바탕으로 전국의 요지에 알짜배기 땅을 손쉽게 점유하면서 막대한 이익을 얻었다. 이들은 우선 대규모 수원(水源)을 확보할 수 있는 영산강, 금강, 동진강, 만경강 일대 호남 지역의 광대한 토지에 주목하였다. 비옥한 논농사 지역을 중심으로 쌀을 대단위로 일본으로 수송해 나갈 수 있는 경부선, 호남선 일대의 기차역 인근 지역 및 군산항 일대의 토지를 집중적으로 집적해 나갔다. 이에 전북 군산 부근과 전주평야, 전남의 영산강 유역, 경남의 낙동강 유역의 김해평야, 경기도의 수원과 진위 등에 집중되었다.

일본인들이 농장 개설을 위하여 유의한 것은 첫째, 평야가 넓고 철로나 항구가 인접한 교통이 편리한 지역이라는 점이다. 이는 쌀의 상품화에 유리했기 때문이다. 둘째, 땅값이 싸고 향후 개발 가능성이 있는 곳이 고려되었다. 따라서 논농사 지역으로 토지가 비옥하기는 하나 일본과 비교하여 땅값이 싸고 개발의 여지가 풍부한 곳이 선택되었다. 일본인 지주제가 발전하기에 자연적·경제적 입지 조건이 우월한 곳이었기 때문이다.

경기도의 수원과 평택은 질 좋은 경기미를 생산하는 곳으로 경부선이 통과하는 지역이었다. 특히 수원은 권업모범장과 농업학교가 위치한 곳으로 더욱 매력적인 땅이었다. 이로써 수원의 농지를 대량으로 매수하였다. 이에 수원역 앞 매산리 일대의 알짜배기 땅을 일본인들이 대량으로 확보한 것이다. 이와사키 히사야(岩崎久彌) 3만 3,969평, 수원학교조합 8,527평, 시마즈 쿠키(島津久喜) 등 4명의 공동명의로 6,825평, 사카테 주사부로(坂手重三郎) 5,611평, 오오쿠마 미유키온(大熊幸四郎, 5,391평, 키지마 하지메(貴島一) 4,494평, 스기모토 타이치(杉本太一郎) 4,057평, 도카와 쇼오조(戸川正三郎) 3,820평, 모리모토 순노스케(森元俊之助) 3,341평 등이 대표적이다. 이 가운데 3만 평이 넘는



동양척식주식회사 수원출장소(수원박물관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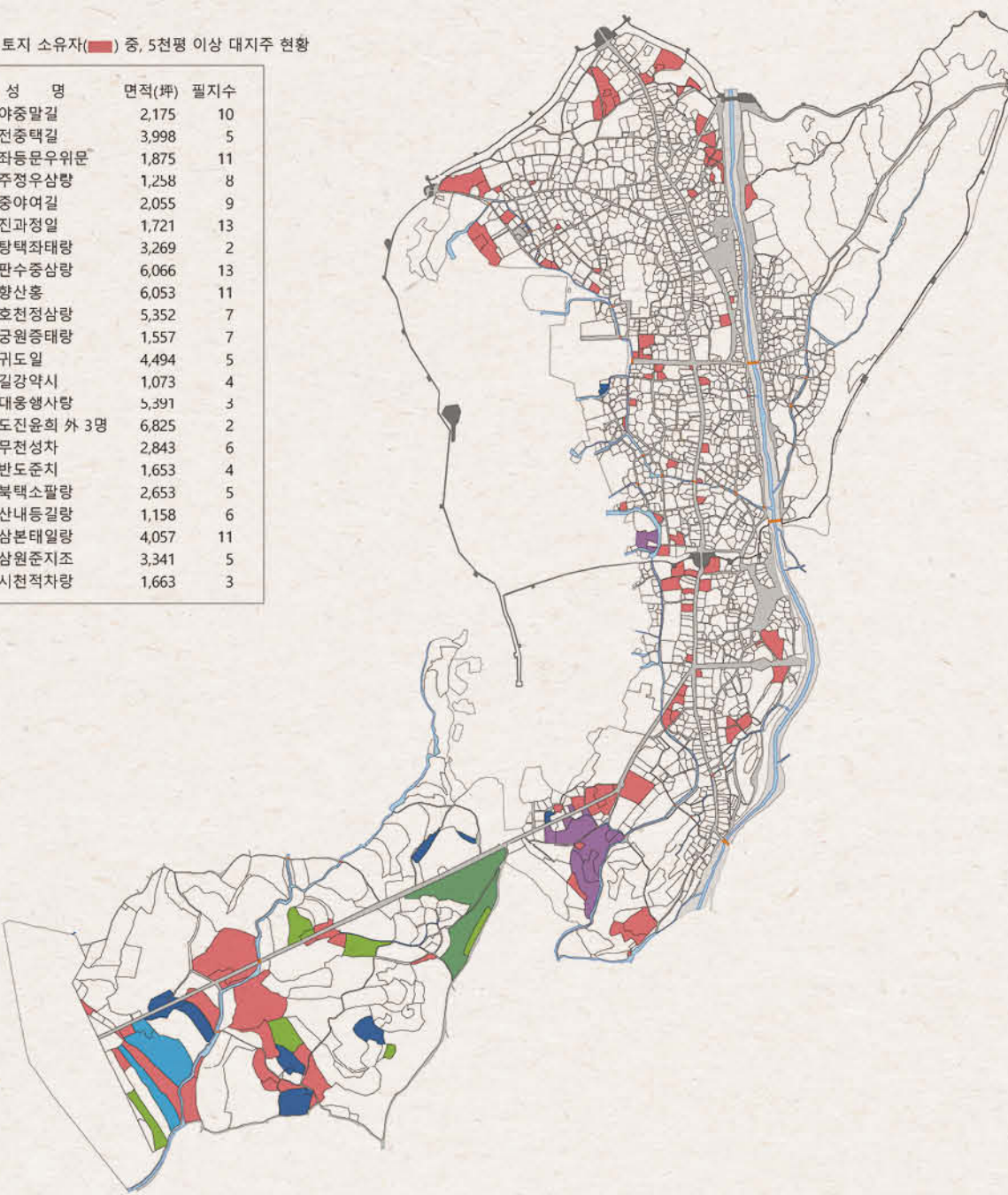
광대한 땅 3만 3,969평을 소유한 부재지주가 도쿄시 거주 이와사키(岩崎久彌)였다. 이외에 경성부 거주 오오쿠마(大熊幸四郎, 5,391평), 도카와 쇼오조로(戸川正三郎) 3,820평 등과 두 필지의 임야 6,825평을 공동소유하고 있는 시마즈 쿠키(島津久喜) 등이 대표적 부재지주였다.

1912년 수원 거주 일본인의 호수는 667호, 인구 2,408명에서 1924년에는 3,000여 명으로 늘었다.²⁶⁾ 이는 교통이 편리하고 토지가 넓고 비옥했던 수원에 일본인들이 토지를 겸병하기 시작하였으며, 동양척식주식회사 등 대규모 농장의 일본인 농업이민자들이 대거 유입되었기 때문이다. 일본인들이 거주하면서 일본 상점이 생기기 시작하였다.

일제하 수원에서도 동척은 가장 많은 토지와 소작인을 거느린 최대의 지주였으며, 이곳에 일찍부터 일본인 이민자들이 들어오기 시작하였다. 1911년 2월에는 제1회 동척 이민 1,000명 가운데 10호가 수원에 배치되었으며, 그해 말에 제2회 이민 가운데 81호가 수원에 배치되었다.²⁷⁾ 또한 동산농장이나 동척농장 이외에도 국무농장(國武農場)과 조선신탁(朝鮮信託) 등 일본인 농장과 회사도 광대한 토지와 함께 많은 소작인을 두고 있었다. 『경기도지주명부(京畿道地主名簿)』(1938)에 나타나는 일본인 지주와 농장이 소유한 수원의 토지는 <표 4>와 같다.

1천평 이상 토지 소유자(■) 중, 5천평 이상 대지주 현황

성명	면적(坪)	필지수
야중말길	2,175	10
전중택길	3,998	5
좌등문우위문	1,875	11
주정우상랑	1,258	8
중야여길	2,055	9
진과정일	1,721	13
탕택좌태랑	3,269	2
판수중상랑	6,066	13
향산홍	6,053	11
호천정상랑	5,352	7
궁원중태랑	1,557	7
귀도일	4,494	5
길강약시	1,073	4
대충생사랑	5,391	3
도진윤희 외 3명	6,825	2
무천성차	2,843	6
반도준치	1,653	4
북택소팔랑	2,653	5
산내등길랑	1,158	6
삼본태일랑	4,057	11
삼원준지조	3,341	5
시천적차랑	1,663	3



일본인 1,000평 이상 소유자의 토지 분포(수원학연구센터 제공)



동산농사주식회사(수원박물관 제공)

동산농사주식회사는 조선 각지에서 소작을 통해 확보한 쌀을 수원으로 모았다. 1등급의 쌀은 일본으로 보내졌다. 수원역 앞 동산농사주식회사가 자리한 매산리 148번지(1만 833평)에는 동산농장 사무실과 창고 등이 들어섰다. 동산농장 사무실 앞의 넓은 부지는 역전의 일본인 아이들에게 훌륭한 놀이터를 제공해 주었다. 곡물(쌀) 창고 앞의 수백 평의 광장에서의 놀이 경험은 수원을 떠올리는 향수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2) 운수업 : 자동차회사와 경동철도회사

일본인들이 주목한 것은 운수업이었다. 운수업은 각종 운송시설에 의한 여객 및 화물 운송업, 창고업 및 기타 운송 관련 서비스업을 수행하는 산업 활동이다. 이러한 운수업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자동차회사를 설립하거나 사설 철도회사를 운영하는 것이었다. 매



화성자동차주식회사(조선총독부, 『생활상태조사-수원군』, 1929)

산리 수원역 앞에 설립된 것은 화성자동차합자회사였다. 처음 화성자동차회사는 1926년 송병환(宋秉煥)을 중심으로 조선인들이 설립하였다. 1926년 3월 27일 매산리 119번지에 자본금 2만 5,000원으로 설립된 회사였다. 운수, 창고업을 목적으로 한 회사였지만 이후 자동차에 의한 여객 및 화물의 운반과 자동차 부속품의 매매 그리고 농사 경영 등으로 확대되었다. 이후 자본금을 40만 원으로 증자하면서 1929년 7월 13일 주식회사로 확대하면서 화성자동차주식회사로 거듭났다.

이때부터 일본인이 참여하게 되었고, 이후 일본인들의 참여가 늘어나 이사 7명 가운데 조선인 3명(宋秉煥, 이인, 崔相應)보다 일본인 4명(石井素一, 香月治太郎, 永禮一, 市山直衛)으로 점차 회사의 일본인 비중이 높아졌다. 특히 1930년대 중반 주식 8,000주 가운데 경동철도주식회사가 절반이 넘는 4,360주를 확보하면서 경영권이 경동철도주식회사로 넘어가게 되었다. 이에 대표는 아라키(荒木武二郎)가 맡았고, 이사는 모두 일본인(黑岩覺一, 吉田秀次郎)이었다. 경동철도 다음으로 대주주는 양규봉(梁奎鳳)이 운영하던

제일사(第一社, 750주)였다. 화성자동차주식회사는 1930년 10월 1일부터 수원-인천 간 자동차 영업을 개시하였다.

한편 1932년 10월 경동철도주식회사가 대주주가 되어 성 안 신평동에 수원자동차(水原自動車)주식회사를 설립 운영하였다. 자본금 4만 원으로 설립된 수원자동차(주)는 이미 경동철도가 최대 주주였던 수원역 앞의 화성자동차주식회사와 함께 수원의 운수사업이 경동철도를 비롯한 일본인 자본가들에 의해 독점되었음을 잘 보여 준다.

경동철도주식회사는 매산리를 대표하는 회사로 주목의 대상이다. 일제시기 수인선과 수려선은 조선경동철도주식회사(朝鮮京東鐵道株式會社)가 운영한 것이었다. 경동철도는 수원에 본사를 두고 경기도 내륙지방 철도운수업과 자동차운수업, 선박운수업, 창고업 등의 운수영업을 하던 회사였다. 경동철도는 1920년 3월 1일 수원에서 여주까지 협궤 증기철도선의 부설을 허가받았다.

1928년 8월 27일 설립된 경동철도주식회사는 수원면 매산리 164번지에 300만 원의 자본금으로 설립되었다. 인천과 수원의 일본인들이 주도하였다. 이후 500만 원으로 증자하면서 용산공작회사(龍山工作會社, 2만 7,115주), 동산농사회사(東山農事會社, 1만 3,500주), 철도교양조성회(鐵道敎養助成會, 6,315주), 우석학원(友石學院, 3,425주), 경동조성회(京東助成會, 1,430주), 역무물산(力武物産, 1,000주), 조선운송(朝鮮運送, 1,000) 등 일본인 회사가 참여하였다. 개인 대주주는 이마무라 가쿠지로(今村覺次郎, 3,000주), 김두수(金杜洙, 2,425주), 고바야시 도시코(小林トシ子, 1,730주), 김연수(金季洙, 2,000주), 고바야시 미키소(小林幹三, 1,610주), 나카야(中屋榮, 1,850주), 차준담(車濬潭, 1,700주), 쇼노(庄野嘉久藤, 1,000주) 등이다. 조선인으로는 김두수, 김연수 및 수원의 대표적 지주였던 차준담이 참여하고 있다.

(3) 수원상사와 유력 일본인들

1920년 설립한 수원상사(水原商事)는 매산동을 중심으로 하는 일본인들이 주도하여 만든 주식회사였다. 수원역을 근거로 한 일본인들의 수원상사는 수원 지역 일본인 사회 형성에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 기업이었다. 수원군 수원면 매산리 124번지에 자리한 주식회사 수원상사는 다양한 업무를 취급하였다. ① 새끼·가마니·명석 매매업, ② 운수업 및 창고업, ③ 화재 보험 대리업 및 금융 중개, ④ 물품 매매 및 위탁 판매 등 당시 돈이 될 수 있는 것은 모두 취급한 것이라 할 수 있다.

1920년 5월 18일 설립된 수원상사는 자본금 10만 원으로 시작하였는데, 주식 2,000주 가운데 대주주는 데라사와 스테사부로(寺澤捨三郎, 270), 무라카미 히사이치((村上久一, 200), 모리모토 슌노스케(森元俊之助), 사카데 주사부로(坂手重三郎), 야부우치(藪内貞三), 모리타(森田喜代藏), 이토(伊藤良吉, 각 150주), 오야(大屋政市), 가와이(河合名代藏, 각 130주), 호소카와(細川岡之助, 100주) 등이다.

표 5 수원상사의 임원 및 대주주 변동

연도	중역	대주주(주식수 2000)
1921	(전무이사) 伊藤良吉 (이사) 寺澤捨三郎, 村上久一, 河合名代藏, 藪内貞三, 上原陸郎 (감사) 森元俊之助, 坂手重三郎, 森田喜代藏	寺澤捨三郎(270), 村上久一(200), 森元俊之助, 坂手重三郎, 藪内貞三, 森田喜代藏, 伊藤良吉(각 150), 大屋政市, 河合名代藏(각 130), 細川岡之助(100)
1923	(전무이사) 森元俊之助 (이사) 上原陸郎, 寺澤捨三郎, 村上久一, 細川岡之助, 山田半次 (감사) 湯澤佐太郎, 今村卯太郎, 古賀茂三郎	寺澤捨三郎(290), 村上久一(230), 森元俊之助(200), 細川岡之助(130), 山田半次(100), 村上九八郎(100), 上原陸郎(60)
1925	(전무이사) 森元俊之助 (이사) 寺澤捨三郎, 村上久一, 山田半次 (감사) 湯澤佐太郎, 香山弘	寺澤捨三郎(290), 村上久一(230), 森元俊之助(200), 細川岡之助(130), 山田半次(100), 村上九八郎(100)
1927	(전무이사) 森元俊之助 (이사) 寺澤捨三郎, 村上久一, 山田半次, 北野龜吉 (감사) 湯澤佐太郎, 香山弘	寺澤捨三郎(290), 村上久一(230), 森元俊之助(200), 細川岡之助(130), 山田半次(100), 村上九八郎(100)
1929	(전무이사) 森元俊之助 (이사) 村上久一, 北野龜吉, 香山弘 (감사) 湯澤佐太郎, 寺澤捨三郎	寺澤捨三郎(290), 村上久一(230), 森元俊之助(200), 細川岡之助(130), 山田半次(100), 村上九八郎(100)
1931	(전무이사) 森元俊之助 (이사) 村上久一, 寺澤捨三郎, 香山弘 (감사) 湯澤佐太郎, 酒井政之助	香山弘(830), 森元俊之助(620), 寺澤捨三郎(200), 北野龜吉(200)
1933	(전무이사) 森元俊之助 (이사) 村上久一, 寺澤捨三郎, 香山弘 (감사) 湯澤佐太郎, 酒井政之助	香山弘(830), 森元俊之助(620), 寺澤捨三郎(200), 北野龜吉(200)
1935	(전무이사) 森元俊之助 (이사) 村上久一, 寺澤捨三郎, 香山弘 (감사) 酒井政之助	香山弘(830), 森元俊之助(620), 寺澤捨三郎(200), 北野龜吉(200)
1937	(전무이사) 森元俊之助 (이사) 村上久一, 寺澤捨三郎, 香山弘 (감사) 酒井政之助, 岡田美道	香山弘(830), 森元俊之助(620), 寺澤捨三郎(200), 北野龜吉(200)
1939	(전무이사) 森元俊之助 (이사) 村上久一, 寺澤捨三郎, 香山弘 (감사) 酒井政之助, 岡田美道	香山弘(830), 森元俊之助(620), 寺澤捨三郎(200), 北野龜吉(200)

이 가운데 가야마 히로시(香山弘, 830), 데라사와 스테사부로(寺澤捨三郎, 290), 무라카미 히사이치(村上久一, 230), 모리모토 슌노스케(森元俊之助, 200) 등이 주식수를 늘리면서 핵심적인 인물로 부상하였다. 1923년부터 대표이사를 맡아 운영권을 확보한 모리모토 슌노스케가 이사직을 수행하며 무라카미 히사이치, 데라사와 스테사부로 등이 이를 도왔다. 결국 이들은 수원상사를 만든 초기 설립자로 끝까지 함께 가는 자들로 수원역 일본인 사회를 주도했던 인물들이다. 1931년 이후 대주주로 참여하며 이사로 활동한 가야마 히로시도 주목할 만한 인물이다. 수원상사(주)가 자리한 매산리 124번지(408평)는 경성에 살고 있는 오구마(大熊幸四郎)의 소유였다.

모리모토 슌노스케(森元俊之助)는 1860년 히로시마 출생이다. 1895년 일본에서 영림주사로 임명되어 각지를 전근하다가 1906년 4월 임시 군용철도감부 소속으로 조선에 왔다. 1907년 2월 농상공부에서 산림 업무를 보다가 1910년 퇴직하고 수원에 정착하였다. 농사를 지으면서 수원의 일본인 실업계의 연장자로서 청년층의 신망을 기초로 수원상사 주식회사 전무를 비롯하여 수원실업협회 상담역, 학교조합 회의원 등을 역임한 인물이다.

데라사와 스테사부로는 수원상사의 최대 주주이자 이사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수원역 앞에서 데라사와운송점을 운영하고 있었지만 1920년대 스스로는 수원역전의 미곡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수원의 대표적인 미곡상으로 운송점 등으로 사업을 확장한 인물이다. 미곡상 겸 창고업을 한 데라사와는 아이치현 출신으로 1904년 러일전쟁 때 동원령에 따라 조선에 건너왔다. 퇴역 후 수원에 정착하여 평동에서 과수원을 시작하였다. 뒤이어 창고업과 미곡상을 경영하면서 수원의 일본인 사회의 유력한 상업인이 되었다. 일본인들 사이에 신용이 매우 높아 학교조합 회의원 및 주식회사 부국원과 수원상사주식회사 취체역을 겸하였다.

무라카미 히사이치는 야마구치현 출신으로 수원의 대표적인 청부업자였다. 또한 1920년 설립된 수원상사(水原商事)를 주요한 근거로 활동한 인물이다. 수원상사 주식 230주를 가진 대주주였던 무라카미는 1931년 보유주식을 모두 팔았는데, 가야마 히로시가 거의 다 매수한 것으로 보인다. 주식에 없는 상태에서도 무라카미는 수원상사 이사를 계속적으로 역임하며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사가데 주사부로(坂手重三郎)는 1863년 오사가 출생으로 1906년 3월 조선으로 건너와 수원역전우편소장으로 부임하였다. 1920년 11월 사직하고 수원역전에서 사카데상회(坂手商會)를 열어 석탄, 연료, 개량 농기구인 낫(松原鎌) 등을 취급하는 판매업에 종사

하였다. 일본인회 의원, 학교조합 회의원 등의 공직 이외에 수원전기주식회사 중역, 수원인쇄주식회사, 수원상사주식회사 중역으로 선출되었다. 또한 농사장려회 평의원, 수원금융조합 평의원, 수원실업협회 상담역 등 중책을 맡고 있는 인물이다.

3) 수원역 앞 일본인 거리와 상점

전통적으로 수원은 성 안과 성 밖으로 나뉘는데 중심지역은 성 안이었다. 일제시기에도 수원군청, 재판소, 경찰서, 우편국 등이 성 안에 집중되어 있었고, 상점들도 팔달문을 중심으로 남북으로 200m에 걸쳐 연달아 형성되어 있어 성 안은 수원에서 제일의 변화가였다. 일제시기에 이르면 성 안 변화가에 버금가는 곳으로 수원역전 일대가 성장해 갔다. 부산으로 가는 경부선의 수원역은 남문에서 서쪽으로 2km 지점에 있다. 수원역에서 남문을 향하여 동쪽으로 500m 정도의 도로변 일대를 ‘역전(驛前)’이라 일컫는데, 성 안

표 6 일제시기 수원 관련 책자에 실린 수원역전 상점

『發展せる水原』(1914)	『華城之影』(1915)	『水原』(1923)	『水原—風光明媚の地』(1933)
山本旅館 伊藤良吉商店 運輸組 村上精米所 華城旅館 坂手重三郎農具部	山本旅館 伊藤良吉商店 運輸組 磯崎建藏商店 細川商店 近藤養鷄場	山本旅館(여관, 榊しげ) 細川商店(수원역 구내판매) 磯崎建藏商店(집화) 坂手商會(연료, 坂手重三郎) 賴岡實一(賴岡組) 村上組(토목청부업) 寺澤商會(미곡, 잡곡, 무역) 華城館(여관, 守永仙三郎) 巴商會洋服店(양복) 岡本時計店(시계, 岡本喜平) 大野商店(재목상, 大野政市) 内國通運(주) 取入店(운송) 水月堂(일본, 서양과자) 土肥自動車商會(승합자동차) 翠香園(요리) 博多屋(일본, 서양요리) 讚岐商會(정백미, 井川好太郎) 中央商事(주) 殖産銀行 수원지점(금융) 原田新聞店(신문, 그림엽서) 水原商社(가마니, 운송) 丸水運送組(운송)	磯崎建藏商店 運送店 白鳥醫院 芋田齒科醫院 岩見屋 岡倉百貨店 水原運送株式會社 水原穀物組合 (有)万種園 賴岡組 永光商會 華城穀物商會
6개소	6개소	22개소	12개소



1920년대 수원역전 풍경(사카이 마사노스케, 『수원』, 1923)



1920년대 수원역전 풍경(조선총독부, 『생활상태조사-수원군』, 1929)

다음으로 변화한 곳이었다.

윤치호(尹致昊, 1865~1945)는 1920년 7월 14일 서울역에서 오후 4시 30분 수원행 기차를 탔다. 수원종로교회에서 강연을 위한 수원행이었다. 2시간 뒤인 6시 30분 수원역에 도착하였다. 당시 서울에서 수원까지 오는데 2시간이 걸렸던 셈이다. 윤치호가 수원역에 도착했을 때 수원역사는 허름한 것이었다. 수원역사가 조선식 건축물로 새로 짓게 된 것은 1928년의 일이다. 윤치호는 수원역에서 옛 길(향교로)을 따라 곧바로 종로에 있는 교회로 갔다. 1886년 그가 22살 때 팔달문을 통해 수원 읍내로 들어왔던 적이 있었다. 윤치호는 “한국의 다른 모든 도시들과 마찬가지로 모든 중요한 지점들이 일본인들에 의해 장악되어 있었다.(Like all other towns in Korea all the important points are occupied by the Japanese)”는 언급처럼 수원의 주요한 길목과 상점들은 일본인 차지가 되어 있었다.³¹⁾ 윤치호는 종로교회의 가득찬 청중들에게 8시부터 9시까지 1시간 동안 강연을 하고 다시 밤 9시 20분 서울행 기차로 돌아갔다. 교회에서 20분 만에 수원역까지 가기 위해서는 택시 또는 인력거를 이용했을 것임에 분명하다. 하여튼 수원에서 1시간 강연을 위해 4시간 동안 기차를 타고 왔다 갔던 지극히 바쁜 일정이었다. 그렇게 기차는 수원을 서울과 가까운 도시로 만들어 가고 있었다.

윤치호가 수원역에서 내렸을 때 수원역 앞은 새로운 변화로 들끓고 있었음에 분명하다. 1923년 『수원』에 실린 사진과 같이 수원역 앞에서 읍내로 들어오는 향교로의 진입로 양 옆으로 ‘조선운송점(朝鮮運送店)’과 ‘아마모토여관(山本旅館)’의 커다란 간판이 그의 눈에 띄었을 것이다. 수원역전의 풍경으로 새로운 시대의 출현을 잘 보여 주고 있는 셈이다. 수원역을 나서면 시내 방향으로 바로 보이는 위치에 있었던 아마모토여관은 권업모범장 지정여관이자 제국철도 동맹여관으로 광고하며 당시 성안의 산요(山陽)여관과 더불어 수원을 대표하는 일본인 여관이었다. 특히 야마구치현(山口縣) 출신인 여주인 마스시게(槇しげ)의 친절한 접대로 이름이 높았다.

조선운송점(朝鮮運送店)은 조선인 안홍렬(安弘烈)이 운영하던 것이었다. 1905년 경부선 개통 이후 수원역을 근거로 하여 많은 운송업체들이 만들어져 활발하게 운영되었다. 일본인들이 앞장서 운송점을 운



수원역전 운송조합점 광고(『조선신보』, 1924년 1월 1일)

영하였고, 조선인 자본가들도 이에 뛰어들어 운송업을 하였다. 이에 수원역 앞 한국인과 일본인 운송업체는 운송조합을 결성하여 친목도모와 함께 가격 담합을 한 것으로 보인다. 1924년과 1925년 『조선신보(朝鮮新報)』 신년 광고를 통해 이들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따르면 조합장은 유자와 사타로(湯澤佐太郎), 회계는 안홍렬, 상담역은 이광현(李光鉉)과 수원상사(水原商事)이 맡았다. 수원역 운송조합 참여 업체는 테라사와운송점(寺澤運送店, 寺澤捨三郎), 조선운송점(安弘烈), 수원운송점(水原運送店, 湯澤佐太郎), 삼광운송점(三光運送店, 李炳哲), 공익운수조(共益運輸組, 李光鉉), 천일운수조(天一運輸組, 洪大裕), 수원상사회사(水原商事會社) 운송부, 내국통운취인점(內國通運取引店), 일선체송운수점(日鮮遞送運輸店) 등 9개 업체였다.

몇 년 뒤인 1929년 매산로 입구 풍경을 보면 왼쪽의 조선운송점(朝鮮運送店)은 ‘과일 가게’로 바뀌었다. 오른쪽 야마모토여관 자리는 새롭게 신축되어 규모가 커진 2층 건물로 변화되었고, 벤토(도시락)로 유명한 ‘호소카와상점(細川商店)’이 들어섰다. 2층 상점의 벽면에는 호소카와상점 간판과 더불어 일본 술의 대명사였던 ‘사쿠라 정종(正宗)’ 등 상품광고 안내판이 들어섰다.

‘벤토(弁当)’로 통칭되었던 도시락이 주요 품목이었던 호소카와상점(細川商店)이 원래 수원역 구내에 있었다. 도시락 등 여객용품을 판매하던 이곳의 점주는 호소카와 오카노스케(細川岡之助)로 카가와현(香川縣) 출신이었다. 도식락용 쌀은 같은 고향 사람인 이

가와 코오타로(井川好太郎)가 운영하던 미곡상인 ‘사누키상회(讃岐商會)’에서 갖다 썼다. 생선은 생어, 해산물, 얼음 등을 취급하던 우메타니 코오타로(梅谷幸太郎)의 가게 ‘이와미야(岩見屋)’에게 받았다. 계란은 시장에서 구입했는데 조선인 이씨가 사왔고, 연근(蓮根) 등의 간단한 식재료는 중학생으로 서울로 통학하던 아들 호소카와(細川勳, 1918년생)가 서울 남대문시장의 모리나가상점(森永商店)에서 사오곤 했다. 심부름값으로 50전을 받았다. 호소카와상점의 도시락은 평판이 좋아서 수원이외 안성에서 운동회를 할 때 단체주문이 들어올 정도였고, 전국 기차역 벤토(도시락) 품평회에서 2등상을 받기도 했다.³²⁾



호소카와상점에서 판매한 도시락 어변당 상표(수원박물관 제공)

한편 경부선과 경의선이 개통되면서 조선에 진출한 일본인들을 위하여 ‘기차박람회(汽車博覽會)’를 개최하였다. 기차박람회는 기차로 각 시장을 순회하여 지방 상품을 진열하고 각 처에 가서 박람회를 개최하는 것이다. 경부선과 경의선이 통과하는 곳을 기차를 이용하여 “한일무역과 농산업 등 경제상의 이익”을 도모한다는 취지였다. 기차박람회는 기차 4대를 임차하여 3대는 상품진열차로 만들고, 1대는 상품을 싣는 화물차로 이용하여 기차역이 있는 주요 도시를 돌며 기차의 유용성을 선전하고 한국에 진출한 일본인들의 상품을 선전하여 경제적 이익을 도모하고자 했던 것이다. 기차박람회는 인천에서 발간되던 『조선신보(朝鮮新報)』가 주관한 것으로 1907년 4월 처음 시작하여, 1910년 4월 제2회 기차박람회, 1914년 4월 제3회 기차박람회가 열렸다. 1914년 제3회 기차박람회에는 순종황제가 특별 하사금 300원을 내려주기도 하였다.

1907년 제2회 『조선신보』는 기차박람회에 도움을 준 사람들의 명단을 게재하였을 때 수원역의 찬조한 일본인 3명이 실렸다. 호소카와 큐우타로(細川久太郎)가 3원, 미토오 코마(御藤こま)가 한국기(태극기) 200류와 수원명물 매산만주 200봉, 도쿠나가 센키치(徳永仙吉)는 맥주 1상자를 찬조하였다.³³⁾

한편 1906년 2월 25일 수원 일본인 거류민회에서는 학령아동에게 국민교육을 실시하는 안건을 결의하고, 호소카와(細川久太郎), 도쿠나가(徳永仙吉), 곤도 나루미(近藤成美) 등 3명을 위원으로 선출하여 학교 설립에 힘쓰게 하였다. 이들이 일본인 학교인 수원소학교 설립의 공로자인 셈이다. 호소카와 큐우타로(細川久太郎)와 도쿠나가 센키치(徳永仙吉)는 초창기 일본인 사회 형성에 중추적 역할을 담당한 셈이다.

1928년 한옥의 형태로 새롭게 신축된 수원역의 위용은 기차를 타고 나온 사람들의 감탄을 불러일으켰다. 한옥의 높다란 건물 옆으로 화장실이 있고, 역 앞으로 나르면 버스와 택시 승강장이 기다리고 있다. 역 광장 반대편에는 화물을 실어 나르는 하역장이 있어서 우마차가 대기하는 곳으로 자연스럽게 자리 잡았다.

새롭게 뚫린 매산로보다 여전히 활력이 있는 것은 옛 길인 향교로이다. ‘역전통’으로 불리는 그 거리로 들어서면 일본인 상점들이 줄지어 들어서 있었다. 역전통 입구에 ‘호소카와벤토’가 이름을 날리자 그 옆으로 메밀국수를 파는 ‘오카다소바(岡田そば)’가 자리하고, 과일가게 옆으로 광장을 향해 오뎅집(中島シカ), 중국집과 중국빵집, 그리고 끝으로 조선식당이 자리 잡았다. 조선식당 뒤쪽으로 조선여관인 ‘화흥(華興)여관’이 자리하였다. 이미 길목 좋은 곳에는 일본인 여관들이 자리 잡았는데, 입구의 야마모토여관을 비롯하

여 역전통으로 들어오면서 ‘쇼와(昭和)여관’이 있었고, 한 구역을 지나면 길 옆으로 스미킨토키(角金時)의 ‘나카츠야(中津屋)여관’이 자리하고 있었다. 또한 야마구치현 출신인 모리나가 센자부로(守永仙三郎)가 운영하는 ‘카조(華城)여관’이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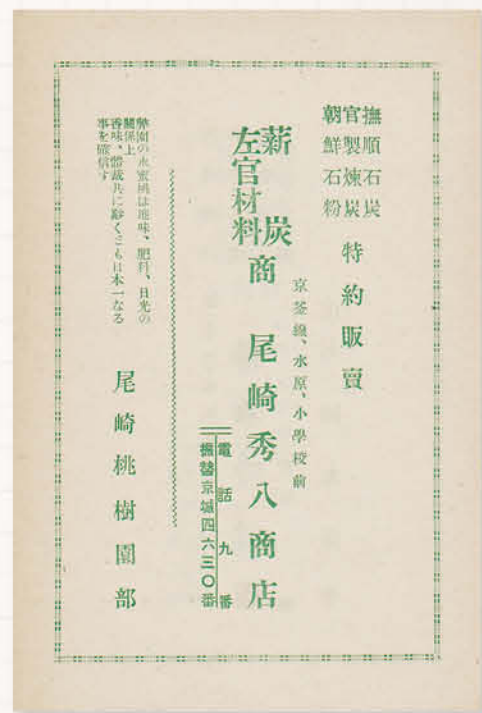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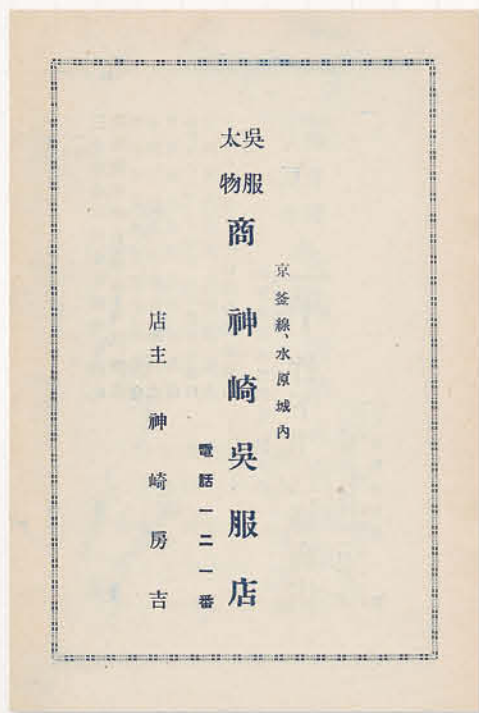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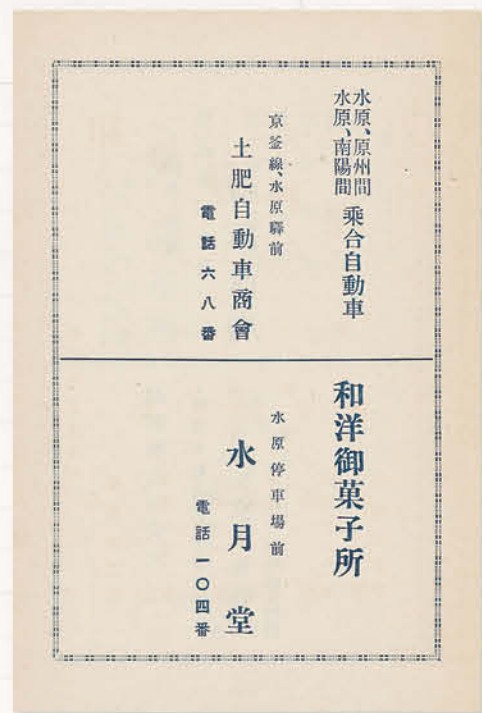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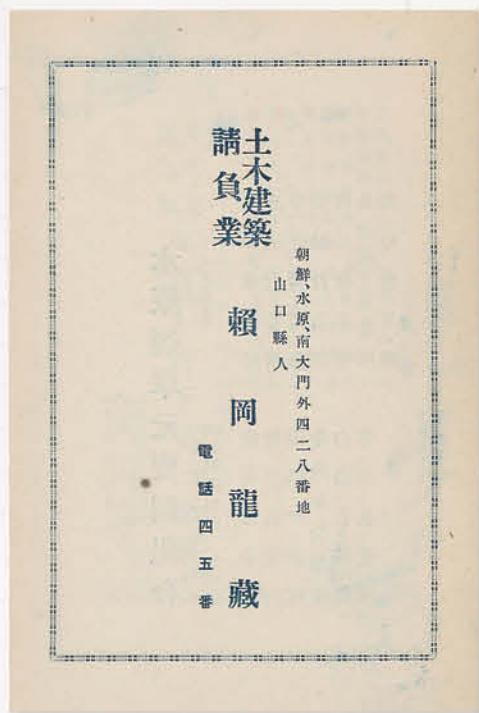
역전통의 오래된 상점 가운데 농기구점이 있었는데 오카야마(岡山) 출신인 사카테 주우로(坂手重三郎)가 경영하던 ‘사카테 주우로농구부(坂手重三郎農具部)’이 그것이다. 주로 연료 및 벼 탈곡기를 판매했는데, 이후 그 아들로 추정되는 사카테 요시오(坂手芳夫)가 경영하면서 ‘사카테(坂手)상점’이라 불리며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또한 수원역전에서 가장 유명한 잡화상은 ‘이소자키 겐조상점(磯崎建藏商店)’이다. 이소자키 겐조(磯崎建藏)가 잡화상 ‘이소자키(磯崎)상점’을 수원역전에 문을 연 것은 1913년 11월이다. 식료품, 학용품, 의류잡화, 화장품, 연료(석유, 목탄) 등을 취급하는 잡화상이었다. 수원명소 그림엽서도 팔았다. 조선인 점원 최용호(崔龍浩)는 이곳에서 30년을 근무하여 경성상공회의소에서 주는 근속표창을 받고 일본 여행을 다녀오기도 했다.

역 광장에서 수원 읍내를 향하는 역전통에는 과일과게와 이발소, 옷가게, 담배가게, 구둣가게, 농기구점, 시계점, 잡화점, 식당, 과자점, 빵집, 여관, 자전거점, 생선가게 등이 줄지어 있었다. 소방펌프 차고와 역전우체국 등 편익시설이 있고 그 뒤쪽 북쪽으로 넓은 마당을 자랑하는 동산농장 사무실이 자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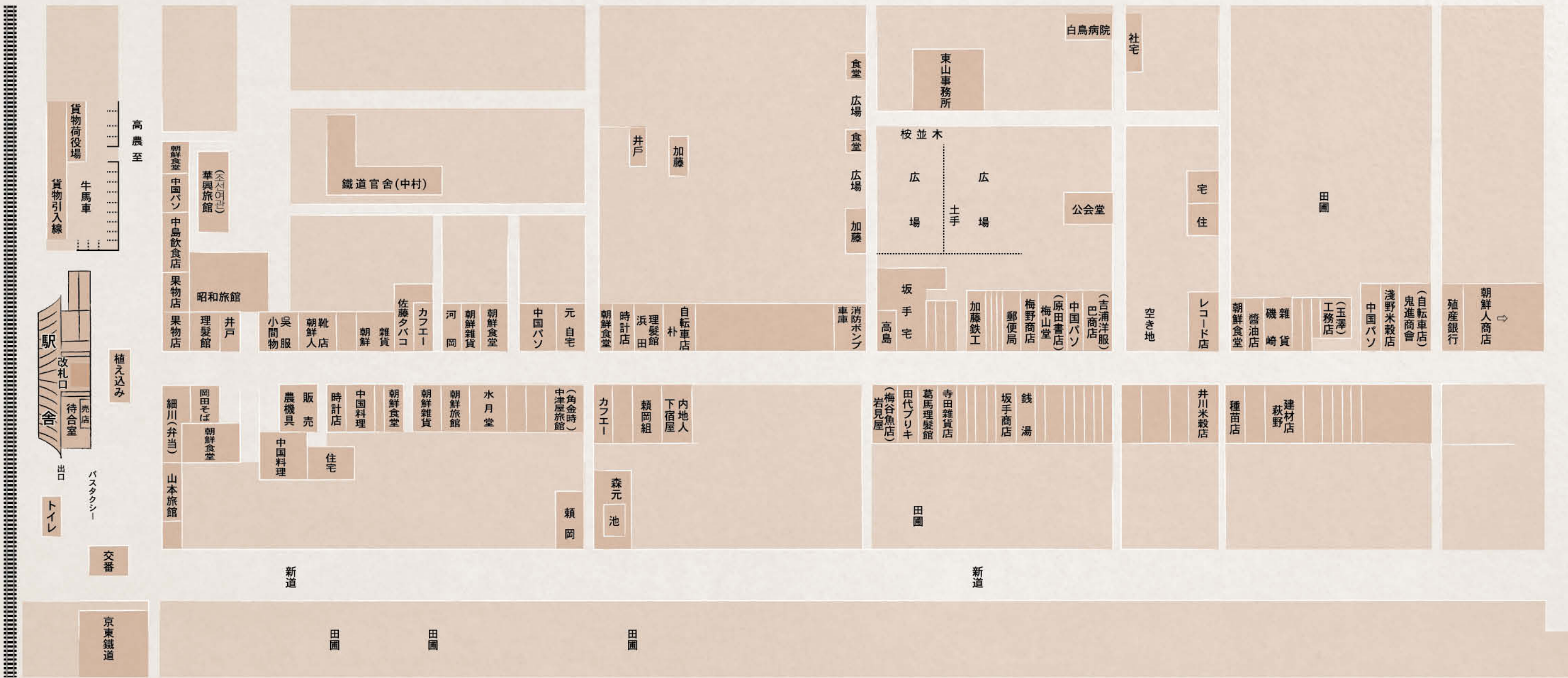
요리집으로 ‘스이코엔(翠香園)’, ‘하카다야(博多屋)’, 그리고 일본과 서양 과자점인 ‘미즈츠키도(水月堂)’가 있었다. 또한 오카모토 키헤이(岡本喜平)가 여러 나라 시계를 판매 하였던 ‘오카모토(岡本)시계점’, 오노 마사이치(大野政市)가 운영한 재목상, 수원-원주와 수원-남양 사이를 운행한 승합자동차 ‘도이(土肥)자동차상회’가 있었다. 타카시마 스에히코(高島末彦)가 운영한 ‘내국통운(주)취인점’은 경성철도국 소하물 운반청부 및 권업모범장 지정 운송 용달을 표방하였다.

‘도모에(巴)상회 양복점’은 요시우라 히데노부(吉浦英信)가 운영하였다. 그는 1895년 후쿠오카(福岡)에서 태어나 1914년 10월 조선으로 건너왔다. 10대의 어린 나이에 조선에 들어와 1916년 1월 수원에 정착하여 역전에서 양복점을 운영하며 전도유망한 청년실업가로 자리를 잡았다. 수원실업협회 평의원에 선출되었다.³⁴⁾

역전우편국 옆으로 기계공구점(梅野商店), 서점, 양복점, 쌀가게를 지나면 넓은 공터와 레코드점, 그리고 우뚝 솟은 식산은행이 자리 잡고 있었다. 조선식산은행은 1918년 전국의 6개 농공은행을 강제적으로 통합하여 자본금 1,000만 원으로 설립되었다. 이후 일제가 패망



『水原』(1923)에 실린 매산동 일본인 상점 광고



소화 12년(1937년) 수원공립심상고등소학교를 졸업한 中島孝가 그린 수원역 앞 일본인 상점가



기계공구 판매 및 수리점인 우메노상점(梅野商店, 수원박물관 제공)
우메노상점은 수원역전우체국 옆인 매산정 1정목 37번지에 자리하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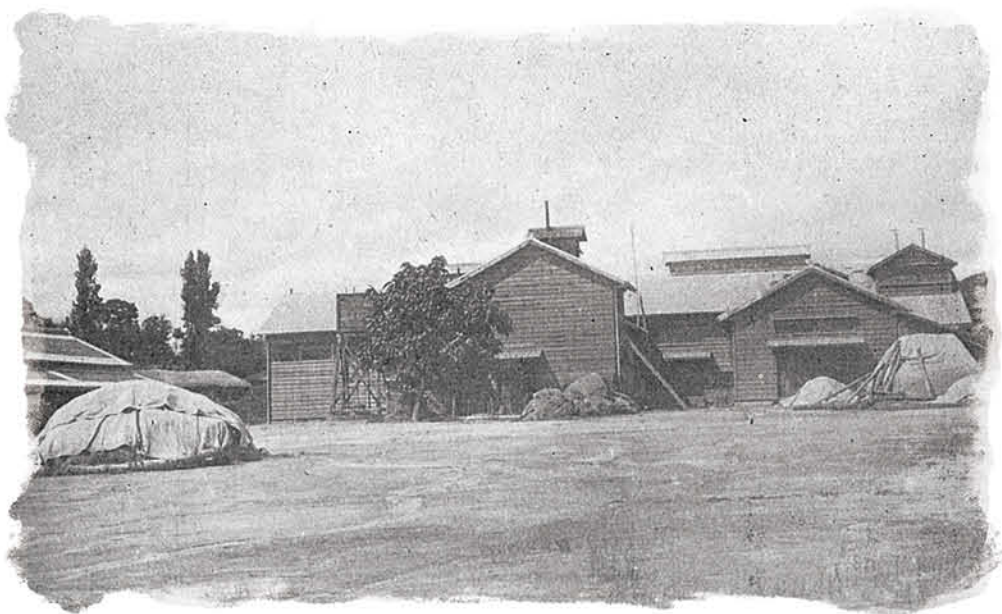


도모에양복점(酒井政之助, 『水原』, 1923)

하는 1945년까지 조선총독부의 경제금융정책을 뒷받침한 은행이었다. 수원읍은 수원을 비롯하여 시흥, 용인, 이천, 진위, 안성 등 여러 지역을 아우르는 경제중심으로 물동량이 상당하고 경기 남부의 중심인 수원역 앞 매산리에 1918년 12월 25일 식산은행 파출소를 설치하였다. 그리고 이듬해 1919년 4월 10일 지점으로 승격되었다. 이에 식산은행 수원지점은 1906년 성 안에 설치된 한성은행 수원지점을 능가하는 수원의 대표적 금융기관으로 성장하였다. 그리고 식산은행을 지나면 역전통이라는 이름 대신 소학교통으로 이름이 바뀐다.

식산은행 뒤쪽으로 펼쳐진 넓은 논은 겨울이 되면 얼음판이 만들어졌다. 역전의 일본인 아이들, 특히 수원소학교에 다녔던 학생들에게 가장 강렬한 기억 가운데 하나가 한겨울 이곳에서 스케이트 탔던 기억이다. 수업이 끝나고 집에 돌아오자마자 스케이트를 들고 나와 스케이트를 즐겼던 그들은 저녁 먹으러 들어오라는 소리를 들을 때까지 계속되었다. 또한 그들에게 수원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서호, 화홍문, 권업모범장 등이다. 한여름 서호 물놀이, 한겨울 역전 스케이트 놀이와 더불어 동산농장 사무실 앞에서 놀았던 기억이 가장 강렬하게 남아 있다.

역전에서 일본인들에게 커다란 공간적 위상을 차지하고 있는 곳은 동산농장과 동산농장 사무실이었다. 동산농장 사무실은 넓은 부지에 자리하고 있었다. 역전의 일본인 아이



동산제곡소(酒井政之助, 『水原』, 1923)

들에게 동산농장은 훌륭한 놀이터를 제공해 주었다. 곡물(쌀) 창고 앞의 수백 평의 광장에서 뛰놀던 추억은 수원을 떠올리는 매개수단 가운데 하나였다. 동산농장 사무소는 역전에 인접하여 약 20만 평에 달하는 넓은 부지의 남쪽, 정원 가운데 있었다. 주위에는 나무들이 무성하였는데 10m가 넘는 벚나무가 늘어서 있어 봄이면 벚꽃구경으로 볼 만하였다. 사무소 서쪽의 광장에는 미곡 창고와 벼 건조장, 정미소 등이 있었다. 쌀 수백 섬을 쌓을 수 있는 창고에 몰래 숨어 들어가 숨바꼭질을 할 정도였다. 사무소 북쪽에는 작은 언덕이 있어서 그곳에는 회사 클럽이 있었다. 100첩 다다미 넓이의 공간에 작은 집들이 여러 개 있는데 그곳에 당구장도 있어서 휴식공간으로 활용되었다. 휴일에는 바둑, 장기, 마작과 당구 등 사내 대회가 개최되었다. 동산농장 사무실 앞 넓은 공터는 일본인 아이들에게 딱지치기, 구슬치기, 숨바꼭질 등 다양한 놀이를 할 수 있는 공간이었다. 동산농장 안에는 내과, 소아과 전문 ‘히라토리의원(白鳥醫院)’이 있었다. 히라토리(白鳥)의원의 존재는 동산농장의 위상을 잘 보여 주는 것이라 하겠다. 동산농장 직원들을 위해 설립된 것이지만 수원역 앞의 일본인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수원역에는 일본인을 위한 의료기관도 주목의 대상이다. 일본인들은 상대적으로 치아가 좋지 않아 다른 진료과목보다 치과의원이 필요하였다. 역전에는 ‘쿠니오치과의원(芋

田齒科醫院)’이 있었는데, 경성치과의학전문학교를 졸업한 오다 쿠니오(芋田國雄, 1908년생)가 1933년 초 개업한 것으로 추정된다. 아버지 오다 하지메(芋田甫, 1869년생)는 1906년 조선에 들어와 성진우체국 등지에서 근무하다가 1920년 3월 수원역전우편소장으로 부임하였던 인물이다. 이후 수원읍회(水原邑會) 의원으로 활동하며 수원 지역 일반인 사회의 유력한 인물로 활동하였다. 성 안에는 1915년 내과, 소아과, 부인과를 담당하는 미야자키 미치히로(宮崎道碩)가 운영하는 미야자키의원(宮崎醫院)이 본정 2정목에 있었다. ‘코다마치과의원(兒玉齒科醫院)’이 1919년 12월부터 남문 밖에 개설되었다.

한편 일본인들이 상대적으로 독점적으로 운영한 것은 건축업이다. ‘요리오카쿠미(頼岡組)’는 ‘무라카미쿠미(村上組)’와 더불어 수원역전의 대표적 건축토목 청부업체이다. 대표인 요리오카 신이치(頼岡實一, 1892년생)는 아마구치현 출신으로 1909년(명치42) 17세의 어린 나이로 조선에 들어왔다. 1912년 8월 수원으로 이주하여 토목건축으로 10여년간 각고의 노력 끝에 1920년 요리오카쿠미(頼岡組)를 조직하였다. 성의(誠意)를 제일로 표방하여 신속하며 안심할 수 있는 건축을 짓는다는 평가를 받아 수원을 넘어 서울 방면으로 사업을 확장하여 불경기를 모른다는 평가를 받았다.³⁵⁾ 견실한 영업 솜씨로 일반의 신용이 매우 높아 수원의 주요 건축물 가운데 고등농림학교, 오산보통학교, 국무농장 사무소, 식산은행 지점, 수원금융조합, 도모에(巴)상회 및 성 안의 요리점 이찌니산(一二三) 등이 그의 독특한 설계에 의해 건축되었다.³⁶⁾ 그렇게 수원역을 중심으로 수원은 일본인들의 활동무대가 확장되면서 식민도시가 건설되고 있었다.

표 7 『수원상공인명록』(1942)에 실린 매산동 일본인 사업체

사업체명	사업주	소재지	사업분야
朝鮮京東鐵道株式會社	법인	매산정1정목	교통
殖産銀行 水原支店	법인	매산정1정목	금융
朝鮮藥草株式會社	법인	매산정1정목	종묘
연초점	市川新作	매산정1정목 20	담배
朝鮮運送 水原支店	법인	매산정1정목 25	운수
오딩屋	中島シカ	매산정1정목 27	음식점
豊産商會	합명회사	매산정1정목 27	고물
第一洋靴店	ト一男	매산정1정목 27	양화, 수선
昭和旅館	宮川トヘ	매산정1정목 27	여관, 하숙
大久保商店	大久保シズオ	매산정1정목 27	잡화
에비스카페	河岡千代子	매산정1정목 28	음식점
통제조소	松川清八	매산정1정목 28	통류
이발관	濱田權吉	매산정1정목 29	이발

사업체명	사업주	소재지	사업분야
坂手商店	坂手 芳夫	매산정1정목 31	신탄(薪炭)
건축청부	小野 常一	매산정1정목 36	토목, 건축청부
福興園	藍敬箴	매산정1정목 37	음식점
梅野商店	梅野 定	매산정1정목 37	기계공구
梅山堂	原田 興太郎	매산정1정목 37	서적, 잡지, 문방구
巴商會	吉浦大作	매산정1정목 37	양복, 기성복
가구점	古賀 秀次	매산정1정목 39	가구
柴田材木店	柴田 清	매산정1정목 41	목재
讚岐商會	井川 忠吉	매산정1정목 41	미곡
ヤナタ時計店	築田 一信	매산정1정목 41	시계, 안경
하숙	木村 トモ	매산정1정목 48	여관, 하숙
長尾商店	長野 伊平	매산정1정목 49	담배
岩見屋	梅谷 幸太郎	매산정1정목 49	선어(鮮魚)
東京パン粉販賣所	岡田 仁美	매산정1정목 49	식료품
葛馬理髮館	葛馬 重吉	매산정1정목 49	이발
大衆食堂	杉原 徳市	매산정1정목 60	음식점
中津屋旅館	角金 時	매산정1정목 60	여관, 하숙
越後屋	佐藤 カメ	매산정1정목 60	여관, 하숙
水月堂	大屋 政市	매산정1정목 63	제과, 빙과
磯野鑄造出張所	萩原 清五郎	매산정1정목 67	농기구
國産貿易商會	原口 喜一	매산정1정목 67	청과물
泰興樓	初鳳 坡	매산정1정목 68	음식점
細川商店	細川 岡之助	매산정1정목 68	도시락
みどり屋	大久保 シゲノ	매산정1정목 68	여관, 하숙
喜樂食堂	渡邊 キヲ	매산정1정목 69	음식점
山本旅館	枅 シゲ	매산정1정목 69	여관, 하숙
華城自動車株式會社		매산정1정목 70	자동차
柴田商店	柴田 正一	매산정1정목 77	시멘트 가공
賴岡組	賴岡 實一	매산정1정목 83	토목, 건축청부
協商會	합명회사	매산정2정목	고물
제빙소	鳥飼 孫太郎	매산정2정목	빙, 빙과자
鬼進商會	합자회사	매산정2정목	자전거
東洋種苗株式會社	법인	매산정2정목	종묘
水原植林種苗株式會社	법인	매산정2정목	종묘
두부집	八木 金藏	매산정2정목 13	두부공장
쌀집	淺野 榮次郎	매산정2정목 27	미곡
玉澤工務所	玉澤 俊助	매산정2정목 27	토목, 건축청부
磯崎商店	磯崎 建藏	매산정2정목 28	식료품
萩野商店	萩野 彌太郎	매산정2정목 32	목재
杉本商店	杉本 俊一	매산정2정목 51	기계공구
日の出	古野 喜太郎	매산정2정목 51	음식점
건축청부	濱崎 金次郎	매산정2정목 65	토목, 건축청부
南北棉業 水原工場	법인	매산정2정목 90	타면소(打棉所)
株式會社 万種園	법인	매산정3정목	종묘

- 1) 『巡廻探訪 196, 停車場近處부터 日人이 蠶食(1) 大悟를 要할 우리』, 『동아일보』, 1927년 1월 14일
- 2) 1932년 9월 24일 수원역전 도로 개설로 7,300원에 일본인 다케다(竹田多十郎)에게 낙찰되었다. 『수원역전도로』, 『매일신보』, 1932년 9월 26일.
- 3) 김영준 편저 『우리들의 신앙-日本人선교사 乘松雅休에 의한 수원동신교회 100년 略史』, 성서강당학회 편찬위원회, 2000, 17쪽.
- 4) 靈水, 「朝鮮人の父 故乘松氏」, 『朝鮮』 88, 1922년 7월; 김태희, 「在主故乘松兄妹記念碑」, 1922.
- 5) 「水原新聞」, 『황성신문』, 1908년 3월 10일.
- 6) 「水原報의 更刊計劃」, 『황성신문』, 1908년 12월 23일.
- 7) 사카이 마사노스케, 『발전하는 수원』, 수원박물관, 2011, 25~26쪽.
- 8) 幣原垣, 『朝鮮教育論』, 大盟館, 1919, 60쪽.
- 9) 酒井政之助, 『發展せる水原』, 1914, 12쪽; 酒井政之助, 『水原』, 1923, 11~12쪽.
- 10) 稻葉繼雄, 『舊韓末 '日語學校'의 研究』, 九州大學出版會, 1997, 271쪽.
- 11) 稻葉繼雄, 『舊韓末 '日語學校'의 研究』, 九州大學出版會, 1997, 273쪽.
- 12) 한동민, 「근대 수원의 일본인 사회와 일본인학교 - 일어 화성학교와 수원소학교를 중심으로」, 『지배문화와 민중의식』, 서광일교수 정년기념논총간행위원회, 2008.
- 13) 『朝鮮新報』, 1906년 11월 15일.
- 14) '수원행행하신 휘보', 「內報」, 『共立新報』, 1908년 11월 4일.
- 15) 조선총독부, 『조선총독부관보』, 1915년 12월 20일.
- 16) 「수원신사 낙성식」, 『매일신보』, 1917년 10월 20일.
- 17) 한동민, 「수원을 걷는다 - 근대 수원 읽기」, 수원박물관, 2012, 256~257쪽.
- 18) 손정목, 「조선총독부의 신사보급·신사참배 강요정책 연구」, 『한국사연구』 58, 1987, 106쪽.
- 19) 손정목, 「조선총독부의 신사보급·신사참배 강요정책 연구」, 『한국사연구』 58, 1987, 107~108쪽.
- 20) '華城聖廟告由文', 「祭文」 5, 『弘齋全書』 권23.
- 21) 유아사 가쓰에, 「대추」, 『간난이』, 수원박물관, 2016, 130~131쪽.
- 22) 「水原廣島縣人會」, 『朝鮮新聞』, 1930년 7월 1일
- 23) 『朝鮮新報』, 1907년 4월 17일.
- 24) 가네코 후미코, 「무엇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는가」, 이학사, 2012, 84쪽.
- 25) 가네코 후미코, 「무엇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는가」, 이학사, 2012, 85~86쪽.
- 26) 酒井政之助, 『發展せる水原』, 1914, 5~6쪽.
- 27) 이동근, 「수원지역 3·1운동에서 천도교의 역할」, 『경기사학』 7, 2003, 201쪽.
- 28) 「東山農場事業成績概要」, 『朝鮮農會報』 8-8, 1913년 8월, 16~17쪽.
- 29) 『朝鮮産業指針』, 11쪽.
- 30) 『朝鮮總督府官報』, 1919년 11월 14일.
- 31) 국사편찬위원회, 『尹致昊日記 八』, (한국사료총서 제19집), 1968, 103~104쪽.
- 32) 細川勳, 「水原驛前 名物弁当の味」, 『水原小學校同窓會報』 12, 2004, 5쪽.
- 33) 『朝鮮新報』, 1907년 4월 17일.
- 34) 酒井政之助, 『水原』, 1923.
- 35) 「수원상점 소개」, 『釜山日報』, 1925년 11월 14일
- 36) 酒井政之助, 『水原』, 1923, 108쪽.



조성운 동국대학교 강사

제4장

근대 관광, 수원을 주목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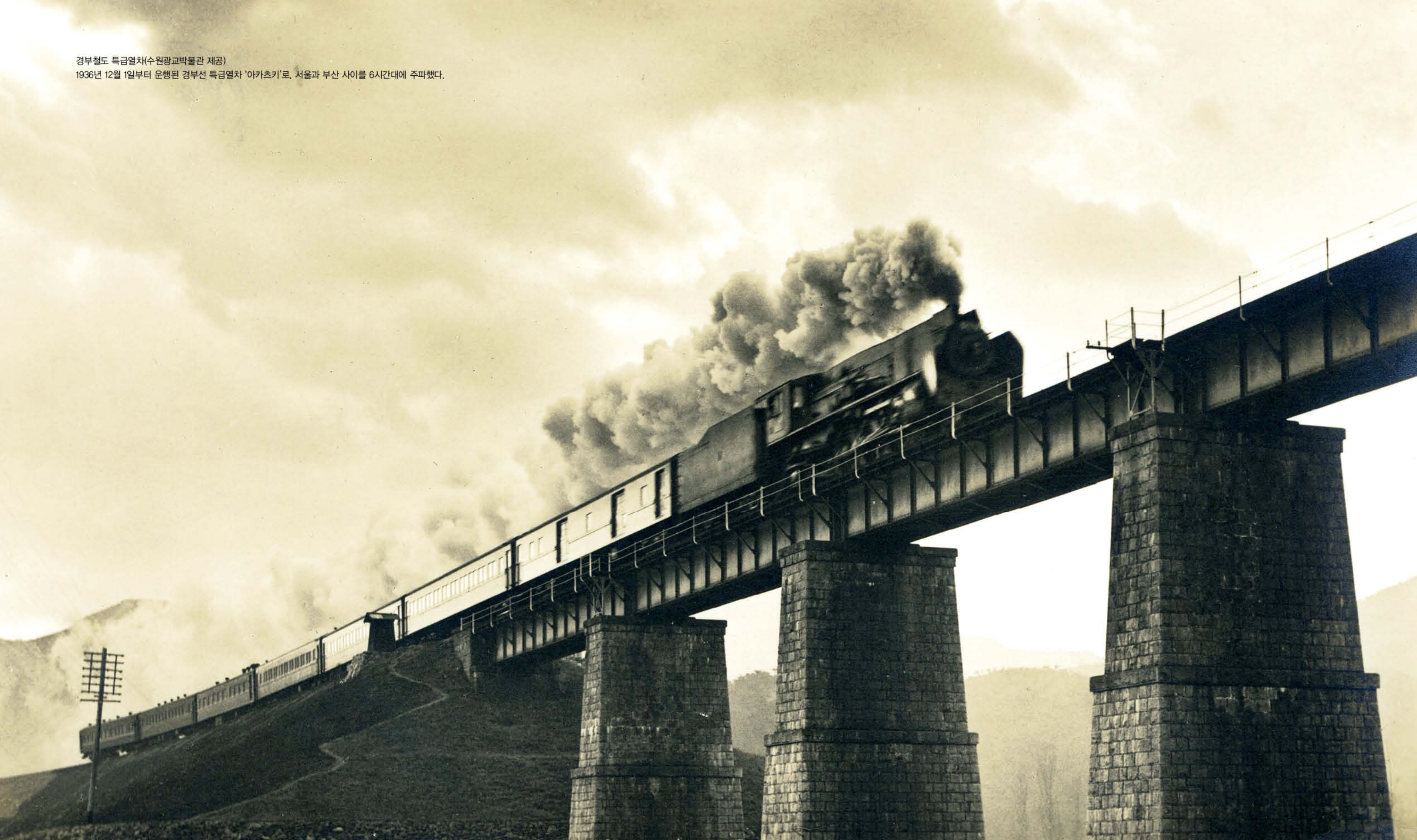
1. 근대 관광의 성립

관광은 다른 지방이나 다른 나라에 가서 그곳의 풍경, 풍습, 문물 등을 구경하는 행위를 말하며, 이로 인해 일상생활에서 잠시 벗어나는 한시적인 행위이다. 또한 관광객은 관광을 하는 동안 생산 활동을 하지 않고 소비 활동만을 할 수밖에 없으므로 관광을 위해서는 경제적 여유가 필요하다. 따라서 근대 '시민계급'의 탄생은 근대 관광이 성립할 수 있는 주요한 조건이 된다. 이 외에도 근대 관광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철도와 같이 보다 저렴하면서도 다중을 이동시킬 수 있는 교통수단이 필요하였고, 관광지에서 이들을 재울 수 있는 호텔, 여관과 같은 대중적 숙박시설과 이들이 먹을 수 있는 식당도 필요하였다. 또한 이와 같은 여행 혹은 관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철도, 숙박시설, 식당 등을 보다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여행사와 같은 회사 조직도 필요하였다. 따라서 닝왕(Ning Wang)이 『관광과 근대성』(일신사, 2004)에서 지적하였듯이 근대 관광은 대중화와 산업화라는 특징을 갖는 것이며, 자본주의적 논리가 관철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결국 근대 관광은 서구사회가 제국주의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성립한 것이었다.

근대적 의미의 관광은 19세기 중반 영국에서 탄생하였다. 즉 토마스 쿡(Thomas Cook)이 1841년 7월 5일 570명의 관광객을 모집하여 영국의 레스터(Leicester)에서 러

경부철도 특급열차(수원광교박물관 제공)

1936년 12월 1일부터 운행된 경부선 특급열차 '아카츠키'로, 서울과 부산 사이를 6시간대에 주파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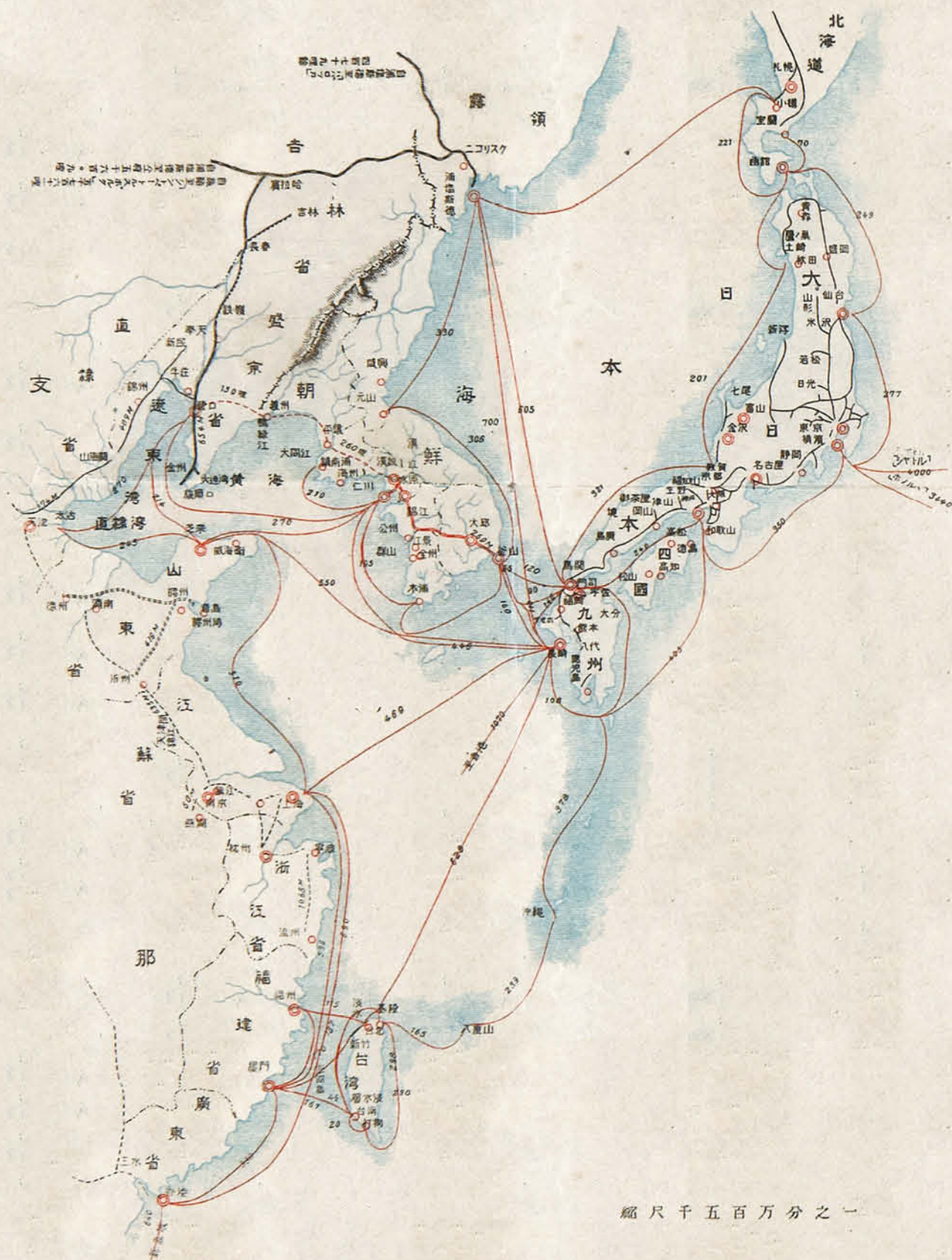
일제시기 경부철도 특급열차 내부(수원박물관 제공)

프로보(Loughborough)까지 실시했던 기차여행에 기원을 두고 있다. 금주운동을 목적
으로 했던 이 여행 이후 지금까지 일부 상류층에서만 행해지던 여행에 대한 대중의 폭발
적인 지지와 참여가 초래되었다. 산업혁명 이후 성장한 시민-중산층의 등장과 철도라
는 대규모 운송수단의 발달에 따른 것이었다. 이에 토마스 쿡은 1845년 토마스 쿡 앤 선
(Thomas Cook and Son)이라는 세계 최초의 여행사를 설립하여 본격적인 관광사업을
시작하였다. 이후 미국과 유럽에서도 여행사가 설립되면서 관광은 대중화되기 시작하였
던 것이다.

그런데 관광은 식민지와 피식민지의 차별을 바탕으로 둔 것이었다. 당시 유럽에서 광풍
처럼 유행하던 박람회에는 '문명과 야만'이라는 시각으로 식민지 지배를 정당화하였다. 관
광은 이러한 박람회에서 간접 경험한 것을 식민지 관광을 통해 '문명'화 된 시선으로 '야
만' 사회를 직접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제국주의적 시선을 보다 강화하는 성격
을 갖고 있었다. 그러므로 관광은 제국주의의 산물인 것이다.

우리나라를 식민지 지배하였던 일본의 근대 관광 역시 이러한 틀에서 벗어나지 않는
다. 그러나 일본은 서구의 제국주의 국가와는 달리 아시아에 속한 국가이며 후발제국주
의국가라는 점에서 서구 제국주의와는 출발점이 달랐다. 여기에 일본과 서구의 근대 관
광의 차별성이 있다. 서구의 관광이 제국주의의 시선으로 식민지를 야만으로 '보는' 주체라
는 관점에 서 있다면, 일본은 서구에 대해서는 그들과 동등한 국가로 인정받고 싶은 콤플렉스 속에서 그들의 눈에 '보이는' 객체라는 관점과 함께 조선, 대만, 중국 등 아시아
국가에 대해서는 '보는' 주체로서 상대방을 야만시하는 이중적 성격을 보이고 있다.¹⁾ 대
표적인 사례가 1906년 아사히신문사가 주최한 만한순유단의 파견이다. 만한순유단은 만
주와 한국에서 전개되었던 청일전쟁과 러일전쟁의 전적지를 중심으로 여행함으로써 관
광객에게 제국민의 정체성을 강화하였다. 또한 이 과정에서 '보이는' 객체인 조선인, 만
주인, 중국인의 야만성과 열등성을 제 국민에게 각인시켰던 것이다. 이후 일본으로부터
다양한 관광단이 조선에 왔으며, 조선에서도 일본 관광이 시작되었다. 조선 최초의 대규
모 일본 관광단은 1909년 4월 경성일본사가 조직, 파견하였다.²⁾ 그리고 일제가 조선을
강점한 1910년 이후부터 일제의 패망 무렵까지 '내지시찰단'이라는 이름으로 일본 시찰
단을 파견하였다.³⁾

우리나라에 근대 관광의 개념이 언제 수용되었는지를 파악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
지만 한 연구에서는 대한제국기에 이미 근대 관광 행위가 나타났다는 사실을 밝혔다. 태



부산항으로 들어오는 일본인(수원박물관 제공)

덕업이라는 사람이 농상공부의 인기를 받아 금강산 관광객을 모집⁴⁾하였을 뿐만 아니라 『독립신문』은 관광 개발을 통해 경제적 이익을 추구할 것을 주장하면서 이를 위해 도로와 교통시설의 확충, 여관의 정비, 관광회의 설립 혹은 관광 개발을 위한 정부기구의 설치 등을 통해 관광을 진흥시키고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자는 주장을 하였던 것이다.⁵⁾ 그리고 통감부 설치 이후인 1907년에는 도쿄권업박람회 관광을 목적으로 일본유람협회가 설립되었고, 1908년에는 일본순유회가 조직되었다.⁶⁾ 국내적으로는 1896년 이후에는 배재학당을 비롯한 근대 학교의 화류, 소품, 놀이가 시작되었고, 1906년 이후에는 소품과 수학여행이 분화되었다.⁷⁾ 이는 근거리의 당일치기 소품과 1박 이상의 원거리 수학여행이 분화되기 시작하였다는 의미이다. 이러한 변화는 결국 1905년 경부선과 1906년 경의선 개통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것이었다. 특히 수학여행의 경우 1907년부터 일제의 조선 강점 이전까지 『황성신문』과 『대한매일신보』에 보도된 원족과 수학여행 기사는 각각 33건과 23건에 이르렀던 것이다.⁸⁾

그러나 일제하 식민지 조선의 국내 관광은 상대적으로 연구가 미진하여 그 전모를 파악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다만 김정훈이 일제의 조선 강점을 전후한 시기의 국내 관광

에 대한 연구를 통해 1910년대 초반 국내 관광단이 방문한 지역이나 시설은 대부분 일제가 근대 도시로 건설하거나 일제에 의해 근대 시설이 조성된 지역이나 시설이 중심이 되었다는 점을 밝히면서 일본 시찰단이 한국의 상부조직을 회유하기 위한 것이었다면 국내 관광단은 하부조직을 포섭하기 위한 것이라고 파악하였다.¹⁰⁾ 이는 조중응(趙重應)이 국내 시찰을 일본 시찰과 마찬가지로의 의의를 갖는다고 지적한 바와도 일치한다.¹¹⁾

그런데 이와 같은 국내 관광이 실시될 수 있었던 것은 1905년 경부철도와 1906년 경의철도의 부설이 없었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이에 대해 『매일신보』는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往日には水陸の交通이 不便하여 遠地는 10일 20일의 跋涉이 아니면 加達치 못하므로 京城이 何處에 在한지, 老死不知하는 者가 往往하고, 又 人民의 程度가 低下하여 觀光의 思想이 初無하였고, 또 婦女는 所居地方에서도 敢히 門外에 出지 못하더니 現下 文明이 大하여 水에는 氣艦이 有하며, 陸에는 汽車가 有하여¹²⁾

그러므로 국내 관광의 경우도 철도의 부설은 관광 발달의 전제 조건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수원의 경우는 경부선의 부설과 함께 수원역이 건설되어 근대 관광이 발달할 수 있는 조건을 충족하였을 뿐만 아니라 정조가 건설한 화성이라는 명승지와 권업모범장과 농림학교와 같은 근대 시설도 있어 관광지로서의 조건을 갖추었다. 그뿐만 아니라 경성의 남대문역에서 약 1시간 거리에 있으므로 접근성도 양호한 편이어서 일찍부터 조선 총독부의 관심을 끌었다고 할 수 있다.

한 연구에서는 조선총독부의 관광정책을 1910년대, 1920년대, 1930년대(1938년 국가총동원법 실시 이전을 1기, 실시 이후를 2기)로 나누어 살펴보았다.¹³⁾ 이에 따르면 1910년대에는 일본 시찰단을 중심으로 한 해외 관광과 경성을 중심으로 한 국내의 도시 관광에 초점을 두고 근대 문물의 견학을 통해 일제의 조선 지배를 통해 조선이 근대 문물을 수용하고 발전시킬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하였다. 1920년대에는 3·1운동 이후 새로운 식민지 지배의 협력자를 양성하고 획득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관광을 활용하고자 하였으며, 1920년대 중반 이후에는 사설철도를 중심으로 한 관광철도의 부설이 본격화되었다고 하였다. 1930년대에는 1938년 ‘국가총동원법’ 공포 이전과 공포 이후를 각각 1기와 2기로 구분하여 1기에는 관광을 진흥시키려는 정책을 시행하였으나 2기에는 전쟁이 본격화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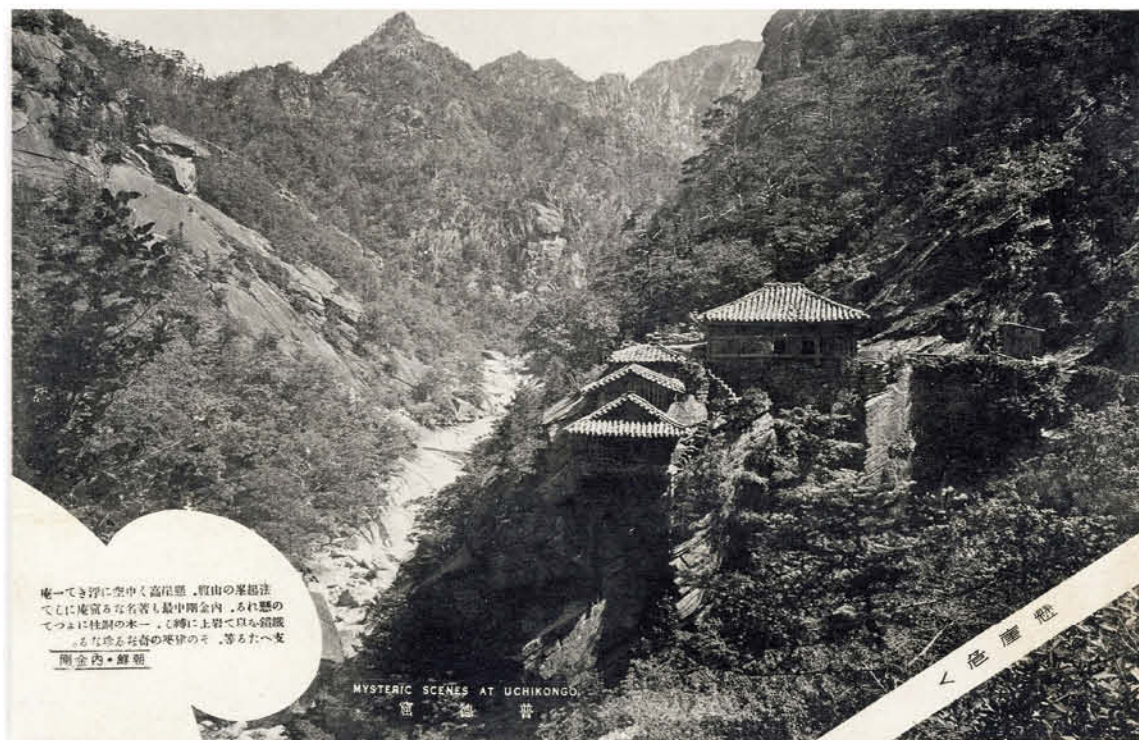


일제의 지배로 조선이 근대화되었음을 홍보하기 위해 만든 엽서(수원박물관 제공)
조선은행 앞에서 바라본 종로 방향의 변화가이다.

고 전황이 불리해지면서 관광을 억제시키려는 정책을 실시하였다고 파악하였다.

특히 1912년 3월 12일 “외객을 유치하고 외객을 위한 제반 시설을 도모”¹⁴⁾할 것을 목적으로 한 일본여행협회가 설립되고, 12월 1일에는 조선지부가 설치되었다. 일본여행협회 조선지부는 여행안내서의 출판, 외국인 관광객의 알선, 그림엽서의 제작, 외국에 대한 식민지 조선 관광 안내, 팸플릿 제작 등의 활동을 통해 조선 관광에 대한 제반 편의를 제공하였다.¹⁵⁾ 이로써 일제는 식민지 조선에 대한 일제의 식민지 지배가 조선을 근대적으로 발전시키고 있다는 점을 대외적으로 선전하고 경제적 이익도 도모하였던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1910년대 조선총독부는 금강산 관광 개발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였다. 금강산은 일찍부터 명산으로 알려져 왔으며 근대 이전에도 금강산 유람은 상당한 수준으로 이루어



금강산 관광을 홍보하기 위해 만든 내금강 보덕굴 엽서(수원박물관 제공)

졌다. 조선총독부의 기관지인 『매일신보』의 1910년대 기사에는 금강산 관련 사진이나 그림이 94건, 금강산 관련 연재기사가 5건(1915년 2건, 1916년 2건, 1919년 1건)이 게재되었다.¹⁶⁾ 그뿐만 아니라 일본여행협회도 1916년 『금강산안내』라는 금강산 여행 안내서를 영문과 노문으로 발간하였고, 기관지인 『ツーリスト』에 금강산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기도 하였다.¹⁷⁾ 또한 1916년과 1917년에는 각각 러시아 관광객 약 3,000명과 3,600명을 금강산에 유치하기도 하였다.¹⁸⁾ 이처럼 일본 제국주의도 금강산 관광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았다. 이는 곧 재조 일본인과 지역 내의 유력한 조선인들의 금강산 관광 개발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그리하여 1910년대에는 철도와 도로 등 교통시설, 호텔과 여관 등 숙박시설의 정비와 확충이 이루어졌으며, 우편시설과 통신시설, 경비시설 등도 설치되어 금강산 관광이 보다 편리해졌다.¹⁹⁾

이러한 관광 개발에 대한 인식이 고조되면서 여타 지역에서도 관광 개발에 대해 관심을 기울였다. 특히 1910년대 근대 문물의 시찰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경성 관광은 경성만

을 둘러보는 것이 아니라 주변의 수원과 인천을 함께 시찰하는 코스로 이루어졌다. 이는 경인철도와 경부철도를 이용하여 당일치기 여행이 가능하였으며, 수원은 권업모범장과 농림학교, 인천은 월미도를 중심으로 한 근대 시설의 관람이 주요 코스였다. 바로 이 점이 수원 지역 관광의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것이다. 즉 관광객이 수원에 머물러 숙박해야 수원 지역에 경제적 이익이 있을 것인데 많은 관광객들이 당일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 이익이 상대적으로 적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2. 수원역과 근대 관광

1910년 일제의 조선 강점 이후 관광은 식민지 지배정책의 주요한 수단으로 활용되었다. 그리하여 앞에서 보았듯이 근대 도시와 근대 시설이 설치된 전통도시는 일제의 식민지 지배를 선전하는 장으로 이용되었다. 수원 역시 이러한 범주에 속한다.

철도라는 교통수단의 발달에 따라 근대 관광이 성립하였으므로 수원 지역의 근대 관광 역시 수원역의 설치와 함께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수원역은 1905년 경부철도의 개통과 함께 영업을 시작하였다. 개통 당시의 기록이 남아 있지 않아 당시 상황을 파악할 수는 없으나 수원역 설치까지는 다음과 같은 소동이 있었다.

초기 수원역사(수원박물관 제공)





1928년 한옥 형태로 신축된 수원역사(수원박물관 제공)

水原郡守의 報告를 據尤 則京釜鐵道線路가 本郡境內로 經過青 次로 日人이 踏査立票囑
 啗犁嫠 遲遲臺로 大有坪을 歷야 西門外로 八達山後麓을 貫啗야 上柳川으로 大皇橋東邊을
 經啗犁지라. 始役이 在邇而 八達山은 華寧殿土山이오 遲遲臺犁 亦係所重地이猴 一直立票
 囑며 其間田畝墳墓가 多入線路라고 民訴가 遲至啗오니 何以措處青犁지啗야더라.²⁰⁾

즉 화령전과 지지대비가 있는 팔달산이 훼손되며 철도 공사 구간에 다수의 전답과 분
 묘가 있기 때문에 수원 지역민은 경부철도가 이 지역을 통과하는 데 반대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갈등 속에서 경부철도가 개통되면서 수원역도 영업을 시작하였다. 조선총독부 철
 도국에 따르면 수원역은 수원군 수원면 매산리에 소재하며 주변에 권업모범장, 동산농
 장, 동척농장, 국무농장 등이 있다고 소개되어 있다.²¹⁾ 그리고 1914년 현재 수원에는 자
 동차 1대, 인력거 95대, 우마차 131대 등이 있었고, 자동차 요금은 수원성 내 15전, 용인
 90전, 이천 2원 10전, 인력거 요금은 수원성 내 17전, 남양 1원 20전, 용인 1원, 이천 2원
 20전, 여주 3원 20전이였다.²²⁾

1913년 수원역의 승하차인원을 보면 조선인 70%, 일본인 20%, 외국인 10%의 비율로
 구성되었다. <표 1>에서 1913년 수원역 승차인원은 9만 3,397명, 하차인원은 9만 9,810
 명, 발송화물은 7,738톤, 도착화물은 1만 554톤으로서 수입은 객차수입이 5만 4,905원,
 화차수입이 3만 9,291원으로 전체가 9만 4,291원이었다.²³⁾ 1913년 수원역에 하차하는 승
 객은 남대문역에서 탑승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고, 남대문역과 용산을 합한 경성 승차자
 의 비중은 전체 승객은 전체 승객 238명 중 134명으로서 56.3%에 해당한다. 이를 1년으
 로 계산하면 전체 승객은 8만 6,870명이며 이 중 경성에서 승차한 승객이 4만 8,910명
 이다. 그리고 이 승객들은 농민, 상인, 유람객이었다.²⁴⁾ 유람객, 즉 관광객의 수가 얼마나
 되었는지를 확인하기는 어려우나 승객 중 관광객의 수가 적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추세는 1920년대에 더욱 증가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표 1 1913년 수원역 구간별 승하차인원

(단위 : 명)

구간	남대문		용산		병점		오산		서정리		평택		인천	
	승차	하차	승차	하차	승차	하차	승차	하차	승차	하차	승차	하차	승차	하차
인원	117	89	17	17	30	31	33	34	17	15	15	14	9	7

출처 : 조선총독부 철도국, 『조선역세일반』 상, 1914, 422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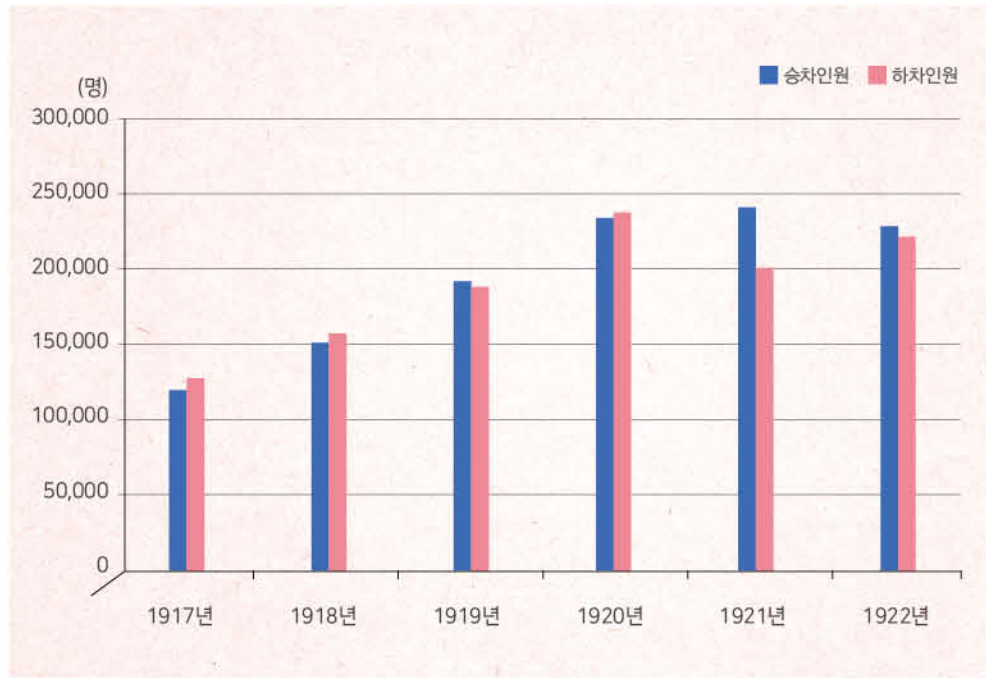
표 2 1917~1922년 수원역 승하차인원

(단위 : 명)

연도	1917	1918	1919	1920	1921	1922
승차인원	119,378	150,594	191,909	235,250	241,939	228,162
하차인원	128,333	157,050	189,785	237,583	201,907	221,399
합계	247,711	307,644	381,694	472,833	443,846	449,561

출처 : 酒井政之助, 『水原』, 酒井出判部, 1923, 6쪽.

<표 2>에서 볼 수 있듯이 수원역은 1920년을 예외로 하면 승객이 꾸준히 증가하였다.
 이는 1910년 이래 수원은 각종 관광단, 시찰단의 관광과 시찰의 장소가 된 것과 관련이
 깊다고 생각된다. 『매일신보』, 『동아일보』, 『조선일보』 등 당대에 발행된 신문을 조사한
 바에 따르면 1910년대 수원을 방문한 관광단, 시찰단의 수는 1912년 13개, 1913년 21개,
 1914년 3개, 1916년 7개, 1917년 2개, 1918년 2개로 모두 48개 단체였으며, 1920년대에



1917~1922년 수원역 승하차인원

는 1920년 9개, 1921년 16개, 1922년 16개, 1923년 14개, 1924년 9개, 1925년 2개, 1926년 4개, 1927년 2개, 1928년 2개로 모두 65개 단체였다.

이 외에도 1910년대에는 관광열차, 1920년대에는 관월열차와 관앵열차가 남대문역에서 수원역까지 운행되어 조선총독부 철도국 차원에서 수원을 관광지로 개발하려 했던 의도를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이 관광단, 시찰단은 대부분 열차를 이용하여 수원으로 이동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당시에 자동차 교통이 편리하지 않았던 관계로 대규모 이동수단은 철도 이외에는 찾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3. 1910~1920년대 수원 관광단

1910년대 관광단과 시찰단의 규모를 보면 1912년 개성관광단은 남녀 200명, 1913년 안협관광단은 남 97명(남 34명, 여 63명), 함남관광단은 107명, 평강관광단은 100여 명

이며, 적은 경우는 1912년 은진·공주·연산군연합관광단은 18명으로 평균적으로는 20~50명 정도로 구성되었다. 그리고 1912년 경인관광단은 면장과 유지자, 순천·숙천연합관광단은 서기, 참사, 향교직원, 학무위원, 면장, 실업가, 교육가, 유생, 여자고등학생, 성천관광단은 참사, 면장, 탁지부 지정 연초모점경작인, 동아연초주식회사 연초경작소작인, 1913년 봉산관광단은 동장과 이장 등으로 구성되었다. 이로 보아 1910년대 관광단은 면장, 유지자, 서기, 참사, 향교직원, 학무위원, 실업가, 교육가, 유생, 독농가, 동장, 이장 등 지방 사회의 행정실무 담당자나 지역 유지 등으로 구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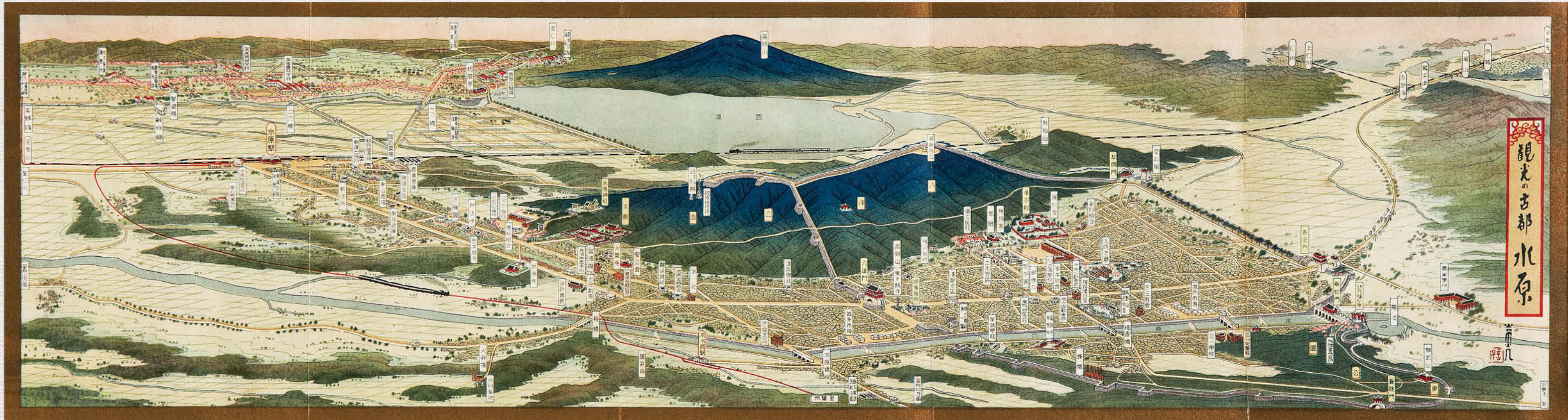
이들이 수원에서 시찰한 장소는 권업모범장과 농림학교, 수원군청, 동척농장, 잠종제조소, 공립보통학교, 풍화당, 화홍문, 방화수류정, 서호, 향미정 등이었다. 여기에서 주목되는 것은 1915년까지는 풍화당, 화홍문, 방화수류정, 서호, 향미정 등 수원 지역의 고적을 관광한 기사는 보이지 않고, 권업모범장과 농림학교 등 근대 문물을 시찰한 기사만을 볼 수 있었을 뿐이다. 근대 문물이 아닌 고적을 관광한 기사가 최초로 보이는 것은 1916년 효고현시찰단과 경성여자고등보통학교의 수학여행 기사이다.

이로 보면 1915년 조선물산공진회 이후에 일제는 근대 문물의 시찰을 통한 식민지 지배의 안정화 정책에서 진척하여 고적과 명승지를 관광지로 만들어 지역사회의 개발과 자본의 이익을 창출하려는 방향으로 정책에 변화를 주었다고 판단된다. 다만 1912년 조선총독부 철도국이 남대문에서 수원역까지 운행한 관광열차에는 1,500여 명이 참가하여 성황을 이루었다.²⁵⁾

1920년대의 경우는 1923년 경주시찰단 252명, 1924년 경성 각 고아원관광단 313명, 호수돈여자고등보통학교 수학여행단 260명 등 대규모로부터 적은 경우는 1928년 김천주조회사시찰단 7명 등 소규모의 것도 있었다. 평균적으로 20~40명 정도로 구성되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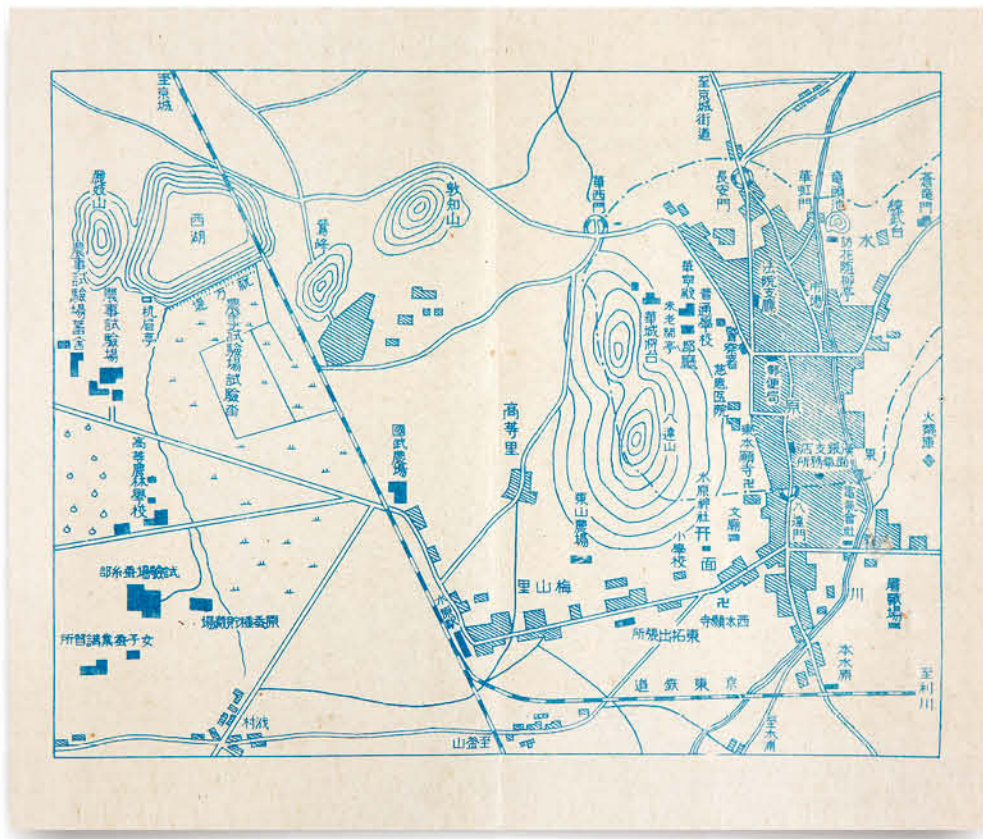
수원역 앞 호소가와 상점에서 판매한 도시락 어변당(御辨當) 상표 (수원박물관 제공)



「관광의 고도 수원」(수원박물관 제공)

1936년에 제작된 수원 관광안내 채색지도 엽서다. 팔달산과 수원천을 중심으로 형성된 수원을 전경에 주요 기관과 시설, 명승지 등을 표기하였다. 1928년 한옥식 건물로 신축한 수원역과 이를 지나는 경부선, 수려선, 수인선을 지도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당시 수원은 교통이 편리하고 화성을 비롯한 많은 고적을 보유한 관광명소로 부각되고 있었다.





수원 수학여행안내서에 실린 수원악도(수원박물관 제공)

4. 수학여행을 할 경우 그 여행 중 견학사항, 경과, 지명 및 경비(생도의 부담액을 구별함)를 기재하여 도장관에게 보고할 것.

二. 소학교 및 보통학교 이외의 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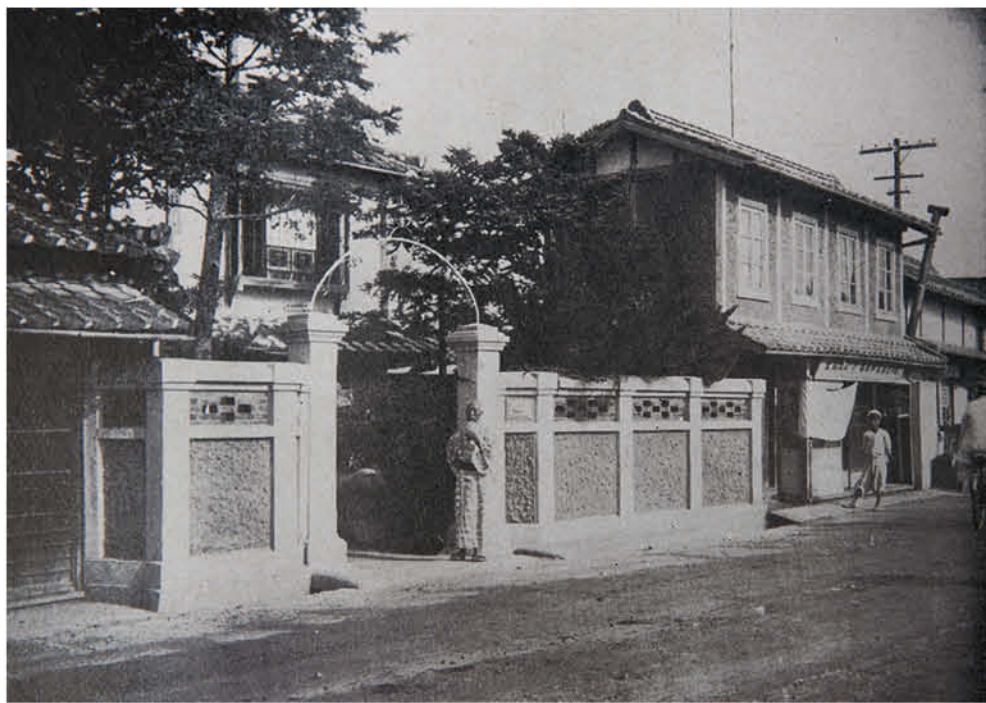
1. 수학여행에 지나친 경비를 요구하여 부형을 미혹하는 일을 하지 말 것.
2. 숙박을 요하는 수학여행의 경우 미리 도장관의 인가를 받을 것.
3. 수학여행을 할 경우 그 여행 중 연구사항, 경과, 지명 및 경비(생도의 부담액을 구별함)를 기재하여 도장관에게 보고할 것.
4. 수학여행을 위해 부형 기타에게 특별 기부금품을 모집하는 일과 같은 일을 하지 말 것.²⁷⁾

즉 수학여행을 갈 경우 견학 혹은 연구사항, 경과, 지명, 경비 등을 도장관에게 보고해야 하였으며, 특히 숙박을 할 경우에는 사전에 인가받도록 하여 도장관이 각급 학교의 수학여행을 통제할 수 있도록 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1921년 10월 1일 훈령으로 공포된 관립학교 직무규정에도 반영되어 숙박을 요하지 않는 수학여행만 학교장의 직무로 규정되었던 것이다.²⁸⁾

한편 수학여행단을 제외한 관광단 혹은 시찰단은 농림학교, 권업모범장, 이왕직목장, 잠업시험장, 고등농림학교, 임업종묘원, 서호 등을 살펴보았다. 따라서 이들의 수원관광은 1910년대와 마찬가지로 관광이 목적이 아니라 근대 시설에 대한 시찰이 목적이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 시기 수원관광의 또 다른 특징은 간도, 통화, 봉천 등 만주 일대에 거주하는 조선인 유력자들의 조선시찰단이 방문하였다는 점이다. 이는 3·1운동 이후 조선총독부가 해외 거주 조선인 유력자들에게 일제의 식민지 지배가 조선의 근대적 발전을 이루었다는 점을 강조하여 식민지 지배를 안정시키고 공고화하고자 하였던 의도를 보여준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살필 것은 관광단 혹은 시찰단이 묵을 숙소에 관한 것이다. 여관에 대한 자료는 소략하여 제대로 알 수는 없으나 1908년 발행된 『한국철도선로안내(韓國鐵道線路案内)』에는 가토(加藤)여관, 기쿠스이(菊水)여관, 산요(山陽)여관, 기우치(木內)여관²⁹⁾이 보이며, 1923년 발행된 『수원(水原)』에는 화성관(華城館), 야마모토(山本)여관, 아오키(靑木)여관, 산요(山陽)여관이 광고한 것이 보인다. 이 중 화성관과 야마모토여관은 역전(현재의 매산동)에 있었으며, 아오키여관과 산요여관은 본정1정목(현재의 중동)에 있었다.³⁰⁾ 이 여관들은 모두 일본인이 경영하던 여관이었다. 야마모토여관은 권업모범장 지정, 제국철도동맹 소속 여관이었고, 산요여관은 육군, 경무부, 경기도청 지정 여관이었다. 그런데 화성관은 1916년 3월 24일 화재가 발생하여 200~300원의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기사가 있는 것으로 보아 1910년대에도 영업하였던 것이 확인된다.³¹⁾ 그러므로 수원에는 앞의 여관 이외의 다른 여관들도 영업하였을 것이며, 조선인이 경영하던 여관도 있었다.³²⁾

수원을 시찰한 후 귀향한 상원시찰단원 중에는 권업모범장을 모방하여 실지 농작할 것을 결심하기도 하였다.³³⁾ 이는 조선총독부가 관광 혹은 시찰의 목적으로 하였던 것이 실제 지방에서 실천되기도 하였다는 사례라 할 수 있다. 이는 1913년 강서관광단을 접견한 자리에서 데라우치 총독이 행한 다음의 훈시에서도 확인된다.



수원 읍내 일본인 여관(조선총독부, 『생활상태조사-수원군』, 19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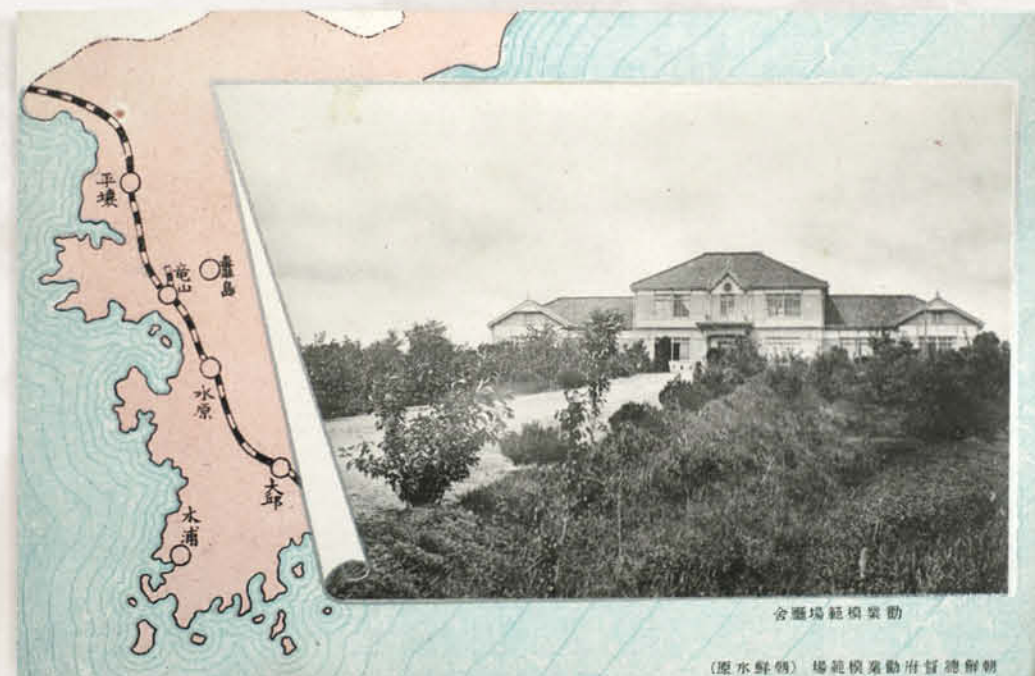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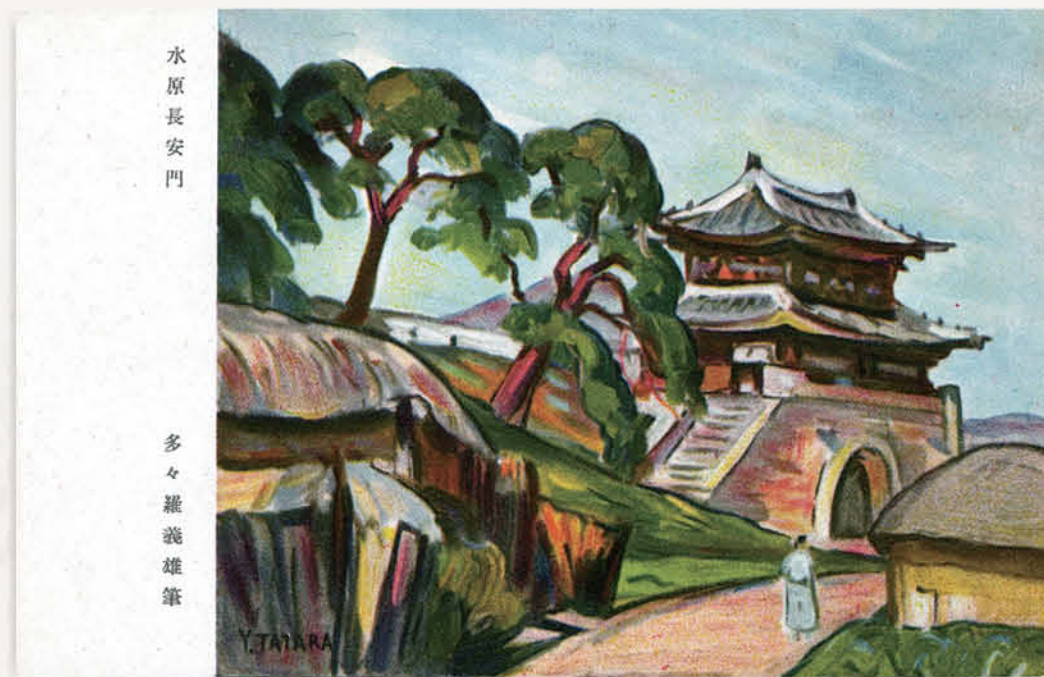
今回 諸君이 觀光團을 組織하고 貴重한 時間과 多額의 旅費를 費하여 遠路入京함
에 就하여는 京城竝其附近에 在한 諸般施設及農業의 狀況을 視察하여 此行이 徒
爾에 付치 않도록 期할지오. 又事物의 視察에 當하여는 京城 市中の 店頭를 見함과
如한 外觀에만 迷惑하는 事이 無하고 能히 其實質의 如何를 研究하여서 各自의 從
事하고 있는 事業竝職務上에 應用하여 改善을 計하도록 用意함이 緊要하며 江西郡
은 農事 改良, 種子의 選擇 其他 山林의 經營 등 諸事業이 着着 其緒에 就하여 良
好한 成績을 擧한다 하니 甚히 慶賀할 事이라. 將來에 對하여도 放心치 勿하고 更히
一層의 好成績을 擧할 事를 希望하며 特히 郡守 以下 各 面長에 在하여는 歸鄉 後
此趣旨를 人民에게 傳하여 官民이 協力하여 地方産業의 發達을 計할지오. 此近來
는 漸漸 地方에도 奢侈의 風이 流行함을 見하는 傾向이 有하므로 諸君은 各自 相戒
하여 質素勤勉의 美風을 保하기에 注意함이 可하다 하노라.³⁴⁾

즉 조선총독부는 관광 혹은 시찰을 통해 얻은 지식이나 경험을 “각자 종사하고 있는
사업과 직무상에 응용하여 개선”하는 데 목적을 두었으며, 이를 지방의 인민에게도 전할
것을 요구하였던 것이다. 그리하여 관광단 혹은 시찰단을 조직할 때는 군청이나 경찰서
등과 협의³⁵⁾하거나 조선총독부 내무부로 수보(修報)³⁶⁾하는 등 관계 당국과의 협조가 필요
하였던 것이다.

그런데 이와 같은 수원 지역에 대한 외부의 관광에는 이들을 유치하려는 수원 지역 유
지층의 노력도 있었다. 1915년 6월 13일 풍화당에서 열린 작약회(芍藥會)에는 수백 명이
참석하였는데,³⁷⁾ 여기에는 경성에서 기차로 내려온 이 글의 필자 일재생(一齋生)과 같은
외지인도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작약회는 이후에도 1919년까지 개최된 것으로 보인다.
작약회와 같이 외지인은 수원 관광에 동원하려는 노력이 수원 지역 내에서도 있으나 다
른 한편으로는 조선총독부가 수원을 경성 관광의 일부분으로 정착시키려는 노력도 행했
던 것으로 보인다. 먼저 1915년 시정 5년기념 조선물산공진회가 개최될 당시 수원군 수
원면은 개성군 송도면, 시흥군 북면과 함께 ‘임시여숙규칙’이 시행된 지역이었다. ‘임시
여숙규칙’이란 조선물산공진회 개최 중 및 그 전후 7일간에 한하여 임시여숙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한 것이었다.³⁸⁾ 그러므로 수원 지역에서는 조선물산공진회 관람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수원협찬회를 조직하여 활동하였던 것이다.

이와 같은 수원협찬회의 활동은 조선총독부의 식민지 지배정책에 부응하면서 수원 지
역의 재조일본인이나 유지층이 자신들의 경제적 이익을 확대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나선
측면이 있다고 판단된다. 이는 조선에 대한 식민지 지배를 공고히 하려한 조선총독부의
지배정책이 지역사회에서 어떠한 형식으로 관철되는지를 보여 주는 사례라고도 할 수 있
을 것이다.

한편 조선총독부 철도국(남만주철도경성관리국)에서는 철도여행안내서나 리플릿 등
을 발간하여 관광을 선전하였다. 통감부시기인 1908년에 발행된 『한국철도선로안내(韓
國鐵道線路案内)』에는 수원의 승지로 용화전(龍華殿), 화성장대(華城將臺), 화양루(華陽
樓), 문묘(文廟), 미로한정(未老閒亭), 병암간수(屏岩澗水), 화성행궁(華城行宮), 낙남헌
(洛南軒), 화령전(華寧殿), 강무당(講武堂), 방화수류정(訪花隨柳亭), 용연(龍淵), 연무대
(鍊武臺), 매향교(梅香橋), 구간수(九間水), 구산(龜山), 봉녕사(奉寧寺), 청련암(靑蓮庵),
백운사(白雲寺), 수원팔경(八達靑景, 西湖落照, 花山杜鵑, 華虹觀漲, 光教積雪, 北池賞
蓮, 南堤長柳, 螺閣待月), 권업모범장, 농림학교, 농상공부 임업과 종묘원 등을 들었다.



수원 화성 관광 엽서(수원박물관 제공)

이왕비전하 양잠소 순시 및 권업모범장 엽서(수원박물관 제공)



수원 권업모범장을 구경하고 나오는 관영단(『매일신보』, 1922년 4월 25일)

1918년에 발간된 『조선철도여행안내(朝鮮鐵道旅行案内)』에는 수원의 주요 관광지로 권업모범장, 팔달산, 화홍문, 방화수류정, 서호(항미정), 광교산, 화산(용릉과 건릉)을 수록하고 있다. 특히 서호와 광교산에 대한 서술에서는 수원팔경을 언급하고 있는 것이 주목된다.³⁹⁾ 큰 차이는 없으나 『한국철도선로안내』가 보다 상세하다. 특히 봉녕사, 청련암, 백운사 등은 『조선철도여행안내』를 비롯한 여타의 여행 안내서에서는 보기 힘든 것이다. 그런데 명승지로 소개된 것들은 주로 수원읍을 중심으로 소재하는 것들이고 용주사나 용건릉 등 수원 주변의 명소들은 소개하지 않는 것이다. 이는 도로교통이 불편하였던 당대의 교통사정을 반영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조선총독부 철도국에서는 1910년대 중반부터 1920년대 초반까지 관월대회와 관영회 등을 수원에서 개최하여 경성 등 외지의 관광객을 수원에 유치하는 활동을 전개하였다. 특히 3·1운동 직후인 1919년 5월 25일 일요일에 풍화당에서 개최된 작약회는 내선관민간친회를 겸한 것이었다.⁴⁰⁾ 또한 1919년 7월 8일 제2회 경성일보 부인견학단은 일본인만이 아니라 일본어를 할 줄 아는 조선인도 신청할 것을 권유하였다.⁴¹⁾ 이로 보아 조선총독부는 관광을 3·1운동 이후의 민심을 안정시키려는 활동의 일환으로 활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다른 한편 조선총독부는 1916년부터 고적조사사업을 5개년 계획으로 실시하였고, 이 과정에서 전국의 고적보존회의 현황을 파악하였다. 이에 따르면 경기도 8개, 충청도 11개, 전남 4개, 경상도 13개, 강원도 6개, 황해도 3개, 평안도 3개, 함북 1개 등 모두 49개의 고적보존회가 조사되었다.⁴²⁾ 수원보승회는 1931년 8월 6일 “수원의 명소·고적의 유지, 보존”을 목적으로 조직되었다.⁴³⁾ 이후 화령전, 방화수류정 등 고적을 수리, 수선하는 활동과 사진엽서를 제작하는 등 이를 선전하는 활동을 전개하였다. 이는 곧 단순히 고적을 보존하는 활동이 아니라 수원 지역의 관광자원을 보존, 개발하는 활동이기도 하였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1910~1920년대 수원 지역에 대한 관광은 순수한 의미의 관광이라기보다는 식민지 농정을 선전하는 시찰의 성격을 강하게 띠고 있다. 더욱이 3·1운동 이후에는 수원 지방민에 대한 진무책의 일환으로 관광이 이용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시찰 성격의 관광이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순수한 의미의 관광이 점차 활성화되었다. 그리하여 1920년대 초반에는 조선총독부 철도국에서는 대대적으로 수원관영회를 개최하였으며, 관광단 혹은 시찰단의 방문 장소에 대한 신문기사도 점차 수원의 고적들이 명문화되었던 것이라 판단된다.

- 1) 이에 대해서는 有山輝雄의 연구(『海外觀光旅行の誕生』, 吉川弘文館, 2002)가 참조된다. 이 책은 조성운 외 4인에 의해 『시선의 확장-일본 근대 해외관광여행의 탄생-』(선인, 2014)로 번역, 출판되었다.
- 2) 이에 대해서는 한규무의 연구(『한말 한국인 일본 관광단 연구(1909~1910)』, 『국사관논총』 107, 국사편찬위원회, 2005)와 박양신의 연구(『일본의 한국병합을 즈음한 '일본 관광단'과 그 성격』, 『동양학』 37, 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소, 2005)를 참조 바람.
- 3) 일본 시찰단에 대해서는 조성운의 연구(『식민지 근대 관광과 일본시찰』, 경인문화사, 2011)를 참조 바람.
- 4) 조성운, 「1910년대 조선총독부의 금강산 관광 개발」, 『한일민족문제연구』 30, 한민민족문제학회, 2016, 9쪽.
- 5) 「논설」, 『독립신문』, 1897년 9월 23일.
- 6) 조성운, 「1910년대 조선총독부의 금강산 관광 개발」, 『한일민족문제연구』 30, 한민민족문제학회, 2016, 13~16쪽.
- 7) 조성운, 「대한제국기 근대 학교의 소풍수학여행의 도입과 확산」, 『한국민족운동사연구』 70, 한국민족운동사학회, 2012 참조 바람.
- 8) 조성운, 「대한제국기 근대 학교의 소풍수학여행의 도입과 확산」, 『한국민족운동사연구』 70, 한국민족운동사학회, 2012, 22~26쪽.
- 9) 김정훈, 「한일합방 전후 국내 관광단의 조직과 그 성격」, 『전남사학』 25, 전남사학회, 2005, 200쪽.
- 10) 김정훈, 「한일합방 전후 국내 관광단의 조직과 그 성격」, 『전남사학』 25, 전남사학회, 2005, 204쪽.
- 11) 「鮮人思想の進化」, 『매일신보』, 1913년 9월 10일.
- 12) 「地方觀光團에 對하여」, 『매일신보』, 1912년 4월 21일.
- 13) 조성운, 「일제하 조선총독부의 관광정책」, 『동아시아문화연구』 46, 한양대학교 동아시아문화연구소, 2009 참조 바람.
- 14) 「シヤハツ・ソリス・ビューロー會則(草案)」, 日本交通公社, 『50年史』, 1962, 5쪽.
- 15) 조성운, 「일본여행협회의 활동을 통해 본 1910년대 조선관광」, 『한국민족운동사연구』 65, 한국민족운동사학회, 2010 참조 바람.
- 16) 조성운, 「1910년대 조선총독부의 금강산 관광 개발」, 『한일민족문제연구』 30, 한민민족문제학회, 2016, 25~29쪽.
- 17) 조성운, 「일본여행협회의 활동을 통해 본 1910년대 조선관광」, 『한국민족운동사연구』 65, 한국민족운동사학회, 2010, 21쪽.
- 18) 조성운, 「일본여행협회의 활동을 통해 본 1910년대 조선관광」, 『한국민족운동사연구』 65, 한국민족운동사학회, 2010, 24쪽.
- 19) 조성운, 「1910년대 조선총독부의 금강산 관광 개발」, 『한일민족문제연구』 30, 한민민족문제학회, 2016 참조 바람.
- 20) 「水原線路」, 『황성신문』, 1902년 6월 5일.
- 21) 조선총독부 철도국, 『조선역세일반』 상, 1914, 420쪽.

- 22) 조선총독부 철도국, 『조선역세일반』 상, 1914, 421쪽.
- 23) 조선총독부 철도국, 『조선역세일반』 상, 1914, 424쪽.
- 24) 조선총독부 철도국, 『조선역세일반』 상, 1914, 422쪽.
- 25) 조성운, 「1920년대 수학여행의 실태와 사회적 인식」, 『한국독립운동사연구』 42,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12, 362쪽.
- 26) 「公立學校生徒修學旅行取締ニ關スル件」(1912년 11월 4일), 국가기록원 소장문서.
- 27) 조성운, 「1920년대 수학여행의 실태와 사회적 인식」, 『한국독립운동사연구』 42,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12.
- 28) 조성운, 「1920년대 수학여행의 실태와 사회적 인식」, 『한국독립운동사연구』 42,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12, 354쪽.
- 29) 통감부철도관리국, 『韓國鐵道線路案内』, 72쪽.
- 30) 酒井政之助, 『水原』, 酒井出版部, 1923, 123~126쪽.
- 31) 「華城旅館失火」, 『매일신보』, 1916년 3월 26일.
- 32) 근대 여관에 대해서는 조성운, 「개항기 근대 여관의 형성과 확산」, 『역사와 경계』 92, 부산경남사학회, 2014 참조.
- 33) 「祥原視察團感想」, 『매일신보』, 1913년 6월 8일.
- 34) 「總督觀光團訓示」, 『매일신보』, 1913년 6월 4일.
- 35) 「咸悅觀光團來」, 『매일신보』, 1912년 5월 9일.
- 36) 「咸悅觀光團來」, 『매일신보』, 1912년 4월 26일.
- 37) 「수원에 1일(2)」, 『매일신보』, 1915년 6월 16일.
- 38) 「임시여숙규칙」, 『매일신보』, 1915년 7월 30일.
- 39) 수원팔경에 대해서는 다음의 연구가 참조된다. 정해득, 「수원팔경연구」, 『수원역시문화연구』 2, 수원박물관, 2012; 한동민, 「수원팔경의 역사적 전개와 근대적 변용」, 『수원역시문화연구』 2, 수원박물관, 2012.
- 40) 「작약관람회」, 『매일신보』, 1919년 5월 29일.
- 41) 「2회 부인견학 금 4일의 하루 동안 수원에 견학」, 『매일신보』, 1919년 6월 4일.
- 42) 이순자, 「일제강점기 지방 고적보존회의 활동에 대한 일고찰」, 『한국민족운동사연구』 58, 한국민족운동사학회, 2009, 291쪽.
- 43) 이순자, 「일제강점기 지방 고적보존회의 활동에 대한 일고찰」, 『한국민족운동사연구』 58, 한국민족운동사학회, 2009, 289쪽.



황병주 국사편찬위원회 편사연구관

제5장

수원역 일대의 도시화와 도시개발

1. 인구 변동을 통해 본 수원역 일대의 변화

인구는 도시화의 기본 척도가 된다. 근대 도시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대규모의 인구가 특정 지역에 밀집해 생활하게 된다는 것이다. 달리 말하면 인구 밀집을 가능케 하는 제반 조건의 성립이 곧 근대적 도시의 탄생을 의미한다. 수십, 수백 만의 인구가 좁은 지역에 집단 거주하는 것이 가능해진다는 것은 실로 놀라운 일이다. 밀식 사육하는 가축이 종종 집단 폐사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생물체의 집단화는 그 자체로 커다란 위험을 동반한다. 즉 인구 밀집은 기술적으로 매우 힘든 것이자 생물학적으로 상당히 위험한 것이기도 하다.

기술적 곤란과 생물학적 위험만이 아니라 그전에는 상상하기 힘들었던 다양한 사회적 문제들을 발생시키는 것이 도시이다. 상하수도, 쓰레기, 교통과 같은 인프라는 물론이고 주택, 교육, 문화와 같은 인간 생활의 필수 영역들이 대규모로 공급되어야 하는 도시는 일종의 괴물이다. 초기 영국의 산업화 과정에서 런던의 대도시화가 진행되는 과정을 한 문학가는 600만 개의 눈을 가진 괴물이라고 묘사하였다. 흔히 대도시를 거대 공룡에 비유하는 것도 무리는 아닐 것이다.

도시화 과정의 기본 지표가 인구 증대이기에 수원역 일대의 인구 변화를 살펴보는 것

2018년 수원역 일대(김승일 제공)

수원역 뒤쪽으로 평동과 서둔동이, 수원역 앞쪽으로 세류동과 매산동이 있다.



표 1 1950년대 이후 수원 인구 변화

(단위 : 명)

연도	1952	1955	1962	1974	1980	1990	2002	2017
인구	104,044	71,991	113,910	210,258	319,757	644,968	1,023,875	1,240,480

출처 : 수원시, 「수원도시계획사」 16쪽; 수원시, 「수원 통계연보」, 각 연도.

표 2 1950년대 이후 수원역 일대 인구 변화

(단위 : 명)

연도	1957	1960	1970	1980	1990	1999	2017
매산동	7,498	9,539	11,319	12,749	10,695	8,299	13,452
평동	1,574	1,916	8,440	12,592	22,285	29,900	38,269
서둔동	2,926	3,413	9,308	15,617	40,513	25,111	41,953
세류동	7,868	10,228	19,904	38,045	75,852	72,254	65,3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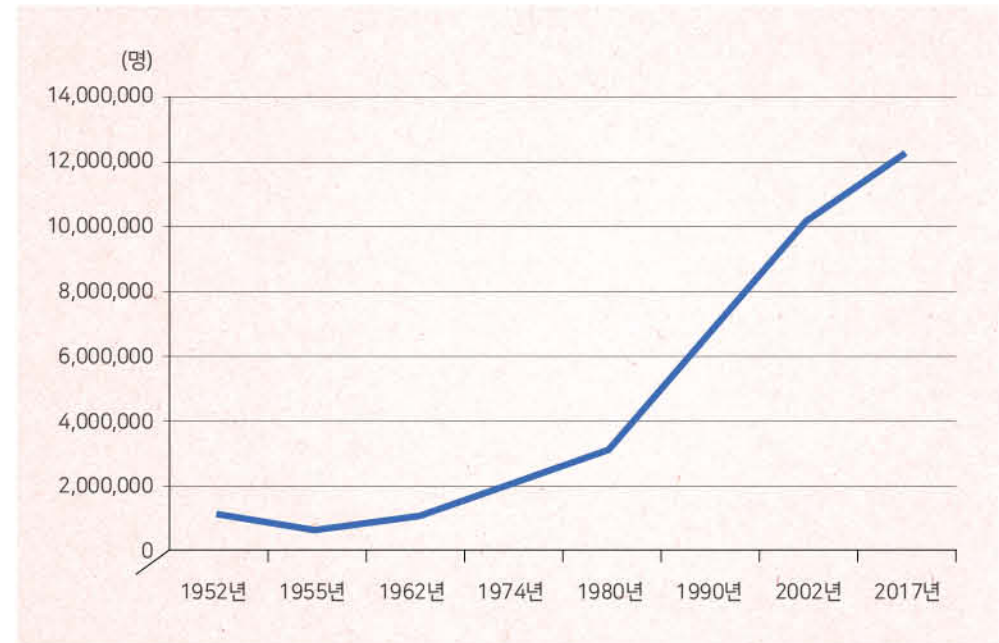
출처 : 수원시, 「수원 통계연보」, 각 연도.

인 도시화와 개발 과정을 이해하는 관건이 될 것이다. 먼저 수원시 전체의 인구 변화를 살펴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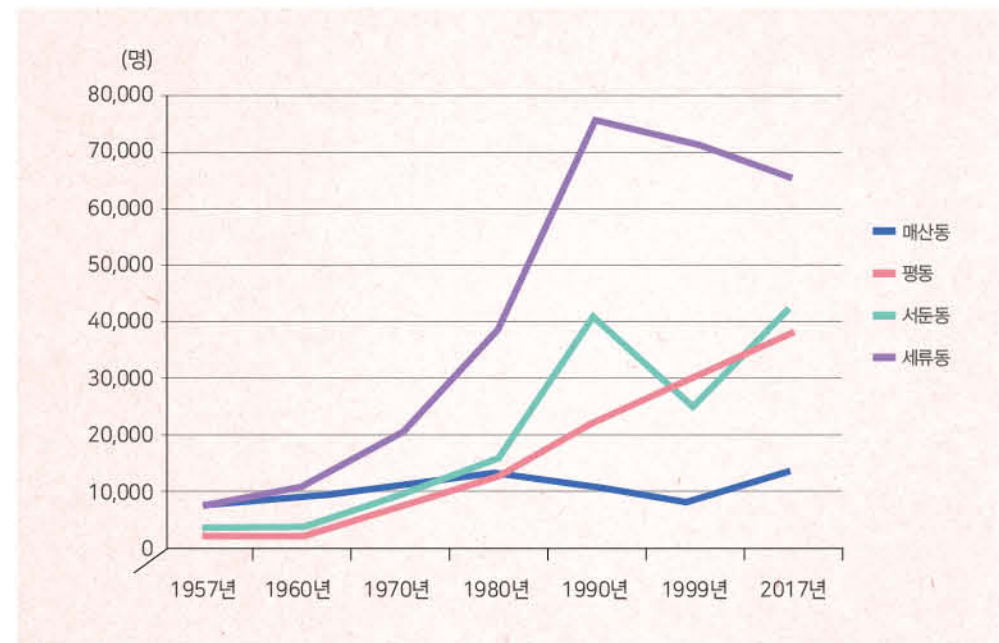
〈표 1〉에서 볼 수 있듯이 수원 인구 변화의 주요 계기는 산업화와 도시화였고, 특히 서울의 인구 팽창이 한계에 이르면서 주변 위성도시로의 인구 확대가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 수원역 일대의 도시화 과정은 이러한 수원의 인구 변화와 도시화 궤적을 통해 파악할 수 있다. 수원역 일대를 현재 행정구역으로 보면 매산동과 평동 그리고 서둔동과 세류동이라고 할 수 있다. 네 지역이 수원역을 둘러싸고 있는 형국인데, 그 양상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기도 하다.

수원역의 정면에 해당하는 지역이 매산동이라고 한다면 우측으로 세류동이 있고 평동과 서둔동은 배후지역을 이루고 있다. 따라서 수원역의 도시화 효과는 일차적으로 매산동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수원역에서 출발해 매산동을 거쳐 팔달문에 이르는 가로가 현재까지도 수원의 중심부를 이루며 각종 상가와 편의시설들이 집중되어 있다.

세류동은 수원역을 등지고 보자면 매산로의 우측에 해당하고 중앙부로 수원천이 흐르며 과거 수려선이 지나는 길목이기도 했다. 이러한 위치로 인해 비교적 이른 시기부터 인구가 밀집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한국전쟁 당시 피난민들이 대거 몰려들면서 이미 주거지가 확립된 매산동을 피해 세류동에 집단거주하게 되면서 인구가 급팽창하게 되었다.



1950년대 이후 수원 인구 변화



1950년대 이후 수원역 일대 인구 변화

〈표 1〉에 나와 있듯이 세류동은 이미 1950년대부터 매산동보다 더 많은 인구를 포괄했으며 이후로 압도적으로 많은 인구를 기록한다.

평동과 서둔동은 수원역 뒤쪽에 위치하고 있기에 매산동에 비해 도시화 과정이 뒤늦게 진행되었다. 현재 평동에는 2014년 들어선 롯데몰이 대규모로 입주하여 새로운 상업 중심지로 기능하고 있지만 과거에는 공장지대였다. 대표적인 공장이 선경직물이었는데, 이미 일제시기부터 수원역 배후라는 조건을 활용해 직물공장이 들어섰다. 서둔동은 일제시기부터 권업모범장과 수원농림학교가 들어서면서 변화되기 시작해 최근에는 새로운 주거단지로 각광을 받고 있다. 세 지역은 시차를 두고 수원역을 매개로 한 도시화 과정을 잘 보여 준다고 하겠다.

네 지역은 수원시의 인구 변동과 유사한 패턴을 보여 준다. 즉 대체적으로 수원의 인구 변화 양상과 세 지역의 인구 변화가 정비례 관계에 있다고 보이는데, 매산동은 다른 양상을 보여 주목된다. 매산동은 꾸준히 인구가 늘다가 1990년대 말에 감소 경향을 보였다. 이후 다시 회복되기는 했지만 다른 지역이 지속적인 상승을 보여 준 것에 대비되는 양상이다. 이는 도심 공동화현상의 일환으로 이해된다.

평동과 서둔동은 지속적인 인구 증가를 보여 주었다. 단 1970년의 경우 평동은 고색동, 오목천동, 평리동을 포함한 행정동 단위 숫자이기에 평동만의 정확한 인구를 알 수 없다. 서둔동 역시 구운동과 탑동을 포함하고 있기에 평동과 마찬가지로 정확한 인구 통계가 아니다. 그러나 어쨌든 1960년대 이후 폭발적인 인구 증가를 보여 준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이는 매산동과도 확연히 구분되는 특징이다.

세류동은 네 지역 중 가장 많은 인구 증가를 기록하였다. 이미 1966년 1동과 2동으로 분동할 정도로 인구가 급팽창했고 이후 다시 3동이 생겨 총 3개의 동으로 나뉘었다. 2017년 말 기준으로 세류1~3동을 합친 인구는 6만 명을 넘어 네 지역 중 가장 많은 인구를 기록하고 있다.

1950년대 이후 매산동은 인구 증가 양상이 상당히 완만한 편이다. 이는 곧 매산동이 매우 이른 시기부터 도시화가 진행되어 1960년대 이후 산업화에 따른 추가 인구 증가 여력이 없었다는 사정을 보여 준다. 또한 매산동은 수원역을 중심으로 상업지구로 성장하였기 때문에 주거공간이 적어 거주민의 증가는 매우 제한적이다. 1950년대 세 지역의 인구는 확연하게 차이가 난다. 즉 매산동의 인구가 두 지역을 압도하고 있다. 이러한 양상은 1970년대까지 지속되다 1980년대 들어서 역전되고 있다. 1990년대 이후로는 매우 확



1974년 매산동



1979년 매산동

1980년대 후반 매산동

연한 차이를 보여 준다. 이러한 현상 역시 산업화 이후 도시화가 지역별로 차별적으로 영향을 미친 결과라고 하겠다.

수원시 전체 인구 흐름을 보면 1960년대부터 1980년까지는 10년 주기로 10만 명 정도 증가하다 1980~1990년대는 두 배가량씩 폭증하는 양상을 보여 준 이후로는 다시 완만한 증가세로 돌아선다. 요컨대 수원의 인구 폭발은 1980년대와 1990년대 약 20년간 이루어졌다. 1952~1965년에 수원 인구는 12배가량 증가하였다. 세류동과 평동, 그리고 서둔동도 이러한 폭증 양상을 보여 준다. 그런데 매산동은 유독 두 배 정도 증가에 머물러 뚜렷하게 구별된다. 앞에서 말했듯이 매산동은 다른 지역에 앞서 도시화 과정을 겪은 결과일 것이다.

2. 수원역 설치와 도시화 효과(1905~1945년)

수원은 1910년을 전후해 근대적 관공서가 설립되기 시작했고 비로소 수원이 근대적 변화에 직면하게 된 시점이었다. 수원은 철도교통의 요지였다는 점과 농업 생산의 모범 지역이며 유서 깊은 역사도시라는 점이 도시화 과정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하겠다.¹⁾

수원역은 수원시의 중심부에 위치하며 수원의 도시화와 개발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 앞서 보았듯이 근대적 의미의 도시는 대규모 인구 밀집으로 특징된다. 인구 밀집의 원인은 다양할 수 있으나 기본적으로 교통망의 확충과 밀접히 관련된다. 근대 사회는 사회적 유동성이 매우 높아진다는 특징이 있는데, 공간의 수평적 유동성을 높이는 결정적 요소가 곧 교통수단의 획기적 발전이다. 화석 연료를 사용한 동력기관이 개발되면서 근대의 교통수단은 이전 시기와 비교하기 힘들 정도로 발전하였다.

근대적 교통수단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철도이다. 철도는 산업혁명을 가능케 한 핵심 계기였으며 근대의 시간과 공간의 압축을 대표하였다. 철도망이 확장되면서 공간적 제약을 넘어 특정 지역의 중심성이 획기적으로 강화되었다. 즉 철도를 통해 인근 지역을 묶을 수 있는 중심지가 생겨남으로써 도시 형성의 기반이 만들어지게 된다. 교통망의 중심이 곧 근대 도시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의 하나가 된다.

식민지시기 이전부터 철도 건설이 시작되었고 경부선이 개통되면서 수원역이 설치된 것은 1905년이였다. 그러나 식민화가 진행되면서 한국의 철도망은 일본 제국주의의 대륙



일제의 대륙 침략을 위한 목적으로 부설된 철도(1907, 「만한신도」, 수원박물관 제공)

침략을 위한 군수목적이 큰 영향을 미쳤다. 따라서 조선 내분의 교통망 확충보다는 일본에서 만주로 이어지는 종단 철도의 성격이 짙었다. 즉 한국의 간선 철도는 국내 각 지역간의 물자유통보다는 기본적으로 국외 유통, 즉 일본-한국-만주 사이의 병참 및 상품 수송을 목적으로 부설되었고 이러한 간선 철도가 전체 국유 철도의 80%를 차지하였다.²⁾

철도의 등장은 단순히 교통수단의 확충에 끝나지 않는다. 유동성이 높아지면서 각종 물자의 운반과 운송이 절대적으로 중요한 산업의 등장이 가능해진다. 수원역 근처에 다양한 산업시설이 입주하게 된 것이 이 점을 잘 보여 준다. 공장이 들어서고 인구가 증가하면서 각종 상업과 서비스업이 확충되면서 본격적인 도시화의 길을 걷게 된다. 비록 공장 같은 근대적 산업시설이 없다 해도 유동인구가 폭증하면서 상업 발달의 주요 조건을 이루게 되기도 한다.

철도망의 확충은 곧 철도역의 중심성을 만들어 낸다는 뜻이 된다. 철도 자체가 끊임없는 유동성을 상징한다면 철도역은 그 유동성에 기반한 고정 거점을 의미한다. 물자와 인구의 흐름은 결국 고정점 사이의 흐름일 수밖에 없으며 유동성은 고정점의 확대와 팽창을 의미하는 것이다. 철도역은 단순한 정거장이 아니라 지역의 공간적 시간적 중심이 되며 인근 지역의 흐름이 철도역을 중심으로 재편된다.

철도역 주변으로 유동성의 이점을 흡수하기 위한 각종 상업시설이 등장하고 철도역은 자신의 리듬으로 주변 지역을 재편해 낸다. 예컨대 철도역의 열차 시간은 인근 지역의 시간리듬의 기준이 된다. 기차의 도착과 출발 시간이 곧 물자와 인구의 흐름을 조절하는 시간리듬이며 주변 지역은 이 리듬을 탈 수밖에 없다. 철도역에는 대부분 가장 높은 곳에 시계탑이 설치되고 이 시계가 주변 지역의 시간적 지배 장치가 된다.

철도가 교통의 간선망이 되면서 철도역을 중심으로 여타의 교통수단이 연결된다. 시내외를 연결하는 버스 노선이 들어서고 택시 영업 또한 철도역이 중요한 고려 지점이다. 과거에는 인력거나 리어카가 주요 시내 교통수단으로 기능하면서 철도역을 중심으로 운행하기도 했다. 수원역 근처에 버스터미널이 등장하고 각종 상업시설이 확충된 것은 철도교통 확충을 통한 수원의 도시화 과정을 잘 보여 준다.

이러한 맥락에서 수원의 근대적 도시화와 도시개발은 철도교통이 지대한 영향력을 행사했음을 알 수 있다. 그렇기에 수원역 일대의 도시화 과정은 곧 수원 전체의 도시화 과정을 압축적으로 보여 준다고 하겠다.

일제는 경부선 철도를 부설하면서 다양한 노선을 검토하였다. 결국 군사 목적과 경제



수원역 구내에 설치된 시계(사카이 마사노스케, 『수원』, 1923)

적 측면을 모두 고려하여 최종안이 나왔는데, 수원은 주로 경제적 측면에서 중요성을 인정받았다. 경부선 수원 구간 노선 결정과정도 흥미로웠다. 애초 노선은 지지대고개를 넘어 팔달산 기슭을 통과하는 것이었으나 당시 철도원 총재였던 유기환(俞箕煥)이 다케우치(竹内) 취체역에게 강력한 반대 의사를 표명하였다. 이유는 정조의 역사성이 깃든 지역을 훼손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반대를 무시하고 공사를 강행하려고 했으나 조선인들의 반대 시위가 계속되면서 결국 현재의 노선으로 변경하게 되었다. 변경 노선은 원래의 노선보다 1마일가량 우회하게 되지만 터널 공사가 없기에 오히려 공사비용이 절감되는 것이기도 했다.³⁾

당시 조선총독부 철도국의 입지 평가는 다음과 같았다. “정거장은 수원군청 소재지 안에 있고, 부근이 황량하지만 기름진 들판이 있어 농산물이 풍부하고, 시장이 2개 있어 물



1940년대 수원역과 서둔동을 오가던 시내버스(서울대학교 농학도서관 제공)

산의 집산지로서 상업 또한 성하다. 정거장의 북쪽 20여 정 거리에 돌산이 있고 양호한 석재의 산지가 있으며, 부근에 동척, 동산, 국무 세 농장이 있고, 시가지는 정거장의 동쪽 15정 거리에 있으며, 성 내에는 두루두루 20여 척의 높은 성벽과 사대문이 있어 울창한 팔달산이 남쪽에 솟아 있고 동북쪽에는 광고산 등이 산맥을 형성해 뻗어 있다. 서남쪽은 거주자가 거의 없는 황량한 광야가 펼쳐져 있어 사통팔달한 요충지이다.”⁴⁾

수원역 입지는 물산의 집산지로 상업이 활발하고 사통팔달의 요충지로 평가되고 있다. 이는 비교적 정확한 평가로 보이는데, 수원역이 근대적 공간 배치에서 상당히 유리한 지점에 위치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이러한 입지에서 보자면 수원역은 서울에서 출발한 중앙의 영향력이 화성으로 대표되는 수원 중심지와 접속하는 주요 포인트가 되는 셈이다. 즉 수원역은 구도심과 직접 연결되지 않고 약간 외곽에 위치하게 됨으로써 새로운 권력과 권위가 구래의 도심을 점차 압박해 가는 형세를 이루게 되었다.

다시 말해 새로운 중심으로 떠오른 수원역이 지금의 향교로를 통해 구도심과 연결되는 공간 배치를 보여 주었는데, 향교로를 중심으로 한 수원역 인근 지역은 일본인들의 집단 거주지이자 중심 상업지역이 되어 갔다. 수원에 이주해 온 일본인 대부분은 19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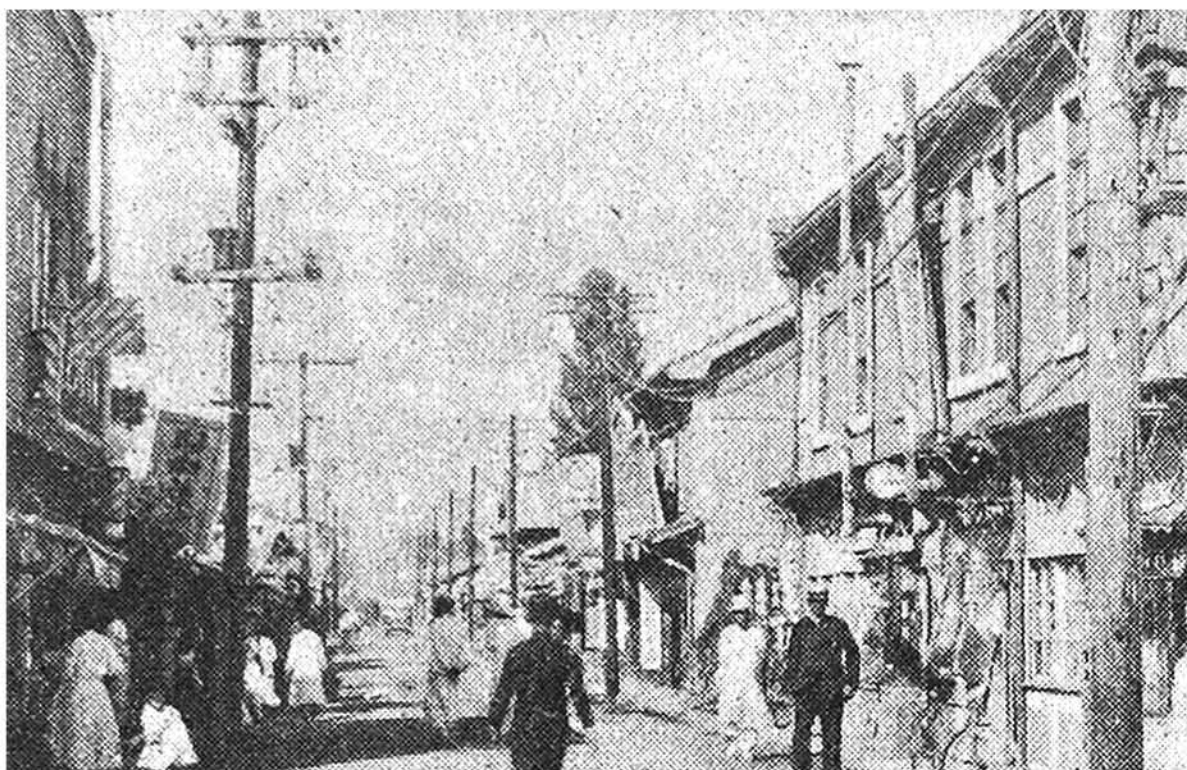


수원역으로 모이는 물자(조선총독부, 『생활상태조사-수원군』, 1929)

년 개통된 경부선 수원역 방면에 거주했으므로 수원역 주변으로 신시가지가 형성되었다. 1913년경 수원역 주변에는 2,657호, 1만 1,394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었는데 그 가운데 일본인이 381호, 1,303명으로 10% 이상을 차지하였다.⁵⁾ 수원역 주변에는 우편국, 권업모범장, 수원농림학교, 경기도 수원요포 등 관공서가 들어서면서 수원역과 구시가지가 연결되어 새로운 수원의 중심가가 형성되었다.

수원의 공공시설물들은 애초 화성 내부에 있었다. 이는 성곽도시로 형성된 수원의 특징이자 당시 한국의 일반적 상황이었다. 일제의 도시계획은 이러한 성곽을 해체하거나 파괴하고 개방형 도시를 만들어 내는 것이었다. 성곽을 해체하는 핵심 요소 중의 하나가 곧 교통문제였다. 새로운 도로나 철도가 개설되면 성곽은 자연스럽게 무력화된다. 화성은 철도 부설의 피해를 직접 당하지는 않았지만 식민지시기 많은 도시들의 성곽이 이러한 도시계획에 의해 사라져 갔다.

수원역이 들어서면서 주변에 권업모범장과 수원농림학교 등 주요 시설이 등장하게 되었고 수원시의 도심이 점차 성문 밖으로 확대되었다. 이러한 확대 과정 속에 수원역에서 시내로 이어지는 도로 연변에 일본인들이 집중적으로 상가를 형성하였고 점차 새로운 중



일본인 거리로 변한 수원역 시가지(『관광 고도 수원』, 1936, 수원박물관 제공)

심으로 부상하였다. 1920년대 수원 일대의 일본인 상점은 60여 개가 넘었는데 그 중 상당수가 수원역 주변에 위치하고 있었다. 식민도시화가 진행되면서 수원역을 중심으로 서북쪽의 권업모범장과 동쪽의 팔달산을 아우르는 공간은 일본인들의 거점지가 되었다. 이제 팔달산을 기준으로 동쪽은 조선인 구시가지로, 서쪽은 일본인 신시가지로 도시공간은 양분되었다.⁶⁾

1920년대 후반 개통 20주년을 넘어서면서 수원역을 이용하는 화물과 여객이 크게 늘어나자 이를 수용하기 위한 수원역사를 신축 확장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수원역사는 1928년 9월 1일 준공식을 가졌는데, 총건평 177평에 공사비 2만 8,000여 원이 소요되었으며 순 조선식 기와집이었다.

이어 1930년대에 접어들면 수원역 일대는 또다시 큰 변화를 맞게 되었는데 수려선은 1931년, 수인선이 1937년에 개통된 것이다. 여기에 서울, 인천과 연결되는 승합자동차



권업모범장(수원박물관 제공)



수원고등농림학교(수원박물관 제공)



수려선 선로공사 설계도 및 계산서(1920년대, 수원박물관 제공)

노선도 개설되어 수원역 일대는 근대적 교통망이 크게 강화되었다. 즉 경부선만 존재하던 1920년대까지 수원역은 단지 서울과 수원을 연결하는 역할에 머물러 있었다. 그러나 인천은 물론 경기 동부 지역과 직결되는 양 철도 노선이 개통되면서 인근 지역과 수원 간의 통합이 매우 강화될 수밖에 없었다.

수려선은 경기도 내륙의 곡창지대와 경부철도를 연결하여 미곡의 반출을 원활히 하고 일본인들의 진출 영역을 확대하기 위한 것이었다. 수인선의 부설 목적은 여주·이천 곡창지대의 쌀을 인천항으로 수송하고 서해안 지역에서 생산되는 소금을 산간 오지로 공급하는 데 있었다. 수인선 개통 이후 수원-인천 간의 인적·물적 교류는 획기적으로 증가하였다. 경동철도주식회사는 폭주하는 화물을 감당하기 위해 창고시설과 인입선을 확충하고 역사(驛舍)를 증축하는 등 사세를 확장하였다.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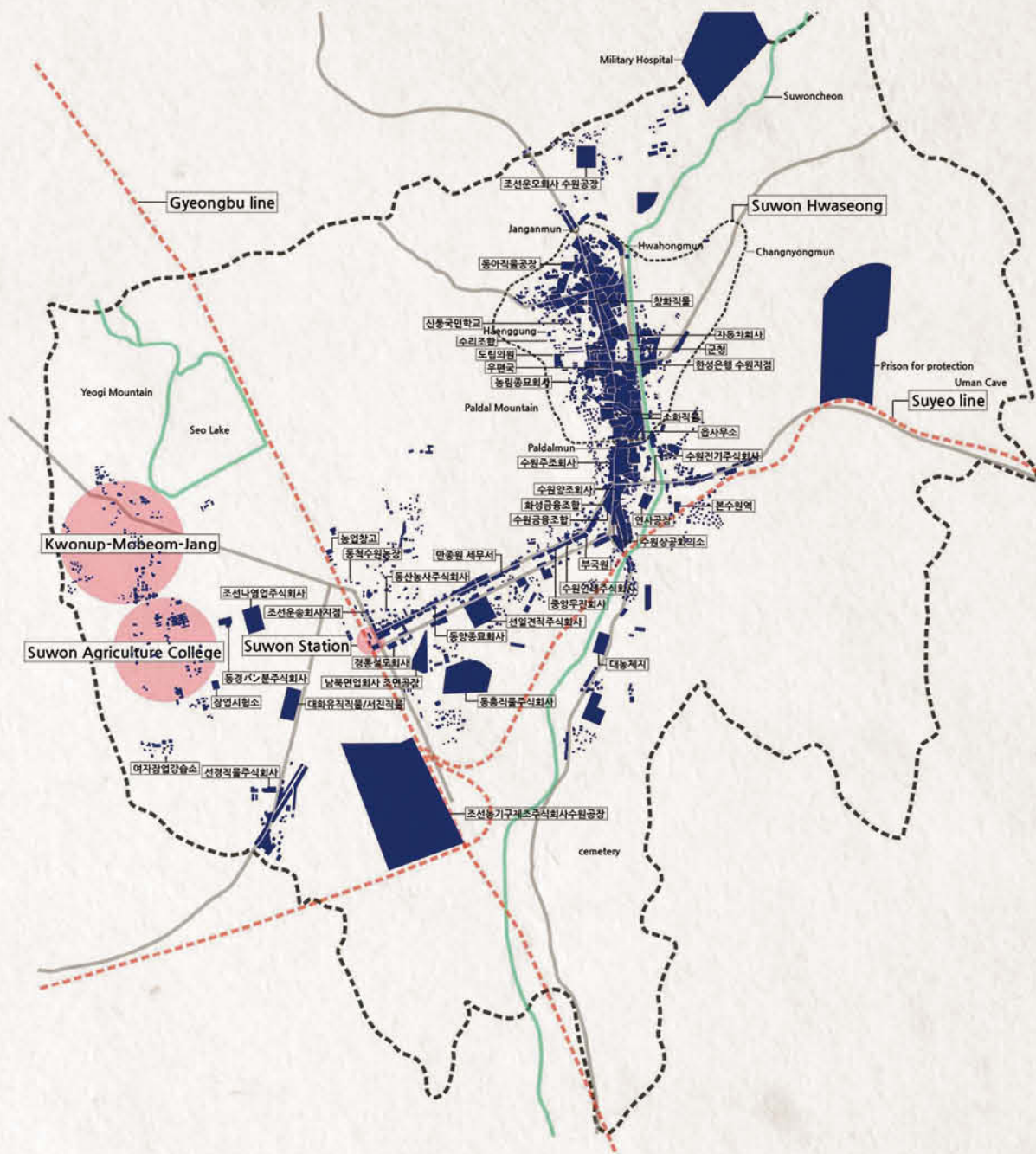
1930년대부터 수원역 일대에 직물공장이 크게 확대되기 시작하였다. 수원역을 중심으로 경부선, 수인선, 수려선이 종횡으로 연결되면서 교통체계가 대폭 확충되었고 또 권업모범장 등을 중심으로 양잠기술이 보급되면서 수원역 일대는 직물공장이 들어서기에 유리한 조건이 마련되었다. 특히 1930년대 일본의 대륙침략이 본격화되면서 식민지 조선의 공업화가 추진되었고 수원도 그 영향에 놓였다.

1930년대 수원역 일대의 직물공장은 남북면업 수원공장이 매산동 일대 동산농장 부지에 들어섰고 당시 대평정으로 불리던 평동 지역에 선만주단 수원공장, 매산정에 선일직물, 세류정의 동흥직물 등이 들어섰다.⁸⁾ 선만주단은 동흥직물을 흡수하여 선경직물로 개명·통합되어 해방 이후 선경의 모태가 되기도 했다. 직물업을 주도한 것은 일본 자본이었고 전시체제기에 들어서면서 직물업 정리계획에 따라 대규모 단위로 통합 정리되었다.

직물업은 수원역 일대뿐만 아니라 수원 전체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근대 산업이었다. 수원역 인근의 직물공장들은 철도망이 어떻게 근대 산업과 결부될 수 있는지를 가장 잘 보여 주는 사례이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직물업의 발달은 평동과 세류동 등 수원역 인접 지역의 개발과 관련해서 중요한 의미가 있었다. 수원역 개설 이후 도시화 방향은 주로 매산동 쪽으로 진행되었다. 수원역에서 출발해 구도심으로 길게 이어지는 향교로가 핵심 상업지역으로 성장했던 것이다.

1943년 「수원읍지도」를 보면 수원역 주변으로 동양척식주식회사 수원농장, 동산농장, 화성자동차회사, 경동철도회사, 곡물검사소, 역전우체국, 경기산업회사 수원공장, 남북면업회사 조면공장, 동흥직물주식회사, 동양종묘회사, 식산은행 수원지점, 선일견직주식회사, 세무서, 중앙무진회사, 수원인쇄주식회사, 간이진료소 등이 뿔뿔하게 들어서 있음이 확인된다. 향교로가 끝나고 본정으로 이어지는 길목에는 수원상공회의소를 비롯해 수원금융조합, 화성금융조합 등이 들어서 있어 상업과 금융의 중심지임을 여실히 보여 주고 있다.⁹⁾

이러한 변화는 수원 시내의 상권 형성과 지가 상승을 야기하였으며 상업·유흥문화도 유도하였다. 대표적인 예로 팔달문 밖에서 수원역에 이르는 대로 주변은 토지가격이 10배 이상 폭등하는가 하면, 여름철에는 사거리에서 수원극장에 이르는 노변에 약 70~80개의 노점을 설치하여 야시장을 개설하였는데 수천 명의 구경꾼이 운집하는 성황을 이루기도 하였다.¹⁰⁾



1943년 「수원읍지도」에 나타난 사업체(백선경·정혜진·김광현, 「근대기 수원의 시설유형과 도시공간 변화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논문집-계획』 32(9), 2016년 8월)

3. 해방 이후 수원역 일대의 변화(1945~1950년대)

해방은 수원역 일대에도 커다란 변화를 몰고 왔다. 수원역은 해방의 열기가 가장 강렬하게 타오르던 서울의 분위기가 수원으로 유입되는 관문 역할을 하게 되었다. 해방 공간에는 아무 할 일 없이 무조건 서울로 올라오는 풍조를 걱정하는 기사들이 심심치 않게 나타나기도 했는데, 그만큼 해방이 가져다 준 환희와 자유가 사람들의 마음을 들뜨게 하였다. 특히 일제의 전시 총동원체제에서 자유로운 이동이 가능해지고 일상의 제약이 사라지면서 사회적 유동성이 크게 증대되었다.

그렇기에 해방 후 채 1년이 되지 않은 1946년 3월 11일부터 통근·통학자의 편의를 위하여 운수국에서 서울과 수원 간 통근, 통학 전용열차 운영을 늘리기로 했다는 보도가 나왔다.¹¹⁾ 이는 그만큼 유동인구가 증대되었고 서울과 수원 간의 교통 수요가 늘어났음을 보여 준다. 이러한 경향은 정부 수립 이후에도 지속되었다. 즉 1949년 8월 교통부에서는 서울과 수원역 사이의 여객 수송을 완화하고자 안양역이 종착이던 열차를 수원역까지 연장시키는 한편, 1개 열차를 증편하게 되었다고 발표하였다.¹²⁾

교통량 증대는 인구 증대와도 밀접히 관련된다. 해방 이후 수백 만 명의 귀환동포가 돌아왔고 또 38선 설치와 함께 수많은 월남민이 발생하였다. 특히 한국전쟁기에는 수백 만의 피난민과 월남민이 발생하여 남한의 인구를 크게 증가시켰다. 귀환민이나 월남민 등은 일차적으로 서울로 집중되는 경향이 강하였다. 별다른 연고가 없는 사람이 고립성과 폐쇄성이 강한 농촌 지역에 정착하는 것은 상당히 힘들었고 또 대도시에는 상대적으로 구호체계도 갖추어져 있어 생존에 훨씬 유리하였다.

그러나 서울로 몰린 전재민과 월남민들이 서울을 포화상태로 만들어 커다란 사회문제가 되자 전재민 스스로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기도 했고 또 정부도 이들을 적극적으로 지



1946년 수원 기차 통학생 축구선수단 모임(수원박물관 제공)

방으로 분산시키고자 했다. 그렇기에 서울의 전주민들이 수원으로 이주하게 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상황이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1947년 11월 5일 수원역 대합실에서 10세가량 되어 보이는 전주민 남자 한 명과 세류동 철로 부근에서는 40대 남성이 사망한 채로 발견되었다. 원인은 동사로 추정되었다.¹³⁾ 전주민이나 월남민들의 증대는 기존 거주민들과 적지 않은 갈등을 빚기도 했다. 1949년 2월에는 수원역 운수부원의 폭행사건이 보도되었는데, 폭행 중 가해자는 “월남한 이북 놈들은 모조리 칼로 죽여 버린다.”고 하였다 한다.¹⁴⁾ 이러한 사례는 월남민과 전주민이 기존 거주민들의 삶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했다는 점을 추정케 한다.

갑작스러운 인구 증가는 자연스럽게 수원역 일대 노점의 증가로 이어졌는데, 단속 경찰과의 갈등도 상당했던 듯하다. 한 신문 독자는 수원역에서 서울행 열차를 기다리는 동안 술 취한 철도경찰 한 명이 역전에 운집해 있는 떡장사 10여 명을 전부 쫓아 버리고 그 중 노파 한 명의 떡함지를 압수하려는 것을 막으려다 경찰로부터 가혹한 폭행을 다한 사실을 호소하기도 했다.¹⁵⁾

1949년 반민특위가 활동을 개시하면서 반민투서함을 설치하기도 했는데, 수원의 경우 수원역전과 수원극장에 설치하였다는 보도가 나타났다.¹⁶⁾ 1949년 독립 1주년 기념식이 각지에서 개최되었는데, 수원에서는 매산국민학교 운동장에서 열렸다. 신문 보도에 따르면 수만 명의 군중이 집결했다고 했는데, 그만큼 수원의 인구 팽창 상황을 보여 주는 동시에 매산동 일대가 수원의 중심 시가지였음을 확인시켜 준다.¹⁷⁾ 반공포로로 석방된 사람들을 환영하기 위한 대회가 수원역 구내에서 벌어지기도 했다. 1954년 1월 무려 2만여 명의 시민이 수원역 구내에 모여 환영대회를 개최했다는 기사가 보도되었다.¹⁸⁾

수원역 중심으로 시가지가 확장되면서 1950년 초에는 시구개정 공사가 진행되기도 했다. 즉 4,000만 원의 예산으로 종로에서 장안문까지 그리고 소방서 앞에서 수원역까지 도로 포장과 확장, 상하수도 정비공사를 실시하고자 했다.¹⁹⁾

한국전쟁은 수원에 막대한 피해를 입히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도시화의 중요한 지표인 인구 증대를 초래하기도 했다.²⁰⁾ 전쟁으로 수많은 피난민이 유입된 것이 그것이었었는데, 수원은 서울 이남 경기도 지역에서 그나마 도시의 면모를 가지고 있는 드문 지역이었기에 특히 많은 피난민이 몰려들었다. 또한 정부에서도 피난민의 적절한 분산이 필요했고 수도권 인근에서는 수원이 대표적인 대상 지역이었다. 예컨대 1952년 중반 정부는 의용군으로 동원된 민간인 억류자 2만 7,000명을 석방하면서 서울 출신은 수원역에 하

차시켜 구호와 직업 알선을 하고자 했다.²¹⁾

수원역 인근 지역은 수많은 유동인구가 밀집되는 곳이었기에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피난민이나 월남민의 경우에는 생존의 터전으로 삼기에 제격이었다. 철도역은 사람과 물자의 교류가 집중된 곳이자 각종 정보와 소문도 빨라 생존을 위해 적합한 공간이었다. 따라서 수많은 월남민과 피난민이 수원역 인근에 정착하여 급속한 인구 증대를 기록하게 되었다고 보인다.

철도가 도시개발에 중요한 역할을 했기에 주요 열차의 수원역 정차가 중요한 문제가 되기도 하였다. 1955년에는 호남선 급행열차인 태극호의 수원역 정차를 진정하는 움직임이 나타났다. 즉 수원의 기관장과 유지들이 연명으로 태극호 수원역 정차를 진정하는 운동을 전개하였다.²²⁾

철도는 식민지시기 부설 당시부터 지배세력의 전략적 판단에 따른 것이었다. 철도를 통해 자신의 지배지역을 촘촘하게 통합시켜 지배의 원활한 관철을 기도했던 것이다. 다시 말해 철도는 지역적 통합을 촉진하고 지배력이 전국적으로 투사되도록 하는 중요 수단으로 이해된 것이다. 이렇게 철도는 발전과 개발의 이름으로 지배세력의 지배력을 높이는 기능을 담당했던 것이다.

피난열차를 타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수원역 피난민(수원박물관 제공)





1950년대 수원역 일대(수원화성박물관 제공)



한국전쟁 당시 파괴된 수원역사(수원시, 『수원사진대관』, 1956)

이것을 상징적으로 보여 준 것이 해방 이후 미군의 지방 투사였다. 해방 이후 철도와 도로 등 중앙으로부터 신속하게 자원을 공급할 수 있는 지역일수록 미군의 진주가 신속하게 이루어졌고 그만큼 미군정의 지방 장악력이 높아졌다. 즉 서울과 경기도를 시발로 미군정이 지방을 장악해 나가는 과정은 철도가 지배수단으로 어떻게 활용되었는지를 보여 준다. 일제가 철도를 통해 부산으로부터 만주와 중국까지 진출하는 통로를 만들었다면 미군은 서울로부터 전국으로 퍼져 나갔던 것이다.

분산적이고 고립적인 지방을 서울로 통합하는 데 철도만큼 큰 역할을 한 것도 없다고 할 것이다. 예컨대 이승만은 철도를 통해 자신의 지배를 확대하고자 하는 모습이 보인다. 1956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이승만은 논산, 대전, 조치원, 천안, 평택, 수원, 안양 등 7개 역을 거치면서 대중연설을 수행하였다.²³⁾ 논산훈련소 창설 기념식에 참석했다 귀경하는 길에 진행된 이러한 대중연설은 철도라는 교통수단을 정치적으로 활용한 사례가 될 것이다. 또한 당시 대선의 야당 후보였던 신익희 역시 철도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전



1956년 이승만 대통령의 수원역 방문 당시 환영인파(국가기록원 제공)

개하였다. 선거운동 기간 중 그가 급서한 것도 철도 객차 안이었다. 즉 철도는 전국을 촘촘하게 연결하는 핵심 수단이었고 그것은 물자와 사람을 실어 나르는 것이자 중앙정치가 지방으로 투사되는 장치이자 지배력이 관철되는 통로였던 것이다.

한편 해방 이후 수원역 일대의 중요한 변화는 대규모 기업의 소유권 변동 과정이다. 흔히 적산으로 불리던 구 일본인 재산이 미군정의 몰수 조치에 의해 귀속재산이 되었다가 정부 수립 이후 대거 불하되면서 한국 사회의 경제 질서를 크게 재편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수원역 일대에 밀집되어 있던 귀속기업들도 1950년대 중반 무렵 대부분 민간에 불하되었고 수원 지역경제에 커다란 영향을 끼쳤다.

수원역 일대의 귀속기업체는 조선농기구주식회사 수원공장(평동), 남북면업회사 수



창업 초기 선경직물 전경(김채현 외, 『미래를 향한 위대한 열정』, 2008)

원공장(매산동), 선경직물주식회사(평동), 선일견직주식회사(매산동), 조선날염주식회사(서둔동), 조선직물주식회사 수원공장(세류동), 미야자키(宮崎) 연탄공장(서둔동), 수원 고무공업사(매산동), 수원연탄공장(서둔동), 수원제빙소(매산동) 등이 대표적이었다.²⁴⁾ 이들 기업들은 설경동, 최종건, 홍사운 등 수원 내외의 인물에게 불하되어 수원 경제가 재편되었다.

특히 최종건은 귀속기업 불하를 통해 손꼽히는 기업가로 발돋움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그는 일본 기업의 일개 종업원에서 일약 경제계의 거물로 성장하였는데, 그 기초가 된 것이 바로 귀속기업 불하였던 것이다. 따지고 보면 그가 불하받은 선경직물이 평동에 위치하게 된 것은 경부선과 수원역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최종건과 선경이 성장할 수 있었던 중요한 배경 중의 하나가 곧 수원역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해방과 분단, 전쟁을 거치면서 수원역 일대 역시 커다란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되었다. 전쟁 피해 속에서도 피난민 유입에 따른 인구 증가로 도시화가 확장되었고 귀속기업 불하를 통해 지역경제가 재편되면서 거물급 기업가가 나타나기도 했다. 그뿐만 아니라 일본인들이 거의 점령하다시피 했던 수원역과 매산로 일대가 다시 조선인들의 세계가 되었다. 일본의 흔적과 전쟁의 피해 속에서 수원 사람들의 수증으로 돌아온 수원역의 변화가 곧 수원 전체 나아가 한국 전체의 변화와 연결될 것이라 보인다.

열차와 철도, 기업과 상점 등 모든 것이 한국인에 의해 소유되고 운영된다는 것이 곧 해방과 독립의 주요한 의미일 것이다. 그런데 1950년대 흥미로운 사건 중의 하나가 열차에 대한 투석이었다.²⁵⁾ 열차 투석은 아동들의 장난도 있었지만 이유가 불분명한 것들

도 제법 있었다고 보인다.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을 빠른 속도로 굉음을 내며 지나가는 철도에 대한 반감이 표출된 것일 수도 있다. 한편으로는 철도를 이용하는 사람들에 대한 선망과 시기심의 결과일지도 모른다. 당시 언론지면을 장식했던 열차 관련 소식 중에는 무임승차가 있었다. 철도는 어떤 사람들에게는 일상의 교통수단이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함부로 탈 수 없는 고가의 운송수단이기도 했다.

즉 철도가 불러온 개발과 발전의 세계에서 소외되고 배제되는 사람들이 생겨났고 이들에게 철도는 불만과 선망이 뒤섞인 복잡한 대상이었을 것이다. 이러한 불만과 소외감이 투석행위로 연결되었는지 단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단순한 장난으로 열차에 지속적으로 투석을 하는 사람들이 생겨났다고만 볼 수는 없는 형국이었다.

또한 열차는 또한 소매치기, 강도, 절도 등의 각종 범죄의 현장이기도 했다. 당시 언론 보도를 보면 열차 내 각종 범죄사건에 대한 관심이 상당했음을 알 수 있다. 범죄가 많이 발생했다는 것은 그만큼 열차를 이용하는 사람이 많았다는 것이자 상당수가 범죄대상이 될 정도로 경제적 형편이 넉넉한 승객이 많았다는 말도 될 것이다. 철도는 이렇게 개발과 발전이 가져다준 위험사회의 징후도 보여 준 셈이었다.

4. 산업화와 수원역 일대의 도시개발(1960~1980년대)

1960년대 들어 산업화가 본격화되면서 수원 역시 그 영향을 크게 받게 된다. 먼저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 지역의 교통망이 대거 확충되기 시작하였다. 산업화의 핵심 지역인 서울이 비대화되면서 안양, 수원 등 인근 지역에 위성도시가 급속도로 팽창하기 시작한 것이다. 서울시의 팽창과 위성도시의 성립으로 양 지역 간의 교통망이 대거 확충될 필요성이 커졌다. 이에 서울시는 서울 남부지역으로 가는 도로망을 확장코자 했다. 예컨대 1967년 서울시는 2억 7,000만 원의 예산으로 영등포와 시흥 간 도로 확장공사 계획을 발표하였다. 이는 당시 서울시의 가장 큰 도로공사였으며 주 목적은 안양 개발과 함께 서울-수원 간 교통량의 고속 처리였다.²⁶⁾

서울의 확장은 이미 1960년대 후반 메가로폴리스(megalopolis)란 용어가 사용될 정도로 뚜렷한 현상이었다.²⁷⁾ 당시 1980년대 서울 인구를 700만 정도로 예측한 것에서 드러나듯이 오히려 과소평가된 측면이 있을 정도로 당시 서울의 팽창은 예상하기 힘들 정도



1966년 수원역 일대(국토정보 플랫폼 제공)
매산동에도 농경지가 남아 있으며, 경기도청 자리에 터 닦기가 시작되었다.



서울-수원 간 고속도로 건설 현장(1968년, 국가기록원 제공)

로 그 속도가 가팔랐다. 이와 관련하여 영등포 지역의 시 승격 문제가 이슈화되기도 하였다. 즉 영등포는 이미 식민지시기에 서울의 외곽 공장지대로 출발하여 서울의 팽창과 더불어 점차 주거지로 변모하여 갔는데, 1960년대 들어서 인천, 안양 지역과 함께 수원 등지로의 교통 통과지 의미가 강화되었다. 즉 서울과 수원 지역의 팽창 속에 중간 연락 지점으로서 영등포의 위치가 새롭게 부각되고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서울시는 1967년 수도권행정협의회를 설치하여 시 인접 지역과의 유기적 연락을 강화하고자 했다. 이 협의회에는 인천, 수원, 의정부 시장을 비롯하여 서울

외곽 7개 군수가 참여하는 것으로 계획되었는데, 산림보호, 한강 오염문제, 시내버스 노선 확장 문제 등이 주요 안건으로 예상되었다.²⁸⁾

1967년 말부터는 경부고속도로 건설이 추진되기 시작하면서 수원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였다. 주원 건설장관은 1967년 12월 10일 경부고속도로 공사를 위해 서울-수원 지역 간 세부 측량이 착수되었고 그 결과에 따라 도로용지 매수가 시작될 것이라고 발표하였다.²⁹⁾ 경부고속도로는 경부선 철도와 함께 서울과 수원 간의 관계를 더욱 밀접하게 하였다. 다시 말해 서울과 지방을 연결하는 교통망이 더욱 확대되면서 그 중간 거점으로 수원의 역할이 더욱 확대되는 양상이었다고 보인다.

그러나 경부고속도로와 영동고속도로의 건설은 수원역 일대의 중심을 약화시키는 역할을 했음도 주목된다. 즉 수원의 서부에 해당하는 수원역에서 멀리 떨어진 동부 지역에 경부고속도로가 지나가게 되고 북쪽으로는 영동고속도로가 통과하게 되면서 수원역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약화될 수밖에 없었다. 특히 자동차 교통이 확대되면서 철도역 중심의 수원역 일대는 그 비중이 줄어들 수밖에 없었다. 1972년 수려선이 폐선되는 것은 이러한 사정과 관련된다고 하겠다.

1968년 한 신문은 “한국의 심장인 서울의 도로망은 이제 폭주하는 교통량과 포화상태의 인구를 포용하기에는 벅찬 실정으로 도로의 확장, 신설 등 도로망의 재정비가 불가피한 단계”라고 규정하였다. 서울의 팽창이 간선 도로망에 의존할 수밖에 없으며 북으로 의정부, 남으로 수원, 동으로 광주, 서편으로 인천을 꼽았다.³⁰⁾

서울-수원-오산 간 고속도로 개통(1968년, 경기도청 제공)



1967년 수원으로 이전한 경기도청(1969년, 국가기록원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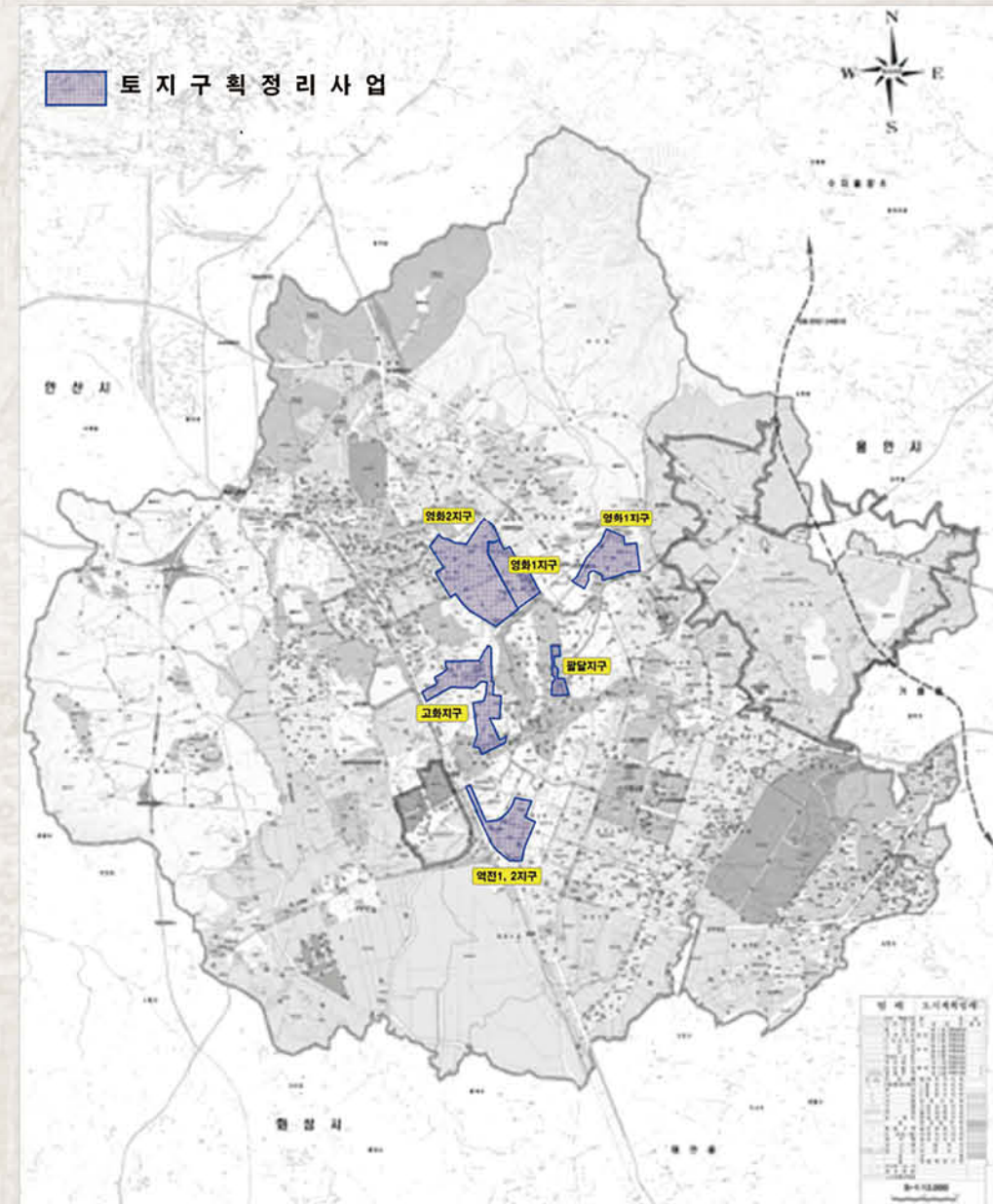
그렇다고 해서 철도교통이 갑자기 약화된 것은 아니었으며 1967년 경기도청이 수원으로 이전하면서 수인선 직통 열차 2편이 신설되는 등 수원역의 기능이 더욱 확대되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다.³¹⁾ 이를 잘 보여 주는 것이 수도권 전철의 부설이었다. 1970년대 들어서 철도교통과 물류가 더욱 밀접하게 관련되면서 정부는 영등포와 수원에 유통센터를 설립하기로 한다. 이는 전국에서 수송되는 물자가 서울 도심으로 직접 들어오게 되면 교통 하중이 심각하기에 외곽 지역에 물류 거점을 확보하고자 한 목적이었다.³²⁾ 1970년대 들어 정부의 개발계획이 점점 더 빈번하게 작성되기 시작했는데, 1970년 건설부는 국토종합개발계획의 일환으로 지역개발계획을 작성하였다. 계획에 따르면 수도권 지역은 경수, 경인 축이 개발의 양대 축으로 설정되었다.³³⁾



1971년 수원역 광장 공사 전 풍경(수원박물관 제공)



1972년 수원역 앞(수원박물관 제공)



1970년대 도시개발 현황

1974년 수원역 일대(국토정보 플랫폼 제공)

수원역을 중심으로 서쪽에 해당하는 서둔동과 평동 지역은 농경지 펼쳐져 있고, 수원역 뒤편으로 공장 지대가 형성되었다. 수원역 동쪽으로 배산동은 상업지구로, 세류동은 주거지역으로 성장하였으며, 경기도청도 완공되었다.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수도권의 전철화 사업이 가시화된다. 1970년 10월 정부는 이듬해부터 서울 인근의 철도망을 전철화하려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이 계획에 따르면 1971년 공사 착공, 1973년 완공, 1974년 운행이라는 일정으로 서울-수원 간 전철화 사업이 본격화된다.³⁴⁾ 지하철 1호선과 수도권 전철이 개통되면 인천과 수원 등지에서도 서울 어느 곳이나 출퇴근이 가능할 것이란 전망이 나올 정도였다. 버스로 서울과 수원 간 1시간 30분이 걸리던 것이 50분이면 가능해질 것이란 전망이었다.³⁵⁾

그럼에도 1960년대 중반까지 수원역 일대는 여전히 농촌적 요소가 많이 남아 있었다. 1965년 농업 인구를 보면 가장 먼저 도시화가 진행된 매산동마저 50명이 넘는 농업 인구가 기록되어 있었다. 직업별 인구만 놓고 보면 평동과 서둔동 지역이 가장 도시화가 더딘 것으로 파악된다. 세류동은 상업 인구에서 매산동에 뒤진 것을 제외하면 모든 직업군에서 가장 많은 인구를 자랑하였다. 세류동은 농업과 함께 공업 인구도 상당했던가 하면 서비스업과 상업도 활발하였다.

표 3 1965년 수원역 일대의 직업별 인구

구분	농업	제조업	건설업	전기수도위생	운수통신보관	서비스	상업
매산동	56	65	15	6	11	652	612
세류동	401	399	267	140	109	704	448
서둔동	242	28	0	28	4	319	64
평 동	135	313	0	11	12	45	42

출처 : 수원시, 『수원 통계연보』 1966.

네 지역의 농업 상황을 보면 1965년 세류동의 작부면적은 745단보에 달했으며 쌀 수확량도 215톤이 넘었다. 평동 역시 고색동 통계가 포함된 것이기는 했지만 4,509단보에 수확량은 1,278톤이 넘었다. 서둔동은 구운동과 합쳐 면적 3,718단보에 수확량은 1,136톤 이상이었다. 매산동은 상대적으로 도시화가 많이 진전된 것이 확인되는데, 면적은 61단보에 수확량 18.6톤에 불과하였다.³⁶⁾ 또한 1960년대까지 세류동에는 공동묘지가 존재했고 심지어 화장장도 설치되었다. 이는 곧 세류동이 아직까지 본격적인 도시화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었음을 반증해 준다.³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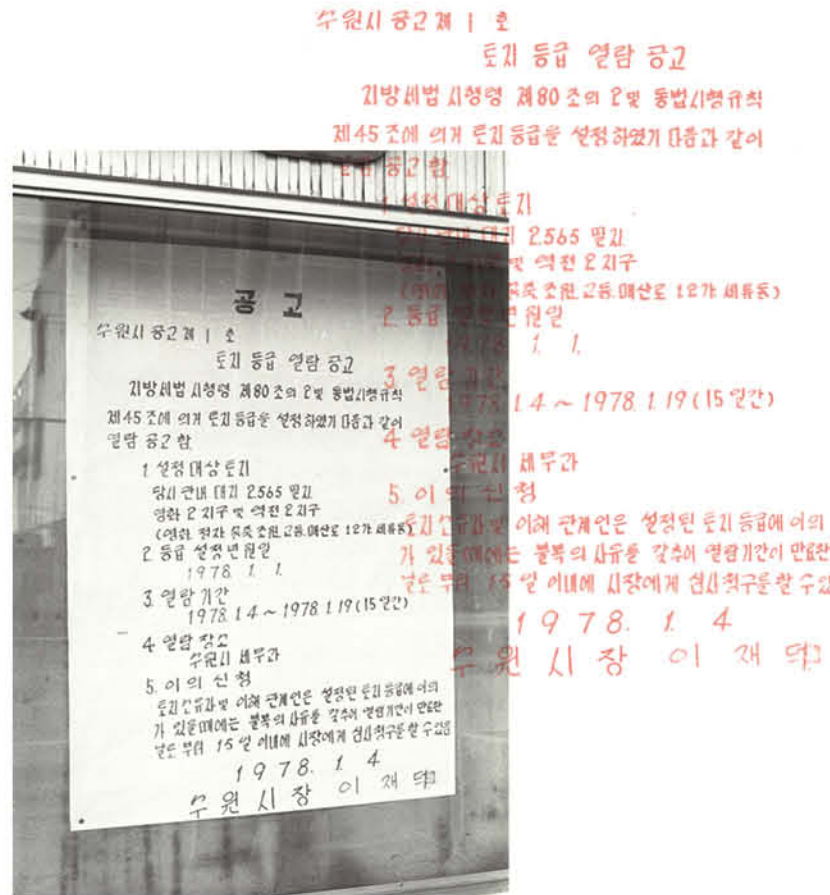
수원역 일대의 농업적 측면은 1970년대 중반까지도 어느 정도 남아 있었다. 1976년 세류동의 가축 사육 현황을 보면 한우 33두, 돼지 1,159마리, 닭 930마리를 키우고 있었다. 평동은 한우 270두를 비롯해 젓소 231두, 돼지 1,037마리 등이 기록되었고 서둔동은 한우 145두, 돼지 1,203마리가 사육 중이었다. 그런데 매산동은 개 237마리만 기록되어 있을 뿐 그 어떠한 가축 사육도 없었다.³⁸⁾ 우차의 경우 매산동은 하나도 없고 세류동 11대인 반면 서둔동은 81대, 평동은 110대에 달해 상당한 차이가 났다.

다음으로 네 지역의 상업화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수원 통계연보』에 나와 있는 점포수를 확인해 보았다. 그 결과 세류동이 286개, 평동 144개, 서둔동 71개

인 반면 매산동은 605개소에 달해 압도적 규모를 자랑하였다.³⁹⁾ 이러한 통계 자료를 종합해 보면 1970년대까지 매산동이 두드러지게 도시화가 진행되었고 나머지 지역은 농촌적 요소가 여전히 강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고 하겠다.

1990년대로 가면 상황이 달라진다. 1990년도 식품접객업소 통계를 보면 세류동 498개소, 평동 95개소, 매산동 652개소, 서둔동 148개소를 기록하였다. 호텔, 여관 등의 숙박업소 통계를 보면 세류동이 246개소, 평동이 48개소, 서둔동 85개소, 매산동 268개소였다.⁴⁰⁾ 식품접객업 통계는 세류동이 매산동에 버금갈 정도로 성장했음을 보여 준다. 숙박업소 통계 역시 세류동이 매산동을 거의 따라잡은 모습이며 나머지 지역도 상당한 규모가 되었다.

한편 도시화가 진전되면서 부동산 투기가 극성을 부리기 시작했고 한 언론은 이러한 투기 붐의 주범이 정부의 개발정책임을 강조하였다. 즉 “땅 값을 부채질한 선동자는 바로 정부의 국토개발사업”이라는 것이다.⁴¹⁾ 건설부 발표에 따르면 땅값 상승 요인은 도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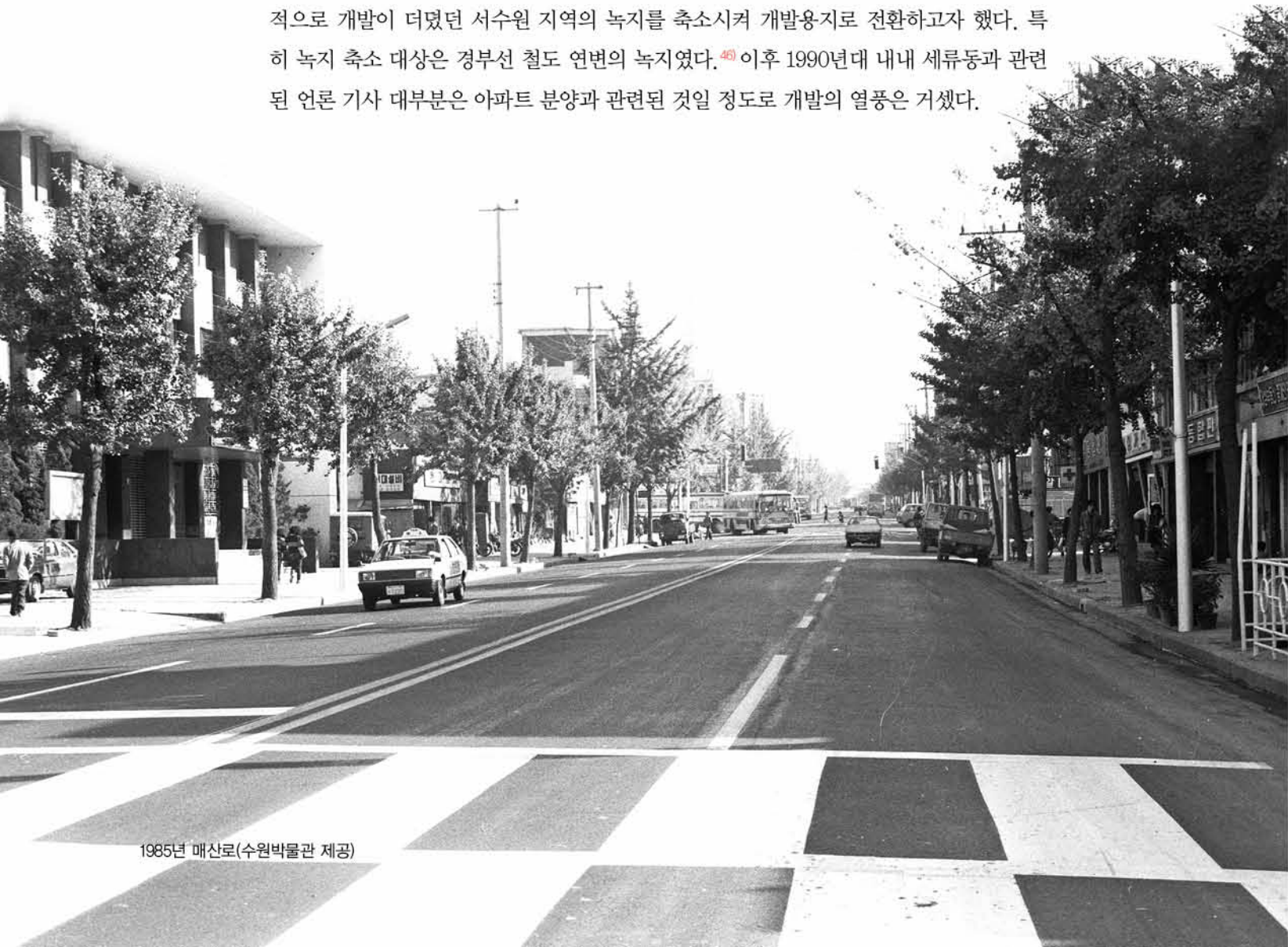


역전2지구 토지 등급 열람 공고(수원박물관 제공)

확장, 신설 및 포장이 12.9%로 최고의 요인이었다. 토지구획정리나 아파트 건립은 6.7%에 불과했고 공장도 3.4%에 그쳤다.⁴²⁾

어쨌든 수원역 일대로 이러한 개발과 투자를 비켜갈 수 없었다. 1970년대 후반이 되면 세류동에도 아파트가 등장하면서 수원역과 10분 거리임을 강조하는 분양광고가 중앙 일간지에 게재될 정도가 되었다.⁴³⁾ 아파트뿐만 아니라 연립주택도 대거 건설되기 시작했고 역시 중앙 일간지 광고대상이 될 정도였다.⁴⁴⁾

이러한 분위기 속에 수원역 일대로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한 다양한 대책의 대상지역이 되었다. 1990년대가 되면 세류동이 아파트 기준시가 적용 지역으로 지정된 것이다.⁴⁵⁾ 그럼에도 도시화와 개발 흐름은 멈추지 않았다. 1990년 중반이 되면 서둔동 일대 녹지지역의 주거용지로 풀리고 서수원 일대 건축규제가 대폭 완화되었다. 즉 동부에 비해 상대적으로 개발이 더뎠던 서수원 지역의 녹지를 축소시켜 개발용지로 전환하고자 했다. 특히 녹지 축소 대상은 경부선 철도 연변의 녹지였다.⁴⁶⁾ 이후 1990년대 내내 세류동과 관련된 언론 기사 대부분은 아파트 분양과 관련된 것일 정도로 개발의 열풍은 거셌다.



1985년 매산로(수원박물관 제공)

개발의 결과 토지가 투기와 일확천금의 대상이 되면서 각종 범죄가 발생하기도 했다. 그중 흥미로운 사건 하나가 1981년에 발생하였다. 1981년 11월 경찰 발표에 따르면 서둔동 거주 범인 3명이 세류동 소재 대지 600여 평을 대상으로 토지 사기를 행하다 검거되었다. 이들은 일제시기 소유주가 행방불명된 것을 알고 가공의 혈연관계 인물을 만들어 내 해당 토지를 상속받아 팔아치우고자 하였다.⁴⁷⁾ 식민지시기에 시작해 해방과 전쟁을 거치면서 어떻게 개발과 발전이 수원역 일대의 토지를 투기 대상으로 만들어냈는지를 흥미롭게 보여 주는 사건이지 않을 수 없다. 1985년에는 세류동의 체비지 불법 매각 혐의로 수원시 공무원들이 검거되기도 했다.⁴⁸⁾

또한 수원역이 개발의 기점처럼 기능하게 되면서 이 일대를 무대로 활동하는 조직폭력배가 등장하기도 했다. 1972년 11월에는 수원역과 그 부근의 사창가를 무대로 활동한 '갈비파'란 이름의 조직 폭력배들이 경찰에 검거된 사실이 보도되었다.⁴⁹⁾ 수원역 일대의 조직폭력배 문제는 1980년대를 거쳐 2000년대까지 이어지고 있다. '남문파', '역전파', 'Y파' 등 이름을 달리하면서도 조직폭력배는 끊임없이 나타났다.

수원역 일대의 또 다른 문제 중의 하나는 집창촌이다. 한국 도시 상당수의 역 근처에는 집창촌이 있기에 이는 수원역만의 특징은 아닐 것이다. 도시의 철도역은 물자와 인구 흐름의 중요한 결절점이고 이 흐름의 핵심 동력은 돈이다. 철도가 실어 나르는 모든 것은 화폐로 환산 가능한 것이고 이 돈의 흐름을 타고 폭력과 성매매가 번성하게 된다. 교통이 편리하다는 말은 곧 돈의 흐름이 활발한 것이 되고 주변의 모든 것 역시 이 흐름을 타게 된다.

철도가 공간을 연결하듯 집창촌은 사람과 사람을 연결해 주지만 그 결합은 인간을 사물화하는 것이기도 하다. 철도가 공간을 강제적으로 결합시키듯이 집창촌은 사물화한 인간들의 결합을 매개한다. 아무런 관련이 없던 지역이 철도를 통해 연결되듯이 완전히 낯선 타인들 사이의 결합이 화폐를 통해 가능해진다. 철도가 초래한 인간 삶의 거대한 변화는 이런 것인지도 모른다. 그것은 낯선 공간을 연결하며 더불어 인간을 낯선 타자에게로 운반해 준다. 인간 사이의 결합이 화폐를 매개로 하지 않고서는 거의 불가능해진 세계, 철도가 운반해 온 우리 시대의 세계는 그런 것인지도 모른다.

1995년 수원역 일대(수원박물관 제공)



-
- 1) 김백영, 『일제하 식민도시 수원의 시기별 성격 변화』 『도시연구』 제8호, 2012, 11쪽.
 - 2) 정재정, 『일제침략과 한국철도, 1892-1945』 서울대학교 출판부, 1999 참조.
 - 3) 수원시사편찬위원회, 『수원시사 2 : 수원의 도시 공간과 도시구조』, 2014, 114쪽.
 - 4) 朝鮮總督府鐵道局, 『朝鮮鐵道驛勢一般』 上卷, 1914, 94쪽(김백영, 『일제하 식민도시 수원의 시기별 성격 변화』 『도시연구』 제8호, 2012, 16쪽에서 재인용).
 - 5) 수원시사편찬위원회, 『수원시사 2 : 수원의 도시 공간과 도시구조』, 2014, 120쪽.
 - 6) 김백영, 『일제하 식민도시 수원의 시기별 성격 변화』 『도시연구』 제8호, 2012, 26쪽.
 - 7) 김백영, 『일제하 식민도시 수원의 시기별 성격 변화』 『도시연구』 제8호, 2012, 38쪽.
 - 8) 수원시사편찬위원회, 『수원시사 2 : 수원의 도시 공간과 도시구조』, 2014, 142쪽; 수원시사편찬위원회, 『수원시사 6 : 수원의 산업과 경제 성장』, 2014, 259쪽 참조.
 - 9) 수원시사편찬위원회, 『수원시사 6 : 수원의 산업과 경제 성장』, 2014, 193쪽 지도 참조.
 - 10) 수원시사편찬위원회, 『수원시사 2 : 수원의 도시 공간과 도시구조』, 2014, 143쪽.
 - 11) 『동아일보』, 1946년 3월 10일.
 - 12) 『경향신문』, 1949년 8월 17일.
 - 13) 『경향신문』, 1947년 11월 6일.
 - 14) 『경향신문』, 1949년 2월 22일.
 - 15) 『동아일보』, 1949년 1월 15일.
 - 16) 『경향신문』, 1949년 4월 2일.
 - 17) 『경향신문』, 1949년 8월 20일.

- 18) 『경향신문』, 1954년 1월 27일.
- 19) 『동아일보』, 1950년 1월 14일.
- 20) 한국전쟁의 여파는 전쟁이 끝난 다음에도 상당 기간 지속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전후 3년가량 지난 1956년어가 가서야 전쟁 피해를 본 수원역사의 복구공사가 착수된 것만 보아도 당시의 사정을 알 수 있다.(『경향신문』, 1956년 1월 12일)
- 21) 『동아일보』, 1952년 6월 27일.
- 22) 『경향신문』, 1955년 5월 27일.
- 23) 『동아일보』, 1956년 5월 5일.
- 24) 수원시사편찬위원회, 『수원시사 6 : 수원의 산업과 경제 성장』, 2014, 273쪽.
- 25) 『동아일보』, 1959년 1월 30일. 이 외에도 당시 신문지면에는 열차 투석사건이 심심치 않게 보도되고 있었다.
- 26) 『동아일보』, 1967년 1월 23일.
- 27) 『매일경제』, 1967년 7월 31일.
- 28) 『동아일보』, 1967년 9월 14일.
- 29) 『동아일보』, 1967년 12월 11일.
- 30) 『매일경제』, 1968년 1월 8일.
- 31) 『경향신문』, 1968년 1월 30일.
- 32) 『매일경제』, 1970년 7월 30일.
- 33) 『경향신문』, 1970년 7월 29일.
- 34) 『동아일보』, 1970년 10월 22일.
- 35) 『동아일보』, 1972년 11월 14일.
- 36) 수원시 『수원 통계연보』, 1966, 38쪽.
- 37) 『경향신문』, 1962년 8월 14일.
- 38) 수원시 『수원 통계연보』, 1977, 74쪽.
- 39) 수원시 『수원 통계연보』, 1977, 97쪽, 105쪽.
- 40) 수원시 『수원 통계연보』, 1991, 212~214쪽.
- 41) 『매일경제』, 1971년 7월 21일.
- 42) 『매일경제』, 1971년 7월 21일.
- 43) 『동아일보』, 1979년 8월 31일.
- 44) 『매일경제』, 1980년 5월 22일.
- 45) 『동아일보』, 1990년 8월 31일.
- 46) 『동아일보』, 1994년 3월 31일.
- 47) 『경향신문』, 1981년 11월 9일.
- 48) 『경향신문』, 1985년 9월 13일.
- 49) 『동아일보』, 1972년 11월 27일.

02 매산동의 상권과 시장

역전시장의 어제와
시장 골목을 누비다
도로에서 시장으로
원역지하도상가의 변모

● 역전시장의 어제와 오늘

● ● 매산시장 골목을 누비다

● ● ● 도로에서 시장으로 : 수원역지하도상가의 변하기



이승연 화성시사편찬위원회 연구원

제1장

역전시장의 어제와 오늘

1. 수원의 첫 얼굴, 매산동 전통시장

수원시 서남부에 위치한 매산동은 수원의 첫 얼굴이자 최고의 변화가라고 할 수 있다. 수원의 관문인 수원역이 자리하고 있는 교통의 요충지이며, 경기도청을 비롯한 각종 기관·단체와 대형 쇼핑몰들이 자리한 곳이기 때문이다. 수도권 전철, 여객열차, KTX 등이 통과하는 경기도의 교통 중심지 수원역은 100년 넘게 자리를 지키며 수원 사람들이 겪은 격동의 근현대를 간직한 공간이 되었다. 2003년에는 연면적 2만 500평, 부지 6,200평 규모의 역무시설, 백화점, 편의시설을 갖춘 민자역사로 준공되었는데 역사와 그 주변은 늘 인파로 가득하다. 경기대학교, 경희대학교 국제캠퍼스, 성균관대학교 자연과학캠퍼스, 아주대학교 등 인근에 위치한 많은 대학생들이 수원역을 거쳐 통학하며, 인접한 오산·화성·평택 주민들도 볼거리, 먹거리, 의료시설, 문화시설 등을 찾아 수원으로 왕래한다. 오늘날 매산동은 기차역, 전철역, 식당가, 백화점, 극장, 숙박업체 등이 집중되어 사실상 경기 남부 최대의 상권이 형성된 곳이다.

매산동에는 화려한 백화점과 대형 마트 외에 서민들과 오랜 세월을 함께해 온 전통시장들도 자리 잡고 있다. 수원역 인근 반경 1km 이내에만 매산시장, 매산로테마거리상점가, 역전시장, 수원역지하도상가 등 총 4개의 시장이 있다. 각각의 시장들은 저마다의



역전시장과 매산시장 위치(김승일 제공)



1955년 재건된 매산(역전)시장(수원시, 『수원사진대관』, 1956)

특징을 갖고 있다. 매산시장은 농축수산물로 유명하였는데 요즘은 다문화 주민들이 1/3을 차지할 만큼 많이 이용하는 곳이다. 수원의 명동으로 불리는 매산로테마거리는 차 없는 거리로 조성되어 상인도, 고객도 젊은 층으로 가득하다. 24시간 운영되는 상점이 많아 밤에도 불빛이 반짝인다. 수원역지하도상가는 수원역과 백화점을 이용하는 수많은 유동인구로 가득하다. 옷가게, 커피전문점, 빵집, 꽃집 등이 성업 중이며 휴대전화 상점이 많이 입점해 있다. 이에 비해 역전시장은 시장 출입구가 큰 길에서 조금 떨어져 있어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낮고, 젊은 층의 이목을 끌 만한 품목도 없다. 그렇지만 역전시장은 수원역 주변의 4개 시장 중 부지면적이 가장 크며, 일찍이 인정시장으로 등록된 곳으로 녹록치 않은 역사를 지닌 장소이다. 수원의 관문이자 첫 얼굴이라고 할 수 있는 매산동의 전통시장, 역전시장은 어떠한 곳일까?

역전시장은 올해로 만 70세 생일을 맞이하였다. 1948년 '매산 양곡 공설시장'으로 시작한 이래 매산동뿐만 아니라 경기도 일대 주민들의 일상과 밀접한 관계를 맺어 왔다. 한때 '매산시장'으로 불리던 때도 있었는데, 지금은 매산시장과 분리되어 상가형 '역전시장'과 노점형인 '매산(재래)시장'

으로 구분되어 운영되고 있다. 1969년 9월 ‘수원역을 앞에 둔 곳’이라는 뜻으로 ‘역전시장’으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역전시장은 법인화한 후 종합시장의 면모를 갖추고 지역경제의 한 축을 형성하여 왔다. 좌판과 판잣집 형태로 시작한 전통시장은 설립 40여 년 만인 1985년 상가 건물을 신축하면서 현재의 모습으로 완성되었다. 상가형으로 변모한 역전시장은 시장 건물 안 점주들이 주주가 되어 주식회사로 탄생한 시장이다. 현재 점포수 220개, 상인수 250여 명에 이르는 규모이며 매산로 2-10, 수원역 9·10번 출구에 인접해 있다.

한때 수원뿐만 아니라 경기 서남부 전역에서 인파가 몰렸다는데 지금은 예전만큼 상권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다. 골목과 인접한 식당에는 그나마 고객들이 있지만, 상가 안 쪽으로 들어가 있는 점포들은 비어 있거나 문이 닫혀 있는 곳도 꽤 있다. 찾아오는 고객



2대째 신발가게를 운영하는 조현경



가방가게를 운영하는 이종신



여성복 가게를 운영하는 심만자



노인회장 김재웅

이 별로 없이 한산하고 고령의 상인들이 지키고 있는 모습은 전국의 여느 쇠락해 가는 전통시장의 풍경과 비슷하다. 역전시장은 활기를 띤 주변 상권과 대비되어 더욱 침체되어 보인다.

역전시장의 역사와 흥망성쇠를 살펴보는 것은 매산동을 이해하고 나아가 수원의 여러 시장들이 처한 입장과 상황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역전시장에서 장기간 점포를 운영하면서 시장의 변화를 경험한 상인들, 상인회장, 노인회장, 단골고객 등을 만나 이들의 기억과 경험을 통해 역전시장의 어제와 오늘을 구성해 보고자 한다. 인터뷰에 참여하여 매산동 역전시장에 대해 구술해 준 이들은 <표 1>과 같다.

표 1 인터뷰 참여자의 인적사항과 활동 내용

연번	성명	연령	성별	주요 활동내용
1	김재웅	1942년생	남	화성 농촌마을에서 성장하였는데 교육열이 강한 부모의 영향으로 수원으로 유학하여 중고등학교를 다녔다. 역전시장에서 포목점을 운영하던 부모의 점포를 물려받아 대를 이어 역전시장 상인으로 활동하였다. 역전시장 마을금고 부이사장, 상무이사, 전무이사, 수원외용소방대 대장 등을 역임하였다. 은퇴 후 역전시장 상가 내 노인회의 노인회장직을 맡고 있다.
2	이종신	1944년생	남	충남 태안 출신인데 역전시장에서 장사를 하던 친척의 권유로 1987년 시장에 들어와 가방가게를 운영 중이다. 과거에는 학생용 책가방을, 요즘은 여행용 캐리어·여성 가방·등산용 배낭 등을 주로 취급한다. 고객의 상당수가 외국인 근로자이다.
3	조현경	1953년생	여	고등학교 때부터 수원에서 거주하였다. 역전시장에서 점포를 운영하던 시 부모의 가게를 물려받아 남편과 함께 신발가게와 잡화점을 운영 중이다. 2대째 운영하여 오랜 단골이 많이 찾아온다. 상인회 운영위원을 맡았다.
4	심만자	1954년생	여	전남 남원 출신으로 1985년 상가 신축 전부터 역전시장에서 장사를 시작하였다. 양말·내의류·아동복 등을 취급하다가 여성의류로 품목을 전환하여 숙녀복 가게를 운영 중이다. 중장년층 여성, 외국인 여성 근로자들이 주요 고객이다.
5	김웅진	1967년생	남	조부모와 부모가 역전시장에서 포목점을 운영했기에 어린 시절부터 시장을 집과 놀이터 삼아 성장하였다. 상인회장 겸 역전시장(주) 대표이사로 활동 중이다. 아버지는 노인회장(김재웅) 직을 맡고 있으며, 동생도 역전시장에서 식당을 운영 중이다. 역전시장에서 3대째 장사한 집안이기에 시장의 산 증인이라고 불린다.

비고 : 구술자 순서는 출생연도 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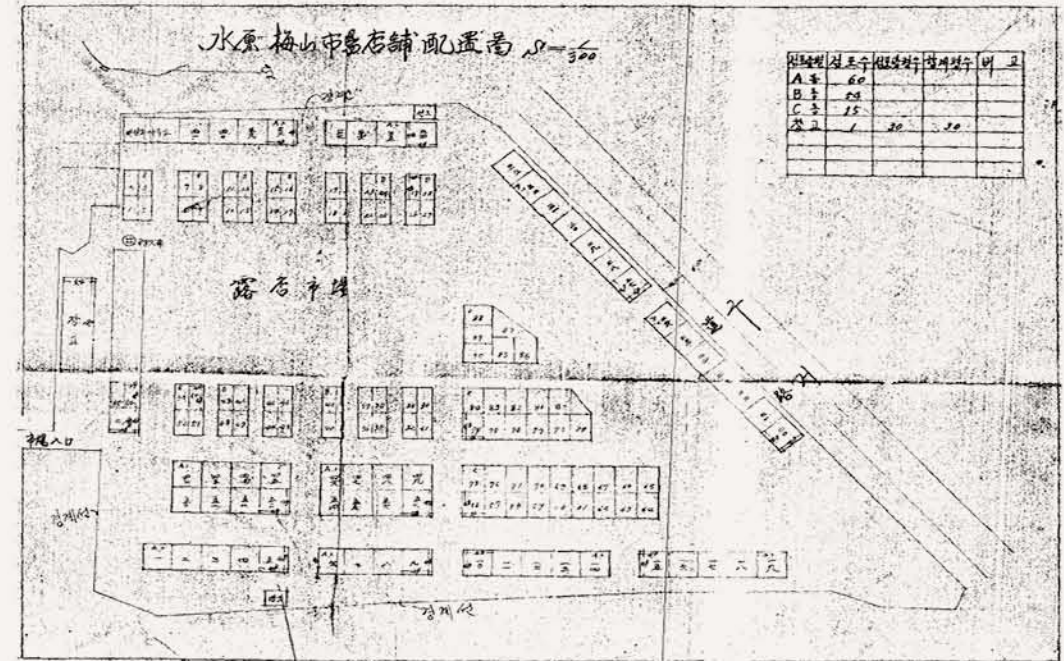
2. 흙바닥 좌판시장에서 현대화된 상가로 변신하다

역전시장은 매산동에 있는 양곡시장이라 하여 ‘매산 양곡 공설시장’이라는 이름으로 출발하였다. 처음 개설되었을 때는 쌀, 조, 콩, 팥 등 양곡 위주의 가게가 주류를 이루었으며, 흙바닥 위에 좌판을 개설하거나 판잣집 형태의 건물로 운영되던 시장이었다. 당시 수원역은 한옥 형태의 역사였는데 역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적지 않았지만 지금처럼 역 주변에 주택이나 상가가 즐비하지는 않았다. 한국전쟁 기간에 수원역은 폭격으로 소실되었고, 역전시장의 좌판과 점포 역시 부분적으로 파괴되었다. ‘매산 양곡 공설시장’이라는 정식 명칭이 길다 보니 ‘매산시장’으로 불리었는데, 1969년에 ‘역전시장’으로 이름을 바꾸었다. 수원역이 경부선, 수려선, 수인선이 개통된 사통팔달의 요지였기에, 역 앞에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었다고 한다. 하지만 주민들 중에는 여전히 예전 습관대로 ‘매산시장’이라고 부른 이들이 한동안 있었으며, 오랜 단골들은 요즘도 매산시장이라고 부른다. 부모가 운영하던 포목점을 도우며, 수원에서 학창시절을 보냈기에 역전시장의 초창기 모습을 잘 기억하는 김웅진은 다음과 같이 회상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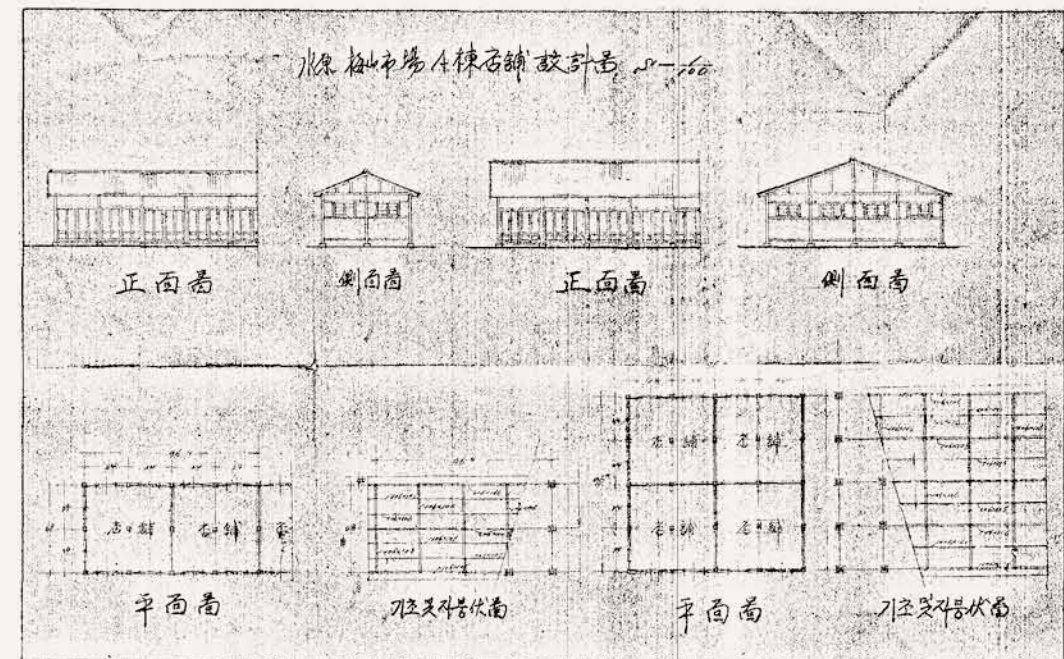
김웅진 1948년도에 시(市) 부지를 이용해서 공설시장이 설립되었어요. ‘매산 양곡 공설시장’이라고 하여 체계화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1969년도에 상인들이 시 부지를 불하받았어요. 사설시장으로 등록하여 정식으로, ‘매산시장’이란 이름을 한동안 쓰다가 1969년도에 ‘역전시장’으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지금 같은 대형 상권이 아니라 조그마하게 장사하다가 규모가 늘어났어요. 바닥이 흙 땅이었습니다. 나무로 매대를 만들어서 좌판을 만들고, 문도 없이 목재를 가지고 형성된 가게에 함석으로 씌워 놓은 가게였어요.

산업화가 진행되고 경제가 발전되면서 수원역과 시장 주변으로 점차 인파가 몰리기 시작하였다. 상인들은 외상을 부탁하는 손님에게도 넉넉하게 웃어 주던 정 많은 시대였다. 고객들도 분주한 상인들을 도와 같이 짐도 옮겨 주는 등 역전시장은 왁자지껄하고 사람 냄새 물씬한 공간이었다.

김웅진 살림집에 목화솜을 싣고 오면 4~5톤 트럭에 가득 싣고 왔어요. 가게로 실어



1969년 당시 역전시장(당시 매산시장) 점포 배치도(수원시청 제공)



1969년 당시 역전시장(당시 매산시장) 점포 설계도(수원시청 제공)



1970년대 역전시장 모습(역전시장 제공)



1970년대 개천이 넘쳐 수해를 입은 시장(역전시장 제공)



1970년대 역전시장 점포(역전시장 제공)



1970년대 화재 대비 훈련 중인 역전시장 상인(역전시장 제공)

날랐어요. 짐자전거에 목화솜을 6단 싣고, 2.5미터 정도로 올라와요. 짐자전거에 싣고 고무줄로 묶어 놓고 오다가 넘어지면 시장 손님들이 일으켜 주고 함께 도와줬습니다.

역전시장의 가장 큰 대목은 명절을 앞두고였다. 포목점, 옷가게, 신발 가게 등은 명절이 다가오기 두 달 전부터 손님들이 몰렸다.

김재웅 가게, 포목점, 고무신은 대목 되면 잠 잘 시간이 없었어요. 장사가 잘되었어요. 이운에 상관없이요. 포목점이 몇 점 되었는데 잘 다 되었어요. 잠바 파는 사람은 몇 개 파는지 서로 내기를 하기도 했어요.

김웅진 장사가 잘 되었어요. 한복을 맞추면 바느질 께매는 집만 15집이 있었어요. 여자 치마만, 여자 두루마기만, 남자 바지저고리만. 이렇게 특화되었어요. 대부분 명절 앞두고 2달 전부터 맞춤을 했어요. 2월에 설이 있으면 12월 전에 이미 맞추러 와요. 명절 앞두고면 눈코 뜰 새 없어서 하루 종일 밥을 못 먹었어요.

역전시장이 이토록 장사가 잘 된 이유 중 하나는 시장 주변에 버스정류장이 있었기 때

문이었다. 1970~1980년대에 버스는 역전시장 근처에서 한 번 하차하고 남문시장에 정차하였다. 인근 지역뿐만 아니라 안산, 반월, 남양, 발안, 매송 지역에서도 사람들이 찾아 왔다. 그만큼 상인들의 노동시간도 길어졌다. 새벽 4~5시면 손님들이 방문했고, 밤 12시는 물론 새벽 2시에도 멀리서 왔으며 문을 두드리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온 가족이 매달려 운영하는 가족경영 형태가 많았다. 상인의 자녀들은 10대가 되기 전부터 시장에서 간단한 잔심부름을 하며 어깨 너머로 장사를 익혔다. 이들에게 역전시장은 집이요, 생업터전이며, 뛰어놀던 놀이터였다. 가게를 찾는 어른 손님들에게 칭찬도, 꾸지람도 들어가며 인생을 배워 나갔다. 그래서 2~3대째 점포를 대물림한 이들은 시장에 대해 특별한 애정을 지니고 있다.

김재웅 초창기 역전시장은 수원뿐 아니라 반월, 매송, 남양에서 온 손님들이 많았어요. 버스가 여기에서 쉬었다가 남문 영동시장에서 내렸거든요.

김웅진 장사가 잘 된 이유는 역 앞이고, 버스가 다니는 길목이었기 때문이에요. 시장이라고 내세울 만한 판매처가 인근에 없었어요. 이불, 커튼, 수예품을 취급했는데 보통 새벽 4시부터 물건을 퍼서 5시에 다 뺐거든요. 그리고 밤 12시에 문을 닫았어요. 모든



1970년대 역전시장 전경(수원시청 제공)



1970년대 역전시장 입구(수원박물관 제공)

집이 그랬던 게 새벽 4~5시면 손님들이 왔어요. 안산, 사강, 봉담, 마도, 팔탄, 서신, 반월, 인근에서 다 모여 들었어요. 밤 11~12시까지도 손님들이 와요. 새벽 2시에 문을 두드리는 사람도 있었어요. 껌쪽에 구멍 뚫어 놓은 데에 하루에 돈이 다 못 들어가서 자루에 2번씩 쏟아도 부었어요.

좋은 입지 덕에 늘 손님들이 몰렸고, 상인들의 이윤도 컸지만 불편한 점도 적지 않았다. 비가 오면 주변 개천이 넘쳐 시장 한복판까지 물이 찼고, 물품이 떠내려가거나 침수되어 못쓰게 되었다. 위생에 대한 개념이 강해지고 고객들의 눈높이는 계속 올라갔지만, 역전시장은 화장실 시설도 마땅치 않았다.

김용진 열악했던 부분들이 뭐냐 하면, 가게 옆 하수구, 개천도 있다 보니 위생상 문제가 있었어요. 눈, 비가 오면 매산동, 매교동, 세교동에서 오는 모든 하수들, 오수들이 시장 앞을 통과해서 역전 골다리로 빠져 나가요. 장대 같은 소나기가 10분쯤 쏟아지면 시장 한복판에 성인 허리까지 물이 찼어요. 비만 쏟아지면 군대에서 쓰던 야전침대



1980년대 초반 역전시장 점포(역전시장 제공)

놓고, 그 위에 껌을 2~3짝 쌓고 물건을 다 올려놔요. 비만 오면 버리는 물건이 많았죠. 지금처럼 일기예보가 잘 맞지도 않았구요.

당시 역전시장은 목조시장으로서 화재에 취약한 점도 문제점으로 꼽혔다. 목조로 만든 가판대와 좌판, 인화성이 높은 물품, 노후화된 전기설비 때문에 화재가 발생하면 빠른 시간에 확산되었다. 점포가 밀집되어 있어 불이 나면 상가 전체가 삼시간에 피해를 보기에 상인들은 늘 화재에 대비하였다. 상인들 중심으로 의용소방대가 구성되었고, 소방대가 주변에 상주하였다.

김재웅 목조 가판대와 건물은 화재에 취약하였고, 불이 한 번 나면 시장 전체로 번질 위험이 있었어요. 그래서 시장 주변은 늘 소방대가 상주해 있었고, 상인들 중심으로 의용소방대가 구성되었습니다. 하꼬방이어서 한 번 불나면 다 타 버리기 때문에 무서웠어요. 소방서 직원들이 와서 상주하며 자고 했었어요.



역전시장 마을금고(역전시장 제공)

시설이 열악하다 보니 상인들 사이에 자금을 모아 시장 건물을 새로 짓자는 여론이 형성되었다. 상인들은 자체적으로 마을금고를 설립하였는데, 전국에서 거의 최초에 해당할 만큼 빠른 시기였다고 한다. 당시 역전시장 상인들은 고객들의 요구사항에 민감하고 발 빠르게 대처했으며, 협동심도 강하였다. 1976년 설립한 마을금고는 시장 상인들의 저축과 운영 속에 시장을 신축하는 데 사용되었다. 부족한 건축비용은 건설사에서 분양을 통해 충당하였다. 노인회장인 김재웅은 지금도 마을금고를 설립한 날짜를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다.

김재웅 마을금고를 설립한 게 1976년 4월 1일이었습니다. 전국에서 거의 처음 수준이었어요. 돈을 모아서 시장을 짓자는 여론이 나왔습니다. 마을금고는 1983년도에 해체되었어요. 시장을 신축하며 돈을 썼습니다.

1985년 6월 1일 역전시장은 드디어 현대식 상가로 재탄생하였다. 상가는 A·B동, 총 2개 동으로 구성되었는데, A동은 원래 시장이 있던 자리였으며 B동은 개인 창고로 쓰이던 부지였다. 기존에 장사하고 있던 상인들은 1층 상가를 배정받았다. 건물 중앙에 에스컬레이터가 놓인 현대식 상가는 수원은 물론 전국적으로 화제가 되었다. 많은 전통시장 상인들이 신축한 역전시장의 현황을 보기 위해 멀리에서부터 견학을 왔다. 흙바닥 좌판에서 시작하여 신축 건물에 들어온 상인들은 이 상황을 누구보다 감격스러워 했다. 기존 상인뿐 아니라 상가를 분양받거나 임대하여 새로 입주한 상인들 역시 자부심과 포부가 컸다. 분양률도 높고 임대료도 높은 깨끗한 새 건물에서 주변 사람들의 부러움을 받으며 장사를 시작했기에 희망으로 가득차 있었다.



역전시장 기공식(역전시장 제공)



역전시장 분양(역전시장 제공)



1987년 호황기 역전시장과 수원역 일대(수원박물관 제공)



1980년대 후반 역전시장

김용진 그때는 전국에서도 건물 중앙에 에스컬레이터가 들어오고 현대식으로 지은 시장 건물이 흔치 않았어요. 그래서 전국의 재건축, 재개발하려는 시장 상인들이 우리 시장으로 견학을 왔습니다. 여기 분양할 때도 굉장히 분양률이 높았습니다. 한라건설에서 시장을 새로 신축해 줬어요. 시장조사도 충분히 했구요. 건설회사에서 볼 때 장사가 잘 되니까, 건물을 지어 주면 일부 지분을 받아서 분양하면 건축비용이 충분히 나오겠다고 판단하고 건축했습니다. 일부 지하층, 2층, 일부 지분을 팔아서 건축비를 충당했습니다. 원래 장사하고 있던 상인들에게는 1층 자리를 그대로 주고요. 1985년도에 준공하고 분양하면서 그 당시 시세로는 꽤 비싼 가격으로 분양되었습니다.

신축된 매산동 역전시장은 한동안 호황기를 지속하였다. 바로 맞은편 수원역으로 유

입되는 유동인구, 버스정류장이 가까이에 위치했다는 호재 외에도 삼성전자 직원의 수요가 한몫하였다. 냉장고·세탁기·에어컨·전자레인지 등 삼성전자의 백색 가전제품 공장이 수원에 있던 시기 월급날이 되면 시장은 인파로 들썩였다.

김웅진 초창기 장사들은 잘 되었어요. 그때는 다른 시장들이 우리 시장 안을 못 쫓아 왔어요. 시장 안에 있는 다 쓰러져 가는 가건물도 가격이 꽤 높았습니다. 1970년대는 10평 대 가게가 1억이 넘었어요.

심만자 1980~90년대 수원에 삼성전자가 있을 때만 해도 장사가 잘 되고 물건도 참 잘 팔렸지요.

역전시장 상인들 중 입점한 지 오래되어 호황기를 기억하는 상인들은 요즘도 종종 그 시절 얘기를 하곤 한다. 소일거리 삼아 가게에 나오고 있는 고령의 상인들은 이 시절 저축을 꽤 해 놓았기에 지금 장사가 잘 안 되어도 가까스로 현상유지를 한다고 말한다. 역전시장은 1985년 신축 이후, 2009~2010년 건물 외벽 리모델링과 간판 정비외에는 크게 달라진 점이 없기에, 30여 년 전 모습을 많이 간직하고 있다. 현재 입점해 있는 점포는 여성복, 남성복, 의류수선, 재봉(미싱), 액세서리, 가방, 신발, 구두 수선, 뜨개, 자수, 수건(타올), 콜라텍, 직업소개소, 노래방, 학원, 성인용품, 외국 식품점, 식당 등이다. 역전시장의 주요 변화를 살펴보면 <표 2>와 같다.

표 2 역전시장의 역사와 주요 변화

순번	시기	주요 변화
1	1948년 8월 15일	매산로1가 57번지 소재 대지 2,230평으로 매산 양곡 공설시장 개설
2	1948년 9월 9일	404평 목조 와즙(나무로 기둥을 세우고, 서까래를 놓고 기와로 지붕을 만든 집)으로 기공
3	1948년 12월 29일	준공식
4	1950년 6월 7일	한국전쟁으로 노점자리 일부 파괴됨
5	1961년 6월 1일	매산시장 국민운동 추진회 결성
6	1969년 6월 1일	역전시장(주) 발기인 구성
7	1969년 9월	20년간 지속된 매산 공설시장 변영회를 마감하고 법인 설립

순번	시기	주요 변화
8	1969년 9월 9일	역전시장 창립총회 개최
9	1969년 11월	사설시장 개설 허가 획득
10	1969년 12월 10일	수원시에 상환조건으로 대지 2,230평 매수
11	1979년 4월 1일	마을금고 설립
12	1979년 3월 1일	시장 건축위원회 구성
13	1980년 2월	신축 적립금 준비
14	1981년 5월	수원시에 도시계획시설 변경서 접수
15	1983년 5월 14일	시장 신축설계 본계약 체결
16	1984년 3월 28일	시장 신축공사 도급계약 체결(한라건설)
17	1984년 5월 10일	시장 신축 기공식
18	1984년 6월 1일	임시시장 입주
19	1985년 4월 15일	시장 준공 (대지 : 2,372평, 지하 1층, 지상 3층, 연건평 6,792평, A·B동)
20	1985년 6월 1일	개장행사 및 입주 (총 599개 점포)
21	1994년 11월 24일	매산천 가건물 철거 후 복개공사 착공
22	2009년 9월	건물 외벽 리모델링, 간판 정비

출처 : 역전시장 상인회 제공.

3. 상권의 쇠락과 노화, 위기의 역전시장

국내외를 막론하고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은 침체일로를 걷고 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상당수가 폐업과 파산 위기에 놓여있다. 수원은 정조 이래 경기남부 상권을 주도했던 역사적 전통이 있는 지역이다. 그래서 다른 도시보다 전통시장이 활성화되었고, 현재까지 전통시장의 상당수가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그렇지만 시대의 큰 흐름은 막을 수 없기에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용객이 줄어들고 있다. 매산동 역시 예외가 아니다. 1990년대까지는 호황을 누렸던 전통시장들이 노후화되고 침체되었다. 새벽 4~5시부터 자정까지 손님이 몰렸던 역전시장 역시 요즘은 찾는 이들이 뜸하다. 전통시장이 쇠락한 원인으로는 여러 가지를 들 수 있다.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주차시설, 냉난방, 카트 사용, 정찰제 등 쇼핑의 편의성에서 대형 마트와 백화점이 보다 편리하기에 점점 발길을 돌린다고

한다. 역전시장 상인들은 시장 침체의 원인으로 대형 쇼핑몰과 백화점 등이 속속 들어서는 외부적 요인, 수원역에 인접해 있는 입지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특수한 상황, 그리고 역전시장의 내부적 요인을 함께 꼽고 있다.

1985년 하꼬방 위주의 목조 점포에서 새 건물로 깔끔하게 단장한 역전시장은 외부에서 단체 견학을 올 정도로 훌륭한 사례로 꼽혔다. 그렇지만 내부적으로 몇 가지 문제점을 가진 채 탄생되었다. 신축과 분양을 거치는 과정에서 점포 숫자가 증가한 대신 개별 점포의 평수는 작게 배정되었다. 상가 면적이 협소하다 보니 상인들은 물건을 다양하게 가져다 놓지 못하고, 몇 점씩 한정하여 들여올 수밖에 없었다. 숙녀복, 아동복, 수예점, 신발집 등은 2~3명에 불과한 점포 규모에 맞추어 꼭 팔릴 만한 무난한 품목만 구비하였다. 이는 고객들의 다양한 취향과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는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노점과 판잣집에서 원래부터 장사를 하던 상인들은 대부분 1층 상가의 주인으로 들어왔고, 2~3

층 상가는 투자목적으로 분양을 받은 이들이 대부분이었다. 분양받은 이들은 직접 장사를 하기보다는 임대를 하였다. 교통의 요지이며 신축 건물이다 보니 임대료는 주변 시세보다 훨씬 높았다. 세입자로 들어온 상인들은 매달 높은 임대료와 관리비를 부담하다 보니 실제 수익은 좋지 않았다. 그러다 보니 하나 둘씩 역전시장을 떠나 터전을 옮겼다.

김웅진 사람들이 투자목적으로 분양을 하다 보니 임차인들에게 세를 주면 적극성이 없었습니다. 점포 숫자는 많아졌지만 다 소규모 위주였어요. 2층의 경우엔 실행수가 2~3평이 태반이었어요. 이 가게 하나가 당시로 몇 천 만 원씩 분양가였어요. 분양한 것에 대한 임대료도 많이 요구했고, 장사가 잘 되는 시장이니 상인들이 많이 들어왔지만, 가게가 너무 협소하고 물건을 갖다 놓기에도 한계가 있으니 상인들로서는 한계를 느꼈습니다. 임대료를 떼고 나면 실질적으로 발생하는 수입이 얼마 없었어요. 서로 경쟁을 하다 보니 점점 그만두는 경우가 생겼어요.

시간이 흐르고 주변에 번듯한 상가들이 들어서면서 역전시장의 구조와 동선이 가진 단점이 부각되기 시작하였다. 점포가 칸막이로 막혀 있고 통로가 좁아 답답했으며, 출입구가 일직선상으로 놓여 있지 않아 한번 상가에 들어오면 동선이 불편하였다. 상인회에서는 바닥과 천장 공사를 하여 시야를 트이게 하고, 유사한 업종끼리 점포를 모아 놓는 게 고객 유치에 보다 유리할 것이라 판단하였다. 그래서 상인들을 설득하여 겹겹이 막힌 칸막이를 들어내고, 환경 개선 작업을 하고자 했다. 그런데 역전시장에서 장사를 하는 상인 중에는 세입자 비율이 워낙 높고, 외부에 거주하는 임대인들은 직접 장사를 하지 않기에 시설 보수와 리모델링의 필요성을 절감하지 못하였다. 상가 주인들에게 일일이 필요성을 설명하고 동의를 구한 후 환경을 정비하는 데는 적지 않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기에 한계에 부딪혔다.

김웅진 건물 안이 모두 칸막이로 막혀 있어요. 통로도 좁아서 답답합니다. 시장 발전을 위해 환경을 바꾸어야 합니다.

조현경 시장 건물 내 구조와 동선이 좋지 않아서 손님들이 와서 물건 사기에 불편해해요.



심만자가 운영하는 숙녀복 가게



이종신이 운영하는 가방가게



조현경이 운영하는 신발가게



조현경의 남편이 운영하는 잡화점



IMF 외환위기, 삼성전자 수원사업장의 백색가전 공장 이전, 뉴코아백화점의 설립, 수원역 민자역사에 들어선 AK백화점, 롯데몰의 등장은 역전시장뿐만 아니라 인근 시장에 까지 큰 타격을 미쳤다. 상인들은 위기의식을 갖고 대처하려 했으나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정확히 몰라 우왕좌왕했고, 시장은 급속도로 쇠락하였다. 역전시장은 건물 내부는 공산품 시장으로, 외부에 접한 점포는 1차 상품을 판매하는 곳으로 시작하였다. 그런데 수원역 역사에서 쇼핑하고, 음식 먹고, 영화 보는 것이 모두 가능해지니 사람들은 일부러 건너편 전통시장까지 나오지 않게 되었다. 롯데몰과 AK플라자는 전통시장 상인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2014년 역전시장 등 22개 전통시장 상인회와 상생협력을 약속하고 보상금 명목으로 상인회별로 기금을 지급하였다. 당시 역전시장 상인회는 기금 사용을 둘러싸고 의견이 나누어지는 바람에 내용을 겪기도 했다. 결국 도배, 장판 시공, 테이블 교체 등 시설 보수·개선, 영업에 필요한 집기 구입 명목으로 각 점포당 300만 원가량씩 배분하였다. 나머지 기금은 수도, 전기, 화장실, 냉난방 등 공용시설 정비와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다. 발 빠른 상인들은 새롭게 들어선 백화점에 의존하는 형태로 품목을 전환하였다. 맞춤옷이나 숙녀복을 취급하던 점포는 백화점으로 고객이 이동하자, 백화점에서 기성복을 구입한 사람들을 상대로 하는 수선집으로 업종을 전환하였다.

김용진 먼저 뉴코아가 들어오고, 남문 상권도 많이 피해를 입었구요. 역전시장은 1차 상품은 시장 외관에만 있는 상품이었고, 의류판매점이 태반이었고 의상실 15개가 있었어요. 물건을 직접 떼 파는 게 아니라 손님이 오면 맞춤옷을 판매했어요. 의류 쪽으로 호황을 누리던 시장이었으나 AK가 들어서면서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 시기에 상인들도 위기의식을 갖고 있었으나 뭘 해야 될지 몰랐어요. 알려주는 사람도 없었고, 우리 스스로 무엇인가 배워서 달라져야겠다는 말을 했지만 구체적으로 뭘 배우고 어떻게 달라져야 할지는 잘 몰랐습니다. 하루하루 한숨만 늘어가는 시간을 보내다가 완전히 무너지게 되었어요. 한 달 매출의 70~80%가 날아갔습니다. 이에 따른 순이익을 계산해 보세요. 그래서 지금처럼 가게가 많이 비게 되는 상황이 왔습니다.

1987년부터 가방 가게를 운영하는 이종신은 예전에는 주부, 직장인, 학생이 골고루 찾아오던 시장이었는데 지금은 중국인 동포, 외국인 노동자, 관광객들이 더 많이 온다고 했다. 지난 몇 년 사이 수원에 외국인과 다문화 가정의 기하급수적으로 늘면서 소비의



점포 임대자를 찾는 전단지



1층 복도



2층 복도



3층을 사용하는 제일전기직업전문학교

한 축을 이루게 된 것이다. 백화점에 먼저 갔다가 가격이 높아 사지 않고, 역전시장에 와서 비슷한 물품을 골라 사는 고객들도 있다고 한다.

이종신 백화점에서 옷을 산 사람들이 역전시장 수선집에 와서 옷을 고쳐서 갑니다. 백화점에서 비싼 캐리어를 보고 여기에 와서 비슷한 것이 훨씬 더 싸다며 사고 갑니다.

수원을 포함한 경기 일대 소비자들의 눈높이와 소비 성향도 달라졌다. 예전에는 부모와 동행하여 부모가 골라 주는 대로 물건을 샀던 중고생들이 이제는 본인들의 취향에 따라 선택하고 브랜드를 따지는 시대가 되었다. 학생들은 같은 연령대의 친구들과 어울려 쇼핑을 하고, 유명한 브랜드가 입점해 있는 대형쇼핑몰이나 백화점을 선호하였다.



다문화푸드랜드에 있는 몽골 음식점



다문화푸드랜드에 있는 캄보디아 음식점



다문화푸드랜드에 있는 타슈켄트 식당



지하 노래연습장

이종신 예전에는 학생들이 부모 뜻대로 시장에 따라와서 물건을 샀으나 요즘은 본인 개성대로 삽니다.

김웅진 메이커가 아닌 동대문에서 물품을 사와서 싸게 파는 분들, 소비자들의 심리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어요. 십 몇 년 전부터 한창 브랜드를 선호하면서 시장에서 물건 살 돈에 좀 더하여 브랜드를 사는 분위기가 되었어요. 마트가 생기면서 야채, 생선 등을 거기에서 사게 되었어요. 진열도 깨끗하고 친절하게 서비스 해 주니까 좀 비싸더라도 대형마트에서 사자, 지저분한 재래시장보다는 깨끗한 대형 마트에서 서비스를 받으면서 살자는 심리가 생겼어요, 이를 다시 되돌리기에는 너무 힘들어졌습니다.

상인들이 하나 둘씩 떠나면서 빈 점포가 증가하였다. 역전시장 지하 1층은 주로 먹거리타운으로 조성된 곳이었다. 회 타운이 형성되어 한때 많은 고객들이 찾아왔으나, 여름

철에 간혹 식중독 사고가 발생하면 대상이 급격히 떨어졌다. 소규모 영세 상인들은 영업을 중단하거나 다른 곳으로 이전하여 업종을 바꾸었다. 회 타운이 없어지고, 인근 대학생들을 주요 고객으로 하는 순대타운이 형성되었다. 그런데 서울에서 수원의 대학까지 직통으로 오는 서틀버스가 생기고, 서틀버스 정류장이 이동하면서 학생들이 찾아오는 빈도가 줄어들었다. 상인회에서는 지하 1층 점포를 모두 철수하여 공간을 정리한 후, 새로운 업종이 들어올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기울였다. 그 결과 경기도와 수원시로부터 3억 5,000여 만 원의 예산을 투입받아 2011년 7월 지하 1층에 724㎡ 규모로 '다문화 푸드랜드'가 개장되었다. 경기도는 역전시장 일대를 젊은이와 다문화 가족을 위한 '만남과 소통의 장'으로 만들어 전통시장의 재탄생을 통한 시장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 나가고자 하였다. 빈 점포를 리모델링하여 베트남, 러시아, 중국, 태국, 몽골 등 5개 음식점이 입점하였다.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에게는 자국의 음식을 맛보게 하고, 시민들은 외국의 전통음식과 문화를 체험하면서 침체한 시장 경제를 활성화하자는 취지였다.¹⁾

김웅진 전담 직원을 한 명 채용하여 건물주를 설득하는 작업을 2년간 진행하였어요. 코리안 바비큐를 유치하려고 했는데 MOU 체결을 앞두었으나 지하라서 사업성이 없다는 이유로 계약이 되지 않았습니다. 근 10년간 안 쓰던 공간이라서 다 철거를 해 놓고 추진사업을 시행하자, 다문화푸드랜드가 들어서는데, 수원시 시장, 경기도지사 등이 시장을 한 바퀴 둘러보다가, 한 쪽 공터를 보더니 "역전에 다문화사람들 많이 오니 한 글아카데미 등을 유치해 보자, 문화교육, 한국 적응 훈련을 하자." 그러나 이미 종교 기관 등에서 이를 하고 있었죠. 그럼 "만남과 화합의 장으로 만들자." 시에서 내부 시설 등을 지원해 줬고, 공모를 하여 뽑아서 입점을 시켰어요. 역전시장에서는 자리 잡을 때까지 임대료를 유예해 준다고 소유자들을 설득하여 1년간 임대료 없이 영업하게 해 보자, 2년은 70%, 3년째부터 임대료를 받는 것으로 하자고 했습니다.

조성 당시 대대적 홍보와 상인들의 기대 속에 화려하게 출발한 다문화푸드랜드는 3~4년이 지나면서 침체기를 맞았다. 식당의 고객이 주로 외국인 근로자였는데 이들은 퇴근길 혹은 주말에 동료들과 어울려 음식과 술을 즐겼고 그 끝에 다툼이 일어나기도 했다. 외국인들이 집단으로 몰려 있는 곳이다 보니 치안을 위해 경찰이 자주 방문하였다. 외국인 노동자들 중에는 불법체류자도 꽤 있었기에 이들은 경찰이 종종 순찰하는 다문화



역전시장 B동과 수원역, AK프라자를 연결한 육교

푸드랜드 출입을 꺼려하기 시작하였다.

김용진 외국인 근로자 등 다문화 손님들이 몇 번 싸우게 되고 언론에 보도되면서 우범지대처럼 알려지고 경찰이 자주 오니까 고객들도 안 오게 되었어요. 근로자들 중에 불체자도 있기에 경찰이 상주하면 고객들이 단체로 안 오게 되었어요. 점점 장사가 안 되게 되었어요. 오는 사람마다 신분증 검사를 하게 되었어요. 수원역에서 강력사건이 일어나고 경찰이 순찰하면서 손님들도 줄어들었어요.

상황이 이러하다 보니 역전시장에는 내국인이든, 외국인이든, 젊은 층이 유입되지 않았다. 젊고 행동력 있는 상인들은 많이 떠나고, 가족을 부양할 책임에서 어느 정도 벗어나서 소일거리 삼아 일하는 고령의 상인들이 점포를 지키고 있다. 장사가 잘 되면 상인들도 자녀에게 가게를 물려줄 텐데 시장이 침체되다 보니, 자식을 불러들이지 않았다. 상인들의 평균 연령이 60대 중반에 달하며, 고객도 점점 고령화되었다. 젊은 주민들, 유



수원역전시장 상인회 창립4주년 기념식

동 인구들이 보다 쉽게 역전시장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역전시장 B동 상가와 이웃하는 오피스텔, 수원역을 연결하는 육교도 만들었지만 큰 효과가 없었다.

김용진 고령화되어 가는 이유가 내가 시장에서 힘들게 장사해 왔으니 자식들은 더 잘 되어야겠다. 공무원이나 회사원처럼 주5일 근무가 없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월가 합니다. 그런 자신의 삶을 자식에게 물려주기 힘듭니다. 실제 자기 점포에서 일하는 분이 20% 정도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임차인이예요. 내가 영업을 하는 내 가게가 내 모든 생활의 터전이라는 절박한 마음, 손님을 대하는 태도, 절실한 마음을 가지고 해 왔으면 좋겠는데 지금은 그렇지 못합니다. 대부분 부업이나 소일거리 삼아서 나와요.

심만자 1985년에는 빈 점포가 하나도 없었고 서로 계약하려고 했습니다. 지금은 문 닫은 점포가 연 점포보다 많아요. 관리비도 부담 됩니다. 냉난방 관리비 비율이 높아요. 지금 단골들은 젊을 때부터 오던 사람들이예요. 장사하시는 사장님들 나이가 60대 중반이 평균 연령이예요. 단골들도 이 나이입니다.

상권의 쇠락과 노화 속에 역전시장은 한마디로 위기를 맞이하였다. 상가 자체가 안고 있는 구조적 문제와 외부 경쟁자의 진입에 대처하지 못하여 뒤쳐진 경쟁력이 오늘날 발길 끊긴 한산한 시장의 풍경을 가져온 것이다. 이는 역전시장뿐만 아니라 많은 전통시장들이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심각한 현실이다.

4. 기로에 선 역전시장, 도약을 꿈꾸다

전통시장의 쇠락은 피할 수 없는 문제일까? 한국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소비패턴의 변화, 접근성의 한계 등으로 전통시장의 입지는 좁아지고, 온라인 쇼핑몰과 대형 마트로 수요가 점차 몰리고 있다고 한다. 역전시장은 특히 주변에 백화점과 대형 쇼핑몰이 속속 입점하면서 침체가 가속화되었다. 역전시장은 상인 본인들이 주체가 되어 활성화를 꾀하고 있다. 그런데 상인들 상당수가 70대 이상의 고령이고, 점포 중에 비어 있거나 창고로만 사용 중인 곳이 많은데다가, 주변에 입점한 경쟁업체들이 워낙 대형 상권들이라 보니 어떻게 활로를 모색해야 할지 방법을 찾기 힘들다고 한다. 재건축을 추진해 젊고 새로운 쇼핑몰로 거듭나자는 의견과 대기업에서 시장을 인수하길 희망하는 의견도 있다.

역전시장은 1969년 법인시장을 설립했고, 상인들이 주주이기에 상인회와 주식회사를 일원화시켜 상인회장이 주식회사 대표이사를 맡고 있다. 상인회장 겸 역전시장(주) 대표이사인 50대 초반의 김웅진과 몇몇 상인들은 전통시장 중 활성화에 성공한 사례가 있으면 먼 길을 마다않고 견학 가서 자문을 구하고 있다. 이들은 시장 법인이 보다 큰 권한을 가져서 상가 구획정리와 새로운 업종 유치까지 추진할 수 있길 희망한다. 고민하고 행동하는 상인들의 숫자가 늘어나야 시장도 변화할 것이라고 말한다.

김웅진 80~90%의 상인들은 관망하는 상태이고, 몇몇 상인들은 주도적으로 고민을 합니다. 선진시장에 답사도 가고 성공담에 대한 이야기도 듣습니다. 그 시장들이 활성화되기 위해 상인들 개개인이 얼마나 노력하고 고생하였는지를 듣습니다. 현재 매장에서 반 정도는 빼야 합니다. 창고로 쓰고 있는 매장이 많이 있습니다. 백화점이나 밖에서 장사하는 분들이 이곳 상가를 창고로 씁니다. 소유주 입장에서는 월세를 받는다면 어떤 용도로 임대할지 큰 상관없어 합니다. 창고보다는 새로운 업종을 유치시켜서 활



역전시장 A동과 B동

성화시키고 싶습니다. 주주총회 때 주주들이 180명 정도 됩니다. 한 분이 점포를 여러 개 가진 분도 있습니다. 총 점포수가 243개입니다. 1층 점포에 대한 임대권과 관리권을 법인에 맡겨 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법인에서 1층을 관리하면서 임대차 계약을 다시 하면서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개개인의 실질적 소유권을, 하다못해 상가 구획정리라도 하고 새로운 업종을 유치하고 싶은데 그걸 못 합니다. 법 인에서 할 수 있는 권한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시설 개보수, 상인들 공과금 납부관리 외에는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시장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시도하고 싶은데 이를 할 권한과 방법이 별로 없습니다.

상인들은 역전시장의 위기를 가져오는 요인들이 계속 대두되고 있다며 염려한다. 수원역 롯데몰 건너편에 KCC가 대형 판매시설을 조성 중이며, 수원역에서 장안구청까지 6.1km 구간에 전기선 없이 배터리로 달리는 트램(노면전차) 도입이 추진된다는 소식이 있다. 이렇게 될 경우 지역 상인들은 상권 붕괴가 가속화될 거라고 우려한다. 수원역 일 대에 환승센터가 들어서면서 대형 백화점으로 향하는 접근성이 높아져 기존 상권의 매출 이 더욱 저하되었다고 한다. 수원 주민의 입장에서 보면 환승센터의 건립으로 만성적인 교통체증이 해소되고, 빠르고 편리한 환승체계를 누릴 수 있다. 반면 지역상인 입장에서 는 환승 위치가 바뀌면서 유동인구가 줄어들어 영업에 지장이 발생하는 것이다. 특히 도

로변에 위치한 상점 대부분이 버스를 타고 내리다가 들리는 손님들로 명맥 을 유지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수원 시는 수원역환승센터로 곧바로 연결 하려던 계획을 일부 수정해 14개 노 선(58대) 버스를 수원역 주변 세평지 하차도에서 역전시장 정류장을 경유 해 환승센터로 들어가도록 했다.²⁾ 역 전시장은 유동인구가 많고 사통팔달 교통의 요충지인 수원역 덕분에 시장 이 형성되고 발전하기까지 많은 도움 을 얻었다. 그렇지만 지금은 바로 그



수원역-장안구청 간 트램 구간

수원역의 맞은편에 있다는 이유로 대기업의 물량 공세와 교통정책에 따라 큰 부침을 겪 고 있다.

역전시장 상인들은 분당선 연장선 수원역 지하철역이 생길 때 출입구 공사 때문에 역 전시장 홍보도구인 입간판이 철거되는 상황을 겪었다. 당시 상인들은 손해를 감수하며 이를 수용하였다. 그러나 막상 지하철이 개통되자 지상을 이동하는 인구가 줄어서 상인 들의 마음을 더욱 무겁게 만들고 있다. 수원 시민으로서는 분당선 지하철역 개통을 축하 해야 했지만, 이 때문에 시장 상권은 더욱 힘들어졌다는 고충을 토로하였다. 옛 추억을 느끼기 위해 전통시장에 들르는 사람들을 환영하지만, 막상 매출로 이어지지 않으면 상 인들 입장에서는 오히려 번잡스럽고 힘만 들 뿐이라고 한다. 이렇듯 상인들은 지역의 이 익과 주민들의 편의를 꾀하는 것이 본인들의 상권을 수호하는 데는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는 딜레마에 빠져 있다. 그러다 보니 상인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시위를 하거나 집단행동을 하는 데 신중해질 수밖에 없다. 새로운 고객이 오지 않더라도, 오랜 단골들 과의 신뢰를 계속 지켜 나가기 위해 개점시간과 영업시간을 준수하려고 노력한다. 시장 이 큰 도로에서 떨어져 있어 일반인들이 시장 존재를 모르고 지나치니 역전시장 입구에 문화광장이나, 볼거리가 조성되어 지나가던 사람이라도 들리길 바라는 마음이다.

김웅진 전통시장을 오게 되는 상황은 옛날 어렸을 때의 추억을 다시 느껴보기 위해서 지요. 오더라도 옷이나 신발을 사지 않습니다. 먹거리 음식 하나 사고 구경 한 바퀴 하고 돌아가는 상황이에요. 상인들의 매출과 직결되지는 않습니다. 관광상품으로 연계하여 사 람을 많이 불러들일 수는 있더라도, 품목은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정부나 정치인들이 수 많은 전통시장과 서민들을 모두 아우를 수 없다는 것을 압니다. 대형마트의 등장으로 국민들이 편리해진 면도 있다고, 그 장점을 인정합니다. 비싼 금액을 감수하고서라도 가 고 싶다는 장점이 있다는 걸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소상공인들이 장사가 안 되면 지역 경제도 무너지기 시작하지요? 서민 경제, 지역 시장도 활성화가 되어야죠. 시장 상인들 중에서도 나름 조직화되고 의식이 깨어 있는 사람이 나서서 목소리를 외치고 요구 사항들을 주장 합니다. 1970년대는 10평 대 가게가 1억이 넘었어요. 지금은 7천~9천 만 원일걸요? 40년 전 1억 넘어가던 가게가 지금 더 떨어졌어요. 상권이 얼마나 죽었는지를 증명합니다.

심만자 1985년에는 빈 점포가 하나도 없었고 서로 계약하려고 했어요. 지금은 닫은 점포가 연 점포보다 많아요. 손님들이 좀 많이 와서 활성화되면 좋겠습니다. 아침 8시



역전시장

에 문을 열어도 밤 8~9시까지 개시도 못 하는 가게들도 있어요. 그래도 혹시 오랜 단골이 왔다가 발길을 돌릴까봐, 잠시만 자리를 비울 때도 유리창에 곧 돌아온다고 종이를 붙여 놓고 가요. 손님과의 약속을 지켜야죠.

휘황찬란한 주변 상가 대신 그래도 꾸준히 역전시장을 찾는 이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매산동 토박이로 대한대우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다는 한 70대 단골 고객은 역전시장에서 마음의 푸근함을 찾아간다고 말한다.

저는 태어나서 지금까지 계속 수원에 살았어요. 역전시장의 오랜 단골이죠. 요즘 생기는 가게들에 들어가면 주인은 안 보이고, 아르바이트생만 계속 바뀌더라구요. 1~2년에 한 번씩 가게들이 바뀌는 거 같아 정신이 없어요. 단골이 될 수도 없구요. 너무 삭막하죠. 역전시장은 몇 달에 한 번씩 오지만 그래도 주인이 그대로 있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신발가게에 오면 제가 뭘 살지, 발이 어떻게 생겨서 어떤 신발을 신어야 편할지 사장님이 다 아십니다. 전 이런 시장이 좋아요.

매산동 역전시장의 5년 뒤, 10년 뒤 모습은 어떠할까? 대기업에서 인수하여 깔끔하고 세련된 모습으로 변신했을 수도 있고, 노후하고 쇠락한 채 제품 창고로 근근이 명맥을 이어 갈 수도 있을 것이다. 상인 몇몇의 노력만으로 급변하는 유통환경과 시대의 흐름을 거스르는 건 쉽지 않다. 역전시장이라는 이름 자체가 아예 없어지거나 잊힐 날이 머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그렇지만 역전시장이 걸어온 70년 발자취는 매산동 주민에게도, 수원의 시민에게도 소중하게 기억되고 기록되어야 할 역사의 한 부분이다. 형편이 어려우면 외상을 통해 명절 새 옷과 새 학기 책가방을 마련할 수 있던 곳, 상인과 고객이 서로 돕고 나누며 장을 봤던 소박했던 그 시절 그 장소. 수원역 맞은편 골목 안 역전시장은 오늘도 과거의 영광을 간직한 채 내일을 꿈꾸며 희망의 불씨를 되살리려 한다.

- 1) 「수원 역전시장 '다문화 음식 한 자리에서 맛본다」, 『수원시민신문』, 2011년 7월 26일.
- 2) 「수원역환승센터 개통 '진통'... "버스노선 줄어 상권 침해"」, 『연합뉴스』, 2017년 6월 8일.



김연희 서울시립대학교 국사학과 박사과정

제2장

매산시장 골목을 누비다¹⁾

1. 매산시장에서 만난 사람들

수원역은 기차가 지나고 한때 지하철 1호선 종착역이었던 곳, 그리고 지금은 1호선과 분당선이 교차하는 곳, 역사 내에 대형 백화점이 입주해 있는 곳이다. 화려한 이미지로 변신한 수원역 앞에 전통시장이 있다는 것을 도저히 상상하기 어렵다. 그것도 수십 년이 되었다니 이름만 시장이고 상점이 즐비한 곳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 법도 하다. 그런데 수원역과 그 주변 도로변의 변화함을 뒤로한 채 매산시장은 시장의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다. 천장에는 천막을 쳐서 햇빛을 가리고, 도로 일부를 점유하기도 하여 판매대를 설치해 물건을 진열해 둔 그 모습 그대로이다.

이런 매산시장 여러 상인들을 만나 매산시장에 대한 여러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제일 먼저 만난 신동호 매산시장 상인회 사무국장은 1969년 화성시에서 태어났고, 고등학생 때 수원으로 유학을 왔다. 학교를 졸업하고 디자인 계통 업무를 담당하다가 2008년 팔달문시장 파인아트거리 경관조명 작업을 수행하면서 시장과 인연을 맺었다. 2009년 팔달문시장에서 일을 하다가 2015년부터 매산시장 상인회 사무국장으로 일하고 있다. “웬만한 중소기업에서 여러 명이 담당하는 일”을 혼자 처리하고 있다는 그의 말처럼 시장 안 내방송부터 가게 홍보 전단지 작성, 각종 지원사업 안내, 이벤트 행사 운영에 이르기까



1위 정직한 중고차 여성딜러
诚实二手车买卖女经销商
저가판매 / 최고가매입
低价收购 / 高价收购二手车

酥软香甜
李家麻花
千层香酥夹馅麻饼
现炸现卖
010-3926-8210 本店

炸现卖
李家麻花
010-3757-9838

완득수산
생선
해물
010-3757-9838

이군도파배기
010-3757-9838

완득오리
완득오리
완득오리

별미떡집
T.241-9444

가림
각종전류
일일
공정
판매

황금식자재

전
안
건설업
건설업



할머니생선 이희현



지 종횡무진 시장을 누비고 있다.

이희현 할머니생선 사장은 현재 85세이다. 수원시 출생으로 결혼하면서 미군부대 관련 일을 하던 남편을 따라 부산에 가서 살다 서울시 회현동으로 올라왔다. 아들 하나와 딸 하나를 두고 있으며, 수원으로 돌아온 후 처음에는 현재 가게 앞의 노점에서 과일장사를 시작하였다. 남편과 사별한 후 과일 껍질을 혼자 실어나르는 것이 힘들어서 생선장사로 전업하였다. 아침 8시경 출근하여 배달된 생선을 진열하고 판매하기 시작하여 저녁 8시나 9시가 되어야 집으로 돌아간다. 먹고살기 바빠서 언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 안 나고 “그냥 그렇게 살았다.”

박권상 명신야채 사장은 1954년 전라남도 담양시에서 태어났다. 학교를 졸업하고 서울시 구로구 독산동에 있던 염색기 만드는 공장에서 일하다가 1985년 결혼하였고, 딸 하나와 아들 하나를 두었다. 1990년 4월 30일 수원으로 이사 와서 아내는 누나와 함께 명신야채 가게를 하였다. IMF 때 회사를 그만둔 후 명신야채에서 일하게 되었다. 누나는 다른 곳에서 장사를 하고 부부가 온전히 명신야채를 운영하게 되었다. 아침 7시경 권선시장에 가서 판매할 야채를 사와서 진열하고 장사를 하다가 저녁 10시 다 되어서 귀가한다. 시장에서 일하는 시간이 길어 “노동량이 엄청나다.”고 말한다. 명신이라는 이름은 가게를 함께 하던 누나의 자녀, 즉 조카의 이름이다.

허정숙 영진상회 사장은 1957년 경기도 수원에서 태어나서 결혼 전까지 고색에서 살았다. 1982년 ‘두 정거장 차이’인 경기도 화성 출신의 남편과 결혼하여 아들 하나가 있다. 섬유회사에 다니던 남편이 1989년 대구로 발령이 나면서 잠시 대구에서 살다가 혼자 올라왔다. 잠시 속옷장사를 하다가 남편이 수원으로 올라오면서 1990년 5월에 현재 영진과일 자리에서 생선



명신야채 박권상





영진상회 허정숙

장사를 시작하였다. 1~2년 후부터 지금까지 영진과일을 운영하고 있다. 아침 8시가 지나서 가게를 열고 저녁 10시 30분이나 11시가 되어 귀가한다. 가게의 과일들은 전국 각지를 다니는 후배들이 공급해 주고 있다. 영진이라는 이름은 남편과 아들의 이름 중간글자를 하나씩 따서 만들었다.

이준철 홍성상회 사장은 1960년 중국 흑룡강성에서 태어났다. 집에서는 조선말만 쓰게 한 부모님 밑에서 누나 한 명, 여동생 한 명과 자랐다. 2006년 외삼촌의 초청으로 한국에 왔고, 경기도 성남 등지에서 대리석 붙이는 일을 하며 생계를 유지하였다. 2012년 중국 한족 출신의 부인과 만났고, 2013년부터 중국 식료품 가게인 홍성상회를 운영하고 있다. 한국이 “그냥 편안하다.” 홍성상회는 이전 사장이 붙인 이름으로 바꾸지 않고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

2. 매산시장의 형성

수원의 전통시장은 화성의 팔달문에서 수원역에 이르는 구간에서 서로 접하거나 인접하여 형성되어 있다. 이 때문에 여러 개의 시장으로 분리되어 있지만, 주민들은 그 시장들을 하나로 인식하기도 한다.²⁾ 매산시장과 역전시장도 그런 예에 해당하는데, 두 시장은 수원역 건너편에 연접하여 형성되었을 뿐만 아니라, 역전시장이 1948년 설립 당시에 매산시장으로 불렸다가 1969년 9월 역전시장으로 명칭을 변경하였기 때문에 더욱 혼동하기 쉽다.³⁾ 그러나 현재 매산시장과 역전시장은 엄연히 다른 시장이며, 상가형 ‘역전시장’과 노점형인 ‘매산(재래)시장’으로 구분되어 운영되고 있다.

신동호(매산시장 상인회 사무국장, 1969년생, 화성시 출생) 역전시장은 저기 건물 있죠? 그 울타리 안에서 상인하는 사람들이 모아서 건물을 하나 만든 거지. 거긴 주식회사를 하면서 만들어진 거야. 주변에 상권들이 남아 있잖아요? 여기는 그 상권들이 계속하다가 여기서도 상인회 조직을 해서 매산시장이라는 상인회 명칭을 단체등록을 하고 시에다가 등록을 하고 인정시장을 받은 거지. 그러면서 매산시장 상인회라는 게 만들어진 거고

매산시장 일대는 1905년 경부선 수원역이 들어서고 1930년대 개통한 수려선과 수인선이 수원역을 기점으로 삼으면서 서해안의 소금을 비롯한 해산물과 여주 일원의 쌀이 수원역을 경유하여 집산하는 등 물산의 경유지로서나 지역경제의 중심지로서 지닌 위치가 확고해졌다.⁴⁾ 이에 일제시기부터 수원역 앞으로 상권이 발달하여 상점가가 형성되었다.

그러던 중 해방 후인 1948년에 매산시장(현 역전시장)이 설립되었는데, 이 시장은 1969년 9월 역전시장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법인화한 후 종합시장으로서 면모를 갖추었다. 이렇듯 수원역 앞 매산시장(현 역전시장)이 성장함에 따라 매산시장이라는 명칭은 수원역전 일대의 상권을 통칭하는 의미로도 사용되었다.

수원역전 일대의 상권 성장과 함께 1950~1960년대에는 노점상이 늘어났다. 현재의 매산시장은 이런 노점을 중심으로 시작되었는데, 이미 시장 건물이 있던 역전시장 주변에 역전시장에 포함되지 않은 상점들이 모여 상인회를 조직하였다. 이때 매산동에 있는 시장이라는 의미에서 ‘매산시장’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이희현(할머니생선 운영, 85세, 수원시 출생) 매산시장(현 역전시장)이 옛날부터 있었지. 여기가 매산시장이고 여기는 시장이 아니었어. 여기는 아니었고 집들만 있었어. 근데 가게들을 꾸민 거지.

매산시장이 자리한 곳은 원래 개천이 있었다. 지금은 가운데 개천을 복개하여 도로가 생겼고, 도로를 기준으로 양 옆으로 상점이 이어진다. 허정숙 사장은 어린 시절에 성당을 다니기 위해 이곳 개천을 건너다녔는데 결혼을 하고 1989년 장사를 시작하였을 땐 개천은 이미 복개가 되었다고 한다.



매산시장 자리로 흐르던 개천(역전시장 제공)
개천을 복개하여 도로를 만들었고, 도로 양 옆으로 매산시장이 자리하고 있다.

허정숙(남편과 함께 과일가게인 영진상회 운영, 1957년생, 수원시 출생) 여기가 복개하기 전에 저 앞쪽은 개천이었는데, 개천은 저 어렸을 적에 개천이었어요. 내가 요만했을 적에 (여기를 지나다녔어요). 왜 그러냐면 성당 가기 위해서. 고색리는 천주교가 없고, 강당이라고 신부님이 안 계시니까 글로[그곳으로] 걸어 댕졌지. 그때는 개천이 있어서 갠실히 왔다 갔다 하다가

복개된 후 시장에는 변화가 생겼다. 노점상은 복개한 도로 가운데서 장사를 하였고, 꽤 오랜 기간 남아 있었다. 시장권역을 나눌 때 2구역 가운데 농민유통이라는 마트가 있는데, 그 주변에 노점상이 있었다. 현재 약국이 있는 시장 입구, 1구역에도 한중막 건물이 생기기 전까지는 노점상이 다수 존재하였다. 노점상은 수원 인근 지역의 농민들로, 본인이 농사지는 상품을 주로 팔았다. 그 외 닭이나 생선, 보리차 등 고객들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개천이 흘렀던 매산시장 자리(수원시정연구원 제공)

종류의 물건을 팔았다. 노점상의 과일과 야채는 유통과정을 거친 상점의 과일이나 야채보다 신선하다는 점을 부각시켜 장사를 하였다. 그래서 때로는 상점 상인들과 갈등을 빚기도 하였다. 노점과 경쟁해야 하고, 물건이 덜 팔리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노점상의 상품을 사러 왔다가 가게에 들어와 물건을 사가는 경우도 많아서 도움이 되는 측면도 있었다.

허정숙 노점상은 있었어요. 지금 농민유통 앞에 거기 가운데 다~ 있었어요. 다 있고 여기[영진과일 앞 골목길]도 노점상 짝 앉아 있었어요. 시골 아줌마들이 앉아야지만 장사가 된다는 사람도 있는데, 사실 시골 사람이 갖고 오면 비싸도 신선하잖아요. 왜 그러냐면 거기는 3일을 보관할 수 있으면 우리는 일 이틀밖에 못 해. 과일도 마찬가지로. 시골에서 바로 따온 건 맛은 덜해, 숙성이 안 돼서. 근데도 신선하니까 막 팔리는 거야. 그래서 (노점상한테) 가서 팔면 안 된다. 가게 사람 어떻게 하나? 싸우기도 했어요. 그래서 댄 데로 쫓고 (쫓으면 그 자리에) 댄 장사가 들어오고 그러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시골 사람 보면서 오면 팔잖아.

…… 구루마 하나에다 놓고 보리차면 보리차대로, 뽕튀기 팔고. 그리고 약국 앞에서 생선도 팔았어요, 바닥에서 깔아 놓고. 그리고 튀김 솥 갖다 놓고 튀김도 팔고 호떡도 팔고. …… 여기서[영진상회 앞]부터 저기까지 시골 아줌마들이 짝~ 앉아 있는 거야, 담이니까.

복개 후에도 가게를 빌려 놓고 노점에서 장사를 하기도 하였다. 가게는 창고 겸 가정집으로 사용하고 노점에서 여전히 장사를 하였다.

이희현 과일장사 노점에서 해다가, 가게는 얻어 놓고 이 자리에서. …… 여기는 창고 같이 쓴 거예요. 잠만 자고.

1980년대에는 1986년 서울아시안게임과 1988년 서울올림픽이라는 양대 체육행사를 앞두고 미관 저해 등을 이유로 전국적인 노점상 단속이 진행되었다. 노점상들이 전통시장 주변에 다수 분포하기 때문에 노점상 단속은 전통시장에도 영향을 미쳤다.⁵⁾

노점상 단속은 미관 저해뿐만 아니라 소방안전 문제 때문에 진행되었다. 교통량이 증가하고 시장이 커지자 화재를 대비한다는 명목으로 소방도로 단속을 위해 소방관이 단속



1980년대 매산시장 일대 노점(역전시장 제공)

을 나오기도 하였다. 이희현 사장은 소방도로에서 노점하는 상인들을 단속하기 위해 출동한 소방관에 대해서 기억하고 있었다.

이희현 소방도로니까 여기서 복개해구 소방도로니까 행길로 못 나가서 안에서 장사 하잖아. 그 전에 노점에서 하던 버릇이 (있어서), 저거 복개해고도 노점에 있었어. 있어 가지고 장사하면 소방서가 (단속)오면 죄 끌어들이고 퍼 주고. 소방수들이 뭐라 그러는지 알어? 우리 가면 또 내놓고 팔라고.

단속이 진행되기도 하였지만, 노점상이 사라진 데는 다른 이유가 있었다. 대형 건물이 들어서기 시작한 것이다. 건물들이 건축되면서 노점상이 노점을 펼칠 공간이 부족해졌기 때문이다. 한중막 건물이 들어오고 우면로도 건물이 건축되고 그 외에도 다른 건물들이 세워지면서 더 이상 노점을 펼 자리가 없어졌다. 물건을 팔 수 없게 된 것이다. 대대적인 단속 작업을 벌이고 보상을 해 주어서 노점이 없어진 것은 아니다. 노점상은 더 이상 장



- 수원피혁
- 호수호프
- 수정방앗간
- 풍미정육점
- 주연유통
- 맘보노래방
- 장수건강원
- 가륜여행사
- 현대그릇
- 충고폰매장
- 숙이네옷방
- 베트남쌀국수
- 매산하나로축산
- 금백만면식점
- 매산부동산
- 매산시장 상인회 (화장실)

사람사는 이야기가 가득한

매산시장



- 황금식자재
- 가림식당
- 별미원떡집
- 디씨라이프
- 꽃화장품
- 매산축산
- 화성반찬
- 라화콩부
- 부산해물
- 부산상회
- 농민유통
- 망개노래방
- 수염부
- 삼아주단(유면로드)
- 엽기떡볶이
- 수춘치킨
- 신매산한우촌
- 두꺼비식당
- 두부장터
- 청솔한증막
- 매산식당
- 좋은빵만들기
- 이오미용실
- 아씨방
- 대원건강원
- 우리마트
- NC해어샵
- 매산분식
- 대림정육점
- 멋들
- 마다바름
- 역전BYC
- 희망야채
- 솔잎미용실
- 온달동당
- 홍성식품
- 또오래식당
- 명신야채
- 희망떡집
- 영진상회
- 주차장 (홍익스포츠)
- 강흔네

사를 할 수 없게 되자 스스로 떠나기 시작하였다.

허정숙 그렇게 있었다가 이쪽에 슈퍼가 들어오면서, 상가가 들어오고 차 다니니까 크게 보상을 해 줘서 없애고 그런 건 아니면서 스스로 갔어요. 그때는 상인회 조직한 것도 아니니까 자기들이 안 되고, 안 되겠으니까 물러나서 싹 없어졌더라구. 근데 이 건물이 헐리면서 이렇게 해서 오픈이 되니까 한층막이고 이거 건으면 오픈이 되니까 당연히 없어지지. 그래도 좀 사이 사이에 좀 앉고 그랬는데 그분들도 갈 데가 없으니까 가시더라구.

정부의 노점상 단속도 있었고 우리나라 경제가 전반적으로 호황이었던 덕분에 1990년대 후반까지는 시장에 손님이 많고 장사가 아주 잘 되었다. 그러다가 신도시가 생겨 인구가 분산되고 상권이 다양해졌으며, 대형 마트와 백화점, 인터넷쇼핑 등 상품 구매를 할 수 있는 공간이 다양해지면서 손님의 수는 많이 줄어들었다.

신동호 1995, 96년, 97, 98년 전까지는 장사들이 수원역하고 팔달문 쪽 같은 경우는 바글바글 했지. …… 예전에는 상권이 두어 군데뿐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다 여기 와서 생활했잖아요. 위성도시에서도 여기 오기 편하니까 많이 왔잖아. 그 뒤로 사회구조가 각종 대형마트들이나 뭐가 많이 생기면서 오는 손님이 빠진 거지. 그리고 전에 왔던 분들, 지금 버스 타고 다니시는 분들은 나이 드신 분들이지. 젊은 사람들은 편하고 바로 가까운 데가 뭐가 있으니까 그리로 많이 빠지니까.

박권상 부부의 이야기를 들으면 시장에 손님이 얼마나 많았는지 짐작할 수 있다. 그들은 자가용을 타고 다니고, 주차장이 갖춰진 대형 마트가 생기면서 전통시장에 오는 손님이 줄어들었다고 판단하였다.

박권상(명신야채 운영, 1954년생, 전라남도 담양군 출생) 이 골목 자체도 건물을 안 지었을 때 기와집일 때는 길이 좁았어요, (길이) 좁아서 명절 때는 사람들이 막 몰려다니면 이렇게 쳐다보고 저게 누구지? 할 정도로 몰려다니고 큰 시장이었는데 골목은 작지만 큰 시장이었는데, 지금 이렇게 집 다 지으면서 사람들 없어지고 길들이 뚝리니까 이쪽으로 나가고 저쪽으로 나가고. 그리고 차 가지고 다니고.

3. 매산시장의 상인과 이용객 현황

매산시장은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20번길 10(매산로 1가) 일대에 소재한다. 2010년 10월 2일 개설되었고 2011년 1월 7일 전통시장 인정시장으로 등록되었다. 공식적인 서류를 만들어서 시에 신청을 하는 작업이다. 그렇다고 처음 그대로 그 범위가 유지되지 않고, 새로운 가게는 생겼다가 없어지는 것을 반복한다.

신동호 등록할 당시는 이름하고 지역, 그 구역이 어디서 어디까지 주소를 신청을 해서 그 상황만 올라가요. 최초의 인정시장 시에 있는 데이터는 그 당시 올렸던 주소를 근거해서 그 면적을 해, 공식적인 서류는. 근데 그 뒤로 상인들이 활동을 하면서 회원이 좀 더 들어올 수도 있고 면적이 넓어질 수도 있고.

매산시장 현황도를 보면 복개한 도로가 중심도로인 일(一)자 거리이고, 그 아래쪽 골목에도 영업점이 존재한다. 역전시장과 인접한 골목에도 몇 개의 영업점이 분포하고 있다. 상인회에서 확인한 바로는 영업 점포 99개, 빈 점포 4개 총 103개의 점포가 있다. 종사자는 상인 99명, 종업원 73명 총 172명이다. 주요 판매 품목은 식자재, 농축수산물, 다문화 업종, 생활밀착상품이다. 품목별 비율을 보면 음식점이 30개로 가장 많고 가공식품, 농산물, 축산물 순이다. 시장 내에서 생활에 필요한 물품들은 거의 다 구매할 수 있을 정도이다.

〈표 1〉은 품목별로만 비율을 나누었기 때문에 다문화 업종을 알 수 없다. 하지만 현재 매산시장에는 15개의 다문화 영업점이 있다.

표 1 매산시장 품목 비율

(단위 : 개, %)									
구분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가공식품	의류신발	가정용품	음식점	기타	계
점포수	12	11	5	14	8	2	30	17	99
비율	12.1	11.1	5.1	14.1	8.1	2	30.3	17.2	100

출처 : 매산시장 상인회 제공.



매산시장 1구역



매산시장 2구역



매산시장의 판매 품목

신동호 현재 우리 시장에 등록을 하고 한 게 상가를 103개 기준으로 맞춰서 진행을 해서, 제가 올해 와서 정리를 한 게 103개에서 네 군데는 빈 상가 상황으로 가고 영업 점포를 99개로 가는데, 그 중에 한국 업종이 83개, 다문화 업종이 15개 상가로 정리가 돼 있어요.

〈표 2〉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매산시장 상인은 50대 이상이 50%를 넘고, 여성이 남성보다 훨씬 많다는 점이다. 젊은 상인들이 시장에 새롭게 유입되지 않고 기존 상인들의 연령이 증가하는 것이 아닐까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다. 전통시장의 이용자수가 점차 줄어들고 이용자의 연령이 높아지는 것이 그 원인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

매산시장에 있는 상점들은 사장 혼자 가게를 운영하거나 배우자와 두 명이 운영하는

표 2 매산시장 연령별·성별 상인 현황

(단위: 개, %)

연령	20대 이하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합계	남성	여성	계
종사자수	2	12	44	62	52	172	63	109	172
비율	1.2	7	25.6	36	30.2	100	36.6	63.4	100

출처: 매산시장 상인회 제공.

표 3 수원 주민들의 생활용품 구매장소

(단위: %)

	구분	대형마트	동네 슈퍼마켓	인터넷 쇼핑몰	전통(재래) 시장	기업형 슈퍼마켓	백화점	기타
성별	수원시	52.7	18.3	12.2	8.3	7.8	0.4	0.2
	남자	53.3	19.6	11.9	7.2	7.4	0.5	0.1
	여자	52.2	16.9	12.5	9.5	8.3	0.4	0.2
연령별	15~19세	44.0	20.5	24.5	4.5	5.7	0.3	0.5
	20~29세	45.2	19.8	27.1	1.1	6.3	0.5	0.0
	30~39세	63.1	9.2	15.7	3.0	8.6	0.4	0.0
	40~49세	64.5	11.3	7.7	6.7	8.9	0.9	0.1
	50~59세	56.6	19.7	4.2	10.5	8.7	0.3	0.0
	60세 이상	33.1	33.9	1.0	24.1	7.2	0.0	0.7

출처: 수원시, 『2017 사회조사보고서』, 2017, 121쪽.



매산시장 고객

경우가 대부분이다. 면담에 응해 준 명신야채, 영진상회, 흥성상회 모두 부부가 운영하고 있고, 할머니생선은 배우자와 사별한 후 사장 혼자 운영 중이다.

〈표 3〉은 수원 주민들이 생활용품을 구매하는 장소를 조사한 내용으로, 이 표에 따르면 대형 마트를 이용하는 주민이 50%를 넘고,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주민은 8.3%에 불과하다. 특히 연령별 이용 현황을 보면 49세 이하에서는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비율이 수원시 평균보다 낮다. 주로 50대 이상, 특히 60세 이상이 전통시장을 이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4〉는 전통시장을 이용한 적이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대한 결과로, 이 조사를 해 전통시장을 이용한 경험이 있는 시민이 38.7%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여성이 남성보다 전통시장 이용 경험이 많고 연령별로 볼 때 연령이 높아질수록 전통시장 이용 경험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 이 통계에 국적은 표시되지 않았지만 조사 대상자 대부분이 한국인임을 감안하면 매산시장 상인들이 한국인 손님은 별로 없고 외국인 손님이 많이 온다고 느끼는 것이 과언이 아님을 알 수 있다.

〈표 5〉는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이유에 대한 조사 결과인데 그 내용을 보면, 가격적인

표 4 수원 주민들의 전통시장 이용 여부

(단위 : %)

구분		있다	없다
수원시		38.7	61.3
성별	남자	34.6	65.4
	여자	42.8	57.2
연령별	15~19세	21.3	78.7
	20~29세	22.4	77.6
	30~39세	31.2	68.8
	40~49세	42.8	57.2
	50~59세	48.4	51.7
	60세 이상	57.6	42.4

출처 : 수원시, 『2017 사회조사보고서』, 2017, 121쪽.

표 5 수원 주민들이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이유

(단위 : %)

구분		대형마트 등 보다 가격저렴	근접거리 신속한 장보기	채소, 과일 등 신선	인심이 넉넉해서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휴무	기타
수원시		30.0	24.5	21.5	15.0	7.1	1.9
성별	남자	27.2	27.6	19.6	15.5	7.8	2.3
	여자	32.4	22.0	23.1	14.6	6.5	1.5
연령별	15~19세	23.2	34.3	21.7	4.0	11.8	5.0
	20~29세	22.2	51.1	13.3	4.7	4.6	4.1
	30~39세	27.7	29.4	21.2	9.5	11.4	0.8
	40~49세	28.0	19.9	27.3	14.6	8.6	1.5
	50~59세	33.7	19.0	21.3	17.2	6.4	2.3
	60세 이상	34.4	18.3	19.6	23.2	3.5	1.0

출처 : 수원시, 『2017 사회조사보고서』, 2017, 121쪽.

부분이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가장 큰 이유였다. 즉 대형 마트보다 가격이 저렴하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였고, 근접거리에서 신속하게 장을 볼 수 있다는 것과 신선도가 그 뒤를 이었다. 성별로 나누어 볼 때 여성은 가격적인 혜택을, 남성은 시간적인 혜택을 이용 이



매산시장 풍경

유로 들었다.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대형마트보다 저렴하다고 생각하였고, 반면 가까운 곳에서 신속하게 장을 볼 수 있다는 이유로 이용하는 것은 20대가, 신선하기 때문이라는 부분에서는 40대가 가장 높게 응답하였다.

〈표 6〉은 전통시장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를 조사한 결과인데, 전통시장을 이용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거리가 멀어서이다. 주차시설 불편, 원스톱 쇼핑을 하지 못하는 불편한 환경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이 조사 결과에서는 남성과 여성의 차이가 크지 않았다. 장을 볼 때 거리가 멀고, 물건을 많이 구매할 경우 차를 이용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주차장이 없는 전통시장은 주차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주차시설이 갖춰져 있는 대형 마트를 이용한다고 볼 수 있다. 이와 아울러 매산시장의 경우에는 화장실 등 편의시설이 없는 점도 손님들이 불편함을 느끼는 부분이다. 이를 상인들 역시 알고 있지만, 대책을 세우기는 쉽지 않다.

표 6 수원 주민들이 전통시장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

(단위 : %)

	구분	거리가 멀어서	주차시설 불편	원스톱 쇼핑을 못하는 불편한 환경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사용 하지 못함	기타	원산지 표시 신뢰성
성별	수원시	53.0	22.1	15.2	4.1	2.8	2.7
	남자	51.3	25.4	13.5	4.0	3.1	2.7
	여자	55.0	18.3	17.2	4.2	2.6	2.8
연령 별	15~19세	58.9	7.6	20.6	3.3	9.0	0.6
	20~29세	55.1	14.1	20.1	4.8	2.4	3.5
	30~39세	42.4	28.1	18.3	5.7	2.0	3.4
	40~49세	44.3	35.4	13.5	3.6	0.5	2.7
	50~59세	55.0	26.1	10.9	3.5	1.2	3.3
	60세 이상	76.4	11.2	3.6	2.1	5.3	1.4

출처 : 수원시, 『2017 사회조사보고서』, 2017, 121쪽.

신동호 시장에 공설주차장이 현실적으로 되게 힘든 일이야. 여기가 상권이 형성된 데들은 아무래도 아무리 예전보다 죽었다고 해도 평균적으로 주변과 비교해 봤을 때 여기가 딴 데보다 나은 상권이잖아요. 전체적으로, 그 얘기는 뭐냐면 땅값이 비싸다는 거야. 땅값이 보통 일반인들이 상상하는 이상이라고 보면 돼. 상상한 수준을 벗어나죠. 그러니까 여기를 매입해서 주차장을 만들기는 어렵지, 현실적으로.

시장 옆에 거주하는 상인들은 자기 집 주차장에 차를 세우도록 안내하기도 하지만, 주차문제를 해결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박권상 (다른 지역 우수 시장) 전학 가서 보니까 …… 정말로 딱 두 개로 꼽을 수 있는데 주차장 잘 돼 있고 공동화장실 잘 돼 있는데, 우리 매산시장은 그런 게 열악해. 저는 옆에 아파트 사니까 몇 동, 몇 호 이름 알려주면서 방문 왔다고 “말씀하세요.” 그런 식으로 하기도 해요.

매산시장 상인회에서 시장방문 고객에게 2015년 조사한 바에 따르면 주요 이용점포

및 방문 목적은 시장 주변 점포 50%, 시장 내부 점포 40%였고, 방문 목적은 가격이 저렴해서 24%, 집에서 가까워서 24%, 상인들이 친절해서 7%였다. 상품 다양성에 대한 만족도에서는 매우 불만 6.7%, 조금 불만 13.3%, 보통 38.9%, 조금 만족 18.9%, 매우 만족 22.2%였다.⁶⁾

4. 매산시장 상인회의 활동

고객들이 점차 대형 마트로 이동하고 상권이 약화되어 가자 매산시장을 살리기 위해 상인회에서는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표 7 매산시장 상인회의 활동

연도	내용
2010년	• 10월 매산시장 상인회 결성
2011년	• 1월 전통시장 인정 등록 • 맞춤형 교육 실시(졸업생 33명)
2014년	• 4월 상인 교육장 설치 • 상인대학 유치(졸업생 45명), 시장방송시스템 구축
2015년	• 공동마케팅, 그랜드세일, 블랙 프라이데이, 연말대행사 • 상인조직역량강화사업, 청년재능기부사업 : 시장 모바일 홍보 동영상제작 • 자동차 없는 날 행사 '추억의 저잣거리 축제' • 경기도 문화공연사업 '사랑의 김장 나눔 행사', 마케팅도비지원사업 '행복축제' • 소상공인경영환경개선사업(개별상가), 자체 회원상가 환경정비 • 상인리더 워크숍, 선진시장견학 상인워크숍(83명)
2016년	• 자동차 없는 날 행사 '시장에서 놀자', 수원역 시장거리축제 • 골목형시장육성사업, 청년재능기부사업 : 시장 벽화 사업 • 사물인터넷 신사업 'IOT 간판설치 사업' • 11월 26일 고객 미란다 산언문 발표 '시장에서 놀자 축제' • 소상공인경영환경개선사업(개별상가), 자체 회원상가 환경정비 • 상인연합회 워크숍, 선진시장견학 상인워크숍 3회
2017년	• 자동차 없는 날 행사 '추억의 저잣거리 축제', 청년재능기부사업 : 공연행사 • 경기문화공연사업 '사랑의 김장 나눔 행사' • 상인연합회 워크숍, 선진시장견학 상인워크숍

출처 : 매산시장 상인회 제공.



매산시장상인교육장

2010년 상인회가 결성된 이후 활동을 연도별로 간략히 정리하면 크게 상인교육활동, 단체활동, 대외활동, 활성화사업활동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모든 활동이 확연하게 구분되는 것은 아니고 중복되기도 하지만, 대략적으로 구분하면 그렇다.

상인교육활동에는 상인맞춤형교육, 선진시장견학 및 우수시장 견학과 워크숍 등이 있다. 상인회 사무실에 회의실을 겸한 상인 교육장을 마련하였다. 이곳에서는 다양한 교육 활동, 취미생활강좌 등을 진행한다. 상인회 자체 동아리활동을 진행하기도 하고, 선진시장 견학과 워크숍을 진행하기도 한다. 단체활동은 회장선거와 정례회의, 지역위원 초청 간담회, 단합회, 송년회 등이다. 상인회장은 2년에 한 번씩 선출하고 있다. 현재는 2016년부터 김해기 상인회장이 활동하고 있다.

허정숙 부녀회는 아닌데 노래교실도 하고 춤동아리도 하고 그랬어요. 부녀회라고 정해져 있지는 않고, 강제성을 띠는 건 아니고.

야유회, 송년회 등의 활동은 상인들끼리 친목을 도모하는 데 기여하는 바가 크다. 오랜 기간 같은 곳에서 장사를 하다 보니 상인들끼리 안면은 있지만, 직접적으로 교류하거나 친목을 도모하는 활동을 하기 힘든 경우가 많다. 그런데 봄과 가을에 워크숍을 가고 연말에 송년회를 하면서 친해지고, 단순히 인사하는 정도가 아니라 서로 할 수 있는 이야기의 깊이가 깊어졌다.

허정숙 상인회하고 나서는 다 좋아졌어요. 그전에는 상인회 하기 전에는 근처만 교류가 있었잖아. 근데 이제는 저런 데도 워낙에 오래 있으니까 안면은 있지만 그렇게 저기는 안 되거든 봄에 워크숍 한 번 가고 가을에 워크숍 한 번 가면 더 친해지고 뷔페로 망년회하고 뭐하니까 많이 친해지고 안녕하세요가 아니라 멘트가 붙고

대외활동은 전통시장 동반성장 포럼 참석, 골목형시장 관계자 세미나 등 주로 외부 인사나 기관과 결합하여 하는 활동이다. 외부 유관 기관을 견학하고 방문하고 교류를 하는 것이다. 활성화사업활동으로는 골목형시장 육성사업 제안업체 현장설명회, 청년재능기부사업, 차 없는 날 행사, 환경개선사업, 모바일 홈페이지 제작 홍보 등이 있다.

골목형시장 육성사업은 시장별 개성과 특색을 발굴하여 '1시장 1특화'할 수 있는 시장으로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2017년 『시장백서』에 따르면 수원시 매산시장과 연무시장에 1억 400만 원의 예산이 투입되었다.⁷⁾ 수원 매산시장의 경우 (주)피엔의 진행으로 2017년 2월 말까지 사업이 시행되었다. 특화거리 조성, 먹거리 레시피 개발과 꾸러미 상품 개발, 통합디자인개발 및 홍보 인쇄물 제작, 모바일 마케팅, 모바일 홈페이지 구축, 상인동아리 구성 13개 사업이 추진되었다.



매산시장 상인회 댄스동아리



상인특화교육 선진지 견학

표 8 매산시장 골목형시장 육성사업

단위사업		세부과업
상품특화 지원	1	공동기획상품 개발
	2	레시피(음식, 군것질) 개발
특화환경 조성	3	공공안내판 및 특화조형물 개발
	4	공동조리장 조성
	5	특화거리 조성
디자인특화 지원	6	시장브랜드개발 및 공동물품개발 제작
	7	VMD(상품진열환경) 개선
문화, ICT 특화 지원	8	시장문화교류센터 운영
	9	모바일 마케팅(SNS) 개발 및 운영
	10	인쇄 홍보물(리플릿) 제작
교육 및 이벤트 행사, 홍보	11	시장축제 및 프리마켓 운영
	12	특화교육 운영
특화점포 육성	13	특화점포 환경개선 및 우수상점 인증제



신동호 골목형 시장이라는 게 있고 문화관광시장이라는 게 있고, 글로벌 명품시장이라는 게 있고 있는데 나라에서 어떤 사업도 지속으로 줄 수 있는 사업은 없어요. 다 1년이나 2년 길어야 3년. 그렇게 하고 단일 건으로 가는 거지 그 다음부터는 자생적으로 알아서 가는 거지, 알아서 하자는 개념들인데 현실적으로 그걸 알아서 하기가 현실적으로 만만치 않은 거지.

시장브랜드 개발로 골목시장의 이미지 개선 효과를 위하여 CI와 BI 개발을 하였고, 공동포장재 디자인 및 공동물품 개발을 통해 통일되고 체계화된 시장의 이미지 정립을 도모하였으며, 점포의 통일적인 이미지화를 통해 정체성을 확립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상품 포장재의 스티커에서 매산시장 상품임을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통일된 이미지를 개발하여 활용하고 있다.

시장문화교류센터를 운영하여 지역 주민과 시장상인들이 동아리, 문화교류프로그램을 진행하여 시장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는 것을 도모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상인기획단을 운영하고, 전문위원을 위촉하여 워크숍에 참여하였으며, 동아리를 만들어 운영하였다.

모바일 홍보를 위하여 매산시장 블로그, 페이스북, 홈페이지, 카카오톡 등의 페이지를 활용하고 있다. 매산시장 블로그에서는 상점 소개, 시장 행사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신동호 블로그는 제가 15년도에 홍보마케팅사업이라고 공단에서 지원하는 걸로 블로그를 1차 만들었고. 그렇게 해서 좀 운영을 하다가 제가 16년도, 16년도에 골목형시장이라고 사업이 선정이 돼서 사업을 했었어. 그 당시 페이스북이나 요새 모바일 그 왜 모두? 홈페이지 카카오톡 연결하고. 그런 사업하는 과정에 만들고 한 거지.

대학과 협력하여 다양한 행사를 진행하였다. 매산시장은 2015년 용인송담대학교와 대학협력 사업을 실시하였다. 그 내용은 특화상품 개발, 환경 개선, 이미지 개선, 커뮤니티 공간 활성화, 온라인 네트워크 홍보 강화 및 상인과 학생교육 실시 등이다.

이벤트 축제로는 자동차 없는 날 “추억의 저잣거리축제”가 있다. 이 행사는 앞서 언급한 주변 4개 시장이 함께 한다.

신동호 15년도에 하고 16년도, 17년. 차 없는 거리 수원시에서 진행하는 거 했었는데



…… 네 개 시장이 같이 거리축제를 이틀 1년에 한 번, 이틀 잡고 진행을 하고 있어요. 한번은 테마거리 쪽에서 하고 한번은 이쪽에서 하고, 큰 도로가 있으니까 번갈아 가면서 진행을 하는 게 있고.

경영환경 개선사업으로 노후시설 환경 개선을 진행하였고, 경기도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사업에 선정된 업체들의 점포 환경 개선사업도 개별적으로 추진되었다. 2015년과 2016년 개별 신청을 통해 환경 개선을 위한 활동을 하였다.

신동호 소상공인 경영개선사업이라고 환경이나 그런 거 개별적으로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어 그게 공고가 15년도에도 저도 우연찮게 이 사람들에게 뭐 해 줄까 찾아서 신청을 해 준 거야. …… 초반에는 경쟁률이 거의 없었어. 한 번 알려지니까 되게 많아지고 업체가 자기가 일을 하기 위해서는 알리러 다니는 사람들도 있고.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사업은 가게를 운영하는 상인들에게 큰 도움이 되었다. 개비를 하면 좋지만, 비용이 많이 들어서 쉽게 손볼 수 없는 가게 지붕 천막과 벽의 칸막이 공사를 하게 되었다. 이를 통해 가게가 깨끗해지고 깔끔해졌을 뿐 아니라 상인들도 겨울의 추위나 여름의 햇빛 등을 막을 수 있어서 영업 활동을 하기 한결 좋아졌다.

박권상 이런 칸막이를 하고 싶어도 사실 돈이 엄청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상상을 못해 누가 이런 거 해 봐라 그래도 얼른 못해요 몇 백 만 원이니까. 겨울에 추워서 이러면서도 문 닫아 놓고 난로 막 피고 살았는데 그거 소상공인 지원해서 도움을 주니까, 칸막이도 했지 예쁘게 포장도 했지. …… 사실 몇 백 만 원 투자한다는 게, 재래시장에서 장사하면서 한다는 게 쉽지 않아요. 야채는 점점 뻥해지고 마트가 여기저기 생기다 보니까

그 외 운영위원활동으로 수원시 세금 지키기 집회 참석, 화성문화제 농행차 참여, 고객선 지키기 홍보 구간 협의와 임원 워크숍 등이 있다.

이와 별도로 미래창조기획부의 사업을 통해 IOT 간판을 설치하였다. 간판은 단순히 가게 이름을 보여 주는 것이 아니다. 가게에 들어오는 고객을 인식하여 “행복이 함께하

는 매산시장입니다.” 등 다양한 안내음성서비스를 하고 있다. 쿠폰과 행사 안내 등 다양한 기능도 할 수 있게 고안되었으나 현재는 간판 기능과 안내음성 제공 등의 기능만 하고 있다. 간판에는 품목을 연상시키는 그림, 상호명, 전화번호가 포함되고 매산시장 마크인 꽃디자인을 옆에 부착하였다. 상호가 없어도 그림만 보면 무엇을 파는지 쉽게 알 수 있을 것 같다.



매산시장 마크를 부착한 간판

신동호 미래창조과학부라고 거기서 저거는 IOT사업 관련, 그 왜 신 어떤 사업 공모가 있었는데 업체랑 제가 같이 계획을 짜서 공모에 참여를 해서 그 사업을 했었던 거예요. 개는 기능도 많고 상당히 큰 건데 잘 활용을 못하고 간판 기능만 하고 있지. 가끔 매산시장입니다. 소리 나오는 거 못 들었나? 거기 밑에 가면 센서가 있어. 오면 인사를 해. 그 다음에 그 취지는 원래 모바일에 연동이 돼서 내가 이쪽에 들어오면 세일하는 가게가 들어오는 건데, 근데 시장이 아직은 현실적으로 수준의 관리가, 저쪽 그 사업의 기술도. 우리나라는 그게 사업이 너무 다양하게 정리돼있는 건 없어.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선도, 처음 초기모델이었죠. 기능은 저걸 잘 활용하면 좋은 게 많은 거예요. 원래는 그 밑에 피플 카운팅까지 할 수 있는데 그건 못했고 스피커도 있어. 그래서 여기서 방송하면 거기까지 방송이 돼. 근데 방송이 따로 있어서 거기까지는 안 하고.

음성 안내가 나오는 간판이 신기하여 처음에는 볼륨을 높여 두었는데 모든 가게에서 설 새 없이 나오는 음성 안내 때문에 현재는 소리를 꺼둔 가게도 있고, 볼륨을 낮춘 곳도 많다. 그래도 명신야채나 영진과일은 사람이 드나들 때마다 음성이 나온다.

허정숙 처음에는 신기해서 해 봤는데 이 집 저 집 해봐. 저 집 들어간다고 “매산시장입니다.” 저 집 들어간다고 “매산시장입니다.” 그래서 서로 줄였어. 소비자들 들어오라고 했는데 아~ 안 되겠어. 서로 안 되겠어.

5. 매산시장, 다문화의 중심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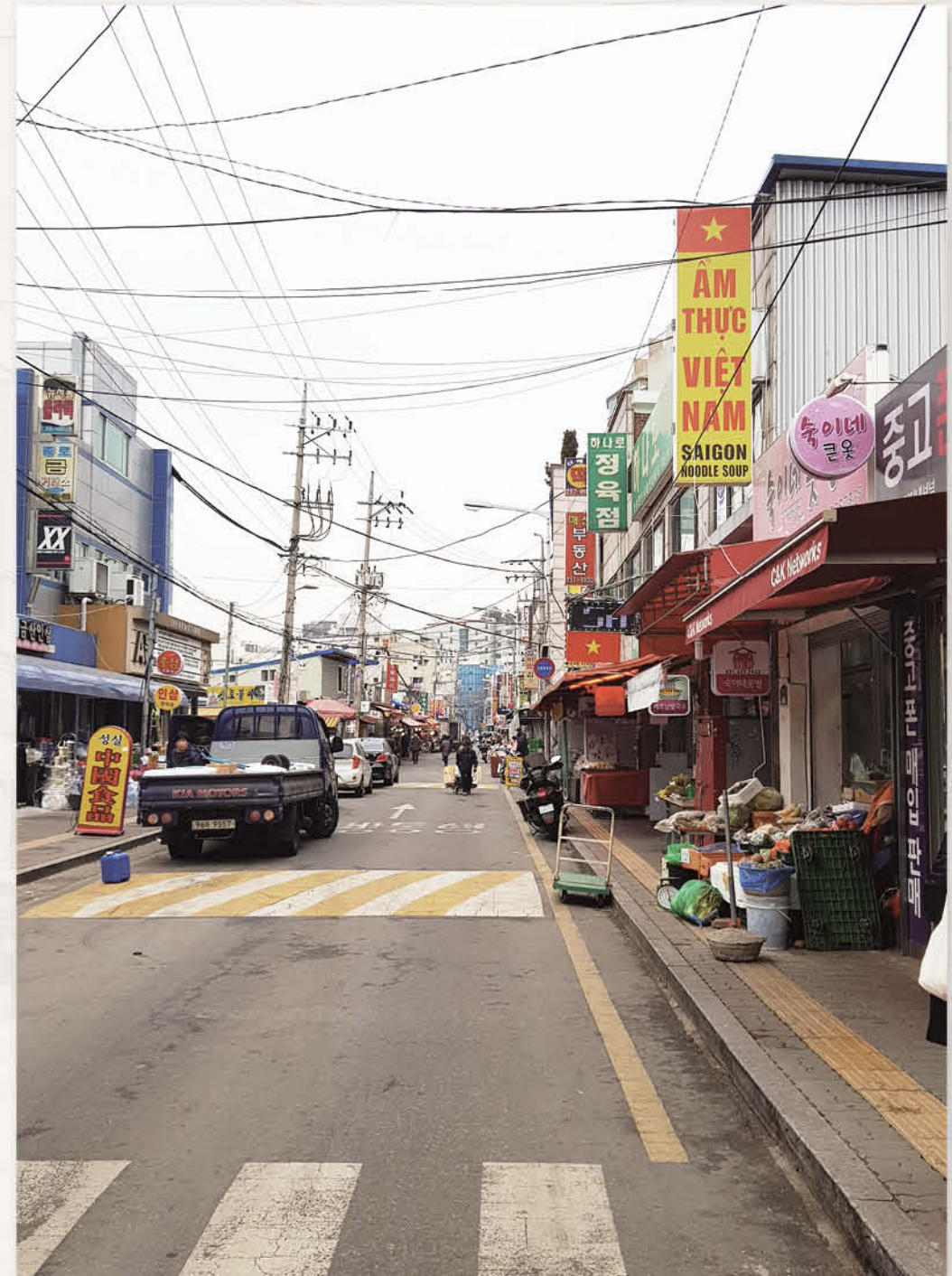
수원시에는 1990년대 후반부터 외국인이 많이 유입되었다. 만나는 상인과 시장 관계자들은 시장에 외국 손님이 많고, 한국 손님이 없다는 말을 많이 하였다. 수원시의 외국인 인구수를 보면 이 말이 과언이 아닐 수도 있겠다. 『수원 통계연보』에 따르면 수원시에 거주하는 외국인 인구는 2008년 2만 5,019명이었던 것이 2015년 5만 1,258명으로 두 배 가까이 증가하였다. 전국 시군별 순위로 보면 경기도 안산시 7만 5,965명, 서울시 영등포구 5만 7,000명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수이다.

『2017년 수원시 외국인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보고서』를 보면 수원시에 거주하는 15세 이상 상주 외국인은 4만 1,800명으로, 남자는 2만 1,600명(51.7%), 여자는 2만 200명(48.3%)이다. 체류 자격은 재외동포 1만 3,000명(31.2%), 방문취업 1만 1,700명(28.0%), 영주 5,500명(13.3%), 유학생 3,000명(7.1%) 순이었다. 국적은 한국계 중국이 2만 9,800명(71.3%)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중국 4,500명(10.9%), 베트남 1,700명(4.1%), 미국 700명(1.6%), 인도 600명(1.5%)로 나타났다. 거주지역은 팔달구가 1만 7,200명(41.7%)으로 가장 많고, 권선구 1만 1,200명(26.9%), 장안구 7,200명(17.1%), 영통구 6,200명(14.8%) 순이었다. 연령은 50대가 9,600명(22.9%), 30대가 9,500명(22.8%), 20대 미만 8,800명(21.0%), 40대 7,800명(14.8%) 순이었다.⁸⁾

수원시는 국내에서 세 번째로 외국인이 많이 거주하는 도시이다. 거기에다 철도와 수도권전철이 경유하는 수원역에 인근에 자리한 매산시장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이 찾는 곳이다. 한국인과 외국인의 비율을 4:6 혹은 3:7 정도로 보고 있다. 시장 상인들도 고객 중 외국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 외국에 있는 것으로 착각할 정도라고 한다.

허정숙 내가 지금 이 골목에 열 사람이 있으면 두 사람이 한국 사람이야. 다 가서 인터뷰하시면 똑같은 거야. 구정에 내가 나와서 팔면 한국 사람한테 못 팔아. 한국 사람은 다 마트에서 사나 봐. 어떨 때는 내가 중국에 있는 것처럼 다 중국 사람이야.

통계자료에도 나타나듯이 국적별로는 한국계 중국인과 중국인이 3만 5,000명 정도로 80% 이상을 차지하는데, “중국에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상인들의 설명이 이해되기도 하다. 중국뿐만 아니라 인도, 네팔과 같은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많이 찾기 때문에 중국



외국인 고객을 위한 점포가 늘어나는 매산시장

식 재료상이나 인도 음식점, 네팔 음식점 등도 있다. 특히 수엠부라는 인도 음식전문점은 다양한 고객층을 형성하고 있다.

홍성상회 이준철 사장 역시 한국계 중국인이다. 단골이던 가게 사장이 가게를 내놓은 것을 알고 인수하였다. 중국인들이 수원에 많이 거주하고 있어서 식료품을 사러 오는 고객도 주로 그들이다. 매산시장과 역전시장이 규모가 크기 때문에 중국인들이 식료품을 사러 많이 온다고 보았다.

이준철(홍성상회 운영, 1960년 중국 흑룡강성 출생) 원래 이 가게 하던 분이 우리가 자주 오니까 알게 됐어요. 딴 거 하겠다고 내놓겠다고 하니까 집사람이 하자고 해서 하게 됐어요. 고등동, 세류동 다 이쪽으로 모여요. 시장이 크니까. 역전시장, 매산시장으로 사람 많이 와요.

중국계 한국인이지만, 외국인으로서 어려움은 없을까? “정부에서도 도와주고 상인회에서 도와주고” 하여 가게를 인수하고, 영업 허가를 받는 등에서는 어려움이 없었다. 오히려 한국 국적 취득을 위하여 공부를 하는 것이 어려워서 한국 국적을 취득하지 못하였고, 중국인 국적으로 가게를 하고 있다.

이준철 국적 따려도 힘들어요. 제가 한글 몰라서. 말도 그렇고 국적 따려면 시험도 (봐야 하니까요).

한편 한국인이 중국인에게 갖는 편견에 대한 아쉬움을 가지고 있었다. 중국 음식에서 나는 특유한 향을 한국인이 싫어한다는 점을 이야기할 때 아쉬움이 느껴졌다.

이준철 중국 식품들 한국 분들이 좀 안 좋아하잖아요. 냄새도 그렇고 맛도 그렇고.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이 많이 사지요.

매산시장에 외국인이 많이 오는 만큼 외국인 손님들을 위한 서비스에 신경 쓰고 각 나라의 문화를 알고 손님을 대하는 자세도 필요할 것 같다.

6. 매산시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매산시장뿐만 아니라 전통시장은 이용자가 줄어드는 추세이다. 상인들이 체감하는 판매량은 장사가 잘 되었던 1990년대에 비하여 3분의 1까지 줄어들었다. 그 원인으로 주차장이 없다는 점과 윈스톱 쇼핑이 어렵다는 점을 꼽고 있다.

박권상 사장 부부 옛날에 비하면 1/3로 줄었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냥 가볍게 말해서 1/3이지 정말은 1/3도 줄었어요. 진짜 줄었어요. 옛날에 비하면 진짜 안 되는 거지 지금은 노는 거예요. 이렇게 놀 시간이 없었어요. …… 이쪽이 지금은 차로 많이 다니잖아요. 주차장이 없으니까 그걸 제일 불편해 해. 그런데 환경 자체가 열악해. 주차장 있는데 가면 모든 게 조금 비싸도 모든 게 해결되잖아요. 야채부터 공산품까지 다. 화장실도 없어. 그래서 열악해.

이용자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상인회에서는 시장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다. 시장을 현대화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한 고민도 그 중 하나이다. 그런데 2015년 상인회에서 자체적으로 시장 이용객에게 조사한 자료를 보면 과연 시장의 현대화가 올바른 방향인지에 대해 고민할 필요가 있다. 이 조사에 따르면 시설 현대화에 대하여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 33.4%,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39.4%로 두 의견 사이에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는 시장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이 시장의 현대화를 바란다기보다 시장이 갖는 고유의 정서를 느끼기를 원하는 것으로 분석할 수도 있다.⁹⁾

신동호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도 70년대 분위기를 담고 있는 공간이 많은데 그걸 약간 다듬으면서 그 분위기로 가면 그게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돈을 제일 많이 쓰고 활동을 많이 하고 소비성이 큰, 많은 게 아니라 덩어리가 큰 사람들은 아무래도 70년대 살던 그런 사람, 그거에 포인트를 맞춰서 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안전문제와 환경 정비문제는 그냥 둘 수 없다. 2018년에는 시설 현대화사업의 일환으로 CCTV 설치가 진행 중이다. CCTV 설치를 통해 상인도, 소비자도 안전하게 팔고 살 수 있는 시장이라는 장점을 부각시킬 수 있다. 모니터를 통해 불법 판매 차량의 진입을



손님들로 붐비는 매산시장

막는 효과도 볼 수 있고 위험요소에 대한 예방도 가능하다.

판매 전략 측면에서는 중국인 손님이 많기 때문에 그에 맞춰 시장을 운영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다. 매산시장의 경우 상인들이 보통 아침 9시면 출근하여 영업을 준비하고 떡집과 같이 일찍 영업을 시작하는 가게는 8시나 9시에도 문을 닫지만, 과일이나 야채 등의 품목들은 저녁 10시나 되어야 가게를 닫는다. 그 이유가 중국인 손님들이 퇴근하고 집으로 돌아오는 시간이 8시나 9시가 되기 때문이란다. 따라서 이에 맞는 영업 방식과 시간 조정이 필요할 것이다.

허정숙 보통 10시 반에 들어가요. 그 전에는 12시까지, 11시까지 했어요. 보통 11시까지 했어. 근데 사람이 없어요. 출퇴근시간만 딱 끝나면 중국 분들이 8시, 9시에 퇴근하면 여기 10시 넘잖아. 10시 넘어서는 한두 사람밖에 없어. 근데다가 더 하고 싶어도 가게가 다 닫으니까. 낮에는 물어보고 가는 사람이 많잖아요. 밤에는 그냥 사가. 쓸데없이 물어보고 가는 사람이 없어. 근데 우리가 처량해. 다른 사람 다 닫고 우리 아저씨가 다 갔다고 빨리 가자고 그래. 10시에 치우면 10시 반 돼요.

전통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노력으로 신동호 사무국장은 사람에서 해법을 찾고자 한다. 그는 전문성을 갖춘 인력이 시장을 위해 활동해야 한다고 본다. 50대 이상의 나이 많은 상인이 손수 할 수 없는 소소한 가게 수리부터 시작하여 새로운 기획과 홍보까지 할 수 있는 전문가가 시장에 오면 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신동호 공단에서 매니저지원사업이라고 나라에서 직원한테 지원해 주는 아이템이 있긴 있어요. 시장이 계속 받는 게 아니라 처음에는 1년, 지금은 최대 2년까지 되는 걸로 나왔는데 그게 금액이 크진 않아. 나머지는 시장에서 하라는 건데 시장이 힘든 부분이 있고.

시장이 대형 마트와 경쟁할 수 있는 다양한 품목들이 있다. 공산품의 경우 대형 마트가 더 저렴하겠지만, 부침, 반찬류와 같이 직접 만들어 판매하는 품목들은 가격에서 대형 마트보다 경쟁력을 갖는다. 원산지 표시를 정확하게 하고 신용카드를 쉽게 사용할 수 있으며, 편의시설도 확충하면 젊은 사람들도 시장을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 좋다는 것을 알아야 사람들이 찾아온다.



매산시장을 달리는 오토바이

신동호 실제로 시장을 경험해 본 사람들은 시장이 다른 데보다 더 저렴하고 괜찮고 효과적으로 느껴서 더 오는 사람들이 있어. 이게 경험자와 아닌 사람들의 차이인데 좀 젊은 층 주부들, 실속 있게 사는 사람들은 그런 거 왜 조사가 이루어지잖아. 뭘는 어디가 싸고, 시장이 아무리 대형 마트가 생겨도 시장만이 갖는 경쟁력이 있는 업종이 몇 개 있어. …… 다른 것들도 중간 마진 걸치는 단계가 작은 품목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저렴하게 관리가 이루어지고 질도 나운데 인식들이 예전에 보면 시장이 저저분하고 그런 것들이 많아서 그런데 계속 자구적인 시설도 하고 많이 정비가 돼 가고 있어요.

매산시장 상인들과 상인회의 노력으로 매산시장이 예전처럼 사람들이 많이 찾는 곳이 되었으면 한다. 매산시장을 주제로 노래를 만들고 싶다는 박권상 사장은 다음과 같은 가사를 지었다.

박권상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산시장에서 어언 삼십 년. 사람과 사람 사이 부딪치면 서 때론 상처도 있었다. 오늘도 (나는) 오토바이를 타고 매산시장 골목을 누빈다.

매산시장에서 보내는 생활이 이 노래가 완성될 때까지 이어졌으면 한다. 이 노래 가사를 읽고 있으면 오토바이를 타고 배달을 다니는 그의 모습이 그려지는 것 같다.

- 1) 이 글에서 인용되는 부분의 원칙을 간략히 설명하겠다. ① 중간의 말줄임표 (……)는 구술자의 이야기가 연속적으로 이어진 것은 아니지만 문맥상 연관이 있음을 의미한다. ② 구술은 가급적 구술자가 말하는 대로 표기한다. ③ ()는 문맥상 생략된 문장을, []는 구술자의 구술이 모호할 때 그에 대한 부연설명을 한 것이다.
- 2) 이상열, 『해방 후 수원의 전통시장 변화』, 『수원시사 6권』, 수원시사편찬위원회, 2014, 70쪽.
- 3) 수원시 상인연합회, 『수원의 전통시장』, 2016, 115~116쪽 참조.
- 4) 정승모, 『수원의 장시체계 변화』, 『수원시사 6권』, 수원시사편찬위원회, 2014, 28쪽.
- 5) 이상열, 『해방 후 수원의 전통시장 변화』, 『수원시사 6권』, 수원시사편찬위원회, 2014, 85쪽.
- 6) 매산시장 상인회 내부자료.
- 7) 수원시, 『시정백서』, 2017, 248쪽.
- 8) 수원시, 『2017년 수원시 외국인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보고서』, 2017, 11쪽.
- 9) 매산시장 상인회 내부자료.



송지영 강원대학교 강사

제3장

도로에서 시장으로 :

수원역지하도상가의 변화기

1. 지하 대피로에서 시작된 수원역지하도상가

1960년대 수원역 주변 경관은 지금과 달랐다. 경기도 광주에서 태어나 어린 시절부터 수원시에서 살아온 구희서(남, 1949년생)는 수원역의 과거를 기억하라는 질문에 초등학교 3학년 때 경험한 수원역을 이야기해 주었다. 영동시장에서 포목상을 했던 부모님 때문에 영동시장 근처에서 살았던 구희서는 동네 형들과 함께 수원역까지 마라톤을 달렸다. 어린 나이에 제법 먼 길이었다. 그가 기억하는 당시의 수원역 주변은 지금과는 많이 달랐다. “옛날에는 여기가 촌스러웠지. 옛날에는 뭐 역 하나 덩그러니 있고 여기. 앞에 단층건물 먹는 가게들, 순댓국집 그런 것만 쪽 있고 그랬었지.” 거리에 차도 없었고 한적한 동네였다.

수원역 주변 경관의 변화는 전철, 버스 등 교통노선의 변화와 더불어 일어났다. 현재 수원시의 유일한 지하도상가인 수원역지하도상가가 착공되기 시작한 1977년도 수원역 일대는 수원시 교통의 변화기였다. 서울과 수원을 잇는 전철이 1974년 개통되고, 1975년 수원과 인천 사이의 국도가 확장되어 고속화도로가 되었으며, 시외버스종합터미널이 역 전 부근으로 이전해 오면서 수원역 앞 도로의 교통량은 급증하였다. 수원시가 경기도에 제출했던 '수원 도시계획 사업(지하도) 실시계획 인가 신청'에 따르면 지하도 건설 당시

1971년 수원역 전경(수원박물관 제공)





1980년 수원역전지하 다목적 대피호 공사(수원박물관 제공)

이 지역에는 매일 차량이 5만 대가 다녔으며, 1일 유동인구는 5만 명에서 1만 명이였다.¹⁾ 이런 상황에서 지하도 건설은 중요한 과제가 되었고, 수원시는 1977년 “총 7천 5백만 원의 공사비를 들여 총면적 1백 38평에 22개 점포를 시설할 지하상가를 오는 6월 중에 착공, 9월 말까지 건설한다.”는 계획을 발표하게 되었다.²⁾

지하도상가의 원래 목적은 다목적 대피호였다. 수원시는 내무부와 경기도의 지침(『경기 민방 130-10』, 1977년 1월 8일)에 따라 전국적으로 도시에 다목적 대피호를 설치하는 사업 중 하나로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지하도상가를 조성하였다. 총 4개년간 실시된 이 사업은 처음부터 전체 사업예산을 확보한 채 시작한 것이 아니었다. 매년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 및 민간자본을 유치해서 공사를 진행하였다.³⁾ 수원시는 1977년 9월 15일 광성산업주식회사(대표 윤성로) 사이에 민간투자 합의를 맺고 첫 공사를 시작하였다. 3차에 걸쳐 총 공사비 7억 2,900만 원 중 광성산업주식회사가 5억 4,810만 원을 투자했고, 그 투자 대가로 수원시는 광성산업주식회사에 15년 무상사용을 허가하였다. 무상사용 기간

표 1 역전지하상가 운영 현황

(단위 : 평, 백만원)

구분	시공 면적	투자액			상가			기부 채납	무상사용 허가기간(년)	허가자
		계	국비	시비	민자	면적	점포수			
계	1,026.68	729.0	109.6	71.3	548.1	376.37	139		사용 기간 1996.11.12.	설치공사 계약자
1차	144.24	93.5	27.0	18.0	468.5	38.94	18	78	1978.6.15. ~1993.6.14. (15년)	수원시 매산로 1가 17 광성산업
2차	648.60	426.6	42.0	26.8	357.8	293.01	112	79	1979.11.12. ~1996.11.12. (17년)	대표 : 윤성로
3차	233.84	208.9	40.6	26.5	141.8	144.32	9	81	1981.1.28. ~1996.1.27. (15년)	

출처 : 수원시, 「수원 역전 지하상가(다목적 대피호) 설치 및 현황, 분규 경위 보고」, 1983년 7월.

은 민간자본의 투자금과 연평균 물가 상승률 10%를 감안하여 책정되었다. 전체 3차 공사 관련 공적 자금과 민간 자금의 투자액 및 규모는 <표 1>과 같다.

1980년 3월 3일 광성산업주식회사가 지하 대피호에 시장을 개설할 당시 시장 면적은 376.93평에 133개의 점포였다.⁴⁾ 구회서는 지하도상가가 1980년에 개장됐지만 일부 가게는 1979년부터 영업을 시작했다고 했다. 그가 음반가게를 인수해서 시작한 1980년 7월 당시에는 전체 상가의 50% 이상이 비어 있던 상황이었다고 했다.

구회서 요 앞에 조금, 사람 다니는 길목 가게만 조금 다 오픈하고 뒤흘이나 이런 데는 다 그대로 비어 있어 가지고 그때 당시에는 뭐, 그냥 와서 장사만 하라고 그랬으니까, 뭐 보증금이고 뭐고 없이 …… 근데 저는 그때 덜컥 그때 당시에 거금을 주고 (웃음)

수원역지하도상가는 공간의 특성상 다른 전통시장과 차별되는 지점이 있었다. 지하도 건설 시 민간자본을 투자했던 광성산업주식회사의 윤성로 대표가 수원시에 신청한 ‘시장 개설 이유서’에는 다음과 같이 시장 개설 이유를 적고 있다. “당 지하상가는 수도 서울의 약 40키로 거리에 접해 있으며 특히 수원시의 관문이며 인천, 반월, 서울을 연결하는 요



1978년 수원역전 대피호 공사(수원박물관 제공)

충지로서 날로 발전하는 수원시의 번영을 위하고 아울러 격증하는 수원 시민에게 상품 유통의 원활과 일상생활의 편의를 도모함은 물론 국가 유사시에는 대피호로서 수원 시민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시장을 개설코저 합니다.”⁵⁾

‘시장 개설 이유서’에서 언급된 것처럼 이곳이 지하 대피로이다 보니 수원시가 시장에 여러 가지 조건을 요구하였다. 시장 개설 이후에 각종 시설물들에 대한 제한도 다른 시장보다 엄격했으며 이동의 불편에 따른 일부 점포와 시설 철거 명령이 내려지기도 했다. 그뿐만 아니라 지하도상가 개설 초기에 필수적으로 설치해야 할 점포도 있었다. ① 비상 식량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제식품점 또는 통조림 등을 판매하는 종합식품점, ② 구급약품과 위생용품 및 의료기구를 판매하는 약품점, ③ 화생방에 대비한 방독면, 도호의 등을 판매하는 제품점, ④ 경보 전달, 화성기구 및 비상등을 판매하는 제품점, ⑤ 기타 유사시 민방위 업무에 필요한 장비 등을 반드시 취급해야 했다.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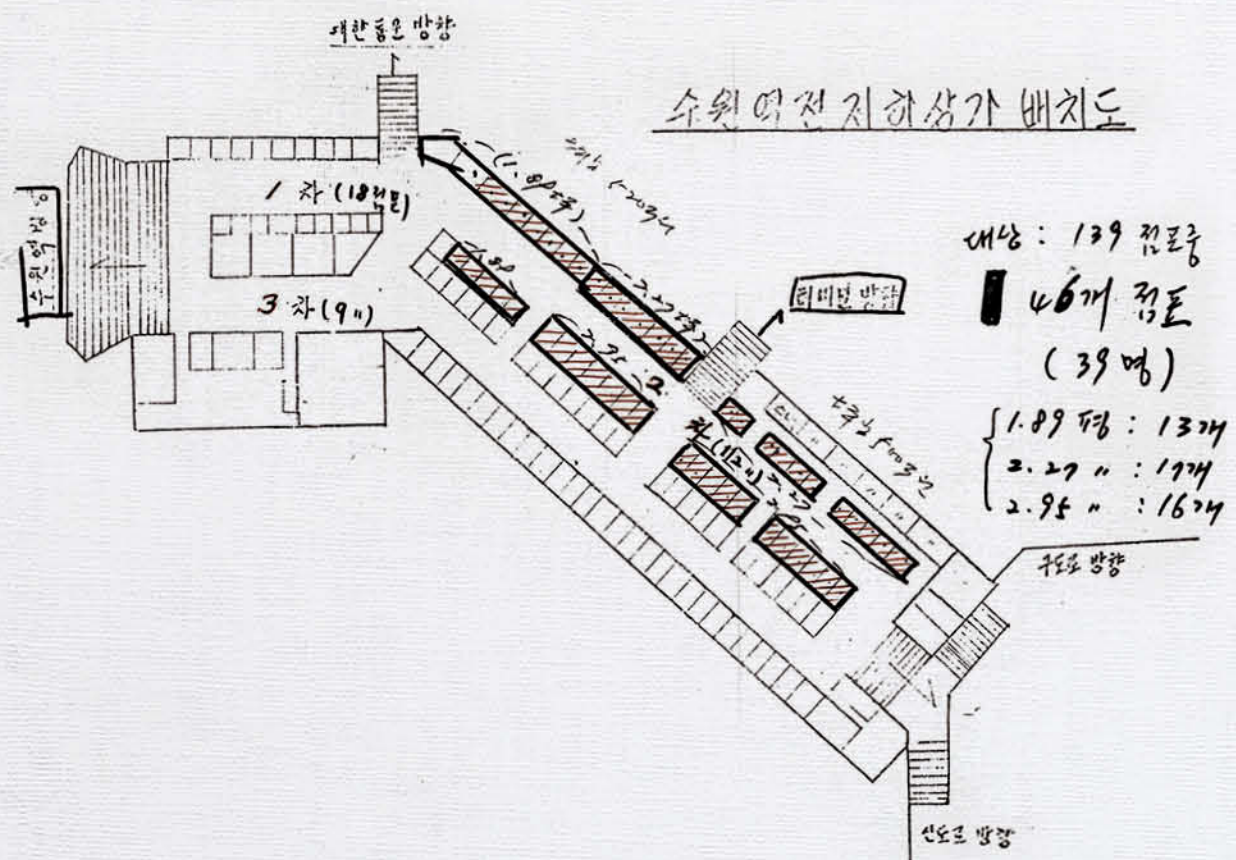
지하도상가는 건설 3차 증축 공사 때 증축 사유를 기록한 사유서에도 다음과 같이 이

유를 적고 있다. ① 수원역전지하상가는 국가 민방위 사업으로 궁극적인 목적은 다목적 지하대피호로서 국가 유사시에 수원시민이 대피할 수 있는 방공호이며 아울러 수원역을 연결하는 지하도로 및 상가 등 다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것이나 수원시의 인구가 일의 증가 추세로 보아 금년 초 전철복복선이 완공될 경우 일일 26만 명이 통행할 것이라는 수원역 당국의 예상을 감안할 때 지하도로가 협소할 뿐만 아니라, ② 아울러 격증하는 수원 시민에게 상품 유통의 원활과 일상생활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시설을 증축한 것이다.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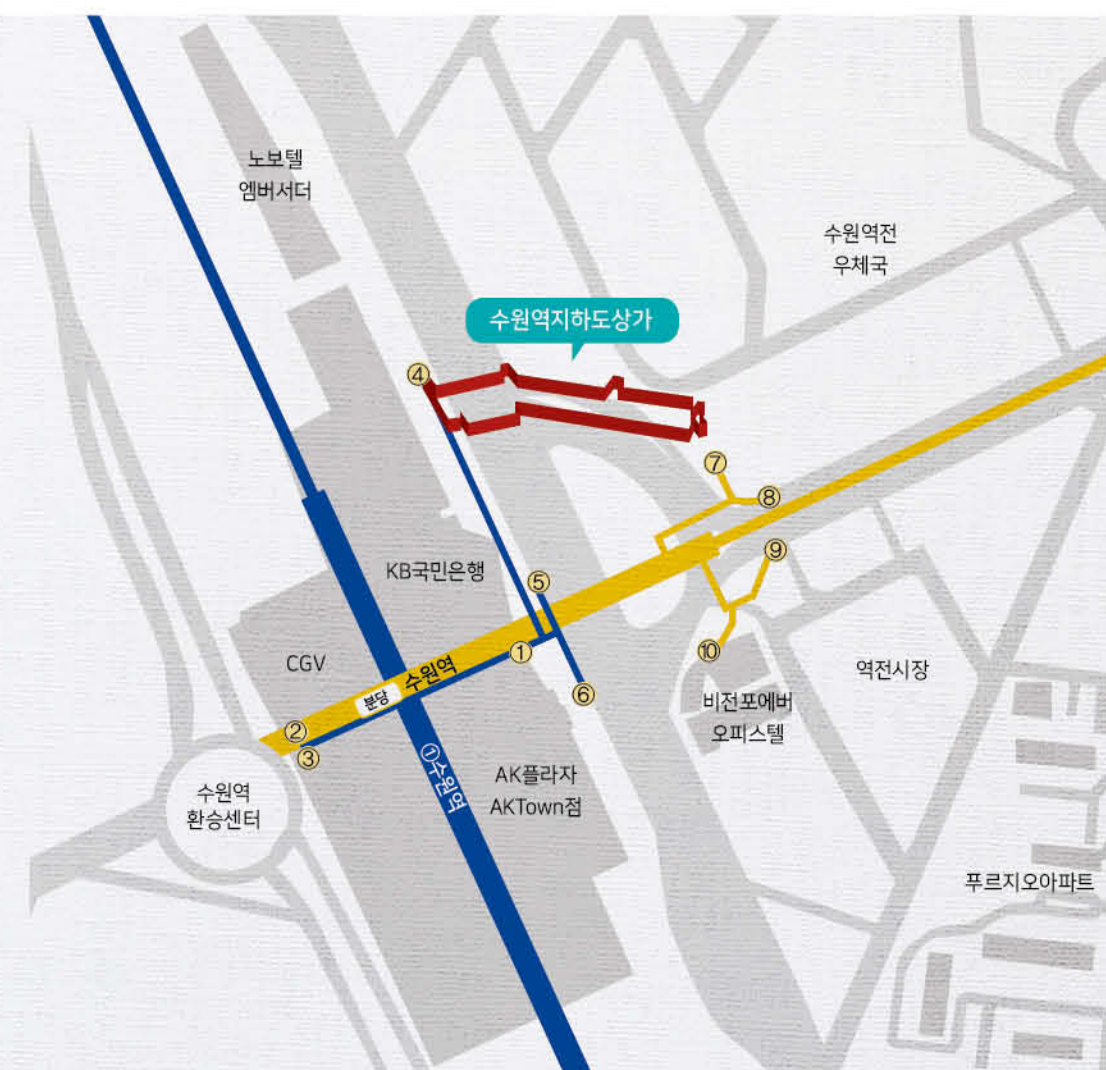
지하도상가는 지하 대피로에서 시작되다 보니, 오랫동안 그 영향으로 각종 규제가 많았다. 이정구 상인회장은 “풀린 지가 얼마 안 돼, 2000년도인가 그럴 거야. 그래서 문도 못 달고 그랬어요. 제약이 굉장히 많았어요.”라고 했다. 상가 전체가 지하 대피로에서는 벗어났지만, 지하이다 보니 일반 야외 재래시장과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제약이 여전히 많다. “여기서 생선도 팔 수 있고, 뭐 냄새나는 것도 밖에서 할 수 있으면 여기가 더 활성화가 될 수 있었는데, 지하상가라는 것 때문에 그게 제약이 돼요.”라며 구회서는 지하도상가가 갖는 공간상 갖는 제약에 대해 안타까워했다.

구회서 여기서 컵밥을 하고 싶다. 그러면 그거 뭐 잘 나가잖아요. 천 원짜리 갔다가, 이천 원짜리 뭐 사먹고 그러는데 그걸 해도 고기 같은 거 데치고 그러면 냄새가 나잖아. 그런데 이게 가라앉아 갖고 빠지지 않는 거예요. 그거 하려는 분들도 있었어. 이거 리모델링하고 나서, 계약했다가 취소하신 분들도 있고 …… 그런 환경의 제약을 많이 받아요.

점포 앞 복도가 도로로 분류되기 때문에 갖는 제약도 많다. 수원역지하도상가는 현재도 수원시 도로과 관리이다. 수원시 21개 인정시장은 수원시 지역경제과에서 관리를 하는데 지하도상가는 도로과와 지역경제과 양쪽의 관리를 받는다. 주무부서가 두 곳인 셈이다. 이정구 회장은 “두 군데 저기니까 뭘 하나 할려고 하더라도 니가 해라. 내가 해라. 서로 떠넘기는. 책임도 정확히 구분 안 되어” 있다며 어려움을 토로하였다. 그렇다 보니 지원이나 정책에서 다른 전통시장에 비해 밀리는 경우도 많았다. 그뿐만 아니라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는 데도 어려운 점이 많아서 지역경제과 전담으로 주무부서를 일원화시켜 달라고 요구하였다.



1981년 수원역지하도상가 배치도(수원시청 제공)



수원역지하도상가 위치도



1980년 수원역지하도상가(수원박물관 제공)

이정구 그렇죠. 한 군데에만- 무슨 얘기를 할 때 한 군데만 얘기를 하면 되니까, 우리도 얘기할 때 저기 다 얘기를 해야 하나. 그러면 저기에서는 아니 그거는 이쪽에다가 얘기하라고. 또 이쪽에서는 저쪽에다 이야기를 하라고, 서로 떠넘기는 거야. 좀 귀찮은 거는. 그러니까 우리는 환장을 하는 거야.

면담자 일도 더 늦어지고

이정구 일도 늦어지고, 또 애매모호하면 진행도 안 돼요. 그러니까 답답한 거지.

이정구 회장은 수원시 지역경제과가 확대되면서 지원팀과 시설팀 두 군데로 나누어지는 법이 통과되면 지역경제과로 일원화시키기로 담당 공무원들과 합의를 본 상황이라고 했다. 수원역지하도상가는 광성산업주식회사의 관리 이후에 <표 2>에서 보다시피 여러 단계를 거쳐 현재는 수원도시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다. 수원도시공사는 시설물 관리를 위주로 하며, 임대료 및 계약 관계와 시설 변동은 수원시의 허가를 받고 있다.



1999년 수원역지하도상가 창립 주주총회와 헌판식(수원역지하도상가 제공)

표 2 지하도상가 시설물 관리주체

관리 기간	관리 주체	비고
1979 ~ 1996. 11. 12.	광성산업(주)	무상 사용허가 기간
1996. 5. 12. ~ 1996. 6. 13.	상인회 자부담 공사	변압기 용량 증설 및 배선 교체
1995. 11. 13. ~ 1997. 9. 23.	광성산업(주) 잠정관리	1996년 11월 13일 관리권 수원시로 귀속
1997. 2. 11. ~ 1997. 9. 23.	수원시 주관	시설물 보강 공사
1997. 9. 24. ~ 1997. 10. 31.	상가 개보수 공사	점포별 인테리어 공사(상인 자부담)
1997. 11. 1. ~ 1999. 1. 31.	광성산업(주)	
1999. 2. 1. ~ 2000. 5. 30.	수원역지하도상가(주)	점포별 개별유상 사용허가
2000. 6. 1. ~ 현재	수원시시설관리공단 (현 수원도시공사)	수원시시설관리공단과 협약 체결

출처 : 수원역지하도상가 상인회 제공.

2. 변화의 과정

1) 대형 마트와 백화점의 등장

지하도상가 개장 초기에는 지금보다 품목도 다양했고 특히 의류점이 많았다. 수원역 전에서는 매산시장이 재래시장의 역할을 했고, 지금처럼 AK몰이나 롯데몰이 없던 1990



1999~2001년 수원역지하도상가 점포(수원역지하도상가 제공)

년대까지 지하도상가에는 의류점이 많았다. “이런 종합상가 같은 경우는 의류가 80% 정도 돼야지.” 그는 상가에서 “의류가 꽃”이라고 했다. 현재 지하도상가의 의류점은 전체 점포의 15%를 차지하고 있다<표 3>. 구희서는 현재 지하도상가가 백화점과 재래시장의 중간 역할을 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나 사실 중간 역할을 하는 품목을 찾기란 쉽지 않다.

지하도상가의 첫 번째 변화를 이끌었던 2001년 이마트 수원점 개점 전만 해도 상가는 호황기였다. 상가 1차 리모델링 작업이 끝난 1997년 9월에 가게를 시작한 이정구(1962년 생, 남) 상인회장은 당시를 지하도상가의 호황기로 기억하였다.

이정구 1997년은 이마트가 생기기 전이야.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백화점 역할을 한 거야. 그때는 가기가 여기(현 상인회 사무실)까지. 30평을 했으니까. 지하 30평이면 엄청 컸었지. 그때는 이마트가 없다 보니까 계절상품까지 해 가지고 우리가 이마트, 백화점 역할을 한 거야. 그 당시에는 그때는 장사가 엄청 잘 됐어요.



수원역지하도상가에 입점했던 식당(수원역지하도상가 제공)



수원역지하도상가에 입점했던 휴대폰 매장(수원역지하도상가 제공)

이정구 회장은 그 당시는 지하도상가뿐만 아니라 역전시장도 지금과 달리 장사가 잘 되었다고 했다. 각 가게 규모도 컸고 다루는 품목도 지금보다 많았다. “그때는 80평, 100평짜리. 지금은 뭐 혼한 게 80평, 100평인데 그 당시에는 80평이면 어마어마하게 큰 거. 그래가지고 그때는 이마트나 백화점이 없다 보니까 모든 손님들이 이리 쏠렸어요.” 구회서는 1980년대부터 1990년대는 자영업자들이 매출이 좋았던 시기였다고 하며, 당시에 “여기는 강에 가서 자갈을 갖다가 나눠서 나간다.”는 말이 있었다고 했다.

당시에는 밸런타인데이, 성년의 날, 스승의 날 등 기념일 선물도 많이 하던 시절이라, 다달이 대목을 맞았다. “(밸런타인데이) 초콜릿도 뭐라고 그럴까? 지금처럼 그렇게 가격대로 안 팔았어요. 워낙 그때는 수요가 많다 보니까 그때는 저울로 달아서 팔고 그랬어요.” 이정구는 초콜릿이 너무 많이 팔려서 계산하기가 어려워, 저울로 팔았다고 했다.

수원 이마트의 등장은 수원 전체 재래시장의 매출에 영향을 끼쳤다. 지하도상가 역시 이마트의 영향을 받았다. 하지만 식재료를 파는 재래시장보다는 덜하였다. AK몰의 개점은 지하도상가의 변화에 가장 큰 직격탄이었다. 수원시는 1999년 AK와 함께 수원역 민자 역사를 착공하고 이후 2003년 AK몰을 개장시켰다. 이정구는 “우리가 전환기를 맞은 게 2003년도에 AK, 그거 생긴 뒤로부터 완전히 여기가 초토화가 되어 버린 거야.”라며, 상인회 사무실에 있는 상가 구조도를 보고 차근차근 설명을 시작하였다.

이정구 회장에 따르면 현재 AK몰과 상가를 연결하는 공간에 지하도상가 식당이 입점해 있었다. 현재는 상가와 AK몰 지하가 연결되지만, 당시에는 AK몰 대신 수원역사와 바로 연결이 되었다. “역사밖에 없고 다른 게 주위에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열차 손님이든 전철 손님이든 다 내려와 가지고 여기서 다 소비를 했어요.” 이정구 회장은 당시에 수원역 인근에 식당이 없다 보니까, 그 공간에 식당과 커피숍이 많았다고 했다. “열차 손님들은 빨리 먹고 빨리 가야 하는 그런 개념이니까. 그러니까 오뎅, 김밥, 분식 위주로 그렇게 팔았어요.” 그러나 AK몰이 생기면서 식당이 하나 둘 문을 닫기 시작하였다. AK몰이 지하도와 연결되면서 수원역과 지하도상가를 잇던 동선이 끊어지면서 수원역과 지하도상가 사이의 거리가 멀어졌다. AK몰 안에 입점해 있던 식당 및 각종 편의시설이 지하도상가를 찾던 손님을 흡수하였다.

지하도상가의 위기는 상가의 변화를 가져왔다. “그때 고민을 많이 하던 찰나에 다행히 뭐냐면, 핸드폰이 그때 이제 막 시작할 때. 그때 2G, 3G 막 시리즈로 나올 때야.” 이



2006년 수원역지하도상가 휴대폰 매장(수원역지하도상가 제공)



2006년 3월 21일 수원역지하도상가 30주년 기념행사(수원역지하도상가 제공)

정구 회장은 당시 휴대폰 판매 붐이 일어났고, 상가 입지 조건과 맞아 떨어지다 보니 휴대폰 판매업으로 전환들을 많이 했다고 했다. 당시에는 통신회사에서 주는 마진도 컸다. “핸드폰 한 대 팔면, 40만 원, 50만 원 남을 때니까. 잘 파는 집들은 뭐 어마어마하게 팔았어요.” 지하도상가 전체가 휴대폰 전문상가가 되었다.

2000년대 초 10여 개였던 휴대폰 매장은 2003년 31개 점포가 되었다. 일반 휴대폰 대리점들이 단일 통신회사의 제품을 거래하는 데 반해 통신 3사 전체를 취급했고, 흥정이 가능했기 때문에 휴대폰 점포는 계속해서 늘었다.⁹⁾ 25년 동안 음반가게를 했던 구회서도 휴대폰 판매 매장으로 바꿨다. 상권의 변화와 맞물려 휴대폰업이 성장하면서 그에 따라 음반 산업이 사양길로 접어든 이유도 있었다.

구회서 핸드폰이 나오면서 그 안에 음악 파일 있지. 또 저기 CD나 워크맨 같은 거 그 기능을 다 하지. 메모리 같은 거 끼니까. 또 계산기 거기 들어가 있지. 시계 들어가

있지. 그러니까 품목 다 죽어버린 거야. 그거 하나 때문에. 그러면서 그 레코드나 테이프도 안 나가는 거야 같이. 지금은 다운 받아서 죄 쓰고 그러니까.

지하도상가 전체 매장의 80% 정도가 휴대폰으로 품목 전환을 했고, “부산에서 여기(지하도상가) 와서 핸드폰 사면 여행경비가 빠질 정도”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전국적인 유명세도 얻었다. 그렇다 보니 통신사가 지원도 많았다. 2017년 상가의 휴대폰 업체는 16곳으로 전체 점포의 약 22%로 여전히 가장 많은 품목을 차지하고 있다<표 3>. AK몰이 열고 이듬해인 2004년부터 시작되어 지하도상가는 10년 정도 휴대폰 전문상가였다. 그러나 2014년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의 공포 및 휴대폰 발전에 따른 기기 변경의 감소 및 보급률 증가에 따른 수요 감소로 휴대폰 전문상가의 시대는 막을 내리게 되었다.

이정구 회장은, 이제는 지하도상가가 휴대폰처럼 중점으로 잡을 수 있는 품목도 없는 형편이라고 아쉬움을 토로하였다. 자신은 휴대폰 사업을 하지는 않았지만, 저렴한 상품으로 현상유지를 해 오고 있었는데, AK몰이 2014년 12월 청소년 대상의 중저가 브랜드 제품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AK&를 개장하면서 또 다른 타격을 입게 되었다고 했다.

이정구 그렇지 않아도 힘든 상황에서. 이제 그거는 우리하고 직격탄으로 겹치거든. 가격대나 품목이나 모든 게. 백화점은 이제 가격대가 비싸니까 우리가 소화를 못 하는 것을 백화점에서 소화를 할 수 있는데, 옆에 그 젊은 층, 싸구려 청년몰이 생겨 버리니까 가격대도 비슷하지. 품목도 동대문 물건 비슷하지.

그는 “장사는 평수 싸움”이라고 했다. 가게 규모가 크면 다양한 물건을 구비할 수 있고 손님들은 한 번 방문으로 다양한 물건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거기는 평수가 보통 150평, 200평 되니까. 또 거기는 쇼핑하기가 편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기껏해야 5평, 6평 해서. 아무리 실력 있고 뭐 능력 있다고 그래도 그 평수 싸움에서는 근본적으로 안 돼요.” 그는 물건 품질이 비슷한데 규모 차이가 너무 크다 보니 어려움이 많다고 했다.

표 3 수원역지하도상가 매장 현황

(2017년 10월 31일 현재, 단위 : m²)

점포	면적	업종	점포	면적	업종	점포	면적	업종
1호	48.31	문구	26호	5.87	전화기	50호	19.50	휴대폰
2호	8.99	의류	27호	5.87	화훼	51호	19.50	의류잡화, 휴대폰
3호	15.50	의류	28호	11.75	휴게음식	52호	20.28	휴대폰, 소형가전
4호	16.12	시장관리업	29호	6.22	휴대폰	53호	19.50	휴대폰, 담배
5호	16.74	시장관리업	30호	6.75	양말	54호	9.75	액세서리, 잡화, 신발
6호	16.58	수공예품	31호	6.25	방향제, 향초, 의류	55호	10.53	액세서리, 잡화
7호	16.27	휴대폰, 액세서리	32호	12.50	휴대폰	56호	28.75	아동복
8호	15.30	휴대폰, 액세서리	33호	13.00	신발	57호	25.75	화훼
9호	7.50	캔들, 방향제	34호	28.87	전화, 의류, 액세서리	58호	50.98	휴대폰
10호	15.00	의류	35호	19.25	세탁중개업, 잡화, 의류	59호	10.14	휴대폰
11호	15.00	휴대폰	36호	20.02	의류, 잡화	60호	10.35	휴게음식점
12호	13.62	액세서리, 휴대폰	37호	20.02	휴대폰	61호	27.30	휴대폰
13호	18.37	휴대폰 잡화	38호	9.62	생화	62호	40.00	휴대폰 케이스, 액세서리
14호	6.12	액세서리	39호	20.02	잡화, 휴대폰 수리	63호	56.25	의류
15호	6.12	꽃	40호	9.62	액세서리, 귀금속	64호	56.25	기타음식점
16호	8.57	의류, 잡화	41호	19.26	잡화	65호	13.89	휴대폰
17호	8.05	휴대폰, 의류	42호	20.00	휴대폰	66호	51.62	휴대폰
18호	7.83	휴게음식점	43호	20.28	휴대폰, 액세서리, 잡화	67호	22.12	머플러 양말, 모자
19호	13.50	의류, 가방	44호	19.50	전자기기, 잡화, 화장	68호	29.50	휴대폰 액세서리
20호	20.25	가방, 액세서리	45호	30.67	휴대폰	69호	14.75	의류
21호	6.75	화훼	46호	20.28	남성캐주얼	70호	22.12	의류
22호	20.79	스넥	47호	30.03	가방	71호	22.12	수입과자
23호	10.88	휴게음식점	48호	20.28	휴대폰, 액세서리	72호	22.12	휴대폰, 주변용품
24호	16.14	휴게음식점	49호	9.75	휴대폰	73호	32.57	번영회 사무실
25호	11.75	화훼						

출처 : 수원도시공사, 「수원역지하도상가 점포 현황」, 2017년 11월 21일.

비고 : 원자료와 달리 동일한 품목은 명칭을 통일하였고 상호는 생략하였다.

2) 수원역 주변 환경의 변화

수원역지하도상가는 대형 유통업체뿐만 아니라 주변 기반시설의 배치에도 밀접한 영향을 받았다. 이정구 회장은 역세권⁹⁾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행인의 동선이라고 했다.

이정구 역전은 제일 중요한 것이 동선이거든.

면담자 그렇지. 이동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이정구 그럼요. 역전에 있다고 다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동선이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 하늘과 땅 차이가 되는 거여.

수원역지하도상가는 AK몰의 건립에 따른 이동거리 변화 이외에도, 교통 인프라의 변화로 행인들의 동선이 변하면서 이용객과 매출에 영향을 받았다. 이정구 회장은 수원역 주변 환경의 변화에서 두 가지 사건을 변화의 가장 큰 원인으로 뽑았다.

첫째, 2013년 11월 수원-분당선의 개통이다. 현재 수원역에서 매산동 역전시장 쪽으로 건너가기 위해서는 여러 동선이 있다. 역전시장 방향으로 수원-분당선의 출구가 자리하고 있어서 지하철을 이용하는 승객의 경우는 지하도상가를 이용하지 않고서도 길을 건널 수 있다. “우리가 역전에서 분당선 없을 때에는, 우리가 모든 이쪽에서 저쪽 건너갈 때에는 우리 상가를 통과를 해야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그냥 지나가기도 하지만, 일단 많이 지나가다 보니까 주워 먹는 것도 많았거든. 그런데 바로 옆에 분당선이 생겨가지고 그쪽으로 가는 게 두 군데가 생기다 보니까 ……” 이정구 회장에 따르면 분당선 지하철이 개통된 이후에 매출이 절반은 줄어든 것 같다고 했다.

둘째, 수원역환승센터의 개통이다. 2014년 7월 공사를 시작해서 2017년 7월 개통한 이 환승센터는 수원역사(AK플라자)와 롯데몰 사이에 있으며, 지하 1층·지상 2층 규모로, 부지면적 2만 3,377㎡, 건축면적 3만 5,160㎡에 이른다. 지상 2층에는 버스를 갈아탈 수 있는 12개 정류장이 있고, 지상 1층에는 자전거 주차장, 택시 승강장, ‘시티투어버스’ 승차장이 있다. 지하 1층을 통해 국철 1호선·분당선(전철)이 연결되고, 자동차 131대가 주차 가능한 환승주차장도 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수원역환승센터 개통으로 환승거리·시간이 줄어들었다. 개통 이전 수원역 동쪽 버스정류장에서 철도역까지 환승거리는 329m이었지만 환승센터 개통

2017년 개통한 수원역 환승센터(수원시 포토뱅크 제공)





지하철과 연결되어 있는 AK몰

이후 철도역까지 거리는 260m로 단축되었다. 또 동쪽 버스정류장에서 전철까지 환승 거리도 318m에서 215m로 100m 넘게 줄었다. 수원시는 환승시간도 1분 9~43초가량 단축됐다고 밝힌 바 있다.¹⁰⁾ 환승센터 지하 1층과 2층 버스정류장에서 20~30m만 이동하면 롯데몰과 연결된다.¹¹⁾

이정구 회장은 환승센터가 건립되면서 버스에 내린 수원역 이용객들이 지하도상가를 찾지 않게 되었다고 했다. 롯데몰과 연결되다 보니 동선이 그쪽으로 연결되었다. 환승센터의 개통은 수원역의 문화도 바꾸어 놓았다. 예전에는 “수원역에서 만나자.”고 하면 수원역사 밖에서 만나자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제는 모든 게 역사와 몰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했다.

이정구 전에는 무조건 밖으로 나왔었거든요. “야, 수원역에서 만나자.” 하면 수원역에서 내려가지고 다 나와서 만나고 그랬는데, 지금은 뭐냐면 “수원역에서 만나자.” 그러면 그냥 그 안에서 다 해결을 하는 거야. 그리고 거기서 인제, 그래서 인제 여기 먹자-여기 먹자가 굉장히 발달을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 일대에 식당이 다 없어져 버렸어.

지하도상가 상인들에게는 앞으로도 넘어야 할 산이 많다. AK몰과 롯데몰의 개장, 분당선 지하철과 환승센터의 개통만으로 끝난 일이 아니었다. 상권을 흔드는 큰 변화를 몸으로 겪어 왔던 상인들은 여전히 또 다른 변화의 국면에 놓이게 되었다. 이정구 회장은 ‘트램 개통’, ‘고등동 상업지구 개발’, ‘KCC몰 건립’, ‘경기도청 이전’ 등 지하도상가 주변에 언제 터질지 모르는 걱정거리들을 털어 놓기 시작하였다.

이정구 (고등동에) LH에서 다 아파트만 짓기로 했거든. 그런데 저기가 사업성이 없다고, 이쪽 고등동사무소까지 2만 3천 평을 상업지구로 풀어 버렸어. 그게 우리하고 같이 붙어 있는 게 아니야. 그러다 보니까 여기를 올해 8월이나 9월에 분양을 하면 내년에는 상가가 새로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상가가 생기면 변화가 어떻게 생길지 그것도 걱정이 되고. 또 뭐야. 여기 도청도 내년이면 광고로 가버리지. 모든 지금 상황이 우리가 너무 안 좋아. 어떤 호재가 없어요. 지금 상황에서도 롯데, 애경만 가지고도 지금 버거워 가지고, 어떻게, 어떻게 품목을 어떻게 해야 할지, 뭐 거기가 이런 거, 이런 거



롯데몰

를 팔으니까, 이렇게 해서 좀, 변화를 줄려고 그래도 이게 이렇게 되면 또 어떻게 변할 지, 이게 어떻게 변할지 감을 잡을 수가 없으니까, 이러지도 못 하고 저러지도 못 하고, (중략) 뭘 좀 하려고 하면 이게 뒤집어지고, 이게 뒤집어지고 그러니까 미치겠어 아주.

트램 개통은 아직 확정이 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수원시의 의지가 강하고 그동안의 변화 과정을 볼 때 언제 어떻게 이뤄질지 모를 일이다. 현재 롯데백화점 뒤로 KCC가 소유한 상업부지 3만 7,172㎡가 있다. 그 자리에 KCC가 1만 2,982㎡ 규모의 KCC몰 건립을 추진 중이다.

이정구 회장은 KCC몰이 건립되면 식당몰이 생기고, 그쪽으로 사람들이 몰리고 동선의 변화가 또 일어날 것으로 예상하였다. 현재 롯데와 AK몰의 직원들이 역전시장 쪽 먹자골목을 많이 이용하고, 이때 지하도상가를 통해 이동하고 있다. “먹자가 자꾸 없어지고, 거기다가 새로 생긴 물을 놓고 가까운 데로 가지. 거기 인자 널찍널찍 잘 만들어 놓을 텐데. 그러면 완전히 끝나는 거야 이게.” 그는 KCC몰이 생기면 1차적으로 역전시장의 식당들이 문을 닫을 것이고 그 결과는 지하도상가 상인들에게도 고스란히 넘어올 것으로 예상하였다. 구희서가 “(김영삼 정부와 김대중 정부 시절) 안 됐다고 뭐 IMF에 금반지 갖다 주고 금목걸이 갖다 주고 그랬어도 지금보다 10배는 나왔어.”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위기와 위험부담이 상가에 고스란히 반영되었던 것이 아닐까?

이정구 회장은 버스정류장의 이동으로 매산시장과 역전시장이 타격을 받은 것을 통해 상권에서 이동의 흐름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강조하였다.

이정구 일반 시장들은 찾아오는 시장이지만, 역세권은 흘러가는 시장이거든. (중략) 그 흐름이 요만큼만, 5미터만 틀려도 죽고 사는 문제거든. (중략) 그런데 변화가 너무 심하다 보니까, 그리고 앞날도 이렇게, 뭐 대형- 고등동, KCC, 환승터미널, 자꾸 이제 저기 하지. 이제 트램까지 그렇게 저기해 버리면, 그냥 지금 네 가지가 기다리고 있는 거여.

휴대폰 전문상이던 시절처럼 한두 품목으로 특화할 수 없냐는 필자의 질문에 이정구 회장은 주저함 없이 말한다. “특화를 해도, 특화를 할라고 해도 특화할 게 없어.” 빠져나가려고 해도 나갈 수 없는 길을 걷고 있는 것 같아 보였다.

3. 발전을 위한 노력

(1) 상가 리모델링 공사

2018년 3월 현재 지하도상가의 입점 점포는 상인회 및 관리사무실을 제외하고 총 70개이다. 이정구 회장이 상가를 처음 시작한 1997년만 해도 143개의 점포가 있던 것과 비교해 보면 크게 줄었다. 전체 상가 면적에는 변화가 없지만, 주변 환경의 변화에 따라 소규모 개별 점포가 경쟁력이 없어지면서 각 개별 상가가 확장공사가 이루어졌고 결과적으로 점포가 줄어들게 되었다.

게다가 2000년 6월 1일부터 수원시설관리공단(현 수원도시공사)이 상가를 관리하면서 공공정책의 제약을 더 받게 되었다. 『수원일보』 2010년 8월 19일 기사에는 냉방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상인과 행인이 불만을 터뜨리고 있는 지하도상가를 보도하고 있다.

수원일보

2010년 8월 19일

19일 낮, 수원역 지하도상가의 상인들은 저마다 대형 선풍기를 켜고 부채질을 하며 더위를 이겨내고 있었다. 이곳의 실내온도는 29도 안팎. 인근 백화점보다 4도 이상 차이가 나는 찜통더위에 행인들도 손을 부채삼아 종종걸음을 치며 지하도를 빠져나가고 있었다. 상인 이모(38) 씨는 “더위가 가시질 않아 대부분의 상인들이 자비를 들여 에어컨을 설치했지만 소용이 없다”며 “천정에 달린 에어컨이 낡아 작동하지 않는 것들이 부지기수지만 공단은 관리에 손을 놓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곳을 운영하고 있는 수원시시설관리공단은 공공기관 에너지 10% 절약추진시책에 맞춰 실내 냉방 온도를 27~28도로 유지한다는 방침이지만, 조명이 많이 설치된 핸드폰 매장이 몰려 있는 상가 특성상 그 정도의 온도도 유지하기가 어려운 형편이다. 행인 강모(21) 씨는 “지하도가 너무 더워 차라리 육교로 건너는 것이 나을 뻔했다”며 “물건을 보다가도 더워서 그냥 나가고 싶은 심정이 들 것”이라고 전했다.

이 기사에 따르면 이용자들의 민원을 접한 공단 관계자들은 “설비에는 이상이 없다.”고 했다고 한다. 상인회는 수원시에 민원을 제기하고 상인들이 자비로 냉방 등의 설비를 정비하겠다는 의견을 제출했으나, 공단에서는 “설계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 검토하



2015년 수원역전 지하도상가 개보수 사업 협약식(수원시 포토뱅크 제공)

고 있지 않은 것”이라고 했으며, 수원 시에서 시 소유시설을 민간이 정비할 수 있다는 조레가 없다는 이유로 허가하지 않았다.

2015년 결국 지하도상가는 리모델링 공사를 하게 되었다. 냉난방시설의 불편함뿐만 아니라 재난위험시설 C등급과 D등급 판정을 받는 등 계속해서 구조 보수·보강공사가 꾸준히 제기되었던 중에 이뤄진 일이었다. 수원역지하도상가 상인회는 2015년 1월 30일,

수원시와 지하도상가 개·보수공사 추진을 위한 공동협약을 체결하였다. 개·보수공사에 따른 총사업비 47억 원은 수원시가 10억 원을, 상인회에서 37억 원을 각각 부담하는 조건으로 시공과 감독은 시에서 주관하였다. 1981년 준공 후 34년 만에 이뤄진 일이었다. ¹²⁾

이정구 회장은 이 공사에 대해서 “말이 그렇지 우리 앞으로 등기가 나는 것도 아니고,” “전세자가 돈 내서 집을 새로 지은 거나 마찬가지”라고 했다. 그러나 도저히 공사를 하지 않을 방법이 없었다. 건물구조 검사에서 D등급이 나와서 수리도 필요했지만, 수원역의 대형쇼핑몰에 대해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는 생존을 위한 선택이었다.

이정구 난방이나 이런 게 너무 부족했어. 인프라가. 그렇다 보니까 그렇지 않아도 롯데나 애경에 경쟁이 안 되는데, 시설까지 낙후되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생존의 방법으로 그렇게 했어요.

공사가 완공되기까지 이정구 회장은 적지 않은 마음고생을 했다. 스트레스도 많이 받았고 울고 싶을 때도 많았다고 했다. 술로 해결이 안 되는 날에는 불면의 밤을 보내야 했다.

이정구 리모델링할 때 말이 37억이지. 그 돈 낸다는 자체가 쉽지 않았어요. 되도록이면 상인들 부담을 적게 하고 어떻게 하면 공사를 해서 상가를 살릴까? 그런 사명감에 하게 된 거죠.



리모델링을 마친 수원역지하도상가



이정구 회장

적지 않은 공사비용을 각출하고 2015년 10월부터 2016년 5월까지 7개월의 공사 기간에 가게 문을 닫고 영업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상인들의 뜻을 모으기는 쉬운 일이 아니었다. 가게 규모에 따라 공사비를 견어야 하는데, 매장이 큰 가게는 내야 할 공사비가 2억 원이 넘는 데, 가게 소유자도 아닌 상인들에게 그렇게 큰 금액을 내라고만 할 수가 없었다. 또한 매출 상황이 가게마다 다르니 공사비 부담을 일률적으로 적용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서로 양보하고 배려하

며, 약자에게 특혜를 주는 형식으로 돈을 모았다. 이정구 회장은 그 과정 자체가 “피눈물 나는” 일화였다고 당시를 기억하였다.

이정구 마지막 시에다 딱 납부를 하는 날에는 너무나 좋았죠. 그 조정하는 과정이 너무 사실 힘들었어요.

공사대금은 총 47억 원이 들었다. 경기도에서 5억 원을 지원했고, 수원시에서 골조 부분의 공사비인 10억 원을 지원하였다. 그리고 2014년 롯데몰 입점 당시 롯데로부터 지원 받았던 상생협약금 중 5억 원을 공사비에 투입하였다.¹³⁾ 상인들에게 쉽지 않은 결정이었다. 구희서는 “리모델링비를 걷은 게 그 돈이 많은 줄 알았더니 다들 대출받으시더라구요.”라며, 대부분 5,000만 원, 1억 등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으로 대출받았기 때문에 지금 상환기간이라 힘들다고 했다.

이러한 상인들의 조력을 인정한 수원시에서는 2015년 7월 31일자로 ‘수원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를 만들었다. 국가공유시설에 대해 상인들이 비용을 부담한 공사의 가치를 인정한 것이다. 10년 만기 후 상가를 비웠어야 할 지하도상가 상인들의 이전 부담을 줄일 수 있게 지하도상가 상인들의 임대 기간이 늘었고, 임대료 인상도 매년 감정평가에 근거해서 책정될 수 있게 되었다.

제4조 4항 : 「전통시장 및 상점가육성을위한특별법」 적용을 받는 시장일 경우 임차인(상인회) 부담으로 현대화사업을 한 때에는 전통시장 및 상점이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4조, 같은 법 제46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 같은 법 제21조에 따라 임대 받을 수 있으며 그 기간은 10년 이내로 한다.

제7조(임대료 등) 2항 : 임대료는 「공유재산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31조 및 「수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 31조에 따른 재산가격, 물가변동률, 주변 지하도상가의 활성화 정도 등을 감안하여 매년 감정평가를 실시하여 산정한다(개정 2015.7.31)¹⁴⁾

지하도상가는 리모델링 공사 이후 긍정적인 결과를 얻고 있다. 공사 이전보다 손님이 확실히 늘었다. “이제 어떤 차이가 있냐면, 여름에 특히 여름에는 너무 시원하다 보니까 손님이 많이 몰리고,” “겨울에는 따뜻하고” 여러 가지 외부 요인으로 지하도 이용자가 줄었던 지하도상가에 사람이 늘었다는 것은 반가운 소식이다.¹⁵⁾ “머물러 있는 시간도 많으니까 머물다 보면 뭐 하나라도 더 사겠죠. 이제 그런 또 긍정적인 요소가 있어요.” 리모델링 이전에는 매물 및 불법 전전세의 문제가 많았는데, 이후에는 줄었다.



수원역지하도상가 매장

(2) 가족 경영 중심의 지하도상가



종업원을 없이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이정구 회장

수원역지하도상가의 특징은 종업원을 두지 않고 가족 중심으로 가게를 운영한다는 것이다. 종업원을 두지 않는 데는 두 가지 원인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 전반적인 상가의 매출 저하이다. 매출이 인건비를 감당할 만큼 크지 않아서 종업원을 따로 둘 수가 없게 되었다. 물론 이는 품목에 따라 차이가 있다. 휴대폰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고객 상담시간이 평균 1시간 정도씩 소요되기 때문에 종업원을 따로 둘 수밖에 없다.

이정구 우리도 대부분이 종업원 하나씩은 다 있었어요. 그만큼 이제 계산이 맞았으니까. 근데 최근에 와서는 계산이 안 맞다 보니까. 그런데 핸드폰 가게는 혼자 볼 수가 없어. 왜냐면 우리는 와서 자기가 마음에 드는 게 있으면 사가면 되는데, 핸드폰은 또 상담을 해야 되거든. 그 상담이 또 기본이 한 시간이에요. (중략) 이 핸드폰 계산법이 아-주 고단수야. 그래서 이걸, 그래서 전문가라고 그래. 별것도 아닌데도 일반 사람들은 못 팔아요 구조가. 그렇게 복잡해. 그러다 보니까 핸드폰은 어쨌든, 그리고 나이 먹은 사람은 또 하지도 못 해. 이 조작도 못 하고, 이 판매 방법을 몰라. 알아도 잊어버려. 젊은 사람들밖에 할 수가 없어.

둘째, 종업원들의 사회적인 변화이다. 상인들은 종업원에 대한 시급 인상 등 처우의 변화 외에도 이정구 회장의 비유처럼 “세상이 팍팍해서 그런지” 예전처럼 마음에 맞는 종업원을 찾기가 쉽지 않다. 이정구 회장은 “우리 때만 해도 예의를 갖췄어요. 무슨 사정이 있으면 미리, 주인이 대처할 수 있게. 그런 기본적인 예의가 있었는데 요즘에는 그런 것도 없어요.”라고 했다. 한 번은 종업원이 통보 없이 출근을 하지 않았다가 다음 날 다른 사람이 가게를 찾아와서 다짜고짜 “돈 계산해 주세요!”라고 했단다. “우리도 열막지가

나니까, 당신이 누군지 알고 내가 계산을 하냐? 당사자 데리고 와라. 당사자도 양심이 있어서 혼자는 못 와. 꼭 누구를 달고 오지.” 그는 문제 종업원이 오면 무단결근에 대한 사과하는 한 마디도 없고 요구만 하다 보니 싸움이 벌어진다고 했다.

이러한 해결책으로 상인들은 가족 중심의 경영 전략을 수행하게 된다. 인건비 절감 차원에서 가족들이 하는 경우도 많지만, 상가 개장 당시 입점한 1대 상인들의 자녀들이 성장하면서 부모의 가게를 함께 하는 경우도 많았다. 이정구 회장도 상가 리모델링 공사 이후부터 더 이상 종업원을 쓰지 않는다. 이정구 회장이 운영하는 가게 ‘이슈’는 부인과 막내아들(27세)이 함께 운영한다. 고등학교 때부터 아르바이트를 한 막내아들이 장사에 제법 소질이 있다.

이정구 제가 가게를 보잖아요? 아들만 찾아. 아들 어디 갔냐고. 좀 있다가 오후에 나온다고. 뭐 아들은 이렇게 하는데-

이정구 회장은 장사를 너무 오래 하다가 보니 손님들을 가르치려고 하는 경향이 생겼다고 했다. 손님이 가게 물건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이야기를 하면, “아, 됐어요. 됐어요.”하고 이야기를 중단시켰다. 그러나 이제는 아들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한다고 했다. “그러면 괜히 아들한테 욕 먹이는 일이라 괜히 조심이 되고 그러더라고.” 하며 아들을 자랑스러워했다.

구희서는 아들과 딸이 모두 상가에서 가게를 운영한다. 스포츠 마케팅 전공을 살려서 교수님의 추천으로 미국 스캇 보라스(Scott Boras)에 취업이 된 딸을 상가로 불러들인 건 구희서였다. 집을 담보로 해서 새로 가게를 차려 줬다. 갖고 있던 자본으로 가게를 얻어 줄 수 있었지만, 은행 대출을 받은 건 딸이 나태해질까 봐 걱정한 아버지로서의 예비 장치였다. 딸은 열심히 해서 그 대출금을 다 갚았다. 미국에서 공부도 시켜 주고 연봉도 높은 일자리를 포기시키고 새로운 길을 선택하게 권유한 아버지의 부담감은 없었을까?

구희서 처음에는 서너 달 엄청 시달렸죠 제가. 딸내미한테. 근데 또 나름대로 좋아해 가지고 또 열심히 하고. 딸도 한 15년 했죠. 개는 처음에 액세서리 하다가. 처음에 의류 쪽으로 여태까지 하고 있죠.



딸아들과 함께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구희서

그런 아버지와 누나가 좋아 보였던 것일까? 경찰공무원 시험에 합격한 아들에게도 상가에서 점포를 열 것을 권유하였다. “경찰 근무하면 잠복근무해야 하고, 또 흉악한 놈들하고 잘못하면 서로 먹살잡이보다도 칼싸움도 해야 돼. 그런데 너 그거 할 수 있겠어?”라며 자신이 운영하던 가게를 아들에게 물려줬다. “하고 싶은 걸 하라.”고 했고 그 아들은 현재 휴대폰 판매점을 경영하고 있다. 오전에 아들과 딸이 각각 가게를 열고, 오후에 아버지가 나와서 함께 운영하고 있다.

구희서는 본인은 자녀와 함께 가게를 운영하고 있지만, 지하도상가가 다시 발전하려면 세대교체가 제대로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장사는 젊었을 때 해야 해. 나이 먹으면 이게 힘도 저기고, 체력적으로도 그렇고, 물건 사러 왔는데 밥 먹고 졸고 있으면 손님이 보기 좋겠어?”

이정구 회장과 구희서 모두의 공통된 의견은 지하도상가의 이용 연령층이 낮고, 소비자의 눈높이에 맞는 물건을 팔기 위해서는 소비자의 눈높이에 맞출 줄 아는 사람이 장사를 해야 한다고 했다.

구희서 젊은 사람들이 여기 아까 많이 다녀요. 지금도 그래요. 눈높이를 거기다 맞춰야 되는데, 자기가 70이니까 70에다가 눈높이를 맞춰서 물건을 갖다 놓는 거야.

이정구 물건도 주인 따라 간다고 주인이 늙으면 물건도 늙어요. 왜냐면 내 눈높이에서 물건을 하니까. 젊은 사람들 눈높이를 내가 어떻게 알아? 그렇기 때문에 이게, 가게를 보면 아 이게 젊은 사람이 하는구나. 나이 먹은 사람이 하는구나. 그런데 여기는 젊은 사람밖에 안 오니까.

지하도상가는 현재 세대교체 중이다. 상가 개장 초기부터 자리를 지키고 있었던 1세대들이 여전히 있고 2세대로 교체가 된 매장도 있다. 구희서는 세대교체를 주장하면서도 한편으로는 “2세대는 엄마, 아빠가 돈을 안 벌어 와도 나는 잠을 잘 수 있고 밥을 먹을

수 있으니까, 아까 이야기한 것같이 절박하지가 않은 거야.”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보였다. 대한민국의 가난했던 시절을 겪어 온 어른의 말은 아마 지하도상가만을 두고 한 걱정은 아니었을 것이다.

4. 더불어 살아가는 수원역지하도상가

수원역지하도상가 상인들은 수원시에 대한 애정이 남다르다. 자신들의 삶의 터전인 지하도상가가 수원시 소유이다 보니, 수원시와 수원 시민들을 생각 안 할 수가 없다. 수원역에 내려서 처음 마주하는 수원의 얼굴인 지하도상가는 수원 시민뿐만 아니라 수원을 찾는 외지 사람들이 오는 곳이기 때문에 지하도상가 상인들은 수원에 대한 애정으로 손님들을 대한다. 1980년 7월부터 상가에서 레코드 가게를 했던 구희서는 가게를 찾아 차비를 빌려 달라던 손님들이 많았다고 했다.

차비를 빌려 달라는 행인들에게 기꺼이 차비를 빌려 줬지만,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학생들은 돈을 갚지 않았다. 일반인은 음료수를 사서 고맙다고 다시 찾는 경우도 있었다. 그래도 구희서는 음악을 하는 청년들과 가깝게 지내며, 수원 소재 대학생들의 음악 밴드 공연을 돕기도 했다.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행색이 허름한 노인이 가게를 찾았다 두고 간 지갑을 찾아 돌려준 일이다. 가게 문을 닫고 바로 역으로 찾아 갔더니, 낫을 놓은 채 보파리를 풀어 놓고 지갑을 찾고 있었다. 신분증만 확인하고 지갑을 돌려 드렸다. 몇 년 뒤 구희서는 수원역을 찾은 노인과 만났다.

구희서 보통 손님 없으면 좀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그 노인네야. 여기인가? 저기인가? 그러면서 자기 할망구하고 두 부부가 그러고 오시는 거야. “할아버지 저 찾아오셨죠?” 그랬더니 “어 맞네!” 그러시면서 “아, 내가 지난번에 하도 경황이 없어서 그냥 내려왔는데, 이제 우리 시골 울타리에서 땀 감” 이래. 하하하. 그 옛날에 과일, 대나무로 엮은 망태기 있잖아?



지하도상가에서 자고 있는 노숙인



수원역전지하도상가 3기 상인대학 졸업식(수원시 포토뱅크 제공)

노인은 서울에 살며 자식 다 출가시키고 시골로 농사지으러 가던 길이었다고 했다. 그 돈은 서울에서 낱품팔이 하며 어렵게 모은 돈이었다. 시골에서 농사지을 땅을 사려던 돈이었다. 수원으로 시집 간 딸을 만나고 전라도로 돌아가던 길이었다. 그때 돈 천 만 원 정도였으니 큰돈이었다. 고마움에 지하도상가를 다시 찾은 것이었다.

그뿐만 아니다. 지하도상가는 지난 시간 내내 지역사회와 함께하고자 했다. 행인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상가 화장실을 개방하는 것도 모자라, 화장실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안내판을 붙였다. 1년에 한 번씩 매산동사무소의 추천을 받아 어려운 이웃을 도왔다. 상가 리모델링하면서 잠시 중단되었지만 곧 다시 재개할 예정이다. 그뿐만 아니라 지하도상가를 찾는 노숙자들에게 박정하게 못 하고, 술을 마시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손님들이 없는 밤 시간에 잠을 잘 수 있도록 했다. 노숙자들이 많이 모이다 보니 교회에서 도시락도 갖다 주고, 상가 상인들이 옷도 주고 했다. 지하도상가 상인들은 손님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더 많은 신경을 썼다. 구희서는 전국의 다른 기차역과 달리, 수원역 주변 공간이 사고 없이 올 수 있었던 것은 모두 상인들의 노력 때문이라고 했다. 지하도상가에서 범죄사건 없었고, 그 위 횡단보도에서도 교통사고 한 번 난 적이 없었다.

수원역지하도상가는 지난 38년 동안 많은 변화를 겪어 왔다. 한 고비를 겪고 나면 또 다른 고비가 찾아오는 게 우리 모두의 인생 같다. 현재 놓여 있는 문제들을 어떻게 하면 잘 겪어 낼 수 있는 것이 상인들이 마주한 고민이고 풀어야 할 과제이다. 그러나 그들은 잘 해결해 나갈 것이다. 지금까지 맞닿았던 문제마다 잘 헤쳐 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잘 할 것이다. 그러나 더 이상의 위기는 없었으면 좋겠다.

- 1) 경기도 도시과, 「수원 도시계획 사업(지하도) 실시계획 인가」, 도시 415-6710, 1977년 11월 25일.
- 2) 『매일경제』, 1977년 5월 23일.
- 3) 수원시, 「수원 역전 지하상가(다목적 대피호) 설치 및 현황, 분구 경위 보고」, 1983년 7월.
- 4) 수원시, 「시장개설허가」, 상공1311, 1980년 날짜 미상.
- 5) 광성산업주식회사, 「시장 개설 허가 신청」, 총무 21호, 1980년 2월 23일.
- 6) 수원시, 「역전 다목적 지하 대피도 3차분 무상 사용 허가」, 회계 1232-1135호, 1981년 1월 29일.
- 7) 수원시, 「수원 도시계획시설(지하도) 시행허가에 따른 준공처리」, 도시 442-60, 1981년 1월 12일.
- 8) 『수원일보』, 2004년 1월 8일.
- 9) 역세권은 ① 철도부지(철도시설 부지를 포함한 기존 역사) ② 직접 영향권(도보로 10분 이내 역에 접근 가능한 곳) ③ 간접영향권(역을 중심으로 도보 10분 이상 이 소요되나 1차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접근 가능한 범위)로 구분된다(정석희 등 「철도역세권 개발제도의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2003, 국토교통부).
- 10) 『매일일보』, 2017년 7월 19일.
- 11) 『연합신문』, 2017년 6월 12일.
- 12) "수원역전 지하도상가 개보수공사 공동협약 체결" 「수원시 보도자료」, 2015년 1월 30일. 보도자료에는 총 공사비 49억 원 중 상인회가 39억 원을 부담하는 것으로 나와 있으나, 최종 공사비는 47억 원이며 이 중 상인회가 37억 원을 부담하였다.
- 13) 2014년 롯데몰 수원점 개장 당시 수원시상인연합회의 주도하에 역전에서 벌어진 8일 동안의 노숙투쟁의 결과물로, 2014년 12월 수원시상인연합회와 롯데몰은 상호 상생협약을 맺고 5년 동안 120억 원을 지원받기로 했다(『중앙일보』 2015년 5월 27일).
- 14) 경기도 수원시 건설정책팀, 「수원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시행 2015년 7월 31일. [경기도 수원시 조례 제3416호, 2015년 7월 31일, 일부개정]
- 15)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해지면서 전에는 볼 수 없던 노숙인들이 이곳을 찾기도 했지만 시장 상인들은 영업시간 이후에는 관찰다며 그들을 보듬기도 했다.

03

매산동

사람들의

노동과 삶

대한방직 수원공장
매산동으로 이주한
기술자 조성현의 매산
수원 인쇄골목의 열정

● 대한방직 수원공장과 노동문화

● ● 직장을 위해 매산동으로 이주한 배계진

● ● ● 금형 기술자 조성현의 매산동 정착기

● ● ● ● 수원 인쇄골목의 열정 가득한 세대 : 매산동 대동지업사 김덕진



이동현 국사편찬위원회 편사연구사

제1장

대한방직 수원공장과 노동문화

1. 대한방직 수원공장의 설립과 발전

1) 설경동과 대한방직

섬유공업은 일제시기 이래 수원을 대표하는 산업이었다. 수원의 섬유공업은 1930년대 이후 일제의 전쟁특수를 통해 성장하였고, 특히 직물업의 발전이 두드러졌다. 일제의 침략전쟁으로 직물수요가 크게 확대되면서 경부선 연변의 수원 지역에서는 직물업이 크게 발전하였다. 이 시기 직물업의 발전에는 조선인 자본가들이 적극적으로 기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1942년 수원상공회의소에서 발간한 『수원상공인명록』에 따르면, 1942년 당시 수원직물, 대성직물, 동아직물, 소화직물, 성전직물, 창화직물 등 6개 업체의 대표가 조선인으로 나타난다. 1940년대 이후 일본인도 수원 지역에 공장을 설립하여, 1940년대 수원에는 직물공업단지가 형성되었다.¹⁾

일제의 침략 전쟁 속에서 크게 성장하였던 수원의 직물업은 해방 이후 정치적, 경제적 혼란 속에서 급속하게 쇠락하였다. 수원의 직물공업은 한국전쟁 이후 복구 과정 속에서 새롭게 성장하였는데, 일제가 남기고 간 귀속재산은 그 기반이 되었다. 일제의 귀속재산은 미군정과 대한민국정부 수립을 거치면서 민간에 불하되었다. 대규모 직물공장이 밀집



일제시기 청진에서 삼광운수를 운영하던 시절 설경동
(앞줄 왼쪽, 대한방직주식회사, 『대한방직사사(1953~1995)』, 1997)

한 수원 지역에서는 직물공장을 불하받은 인물들이 1950년대에 단숨에 대자본가의 반열에 올라섰다. 대표적인 인물이 대한방직의 설경동과 신경직물의 최종건이었다.

대한방직의 설립자인 설경동(薛卿東)은 일제시기에 청진을 중심으로 운수업과 정어리 가공업으로 성공한 기업가이자, 해방 이후에는 월남하여 기업가이자 정치인으로 성공한 인물이었다.²⁾ 설경동은 1901년 3월 19일 평안북도 철산군 정혜면 인송리에서 태어났다. 설경동은 1921년 청진에서 삼광상회(三光商會)와 삼광운송점(三光運送店)을 설립하였고, 1926년에는 삼광운수합명회사(三光運輸合名會社)로 규모를 확대하였다. 1932년에는 함북(咸北) 약유비공동판매주식회사(鰯油肥共同販賣株式會社) 전무취체역(專務取



동해수산 공장 기공식(대한방직주식회사, 『대한방직사사(1953~1995)』, 1997)

締役)으로 취임하여 수산업 분야에서도 성공을 거두었다. 설경동은 1936년 삼광운수를 매각하고 동해수산공업주식회사를 창립하여 정어리잡이를 중심으로 하는 어업과 정어리가공업에서 크게 성공을 거두었다.³⁾

1945년 8월 15일 해방과 함께 남북이 분단되자, 설경동은 월남하였다. 설경동은 월남하면서 북한에 소재한 재산은 잃어버렸지만, 서울을 비롯한 남한 각지에 토지를 비롯해 예금과 주식 등 상당량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었다. 설경동은 이 재산을 기반으로 재기를 도모하였는데, 미군정의 귀속재산 관리인으로 재기의 발판을 마련하였다. 미군정은 일본인이 남기고 간 재산을 미군정청에 귀속시켜 관리하고 있었는데, 미군정청은 1945년 10월 조선우선(朝鮮郵船)주식회사의 공동관리인으로 설경동을 임명하였다. 설경동은 조선우선의 관리인을 사퇴한 후 1946년 5월 자본금 300만 원으로 서울에서 대한산업을 설립하였다. 당시 대한산업은 '무역업 등록 제1호' 기업이었다. 대한산업의 사업 분야는 무역, 물품 위탁판매업, 운송업, 어업 및 수산물 가공업 등 해방 전 청진에서 하던 사업종목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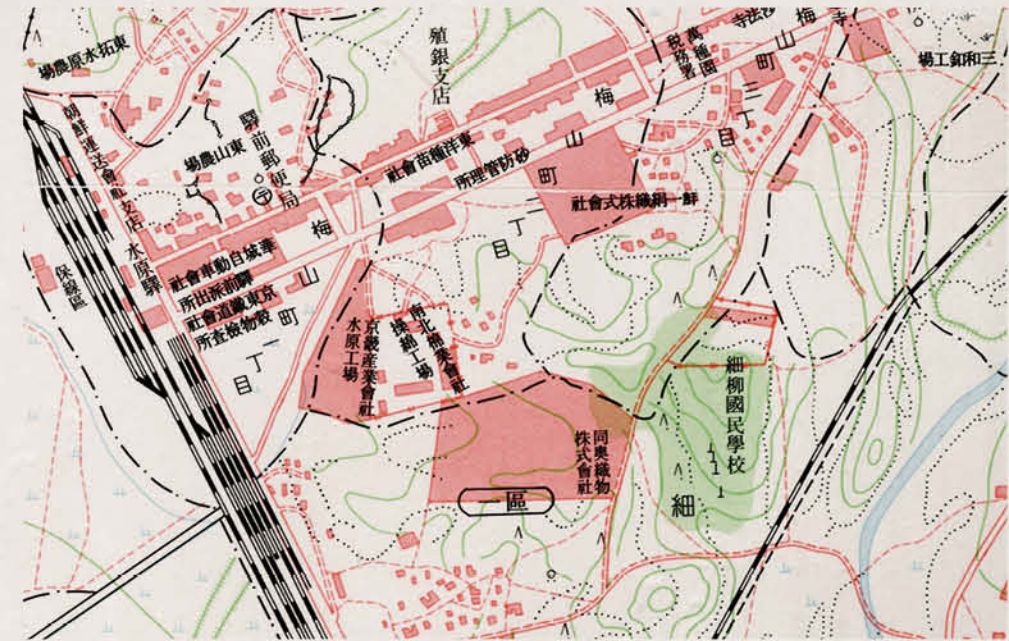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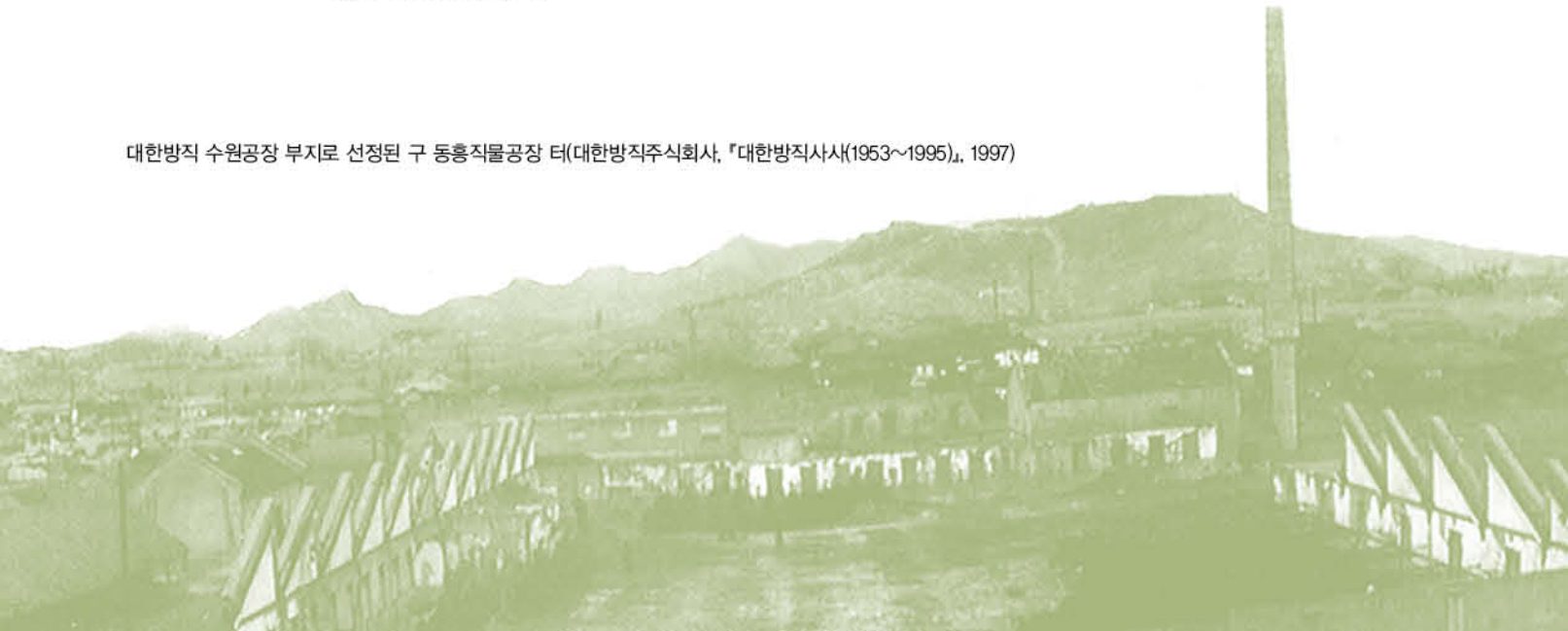
망라한 것이었다. 그 중에서도 주된 분야는 무역이었다. 한국전쟁의 발발로 어려움을 겪기도 했지만, 전황이 안정되면서 대한산업은 무역을 중심으로 사세를 확장하였다. 대한산업은 1953년 수출실적 300만 달러를 달성하여 당시 한국 최대의 수출 기업으로 성장하였다.⁴⁾

2) 대한방직 수원공장의 설립

월남 후 설경동이 남한에서 재기할 수 있었던 있었던 것은 일제시기 이래 축적한 경제적 부에 기반한 것이었지만, 그가 단기간에 대자본가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귀속재산의 불하를 통해서였다. 설경동은 1947년 수원에 소재한 귀속기업체인 수원성냥공장을 불하받았다. 1937년에 설립된 수원성냥공장은 일제 패전 당시에 조선 내에서 최고의 생산능력을 갖춘 공장이었으며, 종업원 규모도 380명에 이르는 대공장이었다. 1949년 당시에도 수원성냥공장은 수원에서 종업원수가 가장 많은 공장이었다.⁵⁾ 그러나 수원성냥공장은 한국전쟁 당시 폭격으로 잿더미로 변하고 말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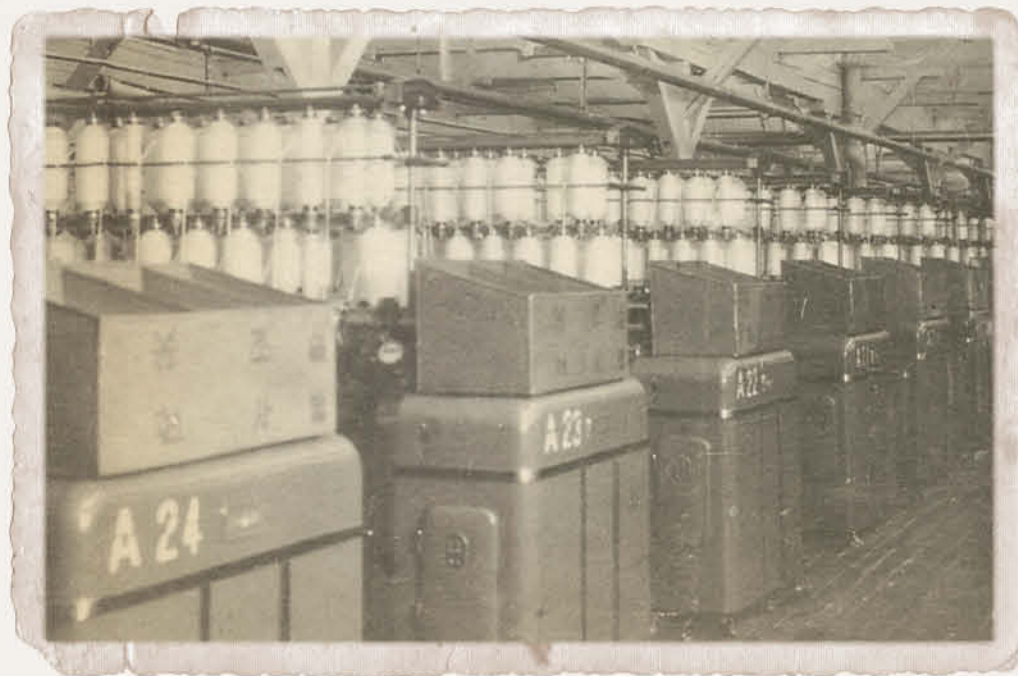
한국전쟁 이후 설경동이 새롭게 진출한 분야가 섬유공업이었다. 설경동은 1953년 대한방직을 설립하고, 1954년 수원공장을 준공하였다. 대한방직 수원공장이 설립된 세류동 부지는 구 조선직물주식회사 수원공장 부지로 1만 7,000평 규모였다. 원래 조선직물은 1932년 안양에 설립된 직물회사였다. 조선직물은 1944년 박흥식이 설립한 조선비행기공업주식회사의 부지로 안양공장을 넘겨주고, 수원의 크고 작은 직물회사를 넘겨받았다. 이 과정에서 1943년 2월 설립된 동흥직물주식회사의 수원공장도 조선직물에 편입되었던 것으로 보인다.⁶⁾

대한방직 수원공장 부지로 선정된 구 동흥직물공장 터(대한방직주식회사, 『대한방직사사(1953~1995)』, 199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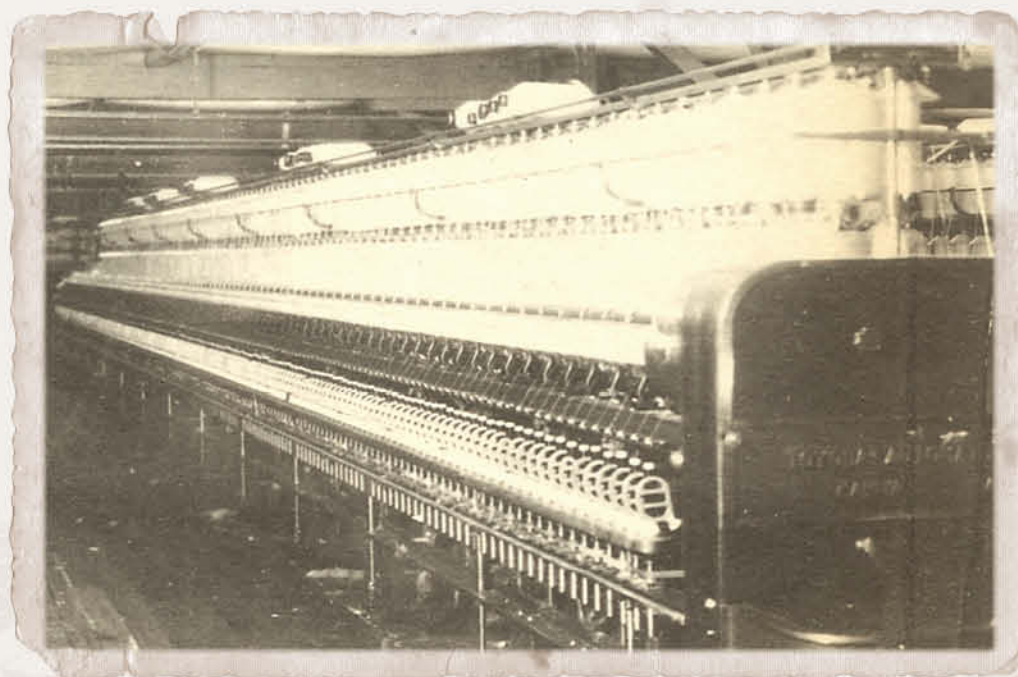


대한방직 수원공장이 들어서게 되는 남북면업회사 조면공장, 동흥직물주식회사, 경기산업회사 수원공장 터(1943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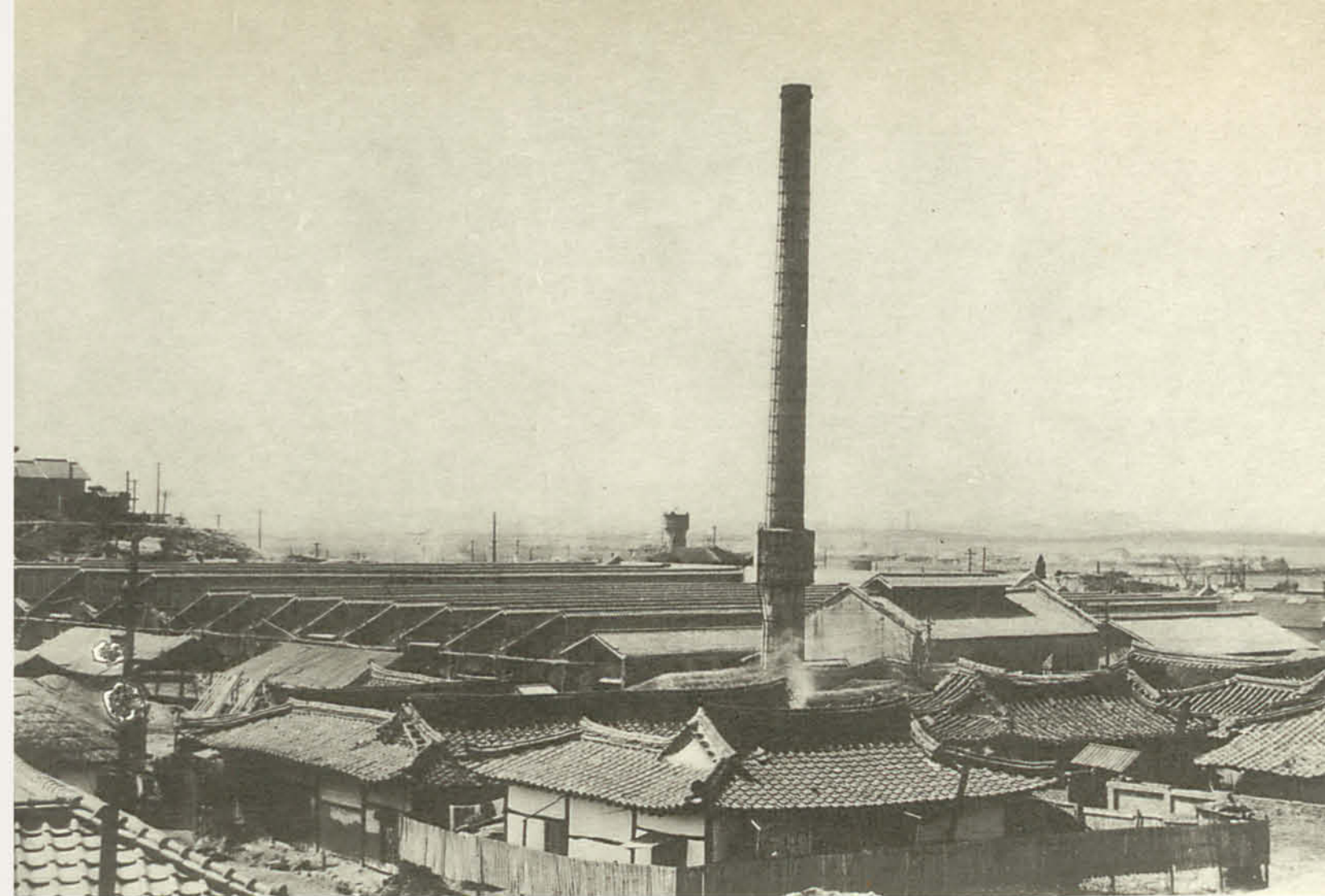




대한방직 수원공장 정방기(시사통신 수원지부, 『수원의 역정』, 1960)



대한방직 수원공장 선방기(시사통신 수원지부, 『수원의 역정』, 1960)



1960년대 대한방직 수원공장(시사통신 수원지부, 『수원의 역정』, 1960)

조선직물주식회사를 불하받은 인물은 이강현이었다. 이강현은 한국 1세대 방직기술자로 일제시기 경성방직이 성장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인물이었다. 그는 해방 후 조선직물주식회사의 관리인을 거쳐, 1954년 2,500만 환에 조선직물을 불하받았다. 이 같은 결과는 이강현이 도내 귀속재산을 관리하는 경기도 재산관리처 고문, 재산정리위원회 이사 등의 경력과 관련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⁷⁾ 이 수원공장을 설경동이 매입하여 대한방직 수원공장을 설립하였던 것이다.

제조업 분야에서 수원성냥공장 경영이 전부였던 설경동이 거대 면방직 공장을 설립을 추진할 수 있었던 것은 1953년 정부로부터 35만 달러의 외화를 불하받았기 때문이었다.

설경동은 이 자금을 바탕으로 대한방직을 설립하고 면방직 설립을 위한 부지 물색을 하였는데, 최종적으로 결정된 곳이 조선직물주식회사 수원공장 터였다. 조선직물 수원공장을 대한방직 부지로 매입하게 된 이유는 수원이 한강 이남의 도시 중 서울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어서 사업상 유리한 점이 많았고, 수원시의 맹렬한 유치운동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한다.⁸⁾

설경동은 수원공장 부지에 일본 도요타자동차방직제작소에서 방적기 1만 추를 들여와 설치하고 1954년 5월에 시운전을 거쳐, 10월에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갔다. 미국산 원조 원면의 대량 도입 덕분에 저렴한 원면을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었고, 물자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시절이었기 때문에 대한방직은 사세를 확장할 수 있었다. 대한방직은 공장 가동 첫해, 조업 3개월 만에 2억 8,000환의 매출과 1,900만 환의 영업 이익을 기록하였다. 이러한 성공에 힘입어 설경동은 단기간에 1950년대를 대표하는 산업자본가이자 대재벌로 성장할 수 있었다. 대한방직이 설립되면서 수원 지역은 일제시기부터 이어지는 견직물업과 함께 1950년대 한국의 대표적인 산업이었던 면방직업의 고장이 되었다.⁹⁾ 설경동은 1955년 조선직물 대구공장을 불하받아, 대한방직은 조업 개시 1년 만에 수원·대구 2개 공장에, 방적시설 4만여 추를 확보한 한국 굴지의 면방업회사로 성장하였다.

3) 대한방직의 성장과 이전

1950년대 대한방직을 설립하여 수원 경제계의 거물로 성장한 설경동은 자유당의 재정 부장을 맡으며 정계로 진출하였다. 1958년에는 자유당 후보로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했으나, 민주당 소속의 홍길선에 패배하였다. 1960년 4·19 이후, 자유당정권 시기 자행된 정경유착 청산 과정에서 설경동은 부정축재자로 지목되었다. 1961년 쿠데타로 등장한 군사정부에 의해 부정축재 처리작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되었으나, 결국 3억 8,100만 원의 부정축재 환수금을 납부하는 것으로 설경동의 부정축재 처리는 마무리되었다.¹⁰⁾ 경제개발을 당면목표로 내세웠던 집권세력이 경제개발을 빌미로 재벌과 기업가들에게 면죄부를 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1960년대 이후 경제개발이 본격화하면서 수원 지역에서는 섬유공업을 중심으로 공업화가 진행되었다. 수출제일주의를 표방한 정부의 정책에 힘입어 대한방직을 비롯한 수원의 섬유공업은 더욱 활기를 띠었다. 제1차 경제개발계획이 끝나는 1967년 당시 수원



1967년 수원공장 증축공사장(대한방직주식회사, 『대한방직사사(1953~1995)』, 1997)

의 제조업 부분 취업인구는 총 4,882명에 이르렀는데, 섬유업종은 3,643명으로 전체의 74.6%를 차지하였다. 같은 기간 섬유공업의 가동률은 82.9%를 차지해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다. 즉 1960년대 수원의 공업화는 섬유공업이 주도하였다고 할 수 있다.¹¹⁾

당시 섬유공업의 성장은 대한방직과 같은 대기업이 주도하고 있었다. 1960년대 이후 대한방직은 설비 확충, 기술개발, 신제품 개발에 박차를 가하여 시설, 생산량, 수출량이 크게 증가하였다. 1969년 말 현재 대한방직 수원공장의 방적추수는 5만 2,800추에 달했고, 대구공장과 합하면 전체 방적추수는 10만 6,176추에 달하였다. 수출액도 크게 늘어 1957년 13만 7,480달러를 미국에 처음 수출한 이래, 1972년에는 연간 수출액 1,000만 달러를 돌파하였다.¹²⁾

1970년대에 대한방직은 오일쇼크와 같은 위기상황을 겪기도 하였지만, 1975년 전주공장 설립, 1977년 달성군 월배가공공장 완공 등 지속적으로 성장하였다. 그러나 1970년대까지 수원 지역에서 섬유업종은 제조업 고용 현황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으

1977년 대한방직 수원공장(수원박물관 제공)



나, 그 비율은 점차 줄어들었다. 1970년 후반을 거치면서 전자·전기업종의 고용 흡수율이 매년 현저하게 증가하여, 섬유업종의 고용 규모를 앞질렀다.¹³⁾ 1980년대 중반 이후 섬유산업은 국내산 화학섬유제품이 가격경쟁력을 상실하면서 점차 퇴조하기 시작하였다. 대한방직은 사업을 다각화하면서 국외진출을 추진하였다. 1994년 중국 칭다오에 공장이 설립되면서, 수원공장은 1996년 폐쇄되었고 수원공장의 시설 역시 중국으로 이전되었다. 대한방직 수원공장은 1997년 매각되어 현재는 아파트단지로 개발되었다.

2. 대한방직의 생산관리와 노동과정

1) 공장 조직체계의 변화

1953년 창립 당시 대한방직의 조직체계는 대한산업의 조직형태를 그대로 도입하였으나, 1954년 수원공장이 설립되면서 본사와 공장을 아우르는 조직체계가 구성되었다. 공장의 조직체계는 시대별로 차이가 있으나, 기본적으로는 서무·총무 부서와 생산 부문으로 구분되었다. 1954년 일본에서 도입된 방직시설이 수원공장에 설치되면서 공장 조직체계가 정비되었다. 1954년 설립 당시 수원공장의 기본 조직은 총무과와 생산과로 구분

되었다. 총무과 내에는 경리계, 노무계, 자재계, 창고계, 경비계가 설치되었고, 생산과에는 혼타면계, 소면계, 연조·조방계, 정방·정사계, 시험·롤러계, 전기·기관계, 공작계, 권사계가 설치되었다. 1955년에는 종업원의 건강관리를 위해 의사와 간호원이 상주하는 의무실을 신설하였다. 1956년에는 수원공장 총무과를 부(部)로 승격시켜 서무과와 생산과를 관장케 하였다.¹⁴⁾

1960년 창업주 설경동이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고 장남 설원식 전무가 경



1958년 수원공장 공무과 회의(대한방직주식회사, 『대한방직사사(1953~1995)』, 199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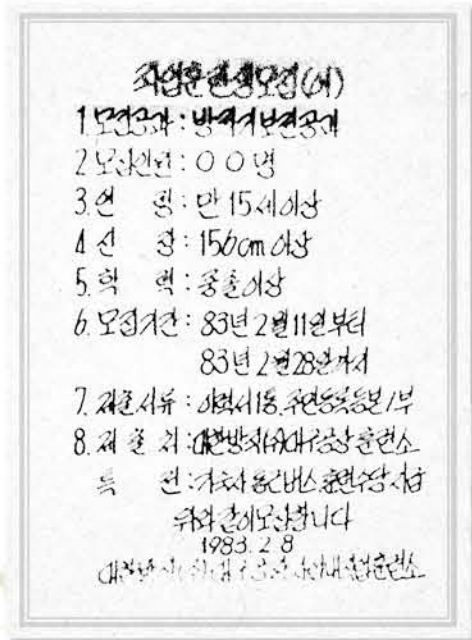


자동화된 소면작업(대한방직주식회사, 『대한방직사사(1953~1995)』, 1997)

영권을 승계하였다. 1961년 기획관실을 신설하여 종업원 교육을 위한 교재의 편찬과 기술토론 및 작업표준서 작성 등을 전담케 하는 등 새로운 생산관리기법의 도입을 추진하였다. 설원식이 경영권을 물려받기는 했지만 창업세대의 영향력이 지속되고 있었기 때문에 전면적 조직개편은 1960년대 중반 이후 단행될 수 있었다. 1960년대 중반 이후 본사와 각 공장의 기구개편이 단행되면서, 수원공장에서는 생산과가 부로 승격되고, 그 아래에 방적과, 관리과, 공무과가 설치되었다.¹⁵⁾

대한방직의 성장에 따라 본사의 조직체계는 지속적으로 개편되었고, 수출의 증가에 따라 해외 지사의 설립 등 대한방직의 조직체계는 확대를 거듭하였다. 그러나 수원공장의 기본적인 조직체계는 커다란 변동 없이 유지되었다. 1980년대 중반 이후 두드러진 특징 중의 하나는 전산화, 자동화 시스템의 구축이었다. 1987년 초에 경영합리화의 일환으로 전산실이 창설되면서 사무자동화, 공장자동화, 생산자원회계 시스템, 경영정보 시스템 등이 구축되었다.¹⁶⁾ 1980년대 중반 이후 전산화, 자동화 시스템의 구축은 생산과정의 새로운 변화를 반영하는 것이었고, 그에 따라 생산관리기법의 변화가 동반되었다.

2) 채용 및 인사



대한방직 직원모집 공고
(대한방직주식회사, 『대한방직사사(1953~1995)』, 1997)

섬유공업은 노동집약적인 산업이었기 때문에 많은 노동력을 필요로 했다. 『대한방직사사』에 따르면, 1954년 설립 당시 수원공장의 사원수는 202명이었다. 이후 사원 숫자는 지속적으로 늘어나 1970년대 중반에는 900명대에 이르렀다. 많은 노동자들이 생산직과 사무직으로 대한방직 수원공장을 거쳐 갔지만, 수원공장의 구체적인 채용 및 선발, 노동과정을 알려 주는 자료는 많지 않다. 『대한방직사사』를 통해 수원공장의 채용과정을 추측할 수 있다.

대한방직의 생산직은 숙련공, 양성공(養成工), 일급(日給) 사원으로 구분되었다. 1954년 수원공장이 완공되자 대한방직은 우선 업계에서 우수한 숙련공 150여 명을 선발하여 본격적인 공장가동에 대비하였다. 양성공은 수원 현지의 20세 미만 여성들을 엄선하여 50여 명을 채용하였다. 『대한방직사사』에 따르면 여자 양성공의 지원 자격은 중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 신장 153cm 이상, 만 18세 이상 20세 미만 등이었고, 선발은 자필이력서, 간단한 필기시험, 적성검사 및 면접을 통해 이뤄졌다. 양성공은 2주간에 걸친 이론교육과 현장실습을 마친 뒤 숙련공들과 함께 각 생산 라인에 배치되었다.¹⁹⁾

이후 시설이 확장되고 생산량이 늘어남에 따라 조직적인 일급(日給)사원 모집이 시작되었다. 공장 총무과에 노무계를 설치하고, 공장이나 대로변의 벽보판에 양성공 모집 광고문을 게재하여 정기 또는 부정기적으로 종업원을 모집하였다. 일급사원의 선발방법은 잡역공(雜役工)의 경우 초등학교 졸업 이상의 40세 미만자로, 조공(助工)은 초등학교 졸업 이상의 30세 미만자로 선발하였다.

1950년대 당시에 취업 지원자들은 수원 시내뿐만 아니라 평택이나 안성 등지에서도 모여들었다. 전후(戰後)의 열악한 경제상황에서 경쟁률은 10대 1에 이르기까지 했다.²⁰⁾ 공장 설립 초기에는 사원 선발은, 같은 시기 선정직물이 그러했듯이, 연고를 통한 입사가 많았다. 또한 선발 조건이나 방식 역시 선정직물에서 그랬던 것처럼, 학력이나 경력 등 특별한



1973년 여자시용공 제2기생 입사식(대한방직주식회사, 『대한방직사사(1953~1995)』, 1997)

기준이 있다기보다는 인상착의와 일할 만한 자세 등을 우선시했을 것으로 보인다.¹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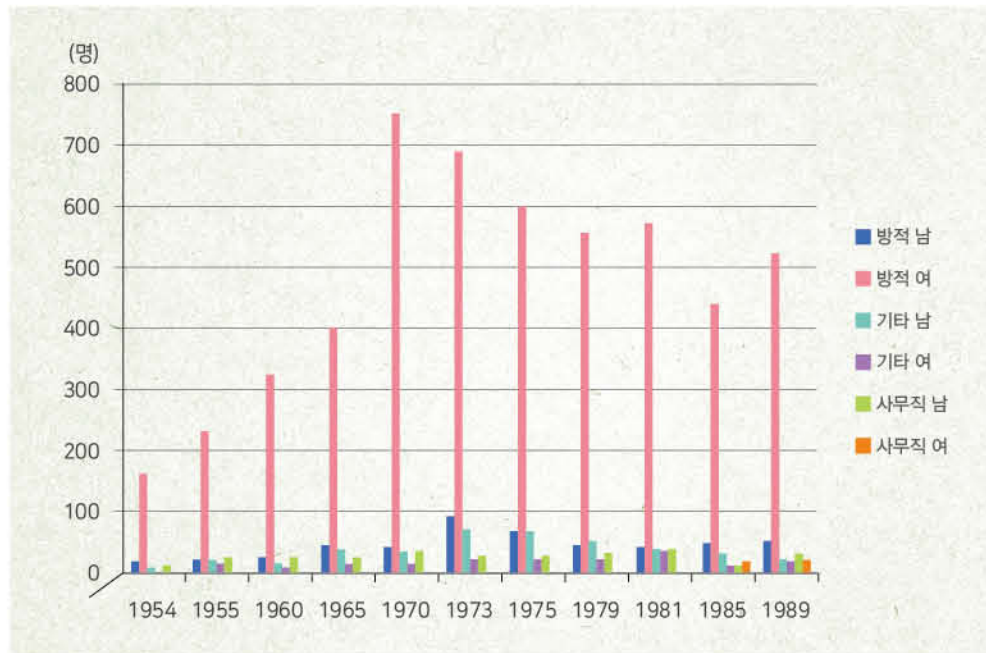
이후 회사 경영이 체계를 갖추면서 사원의 공채 등 사원의 선발방식도 점차 체계화되었다. 중학교 졸업자를 선발하는 양성공 모집에서는 많은 학생들이 상급학교 교육을 희망하였기 때문에 산업체 특별학급이 좋은 유인요인이 되었다. 일급사원의 채용은 1년 중 연말연시, 설날(구정), 산업체 특별학교 졸업으로 인한 퇴직률이 가장 높은 12월에서 2월까지의 기간에 정기모집을 실시하고, 그 외의 기간에는 결원이 생길 때마다 수시로 채용하였다.²⁰⁾

1954년 수원공장 설립 이래, 사원 숫자는 1954년 202명을 시작으로 점차 늘어나 1973년 902명으로 정점에 달하였다. 1973년 이후 사원수는 점차 줄어들어, 1970년대 중반 이후에는 700명대를 유지하였다. 1980년대에 들어서도 인원 감소 추세는 그대로 이어졌다. 1981년 726명을 기록한 이후 1982년에는 595명으로 급감하였고, 1987년 733명을 기록한 것을 제외하면 전체 사원수는 대체로 500명대 후반에서 600명대 후반에 머물렀다. 1954년 공장 설립부터 1980년대 말까지 수원공장의 연도별 사원 추이는 <표 1>과 같다.²¹⁾

표 1 대한방직 수원공장 사원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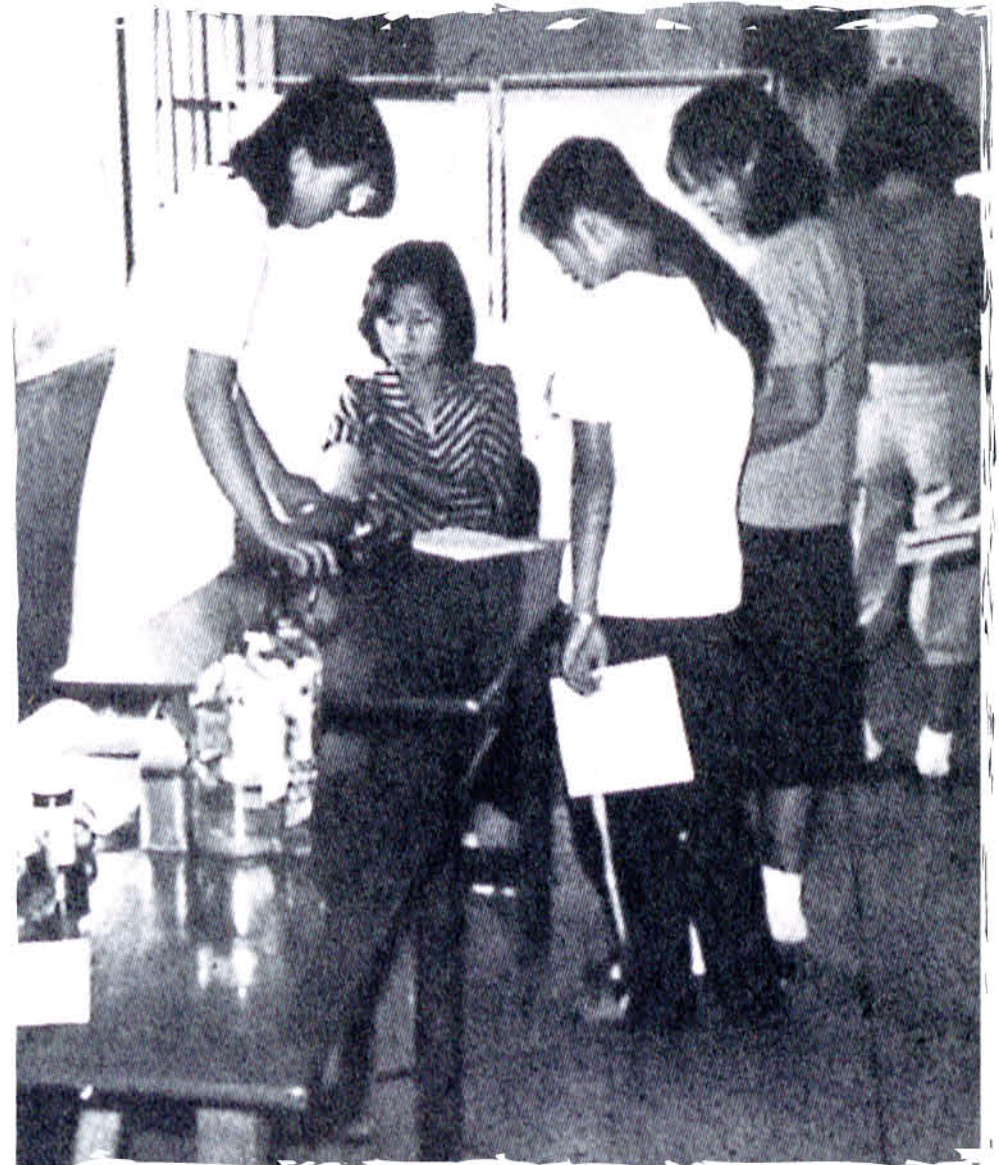
(단위 : 명)

직종	성별	1954	1955	1960	1965	1970	1973	1975	1979	1981	1985	1989
방직	남	18	22	24	45	41	91	68	45	42	50	51
	여	163	231	325	402	754	688	599	560	572	442	524
기타	남	9	23	17	39	36	72	69	53	39	31	21
	여		17	10	15	16	22	22	21	34	13	19
사무직	남	12	24	24	27	37	29	30	32	38	13	32
	여		2	1						1	20	23
합계		202	320	401	528	884	902	788	711	726	566	670



대한방직 수원공장 사원 추이

직종별로는 방직에 종사하는 사람이 가장 많았고, 사무직 및 기타 직종은 소수에 불과하였다. 방직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은 여성의 비율이 압도적이었다. 사무직 중에서 여성 비율은 아주 낮았다. 1960~1970년대에는 여성 사무직이 한 명도 없었다. 여성 사무



지원자 신체검사(대한방직주식회사, 『대한방직사사(1953~1995)』, 1997)

직 비중은 1980년대에 크게 늘어났다. 1~2명에 불과하던 여성 사무직은 1983년 18명으로 늘었다. 당시 남성 사무직 숫자는 12명으로, 전체 사무직에서 여성의 비율이 더 높아졌다. 이후 20명 남짓한 여성이 사무직으로 종사하였다.

설립 초기 연고관계에 의존하였던 사원선발은 1957년 공개채용제도 도입되면서 체계화되었다. 사원의 선발 공고는 주로 일간지에 모집 광고를 통해 이루어졌다. 일급사원, 양성공 등 생산직 노동자와 상업·공업고등학교 출신자의 선발은 간단한 필기시험과 면접을 통해 이뤄진 반면, 대학 졸업자는 시험을 통해 선발하였다. 대학졸업자의 경우 처음에는 출신대학의 추천의 통해 선발하였으나, 1960년부터는 시험제도를 채택하여 그해에 대졸사원 4명을 선발하였다. 대졸 사원의 경우에는 인문계와 기술계로 나누어 1차 서류심사와 2차 필기 및 면접시험을 통해 선발하였다. 상업·공업고등학교 출신 사원은 서류전형과 면접만으로 선발하였는데, 실무경력 2년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는 특별히 우대하였다. 1960년대에 시행된 대학 졸업자 공채에 대한 내용은 다음의 인용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²²⁾

올해 예정으로는 방계 타사 인원 5~6명을 포함해서 이공계 8명, 인문계 12명으로 대략 20명 정도를 뽑을 계획이다. 시험일자는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으나 10월 말경이나 11월 초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시험과목 및 응시자격 등은 다음과 같다.

① 일시 = 미정(10월 말경)

② 채용인원

가. 인문계 = 12명

나. 이공계 = 8명

③ 응시자격

가. 인문계 = 상경계 대학 졸업자 및 금년도 졸업예정자로서 학교장 추천자

나. 이공계 = 섬유·기계·전기·화공과 졸업자 및 금년도 졸업예정자로서 학교장 추천자

④ 시험과목

가. 1차시험 = 전공과목(100점) 영어(100점) 논문(100점) 상식(100점)

나. 2차시험 = 면접시험(1차 시험 합격자)

△ 참고로 작년도의 예를 보면 18명을 뽑았는데 경쟁률은 16 대 1이었다.

기사에 따르면 1966년 대한방직에서는 대한그룹의 계열사에 해당하는 방계 타사 인

원을 포함해 20명의 대졸 신입사원을 선발하려고 하였다. 선발된 신입사원은 6개월간의 수습과정을 거치는데, 이공계는 6개월간 공장실무 교육을 받으며, 일반사무계는 3개월간 대구와 수원 두 공장에 배치되어 공정·기술관계 등의 기초지식을 배우고 3개월은 서울 본사에서 실무교육을 받는다고 한다. 수습교육을 마친 신입사원은 성적과 적성검사에 따라 직무를 부여받게 된다고 한다. 수습기간 중 대우는 1만 원이며, 정식 발령 후 초봉은 1만 3,000원으로 비교적 높은 수준이라고 하였다. 사무직 사원의 선발방식은 1970년대 후반 섬유업계의 구인난이 심해지면서 변경되었다. 필기시험이 폐지되고 서류전형과 면접을 통해 인력을 선발하게 되었다.²³⁾

3) 임금과 노동조건

대한방직에 입사한 노동자들은 입사 경로에 따라 별도의 직급으로 관리되었다. 1955년 수립된 직급체계는 갑(甲)·을(乙)·병(丙)급으로 구분된다. 갑급은 간부와 주임, 평사원 등 월급사원으로, 을급은 수석기능공과 우수기능공을 포함한 일급주간근무 사원으로, 병급은 기능공, 잡역공, 양성공 등 일급 주야간 교체근무자들로 구성되었다. 특징적인 사실 중의 하나는 호칭이었는데, 사원은 전체 직원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였지만, 구체적으로 관리직을 비롯한 사무직을 뜻하는 것이었고, 공원(工員)은 기능공, 양성공 등 생산직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1969년에 직급제도를 전면 개편하면서 공원이라는 명칭은 일급사원으로 변경되었다. 당시 대한방직은 등급제도를 전면적으로 개편하여 직급을 단순화하였다. 또한 연공서열 위주의 인사제도에서 파생되는 불만의 소지를 없애고 공평한 승급 기회를 갖도록 하기 위해 업계 최초로 직능급 고과제도를 도입하였으며, 직급을 간편하게 체계화하였다. 이 당시 조정된 직급제는 ‘부장-차장-과장-과정대리-계장/주임-사원-촉탁사원-일급사원-양성공-일용잡급’으로 개편되었는데, 이후에도 그대로 운영되었다.²⁴⁾

『대한방직사사』에 따르면 1950년대 대한방직의 임금액이 상당히 높은 수준이었다고 소개하고 있다. 1955년에 마련된 임금규정에 따르면, 평사원(갑급 13호)의 월급액은 2만 330환이고, 평공원(을급 6호)은 일급 200환에 매월 현장수당 1,700환, 시간외수당 2,925환(월평균), 휴일수당 270환, 물가수당 1,220환, 개근수당 400환을 합하여 월 총액은 1만 2,515환이었다. 남자 수석기능공(을급 2호)에게는 일급 380환에 물가수당, 사



1960년대 대한방직 수원공장 생산현장(시사통신 수원지부, 『수원의 역정』, 1960)

택수당, 후생수당 등 총 2만 2,500환이 지급되었다. 당시 쌀 1가마가 4,300환, 광목 1필이 4,800환에 비추어 본다면 대한방직의 임금수준은 상당히 좋은 대우였다는 것이다.²⁵⁾

그러나 당시 임금 수준에 대한 대한방직의 평가는 실제 노동현실과는 거리가 먼 것이었다. 평공원으로 나와 있는 을급 6호는 생산직 중에서 가장 높은 직급인 수석기능공에 해당한다. 당시 직급 구분에 따르면, 공원은 30등급으로 구분되었다. 을급 6호는 공원 중의 가장 상위 직급인 수석기능공의 가장 낮은 등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다수의 평공원의 실상과는 거리가 먼 것이었다. 수석기능공(을급 6호)에 해당하더라도 사무직(갑급 13호)의 절반에 불과하였다. 더욱이 1만 2,515환의 월급 총액은 일급과 수당을 합한 금액으로, 낮은 기본급을 수당으로 보충하는 구조였다. 따라서 실제 일반 생산직 노동자들이 수령하는 월급은 훨씬 적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나 가장 하위직급이었던 양성공은 그보다 훨씬 열악했던 것으로 보인다. 양성공은 공원 중에서 가장 낮은 등급인 27~30등급에 해당하고 있었다. 1956년 대한방직 대구공장 사례를 통해 당시 양성공 노동자들의 임금 수준을 추측할 수 있다. 1956년 대한방직 대구공장에서는 공장 불하 이후 노동조건의 악화에 노동쟁의

를 전개하였다. 당시 쟁의 결과, 29급에서 27급까지의 하위직 노동자들은 26급으로 승급되었고, 그에 따라 임금도 상승하였다. 당시 기록에 따르면 양성공의 임금은 월평균 7,000~8,000환에 불과하였다. 선정직물 노동자의 증언에서도 비슷한 임금액을 확인할 수 있다. 1950년대 중반 대한방직을 비롯한 섬유업계의 하위직 노동자들의 임금은 대략 8,000환 내외에서 형성되었고, 1만 환을 넘기기는 힘들었던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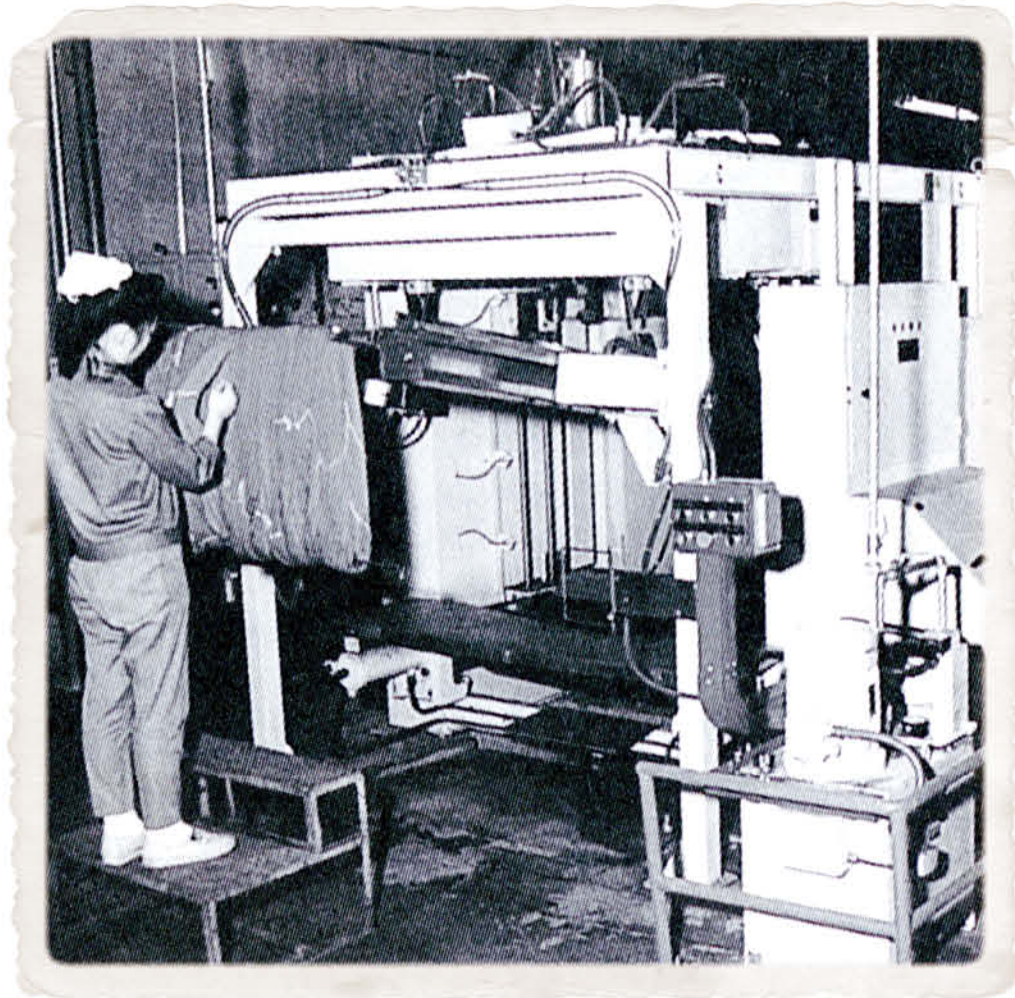
과거에 쟁의를 하기 전에는 임금의 평균액 이하 8,000환 되는 사람도 있고 7,000환 되는 사람도 있고 만 환 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투쟁한 결과에 최하 임금이 1만 4,700환이 되었습니다.²⁶⁾

초창기에는 8,000원 그런 정도일 거야. 내가 볼 때도 8,000원, 만 원만 넘어도 아주 많이 주는 걸로 생각했을 거야.²⁷⁾

저임금과 함께 노동자들을 괴롭힌 것은 장기간 노동이었다. 1950년대 당시 8시간을 넘는 초과노동은 일상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1956년 대구공장 쟁의 당시 노동조합은 노임 인상 없이 노동시간이 12시간으로 늘어났다고 비판하고 있다. 1959년 대한노총 산하 섬유노동조합이 8시간 노동제를 요구하며 전국적인 쟁의행위에 돌입하였던 사실도 이 같은 사실을 잘 보여 준다.²⁸⁾ 『대한방직사』에서는 1962년 1일 3교대, 월 25일 근무제가 실시되었다고 하지만,²⁹⁾ 노동현장에서의 실상은 이와는 거리가 멀었던 것으로 보인다. 일례로, 1968년 대한산업보건협회의 고무 및 방직업계의 300인 이상 고용사업자에 대한 조사



검단작업(대한방직주식회사, 『대한방직사사(1953~1995)』, 1997)



건조작업(대한방직주식회사, 『대한방직사사(1953~1995)』, 1997)

에 따르면, 44개 사업장이 법정근로시간을 어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근로시간 연장과 연중무휴근무 등으로 인한 피로감, 작업환경의 불비, 직업병 대책 소홀, 고질적인 저임금 구조를 노동생산성의 효율적 증가를 가로막는 폐해로 지적하고 있다.³⁰⁾

1969년에는 임금 인상을 둘러싸고 섬유노동조합 차원의 쟁의행위가 발생하기도 했다. 1967년부터 섬유업계의 대한방직협회와 섬유노동조합에 산업별 임금교섭이 진행되었다. 대한방직협회, 각 회원사와 전국섬유노동조합이 공동으로 참여하여 방직공업 중앙노동자협회를 구성하고, 임금 인상 시기와 폭등을 협의하였다. 1969년 당시 섬유노조에

서는 숙련공은 253원에서 325원으로, 양성공은 125원에서 160원으로, 평균 28.5%의 임금인상을 주장하였다. 협상이 결렬되자 섬유노조는 연장근무 거부, 휴일근무 거부, 휴식 시간 철저 이행 등을 내세우며 쟁의행위에 돌입하였다. 방립방직, 금성방직, 태평방직 등 3개사에서는 1만여 명의 조합원이 2시간 파업을 단행하기도 했다. 이에 사용자 측은 16개 방직회사가 집단적으로 직장폐쇄를 결정하는 등 극단적으로 대립하였다. 이에 정부당국의 임의 중재를 통해 평균 19.37% 인상, 종업원 평균 일급은 302원으로 조정되었다.³¹⁾

1970년대에도 노조의 임금 인상 요구는 계속되었고, 1973년부터 1978년까지는 면방 직업계의 호황에 힘입어 매해 임금이 인상되었다. 그러나 지속적인 임금 인상에도 불구하고, 임금 수준에 대한 불만은 지속되었다. 인상률의 일괄 적용으로 기본급이 높은 사람에게는 많은 혜택이 돌아갔지만, 기본급이 낮은 사람에게 상대적으로 혜택이 적었기 때문이다. 1976년부터는 이러한 불균형 완화를 위해 수령액에 따라 18%에서 26%까지 차등인상을 적용하였다. 임금 수준의 평형을 기하여 저임금 노동자들의 불만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였다.³²⁾

1970년대에 지속적으로 임금 인상이 계속되었다고는 하나, 생산직 노동자들의 저임금 구조는 크게 개선되지 못하였다. 1980년 5월 12일 『경향신문』에서 작가 강용준은 방직공업에 종사하는 여성노동자들이 6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의 임금을 받고 있으나, 살인적인 물가 상승 폭까지 고려하면 실질임금은 더욱 열악한 수준이라고 열악한 노동현실을 고발하고 있다. 10만 원을 받는 입사 6년차인 여성노동자는 1년에 하루도 결근하지 않고 3교대 근무의 결과로 얻을 수 있는 것이라고 한다.

요컨대, 6만 원, 10만 원선인 것이다. 그것도 명목임금이 그렇지 전액이 그들의 손 안에 쥐어지는 것도 아니며 그놈의 살인적인 물가상승 폭까지 감안한 실질임금이라는 얘기가 될 때는 물론 그보다 훨씬 더 열악한 수준이 된다.³³⁾

잘 알려져 있듯이 1960년대 이후 개발연대기에 한국 경제는 노동자들의 저임금에 기대어 성장하였다. 1960년대 이후 임금 상승과 노동조건 개선이 이루어지기는 하였지만, 저임금에 기반한 장시간 노동구조는 1980년대 중반까지 지속되었다. 이 같은 구조적 문제는 1987년 민주화 과정에서 분출한 노동자들의 집단적 진출을 통해서 비로소 개선되기 시작하였다.

4) 교육훈련

대한방직의 사원 교육은 교양교육, 산업체 특별학교, 신입사원교육, 전문교육 등이 있었다. 공장에서 다수를 차지하는 10~20대 여성 노동자들은 학교교육의 혜택을 누리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 이들을 위한 취미·상식·생활예법 등을 위한 교육이 교양교육이었다. 취미·상식 교육은 주로 일과 후에 실시되었으며, 양재, 요리, 수예, 편물, 꽃꽂이 등 12개 과목으로 나누어, 각 과목별로 그룹을 편성해 독서·토론·실기교육이 진행되었다. 예법교육은 매달 1시간씩 외래 강사를 초빙하여, 생활법률, 순결교육 등을 실시하였다.³⁴⁾

신입사원교육과 전문교육은 사원들에 대한 직업훈련,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이었다. 신입사원은 입사와 동시에 회사의 훈련프로그램에 따라 회사업무에 대한 집중적인 교육을 받았다. 대졸 사원은 3개월 과정으로 회사 운영 전반에 대한 이론교육을 받은 후 각 공장을 순회하면서 현장실습을 수행하였다. 상·공고 출신 사원은 1개월간의 견습기간 중에 경리, 영업 등 실무에 관한 교육과 공장에서의 실습교육을 통해 관리기법과 방직기술을 터득하였다. 중졸 잡역직 사원은 2주간의 연수기간에 공장 생산작업 교육을 받고, 현장에서 안전관리와 방직기술 등을 수련하였다.³⁵⁾

여자 양성공은 1개월간의 실습기간을 갖고, 방직기술의 이론과 표준동작, 새마을분임조 활동 등에 관한 현장훈련을 받았다. 첫 주에는 취업규칙, 안정교육, 후생시설 사용교육 등 공장의 기본적인 안내와 교양교육을 받았다. 하루에 일반교육에 5시간에 배정되었고, 현장훈련은 점차 교육시간을 늘려가며 훈련강도를 높여 갔다. 둘째 주부터는 현장에서 부서별로 전문적인 기능훈련을 실시하였다. 셋째 주에는 실기 중심의 훈련이 실시되며, 마지막 주에는 개인별 책임이 부여되어 해당 공정의 업무를 타인의 도움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³⁶⁾

1971년 5월 28일에는 노동부로부터 수원, 대구, 전주 등 3개 공장에 사내 직업훈련소를 승인받아, 입소생들에게 3개월간 직업훈련법에 따른 전 교과목을 이수하도록 했다. 교과목은 교양, 사회, 전공과정으로 나누어지는데, 사회과정은 새마을운동, 근로기준법 등이고, 전공과정은 이론과 실기로 다시 구분되었다. 이론교육 과정은 물리학, 섬유학, 방직공학, 제직공학 등으로 짜여 있고, 실기교육에는 방직 및 제직기술이 포함된다. 여자 훈련생들은 정규과목을 이수하고 기능자격시험에 합격하면, 양성 또는 수습기간을 거



대한방직 직업훈련(대한방직주식회사, 『대한방직사사(1953~1995)』, 1997)



제1회 품질관리분임조 경진대회(대한방직주식회사, 『대한방직사사(1953~1995)』, 1997)

치지 않고 곧바로 사원으로 채용되어 승진·승급의 각종 특전을 받을 수 있었다.³⁷⁾

전문교육은 품질관리, 안전관리 등 사원들의 직무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이었다. 1961년 표준화법이 제정됨에 따라 수원·대구공장에서 실시된 통계적 품질관리교육이 대한방직의 전문교육의 시초라고 할 수 있다. 1963년부터는 공장의 운전작업에 대한 표준화교육을 실시해 관리기법의 향상을 도모하였다. 이무렵부터 매년 1~2회에 걸쳐 2~3명의 중견기술진에 대한 1개월 이상의 해외 현장실습이 도입되었다. 1976년부터 실시된 품질관리(QC : Quality Control)교육은 전 사원의 필수교육과정이었는데, 품질관리 이론과 QC분임조활동 등에 대한 연간 10시간 이상의 교육이 실시되었다. 1978년에 QC교육은 새마을 분임조 교육으로 개칭되었다. 이 외에도 안전관리교육과 파견교육이 실시되었다. 파견교육은 공장새마을연수원, 한국표준협회, 생산성본부, 섬유기술진흥센터 등에서 최신기계의 조작기술과 관리기술 등을 교육받는 것이었다.³⁸⁾

대한방직에서 실시된 교육활동은 기본적으로는 사원들의 직무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에서 수행된 것이었지만, 노동자들의 노동과정과 일상에 대한 통제 또한 주요한

목적 중의 하나였던 것으로 보인다. 교양교육의 교육내용은 생활예법, 순결교육 등 여성의 성역할을 고정하는 보수적인 내용이었으며, 여성노동자들은 기숙사 생활을 통해 이러한 생활규범을 내면화하도록 요구받았다. 신입사원 교육내용에서도 국가관 확립, 직업관, 인간관계 등이 주요한 교육항목으로 편재되어 국가와 기업에 순응하는 노동자상을 형성하려 힘썼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정신주의적 교육활동의 가장 극적인 형태는 1970년대 공장새마을운동이었다. 대한방직은 정신 계발, 환경 개선, 생산성 향상이라는 새마을운동 3대 목표를 설정하고, 1972년부터 수원공장을 시작으로 공장새마을운동을 전개하였다. 공장새마을운동을 위해 공장새마을추진위원회가 구성되었고, 새마을정신과 품질관리에 대한 사내교육이 실시되었다. 새마을교육은 애사정신, 국민경제, 가족계획, 영농방법 등 정신교육 및 교양교육, 생산성 향상을 위한 품질교육을 주된 내용으로 하였다. 1972년 시작된 공장새마을운동은 1980년대 후반까지 계속되었다.³⁹⁾

3. 노동자의 일상생활과 문화

1) 노동조합 활동

대한방직 노동조합은 1955년 대구공장에서 먼저 설립되었다. 대한방직 대구공장 노동조합은 1956년 설경동 사장의 부정불하와 노동조건 악화에 반발해 장기간에 걸친 쟁의행위를 전개하였다.⁴⁰⁾ 대구공장과 달리 수원공장 노동조합의 활동은 상대적으로 저조했던 것으로 보인다. 수원공장 노동조합은 1960년 8월에 결성되었고, 초창기 조합원 수는 352명이었다.

1961년 8월 노조가 사업장 단위에서 산업별 체제로 바뀔에 따라 대구노조와 수원노조는 각각 섬유노조 대한방직 대구공장지부와 수원공장지부로 조직 명칭을 변경하였다. 공장지부는 1963년부터 노사단체협약이 체결됨에 따라 임금 인상, 교육 선전사업, 마을금고와 구매사업, 주택·장학사업, 후생복지 등에 주력해 왔다.

각 공장의 노조 지부는 1981년 1월 노동관계법 개정으로 기업단위의 '1사 1개 노조' 원칙에 따라 전국섬유노조연맹 대한방직노동조합으로 통합되었다. 1987년 6월항쟁 이후



전국섬유노동조합 대한방직 수원공장지부 대의원대회(대한방직주식회사, 『대한방직사사(1953~1995)』, 1997)

이른바 ‘7·8·9노동자대투쟁’을 거치면서 민주적인 노동조합의 운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봇물처럼 터져 나왔다. 그러나 대한방직에서 그와 같은 양상을 확인하기는 힘들다. 당시의 상황을 볼 때 대한방직에서도 노동자들의 다양한 움직임들이 있었을 것으로 추측되지만, 구체적인 활동을 보여 주는 자료는 없다. 다만, 당시 신문 기사를 통해서도 전국섬유노련 차원에서 대한방직협회에 임금 인상을 요구하였던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대한방직 노동조합은 전국섬유노련을 중심으로 활동을 전개했던 것으로 보인다.⁴¹⁾

1980년대 후반 민주화 국면에서도 대한방직의 노사관계는 비교적 안정적이었던 것으로 추측된다. 1988년 3월 ‘근로자의 날’을 맞이하여 대한방직 수원공장 관리부장이 은탑 산업훈장을 받게 되었는데, 당시 신문기사는 “84년 이후로 대한방직에서는 한 건의 노사 분규도 없었다.”고 전하고 있다. 1984년에 ‘공장평가회’ 제도가 도입되면서 회사경영실적 등이 투명하게 공개되었고, 1987년에는 보너스를 680%를 지급 등의 사례를 들면서 노사 화합적 분위기를 전하고 있다.⁴²⁾

노동조합의 구체적인 활동은 확인할 수 없으나, 1987년 이후 노동운동의 활성화는 사

내 복지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를 이끌어 내었다. 대한방직에서 사내 복지시설이 대대적으로 확충된 때는 1987~1988년이었다. 이 시기는 1987년 6월항쟁 이후 민주화의 목소리가 분출하고 있었고, 그 뒤를 이어 노동자들의 투쟁이 봇물처럼 터져 나오던 시기였다. 이 시기에 대한방직은 대대적인 복지시설의 확충으로 노사갈등을 미연에 방지하려 했다고 할 수 있다. 회사는 이러한 대대적인 복지정책의 추진을 “6·29민주화선언 이후 급격히 활성화된 노조활동에 대한 기업의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대처방안의 하나였다.”고 평가한다.⁴³⁾

대한방직은 이 시기에 기숙사, 사택, 생활관 등 복지시설을 대대적으로 확충하였다. 복지시설의 내용을 살펴보면, 1983년 건축되었던 수원공장의 기숙사 시설에 대한 확충이 이루어졌다. 1987년 9월에 기숙사 1개 동을 증축하여 50명을 추가로 수용하였다. 사원의 생활안정을 위한 복지기금도 마련되었다. 1987년 7월 사내근로복지기금 5억 원을 마련하고 이듬해 12월에 3억 원을 추가로 출연하여 전 임직원의 후생복지기금을 확보하였다.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는 1988년부터 시행에 들어가 장학금, 퇴직기념품, 질병·휴가보조비 등이 지급되었다.⁴⁴⁾

2) 교육에 대한 열망 : 직업교실과 산업체 특별학교 교육

대한방직 수원공장의 10~20대의 여성노동자들은 초등학교나 중학교를 졸업하고 취업한 경우들이 많았기 때문에 학업에 대한 강한 열망을 보여 주었다. 이들은 공장에서 개설한 ‘직업교실’이나 산업체 특별학교를 통해 배움의 열망을 충족하고자 했다.⁴⁵⁾

그 시작은 1970년 수원공장에서 개설한 직업교실이었다. 1970년 수원공장에서 종업원들에게 영어, 수학을 가르치기 위해 개설한 ‘직업교실’이 큰 호응을 얻었다. 당시 강의는 공장의 대졸 사원들이 맡았는데, 교재와 시설 등은 빈약했지만 수강생들의 숫자는 나날이 늘어갔다. 수강생이 증가하면서 교육과목과 시간을 점차 확대하였다. 직장교실은 이후 대구공장, 전주공장으로 파급되었고, 공장마다 수강 희망자들이 늘어나 중학교 반과 고등학교 반으로 학생들은 나누게 되었다.

교육과정도 체계를 갖추어 1기(期)로 하여 학생들 모집하였다. 수업시간은 오전 3시간, 오후 3시간의 하루 6시간 수업제를 갖추었으며, 책상, 칠판, 교재 등을 대폭 확충하였다. 또한 회사 부담으로 실력 있는 대학생과 학원강사들을 초빙하여 강의를 맡도록 했다.



대한방직의 산업체 특별학급(대한방직주식회사, 『대한방직사사(1953~1995)』, 199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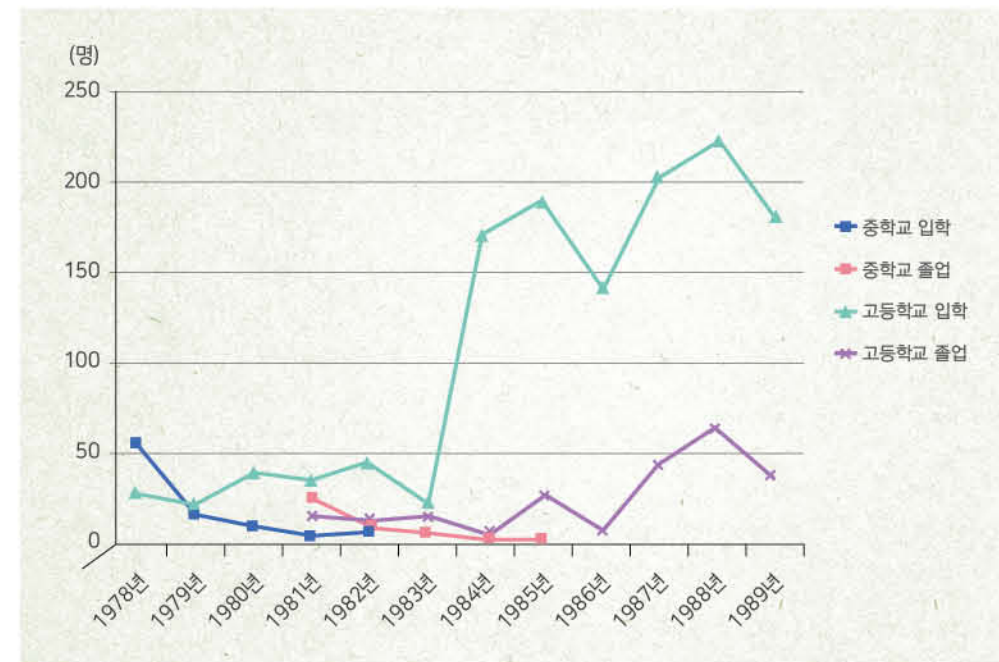
1977년에는 65명의 수료생을 배출하고, 그 일부가 중·고졸업자격 검정고시에 합격하여 상급 야간학교에 진학하는 사례도 있었다. 직장교실은 산업체 특별학급 설치에 관한 기본법령이 공포되면서 자연히 폐지되었다. 1978년부터 실시된 특별학급제도에 따라 취학희망 종업원들을 인근의 학교 야간부에 위탁, 중·고교 교육을 수학할 수 있도록 했다.

대한방직은 산업체 특별학교 취학학생들을 위해 분기마다 일정액의 등록금을 지원해 주고, 교육에 필요한 편의시설을 제공하였다. 예컨대 1989년 한 해 동안 수원공장의 특별학급 학생들에게 지원해 준 특별학급부담료를 살펴보면, 고등학교 과정 400명에게 총 3,358만 5,600원의 학비를 지급하였다. <표 2>는 대한방직 수원공장의 특별학급 입학 및 졸업생 현황이다.⁴⁶⁾

표 2 대한방직 수원공장 특별학급 입학 및 졸업생 현황

(단위 : 명)

연도	중학교		고등학교		계	
	입학	졸업	입학	졸업	입학	졸업
1978	56		30		86	
1979	19		25		44	
1980	11		39		50	
1981	5	26	37	16	42	42
1982	8	11	45	14	53	25
1983		6	25	15	25	21
1984		2	173	6	173	8
1985		2	191	28	191	30
1986			143	9	143	9
1987			206	46	206	46
1988			223	65	223	65
1989			182	37	182	37
계	99	47	1,319	236	1,418	283



대한방직 수원공장 특별학급 입학 및 졸업생 현황

3) 여가와 취미 활동

대한방직 노동자들의 여가와 취미 활동의 양상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는 없으나, 회사 내의 서클 등을 통해 그 양상을 추측할 수 있다. 대한방직 각 공장에는 여가 및 취미를 위한 다양한 동호회가 존재하였다. 등산 등 스포츠 모임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여성들만의 동우회도 있었다.⁴⁷⁾

등산모임인 '산우회'는 1979년 8월에 발족하였다. 1979년 10월 설악산 등반을 시작으로, 가을에 1회씩 전국 각지를 산행하였다. 등산과 함께 캠프파이어, 노래자랑, 장기자랑 등의 행사가 함께 진행되었고, 간부·임원의 심사 하에 상품 수여 등이 이어졌다. '정우회'는 테니스 동우회로 1978년 봄에 발족하여, 그해 6월 3일 첫 대회를 열었다. 당시 테니스는 '사기(社技)'라고 할 정도로 직원들에게 널리 보급되었기 때문에 참가인원이 많았다고 한다. 야구부는 1977년 4월에 발족한 동우회로, 매주 토요일마다 수원공장 운동장에서 연습을 하고 부서별로 팀을 구성하여 친선시합도 가졌다.



수원공장 테니스 코트(대한방직주식회사, 『대한방직사사(1953~1995)』, 1997)



체육대회에서 응원하고 있는 수원공장 노동자(대한방직주식회사, 『대한방직사사(1953~1995)』, 1997)

'영심회'는 여직원들의 친목모임으로 1979년 3월에 발족하였다. 매년 회사 창립일인 8월 10일에 일일찻집과 바자회를 열어 그 수익금으로 고아원을 방문하였다. 매년 야유회를 통해 회원들의 친목을 도모하였다. 정기총회를 겸한 송년회에는 임원 및 각 부서의 간부를 초대하여 행사를 가지기도 했다. 이 자리에서는 남자 직원들에 대한 여직원들의 인기투표를 실시하였다고 한다.

공장 내의 각종 체육시설도 직원들의 여가 및 취미활동에 이바지하였다. 수원공장은 전천후 테니스 코트 2개와 배구 코트 2개, 축구장, 탁구대 등이 마련되어 있었다. 매년 2회에 걸쳐 공장장배 쟁탈 체육대회가 개최되어 직원들의 체육활동에 기여하였다.⁴⁸⁾

4) 주거 : 기숙사와 사택

대한방직 노동자들의 구체적인 주거양상을 확인할 수는 없으나, 당시 기숙사, 사택 등을 통해 그 양상을 추측할 수 있다.⁴⁹⁾ 공장 내에 존재하는 기숙사는 1차적으로는 주거의





1986년 대한방직 기숙사 반상회(수원박물관 제공)

공간이었지만, 그것이 공장 내에 위치한다는 점에서 단순한 생활의 공간이 아니라, 때로는 학습과 교육, 훈련의 공간이기도 했다. 회사는 기숙사 생활에 대한 규율을 통해 노동자들의 생활을 간접적으로 통제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기숙사는 원거리 거주 직원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수원공장의 기숙사는 대지 623평, 건평 282평의 단층건물로, 1954년 10월 1일에 완공되었다. 침실 40개로 수용인원은 200명이며, 기름보일러와 연탄보일러를 겸용하는 난방시설을 갖추고 있었다. 부대시설로는 세탁장, 목욕실, 샤워장, 구내매점, 의무실, 도서실, 기숙사, 공원을 비롯하여 각종 오락시설과 체육시설 등이 갖추져 있었다.

1983년 6월에는 총건평 352평에 침실 38개로 3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기숙사를 착공하여 12월에 완공되었다. 지하 1층, 지상 5층의 건물로 세탁실, 목욕실, 샤워장, 도서실 등을 갖추고 있었다. 1987년에는 기숙사 1개동을 증축하여 방 10개, 독서실 2개, 휴게실 2개, 화장실 등을 새롭게 갖추었으며 기존 기숙사의 다용도실, 화장실, 세면장 등도 증개축되었다.

사택은 공장의 무주택 직원들의 지원하기 위해 건립된 것이다. 초창기에는 대부분 목조 기와형이었으나 후에 대부분 연립주택과 아파트로 신축되었다. 단지 내에는 각종 부대시설이 마련되었고, 자치회가 구성되어 자율적인 환경조성과 친목을 도모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수원공장의 사택은 대지 133평, 건평 66평의 목조기와 단독주택 4동으로, 1954년 10월 1일에 건립되었다.

- 1) 수원시사편찬위원회, 『수원시사 제6권 : 수원의 산업과 경제 성장』, 2014, 192~195쪽.
- 2)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http://db.history.go.kr/>) 참조.
- 3) 대한방직주식회사, 『대한방직사사』, 1997, 37~54쪽.
- 4) 대한방직주식회사, 『대한방직사사』, 1997, 37~54쪽.
- 5) 수원시사편찬위원회, 『수원시사 제6권 : 수원의 산업과 경제 성장』, 2014, 274~275쪽.
- 6) 수원시사편찬위원회, 『수원시사 제6권 : 수원의 산업과 경제 성장』, 2014, 277~278쪽.
- 7) 수원시사편찬위원회, 『수원시사 제6권 : 수원의 산업과 경제 성장』, 2014, 281쪽.
- 8) 대한방직주식회사, 『대한방직사사』, 1997, 81쪽.
- 9) 수원시사편찬위원회, 『수원시사 제6권 : 수원의 산업과 경제 성장』, 2014, 286~287쪽.
- 10) 「부정축재처리 6월 말까지 일단락」, 『동아일보』, 1964년 4월 25일.
- 11) 수원시사편찬위원회, 『수원시사 제6권 : 수원의 산업과 경제 성장』, 2014, 297~300쪽.
- 12) 대한방직주식회사, 『대한방직사사』, 1997, 158~161쪽.
- 13) 수원시사편찬위원회, 『수원시사 제6권 : 수원의 산업과 경제 성장』, 2014, 305~306쪽.
- 14) 대한방직주식회사, 『대한방직사사』, 1997, 349~353쪽.

- 15) 대한방직주식회사, 『대한방직사사』, 1997, 349~356쪽.
- 16) 대한방직주식회사, 『대한방직사사』, 1997, 356~363쪽.
- 17) 대한방직주식회사, 『대한방직사사』, 1997, 365~367쪽.
- 18) 대한방직주식회사, 『대한방직사사』, 1997, 366~367쪽.
- 19) 수원시사편찬위원회, 『수원시사 제14권 수원 노동자들의 노동세계와 노동문화』, 2014, 22~23쪽.
- 20) 대한방직주식회사, 『대한방직사사』, 1997, 371쪽.
- 21) 대한방직주식회사, 『대한방직사사』, 1997, 369~370쪽.
- 22) 「대학졸업생을 위한 취직수험 가이드(19) 대한방직」, 『매일경제』, 1966년 10월 12일.
- 23) 대한방직주식회사, 『대한방직사사』, 1997, 372쪽.
- 24) 대한방직주식회사, 『대한방직사사』, 1997, 376쪽.
- 25) 대한방직주식회사, 『대한방직사사』, 1997, 377쪽.
- 26) 대한방직노동쟁의진상조사단, 「김상연측노조증언청취서」, 『대한방직노동쟁의에 관한 진상조사보고서』, 1956, 79~80쪽(장미현, 「1950년대 '민주적 노동조합' 운동의 시작과 귀결- '대한방직 쟁의'와 전국노동조합협의회를 중심으로」, 『동방학지』 155호,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2011, 237쪽 주31 재인용).
- 27) 수원시사편찬위원회, 『수원시사 제14권 : 수원 노동자들의 노동세계와 노동문화』, 2014, 30쪽 선경작물 노동자 증언 재인용, 8,000원은 8,000환의 오기로 생각된다. 1953년 화폐개혁으로 당시 화폐단위는 '환(圓)'이었다. 1962년 화폐개혁으로 원화로 다시 변경되었다.
- 28) 「8시간노동제 요구, 섬유노조, 전국적 쟁의 돌입」, 『동아일보』, 1959년 2월 26일.
- 29) 대한방직주식회사, 『대한방직사사』, 1997, 377쪽.
- 30) 「노동자 보호」, 『경향신문』, 1968년 3월 9일.
- 31) 「섬유노조 투쟁 격화」, 『매일경제』, 1969년 9월 10일.

- 32) 대한방직주식회사, 『대한방직사사』, 1997, 379쪽.
- 33) 「작가 노트에 비친 노사현장(3) 여공의 애환」, 『경향신문』, 1980년 5월 12일.
- 34) 대한방직주식회사, 『대한방직사사』, 1997, 382~383쪽.
- 35) 대한방직주식회사, 『대한방직사사』, 1997, 387~388쪽.
- 36) 대한방직주식회사, 『대한방직사사』, 1997, 388~389쪽.
- 37) 대한방직주식회사, 『대한방직사사』, 1997, 389쪽.
- 38) 대한방직주식회사, 『대한방직사사』, 1997, 389~390쪽.
- 39) 대한방직주식회사, 『대한방직사사』, 1997, 423~436쪽.
- 40) 1950년대 대한방직 대구공장의 노동조합 활동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 장미현, 「1950년대 '민주적 노동조합' 운동의 시작과 귀결 - '대한방직 쟁의와' 전국노동조합협의회를 중심으로」, 『동방학지』 155호,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2011.
- 41) 대한방직주식회사, 『대한방직사사』, 1997, 378쪽.
- 42) 「근로자의 날, 은탄산업훈장 받은 구윤모씨」, 『경향신문』, 1988년 3월 10일.
- 43) 대한방직주식회사, 『대한방직사사』, 1997, 316쪽.
- 44) 대한방직주식회사, 『대한방직사사』, 1997, 315~317쪽.
- 45) '직업교실'과 산업체 특별학교 교육은 『대한방직사사』의 관련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대한방직주식회사, 『대한방직사사』, 1997, 384~385쪽.
- 46) 대한방직주식회사, 『대한방직사사』, 1997, 386~387쪽.
- 47) 여가와 취미활동에 대한 내용은 『대한방직사사』의 서클활동을 정리한 것이다. 대한방직주식회사, 『대한방직사사』, 1997, 441~442쪽.
- 48) 대한방직주식회사, 『대한방직사사』, 1997, 414쪽.
- 49) 기숙사와 사택에 대한 내용은 『대한방직사사』의 관련 부분을 정리한 것이다. 대한방직주식회사, 『대한방직사사』, 1997, 408~410쪽.



김미엽 서울시립대학교 박사과정 수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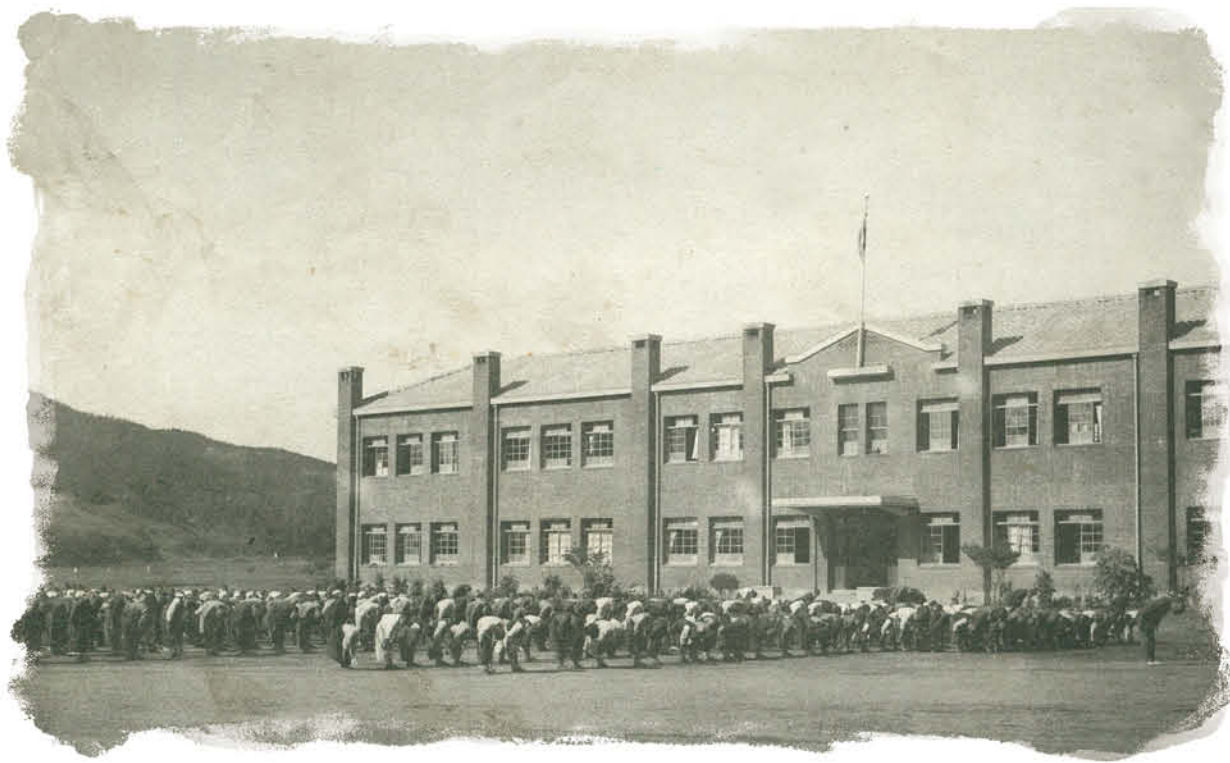
제2장

직장을 위해 매산동으로 이주한 배계진

1. 남양 출신 막내의 성장기

배계진은 1933년 수원군 음덕면(현 화성시 남양읍) 원천리에서 5남 1녀 중 막내로 태어났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모두 농사를 지었다. 그는 남양국민학교를 졸업하였는데, 남양국민학교는 1898년에 개교한 유서 깊은 학교로 현재는 남양초등학교라는 이름으로 운영되고 있다. 그의 기억에 따르면 남양에는 일본이 지하자원을 침탈하기 위해 여러 시설을 설치하였고 그 때문에 전기가 일찍 들어왔으며, 일본인도 많았다. 그는 국민학교 5학년 때 학교에 가지 않고 동네 서당에 1년 정도 한문을 공부하였고, 순사가 찾아와서 어쩔 수 없이 다시 국민학교 5학년으로 복학하였다. 학교에 가지 않았던 이유는 “일본 놈들이 일본말을 강요하는 게 싫어서”였다. 그의 성격을 알 수 있는 표현이다. 가고 싶지 않았던 국민학교에 강제로 복학하였는데, 그해 해방이 되었다.

1946년 그는 서울에 있는 경성전기공업중학교에 진학하였다. 당시 서울에서 유학 중인 셋째 형의 권유에 따른 것이었다. 당시 형은 광신상업중학교와 경성전기공업중학교 2장의 추천장을 보내 왔고, 그중 경성전기공업중학교에서 1차 합격되어 광신상업중학교에서는 면접도 보지 않았다. 학교는 당시 서울역 앞 동자동에 위치하고 있어서, 황금정5정목(黃金町五丁目), 즉 지금의 을지로5가에서 거처하면서 학교를 다녔다.



1940년대 남양초등학교

경성전기공업중학교는 1924년 3월 전기 및 토목기술자 양성을 목적으로 일본인 야쓰다히로시(安田寛)에 의해 설립되어 1925년 7월 경성전기학교(본과 2년, 초등과 1년)로 되었다가 1940년 산업학교 장려정책에 따라 기계과가 증설되어 예비과를 기초로 전기과·토목과·기계과 3개 학과를 갖추었다. 1945년 8월 해방과 동시에 동창회에서 학교를 인수하였으나, 재정상의 문제로 경성전기주식회사에서 인수하여 운영하였고, 1946년 8월 학제 변경으로 공업학교로 승격되고 경성전기공업중학교로 인가받았다. 배계진이 학교에 입학한 때가 바로 이 시기이다. 하지만 1949년 12월 31일 신교육법(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대학교 4년)의 학제에 따라 수도중학교와 경성전기공업고등학교로 각각 분리 운영되었다가 1961년 한국전력이 학교 설립자를 승계하여, 한전 사장이 학원재단 이사장 겸직하였고, 1966년 경성전기학원에서 한국전력학원으로 개칭하였으며, 1962년 4년제 수도공업대학(서울시 마포구 공덕동 위치)을 설립하였다가 이후 수도공과대학은 홍익대학에 이양되었다.

조사자 중학교는 어디로 가셨어요? 수원으로 가셨나요?

배계진 아니지! 서울로 갔어요.

조사자 서울로요?

배계진 서울 경성전기공업중학교로요. 당시 서울에 형님이 계셨는데, 경성전기와 광신산업 원서를 보내왔어요. 그래서 국민학교 선생님께 추천서를 써 달라고 했지. 당시에는 1차와 2차가 있는데, 경성전기에 합격해서 광신은 시험도 보지 않았어.

서울 유학이란 배계진에게 도시문화라는 새로운 세계를 열어 주었다. 하지만 넉넉하지 않은 가정형편으로 그는 주말마다 용돈을 벌기 위해 장사를 했다. 한 번은 서울역에서 집이 있는 을지로 쪽으로 걸어오다 보니 밀짚모자를 팔고 있었다. 배계진은 그것을 고향인 남양에 가져다 팔면 학비가 될 수 있다고 여겨 밀짚모자 100개를 사서 남양으로 가다가 중간에 50개 이상을 시장 상인에게 넘긴 기억이 있다. 또 학교가 있던 서울역 뒤 염천교 부근을 다니면서 시골에 가져다 팔면 수익을 남길 수 있는 물건을 고르러 다녔고, 서울 안국동 부근의 만년필 공장에서 물건을 받아다가 명동과 을지로에 있는 시내 다방에서 팔기도 하였다. 서울 유학생활과 고학(苦學), 그것은 배계진에게 자립정신을 불어넣어 주었다.

2. 중학교 4학년 때 한국전쟁을 만나다

전쟁은 누구에게나 큰 상처를 남긴다. 신체적 혹은 정신적 상처뿐만 아니라 전쟁을 겪었다는 사실 자체가 인생의 큰 기점이 된다. 더구나 전쟁에 참전한 기억은 많은 형태로 개인의 삶에 영향을 미친다. 그런 의미에서 1950년 한국전쟁은 배계진에게 인생의 큰 분기점이었다. 당시 18세였던 그는 전쟁이 나자 본가인 화성군 남양으로 내려갔다. 얼마 되지 않아 화성은 북한군이 점령하였고, 어느 날 그는 부역(賦役)을 나오라는 통보를 받았다. 당시 부역이란 도로를 닦기 위한 노동이 주를 이루었는데, 막상 나가 보니 그것은 단순 부역이 아니라 의용군 모집을 목적으로 한 것이었다. 배계진은 어쩔 수 없이 북한군 무리와 함께 행군을 시작하였다. 하지만 그는 이들을 따라가서 의용군이 된다면 살아 돌아오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되었다. 도망칠 틈을 노리다가 대오(隊伍)가 흐트러지는 틈

을 타서 길가 언덕 아래로 굴렀다. 마침 언덕 아래는 위에서는 잘 보이지 않은 곳이라 몸을 숨길 수 있었고, 시간이 흐르기를 기다렸다. 이후 걸어서 다시 본가에 도착하였지만, 다시 의용대에 징발될까 걱정이 되어 고향의 산속에 움막을 짓고 한 달 이상을 숨어서 지냈다.

그러던 어느 날 쿵쿵거리는 대포소리가 들려왔고, 산 위에 올라가서 보니 인천 쪽에서 대포가 터지고 화염이 타오는 것이 보였다. 바로 인천상륙작전이었다. 국군이 상륙하고 화성도 수복되었지만, 그것도 잠시 중공군이 개입하려는 조짐이 보였다. 1950년 11월경 배계진은 전쟁 중 혹여 인민군에게 다시 끌려갈 것이 걱정되었다. 그는 한 살 위인 장조카를 포함하여 동네 친구 5명(배길순·배희순·배권진·김상록·배진영)과 국민방위군에 입대하였다. 국민방위군은 1951년 국민방위군설치법에 의해 만 17세부터 40세 미만의 제2 국민병으로 조직된 군대로, 그 당시 50만여 명으로 징집된 것으로 추정되는데, 한국전쟁 중 중공군의 한국전쟁 개입으로 예비 병력을 확충하기 위해 편성한 것이다.

당시 배계진은 19세가 되지 않았지만, 나이를 속이고 자진 입대하였다. 전쟁 중이라 문서를 통해 나이를 확인할 겨를이 없었다. 배계진의 기억에 따르면 당시 모집된 국민방위군은 화성 남양에서 걸어서 수원비행장으로 갔고, 다시 안산을 거쳐 인천까지 걸어가 그곳에서 징발해 온 일본 선적을 타고 교육을 위해 제주도 모슬포 근처 일본 군용지에 도착하였다. 그곳에서 훈련받다가 1951년 5월 마산 방위군 108사단을 거쳐 의정부 25사단 터키단 공병대에 배치되어 6월 철원 김화군 지포리 주둔지에 배속되었다. 5019부대에서 문서연락을 담당하였고, 정전(停戰)이 될 때까지 근무하다가 1953년 7월 노무자 귀향으로 고향에 돌아왔다. 당시 2년여 간의 방위군 근무 시절 그는 자신보다 한 살이 많은 장조카와 함께하였으며, 몸이 약한 조카를 돌보면서, 한편으로는 서로에게 큰 의지가 되었다. 배계진은 전쟁 중 죽을 고비를 많이 넘겼다.

배계진 한 번은 문서를 전달하고 오니 부대가 없어졌어.

조사자 없어지다니요?

배계진 내가 속한 부대가 다른 곳으로 이동한 게지. 부대를 못 찾고 다니다가 미군 부대에게 체포되었어. 나는 말이 안 통하니까 무조건 한국인 통역을 불러 달라고 애원했지. 1주일쯤 체포되어 있다가 한국인 통역이 오고 나서 내 사정을 말하였고, 결국 가평으로 이동한 부대로 돌아갈 수 있었어.



군대 시절 배계진



1963년 체신공무원훈련소



1971년 제54회 경기도 운전사 승공 수련생 일동

금처럼 객관식 문제가 아니라 논술식이었고, 그는 “① 내각수반의 지위를 논하라. ② 삼권분립을 논하라.”라는 당시 시험문제를 또렷하게 기억해 내었다. 중학교 교육은 받은 그로서는 시험은 해 볼 만한 것이었다. 1961년 그는 체신부 공무원으로 수원 화성행궁 근처 종로우체국에서 공무원 생활을 시작하여 나중에 서울철도우체국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10여 년을 근무하였다.

하지만 당시 공무원의 봉급으로는 아내와 3명의 아이를 책임지기에는 너무 적었고, 결국 사직하였다. 이후 1970년 택시를 구입하여 운수업에 나섰지만 성공하지 못하였고, 기계와 배선에 능력을 인정받아 1972년 수원 북문에 위치한 사광공업사에서 공장장으로 근무하였다. 이후 대한통운주식회사에서 당시 화물차로는 제일 큰 12톤 수송차를 운전하였는데, 그의 말에 따르면 “당시 정부고속도로를 누비고 다녔다.”고 한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사고로 이어졌고, 보험제도가 없던 시절 그는 사고의 책임을 져야 했다. 하지만 여

기서 배계진의 침착함이 보인다. 당시 구치소에 있던 그는 검사가 교통사고에 대해 여러 항목으로 그를 기소하자, 재판정에서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을 하라는 판사에게 자신을 기소한 내용이 사고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침착하게 말하여, 재판 연기를 이끌었고, 결국 다시 조사하여 집행유예로 풀려 나왔다. 그의 이런 태도는 한국전쟁 속에서 겪었던 많은 사고들, 그 안에서 자신을 지켜냈던 경험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다시 그는 수원역 매산동 극동가스충전소 부근 공터에 카센터를 열어 10년 정도 운영하였다.

배계진은 결혼한 지 1년이 지난 1959년 수원으로 이주하고 나서 거의 수원에서 지냈다. 슬하의 첫째 아들을 고등동에서 낳았고, 북수동에서도 잠시 살았으며, 1965년에는 매산로1가 57번지에 살았는데, 그곳은 수원역 바로 옆으로 이때가 매산동에 첫 번째로 거주한 것이었다. 배계진이 기억하고 있는 1960년대 수원역은 장마로 오물이 떠다니는 곳이었는데, 당시 수원역 옆 수로(水路)는 매우 좁고 작았으며, 하수시설이 만들어



가족들과 매산동 집에서

지지 않았기 때문에 생겨난 일이었다. 그런가 하면 지금 수원세무서 맞은편 지역은 허허벌판의 호박밭이었다. 그가 수원을 떠난 것은 1990년대 화성 정남 장안대학교 부근으로, 이후 용인시 포곡으로 잠시 나갔다가 이내 수원으로 들어왔다. 수원우체국 공무원과 카센터 등을 운영했던 곳도 수원 매산동이었고, 2006년 이후 두 번째로 매산동에 거주한 것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4. 일기 쓰는 노인회 회장님

팔순을 넘어 구순을 바라보는 배계진은 2003년 아내와 사별하였다. 당뇨병이 있던 아내가 합병증으로 자리에 누웠을 때 그는 5년간 손수 아내의 병수발을 들었다. 슬하의 3형제 중 첫째 아들과 막내아들은 성가(成家)하여 손주들이 결혼하였고, 덕분에 지금 자신은 “증손주를 보았다.”고 따뜻하게 웃는다. 다만 둘째 아들이 몸이 좋지 않아 현재 둘이서 생활하고 있다.

아내와 사별하고 나서 배계진은 2007년까지 조경 일을 하였다. 1960년대 “손수 도면을 그려 오디오를 제작”할 정도로 기계에 대한 이해와 손재주를 가진 그는 생활을 위해서는 무슨 일이라도 하였다. 처음에는 조경공사가 있는 곳에 가서 단순하게 나무 심을 자리를 파는 노무직이었지만, 이후 특유의 성실함과 눈썰미를 인정받아 조경의 기술인 전지(剪枝)를 배웠다.

그러한 성실함으로 그는 지금도 금전출납부(金錢出納簿)를 쓴다. 1960년대부터 써 온 것으로 기억하는 일기는 빈번한 이사로 분실되고 지금은 1990년대 쓴 것이 남아 있다. 배계진이 일기를 쓰는 방식은 당일 쓰는 것이 아니라 다음 날 쓰면서 전날의 행동을 되짚어 본다. 매일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는 배계진은 사소한 갈등이 일어났을 때 “직접 끼어들어 사태를 조정하지 않는다. 대신 며칠이 지난 다음 당사자에게 왜 그랬냐고?” 물어본

다. 이런 태도는 미온적이고 방관적 태도가 될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시간을 두고 갈등이 진정되기를 지켜보고, 각각의 입장을 배려한 태도가 된다. 또한 그는 “마음을 내려놓는다.”는 말을 하였다. 그리고 아내의 5년간의 병수발을 말하면서 “그걸 힘들다고 생각하면 못하는 일”이다. 대신 “모든 일은 그것이 나의 일이라도 생각하면 훨씬 수월해진다.”고 말한다. 그런 긍정적인 사고방식이 86세의 배계진을 건강하게 그리고 격동의 세월을 침착하게 지내올 수 있게 한 원동력이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배계진에게 수원은 그가 1959년 이후부터 2018년 현재까지 60년 동안 생활의 터전이었다. 그의 이주는 전형적인 이촌향도(移村鄕都)의 모습을 보인다. 화성 남양에서 태어난 그가 선택한 도시는 수원이었다. 잠시 여러 사정으로 외지로 나갔지만 이내 수원으로 들어왔고, 아내와 생활터전이었던 곳, 그래서 서로 정을 나누던 곳도 매산동이었다. 2010년 매산동 노인회에 가입한 배계진은 2018년 현재 회장을 맡고 있다. 수원으로 들어와 지낸 지 60년 세월, 비록 토박이는 아니지만 자신을 비롯하여 3명의 자식과 증손주가 살고 있는 수원, 그 중심의 매산동이 배계진에게는 고향일 것이다.



배계진의 일기



매산경로당 회장인 배계진



김미엽 서울시립대학교 박사과정 수료

제3장

금형 기술자 조성현의 매산동 정착기

1. 인천 송현동 둘째 아들의 성장기

조성현은 1943년생으로, 인천 동구 송현동에서 태어나 중학교까지 인천에서 자랐다. 6남 2녀의 8남매의 둘째로 태어나 1명의 형과 2명의 남동생, 2명의 여동생이 있다. 7세 때 1950년 한국전쟁을 맞았다. 당시 인천에서 외갓집이 있던 화성의 비봉까지 걸어오던 기억이 있는데, “동생은 마차에 실었고, 자신은 걸을 수 있었지만 행여 잃어버릴까 봐 마차에 끈을 매어서 자신의 몸과 연결”한 채 걸어갔다고 한다. 그에게 한국전쟁의 기억은 너무 어려서 큰 기억은 없어 보인다.

중학교까지는 인천에서 다녔지만 형편이 넉넉하지 못해 학업을 다 마칠 수 없었다. 당시 아버지는 목수였는데, 규칙적으로 봉급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일이 있을 때만 돈을 받았다. 따라서 아버지는 돈이 생길 때마다 안방 장롱 밑에 놓아 두거나 별도의 돈 통을 마련하여 넣어 두었다가 생활비로 사용하였다. 이런 아버지에 대한 고마움과 애잔함이 장성하여서 아버지께 목돈을 건네 드리지 못한 아쉬움으로 남아 있다. 그는 서울 도동(서울역 부근)에서 화장품 용기 만드는 회사에 다녔다. 당시 일하던 사람들과 계(契)를 하여 군대 가기 바로 전에 타기로 계획하였다. 총 13명이 계원이었는데 그가 마지막으로 계를 타는 순번이었다. 생각한 기간보다 길었던 시간이 지나 드디어 목돈이 생겼고, 조성현은



조성현의 선친(뒷줄)



조성현의 모친(맨 왼쪽)

군대 가기 전 그 돈을 어머니에게 드렸다. 이제와 생각하니 “어머니에게 드리지 않고, 아버지에게 드렸으면 결국 어머니에게 갈 것이었는데, 그 생각을 하지 못했어, 그게 맞는 것인데” 하고 조성현은 아버지에게 목돈 한 번 드리지 못한 걸 못내 아쉬워한다. 아버지가 되고 나서야 자신의 아버지를 이해한 것이다.

조성현은 1965년 23세로 군대에 갔다. 원래는 21세인 1963년에 영장이 나온 것을 연기한 것으로, 논산훈련소를 거쳐 보병8사단 예비사단이 있는 경기도 포천 일동에 배치되었다. 군대에서의 기억은 북한 간첩이 출몰하여 쌍계사 쪽 지리산에 들어가 간첩작전에 동원된 것이다. 1965년 즈음 아직까지 간첩이 출몰하고 있었고, 특히 지리산을 중심으로 남파된 간첩이 활동한다는 정보가 입수되어 이에 파견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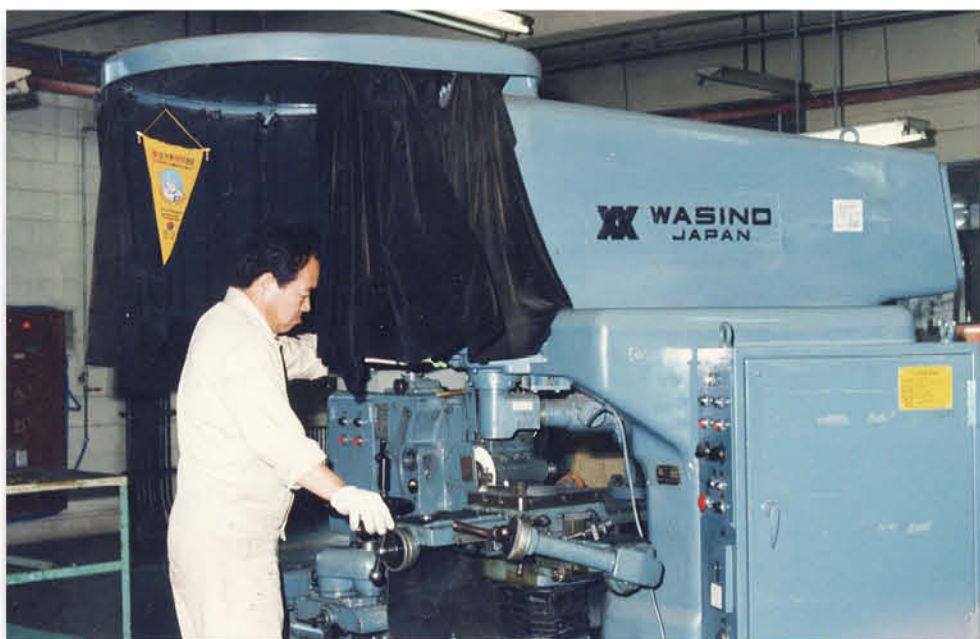
조성현의 기억으로는 8개월간 해발고지 200m를 기준으로 수색 활동을 펼쳤는데, 보급된 식량이 풍부해서 나중에는 묵은 쌀을 민가에 가져다주거나 도로 공사나 우물을 만들어 주는 등의 활동을 하니, 당시 버섯을 많이 재배하던 민간인들이 감사의 표시로 버섯을 가져다주기도 하였다. 그런데 한 번은 간첩수색작전에 참여한 군인을 격려하기 위해 한신(韓信, 1922~1996) 장군이 부대 시찰을 나왔다. 한신 장군은 군대를 방문할 때 반드시 군대 식사를 준비하는 주방에 가서 병사들의 먹거리를 확인하였는데, 그날도 주방에 들어와 보고는 당시 귀한 버섯을 보고는 그 출처를 물었고 전후의 사정을 보고하였다.

조성현은 큰 탈 없이 군대 생활을 하였다. 3년의 군 복무를 마치고 돌아오니 향토예비군(1968년 1월 북한특수대가 청와대 침투 시도한 사건, 일명 김신조 남파사건을 계기로 1968년 4월 1일 창설)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2. 산업역군이 되어 금형 기술자로서 한길을 걷다

조성현은 학교를 그만두고 재봉틀 부품 만드는 기술을 배웠다. 당시 그 공장의 사장은 이전 사장인 일본인에게 기술을 배웠는데, 기술이 아주 뛰어났다. 부품 제조기술을 배운 조성현은 다시 사장의 소개로 서울역 앞 화장품용기 만드는 회사에 취직해서 군대 가기 전까지 근무하였다.

군대 제대 이후 조성현은 35세부터 부평의 한국베어링에서 근무하였다. 대략 1980년 대로 기억한다. 이곳에서 그는 금형(金型) 기술을 익혔다. 금형이란 금속으로 만든 거푸



금성전기 근무 시절

집을 뜻하는데, 재료의 가소성이나 유동성을 이용하여 복잡한 형상을 갖춘 완성도 높은 제품을 성형하기 위한 금속성의 형태를 말한다. 주요한 것으로는 주물(鑄物)을 만들 때에 사용하는 철이나 그 밖의 금속으로 만든 주형(鑄型), 플라스틱 등의 성형용(成型用)으로 사용되는 것, 위아래의 형(型) 사이에 금속의 얇은 판이나 플라스틱판 등을 끼우고 정해진 형상으로 압축해서 완성하기 위해 사용하는 금속제 형 등이 있다. 그는 프로파일이라는 기계의 작동법을 배웠다. 7년 정도 일하면서 기술 숙련공이 된 조성현은 스카우트되어서 경기도 오산에 있는 금성전기, 지금의 LG전기로 이직하였다. 그는 그곳에서도 금형 만드는 일을 하면서 20년 넘게 근속하다 퇴직하였다.

군대를 제대하고 35세인가 그때부터 부평 한국베어링에서 근무했어요. 7년 정도 근무하다가 스카우트되어 오산에 왔죠. LG금성전기라는 데로 갔지요. 군대식으로 말해서 B10전화기라든지 B10 같은 무전기 이런 거를 만드는 회사였었어요. 방위산업체이지요. 거기서 한 23년인가 25년 근무했지요. 그러니까 스카우트 되어 갔기 때문에 특수한 일을 했어요. 특수기계를 배웠기 때문에, 한국에, 그러니까 대기업만 있는 기계들이 있어

요, 한두 대씩, 한 대씩 있는데, 그때만 해도 그 당시에는 재팬(Japan)라이스라고 일제 기계 프로파일, 확대하는 것으로, 지금으로 말하면 텔레비전 화면 같은 것이 달려 있어서 물건을 셋팅 해서 전자제품을 깎을 때는 머리카락 굵기로 25배 내지 50배로 확대하여 가공했어요. 그게 반도체가 나오기 전에는 최고였어요, 수입도 좋고.

금형 기술자로 20년 이상 산업체에서 근속하였던 조성현은 “대한민국에 유일하게 있는 금형 기계를 조작”하였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 조성현은 1970년대부터 시작된 경제발전정책에 부합하는 이력을 보인다. 가난 때문에 중학교의 학업을 다 마치지는 못했지만 제대 후 기술을 배울 수 있었고 군대를 갔다 와서 그 기술과 같은 계열의 회사에 입사하여 숙련공으로 성장하였다. 이후 20여 년간을 근무하면서 안정된 수입이 있었고 이에 따라 비교적 빠른 시간 안에 경제적으로도 자리를 잡았다.

조성현 1975년 31세에 결혼하였다. 안산에 거주하면서 장사를 하던 큰어머니가 중매를 하여 아내를 소개받았다. 당시 1남 7녀의 장녀였던 아내는 조성현과는 3살 아래인 1946년생으로, 장인이 작고한 상태에서 장모와 생활을 책임지고 있었다. 결혼 이후 처음엔 인천 주안에서 살며 부평의 한국베어링으로 출근하였고, 오산으로 옮겨서는 1년 반 정도 지나 18평의 연립주택을 마련할 수 있었다. 결혼 이후 만사위가 된 조성현은 처남과 처제를 모두 성가(成家)시켰다. 결혼 이후 금성전기로 이직하여 오산에서 살았던 조성현은 지금도 오산 사람들과 친목회를 운영하고 있다. 큰딸의 학교 모임부터 동네 사람들이 주요 구성원인 이 친목회는 매달 부부 모임으로 12~13명이 모인다.

많은 것을 가지고 결혼 생활을 시작하지 않았지만, 1남 2녀를 낳았고, 아이들은 잘 성장해 주었다. 하지만 그는 직장이 있던 오산을 떠나 주거지를 수원으로 가기로 결정하였다. 그는 당시 오산에서는 서울에 있는 대학을 가기 어려워 보였고, 따라서 중학교에서 학생회 부회장을 하는 큰딸이 공부를 계속하려면 수원에 나가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결국 1990



오산연립 거주 당시 자녀들

년대 전반 큰딸이 수원의 고등학교로 입학하게 되자 조성현은 수원 매산동에 집을 구매하였고, 오산의 회사까지는 통근버스를 이용하였다. 그의 매산동 거주는 이렇게 시작되었고, 이후 LG전기를 퇴직하고는 수원 고색동에 있는 중소기업에서 금형에 관한 고문을 하면서 4년 정도 더 일을 하였다. 거의 70세까지 일을 한 것이다.

3. 인심이 좋았던 매산동

조성현에게 큰딸은 자랑거리다. 큰딸은 어려운 형편에서도 공부를 잘하였다. 오산에서는 대학을 진학하는 것이 어렵고, 진학 이후 통학하는 데 소요 비용이 많이 든다고 생각한 그는 오산을 벗어나 수원으로 이주하였다. 더구나 수원역이 위치한 매산동으로 이사를 온 것은 무엇보다도 이곳이 발전가능성이 많고, 1호선을 이용하면 수원에서 서울로의 통학이 가능하겠다는 생각도 있었다. 따라서 큰딸이 대학을 진학할 때 1호선이 가능한 곳으로 선택하였으면 좋겠다는 뜻을 보였고, 결국 딸은 1호선으로 통학이 가능한 숙명여자대학교 경제학과로 진학하였다.

그 후 큰딸은 대학을 졸업하고 중국 복단대학교로 어학을 배우러 갔으며, 이후 직장생활을 하다가 중국으로 유학 온 일본인을 만나 결혼하여 현재 일본에 거주하고 있다.

자신의 50대 이후를 수원에서 보내고 있는 조성현에게 매산동은 인심이 좋은 동네로 기억된다. 2002년 겨울 집에서 모시고 있던 어머니가 돌아가셨다. 당시 집에서 초상(初喪)을 치르는 경우도 많았던 시절, 초상을 당해 경황이 없는 상주(喪主)를 위해 “매산동의 이웃들이 나서서 손님 접대할 공간도 제공해 주고, 보일러도 때서 따뜻하게 지낼 수 있으며, 함께 초상에 사용될 음식을 만들었다.”고 말하는 그는 “당시 매산동은 더할 나위 없이 인심 좋은 동네”라고 덧붙인다. 하지만 현실적인 문제, 매산동의 발전상에 대한 의견을 물어 보니 “부정적인” 대답이 돌아온다.



고등학교 시절 큰딸과 아내



매산동 친목회

조사자 매산동이 많이 변했다고 생각하세요?

조성현 아니요, 이 동네(매산동)은 안 변해요. 여기 경로당 아래 명작호텔, 예전에 아리랑호텔이라고 하였는데, 그거 방치해서 사람이 안 사는 지가 한 10년은 된 것 같아. 도깨비 나오는 집이었지.

조사자 지금은 올라오다 보니 명작호텔이라고 해서 영업을 하던데요?

조성현 지금은 완전히 리모델링해서 영업을 하는 거지. 그때만 해도 번듯한 건물이었는데, 고치다가 부도가 나서 고치지 못하고 방치된 지가 10 몇 년 되었어. 그래서 그 건물이 도깨비 나오는 집, 흉물이 되어서 아주 보기 싫었어. 역전 앞에서 무슨 행사가 있어도 그렇지. 수원역 바로 앞인데다가 도청이 앞에 있는데 저런 건물이 있으면 되겠습니까? 여기는 수원의 문 앞이니까 앞의 건물을 체계적으로 똑같이 지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한옥이면 한옥, 팔달산의 화성을 연결해서 짓든지 해서 누가 보더라도 명실상부한 건물로, 10년에 지을 걸 100년에 지으면서 오랜 기간 체계적으로 지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똑같은 건물로 차곡차곡 짓는다면 후세대에 본이 된다고 생각해요.”

수원역은 1905년 보통 기차역으로 영업을 개시하였고, 이후 새마을호와 무궁화호를 포함한 모든 열차가 정차하며 2010년부터는 KTX도 정차하였다. 하지만 2003년 수원역의 민자(民資)역사가 준공되면서 수원역을 기준으로 서부역세권이 빠르게 성장하는 한편, 동부역세권에 속하는 매산동의 건물은 노후화되거나 무허가 건물 등 건축물이 난립하고 있다. 경기도청오거리까지의 대로를 기준으로 수원역지하상가와 버스정류장이 있는 곳에는 유동인구가 많지만, 그 위 거리로 올라가면 매산동의 거리는 이내 조용해진다.

4. 70대 청년인 매산경로당 총무 조성현

나이 70이 다 되어 현역에서 은퇴한 조성현이 매일 동네일을 보는 곳은 매산경로당이 다. 지금 수원세무서 옆 건물인 구 농수산점사소였다고 하는 2층 건물에 매산경로당이 있다. 4년 넘게 총무의 일을 맡아 보는 그는 매산경로당에 큰 애정을 가지고 있다. 조성현은 매산경로당을 소개하면서 그간에 있었던 비가 새고 더러웠던 2층을 청소한 일, 지하실에 물이 얼어붙어 있던 것을 주민센터와 협의하여 물을 빼내고 청소하던 일, 경로당

앞 라일락 나무 앞에 자리를 만들어 오가던 주민들이 꽃을 보면서 휴식할 수 있도록 한 일 등을 풀어 놓았다.

막상 인터뷰를 하려고 매산경로당을 오후 시간에 방문하였을 때 1층 경로당 안에는 15명 남짓의 어르신들이 모여 삼삼오오 화투를 치시거나 담소를 나누고 계셨고, 인터뷰를 끝내고 나가는 필자에게 고구마로 간식을 먹고 가라고 잡은 사람도 총무인 조성현이었다. 매산경로당은 현재 회원이 40여 명 되고, 월수금 1주일에 3번 점심과 간식을 제공하고 있다. 2층에는 탁구대와 러닝머신 등 체력단련이 가능한 기구들이 자리하고 있으며, 겨울의 추위를 피해 들여놓은 화분들이 햇살을 받으며 생기를 품은 채 실내를 밝혀주고 있다. “집이 가까워서 매일 들러서 살펴볼 수 있다.”는 조성현의 말에서 그가 매산경로당을 얼마나 마음에 두고 있는지 느낄 수 있다.

역동의 시기인 해방과 한국전쟁, 그리고 급속한 산업화를 겪은 매산노인정의 조성현 총무는 자의반 타의반 고향을 떠나 이곳 수원 매산동으로 이주하여 매산동을 터전으로 살아오고 있다. 조성현은 매산동의 이주민으로 자식의 교육을 위해 보다 큰 도시인 수원 매

산동으로 이주한 경우이다. 농촌 출신이지만 근대화되는 도시로 이주하여 금형 기술자로서 한평생을 살아왔다. 일반적으로 마을 친목회의 경우, 토박이가 그 중심에 있지만, 그 마을에 10년 이상 거주한 사람도 회원으로 소속시킨다. 그것은 토박이의 수가 적은 때문도 있지만, 10년 정도 한 마을에 거주한 경우 마을 사람들과 일정한 관계를 맺고 그 관계가 유지되고 있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매산동의 이주민인 조성현은 명실상부한 매산동의 구성원이자 신(新)토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매산경로당 회원



조성현



김형아 · 설낭 대표

제4장

수원 인쇄골목의 열정 가득한 세대 :

매산동 대동지업사 김덕진

수원역 일대는 한 가지로 정의내릴 수 없는 다양한 얼굴을 지니고 있다. 10~20대에게는 쇼핑몰과 먹거리들이 몰려 있는 약속장소이지만, 한 블록 옆에는 청소년 출입금지구역인 집창촌이 자리하고 있는 모순된 곳이기도 하다. 그리고 그 사이 골목에는 중국인들이 운영하는 가게가 죽 늘어서 있다. 매산로 건너편에는 오랜 역사를 간직한 역전시장과 매산시장이 있는데 그곳은 노포들이 자리를 지키고 있다.

예로부터 매산동은 수원역과 시외버스터미널이 함께 있어서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이었다. 근래에는 수원역사가 AK백화점과 함께 새롭게 단장되면서 뻣뻣한 사람들의 물결이 일상화된 복잡한 중심가로 탈바꿈하였다. 혼잡한 지역을 지나 매산로를 따라 팔달문을 향해 발길을 돌리면 언제 그랬냐는 듯 들뜬 분위기가 가라앉고 경기도청과 수원세무소, 매산동주민센터, 소방서 등이 속속 이어지 있는데, 이 지역이 관공서가 몰려 있는 중심업무 지역이었음을 짐작케 한다. 관공서가 몰려 있던 지역적 특성 때문에 매산동 일대에는 인쇄업이 성업을 이루었고 향교로를 따라 매산동과 교동에는 인쇄거리가 형성되었다.

김덕진은 1980년대 초반부터 인쇄거리의 일원으로 매산동에서 대동지업사를 운영하고 있다. 인쇄소와 기획사에 종이를 납품하는 곳으로 현재까지 얼마 남지 않은 인쇄거리의 명맥을 이어 가고 있는데, 1970년대에서 1990년대 고도 성장기를 일선에서 체험한 그의 삶을 통해 젊은이들과 다르지 않은 열정과 성장기 때의 감수성을 느낄 수 있었다.

1. “수원 토박이라고 볼 수 있어요”

김덕진은 교직 생활을 하는 아버지를 따라 11살에 수원으로 이사를 왔다. 충북 옥천 출신으로 교육공무원인 아버지는 근무지를 계속 옮겨 다녀야 했기에 따로 분가해서 살았는데, 7살 때 살림을 합치면서 오산으로 이사를 왔다. 이후 아버지는 남양중합고등학교로 발령이 나서 남양에서 지내다가 다시 수원여고로 옮기면서 김덕진 가족은 수원에 최종적으로 정착하게 되었다. “당시 수원이 이 근방에서 제일 크기 때문에 더 이상 옮겨 다니지 않았다.”라고 김덕진은 말하였다. 1962년 대한방직 수원공장과 담벼락을 마주한 집에서 수원 살이를 시작하였는데, 대한방직 자리에는 현재 대우아파트가 들어서 있다.

수원역 근방에는 1960~1980년대에 수원의 중심 산업이었던 섬유산업이 크게 자리 잡고 있었다. 특히 1970년대에는 전체 산업 22%를 차지할 정도로 섬유산업이 주류를 이루고 있었으며 노동 집약적인 섬유산업의 특성상 여공들이 많았다. 대한방직을 바로 옆



대동지업사 김덕진



대한방직 옆에서 살던 시절
염소를 키우는 일은 김덕진의 몫이었다.

에 둔 김덕진의 집 또한 빠듯한 살림살이에 보태고자 기숙사에 들어가지 못한 여공에게 방 한 칸을 세를 줬다. 매산동과 세류동에는 출퇴근하는 여공들을 위한 사글세방이 많았다. 어린 시절 지척에 있는 매산시장을 돌아다니거나 길 따라서 남문시장까지 종종 구경다니곤 했는데 적산가옥이 죽 늘어선 매산동에 비하면 팔달문 주변 시장은 볼거리가 많았다.

김덕진은 수원북중학교에 입학하였는데, 중학교 3학년이었을 때 학교 임원이었던 김덕진은 수원시장을 대면할 기회가 있었다. 수원의 다섯 학교에 다니는 임원들을 불러다 놓고 수원시장은 “현재 수원의 인구가 15만 명이지만 10년, 20년 후에는 50만 명이 넘을 것이다.”라고 연설하였다. 한 다리 건너면 서로가 다 알 수 있는 좁은 동네였던 수원은 정말 1970년대 말부터 인구가 많아지는 것을 체감할 수 있었다. 매산동도 인구 증가를 대비한 큰 공사가 1969년에 있었다. 이때 수원역 광장을 새로 조성하면서 역 앞으로



1960년대 초 영화동 수원북중학교 일대
(수원농생명과학고등학교 제공)



경기도청에서 열린 중장비 전시회

죽 늘어서 있던 적산가옥(일본인 가옥) 수 십 채가 헐려 나갔다. 김덕진은 고등학교 입시를 앞두고 뒤늦게 찾아온 사춘기로 서울에 있는 5대 명문고 진학에 실패하였다.

내가 2학년 때까지는 앞에 앉았거든. 그런데 3학년 되니까 커져서 50번대로 올라가는 거야. 좌석이 뒤고 그러니까 좀 덩치 있는 애들하고 같이 앉게 되고 그러더라고. 덩치 있는 애들이 공부보다는 많이 그렇잖아. 우리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으썩 이런 게 좀 흥미가 가잖아. 그래 가지고 중학교 3학년 후반에 깨네들하고 좀 어울렸어. 중학교 후반에 가 가지고 2학기였어. 어울리기 시작하니까 재밌더라고. 2학년 되니까 과외 보내 달라고 해 가지고 저녁에 과외 갈라고 나오면 가는 척하고 빠지고 주로 어디서 놀았냐면 장안동 옆에 복수동 있잖아. 거기가 놀이터야. 그때는 다방도 없고 빵집도 없었지만은 논다는 게 이런 거리에 모여가지고 이런 얘기, 저런 얘기하고 아니면 지나가는 아가씨들 시약까지 한다든가. 저쪽 동네 애들하고 싸움을 한다든가. 거기 학교가 많으니까



수원역 앞에 있던 적산가옥(수원박물관 제공)

수성중학교도 있고 북중학교도 있고 삼일중학교 고등학교도 다~, 원래 학교 학생들, 왕패들이 노는 데가 고쪽이라고, 그렇게 가서 놀고 하다 보니까 성적이 떨어지잖아."

3차로 합격한 학교는 수성고등학교였다. 학창시절, 사춘기의 방황은 추억으로 지나가고 1971년 중앙대학교 경영학과에 진학하였다. '어린 시절 시장을 가깝게 보고 자란 탓에 돈을 벌고 싶은' 생각에서, 아니면 '교직생활을 하는 아버지와는 다른 삶을 살기 위해서 선택하지 않았을까?'라는 잠깐의 생각에 김덕진은 아니라고 말하였다. 아버지가 정해 준 학과는 장사하는 법을 알려 주는 학문이라는 것을 학교에 들어가서야 알았다. 무난히 대학교를 졸업하고 군대를 다녀온 후에 용산에 있는 태평양화학 기획부에 입사하였다. 대학 졸업자가 많지 않았던 때였기에 취업에는 별 어려움이 없었다. 대학교를 다닐 때부터 서울까지 기차로 통학했던 그대로 수원 집에서 직장까지 출퇴근한다. 그리고 직장을 다니는 동안 평생의 동반자가 될 아내를 만나고 결혼을 한 후 서울로 살림을 분가하였다.

김덕진은 큰 어려움 없이 평탄한 생활을 이어 갔다. 그런데 우연히 만난 군대동기에게

사업 제안을 받게 된다. 그리고 3년간의 회사 생활을 과감히 정리하였다.

1979년 말이었는데 그때 인제 한창 우리나라 경제가 발전할 때라고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창업하는 게 꿈이었어. 우리 때도, 그때는 벤처라는 말도 없었지만.

사업이라는 새로운 영역으로 발을 들여놓은 김덕진은 이제 막 결혼한 아내의 신뢰를 업고 생소하기만 한 골프용품 사업에 발을 들여놓는다.

2. 열정의 청춘시대

1970년대는 가난했던 1960년대를 극복하며 고도성장을 이룬 시대였다. 연평균 10.47%에 달하는 경제성장률을 기록했고 지방의 젊은이들은 미래를 꿈꾸며 서울로 상경하였다. 하지만 경제성장의 이면에는 빈부격차라는 좌절이 공존하고 있었다. 새로운 시대를 열고자 했던 젊은 세대의 열망은 상대적 박탈감으로 채워졌다. 1970년대 석유파동으로 경제가 흔들리자 유신체제를 수립한 정부는 절약과 저축을 강요하며 부유층의 사치와 낭비를 비난하였다.

사치성 소비를 억제하기 위한 정책이 강력하게 시행되지만 부유층의 사치성 소비는 꾸준히 증가했으며 양극화는 더 심화되었다. 계층 간의 차별화를 원했던 부유층의 욕망과 외국에서 수입되는 사치품의 제한정책이 오히려 틈새시장을 열리는 구실을 만들기도 한다.

그때 인제 정확히 우리나라에 골프장이 전국에 27개밖에 없었어. 조금이었어. 골프 치는 사람들은 아주 상위 클래스. 그래서 또 골프 용품은 수입도 안 됐어. 사치성 품목이라고 해서. 이런 골프화나 골프채, 골프백. 그때 당시에 골프용품을 친구하고 의기투합해서 같이 했어. 골프장이라든가 골프샵에 양말, 옷, 골프장갑, 골프공, 골프티 이런 거 소모품을 팔러 다녔지.

평화시장과 청계천을 뛰어다니며 만든 제품들은 불티나게 팔려 나간다. 기존에 없던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외국잡지에 나온 옷, 신발, 모자 등을 카피해 공장 사람들과 함께 만들고 납품을 하기 위해서 기차와 버스를 타고 전국 방방곡곡을 돌아다녔다.

그때는 교통편이 안 좋았잖아. 지금처럼 차가 흔해질 않아 가지고 그때는 차도 없었어. 그래서 버스를 타고 입구까지 가는 게 있으니까. 그런데 골프장이 입구에서 보통 몇 키로씩 안으로 들어가야 돼. 그러면 거기까지 물건을 갖다 주려고 하면은 등에 짊어지고 들고 이렇게 몇 키로씩 걸어 다녔어. 그때는 젊었으니까 30대 초반 뭐 그러니까 힘든 거 모르고 여름에 땀뻘뻘하고 다니고 그랬지. 그리고 골프공 같은 거는 엄청 무거워. 그걸 한 말씩 지고 다니고 그랬다고. 그게 고생이라고 생각을 안 했어. 환경이 그랬으니까 이렇게 해야 되는 거밖에 안 됐으니까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재밌었어. 그때는 돈 많은 사람들을 상대를 해서 그런지 돈이 잘 벌렸다고.

1년 만에 매출이 몇 십 배로 훌쩍 뛰었고 청계천에 있었던 회사를 종로로 옮기면서 회사 몸집도 늘었다. 하지만 성장하는 회사는 안정을 찾기보다는 부족함이 더 커지면서 친구는 자본금 투자를 김덕진에게 요청하였다. 맨손으로 달려든 터라 자본금을 마련하지 못한 김덕진은 골프용품 사업에서 손을 뗐다.

잘 다니던 회사를 나와서 부모님의 질책에도 꿈을 키웠지만 현실은 녹록치 않았다. 1년간 고생하며 봉제공장을 다녔던 경험을 살려 이번에는 카디건, 스웨터를 제작해 팔기로 했다. 돈이 하나도 없는 상황에서 성남의 봉제공장 사장님은 실 값만 내면 제품을 만들어 주겠다고 흔쾌히 말했고 가을부터 생산한 옷들은 없어서 못 팔 정도로 잘 팔려 나갔다. 팔릴 때마다 추가로 실을 공급하며 지방에 있는 옷가게에 납품하고 팔리는 대로 돈을 받았는데 어느 순간 지방 도매업자들이 납품가의 반만 지불하더니 급기야 재고가 되 돌아오기 시작하였다. 2개월간 잘 팔렸던 옷들이 정작 겨울이 되자 파듯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팔리기를 멈춘 것이다. 결국 제고품을 쌓아 둘 창고가 없었던 김덕진은 땀치리로 옷을 다 처분하고 초기자금으로 들어간 실 값도 못 건지게 되었다.

옷 제작을 접고 아내와 상의한 끝에 눈을 돌린 곳은 과천 신도시였다. 우리나라 1호 신도시였던 과천 아파트단지 상가에 들어가 장사를 해 보자는 것이었다. 집안 어른들의 보증으로 겨우 대출을 받아 마련한 가게는 신발 가게였다. 새벽 4시까지 서울에 올라가 운동화를 여러 자루 매고 아침 출근 시간에 차장의 매서운 눈초리를 견디며 과천으



1980년대 과천 신도시(과천문화원 제공)

로 내려오는데 짐이 많은 상태로 버스에 타기 위해서는 문이 열리자마자 자루를 무조건 던져야 겨우 버스를 탈 수 있었다고 한다. 하루는 자루를 열심히 던지고 타려는데 뒷문에 운동화가 나뒹구는 걸 보고 고개를 갸웃거리며 누가 운동화를 버렸나 하고 쳐다보니 버스 차장이 운동화 자루를 모두 밖에서 던져 버린 일도 있었다. 열심히 일은 했지만 운동화 가게는 생각보다 이문이 적게 남으면서 생활을 유지하는 정도였다. 당시 운동화가 2,000원이었는데 수중에 남는 돈은 200원뿐이었다. 주변에서는 이대로 장사를 계속하기보다는 회사 생활을 다시 권했고 운영하던 신발가게는 아내가 옷가게로 운영하기로 하고 회사에 이력서를 썼다.

31살이면 아직 젊다고 생각한 김덕진은 번번이 퇴짜를 맞는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눈에 들어온 직장은 교보생명의 전신인 대한교육보험이었다. 영업 관리직으로 월급이 20만원이었을 때 30만 원을 준다는 말에 회사에 들어갔지만 잘 맞지 않아서 이 또한 1년 반 만에 그만두었다.

열정으로 뛰어든 장사는 실패하고 다시 취업한 회사는 적성에 맞지 않아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 고민할 무렵 부모님을 뵈러 영동시장을 지나치던 길에 우연히 초등학교 은사님을 만나게 된다. 처음에는 인사를 하는 김덕진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은사님은 김덕진과 이야기를 나누던 중 자신이 운영하던 가게를 인수하는 게 어떻겠냐는 제안을 한다. 오랜만에 뵈 은사님은 교직 생활을 그만두고 지업사를 운영하고 있었고, 이제는 주유소를 할 생각이니 이 가게를 맡아 보는 게 어떻겠냐는 것이었다.

회사를 나와 3년가량 고생했던 김덕진은 지업사에 나와 일주일간 지켜보면서 곧바로 괜찮은 사업임을 직감하였다. 그리고 힘들었던 타지 생활을 모두 청산하고 어렸을 때 자랐던 수원으로 다시 돌아왔다.

3. 대동지물상사를 인수하다

며칠 일주일간 열흘간 이렇게 나와서 지켜보니까 그때 당시에 80년도 초반인데 내가 이제 몇 년 동안 장사를 하러 돌아다녔었잖아. 감이 있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보니까 이거 괜찮겠다. 그리고 또 종이라는 게 인류가 멸망하지 않는 이상은 계속 쓰는 거고 그러니까 괜찮겠다. 조금 노동력은 필요하지만, 그래서 내가 인수를 하게 됐지.

김덕진은 대동지물상사라는 은사님이 하던 이름 그대로 영동시장에서 일을 시작한다. 1980년대 초반 수원에는 지업사가 3군데 있었고 모두 영동시장 안에 있었다고 한다. 제일지업사, 럭키제단, 대동지물상사가 향교로와 매산로에 자리 잡은 인쇄소에 자전거를 타고 종이를 배달하였다. 1980년대에서 1990년대에 최고의 전성기를 구가하고 있었던 인쇄골목은 수요를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종이를 빠르게 소비하였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영동시장 안의 가게는 비좁아지고 가게를 확장하기 위해 매산동에 있는 소방서 옆으로 이사하였다. 고등학교 때부터 살았던 조그만 2층 주택은 부모님이 수원의 다른 동네로 이사를 가면서 가게로 새롭게 단장하였다. 그리고 무거운 종이를 열심히 배달했던 자전거는 기아자동차에 처음으로 출시한 봉고로 바뀌었다. 하루가 모자랄 정도로 쉬는 날 없이 일해야 할 정도로 계속 가게는 번창했고 수원의 인쇄골목뿐만 아니라 안산, 오산, 용인, 평택까지 종이 납품지역을 확장하였다. 그때만 해도 교통이 불편하고 택배시스템이 발달하지 못한 상태였기 때문에 수원은 경기 남부 지역의 중심이라는 이점을 톡톡히 누리고 있었다. 게다가 각 지역에 인쇄소는 있었지만 지업사는 수원에만 있었다.

내가 영업을 다녔지. 안산이나 오산이나 평택이나 용인이나 쪽 다녔지. 가서 소개하고, 그래서 영업을 다녔으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이 쓰게 된 거지. 그러면 이제 그 지역은 멀으니까 그때만 해도 차도 별로 좋지 않았으니까, 그 인쇄소가 자기네 필요량이 있잖아. 그래서 한 달 쓸 물량 같은 거 제단해서 한차 실어서 갖다 주고, 또 종이가 복잡하지 않았어요. 예를 들어서 모조지, 갱지, 증질지 뭐 이렇게 단순했어. 제일 많이 썼고, 아트지나 스노우화이트지는 그렇게 많이 안 썼어. 왜냐면 그때만 해도 기계시설이 그렇게 좋지가 않아 가지고"

3개의 지업사 중 가장 젊은 나이였던 김덕진은 인쇄소를 운영하는 비슷한 나이 또래의 사람들과 친분을 넓히면서 수원 종이 시장의 대부분을 차지했다고 한다. 바쁘게 돌아간 탓에 회사는 1980년대 후반에 들어서서야 한 달에 2번 일요일에 휴무를 할 수 있었다. 직원이 늘어난 탓도 있지만 인쇄업계에서도 쉬는 날에 대한 인식이 조금씩 확장되었다.

당시에는 사업을 할 때 거래처 사람들 또는 직원과의 관계가 매우 중요했는데, 신뢰뿐만 아니라 함께 정을 나누는 분위기가 강하였다. 어느 날 청양에서 올라온 직원 한 명이 투망을 잘 던진다고 천렵을 가자고 하였다. 그래서 직원들 모두가 매운탕 끓일 솥에 이것저것 필요한 기구들을 싸서 황구지천으로 소풍을 갔는데, 즐겁기도 했지만 직원들의 행복한 모습이 좋았다. 생각 끝에 일하는 일요일 날 오전 근무만 하고 천렵을 하는 것으로 정해 버렸다. 그리고 직원뿐만 아니라 거래처 사람들과 함께 가깝고 물 맑은 곳으로

대동지물상사가 있었던 영동시장(1984년)



1980년대 초 수원 인쇄거리(수원박물관 제공)



1992년 경기도청 앞에 신축한 대동빌딩
대동지업사를 비롯하여 여러 인쇄업체가 입주하였으나 현재는 2군데만 남아 있다.

소풍을 갔다. 7~8년 동안 이어진 소풍을 이야기하며 “그때 가지고 다녔던 투망이 아직도 있는 걸 보고 깜짝 놀랐다.”며 그렇게 함께 행복하게 지내서 지금까지 장사를 하는 건 아닌가라고 생각한다고 말하였다.

김덕진은 첫 번째 옮긴 지업사의 자리가 또다시 좁아지면서 확장을 고민하게 되었다.

소방서 밑에서 하다 보니까 좁아. 그래서 이제 어디로 크게 확장해서 나가야 되는데 고민을 했어. 그때만 해도 외곽으로 나갔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인쇄소가 다 요 라인에 있었어. 그래서 이 지역을 멀리 떠나면 불편하잖아. 물류비도 많이 들고 그리고 또 찾아오는 사람도 불편하고 그래서 외곽에다가 나갈까. 차라리 외곽으로 나갔으면 오히려 더 돈을 벌었을지도 몰라. 땅값이 많이 올랐으니까. 마침 요 자리가 그 옛날에 빈터였었어. 적산가옥이라고 해 가지고 일본 사람들이 살던 동네거든. 이 동네가 다. 근데 마침 요기만 이렇게 빈터가 있어. 일본 사람 적산가옥이 한 채 있고. 그래서 여기가 제일 적합하겠다. 땅을 사서 몇 년 있다가 여기 지업사를 하겠다. 그래고서는 고기에 맞게 신축을 한 거지. 그제 이제 92년도에 신축을 했어.

이에 인쇄라는 특성 때문에 인쇄거리 주변으로 터를 잡아 경기도청과 가까운 자리로 옮겼다. 인쇄되어 완제품이 나오기까지는 여러 공정이 필요하는데 바로바로 다음 공정으로 넘어가야 하는 성격 때문에 각 가게들은 서로 이웃하며 조성될 수밖에 없었다. 신축한 건물에도 대동지업사뿐만 아니라 7군데의 인쇄소가 입주하였다. 현재와 달리 인쇄기가 크지 않아서 2~3층에도 인쇄소가 들어올 수 있었다.



지출내역부

1993년에 쓴 장부로, 외상기록과 IMF외환위기가 오기 전까지 쓰인 어음기록도 볼 수가 있다.

인쇄업은 1980년대도 좋았지만 1990년대 엄청난 호황을 누렸고, 그 성장세를 보고 비싼 인쇄기 값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많이 뛰어들었다. 그리고 IMF외환위기를 맞이하며 계속될 것만 같은 호황은 잠시 주춤하였지만, 불경기로 인해 꾸준히 전단광고가 늘면서 완만하게 인쇄경기가 유지되었다. 지업사들의 숫자도 성장 속도에 따라 그 수를 달리한다. 세월이 흐르며 초창기 함께 영동시장에 있던 지업사들은 사라지고 수성, 중앙, 효성, 경기 등의 지업사들이 생겨나더니 2000년대 초반에는 수원 지역에 6개의 지업사가 경쟁을 하였다. 그리고 현재는 다시 하나 둘씩 없어지면서 3곳의 지업사만 운영되고 있다.



종이를 재단하는 기계는 20년이 넘었다.



켜켜이 쌓여 있는 종이

4. 인쇄기술의 변화와 인쇄골목의 쇠락

영원할 것만 같았던 인쇄골목의 호황은 외부에서 몰려온 IMF외환위기의 영향보다는 인쇄기술의 발달로 변동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인쇄업은 기술 발달 속도가 빠른 분야 중 하나이다. 한때는 30여 가지 공정을 거쳐야 할 만큼 중간 과정이 촘촘했고 그렇기 때문에 업체들 간의 협업은 필수였다. 인쇄는 큰 규모의 업체가 모든 공정을 맡아서 찍어 내기보다는 영세업체들이 각각의 공정을 맡아 차례대로 전 과정을 해내는 구조였다.

인쇄업체가 매산동부터 남창동까지 길게 이어진 이유에 대해서 김덕진은 “예전부터 있어 왔기 때문에 인쇄거리에 사는 사람들은 당연시하는 분위기였다.”고 한다. 또한 인쇄 주문의 대다수가 관공서 발주이다 보니 관공서가 몰려 있는 향교로가 배달하기에 용이하였다. 1960년대에서 1970년대까지 자전거로 주로 배달했기 때문이고 이후에 자동차로 배달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면서 인쇄업체들이 외곽으로 나갈 수 있게 되었다. 『수원 통계연보』에도 1960년대에는 등록인쇄소의 70% 이상이 인쇄거리에 몰려 있었으며 1970년대 말에는 절반가량이 있었다.

현재는 영세한 인쇄업체들이 향교로에 그 흔적을 유지하고 있으며 큰 인쇄 관련 업체들은 규모를 넓혀 외곽으로 이전하였다. 종이를 취급하는 지업사의 경우 김덕진의 말처럼 “인류가 망하지 않는 한 계속 쓰이기 때문에 오래할 수 있겠다.”는 판단은 다른 인쇄업의 부침에 비해서 그나마 유효하였다. 인쇄에 필요한 중간 공정은 컴퓨터의 발달과 인쇄기의 발달로 사라지고 결과물은 정교하지만 더 손쉽게 다룰 수 있게 된다.

옛날에는 마스타라는 기계가 있었어. 빨간 판에다 떠서 요만한 마스타기계라고 있었어. 오프셋보다 적은 흑백 찍는 거. 그게 우리나라에 언제서부터 퍼지기 시작했냐면 80년대 초반부터 퍼지기 시작했어. 그래서 수원에도 80년대 초반부터 하나 둘씩 기계가 들어오면서 인쇄소는 다 그걸 사는 거야. 그 전에는 활판이라고 있었거든. 텔레비 나오는 데 보면 박물관에도 있을 거야. 한 장씩 느면은 떠그덕, 떠그덕 소리 나는 거. 그게 일제시대 때부터 있었어. 내가 이거 지업사 할 때도 그 활판기계 많았어. 수원에. 그때 마스타라는 기계 한 대, 두 대씩 들어오는 거야. 그때 가격이 상대적으로 비쌌어. 그때 당시에 2,000만 원. 지금도 비싸지만은 상대적으로. 그게 일본제거든. 국산은 없었어. 어떻게 금융 끼고 해서는 들어와서 벌금 가고. 그래가지고서는 초반에 들어와서 80

년 후반 되니까 거의 웬만한 인쇄소에 마스타가 다 있었지. 약 15년 정도 하다가 인터넷이 발달되고 그래다 보니까 색상 있잖아. 눈도 우리 경제가 발달되면 까만색보다는 색깔 있는 걸 더 고급스럽게 생각하잖아. 그러니까 인쇄 색깔 있는 걸 찍으려면 큰 옵셋기가 필요하거든. 우리나라에서도 수원뿐만 아니라 서울도 전국적으로 옵셋기가 90년도 후반부터 2010년 전까지는 많이 들어왔어. 물론 그 전에도 있었지만 주류로 많이 들어왔어. 옵셋기가 많으니까 종이 소비량이 많아질 수밖에 없잖아. 찍는 속도가 어마어마하잖아. 그래서 2010년 이전까지는 종이 소비량이 많았어.

향교로 인쇄거리에 있는 지물사



향교로 인쇄거리

식민지 시절부터 쓰이던 활판인쇄기가 1970년 때까지 오랜 기간 쓰인 반면 마스터인쇄기, 옵셋인쇄기, 디지털인쇄기로 변화하는 인쇄기의 수명은 10년에서 15년에 불과할 정도로 빠르게 변화하였다. 변화를 감지한 인쇄업체는 성장할 수 있었지만 대부분의 인쇄 관련업종은 쇠락을 면치 못하였다.

규모가 크지 않은 인쇄업체들은 파고를 넘기 위해 고색동에 조성한 산업단지의 공장형 건물에 함께 입주하기도 하였다. “벌써 10여 년 전에 있었던 일인데 잘 안 났어.”라고 말하는 김덕진은 여러 업체들이 같은 공간에 입주하면서 효율성과 편리함을 챙겼지만 중복되는 업체들 간 경쟁이 지속을 방해하였다. 이후에 수원산업3단지에 인쇄, 출판을 위한 자리를 수원시와 협의를 통해 조성하기로 하지만 인쇄업체 대부분이 자본이 없고 영세하기 때문에 이마저도 무산됐다고 한다.

예전에는 인쇄골목이 밤늦게까지 환했어. 가로등을 켜 놓은 게 아니라 철야작업을 하느라 가게들이 흰히 불을 밝혀 놓은 거지.

기계가 지금보다 속도가 느려서 늦게까지 작업을 한 이유도 있었지만 일감이 많으니 잔업은 일상이었다. 기계가 쉼 없이 돌아갔던 과거에는 같은 업종끼리 경쟁하지 않더라도 일감은 넉넉했을 것이다. 공장형 건물에 있던 인쇄골목에 나란히 이웃해 있던 간에 협업을 하는 구조는 다르지 않다. 그저 시대가 변하고 수요가 줄어드는 건 어쩔 수 없는 현상이다. 어쩌면 현재의 인쇄업은 특별함이 필요할지 모른다. 앞으로 종이 시장이 사라지지 않지만 과거와 다르게 흘러 갈 것이고 무엇보다 많은 수량을 납품하는 방식은 점차 줄어들 것이다.

인터넷이 발달되면서 정보가 감춰지는 게 없이 드러나잖아. 그래니까 종이 정보가 조금씩 밀리는 거지. 인쇄매체가 줄어드니 소모량이 줄어들 수밖에.

김덕진은 세상이 바뀌고 있지만 본인의 욕심에는 자식들이 지업사를 물려받았으면 했다. 하지만 일찍부터 자식들이 받지 않겠다고 하고 주위에 인수받을 만한 마땅한 사람도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20년에서 32년을 함께한 가족보다 더한 직원들에게 “나 할 때가 지만 하자.”고 했다. 이처럼 변화의 경계를 맞이하며, 김덕진처럼 열정적으로 살았던 한 세대가 수원 인쇄거리 역사에서 점차 퇴장하고 있다.

04 매산동의 사회문화적 변화

- 매산동 여관에 머물다
- 매산동 소극장 전성시대
- 수원역 성매매 공간을 둘러싼 갈등과 협력
- 수원역 로데오거리의 소비문화
- 주민의 건강과 행복을 최우선으로 하는 곳, 매산동 대한대우아파트



김현미 수원시정연구원 연구원

제1장

매산동 여관에 머물다

1. 주막에서 여관으로

여관(旅館)의 사전적 정의는 일정한 돈을 지불하고 손님이 묵는 집이다. 일찍부터 상업이 발달한 서양은 고대에 이미 무역을 목적으로 이동하는 사람들이 지나는 곳마다 여관이 발달하였다. 고대 페르시아의 광대한 도로망은 여관들로 특징을 이루었고, 대상(隊商)이 지나는 길에는 하루 이동 거리마다 여관들이 자리 잡고 있었다.

전통적으로 여관이 발달한 서양과 달리 우리나라는 조선 중기까지 공설 숙박시설인 역(驛)·원(院)이 여관의 역할을 담당하였다. 우리나라 공설 숙박시설의 효시는 신라 소지왕 때(487년) 등장한 역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역은 공문서를 중간에서 이어 전달하고, 공무로 다니던 벼슬아치들에게 말을 제공하던 곳으로 숙박 기능은 부수적인 것이었다. 원은 고려 때 공무로 이동하는 관리에게 숙식을 제공하기 위해 교통의 요지에 설치한 것으로 숙박이 주요 기능이었다. 원은 역과 달리 반관반민 형태로 운영되었고 상인이나 일반 여행자가 이용할 수도 있었다.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겪으면서 역과 원은 점차 쇠락하였고, 상공업의 발달로 보부상을 비롯한 상인들의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객주·여각·주막 같은 사설 숙박시설이 번성하기 시작하였다. 객주와 여각은 상인을 대상으로 운영하던 시설이어서 규모가 큰 편이었고, 여행자가 주로 이용하던 주막은 1~2개의 방



수원의 주막(조선총독부, 『생활상태조사-수원군』, 1929)

과 술청으로 이루어졌으며 술집·식당·여관의 기능을 모두 갖춘 곳이었다.

수원 지역은 서울에서 전라도로 가는 해남로와 임금의 거동길인 수원별로의 개설로 삼남대로의 요충지가 되면서 주막들이 많이 생겨났다. 지지대고개 아래의 미륵당 주막, 진목정 주막, 북문 밖 주막, 상류천 주막, 하류천 주막, 대황교 주막, 떡점거리 주막 등이 유명했는데, 수원의 주막에서 난 소문은 전국에서 다 안다는 말이 있을 정도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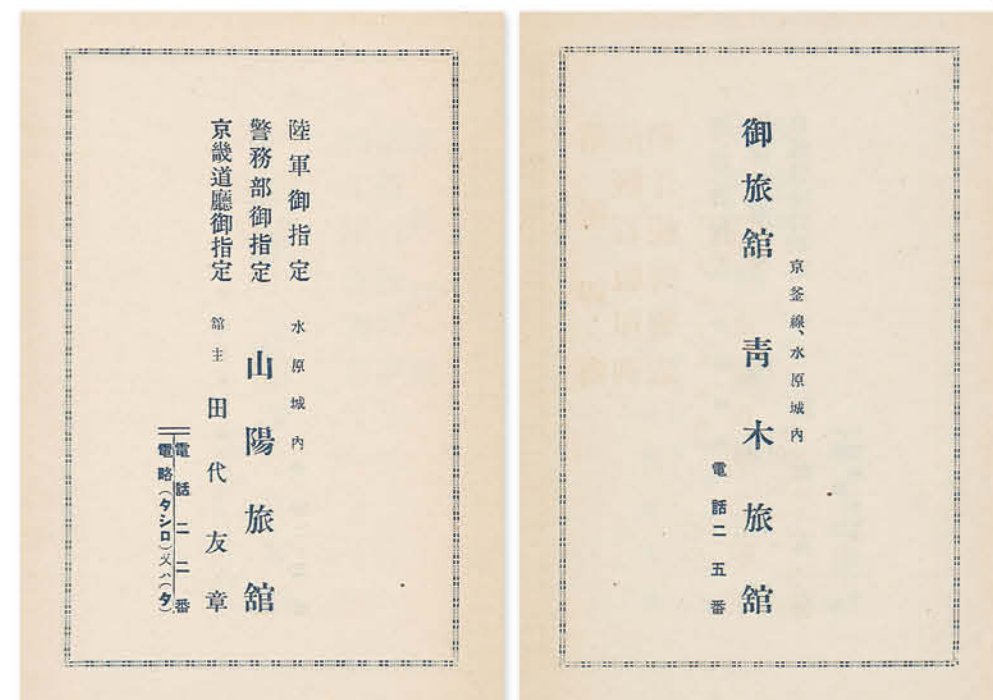
이러한 전통 숙박시설은 개화기 이후 새롭게 등장한 근대식 여관에 압도되어 점차 쇠락하였다. 한강 중심의 수운을 통해 이루어지던 지방과의 교역이 철도를 비롯한 육로 운송으로 재편되면서 철도역을 중심으로 근대식 여관이 발달하기 시작하였다. 우리나라에 근대식 여관이 등장한 것은 1876년 강화도조약 이후로 보고 있다. 강화도조약이 체결된 후 각종 서양 문물들이 일본을 통해 유입되었는데 이 가운데 여관이 포함되어 있었다. 전통사회의 주막을 대체하게 되는 근대식 여관은 1883년에서 1890년 사이에 들어오기 시작했고, 1905년 일제의 통감부가 설치된 후 본격적으로 이주해 온 일본인들에 의해 전국으로 퍼져 나갔다.

2. 수원의 근대식 여관

문호 개방과 함께 일본에서 들어온 근대식 여관은 개항장이었던 인천과 서울 중심에서 벗어나 전국으로 전파되었다. 근대식 여관이 지방에서도 영업을 하게 된 데는 철도의 영향이 컸다고 할 수 있다. 철도를 이용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영업하는 여관이 역 주변에 들어선 것이다. 1908년 통감부 철도관리국에서 낸 자료에 의하면, 전국에 역을 중심으로 하는 여관이 123개소에 달하였다.

수원도 역 주변과 당시 변화가였던 성 안에 근대식 여관이 문을 열었다. 근대식 여관은 일본인이 운영하는 곳과 조선인이 운영하는 곳으로 구분할 수 있었다. 일본인 여관은 정원이 딸린 복층 건물로 이국적이고 고급스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고, 조선인 여관은 단층 한옥으로 외관에서부터 일본인 여관과 확연한 차이를 보였다.

일제시기 수원의 일본인 여관에 대해서는 1910년 무렵 이주한 일본인 사카이 마사노스케가 발간한 수원 안내책자 『발견하는 수원』(1914년), 『화성지영』(1915년), 『수원』(1923년)



1920년 수원 여관 광고(사카이 마사노스케, 『수원』, 1923)

陸軍御指定
警務部御指定
京畿道廳御指定
館主 山陽旅館
田代友章
電話 二二二番



수원역 앞에 자리한 야마모토(山本)여관(수원박물관 제공)

등에 실린 광고를 통해 알아볼 수 있다. 광고를 보면 1910년대 수원에는 성 안 본정의 산요(山陽)여관, 매산정 수원역 앞의 화성관(華城館)과 야마모토(山本)여관이 영업을 하고 있었다. 남문 앞의 아오키(靑木)상회에서 잡화부, 자전거부와 더불어 여관부를 운영하고 있었다. 산요여관은 오카야마현 출신의 다시로 도모아키가 1905년에 수원으로 건너와서 본정에 개업하였는데 개업 초기에는 수원의 경제적 발달이 미약했기 때문에 경영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한다. 이 내용으로 보아 수원은 1910년 이전에 근대식 여관이 영업을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1923년에 성 안 본정의 아오키여관이 광고를 낸 것으로 보아 아오키상회가 1923년 이전에 여관부를 아오키여관으로 개업한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일본인 여관들은 여관의 위치와 전화번호는 물론 시설이 좋은 곳을 강조하며 홍보하였다. 산요여관은 '육군 지정, 경무부 지정, 경기도청 지정 여관'임을 강조하였고, 가조오여관은 '고등여관'이라는 홍보 문구로 시설이 좋은 곳을 알리고 있다. 야마모

토여관은 '조선총독부 권업 모범장 지정 제국철도동맹 여관 고등여관'으로 소개하였다.

마사노스케의 책자에 광고를 하지 않았지만 1920년대 신문기사에 여러 번 언급된 쇼화(昭和)여관도 일본인 여관이었다. 수원역 앞에 있던 쇼화여관은 고등여관은 아니었고 하숙을 겸했던 것으로 보인다. 수원에는 쇼화여관처럼 보통 여관으로 운영하던 일본인 여관과 하숙이 여러 곳 있었고 해방 때까지 영업을 계속한 것으로 짐작된다.

수원의 조선인 여관은 새롭게 등장한 근대적 숙박업이라기보다 전통 주막에 숙박 기능을 강화한 과도기적 형태의 여관으로 볼 수 있다. 1923년 당시 조선인 여관으로는 성 안에 자혜의원 앞의 화창여관, 종로교회 맞은편의 신창여관, 종로사거리에서 남문 가는 길목의 화남여관 등이 있었고, 남문 밖으로 팔달여관과 수일여관이 있었다. 수원역 주변에서 일본인 여관과 경쟁관계에 있던 조선인 여관들은 공동으로 「수원역전 조선인여관안내」라는 홍보물을 제작하여 배포하기도 하였다. '수원역전 여관업자 일동'이라는 명의로 된 전단지에는 화흥여관, 수매여관, 영창여관, 대풍여관 등을 소개하였다.



조선인 여관인 영창여관(조선총독부, 『생활상태조사-수원군』, 1929)



「수원역전 조선인여관안내」(수원박물관 제공)

신문(동아일보)으로 본 일제시기 수원 여관

1923 ~ 1940年



포화학생고국방문단 일행이 8월 16일 오전 7시 40분에 수원역에 도착하자 수원의 각 사립학교생들과 군중들이 수원역으로 몰렸다. 환영회 대표인 김세환의 인도로 역사 밖으로 나온 일행은 수원 수매여관에 투숙하였다고 한다.

1923년 8월 21일

포화학생고국방문단 일행 수원 수매여관에 투숙

1월 17일 오후 10시 경에 부산행 급행열차가 수원역에 진입하는 순간 열차가 멈춘 줄 알고 내리려던 노인이 머리를 부딪히며 열차에서 굴러떨어졌는데 이것을 수원역 앞 소화여관에서 일하는 한상근이 마침 지나다가 발견하고 화성 자동차에 태워 수원도립의원으로 이송했다고 한다.

1928년 1월 20일



7월 9일 오전 수원을 산루리 수남여관에 하숙하고 있던 이광덕이 양젖물을 먹고 죽으려다가 애인의 도움으로 목숨을 건졌다고 한다. 이광덕은 애인 박옥화와 결혼을 약속하고 서울에서 4년간 동거하다가 살길을 찾아 수원으로 내려와 6월부터 수남여관에 투숙하면서 일자리를 구했으나 찾지 못하고 애인도 변심하는 바람에 비관 자살을 기도하였다고 한다.

1934년 7월 13일

애인의 변심과 일자리를 못구한채 수남여관에 투숙한 이광덕 자살 기도

荒木 상무가 하숙을 하고 있던 소화여관에 출동하여 가택수색

경동조선철도회사의 분규로 인해 회사를 그만둔 아오키(青木) 외 1명이 石丸 전무와 荒木 상무를 횡령배임죄로 수원검사국에 고소를 한 바 수원검사국 高木 검사가 8월 1일 오후 3시경 수원경찰서 형사 2명과 함께 荒木 상무가 하숙을 하고 있던 소화여관에 출동하여 가택수색을 하고 증거서류를 압수하였다고 한다.

1929년 8월 6일



동아일보 수원지국과 수원 동문회의 공동주최로 수원 삼일학교에서 3일간 진행된 한글강습회에 강사로 온 최현배가 동일여관에 묵었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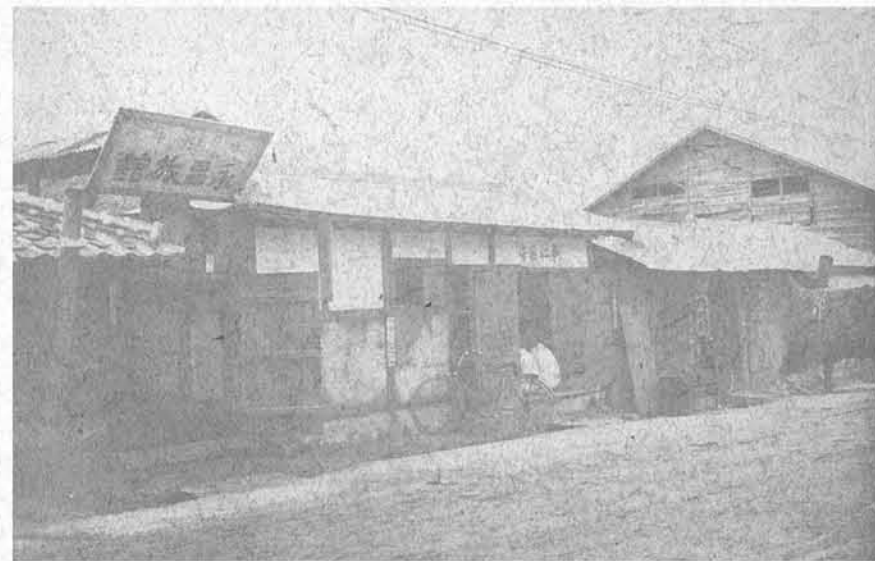
1932년 9월 23일

12월 15일 수원을 산루리 인천여관에서 할복자살한 임봉삼은 대한제국시대 군인 출신이었으나 전과 3범의 강도가 되어 출옥 후 비관 자살한 것이라고 한다.

1932년 12월 16일

동경-평양 간 장거리 마라톤 참여로 4월 8일 오후 수원에 도착한 임정순이 수원여관에서 묵고 9일 오전에 경성으로 출발하였다고 한다.

1933년 4월 9일



7월 4일 오전 0시 25분 수원역을 통과하던 부산행 열차 3등실에서 진천으로 가던 천씨가 갑자기 출산을 하게 되어 수원역전 화흥여관으로 데리고 가서 쉬게 하였다고 한다.

1934년 7월 9일



4월 11일 수원을 산루리 김모씨 집에 칼을 든 불량배 3명이 침입하여 난동을 부려 수원서에서 현장 출동하였다. 이들은 수원을 남수리 수옥여관 골목에서 길 가던 김씨의 처를 만나 농락하였는데 이 사실을 알게 된 김씨가 이들을 찾아가 다투다가 도망했고 불량배들이 김씨 집을 찾아와 행패를 부린 것이라도 한다.

1935년 4월 14일

11월 18일 밤 10시경 수원을 매산리 인천여관에 투숙중인 전학도를 수원서에서 검거하여 취조중이라는데 수일 전에 수원고농의 모 학생을 찾아 만주에서 잠입하였다고 한다. 들은 바에 의하면 어떤 사명을 띠고 잠입한 것이라고 하며 공대(共大) 출신으로 잠입했을 수도 있다고 한다.

1935년 11월 21일

11월 25일 오후 6시경 수원역전에 있는 모자동차회사의 운전수로 근무하는 김씨가 인천에 갔다가 남양시장으로 가려고 자동차를 기다리고 있던 김명옥을 속여서 근처 화흥여관으로 데리고 가 폭행을 하다가 경관에게 발각되었다고 한다.

1935년 11월 28일



(46)

後前災震

作人 鳴
書田 青

경성사범학교 3학년 재학생이 12월 4일 목포에서 기차를 타고 수원역에 내린 후 역전 소화여관에 투숙하였는데 이튿날 아침에 여관 하녀가 화로를 가지고 들어갔다가 음독자살한 것을 발견하였다고 한다.

1935년 12월 8일

5월 10일 오후 5시 20분경 수원을 매산정 1정목 광미이발관에서 발화하여 맹렬히 타는 것을 수원경찰서원과 수원경방단이 총출동하여 오후 5시 45분경 진화하였다고 한다. 이 불로 수원역과 소화여관, 세천상점 등이 위험하였다고 한다.

1940년 5월 13일

표 1 『수원상공인명록(1942)』에 소개된 수원의 여관·하숙

상호명	대표자명	주소	상호명	대표자명	주소
華興旅館	劉泰元	매산정 1정목 17	昭和旅館	宮川トヘ	매산정 1정목 27
中津屋旅館	角金時	매산정 1정목 60	新興旅館	金雲培	매산정 1정목 65
山本旅館	栢シゲ	매산정 1정목 69	水城旅館	朴漢用	매산정 2정목 35
第一旅館	金長龍	매산정 2정목 36	水山旅館	趙痒教	궁정 79
山陽旅館	田代弘敬	본정 3정목 75	肥後屋	川野スズ	본정 3정목 127
三好旅館	鄭仁基	본정 4정목 22	水原旅館	趙昌載	본정 4정목 22
興亞旅館	李鳳仙	본정 4정목 22	水玉旅館	李範日	남수정 142
華虹旅館	朴成鎭	북수정 167	八達旅人宿	權老味	영정 13
水南旅館	李弼龍	영정 27	和昌旅館	金成云	인계정 762
여인숙	朴德俊	영화정 325	하 숙	朴昌順	매산정 1정목 25
하 숙	木村トモ	매산정 1정목 48	越後屋	佐藤カメ	매산정 1정목 60
みどり屋	大久保シゲノ	매산정 1정목 68	하 숙	金化俊	남창정 59
하 숙	川田豊秀	남창정 114	華信旅館	鄭元環	영정 12

1929년에 조선총독부가 발행한 『생활상태조사—수원군』에는 1926년에 수원의 여인숙 업 조사 결과 모두 9곳이 영업을 하고 있었으며 1만 8,700엔의 매상고를 올렸다고 되어 있다. 1942년에 수원상공회의소가 발행한 『수원상공인명록』에는 당시 수원에서 영업하던 26곳의 여관과 하숙이 포함되어 있다. 여관의 소재지를 보면 수원역이 있는 매산정과 성 안의 본정에 많이 분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3. 매산동에 여관이 많은 이유

매산동은 통계로 볼 때 수원시에서 숙박업소가 가장 많은 지역이다. 특히 구 수원시 외버스터미널 주변은 여인숙, 여관, 장, 모텔, 호텔 등 다양한 숙박업소가 혼재되어 있어 매산동 숙박업소의 야외박물관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의 풍경을 연출하고 있다. 1990년대 초반의 수원시 통계만 보더라도 매산동의 숙박업소는 150여 곳으로 당시 수원시 전체

표 2 매산동 숙박업소

연도	여인숙	여관	호텔	합계	수원시	연도	여인숙	여관	호텔	합계	수원시
1979	—		—		362	1995	35	91	1	127	480
1980	37	50	—	87	395	1996	32	96	1	129	495
1981	38	51	—	89	418	1997	32	101	1	134	540
1982	51	62	—	113	420	1998	31	104	1	136	563
1983	52	60	—	112	422	1999	31	103	—	134	558
1984	54	59	—	113	435	2000	31	72	—	104	494
1985	53	75	—	127	455	2001	31	98	—	129	539
1986	53	94	—	147	482	2002	23	93	—	116	547
1987	53	94	1	148	491	2003	23	103	—	126	606
1988	51	93	1	145	503	2004	—	—	—	125	625
1989	49	96	1	146	508	2005	—	—	—	123	602
1990	47	108	1	156	523	2006	—	—	—	123	564
1991	48	105	—	153	528	2007	—	—	—	115	548
1992	45	105	1	151	504	2008	—	—	—	99	541
1993	33	92	1	126	492	2009	—	—	—	112	538
1994	30	92	1	123	482	2010	—	—	—	126	548

출처 : 수원시, 『수원 통계연보』 각 연도.

의 30%를 넘는 수준이었다. 2000년대 들어와서 인계동이 매산동과 비슷한 수준까지 올라왔으나 통계상으로는 여전히 매산동이 으뜸이다. 매산동에 숙박업소가 이렇게 많은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매산동이 숙박업소가 들어서기에 매우 유리한 입지 조건을 갖추었기 때문이다.

매산동은 1910년대에 이미 근대식 여관이 영업을 시작한 지역이다. 1905년에 경부선 철도가 개통한 후 성의 남문에 해당하는 팔달문과 그 주변의 문밖마을에서 경부선 철도의 수원역으로 이어지는 신작로가 개설되었다. 신작로 주변으로 일제의 관공서와 회사들이 들어서고 일본인 상권이 형성되면서 인구와 상업의 집적을 통해 도시화가 점진적으로 진행되었고 도시화에 따른 유동인구가 늘면서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숙박시설이 수원역 일대에 증가한 것이다. 1942년에 발간된 『수원상공인명록』을 보면 당시 매산동의 여관수는 성 안과 남문 일대의 여관수를 모두 합친 것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1970년대 초반 수원역전 모습(1971년, 수원박물관 제공)
화성여관이 자리하고 있고, 산자락에 경기도청이 보인다.





팔달로1가 팔달여관에서 개최된 팔창동 반상회(1977년, 수원박물관 제공)

해방 이후 일본인들이 떠나면서 매산동의 여관수도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1950년대 말 성 안에는 신평동의 수원여관, 남창동의 남창여관이 있었고, 남문 상권인 팔달로1가에 낙원여관·유신여관·한일여관·평화여관·개성여관 등이 몰려 있었다. 팔달로2가에도 진흥여관과 팔달여관이 있었고, 팔달로3가에 중앙여관이 있었다. 성 밖으로는 영동의 시장여관·대광여관, 구천동 한성여관, 중동 수풍여관, 교동 수일여관이 있었다. 반면에 매산동은 매산로1가에 반도여관·신흥여관, 그리고 매산로2가에 덕창여관 등이 있는 정도였다.

그러나 1967년 경기도청이 수원으로 이전하고 산업화·도시화가 급속하게 진행되면서 수원역 주변은 유동인구가 급증하였고 역전 상권이 부활하였다. 매산동 상업지역의 지가가 도심 상권에 육박하는 정도로 급등하였다. 경부선 철도 개통 당시 설치되어 수도권 의 중추적인 기차역으로 자리매김해 온 수원역은 1974년 8월 수도권 전철이 개통됨으로써 서울과 연결이 용이해졌다. 전철 개통 이후 늘어나는 이용자들을 고려하여 팔달로3가 29-4(현 수원농협 영동지점)에 있던 수원시외버스터미널이 1976년에 매산동으로 이전하였다. 기차, 전철, 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매산동을 드나들었고 역과 버스터미널

이용자의 증가는 자연스럽게 숙박업소의 증가를 가져왔다.

매산동 인근에 경기도청과 농촌진흥청 같은 대형 공공기관이 위치한 것도 매산동 숙박업에 큰 영향을 미쳤다. 경기도청은 고등동에, 농촌진흥청은 서둔동에 있었지만 두 지역은 매산동과 맞닿은 곳으로 거리상 가까운 곳이었다. 경기도청과 농촌진흥청은 출장이나 연수 목적으로 찾아오는 공무원들이 많았다. 특히 농촌진흥청 안에 설치된 새마을연수원은 연중 교육을 실시하였으므로 1년 내내 전국에서 연수생들이 찾아왔는데 이들은 수원에 머무는 동안 대부분 매산동의 숙박업소를 이용하였다. 매산동의 수원역전 상업지역은 숙식과 유흥을 모두 해결할 수 있는 공간이었기 때문이다.

도청 소재지라는 위상에 걸맞게 수원시는 각종 운동경기대회를 많이 유치하였다. 1971년에 개장한 수원공설운동장에서는 경기도 단위는 물론 전국 단위의 각종 경기대회가 개최되었다. 1986년 아시안게임과 1988년 서울올림픽에 대비하여 기존의 공설운동장을 주경기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현대식으로 바꾸고 실내체육관과 야구장을 지어서 종합운동장을 건설하면서 각종 경기대회 개최 횟수가 증가하였다. 참가선수단은 대회 기간



수원역 광장에 세워진 새마을지도자 연수원 이정표(1980년, 수원박물관 제공)
광장 맞은편에 '서호여관' 간판이 보인다.



유동인구가 많은 수원역(1992년, 수원박물관 제공)



시외버스터미널(1993년, 수원박물관 제공)
뒤편으로 여관들이 자리 잡고 있다.

에 수원 시내의 지정 숙박업소 한 곳을 숙소로 사용하는데, 지정 숙박업소는 비교적 시설이 좋고 깨끗한 장급 이상의 여관이었다. 숙박업소 밀집지역인 매산동에 지정 숙박업소가 많은 것은 당연하였다.

이러한 입지조건에 힘입어 매산동의 숙박업소들은 1980~1990년대에 호황을 누릴 수 있었다. 1980년에 50개였던 매산동의 장급 여관이 1986년에는 94개까지 증가하였고 1990년 무렵에는 150여 개에 이를 정도로 늘어났다. 그러나 1997년 외환위기 이후 매산동의 숙박업소들도 침체기를 맞이했고 2000년대 이후는 신흥 상권으로 부상한 인계동에 숙박업소들이 급속도로 증가하여 매산동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다.

4. 변화하는 매산동의 여관

여관으로 통칭할 수 있는 숙박업소는 오랫동안 여행이나 출장 등 사적·공적 이유로 이동하는 사람이 잠을 잘 수 있는 공간으로 인식되어 왔다. 경제수준이 향상되면서 여관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경제력도 좋아졌고 이들의 요구에 부응하듯 숙박업소도 점차 고급화되었다. 매산동의 숙박업소 밀집지역인 구 시외버스터미널 주변은 여인숙, 여관, 장, 파크, 모텔, 호텔 등 다양한 형태의 숙박업소가 혼재되어 있어 이러한 숙박업소의 변천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곳이다.

다양한 형태의 숙박업소들은 시설 수준에 따라 투숙객의 수준과 운영방식이 다르다고 한다. 시설이 낙후된 여인숙과 여관은 숙박요금이 저렴하므로 경제 수준이 낮은 사람들이 많이 이용한다. 그나마 일반 투숙객이 점차 감소하면서 집 없는 사람들이 장기 투숙하는 월세 형태로 영업하는 곳이 늘고 있다. 한 달에 20만~30만 원 하는 소위 '달방'을 이용하는 장기 투숙자들은 대개 독신으로 여자보다 남자가 많다고 한다. 매산동 여관 밀집지역을 다니면 '달방'이나 '장기숙박' 등의 안내판을 쉽게 찾을 수 있다. 임대 영업이든 자영업이든 간에 여관업 경력이 오래된 중장년층 업주가 청소와 세탁을 담당하는 직원 1~2명 고용해서 운영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여관보다 한 단계 위의 장급 여관은 일반 중장년층이 주로 찾아온다고 한다. 매산동에서 영업 중인 장급 여관들은 1990년대까지만 해도 시설 좋고 깨끗해서 여러 행사의 공식 숙박업소로 지정되었지만 현재는 모텔에 밀려나 있는 형편이다. 장급 여관 중에는 장기



옛 시외버스터미널 주변 숙박업소
왼쪽 건물이 들어선 곳이 시외버스터미널이 있던 자리이다.

투숙객을 받는 곳이 있고, 리모델링해서 모텔로 운영하는 경우도 있다.

2000년대 이후 본격적으로 등장한 모텔과 호텔은 규모와 시설에서 기존의 숙박업소들을 압도하고 있다. 최근 매산동에 들어선 호텔과 모텔은 객실마다 컴퓨터와 무선인터넷, 영화 관람시설 등의 편의시설을 기본 서비스로 제공하며, 소규모의 파티를 즐길 수 있는 객실도 운영하고 있다. 입구에 객실 내부를 촬영한 사진을 세워 놓고, 숙박 애플리케이션을 적극 활용하여 주 고객인 젊은 층에게 일종의 호객행위를 한다. 10회 이용하면 1회의 숙박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곳도 있다. 모텔과 호텔은 구매력 있는 직장인이나 대학생들이 주로 이용한다. 자유분방한 성의식을 가진 이들은 숙박업소를 이용하는 것에 거리낌이 없고 모텔이나 호텔처럼 시설 좋은 숙박업소를 오락과 휴식의 공간으로 활용하기도 한다. 그래서 매산동의 모텔과 호텔은 세련된 이미지의 인테리어는 물론 1층에 호텔식 안내데스크와 로비를 두고 젊은 매니저를 고용하여 운영을 맡기는 곳이 많다. 최근 젊은 이들 사이에서 “MT 간다.”는 말은 대학가의 MT(Membership Training) 간다는 것이 아니라 “모텔 간다.”는 의미로 통용된다고 한다.

매산동의 숙박업자들은 “객실의 수가 손님 수보다 많다.”는 말로 현재 상황을 표현하



다양한 형태의 숙박업소들이 모여 있는 골목



장급 여관



무인텔



모텔



모텔 입구의 객실이용료 안내판

고 있다. 매산동의 숙박업소는 공급이 수요를 초과할 정도로 과포화상태라는 것이다. 2000년대 들어와서 시외버스터미널이 떠났고 농촌진흥청도 지방으로 이전하는 바람에 수요가 줄었음에도 공급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50~100개의 객실을 보유한 호텔도 여러 곳 들어섰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숙박업소 간에 투숙객 유치 위한 가격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현행법상 숙박업소의 요금은 자율제로 업주가 숙박료를 요금표에 공지만 하면 된다. 업주들은 상황에 따라 숙박요금을 조정하므로 실제 적용되는 숙박 요금은 요금표와 다른 경우가 많고 장급 여관과 비슷한 수준의 숙박요금을 받는 모텔이 있을 정도다. 모텔과 호텔은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 규모가 크기 때문에 숙박요금을 낮추면 적자의 위험이 있고 여관은 모텔에 손님을 빼앗겨서 매출이 하락할 수밖에 없다. “여관 하면 돈 번다.”던 말은 이제 옛말이 되어 버린 것 같다.

5. 매산동의 여관을 말하다

1) 수복장 이수일 사장

이수일은 서울에서 철도 공무원으로 재직 중이던 1960년대 후반 고등동에 집을 장만하면서 수원으로 이주하였다. 서울의 집값이 비싸서 출퇴근이 가능한 외곽 지역을 찾다가 전철 이용이 가능한 수원으로 정했다고 한다. 당시 수원역 인근 매산동은 집값이 비싼 편이어서 역에서 멀지 않은 고등동 쌍우물 주변에 집을 매입하고 얼마 후에 매산로1가에 있던 후생주택도 매입하였다.



'달방' 영업 안내판을 단 여인숙



수복장을 운영했던 이수일

1988년에 직장생활을 그만두고 어떤 일을 할까 고민하던 중에 지인으로부터 여관업을 추천받았다. 별이가 괜찮다고 했지만 여관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와 편견 때문에 자녀들의 교육과 결혼에 지장을 받을 것이 염려되어 선뜻 결정할 수 없었다고 한다. 그러나 여관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여관을 해 보니 사실 나쁜 게 없다.”거나 “○○장 아들은 좋은 대학교에 다닌다.”며 적극적으로 권유하는 바람에 한번 해 보자 마음먹고 대출까지 받아서 매산로 우리은행 뒤편의 수복장을 구입하고 리모델링을 했다. 전체 21개 방 중에서 3개는 살림집으로, 1개는 안내실로 사용하고 17개의 객실을 운영하였다. 수복장 주변은 현재의 번잡한

풍경과 달리 세일장을 비롯해 3동의 건물이 있는 정도로 한산한 곳이었다.

숙박업 등록 당시 받은 수복장이 받은 등급은 을이었다. 1999년 이전 공중위생법에선 객실이 10실 이상이면 여관으로 규정했고, 여관은 다시 20실 이상이면 ‘갑’, 10~19실은 ‘을’로 나뉘었다. 객실의 수와 상관없이 객실 전체의 면적이 10평 이상이면 여인숙으로 규정하였다. 1999년 이후 새로 제정된 공중위생관리법은 숙박업소의 등급을 없앴으나 객실 시설의 수준에 따라 여인숙, 여관, 장, 파크, 모텔, 호텔 순으로 고급화된다고 인식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수복장은 매산동에서 시설이 좋고 깨끗한 여관에 속하였다. 1980년대 후반임에도 객실마다 에어컨을 설치했고 별도의 보일러실을 두고 난방을 했다. 수복장은 연탄보일러였지만 일반 가정의 연탄보일러와 다른 방식이었다. 석탄가루를 커다란 통에 부어서 불을 붙여 보일러 물을 데웠고 재는 긁어내야 했다. 이수일이 여관 운영 초기에 가장 힘들었던 것이 바로 이 난방 방식이었다고 한다. 객실마다 전화기를 두고 안내실과 인터폰을 연결하여 운영하던 ‘사설 교환대’도 수고스러운 일이었다. 안내실로 전화가 오면 해당 객실에 연결해 주고 객실에서 안내실로 연락을 할 수도 있어서 투숙객 중에는 전화로 심부름을 시키는 경우도 있었다.

수복장의 투숙객은 다양하였다. 수원에서 체육대회 같은 공식행사가 개최되면 수원 시내 숙박업소 가운데 시설 좋고 깨끗한 장급 여관이 참가단체의 지정 숙박업소가 되는



매산아파트(왼쪽)와 숙박업소(오른쪽)가 나란히 있는 골목

경우가 많았다. 수복장도 남양주 선수단이 여관 전체에 투숙했던 적이 있다. 농촌진흥청이 지방으로 이전하기 전까지 각종 교육이 1년 내내 진행되었는데 전국에서 교육을 받으러 오는 공무원들도 농촌진흥청에서 가깝고 유흥가가 인접한 매산동의 지정 숙박업소에 투숙하는 것이 보통이었다.

1990년대 들어서 수원역 앞에 한국마사회 TV경마장이 설치된 후 지방에서 올라오는 경마꾼들이 매산동 일대 여관에 투숙하였다. 수복장에는 매주 개장 전날 저녁에 지방에서 올라와 투숙하는 5~6명의 경마꾼 단골이 있었다. 당시 경마 관련 정보가 실리는 스포츠 일간지가 수원까지만 배포되었기 때문에 이들은 수원으로 와서 여관에 투숙하며 경주마의 정보를 분석한 후 다음 날 TV경마장으로 갔다고 한다. TV경마장은 2000년대 초반 영통으로 이전하였다.

근대식 여관이 등장한 일제시기부터 여관은 성(性)과 관련한 공간이었다. 여관에서 이루어지는 성매매는 오랫동안 암묵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1990년대 들어서는 낮 시간에 객실을 시간 단위로 빌려 주는 ‘대실’이 일반화되기도 했다.

수복장에는 매월 1회씩 찾아와서 대실을 하는 단체 투숙객이 있었다. 이들은 ‘홀아비 친목회’ 회원들이었는데 모임의 특성상 성매매 용도로 여관을 찾는 사람들이었다. 정기

적으로 매월 1회씩 모여서 점심 식사를 하고 소위 ‘2차’를 하러 근처 여관을 찾았다. 비교적 시설이 좋고 깨끗한 여관 한 곳을 정한 후 집창촌 포주에게 전화해서 성매매 여성을 여관으로 보내 달라고 했다. 수복장을 비롯해 매산동 일대 괜찮은 여관 몇 군데가 이들을 손님으로 맞았다고 한다. 불법임을 알기에 이들의 성매매는 비밀작전을 수행하듯이 은밀하고 신속하게 진행되었다. 요청을 받은 여성은 포주의 차를 타고 여관 출입구 바로 앞까지 와서 내린 후 여관으로 들어가고 나올 때도 연락을 받고 온 차에 바로 타기 때문에 외부에 노출이 어려웠다.

가끔은 불법 성매매 단속이 시행되어 처벌받기도 했다. 1990년대에 매산동 일대 숙박업소의 성매매 단속이 대대적으로 진행된 적이 있었다고 한다. 제보를 받아 실시한 것이었다. A여관의 주인이 금고에서 돈이 없어지는 일이 자주 일어나자 여관에서 일하던 직원의 소행으로 보고 해고한 것이 발단이었다. 해고된 직원은 매산동 일대 여관들의 불법 성매매에 대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여관 입구가 잘 보이는 매산아파트 2층에서 A여관에 성매매 여성들이 드나드는 사진을 찍었다. A여관 외에도 몇 군데 여관을 돌면서 촬영을 하고 경찰서에 제보하였다. 수원경찰서에서는 이 제보를 받고 대대적인 성매매 단속을 벌였다. 이때 많은 여관 주인들이 경찰에 불려갔고 불법의 경중을 따져서 일부는 실형을 살기도 했다고 한다.

수복장은 장기 투숙객을 받지 않았는데 예외적으로 1년간 투숙했던 남자가 있었다. 개인의 주식투자를 대행하는 사람이었다. 증권사에서 고객이 맡긴 돈을 대신 운용하는 것처럼 이 남자는 개인의 돈을 모아서 운용하였다. 수익률이 높아서 수원의 부자라고 소문이 나기도 했고 그래서 수원의 물주들이 많이 찾았다고 한다. 여관 입구에서 가장 안쪽에 있던 101호에 묵으면서 일을 하다가 투자 손실이 크게 나는 바람에 여관에서 철수하였다.

삼성전자의 월급날과 그다음 날은 수원시 전체 상권이 들썩거렸다고 한다. 그때가 수원에 현금이 풀리는 날이었기 때문이었다. 유흥업소마다 손님들이 북적거렸고 이와 연계하여 숙박업소도 대목을 맞았다.

이수일은 수원역 일대 숙박업자들의 친목모임인 ‘수요회’의 회장을 10년 정도 맡아 보았다. 매산로1가와 매산로2가, 세류동 일부 지역의 숙박업자들이 참여하였다. 초창기 회원들이 사망하거나 고령인 데다가 문서가 있는 것도 아니어서 정확한 연혁은 확인할 수 없지만 1970년대에 결성된 것으로 보고 있다. 수원역 일대에서 숙박업소를 시작하는 사람은 숙박업소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 도움이나 정보를 얻을 수 있었기 때문에 대부분 회원으로 가입

하였다. 이수일이 회장을 맡은 1990년 무렵 매산동 일대 숙박업소는 100곳 정도였고 이 가운데 70곳가량이 수요회 회원이었다. 수요회는 회원수가 30명까지 줄었다가 이수일이 세류동으로 여관을 이전하면서 회장을 맡아 볼 사람이 나서지 않아 해체되었다고 한다.

매산동 먹자골목의 상권이 확장되자 매산동은 혼잡하고 시끄러운 곳이 되었다. 수원역전 상권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조직폭력배, 유흥가의 취객 등이 연루된 사건사고가 자주 발생하였다. 이수일은 여러 번의 사건·사고를 목격하고 경험하면서 시끄러운 매산동을 떠나기 위해 후보지를 물색하러 다녔고 세류역 앞의 파크를 인수하여 2001년부터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다.

2) 대한숙박업중앙회 수원시지회 윤명진 회장

윤명진은 용인에서 봉제공장을 운영하다가 그만두고 여관으로 업종을 변경하였다. 사업을 하면서 알고 지내던 은행직원이 “여관을 하면 먹고살 만하다.”면서 여관업을 권했다고 한다. 1983년에 구 수원시외버스터미널 앞 여관 밀집지역의 송정여관을 임대하였다. 송정여관은 간판만 여관이었을 뿐 객실마다 욕실이 있다는 것을 제외하면 여인숙과 별 차이 없는 수준이었지만, 1박에 1만 원 미만이던 여인숙보다 비싼 1만 5,000~2만 원의 숙박요금을 받았다. 복도에서 객실의 문을 열면 바로 방이 나오는 구조라서 투숙객의 신발은 바구니에 담아 방 안에 들여놓았다. 송정여관은 현재 루비장으로 운영되고 있다.

윤명진은 10여 년간 송정여관을 운영하다가 인근의 서린장을 임대하였다. 서린장은 송정여관보다 시설이 좋은 장급 여관이었다. ‘○○장’이라 이름 붙인 장급 여관은 제주도에서 호텔과 여관 사이 수준의 숙박업소에 붙이던 이름으로 등장했는데, 1980년대 초반 전국으로 확대되었고 당시 신축하는 여관은 대부분 ‘○○장’이라고 간판을 내걸었다.



1990년대 여관과 목욕탕 간판



서린장을 1년 정도 운영하다가 IMF금융위기를 맞았다. 매산동에
도 매물로 나온 여관들이 많아서 윤명진은 객실 30개 규모의 삼미파
크를 매입하였다. 일반 여관에서 장급 여관으로 한 단계 높여서 운영
하다가 한 단계 더 높은 '파크'로 갈아탄 것이다. 삼미파크를 운영할
때는 농촌진흥청에 교육을 받으러 오는 공무원들이 많이 투숙하였다.
공무원들은 출장을 갈 때 지정 숙박업소에 묵었는데 지정 숙박업소들
은 대부분 장급 여관이나 파크였다. 여관에서 시작해서 한 단계씩 업
그레이드하며 숙박업소를 운영해 온 윤회장은 현재 매산동에서 모텔
을 운영하고 있다.

윤명진은 40년 가까이 숙박업에 종사하는 동안 '임검(臨檢)'에서
적발되어 벌금형을 받은 경험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고 한다. 임검은
글자 그대로 정기가 아닌 불시에 하는 검문이다. 여관이 갖고 있는 부
정적인 사회적 이미지 탓에 평소에도 톡하면 여관 검문을 실시하였
다. 이럴 때마다 여관에 들이닥친 경찰이 가장 먼저 들춰 본 것이 '숙
박계(宿泊屆)'다. 숙박계는 투숙객의 신상을 기입하는 장부인데, 여
기에는 이름, 나이, 주소, 이전 숙박지, 행선지 등의 기재 항목이 있
어서 투숙객에 대한 정보를 제법 자세히 알 수 있었다. 1969년부터는
숙박계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도록 했다. 심지어 함께 투숙한 사람
의 관계도 적게 했는데, 부부임이 증명되지 않은 남녀가 동숙할 때는
일단 윤락 행위로 간주하기도 했다. 투숙객들은 여관 숙박계에 가명
을 쓰고 주민등록번호와 주소를 허위로 기재하는 경우도 많았다. 일
제가 치안 유지를 내세워 실시했던 숙박계와 임검은 1998년 11월 1일
에야 폐지되었다.

윤명진은 미성년자 혼숙으로 영업정지 2개월에 과태료 300만 원
의 처벌을 받았다. 윤명진 부부가 서로 번갈아 가며 안내실을 맡다 보
니 부인이 여자 투숙객을 받고 윤명진이 나중에 일행을 찾아왔다는
남자 투숙객을 받았는데 그날 임검에서 적발된 것이다. 당시 300만
원은 서린장 월세와 맞먹는 금액이었다. 타격이 컸다. 이 일을 계기로
윤명진은 숙박업자들 간의 정보 교류 필요성을 느끼고 '한마음회'라는

옛 여관을 리모델링한 루비장

친목회를 만들었고 월 1회의 정기모임을 하고 있다.

윤명진은 현재 대한숙박업중앙회 수원시지회장을 맡
고 있다. 4선으로 10년째 일을 하고 있는데 무보수 봉
사직이라고 한다. 지회 운영은 회원들이 납부하는 회비
로 운영되는데 회비 납부 실적이 좋지 않아 무보수로 일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수원시지회는 경기도지회 수
원시지부였다가 회원수가 증가하여 중앙회 직할 지회로
승격되었다고 한다. 수원시 숙박업소의 수가 그만큼 많
다는 뜻이기도 하다.

수원시지회는 관계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
하는데 공중위생업소로 분류되는 숙박업소의 성격상 철
저한 위생교육을 가장 중요하게 인식한다. 이와 더불어
숙박업소 운영에 필요한 물품을 협력업체와 계약해서 회
원들에게 저렴하게 공급하고, 간이사업자로 분류되는 영
세 숙박업소의 세무 업무를 무료로 대행해 주고, 법규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회원이 도
움을 요청하면 업무 처리를 도와주는 등의 역할을 하고 있다. 예전에는 수원에서 숙박업을
시작하면 명의변경을 위해 의무적으로 지회 사무실을 방문해서 회원 가입을 하고 업무를
처리했으나 김대중정부 때 자율사항으로 변경되면서 회원수가 줄어들었다고 한다.

3) 충남여인숙 이종순 사장

충남 부여가 고향인 이종순은 결혼 후 서울에 사는 동안 하숙을 한 것이 계기가 되어
여관업으로 반평생을 살아왔다. 용산 농산물시장, 도봉구청, 서울역 인근에서 임대료 여
관을 운영하다가 개인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서 여관을 그만두게 되었다. 살 길이 막
막하던 차에 이웃에 살던 노부부의 도움으로 이종순은 수원에서 다시 여관을 시작할 수
있었다. 수원 매산동에 있는 충남여인숙이 서울의 부동산에 임대 매물로 나왔으니 한 번
가 보자면서 밤중에 서울에서 수원까지 함께 내려왔다고 한다. 서울 사람이 계약을 했다
가 가족의 반대에 부딪쳐 다시 내놓았던 모양이다.

1980년대 초반 보증금 1,200만 원에 월세 45만 원짜리 충남여인숙에서 이종순은 다시



수원지회장 윤명진
수원지회 사무실 벽에 역대 지회장 사진이 걸려 있다.

여관 운영을 시작하였다. 충남여인숙은 건물주의 아들부부가 충남여관으로 운영하다가 임대하는 것이었는데 이종순도 충남 출신이라서 상호는 그대로 사용하기로 했다. 다만 주변 여관들에 비해 객실 수준이 떨어지는 편이라서 여관 간판을 달면 영업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여인숙으로 바꿨다. 충남여인숙은 12개의 객실을 운영했는데 6개는 전용 화장실이 있었고 6개는 공용 화장실을 사용하였다. 화장실이 있는 객실은 1박에 7,000원, 화장실이 없는 객실은 1박에 4,000원의 요금을 받았다. 이종순은 안내실에 석유곤로와 그릇 몇 개 놓고서 숙식을 해결하면서 혼자 충남여인숙을 운영하였다. 서울에서 여관을 운영할 때는 일하는 사람을 고용했기 때문에 직접 일을 해 본 적이 없었기에 모든 일이 서툴고 힘들었지만 매산동에서는 사람을 고용할 형편이 안 되니 혼자 해낼 수밖에 없었다. 40대 여자 혼자서 여관을 운영하는 것은 힘든 일이었다. 주위의 편견도 있었고 여자 주인 혼자 있다고 무시하는 투숙객도 있었다.

편견과 설움을 무시하면서 충남여인숙을 운영하고 있던 중에 건물이 부동산에 매물로 나온 것을 알게 되었다. 이종순의 형편을 아는 주인은 이종순에게 먼저 매수 의향을 물어보도록 했는데 주인의 아들 내외가 상의 없이 영화동의 부동산에 내놓은 모양이었다. 충남여인숙을 갖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던 이종순은 대출까지 받으면서 충남여인숙의 진정한 주인이 되었다. 매산동에 내려온 지 꼭 20년 만이었다. 여인숙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었을 때 충남여인숙 간판을 보고 찾아온 투숙객이 있었다. 충남 출신이라던 그 사람은 자수성가한 기업인이었는데

주변의 좋은 숙박업소를 두고 굳이 충남여인숙을 찾아왔다. 당시 전용 욕실이 있는 객실 하루 숙박료가 7,000원이었는데 5만 원을 주며 자신의 비서에게 먹을 것을 사 주고 이종순도 맛있는 거 사 먹으라고 했다고 한다. 그리고 “열심히 일해서 이 건물 꼭 사세요.”라는 덕담을 해 주었는데 그 말대로 이루어진 셈이었다.

이종순은 시설은 여인숙이지만 침구나 서비스는 여관 수준으로 높여서 운영하려고 노력하였다. 객실마다 직접 끓인 보리차를 주전자에 담아 제공했고 침구는 항상 깨끗하게 세탁하고 청소



충남여인숙 입구

도 깔끔하게 했다. 그러다 보니 단골들이 생겼다. 단골 중에 ‘꽃마차’라는 인근의 카바레에 놀러 오는 여성들이 있었다. 이들은 카바레에서 만난 남성들과 하룻밤을 묵고 가곤 했다. 한 번은 이종순이 지인들과 꽃마차에 놀러 갔다가 이 여성들을 만났는데 친언니를 만난 것처럼 반가워했다고 한다. 각자 배우자가 있는 중년의 커플도 있었다. 단골이 있기는 했지만 시외버스터미널을 이용하는 뜨내기손님들이 훨씬 많았다.

만취해서 들어온 투숙객이 죽은 사건은 70대 중반이 된 이종순에게 지금도 생생하게 남아 있는 기억이다. 군대에서 휴가를 나온 대학생

이 만취 상태로 친구들에게 업혀 왔다. 술 취한 투숙객을 받은 방은 나중에 청소하는 것이 힘들어서 받지 않으려고 했는데 학생들이 사정을 하면서 친구를 객실에 눕혀 놓고 나가 버렸다고 한다. 데리러 오겠다던 친구들이 오지 않아서 아침에 객실 문을 열어 보니 눕혀 놓은 상태로 죽어 있었다. 경찰에 신고하자 출동한 경찰은 연탄가스 중독을 의심하였다. 당시 충남여인숙은 기름보일러로 난방을 했기 때문에 혐의가 없는데도 유가족들이 찾아와서 이종순에게 욕을 하며 원망을 했다고 한다. 공교롭게도 사고가 있던 날 미성년자가 투숙했는데 혼숙이 아니었음에도 미성년자를 손님으로 받는 것도 법규 위반인 줄 알고 마음을 졸이는 바람에 이종순은 사망사건으로 인한 두려움을 크게 느끼지 못했다고 한다. 오히려 장판을 교체하고 나서 투숙객을 받기 전에 막걸리 한 사발 부어 놓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면 천국에 가고 절에 다니는 사람이면 극락에 가라.”면서 사망자의 명복을 빌었다. 이종순의 담담함에 남자 투숙객이 혀를 내두르기까지 했다고 한다.

2001년에 시외버스터미널이 권선동으로 이전하자 인근의 숙박업소들은 매출에 타격을 입었다. 충남여인숙도 예외는 아니었다. 이종순은 같은 모임 회원으로 친분이 있던 평원장 주인이 평원장을 임대로 운영해 보라고 제안하는 것을 받아들여 충남여인숙을 임대주고 15년째 평원장을 운영하고 있다. 환갑을 지나고는 혼자 일하는 것이 힘들어서 평원장은 일하는 사람을 고용해서 운영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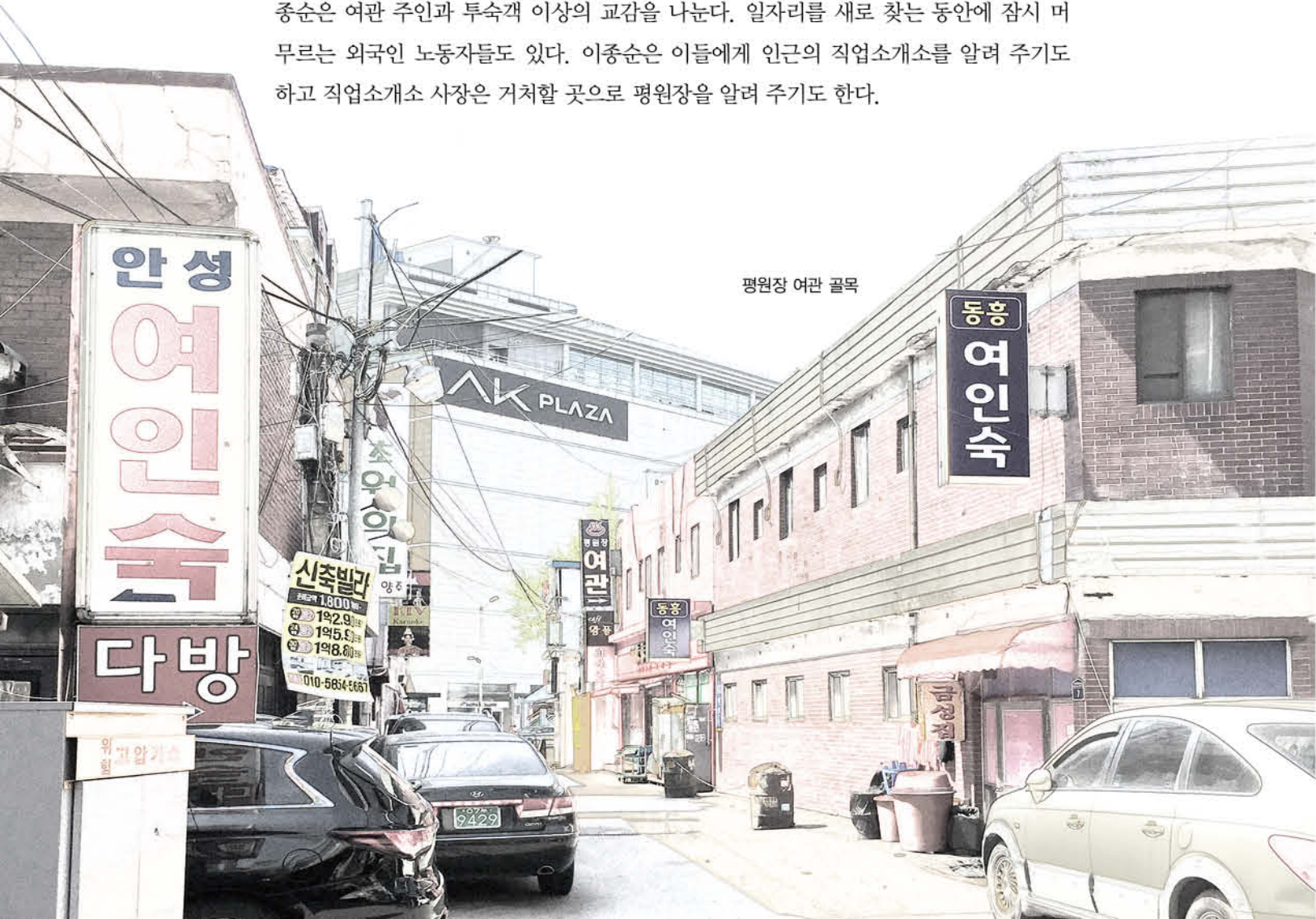
수원역 바로 앞에 위치한 평원장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이 찾아온다. 매산로 건너



충남여인숙 주변 숙박업소

편 수원역 로데오거리 쪽은 모텔과 호텔이 많아서 젊은 층이나 경제력 있는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반면, 평원장이 있는 역전시장 쪽은 여인숙과 여관뿐이어서 경제력이 없는 사람들이 주로 이용한다. 국가별로 손님 성향이 차이가 있는데 이종순은 중국인 투숙객을 반기지 않는다. 중국인들은 자신들이 사온 먹을거리는 포장을 뜯지 않은 것도 두고 가면서 여관 비품들은 가져간다는 것이다. 심지어 전기요를 가지고 나오다가 걸린 사람도 있다고 한다. 숙박요금도 심하게 깎고 방도 지저분하게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반해 최근에 많이 찾아오는 베트남이나 캄보디아 사람들은 순진하고 얌전한 편이라서 여관 주인 입장에서 편한 손님이라고 한다.

평원장은 외관이 허름한 편이지만 이런 점이 오히려 편안함을 준다는 이유로 찾아오는 단골이 있다. 병원에서 간병인으로 일하거나 숙박업소에서 청소 일을 하는 중국인 여성들은 휴식을 위해 평원장을 찾아온다고 한다. 평원장은 이들에게 집과 같은 곳이고 이종순은 여관 주인과 투숙객 이상의 교감을 나눈다. 일자리를 새로 찾는 동안에 잠시 머무르는 외국인 노동자들도 있다. 이종순은 이들에게 인근의 직업소개소를 알려 주기도 하고 직업소개소 사장은 거쳐갈 곳으로 평원장을 알려 주기도 한다.



평원장 여관 골목

이종순과 일하는 아줌마 한 명이 안내실에 거주하면서 평원장을 운영하다 보면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한다. 예전에는 투숙객이 오면 객실 열쇠와 제공하는 비품을 들고 객실까지 안내했지만 사회가 힘해져서 지금은 청소하면서 미리 비품을 객실에 두고 안내실에서 열쇠만 내어 준다. 안내실로 심부름을 시키는 전화가 많이 와서 객실마다 설치했던 전화기도 없었다. 휴대전화가 대중화되어서 투숙객도 불편하다고 생각하지 않은 것 같다.

평원장은 장기 투숙객을 받지 않는다. 그동안의 경험으로 볼 때 장기 투숙을 하는 사람들은 돈별이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결국에는 숙박요금을 받기는커녕 오히려 돈을 주고 달래면서 내보내야 하기 때문이다. 보복이 두려워서 함부로 내보낼 수가 없다. 한 달에 30만 원 내외의 장기 숙박요금을 받기보다 싸더라도 1만 원의 숙박요금을 받는 것이 훨씬 낫다는 판단이다. 잠깐 쉬어 간다던 손님이 장기로 묵는 경우가 가장 진상 손님이다.

그러나 여관 주인에게 가장 두려운 존재는 미성년자 투숙객이다. 특히 미성년자 혼숙은 처벌이 강한데 현실적으로 신분증 확인이 어렵기 때문에 미성년자로 보이는 손님이 찾아오면 숙박을 거절하려고 한다. 평원장에 화재가 발생해서 옆집과 보상문제로 갈등을 빚은 적이 있었다. 얼마 후 옆집에서 평원장의 단체 투숙객들이 한밤중에 너무 소란스럽다며 파출소에 신고를 하는 바람에 경찰이 조사하러 왔는데 공교롭게도 단체 투숙객 중에 미성년자가 있었다. 다행히 혼숙이 아니었고 이종순이 그동안 매산동 경찰들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기에 무사히 넘어갔지만 가슴이 철렁했다고 한다.

이종순은 수원역전 여관업자들의 친목모임인 수요회에 가입해서 총무 역할을 담당하며 활동하였다. 그러나 수요회가 해체되고 몸이 아프기 시작하면서 별다른 소속 없이 지내다가 주변과 너무 교류가 없는 것 같아서 2년 전에 매산동 여관업자 친목모임인 한마음회에 가입했다고 한다. 매월 1회 모임을 갖고 식사하며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는 정도이다. 숙박업중앙회 수원시지회에서 월 1회 실시하는 교육에도 참여하고 있다. 50년 가까이 여관을 운영하면서 여든을 바라보는 나이가 되었음에도 이종순은 언제쯤 여관을 그만둘지 모르겠다고 말한다.



장급 여관 내부 복도



김형아 설낭 대표

제2장

매산동 소극장 전성시대

1. 영화계의 르네상스 끝에 찾아온 불황과 새롭게 떠오르는 재개봉관

일제강점기에 들어온 영화는 큰 인기를 구가하며 대중들에게 새로운 경험을 제공했으며 극장은 하루 종일 앉아서 관람했던 신기한 공간이었다. 해방 후 한국전쟁이라는 거대한 소용돌이에 휘말리며 힘든 시기를 보냈지만 일반 사람들이 정보를 접할 수 있는 창구이기도 했던 영화는 빠르게 제자리를 찾아간다. 롤러코스터를 타는 듯한 빠른 환경의 변화와 정치적 격변을 고스란히 포착한 것이 영화였고 그래서 더욱더 대중들의 사랑을 받았다. 영화의 인기가 높아 갈수록 선택과 외면에 예민하게 반응했을 수밖에 없던 극장은 생동하는 영화의 역사와 함께한다.

매산극장은 수원극장과 중앙극장 다음으로 수원 지역에 설립되었는데 수원의 남문권 역에서 벗어난 최초의 극장이기도 했다. 1957년 8월 6일 극장허가를 받은 매산극장은 492석의 규모이고 대표는 임인형이었다. 1971년 휴업과 증개축 착공을 신청한 매산극장은 문을 닫은 후에 이재철과 중앙극장의 고동이 사장이 함께 투자하여 1974년에 아카데미극장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문을 열었고,¹⁾ 극장 대표는 1977년 임인형에서 이재철로 바뀌었다.

수원의 토박이들이 주로 남문에 있는 극장을 애용했다면 매산극장은 수원역을 이용하는 승객들과 실업자, 외지에서 온 일용직 노무자들이 고객층이었다. 수원역에 하나뿐인



이 극장은 비가 오는 날이면 극장 직원들이 부리나케 손님 맛을 준비를 했다고 한다. 개봉관이 아닌 B급영화를 틀어 주던 재개봉관으로, 건설노동자들이 좌석제 없는 극장에 앉아 하루 종일 시간을 때우기 위해 몰려들었던 곳이다.

1960년대 한국영화는 르네상스라고 불릴 만큼 만들어지는 영화의 편수가 증가할 뿐만 아니라 장르도 다양해진다. 이전까지만 해도 사극 일색이던 영화시장에 「자유부인」이라는 상업적 현대극이 대중에게 큰 사랑을 받는다. 가족을 중심으로 일상을 그린 「로맨스빠빠」, 「박서방」, 「마부」는 구질서와 근대화라는 새로운 질서 간의 갈등을 다음 세대가 만들어 낸 새로운 가부장제로 위기를 봉합하며 희망을 이야기한다. 이는 4·19의 영향으로 빈



1957년에 수원역 일대에 최초로 개관한 매산극장(시사통신 수원지사, 『수원의 역정』, 1960)

곤한 삶과 변화하는 시대적 가치 위에 가족을 통해 희망을 덧칠할 수 있었던 것이다.

5·16군사쿠데타라는 정치적 격변을 경험하고 한일협정과 월남파병 이후의 빠른 도시화와 근대화는 절대빈곤을 넘어설 수 있다는 안정감과 정치적 무력감이 상존하면서 근대화에 대한 공허감을 「귀로」, 「안개」 등의 영화로 그 자의식을 드러낸다.

가족을 매개로 한 희망은 결국 근대화의 주류에서 소외될 수밖에 없는 서민들의 박탈감이 커지면서 윤리적인 가족드라마에서 신파멜로드라마로 옮겨간다. 대표작으로 1969년에 개봉한 「미워도 다시 한 번」이 있다.

이 외에도 청춘영화와 액션영화가 등장하는데 극장의 많은 관람객이 고무신 관객이라고 불리는 중년 여성들이 압도적이라면 청춘영화의 붐을 일으킨 서울의 아카데미극장은



외화가 상영되고 있는 1978년 중앙극장(수원박물관 제공)

현재 젊은이들이 핫스팟이라고 이야기하는 청춘의 공간이었다. 젊은이의 패기를 말하지만 그 끝에는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열정의 상실을 비극적으로 그려낸 영화장르로 신성일과 엄앵란을 스타의 반열에 올려놓았던 장르이다. 스릴러액션 장르는 신진감독들이 대중성이 담보된 새로운 영화를 개척한다. 주관객들이 여성인 멜로드라마와 달리 남성들을 극장에 불러들이는 장르 중 하나다. 그리고 1970년대 검객영화로 이어진다.²⁾

청춘영화의 선봉에 섰던 '아카데미극장'의 이름과 꼭 닮은 수원의 '아카데미극장'은 영화 시장이 침체되었던 1970년대에 검객영화와 오컬트영화 등을 주로 상영하면서 사극과 신파, 멜로를 선호했던 고무신 관객의 발길이 끊긴 극장가에 젊은 남성 관객들을 빨아들였다.

다양한 장르의 영화가 만개했고 그 양적 성장은 기팔랐다. 1962년에 제작된 영화가 100편을 넘어섰고 1968년에는 200편에 이르렀을 만큼 많은 영화들이 만들어졌다. 양적 성장과 장르의 다양성이 갖춰지는 데는 무엇보다 관객들의 열렬한 호응이 있었다. 그리고 1962년부터 시작된 영화법 개정이 수입과 제작의 일원화 정책에 맞물리면서 제작편수에 맞춰진 외화 수입 쿼터제로 외화수입권이 줄어들면서 수입권을 받기 위한 문예, 계몽, 반공 영화가 만들어진다. 특히 1960년대 중반부터 외국영화의 수익성이 한국영화를 넘어서면서 더 많은 외화를 배분받기 위해 한국영화를 줄속으로 만들어 냈다. 이 시기에 꽃피운 다양한 장르들은 유신체제로 넘어가면서 영화 편수를 맞추기 위한 B급 저질영화를 양산하는 구실이 된다. 그리고 1970년대 후반에 이르러서 외화수입권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간주된 한국영화는 개봉할 극장을 찾기 못해 창고에 잠자는 상태에 다다랐다.

1960년대 빠른 속도로 늘어나는 관객수는 당시 영화 이외의 오락거리가 많지 않았던 탓에 쉬는 날이면 사람들이 극장에 몰려들었다. 하지만 1969년을 정점으로 관객수가 점

표 1 영화산업 현황³⁾

구분	1969	1970	1971	1972	1973	1974	1975	1976
제작편수(편)	233	234	196	142	101	155	121	107
외화상영편수(편)	90	102	102	104	90	85	77	80
외화점유율(%)	57	58.6	67.7	72.8	80.7	69.5	73.8	73.8
관객수(천명)	178,000	169,000	147,000	119,000	111,000	98,000	78,000	66,000
극장수(개소)	659	690	717	694	662	626	597	580

점 줄어들더니 1970년대에 들어서서 문을 닫는 극장들이 속출한다.

여전히 영화는 대중들에게 사랑받았지만, 최첨단의 장소였던 극장은 어느덧 시설이 낙후됐고 인식도 좋지 않았다. 소위 극장 냄새는 화장실 냄새였고 우범시설로 인식되고 있었던 것이다. 어두운 장소이다 보니 변태가 자주 출몰하는 곳이기도 했다. 1970년대에 서 1990년대 초반까지 수원의 아카데미극장과 중앙극장에서 일했던 영사기사 이상만도 극장에 항상 오던 변태를 주시하며 잡았던 일화가 있었다.

이상만 내가 진짜 아닌 게 아니라 해결사라고 소문이 났어. 이상한 사람덜이 있잖아. 변태 그 내가 다 잡아냈어. 이 사람들은 영화를 안 봐. 아래 위층으로 왔다 갔다 신문 뚝뚝 말아 가지고 왔다 갔다. 나이도 먹었어. 한 50대 정도 돼. 그래 맨 처음에 저 사람이 맨날 온단 말이야. 일단 표 끊고 들어와. 하루 종일 있어도 뭐라고 안 그 래. 맨날 들어와. 그래서 내가 유심히 봤지. 물어 봤어. 저 사람은 뭔데 맨날 와요. 여 자 꼬시고 막 더듬고 하는 사람이야. 그래! 요런 건 또 못 보거든. 그래 들어왔다 그 럼 내가 그 사람 중요시 보는 거야. 휴게실에 딱 흰하게 켜 놓잖아. 딱 가면 이 사람이 들어오다가 어디 여자 혼자 있잖아. 앉어. 흰하니까 여자 다리까지 신문을 딱 펴. 손은 어떻게. 여자가 창피하니까 말도 못 하고 혼자 앉아서 그냥 당하고 있는 거야. 여자가 발악을 하고 나가고 하면 내가 쥐 패는 거야. 내가 해결사야. 또 중앙극장 있을 때 사 건인데 아침에 단체로 왔어. 영복여고 애덜. 그래 그 극장이 짹 찻어. 우리 영사실이 2 층이야. 나오면 매점이고 여가 들어가는 데야. 딱 들어갔는데 짹 찻으니 여자애덜이 서서 볼 거 아니야. 이런 얘기 안 해야 되는데 그래 그놈이 이상하게 들어왔어. 일반인이 못 들어와야 되는데 들어와 있어. 고놈이 왔다 갔다 하는 걸 내 알아. 고놈이 온 거야. 이게 어떻게 들어왔지? 그래서 또 주시했지. 그랬더니 2층에서 입구 쪽에 딱 들어갔더 니 이놈이 아닌 게 아니라 서 있는 고등학생한테 들이대고 있었던 거야. 그 이상은 더 이상 얘기 안 하께. 아유~ 그건 끌어 갖고 기절까지 시켜 버렸어.

극장가는 1970년대 들어서면서 관객들이 급속도로 줄어들었다. 그리고 유신체제를 이 어가기 위해 현실에 맞지 않는 영화법이 강화되면서 영화사 23개 중 22개가 파산할 정도 로 최악의 시기를 보내고 있었다.

TV의 출현은 극장의 대체제로 인식되면서 관객들은 극장을 갈 이유가 줄어들었다.



1970년대 극장에서 개최되던 행사(1970년 국제극장, 국가기록원 제공)

1960년대까지 전성기를 구가하던 시절 고무신 손님이 많아야 한국영화가 흥행한다는 통 설이 있을 만큼 중년 여성의 영향력은 엄청났는데 TV에서 드라마가 편성되면서 더 이상 중년여성들이 극장을 찾지 않아도 되었다. 수원 또한 1972년에 TV수상기가 4가구 중 1 가구가 소유하고 있을 정도로 많이 보편화되어 있었다.

수원의 한 노동자는 “어린 시절 여가로 극장을 갔는데 어느 순간 TV 때문에 더 이상 극장에 가지 않았다.”고 말한다. 또 다른 수원 토박이 이선우는 “남문에 있는 로얄극장 에서 영화상영이 아닌 이미지, 나훈아 등의 가수공연이 많았다.”고 말한다. 극장은 영화 의 관심에서 멀어진 관객을 잡기 위해 대형가수와 인기연예인을 불러 쇼를 진행한 것이 다. TV를 통해 유명해진 가수와 배우를 대면할 수 있는 기회를 극장이 제공함으로써 발 걸음을 돌리게 하려는 노력의 일환이기도 했다. 당시 큰 공연장시설이 없었던 수원에서 는 큰 쇼무대로 인기를 끌었다. 이에 대해 지방 배급업자 이원학은 “과거에 비해 실업자 가 줄었기 때문이라고”도 말한다. 실업상태로 도시를 배회했던 도시하층민들이 영화로 시간을 때우며 판타지를 꿈꿨던 장소가 극장이기도 한 것이다. 실제 1970년대 관람객수 는 1960년대 말 관람객수의 3분의 1로 줄어든 상태였다.



푸른시대 딸기밭을 찾는 인파(수원박물관 제공)

2. 재개봉관 아카데미극장

1960년대 말 수원시는 '경인특정지구개발'에 편입되었고, 경기도청의 이전, 경부고속도로의 건설로 산업화가 급속히 가속화되었다. 이에 따라 인구는 꾸준히 증가했으며, 1980년대에는 연평균 7%씩 인구가 격증한다.⁴⁾ 인구의 증가와 도시의 팽창은 구도심의 개봉관과 변두리 재개봉관의 지리적인 극장구조를 만들어 냈다.

구도심의 개봉관은 주말에 특별한 경험을 위한 나들이였기 때문에 가족이나 학생, 젊은 남녀가 주관객이었다면 변두리 재개봉관은 일상적으로 영화를 보는 남성 노동자들이 주관객이었다. 관객들의 특성이 다른 만큼 영화의 종류가 달랐는데 개봉관이 외화를 주로 선호했다면 재개봉관은 B급 무협액션영화와 자극적인 호스티스영화가 많았다. 개봉관을 주로 이용하는 수원 토박이들은 여가활동이 다양해지면서 극장 외의 활동을 선택하였다. 또한 노동집약적인 섬유와 전자산업이 수원에 속속 들어서면서 여성 인구가 급증하는데 이들도 영화보다는 다른 여가활동을 선호하였다. 무엇보다 경부고속도로의 개통은 시외버스를 타고 야외활동을 나갈 수 있는 원인이기도 하다. 당시 수원 딸기밭의 열풍과 안양유원지, 원천유원지, 용인민속촌 등 다양한 야외활동을 즐길 수 있는 장소가 속속 생겨나고 있었다.

이에 비해 아카데미극장은 남성 노동자들이 일상적으로 즐겨 찾는 공간이었으며 1976년 수원시외버스터미널이 근거리에서 생기면서 불황이 없었다. 이상만은 동시상영을 걸어 놓은 아카데미극장이 손님들로 꽉 찼다고 말한다. 실제로 수원의 중앙극장의 고동이 대표가 1970년대 중반 변두리 재개봉관에 합작 투자함으로써 줄어든 관객의 숫자를 보완하였다.

재개봉관이었던 수원의 아카데미극장은 서울보다 2~3개월 늦게 영화를 받을 수 있었다. 그리고 배급받아 온 필름은 한때 유명했던 수원극장과 공유하였다.



아카데미극장 간판 앞에 선 이상만

이상만 충무로에서 배급을 받아 와요. 여기서 인제 각 지역마다 거기서 필름을 배급하는 사람이 있어. 다 이 스케줄을 잡아 주는데 그게 참 우리가 필름 가지러 다니고 그랬거든. 필름이 여분이 없으니까 이 극장에서 하고 저 극장에서 하고 한 지역에서. 수원 극장하고 아카데미하고 서로 같이 하는 거야. 하나 가지고, 그러면 필름이 서로 오두바이로 왔다 갔다 하는 거야. 가게모찌(두 가지 일을 교차하여 동시에 하는 것)라고 하지, 서로 시간 조정을 하는 거지. 그 사고라도 나면 빵꾸 나는 거야. 안내방송하고, 야유하고 와서 항의하는 사람 있고.

당시 배급질서는 현재의 직접배급과 달리 간접배급질서로 전국이 서울 변두리, 부산 경남, 광주호남, 대구경북, 대전충청, 경기강원 등 6개의 상권으로 분할되어 있었다. 수원은 경강 지역에 포함되며 충무로에 몰려 있는 지방흥행업자 중 경강 지역을 맡은 배급사를 통해 영화를 단매방식으로 제공받았다. 단매란 지역 배급사가 극장과 단매금액을 정하여 일괄 계약하는 방식을 말한다.

1980년대 이후 개봉관이 늘어나기 전까지 배급된 영화의 기본 프린트 별수는 6~8벌이었다.⁵⁾ 각 지역별로 한 벌씩 할당되는데 개봉관에서부터 시장 규모가 큰 순으로 필름이 돌아다녔다. 지역 안에서도 재개봉관에 해당했던 아카데미극장은 필름이 너털너털하기 일쑤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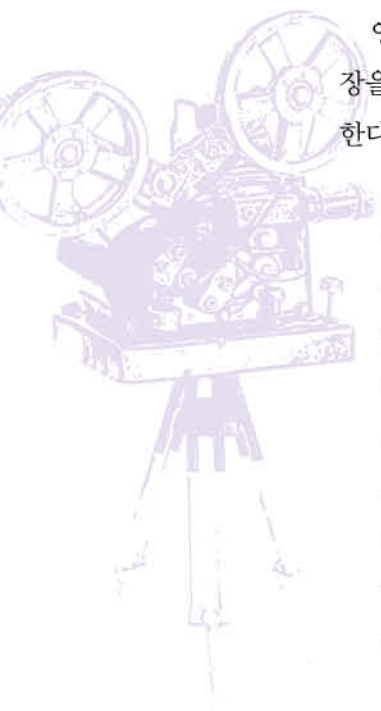
이상만 기계가(영사기) 두 대니까 들어서 왔다 갔다 하면서 20분씩. 한 바퀴에 20분이니까. 그리고 옛날에는 필름이나 좋았어? 필름도 개판이잖아요. 그 필름 하나 가지고 전국 다 돌아다니니까. 콤마가 있잖아. 35mm 필름. 그게 찢어지고 자꾸 부패가 돼 갖고. 하다가 중간에 필름이 끊어질 때가 있어. 필름이 하도 남아 가지고 돌아가다가 그냥 탁, 톱니 걸어갔고 막 돌아가니까 끊어진단 말이야. 또 그걸 인제 필름을 까서 이어요. 우리가. 나중에 다시 끊어졌으니까 걸어 갖고 다 돌리고 나서 필름까 갖고 붙이고 그땐 인제 필름을 유리로 양쪽을 다 까 갖고 아세톤으로 붙여. 스카치테이프로도 붙는데 그건 빛에 녹아. 개봉관이 켈 필름 좋고 그런 거지. 재개봉은 진짜 완전 필름 다 돈 다음에 오는 게 재개봉관이지.

필름 상태가 안 좋을지는 몰라도 시간을 때우기 좋다는 말처럼 싼값으로 한 번에 두세 편을 영화를 볼 수 있었던 곳도 재개봉관이다.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문화도 있었다. 영화가 끝나고 나면 휴식시간이 있었고 극장 내 매점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먹을 것을 들고 상영관 안으로 들어갔다.

이상만 휴게시간에 부라보콘 같은 거 과자 같은 거 가지고 들어가. 휴게시간 동안 파는 거여. 주말 일요일 날, 토요일 날 사람이 많을 거 아니야. 파는 품목이 부라보콘, 오징어, 땅콩. 그 옛날엔 극장에서 담배도 많이 폼했잖아. 영화 돌아가는데 안에서 삐끔삐끔. 내가 휴게시간에 금연방송도 많이 했어. 피면 보이잖아. 나가서 담배 좀 끄라고 방송도 하고.



아카데미극장 영사실



영화를 홍보하는 것 또한 극장의 재량이었다. 현재는 몇몇 대기업이 독과점 상태로 극장을 운영하는 것과 달리 개인들이 극장을 운영하면서 지역신문이나 벽보를 통해 홍보를 한다. 또한 현재로는 보안요원이라고 불릴 만한 사람들도 극장마다 지키고 있었다.

이상만 기도라고 있어요. 옛날에 못살고 하니까 동네 꼬마애덜 그리고 또 동네에서 좀 놀던 사람들 주먹세계 애덜이 행패 부리고 공짜로 들어갈라고 하고 고런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기도를 뒀던 거야. 간단하게 얘기해서 기도라는 게 좀 전달 스타일이지. 지역에 전달 애덜을 하나 갖다 놓는 거지. 와서 행패 못 부리게 하게끔. 약간 덜떨어지고 그런 애덜을 벽보 붙이게 한 거야. 똑바른 애덜은 없었어. 못 배우고 집안도 가난하고 하니까 그런 것도 하고 그런 거지. 각 극장마다 한, 두 명. 오도바이 타고 수원 시내 다 돌아다니는 거야. 또 벽보 붙이고. 가게 같은데 벽에다 포스터 붙이잖아. 그럼 할인 권도 줘. 옛날에 이런데 가게가 있으면 다 붙였어. 벽에 붙여 놓고 그랬지. 지금은 벽판이 다 있잖아. 옛날엔 없었다고.

영화의 위상은 점점 하락하며 사양산업이라는 기사가 등장하고 영화의 종류도 정책영화, B급액션 내지 신파, 호스티스 영화 이렇게 3가지로 구분될 정도로 쇠퇴한다. 하지만 변두리 재개봉관은 영화산업의 위축 안에서도 명맥을 이어가며 10~20대 젊은 하층 노동자를 상대로 나름의 호황을 누렸다. 아카데미 극장 또한 그중 하나였으며 이상만이 하류극장이라고 지칭했던 것처럼 노동자들의 하위문화를 형성했던 장소였다. 그리고 이때 번성한 호스티스 영화와 무협영화는 1980년대로 이어진다.

3. 소극장의 번성

「눈물의 웨딩드레스」와 「암살지령」이 동시상영이라는 커다란 글자로 수원역 아카데미 극장 간판에 걸려 있다. 호스티스물과 B급액션영화, 그리고 괴기영화를 빠른 시간에 그려 낸 간판화가의 빠른 붓 터치는 변두리 재개봉관의 관객들에게 새로운 오락거리를 알리는 신호였다. 재개봉관의 상영일자는 개봉관과는 달리 일주일 정도로 짧았고 아카데미 극장의 간판화가도 시간에 쫓기며 기존 간판 위에 빠르게 다음 영화를 덧칠하고 내걸어



1974년 아카데미극장(수원박물관 제공)



1986년 수원 지역 극장에서 상연되던 영화 포스터

야만 했다.

「눈물의 웨딩드레스」는 집을 나와서 호스티스 생활을 하던 중 애인을 만나 뒷바라지를 했지만 결국 눈물을 흘리며 떠나는 여성의 이야기다. 급격한 산업사회로 넘어가면서 도시로 상경한 여성들이 매매춘의 도구로 전락한 신파조의 멜로로 근대화에서 소외된 가난한 도시민의 감정을 건드렸던 내용이다. 그리고 성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호스티스라는 소재는 권위주의 체제에서의 탈출구를 의미하기도 했다.

1970년대부터 모습을 나타낸 호스티스영화는 「영자의 전성시대」, 「별들의 고향」과 같이 젊은 감독들의 감각으로 그려졌다. 이는 이중검열의 구속 안에서 새로운 성윤리의 문제와 도시 하층민의 비극적인 삶을 담아내려는 노력이기도 했다. 하지만 1978년 「O양의 아파트」가 크게 흥행을 하며 극장가가 호스티스 영화로 물들었다. 호스티스영화가 붐을 이루면서 1970년대 전부가 호스티스 영화였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정도로 선풍적인 인기를 끈 것이다. 하지만 1970년대 말 엄청난 흥행을 가져온 호스티스 영화들은 그 내용



역전시장에 위치한 피카디리극장(1987년, 수원박물관 제공)

이 변질되면서 여성을 성적 대상화하는 데만 급급하였다. 그리고 이런 기류는 에로티시즘 영화로 넘어가는 단초를 제공한다.

3S정책과 맞물린 1980년대는 에로티시즘영화의 홍수를 이룬다. 영화사상 처음으로 가슴을 드러낸 「애마부인」은 4달 동안 관객 31만 명을 동원하며 엄청난 인기를 누린다. 무엇보다 최초의 심야영화로 그 신호탄을 알리며 부인시리즈를 양산해 냈다. 그리고 1981년 공연법 개정으로 규제가 완화되고 이듬해 300석 미만의 소극장 설립을 자유화하면서 전국적으로 극장이 우후죽순 생겨났는데 심야영화라는 아이디어와 소극장이 만나면서 에로영화는 밤늦게까지 절찬리 상영되곤 했다.

또한 당시 영화시장의 구조는 제한된 개봉관의 수에 비해 개봉하지 못하는 한국영화 편수가 늘어나면서 관객들은 외화 선호도가 높았다. 진퇴양난에 빠진 영화계는 공연법 개정으로 소극장이 늘어나자 극장을 찾지 못했던 한국영화들을 빠르게 흡수하였다. 이후

명보극장(1987년, 수원박물관 제공)



1984년 말의 5차 영화법 개정과 이듬해 6차 영화법 개정으로 영화 제작사의 독과점 구조가 깨지면서 시장의 완전개방이 이루어진다. 이는 수원역의 피카디리, 명보, 서라벌극장과 남문에는 영동극장, 북문의 코리아극장 등이 생겨나면서 수입된 외화를 상영할 수 있게 된다. 이 소극장들은 싼 임대료로 도심 변두리에서 운영이 가능하고 기존 상영관에 비해 개업이 쉽다는 점에서 각광을 받았다.

수원역과 터미널이 가까운 장소에 문을 연 피카디리, 명보, 서라벌극장은 다른 지역에서 온 타지인들이 차 시간을 기다리는 중간에 시간을 보내기 좋은 장소였다. 또한 싼 입장료는 주머니가 가벼운 관람객에게 극장을 찾는 요인이기도 했다. 한창 호기심 가득한 얼굴로 사복을 입은 고등학생들과 전두환 정권의 폭압정치에 맞섰던

대학생들 그리고 고단한 하루살이 육체노동자들은 갑자기 열린 심야시간에 한층 검열이 완화된 에로영화의 남성판타지라는 마취제를 맞고 기이한 자유를 함께 공유하였다. 간혹 자극적인 영화를 주로 취급했던 소극장들은 에로영화인 줄 알고서 예술영화들을 종종 끼워 넣기도 했다.

피카디리극장 지하에는 롤러장이 있었다. 소극장 주변으로 나이트클럽과 카바레가 네온사인을 깜빡이며 사람들을 부른다. 그리고 오래된 순댓국집이 골목 따라 이어진다. 영화를 보고 술이 먹고 싶고 해방감을 느끼고 싶을 때 수원 사람들은 수원역에 갔다.

4. '영화법' 개정과 극장의 변화

영화법 개정은 허가받은 소수의 제작사가 제작과 수입을 할 수 있는 독점체제에서 누구나 영화사를 등록하고 제작할 수 있는 등록제로 바뀌었을 뿐만 아니라 영화제작업자로 등록하지 않고도 제작할 수 있는 독립영화제작도 도입되었다. 이에 영화업계는 제작자유화로 활기를 띠게 되지만 수입영화의 완전 개방으로 위기를 맞는다. 그동안 경직된 체계 안에서 살아남기 위하여 저질영화를 양산하는 분위기가 완연한 가운데 외화와 경쟁하는 것은 무리였다. 제6차 영화법 개정으로 외국영화사의 국내 영화업이 허용되면서 1988년 UIP직배사와 20세기 폭스사가 차례로 들어온다. 1950년대부터 자리 잡은 간접배급 형식의 변화는 물론 스크린쿼터제와 맞물린 외화의 희귀성이 사라지면서 개봉관과 재개봉관이라는 독특한 극장문화 풍경이 변화를 맞이하게 된다. UIP직배반대운동이 영화인들 사이에서 거세게 몰아치는 와중에 몇몇 소극장들은 대중이 선호하는 외화를 직배를 통해 받아들였다. 안타깝게도 시장개방으로 1993년에 한국영화 점유율은 15%까지 떨어지게 된다.

소극장은 1990년에 전체 극장수의 69%의 수치로 정점에 이르렀다가 점점 내리막길을 걷는다.⁶⁾ 소극장의 필름 유통구조의 모순과 극장 시설의 노후화는 적은 자본으로 시작한 극장주의 지속적인 운영, 관리를 어렵게 만들었다. 또한 비디오 산업의 발전으로 굳이 극장에 가지 않아도 다양한 영화를 볼 수 있는 길이 열리면서 명맥을 유지하기 힘들었다.

서라벌극장은 필름이 아닌 비디오 극장으로 탈바꿈하였다. 그리고 피카디리극장은

‘미국직배영화 안보기운동’ 전국으로 ‘할리우드’ 거대기업과 ‘충무로’ 싸움 새국면

“우리는 특별한 대접을 바라지 않는다. 한국기업들이 미국에서 활동하듯 미국 영화사도 한국에서 활동하기를 바란다.”

작 배런티 미국영화수출조합(MPEA) 회장이 지난 24일 신문 광고를 통해 한국 관객들에게 밝힌 미국영화사 한국진출의 변. 자칭 타칭 ‘작은 국무부’로 불리는 미국영화수출조합은 미국 영화사들이 세계 시장을 향해 형성한 통일전선이다. 작 배런티는 린든 존슨의 백악관시대 그의 보좌관이었다. 지난 15일, 유아이피 직배상영관 코리아극장 앞에서 한국영화업자들이 직배 철폐를 요구하는 농성을 벌이고 있던 날, 미국 통상대표부에 한국을 영화와 관련 ‘불공정 거래행위’로 제소한 사람이다.

미국영화수출조합은 미국이 ‘중소기업’의 수출촉진을 위해 제정한 웹 포머린 통상법에 의한 합법적 카르텔, 이러한 형태의 수출조항을 담고 있던 반트러스트법에서 중소기업을 구제하기 위해 만들었던 것이다.

전직 대통령보좌관을 회장으로 두고, ‘작은 국무부’라고 불리는 수출조합의 회원사들은 실상 중소기업은 아니다. 파라마운트는 걸프·앤·웨스턴, 유나이티드 아티스트는 트랜스 아메리카 등 대기업의 자회사이며, 20세기 폭스는 영화 이외의 타산



영화인 1백여 명이 24일 오전 명동 코리아극장 앞에 모여 미국영화 직배 반대 시위를 벌이고 있다. <이종찬 기자>

업에 손을 뻗치고 있는 등, 거대한 다국적 복합기업들이다. 미국의 영화학자 토마스 구백은 “오늘날 할리우드 영화산업은 예전의 철강산업에 비견할 만한 거대한 제국을 이루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미국 영화 직배를 둘러싼 충무로와 할리우드의 대결을 경제적인 양상으로 본다면 이것은 거대한 ‘다국적 중소기업’과 한국의 중소기업의 싸움이다.

유아이피가 <위험한 정사>의 직접상영을 시작한 24일 서울의 코리아, 신영 두 극장에서는 4백여 명의 영화배우, 감독, 시나리오 작가, 촬영기사, 영화제작자, 조감독, 영화운동가 등이 모여서 미국영화직배에 항의하는

시위를 벌였다. 참여자들은 “원로 시나리오 작가 최금동씨, 배우이자 감독·제작자인 하명중씨, <검시불 당선>의 박철수 감독, <성공시대>의 장선우 감독, 제작자 이태원, 강대선, 황기성씨, 민족영화연구소의 이정하씨, 8밀리영화 <파랑새>로 구속됐던 홍기선씨 등 영화계를 구성하는 다양한 부문과 세대를 보여주고 있었다.

영화인들은 미국영화 직접배급을 “문화침략이자 경제침략”이라고 규정하고 스미국영화사의 철수 스영화법 폐지 및 영화진흥법 제정 스미국영화 직배상영 중단 등을 촉구했다.

국민들에게는 명동의 행인들에게 나눠준 호소문을 통해 부

산의 푸른, 동보, 전주의 피카디리, 대전의 허리우드, 대구의 제일·국제, 수원·영동·서라벌, 청주의 중앙극장 등에서 상영하는 ‘미국 유아이피 영화’ 보지 않기 캠페인을 제안했다.

영화인들은 “유아이피가 올림피아 영화기간 중 영화를 개봉한 것은 경찰의 물리력을 이용, 한국 영화계의 반대를 진압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24일 아침 9시부터 사복전경과 물바랜 청운을 입은 진압대에 둘러싸여 명동과 신촌에서 미국영화 직배 반대 시위를 벌이던 영화인들은 “관객들에게 앞으로는 미국영화 직배가 우리 문화에 끼치는 영향을 계속 알려 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안정숙 기자>

부산지역 9개 사회단체 ‘직배반대’ 지지 성명

【부산=이수윤 기자】부산지역 대학문화페, 부산노동자협의회, 부산민주시민협의회 등 부산지역 9개 사회단체는 미국영화 직배에 반대하는 영화인들을 지지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24일부터 유아이피 영화 <위험한 정사>를 상영하는 부산의 동보극장과 푸른극장 앞에서 직배영화 안보기 운동에 나섰다.

지지성명을 낸 단체는 부산노동자협의회, 민주실천 부산시민운동연합, 부산지역 민중문화운동연합 준비위, 부산지역 대학문화페, 부산민주청년회, 부산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부산민주시민협의회, 부산지역 총학생회협의회, 부산지역 기독교청년협의회 등이다.

유한 복합상영관이 생겨나고 이는 멀티플렉스의 전신이 되었다. 1997년 IMF외환위기를 기점으로 대기업들은 영상사업에 진출하며 극장 인수 붐이 일어났다. 그리고 기존 개봉관의 많은 객석과 2개의 스크린을 가지고 있는 것과 달리 여러 개의 스크린에 적은 객석을 둔 멀티플렉스를 개관한다. 멀티플렉스 방식은 서울을 시작으로 지방의 극장가까지 점령하게 된다.

이 시기 수원역에서는 소극장이 아닌 큰 규모의 시네마타운이 새로운 변화를 꾀하며 관객들이 기다릴 수 있는 공간과 깨끗한 시설로 이제 막 문을 열었다. 중앙극장주 고동이의 사위가 연 극장으로 예전의 대규모 극장구조에 멀티플렉스극장에서 볼 수 있는 최신 서비스시설을 섞은 중간 성격의 공간이었다. 하지만 수원역사 안에 대기업이 운영하는 CGV가 들어서면서 소극장들과 함께 시네마타운도 문을 닫는다.

필름에 빛을 쏘이면 벽에 커다랗게 드리웠던 수많은 영화들은 이제 멀티플렉스 극장에서 관객들을 맞는다. 좌석제가 없는 극장에서 하루 종일 앉아 울고 웃었던 사람들, 매표소, 매점 사람들, 영사기사 그리고 복도 끝 미술실에서 그림을 그렸던 간판화가들 모두 한 시대를 보내고 슬며시 우리 곁을 떠났다.



시네마타운



시네마타운 내부

UIP직배반대운동(『한겨레』, 1988년 9월 27일)

2004년 일반극장에서 볼 수 없는 제한상영등급 전용관으로 문을 열었다. 형법상 음란죄에 해당하는 세미포르노 수준의 영화를 상영할 수 있는 제한상영관은 소극장들이 위기를 타계할 목적으로 적극적으로 수용한다. 극장 허가서를 받는 제한상영관은 노출이 심한 영화나 잔혹한 영화지만 예술성이 짙은 영화로 틈새시장을 공략할 계획이었지만 하루에 한 명의 관객이 찾는 날도 있었다는 피카디리극장주의 말처럼 개점휴업 상태에 가까웠다. TV, 신문광고에 홍보가 불가하고 극장 간판에도 영화제목과 그림을 그릴 수 없으니 일반 시민들이 알기 어려운데다가 제한관람등급을 받은 비디오도 출시될 수 있었다. 그리고 인터넷이 활성화된 시점에서 제한상영관은 별로 매력적인 장소가 못 되었다.

1980년대의 소극장들이 자리를 잡으면서 적은 객석을 가졌지만 스크린을 2~3개 보

-
- 1) 수원시 기획실 문화공보담당과의 기록에는 1971년 휴업 및 증개축의 신청이 있었고 이후 1975년 아카데미극장이라는 이름으로 등록 신청한다. 이상만의 인터뷰에 의하면 문을 닫았던 전 극장을 아카데미라는 이름을 달고 1974년 다시 문을 열었다고 한다.
 - 2) 김미현 책임편집, 『한국영화사』, 커뮤니케이션북스, 2006 참조.
 - 3) 김미현 책임편집, 『한국영화배급사 연구』, 영화진흥위원회, 2003 재인용. 영화진흥공사, 『한국영화자료편람』, 1980 참조.
 - 4) 오유석, 「수원 중소기업 노동자의 노동세계와 일상」, 『수원시사 14 : 수원 노동자의 노동세계와 노동문화』, 2014, 265쪽.
 - 5) 김미현 책임편집, 『한국영화배급사 연구』, 영화진흥공사, 2003, 42쪽.
 - 6) 문화관광부, 『한국 영화상영관의 변천과 발전방안』, 2001, 93쪽.



최희진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아시아도시센터 연구원

제3장

수원역 성매매 공간을 둘러싼 갈등과 협력¹⁾

1. 그곳으로 들어가다

한국에는 현재 40여 곳의 성매매 집결지가 존재한다. 여성가족부 성매매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업형 성매매 집결지는 2002년 69개소에서 2016년 42개소로 감소한 것으로 파악된다. 여기서 전업형 성매매 집결지는 성매매가 영업의 일차적 주된 목적인 업소들이 밀집해 있는 지역²⁾이다. 서울 영등포역 일대, 전농동(일명 청량리588), 길음역 일대, 부산 완월동과 해운대 일대(일명 609), 인천 송의1동(일명 옐로하우스), 광주 대인동, 대구 도원동(일명 자갈마당), 전주 서노송동(일명 선미촌), 수원 매산동 일대 등 전국 각지에 분포해 있다. 최근 성매매 집결지는 변형되거나 소거(掃去)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정부가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지방정부의 의지와 지역적 상황, 사업성에 따라 성매매 집결지는 고층 주상복합건축물이 되기도 하고, 주차장이나 예술거리 혹은 전시관이 되기도 한다.

성매매 집결지를 둘러싼 논쟁은 사회과학 전반을 비롯해 언론, 정책 분야, 대중적 담론 등에서 관심을 받았다. 언론에서는 성매매 집결지 폐쇄에 따른 신·변종 업소의 양상과 재개발 논쟁, 새로운 공간으로의 변형 등을 특집기사로 보도하며 대중의 시선을 끌었다. 더불어, 기존 사회과학 연구에서는 성매매 개념과 성매매 정책, 그리고 그에 따른 성



그림 1 수원역 성매매 집결지 일대(김승일 제공)
하단 왼쪽 옥상정원이 있는 건물 자리에 구 시외버스터미널이 있었다.



그림 2 수원역 성매매 집결지로 연결된 도로(김승일 제공)

매매 집결지를 거시적으로 파악하거나 성매매 종사자에 주목하여 다층적 권력과 저항을 재해석하는 등 학술적 가치를 충분히 담고 있다. 그러나 기존 논의에서는 성매매 집결지와 그 공간의 변형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행위자들을 간과하면서 지방정부 역할이나 시민사회 참여 등 관련 행위자의 상호작용을 파악하지 못하였다.

필자가 진행한 연구에서는 수원역 성매매 집결지 폐쇄를 둘러싼 사회적 갈등을 지방정부에서 어떻게 관리하는지에 대한 메커니즘을 이해하는 시도를 하였다. 특히 수원시 성매매 방지 거버넌스에 주목하여 시 정부, 시 의회, 시민단체, 성매매 종사자, 지역상인, 토지 및 건물 소유주 등의 상호작용과 권력관계를 살펴보았다. 성매매 집결지 폐쇄를 둘러싼 행위자 간 역동적 관계가 정비사업의 방식과 시기, 그리고 공간의 형태와 정체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파악하였다. 이러한 필자의 연구 경험을 바탕으로 이 글에서는 수원역 성매매 집결지의 형성과 변천 과정을 재구성하여 이 지역에 대한 깊은 이해를 돕고자 한다. 더불어 이 지역에서 길거리, 이동하는 사람들, 그들의 시선 등의 소재를 통해 사회적 공간으로서 성매매 공간의 특성을 파악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2016년 4월부터 2017년 7월까지 수원역 성매매 집결지를 대상으로 현장 관찰을 하였고, 이해관계자들과 공식·비공식 면담을 하거나 전화로 문의하며 진행되었다. 또한 관련 문헌자료를 통해 정보를 수집해 분석하였다. <표 1>은 연구자와 교류한 대상자를 보여 준다. 시 정부의 도시계획 부서 공무원 A, 여성정책 부서 공무원 C, 시의원 D, 여성단체 활동가 F, G에게 면담을 요청하여 공식 면담을 진행하였다. 그리고 연구 대상지를 관찰할 당시에 만났던 세 명의 지역상인 H, I, J, 순찰하는 경찰 E와 비공식 면담을 진행하였다. 대부분 면담에서 필기를 활용하였다. 현장 관찰을 나갈 때마다 지역상인 H를 자주 만나 근황을 물어보며 이야기를 나누었다. 연구자에게 지역상인 H는 내부 관찰자와 같은 역할을 해 주었다. 대략 1년여 동안 대상지를 지켜보며 변화된 것을 파악하였다. 이후 부족한 정보를 얻기 위해 또 다른 도시계획 부서 공무원 B에게 전화로 문의하였다. 필자는 면담 대상자에게 성매매 집결지에 대한 자신의 입장과 활동, 그리고 지역적 상황의 변화에 대한 질문을 하였다. 여성가족부의 보도자료, 연구 보고서, 정책 방침 등 문헌 자료를 통해 중앙정부라는 행위자의 입장과 역할을 파악하였다. 그리고 토지 및 건물 소유주, 성매매 종사자에 대해 간접적으로 그 입장을 살펴보았다. 예를 들면 시 정부에서 파악한 것과 여성단체에서 아웃리치 활동에서 겪은 경험을 공유하였고, 현장 관찰을 통해 정보를 구하였다. 또한 수원시의 보도 자료와 경기일보, 수원일보 등의 지역

표 1 인터뷰 대상자

분야	당시 소속	인용표기	일자	비고
시 정부	도시계획상임기획단	A	2016.4.22.	공식 면담
	도시재개발과	B	2017.5.12.	전화
	여성정책과	C	2017.4.6.	전화
시 의회	시의원	D	2016.5.19.	공식 면담
경찰	서부경찰서 경찰관	E	2016.5.8.	비공식 면담
여성단체	여성인권활동가, 성매매피해 상담소 운영	F, G	2017.3.24.	공식 면담
			2017.6.28.	전화
지역민	지역상인	H	2016.4.13.	면담
			2016.5.8.	비공식 면담
			2016.5.19.	비공식 면담
			2017.3.24.	비공식 면담
			2017.6.27.	비공식 면담
		I	2016.4.13.	비공식 면담
		J	2017.3.24.	비공식 면담

신문뿐만 아니라 전국 신문을 활용하여 과거부터 현재까지 한국 사회의 맥락에서 성매매 집결지에 대한 쟁점과 여론, 정책을 파악하였다. 연구 대상지를 이해하기 위해 수원시사 편찬위원회에서 발간한 『수원시사』(2014년)를 확인하였는데, 『수원시사 제1권 : 수원의 지리적 환경』과 『수원시사 제4권 : 수원의 정치 변동과 지방자치』, 『수원시사 제8권 : 수원의 민족운동과 사회운동』의 일부를 참고하였다.

2. 수원역 성매매 집결지의 형성과 변천

수원역 성매매 집결지는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1가 114-3번지 일대이다. 이 지역은 일 반상업지역으로 약 101개의 성매매 업소가 분포해 있고, 200여 명의 종사자가 있다고 파악된다.³⁾ 현장 관찰과 부동산 정보 사이트, 수원시 자료를 통해 확인하였을 때 이곳 업소 들은 대부분 20~30년 이상 된 1~3층 주거지 건축물이거나 무허가 건축물이었다.

수원역 집결지의 반경 1km 이내에는 민자역사(AK몰)인 수원역, 롯데백화점, 로데오



그림 3 수원역 성매매 집결지 위치



그림 4 수원역 성매매 집결지 범위와 내부

거리, 신설 버스환승센터, 고등주거환경정비사업, 수원여자고등학교 등이 분포해 있다(그림 3). 그 외에 인근 지역에는 팔달산, 화성행궁, 경기도청, 수원시청, 군공항(이전 예정) 등 다양한 시설이 있다.

수원역 앞을 지나는 6차선 도로인 덕영대로에서 덕영대로895번길, 일방통행로에 들어서면 성매매 집결지를 가로지르게 된다(그림 4). 일방통행로는 갯매산로 방향으로 이어진다. 지역 여성단체에서는 이곳 집결지의 길을 1라인과 2라인이라 편의상 구분하여 부르곤 하는데, 일방통행로를 기점으로 주변의 업소들을 1라인이라 부르고, 집결지 안쪽 골목길을 2라인으로 부른다.

수원역 성매매 집결지로 들어서는 일방통행로 양변(1라인)에는 다수의 유리방 형태의 성매매 업소와 슈퍼마켓과 편의점, 주차장, 약국, 애견숍, 식당 등으로 구성된다. 일방통행로에서 북서쪽(왼쪽) 골목길로 들어서면 한두 사람 정도 지나갈 수 있는 좁은 길(2라인)에 성매매 업소가 밀집해 있다. 일방통행로에서 동남쪽(오른쪽) 길에는 성매매 업소 외에도 여

그림 5 1976년 10월 11일 수원시외버스터미널 개장식(수원박물관 제공)





그림 6 1978년 시외버스터미널 주변에 생긴 무허가 술집(수원박물관 제공)

관, 모텔, 카바레, 유흥업소, 옷가게 등이 있으며, 수원역 로데오거리 상권과 맞닿아 있다.

덕영대로895번길 일방통행로 끝 지점과 갯매산로가 만나는 골목에는 과거 수원시의 버스터미널이었다. 시외버스터미널이 이전하고 복합쇼핑센터가 2006년에 건설되었지만 아직 준공심사 전이라 건물 주변에는 펜스가 설치되어 있고 무방비 상태로 놓여 있다. 또한 일방통행로의 끝 지점과 갯매산로에는 다문화 거리를 방불케 하는 중국어로 쓰인 간판이 걸려 있는 식당과 상점이 분포해 있고, 갯매산로에는 다문화경찰센터가 있다.

덕영대로에서 4차선 도로인 팔달로로 들어가는 방면 맞은편에는 고등동 주거환경정비사업이 진행 중이고, 집결지와 닿아 있는 곳에는 10층 내외의 호텔과 오피스텔이 있다. 호텔 바로 옆에는 성매매 집결지의 입구를 가리키는 ‘청소년통행금지구역’ 표시로 된 발이 쳐져 있다.

앞서 수원역 성매매 집결지의 현재 환경을 살펴보았다. 여기서 이 지역이 어떻게 형성되고 변화되었는지 돌이켜 보자. 이 지역은 과거 수원역과 수원시외버스터미널에 의해 발달되었다. 경부선과 협궤열차인 수인선·수려선이 수원역을 잇던 시절인 1960~1970년대 성매매 업소가 밀집된 집결지의 형태로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당시 경기도에서는 인



그림 7 1980년 시외버스터미널 앞으로 형성된 유흥가(수원박물관 제공)

구 증가로 다방이 생기고, 댄스 유행, 윤락여성 등을 도처에서 볼 수 있었고, 1967년 수원 매산동으로 경기도청이 이전해 오면서 도시 발달과 함께 다방과 음식점, 여관 등 향락업소도 급증하였다.⁴⁾

이 지역에 1976년 수원시외버스터미널이 개설되고 1985년까지 규모가 크게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당시 기차역과 버스터미널이 있어 이곳은 유동인구가 매우 많고, 교통체증도 심각한 곳이었다. 덕분에 주변 상가와 유흥업소, 성매매 집결지도 성황을 이루었다.

1980년대부터 이곳에서 상점을 운영 중인 지역상인 H와의 면담에서도 그 사실을 알 수 있었는데 “(시외버스터미널을) 정점으

경인일보

1985년 11월 8일

1976년 개설된 매산로1가 시외버스터미널이 규모는 당시 그대로이나 이용차량과 승객이 크게 늘었고 40개 노선 500여 대에 하루 1만 명으로 이용객이 크게 증가, 이를 수용하기에는 비좁은 실정



그림 8 1985년 시외버스터미널 앞(수원박물관 제공)



그림 9 1985년 시외버스터미널 성매매 지역(수원박물관 제공)

로 해서 바글바글했더니깐요. 칼국수, 족발집도 있었다.”고 증언하였다. 당시 수원시 외버스터미널이 있어서 활황이었고, 고등동 동네 주민들도 많아서 장사가 잘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1985년 수원시외버스터미널 이전에 관한 논의가 시작되었고 1997년 이전사업 계획이 수립되었다. 시외버스터미널을 이전하고 그 부지에 새로운 복합상업시설을 개발하고자 하였으나 2006년 완공된 후 사업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거대 건축물만 덩그러니 놓여 있게 되었다. 복합상업시설은 10여 년 동안 방치되고 있었다. 더불어 집결지 인근은 고등동주거환경정비사업으로 상권이 더욱 침체되기 시작하였다고 한다. 2004년 성매매방지법의 시행과 함께 이곳 집결지는 경찰의 단속 강화와 재개발사업의 논쟁으로 위축된 것으로 보인다.

지역상인 I 장사 잘 안 되고, 담배를 주로 판다.

지역상인 J 여기서 가게를 받아서 장사를 오랫동안 장사를 하였다. (시에서) 복합상업시설이 생길 때도 무엇으로 이용할지 의견을 묻고 갔었는데, 잘 전달이 안 된 거 같다. 설문조사하는 거라면 위에다가 전달을 잘 해 달라. 그런데 요즘에는 장사가 잘 안 돼서 아가씨들 외상을 해 주기 힘들다.

과거에 비해 수원역 성매매 집결지의 상권이 위축되었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변화하고



그림 10 2002년 시외버스터미널 이전 직전 성매매 집결지 전경



그림 11 덕영대로에서 덕영대로895번길로 진입하는 구간

있고, 개발 압력으로 지가(地價) 또한 낮지 않음을 알 수 있다. 필자가 면담한 지역상인에 따르면 이곳 지역민들은 수원역 AK백화점과 롯데백화점이 들어올 때도 상권 위축을 우려해 반대를 많이 하였다. 주변 지역의 재개발로 이곳도 평당 1,000만 원을 받는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 한편 수원역 성매매 집결지와 인근에는 외국인 노동자, 중국인의 유입으로 상가가 운영되고 있고, 성매매 종사자를 상대로 하는 먹자골목, 미용실, 잡화점, 옷가게, 산부인과가 있다. 여전히 성매매 업소들도 활발히 운영되고 있다.

지난해와 달리 2017년 수원역 성매매 집결지에는 정비사업 중인 청량리 집결지에서 이동해 온 성매매 업소가 있음을 발견하였다. 수원역 성매매 공간은 멀리서 보면 과거부터 그대로 멈춰 있는 것 같지만 가까이에서 살펴보면 환경적·제도적 변화에 따른 일상적 차이가 존재한다. 이렇듯 수원역 성매매 집결지는 수원시의 사회적 변화와 함께하며 그동안 자본의 변화와 축적 과정이 고스란히 드러나 있다.

3. 사회적 공간으로서 수원역 성매매 집결지

밤길에 여성 혼자 다니는 것은 위험하다는 사회적 인식이 존재하다. 심지어 여성이 밤길에 홀로 다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여긴다. 그러나 실제 통계적으로 여성은 가정폭력의 위험에 더욱 심각하게 노출되어 있으며, 대중매체에서는 공적공간에서 발생하는 범죄, 특히 성범죄를 강조함으로써 거리를 위험한 장소로 인식하도록 조장한다.⁵⁾ 이러한 낮과 밤이라는 시간적 요소뿐만 아니라 “누가 공간을 점유하고 통제하는가에 따라 여성들이 거리에서 두려움을 인지하는 것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⁶⁾ 여기서 수원역 성매매 집결지의 낮과 밤 풍경, 그리고 이 거리를 지나거나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주목하여 사회적 공간으로서의 특징을 파악한다.

1) 길거리 : 유리방, 청소년통행금지구역

이 지역의 일반통행로와 좁은 골목길 양옆에는 낮은 건물외관과 간판 없는 저층형의 상점이 여러 개 붙어 있다(그림 12, 그림 13). 깨끗하게 닦인 상점의 유리창 너머에는 붉은 불빛이 밝혀져 있고 높은 구두와 긴 바지 혹은 치마를 입고, 가슴을 내놓은 모습의 여



그림 12 수원역 집결지 밤 경관(2016년 4월 필자 촬영)



그림 13 수원역 집결지 낮 경관(2016년 4월 필자 촬영)



그림 14 청소년출입금지구역 표시(2016년 4월 필자 촬영)



그림 15 청소년통행금지구역 표시(2016년 4월 필자 촬영)

성들이 있다(그림 12). 수원역 집결지뿐만 아니라 대부분 성매매 집결지에서는 큰 유리창에 전신을 드러내는 유리방 매춘(window prostitution)으로 그 자체가 시각적 소비의 대상이 되고, 이러한 형태는 성매매의 글로벌 표준처럼 확산되어 성산업의 ‘맥도널드화’를 보여 준다.⁷⁾ 수원역 성매매 집결지도 여타 집결지들과 비슷하고 익숙한 풍경이다. 골목길에 있는 상점의 큰 유리창과 붉은 불빛만 보아도 성매매 공간을 연상할 수 있다.

수원역 성매매 집결지에 들어서는 길목 곳곳마다 ‘청소년출입금지구역’, ‘청소년통행금지구역’이라는 표시가 있다(그림 14, 그림 15). “통행금지시간 : 24시간 청소년유해지역으로 만 19세 미만 청소년의 통행을 금지합니다.”와 같은 경고의 문장이 적혀 있다. 1997년 제정된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수원역 성매매 집결지는 1999년 청소년통행금지구역으로 지정되었다.⁸⁾



그림 16 수원역 집결지의 진입 방향

기차를 이용하는 사람들로 복잡한 수원역을 지나오는 길, 두 번째는 음식점, 각종상점, 카바레, 모텔 등 밀집해 있는 수원역 로데오거리와 중국 음식점과 중국어로 적힌 간판이 있는 상점들을 지나오는 길, 세 번째는 수원여자고등학교에서 고등동주민센터 방향으로 고등동주거환경정비사업 구역을 지나서 오는 길이 있다. 각각 방향에서 성매매 집결지에 근접하면 그 이전의 길과 상반된 풍경을 살필 수 있다. 각종 상점에서 흘러나오는 음악 소리와 광고 전단지, 수많은 사람들로 매우 혼잡하고 소란스러운 반면에 여인숙과 모텔이 있는 골목길과 고등동주거환경정비사업 지구의 공사 현장, 준공승인을 받지 못한 복합상업시설 등의 방향에서 성매매 집결지로 근접하면 한산하고 조용하며 약간의 아늑함마저 느낄 수 있다.

골목길은 여러 가지 의미와 기능을 갖고 있다. 일차적인 기능은 통행이지만 그곳의 목적으로서 통행이 유일한 것은 아니며, 집과 세계를 잇는 매개공간으로 그곳의 기능은 놀이터, 휴식처, 문화공간, 학교, 물건을 사고파는 시장, 공연장, 수다와 소문의 무대, 심지어 동네 지킴이라는 숨은 기능도 갖고 있다.⁹⁾ 수원역 성매매 집결지에서도 골목길의 기능과 의미를 찾아볼 수 있다. 혼자서 진입하기 힘들었던 성매매 집결지의 좁은 골목길(2

이러한 표지판을 통해 이곳은 지나갈 수 없는 곳, 금지된 곳, 부정한 곳이라는 것을 보여 준다. 이렇듯 성매매 공간은 도시에서 경계 짓기 대상이 되는 공간이다. 만약 누군가 이 표시를 보고 ‘통행금지’라고 인식한다면 머뭇거리거나 발길을 내딛지 않을 것이다. 실제로 수원 로데오거리와 수원역에서 마주친 사람들은 성매매 집결지로 이어지는 길까지 잘 들어 서지 않는다. 특정한 이유 없이 이곳을 지나 가지 않는다. 누군가에게 이곳 성매매 집결지로 들어서는 길목은 막다른 길로써 돌아가야 하는 곳일 것이다.

수원역 성매매 집결지에 가기 위한 세 가지 방향의 길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그림 16>을 통해 보면 하나는 백화점과 전철 혹은

라인)을 지역상인 J를 따라 들어가 볼 수 있었다. J는 10여 년 동안 이곳에서 일하였기에 성매매 종사자들과도 친근하게 인사를 나누며 지나갔고, 종사자들에게 연구자를 특별히 언급하지 않았다. 만약 낮선 연구자가 좁은 골목길에 오래 머무르고 이것저것 질문을 하였다면 그들에게 불편함을 주었을 것이다. 좁은 골목길에는 한두 사람, 많게는 세 사람 정도 지나갈 수 있고 길 양 옆으로 업소들끼리 마주보고 있는 형태였다. 여성단체 활동가 F에 따르면 일반통행로에 있는 상점(1라인)에서 만난 종사자를 이곳 골목길(2라인)에서 다시 만날 수 있다고 한다. 업소 내에서 도주로를 확보하기 위해 연결된 길이 있다는 것이다.

이곳 성매매 공간은 누군가에게 집터, 일터, 놀이터 등의 의미로 여겨지는 곳이다. 매산동에서 집결지와 인근에는 고시원, 여인숙, 모텔, 아파트, 카바레, 약국, 음식점, 애견숍, 편의점, 주차장, 옷가게, 개인병원 등 주거와 상업 공간이 분포해 있다. 특히 종사자들 가운데 몇몇은 업소에서 생활한다고 한다(지역민 H와 여성단체 활동가 F). 성매매 공간에서 그들의 집터와 일터는 분리되기 어렵고, 사적영역과 공적영역이 교차되는 곳이다. 이렇듯 공적인 것과 사적인 것, 합법과 불법, 공식과 비공식 등의 경계를 넘나드는 공간이기도 하다.

2) 시선 : 시각 헤게모니

시선(視線)은 ‘눈이 가는 길 혹은 눈의 방향’을 의미하며 시각을 통해 인지할 수 있다. 시각은 서구의 근대에서 가장 중요한 감각 중 하나였다. 현재 일상생활에서도 시각은 매우 중요한 것으로 여겨지곤 한다. 새로운 지배방식이나 통치기술 및 자본축적 수단으로



그림 17 복합상업시설(구 수원시외버스터미널 터) 앞 경찰차 (2016년 5월 필자 촬영)



그림 18 고등동주거환경정비구역(2016년 5월 필자 촬영)

서 시각 체계모니를 활용하기 시작하였는데, 특히 “공간의 영역에서 시각 중심주의는 시선의 권력화 및 자본화”로 이어졌다.¹⁰⁾ 일반통행로와 복합상업시설 부근에는 〈그림 17〉과 같이 종종 경찰차 한 대가 대기해 있는 것을 목격할 수 있다. 수원역 성매매 집결지에 들어서는 길목에 세워 둔 경찰차는 이곳을 감시하고 단속한다는 일종의 경고이며, 그 길을 지나가거나 성매매를 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경계하게 만드는 요소이다.

현장 관찰 당시 인근 파출소에서 두 명의 경찰관이 순찰을 도는 모습을 몇 차례 발견하였다. 순찰을 도는 경찰 두 명은 일반통행로에까지 걸어 들어왔다. 경찰들은 외국인 남자들이 불법체류자(미등록체류자)¹¹⁾가 아닌지 확인을 위해 외국인 등록증을 검사한다. 여성단체 활동가들과 인터뷰에서도 경찰이 단순히 순찰만 한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여성단체 활동가 G 실제로 나갔을 때 경찰을 본 적 없다. 불법체류자(미등록체류자)만 검사하고, 단속은 나가는 하는 거 같은데. 그렇게 열심히 열심하는 거 같진 않다. 서부경찰서가 관할인데, (이곳 집결지가) 항상 존재하던 곳이라서 단속만하고 잡으려고 하기 보다는 보여 주기 위한 단속이 이뤄지고 있다. 복합상업시설 근처에 경찰차가 한 대 대기하고 있기는 하다. '경고'라고 서 있으면 왠지 외압적으로 보이기도 하고,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도 안 들어갈 수도 있겠쥬. 그런데 최근에는 본 적이 없어요. 중국인 거리와 수원역 방면으로 기동경찰서가 돌고, 집결지를 도는 경찰은 경기청이니까, 집결지 단속을 하려 하지는 않고 불법체류 관련해서 돌아다니고 있는 거 같아요.

경찰 E 지금은 수원서부경찰서 관할인데, 팔달경찰서가 생기면 여기는 팔달구 소관이 될 거예요. 순찰근무 중이다. 단속근무도 병행하고, 주말 같은 경우 여기 외국인들의 집적지이다 보니까, 범죄예방하고 위반 사항 있으면 단속도 한다. 여기가 지금 저희가 다 알고 있기 때문이다. 경찰서에서 생활 질서계에서 따로 단속을 한다. 경찰서에서 하는 사업부서이고, 집결지에 대해 저희보다도 더 자세히 알고자 하면, 지구대원이나 관리반 요원이 따로 있다. 저희는 순찰요원이다. 아무래도 취약지역이다 보니까 (범죄가) 나긴 난다.

지역상인 H 여긴 일반 주택가와 집결지 동네는 달라요, 주택가는 9시 이후면 깜깜하지만, 여기는 새벽에도 (영업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밝쥬.

순찰하는 경찰관 두 명 중 한 명인 E와의 비공식적 면담을 하였다. 범죄예방을 하고

위반 사항이 있으면 단속을 한다고 한다. 경찰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성매매에 대한 단속보다 감시와 관리 혹은 보호가 이뤄지고 있다. 지역민 H에 따르면 살인사건이 발생하긴 하지만 경찰들이 2~3시간마다 순찰을 다니고 싸움이 일어나면 금방 달려와서 치안에 큰 문제가 없다고 한다. H는 이곳에서 30여 년간 장사를 해 왔기에 익숙한 곳이며 안전한 장소로 여기고 있다. 취약지역이지만 비호 아래에 비교적 안전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H의 상점에는 여타 방법장치는 없고 단지 영업이 끝나면 알루미늄 셔터가 쳐져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H는 이 거리에서 낯선 시선을 받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곳에서 연구자는 노트북을 들고 학생처럼 다녀서 단조롭고 무채색처럼 보였겠지만 이질적인 사람이라 눈에 띄고 그곳과 어울리지 않는 사람으로 여겨졌을 것이다. 실제로 지역상인 J는 “조사하러 나왔느냐?”고 하며 연구자에게 물었다. 여성단체 활동가 G는 아웃리치를 나가면서 집결지 내에서 지나가는 남성들로부터 받은 시선과 활동가 G의 시선을 연구자에게 말해 주었다. G씨는 여성의 몸이 하나의 상품이 되어 소비되는 현상인 몸의 물신화(reification)를 비판하였다.

여성단체 활동가 G 아웃리치를 돌면 구매자들이 우리들을 본다. 나이가 많거나 적은, 우릴 그러한 시선으로 바라보는 거 같다. 거기 앉아있는 언니들(여성 종사자)의 눈빛을 보면 여러 가지 생각이 든다. 그 공간에서 돈을 받아서 성행위 하는 자체가 몸이 상품화되는 것이다.

3) 이동하는 사람들

거시적 환경 변화의 맥락에서 수원시 인구 규모의 증가와 유동인구의 증가로 대도시의 특성 중 하나인 익명성이 증대된 흔적을 찾아 볼 수 있다. 특히 경기도에서 안산시 다음으로 외국인수가 많아 인구의 다양성과 이질성이 증가된 초국가적 도시(transnational city) 특성의 면모를 보인다. 한편 청량리 588 연구¹²⁾에서와 달리 이곳 성매매 업소의 주요 구매자는 내국인이거나 외국인이 더 많은 것을 발견하였다. 현장 관찰하며 파악한 결과 이주노동자들을 주축으로 상권의 활기를 띠며 유지되고 있다. 수원시 주변 공업단지의 남성 이주노동자들이 주요 성구매자이며, 수원역 성매매 집결지는 그들에게 공식적으로 잘 알려진 곳이었다. 관련 수원시 의원과의 면담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남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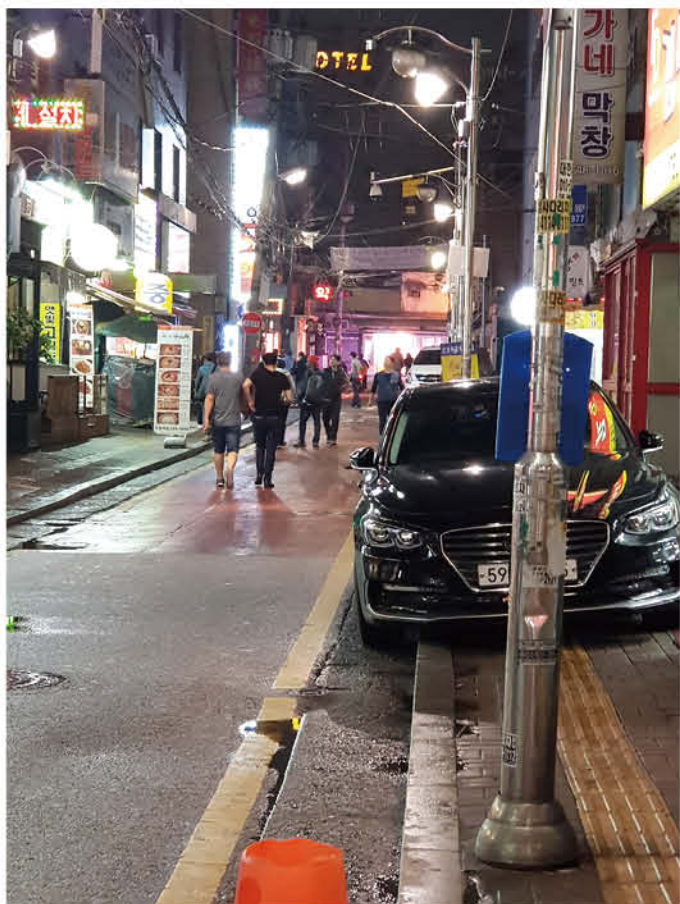


그림 19 수원역 성매매 집결지 주변(2018년)

이주노동자들에게 잘 알려진 곳인 만큼 수원역 집결지는 성매매의 메카로 알려지고 있었다.

시의원 D 평택, 안산, 화성 등 경기 남부 지역에 외국인들의 일자리가 많다. 평택 앞에도 (성매매 집결지가) 있는데, 그들(남성 이주노동자)끼리 한국에 가면 여기에(수원역 앞) 꼭 가보라고 말한다.

성매매 업소들이 조밀하게 모여 있는 뒷골목에는 비교적 젊은 남성 이주노동자들이 많이 지나다녔다. 그들의 생김새와 언어를 통해 이주노동자임을 파악할 수 있었다. 그들은 개인보다는 주로 삼삼오오 여럿이 무리지어 다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일방통행대로에 있는 업소보다 안쪽 골목(2라인)으로 들어갔다. 골목 앞에 나오는 사람들에게 구걸하는 할아버지도 있었다. 그들이 주변 현금자동입출금기(AT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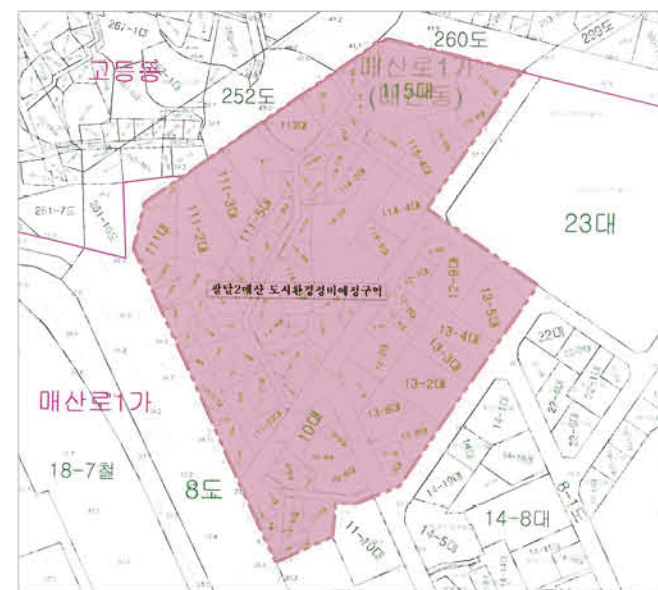
를 이용해 현금을 인출하는 장면을 심심치 않게 목격하였다. 이곳 성매매 집결지는 카드가 아닌 현금이 흐르고 있었다. 더욱이 택시를 통해 성매매 업소를 이용하는 장면도 있었다. 다음과 같이 2010년 10월 4일자 『수원일보』 기사의 일부를 발췌하였다.¹³⁾

이처럼 택시기사들이 안산 등 인근 지자체의 외국인 노동자들을 수원역 성매매집결지로 실어주면서 이득을 취하는 택시영업이 극성을 부리고 있다. 특히 이들은 업소로부터 일정 부분의 '리베이트'를 받고, 해당 업소로 성구매 외국인 노동자를 소개하는 것으로 알려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주노동자, 걸인, 택시, 현금 등 수원역 성매매 집결지의 현장은 꽤 동태적이다. 이곳의 흐름은 경제적 유인과도 밀접하게 연관된다. 특히 이주노동자들은 이곳에서 성을 구매하고, 지역 상원을 이용하고, 수원과 안산 등의 지역 간 경계를 지날 뿐 아니라, 한국과 자국을 가로지르는 다층적인 의미를 내포한다. 성을 매개로 한 연결점을 갖고 공식/비공식 경계를 넘나들며 부유하고 있다.¹⁴⁾ 여기서 부유하는 현상은 사람과 자본 등이 경계를 넘어 흐르고, 새로운 관계들이 탄생하는 것을 말한다.

4. 수원역 집결지 폐쇄를 둘러싼 사회적 갈등

한국 사회에서 성매매는 묵인과 관리로 용인되었으나 최근 성매매 집결지 폐쇄에 관한 논쟁이 진행되면서 도시계획을 매개로 정책 영역에서 공론화되고 있다. 그리고 언론에서는 집결지를 '도심 속 홍물'¹⁵⁾로 여기며, 수원역 세권 개발의 필요성을 보도하고 있다.¹⁶⁾ 이와 같이 지역 언론에서 수원역 성매매 집결지는 사회적·정치적 쟁점으로 다시 주목



도시환경정비예정구역(성매매 집결지)

받게 되었다. 실제 수원역 성매매 집결지의 정비 사항은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포함하기로 계획되었으나,¹⁷⁾ 신속한 정비사업의 추진을 위해 '202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서 성매매 집결지 일대를 정비하는 내용으로(수원시 고시 제2017-123호, 2017) 변경되었다. 이 절에서는 재개발사업이라는 도시계획 수단을 통해 성매매 공간을 변형시키는 과정에서 나타난 행위자의 입장 차이와 그들의 갈등관계에 주목한다.



그림 20 성매매 집결지 내 현수막(2017년 6월 필자 촬영)

를 타게 되는 과정을 겪고 있다. 시 정부는 ‘여성’, ‘안전’, ‘원도심 재생’, ‘역세권 개발’, ‘공익·공공성’, ‘시민참여 계획’ 등의 담론을 토대로 도시 관리 측면에서 성매매 공간을 없애야 할 목표를 갖고 있다. 그에 반해 주류 여성주의에서는 ‘여성 인권’, ‘성매매 비범죄화’를 주장하며 인권적 차원에서 이를 접근한다. 여성 인권 향상과 성매매 근절이라는 여성주의 담론과 도시재생 및 시민 참여 계획이라는 도시계획 담론이 맞물리면서 성매매 집결지 폐쇄의 당위성을 만들어 가고 있다. 수원역 성매매 공간에는 원도심의 재활성화와 역세권 개발사업 등의 잠재적 개발 이익과 지자체장의 권한이 비교적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더불어 지역 언론도 시 정부와 같은 논리로 여론을 형성하여 성매매 집결지 폐쇄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를 형성하는 데 일조한다. 그러므로 진보적 여성주의가 기업가

일반적으로 주거·상업지역에 대한 도시 환경정비사업 등의 도시재개발에서 나타난 갈등과 성매매 공간을 둘러싼 갈등은 다소 차이가 있다. 재개발 사업에서는 익히 잘 알려진 대로 토지 및 건물 소유주로 재개발에 동의하는 추진위원회·조합, 세입자나 재개발에 반대하는 비상대책위원회, 시행사·건설사, 지자체 등의 주체들에 의한 갈등 양상이 드러난다. 한편 성매매 집결지 폐쇄 논쟁에서는 새로운 이해관계자들이 등장한다. 지역적 차원에서 성매매 방지 거버넌스라는 다층적 이해관계를 가진 집단이 나타난다. 이 거버넌스는 지방정부와 여성단체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며, 성매매 공간에 대한 정책적 의사결정 과정에서 보다 협력적 계획의 모습을 취하고 있다.

지방정부와 여성단체 간 근본적인 시각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표면적으로 성매매 집결지 정비사업에 동의하면서 한 배

적 지방정부의 입장을 강화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는 역설적인 상황에 놓여 있기에 수원시 성매매 방지 거버넌스는 동적이고 불안정한 특성을 지닌다.

이 지역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사람들 간의 관계뿐만 아니라, 이 지역에서 실질적으로 생활하고 이를 지키고자 하는 사람들과의 관계도 중요하다. 이는 바로, 수원시 성매매 방지 거버넌스와 성매매 종사자의 지난한 갈등관계이다. 성매매 종사자들은 현수막과 집회, 온라인상에서 저항과 갈등을 표출하고, 성노동자로서 정체성을 드러내고 있다. 더욱이 지역민으로서 재개발 방식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을 표하고 있다. 그들의 저항은 성매매 집결지 폐쇄를 둘러싼 정치적 과정에 주요한 행위자임에도 불구하고, 소모적인 논란 거리로만 치부된다. 그리고 지역 여성단체는 여성주의 입장을 취하면서도 성매매 종사자들과 대립할 수밖에 없는 모순된 상황에 놓여 있다.

이러한 필자의 연구는 성매매 공간을 둘러싼 정치적 과정에 초점을 두었다. 여기서 성매매 공간은 성 거래가 이뤄지는 곳이면서도 다양한 이해관계가 충돌하고, 협의 혹은 협상하기도 한다. 특히 지방정부를 주도로 성매매 공간의 변형을 위한 의사결정 과정이 이뤄지고, 이에 따라 공간의 형태와 정체성이 새롭게 재구성된다. 다만, 여기서 성매매 공간에 대한 접근방식과 의사결정 구조를 한 번 더 고민해 볼 것을 제안한다.

참고자료

김백영, 『근대 식민도시 수원의 형성과 성격』, 『수원시사 제2권 : 도시공간과 도시구조』, 수원시사편찬위원회, 2014.

박정미, 「식민지 성매매제도의 단절과 연속」, 『페미니즘 연구』 11(2), 2011, 199~238쪽.

서우석 외, 「도시 성매매 공간의 사회적 생산과 구성」, 『서울도시연구』, 17(3), 2016 117~142쪽.

송연옥, 「대한 제국기의 〈가생단속령〉〈창기단속령〉 - 일제 식민화와 공창제 도입의 준비과정」, 『韓國史論』 40, 1998.

수원시, 『2020 수원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2012.

수원시, 『2030 수원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2014.

수원시, 『수원역 성매매집결지 폐쇄 추진 보고서』, 2015.

수원시의회, 『수원시 성매매집결지 정비사업에 따른 성매매 피해여성 자활지원 방안 연구』, 2016.

양해림, 「푸코의 남성주체에 관한 몸과 성의 담론」, 『범한철학』 31, 2003, 149~177쪽.

이동근, 「수원의 3·1운동 전개와 성격」, 『수원시사 제8권 수원의 민족운동과 사회운동』, 수원시사편찬위원회, 2014.

전상인, 『공간으로 세상읽기-잡·타·길의 인문사회학』, 서울: 세창출판사, 2017.

청소년보호위원회, 『청소년통행금지구역 실태조사 결과보고』, 2001.

청소년위원회, 『청소년통행금지구역 실태조사 결과보고』, 2005.

최희진, 「수원역 성매매 집결지 폐쇄를 둘러싼 주요 행위자의 사회적 관계 분석 : 젠더 거버넌스 관점에서」, 서울대학교 도시계획학 석사학위논문, 2017.

최희진, 「수원역 성매매 집결지 폐쇄를 둘러싼 행위자 간 갈등과 협력」, 『공간과사회』, 28(1), 2018, 227~266쪽.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성매매특별법 10주년 성과와 과제』, 한국여성인권진흥원, 2014.

홍성철, 『유곽의 역사』, 서울: 페이퍼로드, 2007.

힐리, 팻치(Healey, Patsy), 『협력적 계획』, 권원웅·서순탁 옮김, 파주: 한울아카데미, 2004(Collaborative Planning, London: Palgrave, 1997).

밸런타인, 질(Valentine, Gill), 『공간에 비친 사회, 사회를 읽는 공간』, 박경환 옮김, 파주: 한울아카데미, 2014(Social geographies: space and society, Essex: Pearson, 2001).

벤카테시, 수디르(Venkatesh, Sudhir), 『플로팅 시티』, 문희경 옮김, 서울: 어크로, 2014(Floating city: a rogue sociologist lost and found in New York's underground economy, London: Penguin Press, 2013).

- 1) 이 글은 필자의 「수원역 성매매 집결지 폐쇄를 둘러싼 주요 행위자의 사회적 관계 분석 : 젠더 거버넌스 관점에서」(서울대학교 도시계획학 석사학위논문, 2017)과 「수원역 성매매 집결지 폐쇄를 둘러싼 행위자 간 갈등과 협력」(『공간과사회』 28(1), 2018)을 수정 및 보완한 것입니다.
- 2)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성매매특별법 10주년 성과와 과제』, 한국여성인권진흥원, 2014
- 3) 수원시, 『수원역 성매매집결지 폐쇄 추진 보고서』, 2015.
- 4) 홍성철, 『유곽의 역사』, 서울: 페이퍼로드, 2007.
- 5) 밸런타인, 질(Valentine, Gill), 『공간에 비친 사회, 사회를 읽는 공간』, 박경환 옮김, 파주: 한울아카데미, 2014(Social geographies: space and society, Essex: Pearson, 2001).
- 6) 밸런타인, 질(Valentine, Gill), 『공간에 비친 사회, 사회를 읽는 공간』, 박경환 옮김, 파주: 한울아카데미, 2014(Social geographies: space and society, Essex: Pearson, 2001).
- 7) 서우석 외, 「도시 성매매 공간의 사회적 생산과 구성」, 『서울도시연구』, 17(3), 2016 117~142쪽.
- 8) 「수원 고등동등 7곳 '청소년 통행금지' 경기도 7월 1일부터」, 『동아일보』, 1999년 3월 6일[검색일 : 2016년 4월 10일]
- 9) 전상인, 『공간으로 세상읽기-잡·타·길의 인문사회학』, 서울: 세창출판사, 2017.
- 10) 전상인, 『공간으로 세상읽기-잡·타·길의 인문사회학』, 서울: 세창출판사, 2017.
- 11) 이 연구는 불법체류자로 불리는 용어를 미등록체류자로 칭한다.
- 12) 서우석 외, 「도시 성매매 공간의 사회적 생산과 구성」, 『서울도시연구』, 17(3), 2016 117~142쪽.
- 13) 이정하, 「수원역 집창촌앞 수상한 택시」, 『수원일보』, 2010년 10월 4일(<http://www.suwon.com/news/articleView.html?idxno=58161> [검색일: 2016년 4월 10일])
- 14) 벤카테시(2014)는 뉴욕의 지하경제 연구를 통해 상류층과 하층민의 보이지 않는 실로 묶여있는 관계를 파악하였다.
- 15) 「도심 흉물 된 수원역 앞 집창촌... 정비사업 2년째 표류」, 『연합뉴스』, 2016년 10월 28일 (<https://www.youtube.com/watch?v=ZwbFQUg8sc0>)[검색일 : 2017년 4월 10일]
- 16) 이정하, 「구호뿐인 '성매매집결지 정비」, 『수원일보』, 2010년 7월 21일(<http://www.suwon.com/news/articleView.html?idxno=55257>)[검색일 : 2016년 5월 10일].
- 17) 수원시 내부자료, 2016.
- 18) 양해림, 「푸코의 남성주체에 관한 몸과 성의 담론」, 『범한철학』 31, 2003, 149~177쪽.



이정수 아주대학교 사회학과 박사과정

윤정인 아주대학교 사회학과 석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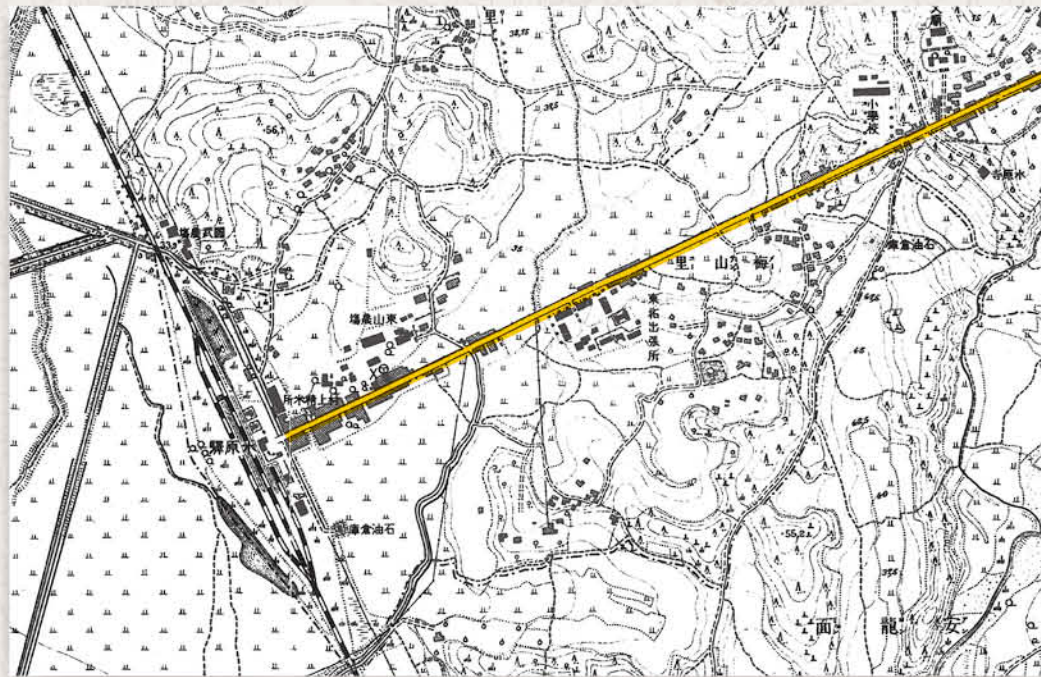
제4장

수원역 로데오거리의 소비문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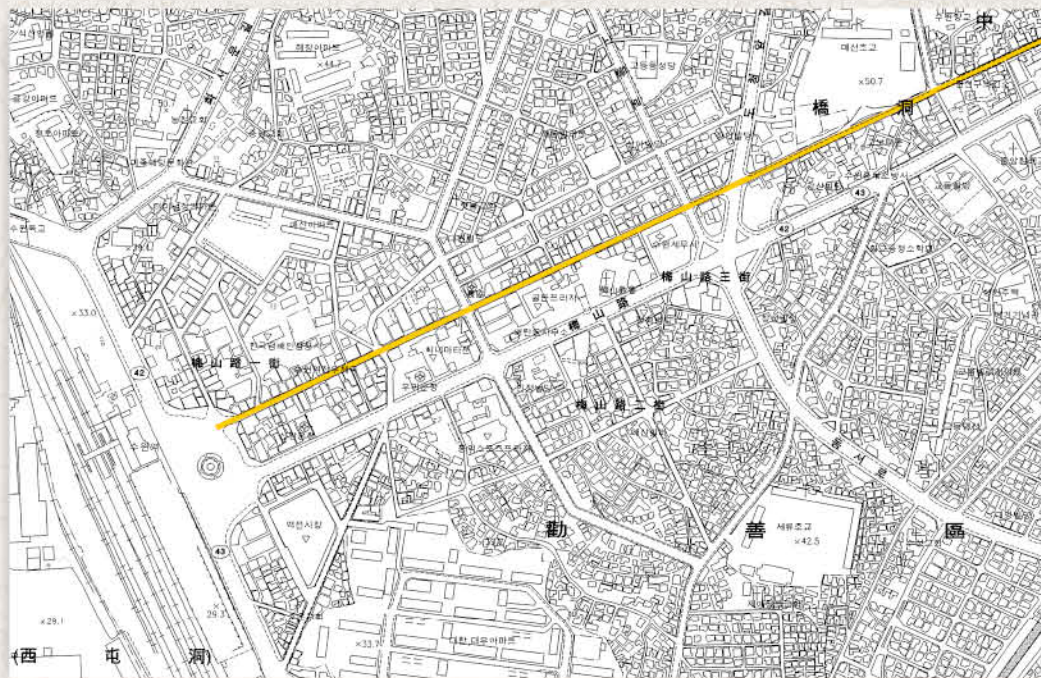
1. 수원역 로데오거리로 들어서기

수원에서 가장 거대한 교통 플랫폼인 수원역에는 1호선과 분당선 그리고 수원역지하도상으로 통하는 13곳의 출구가 있다. 이들 출구 중 수원역지하도상가 11번 출구로 올라오면 수많은 간판들로 빈틈없이 메워진 거리가 펼쳐진다. 이 거리의 절반가량은 각종 주점과 음식점, 카페의 몫이며 그 외에 오락실과 노래방 같은 오락 거리들, 화장품과 의류, 액세서리 잡화가게 등 다양한 길거리 매장들이 빼곡하다. 그리고 빼곡하게 들어찬 점포의 수보다 더 많은 간판들이 거리 양 옆으로 늘어선 건물들의 외관을 메워 버린다. 각자 자신을 보다 더 효과적으로 드러내기 위해 각양각색으로 디자인한 간판들과 수백 개의 매장, 반듯한 화강석으로 포장된 노상 위를 거니는 군중들이 어우러져 이 거리의 경관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다.

이 거리를 제법 채운 인파는 낮과 밤을 가리지 않는다. 빼곡한 점포들과 커다란 간판들, 흘러가는 인파로 채워진 이 거리의 북적북적한 분위기는 400m 정도를 지나 갓매산로와 접하는 교차로를 건너가면서부터 조금씩 사그라지기 시작한다. 점차 낮은 간판을 달고 있는 주점이나 식당이 나타나고 세무사사무소가 밀집한 건물이 눈에 들어올 즈음이면 인파는 이미 자취를 감춘다. 그렇게 이 거리는 끝이 난다. 수원역지하도상가 11번 출



1910년대 향교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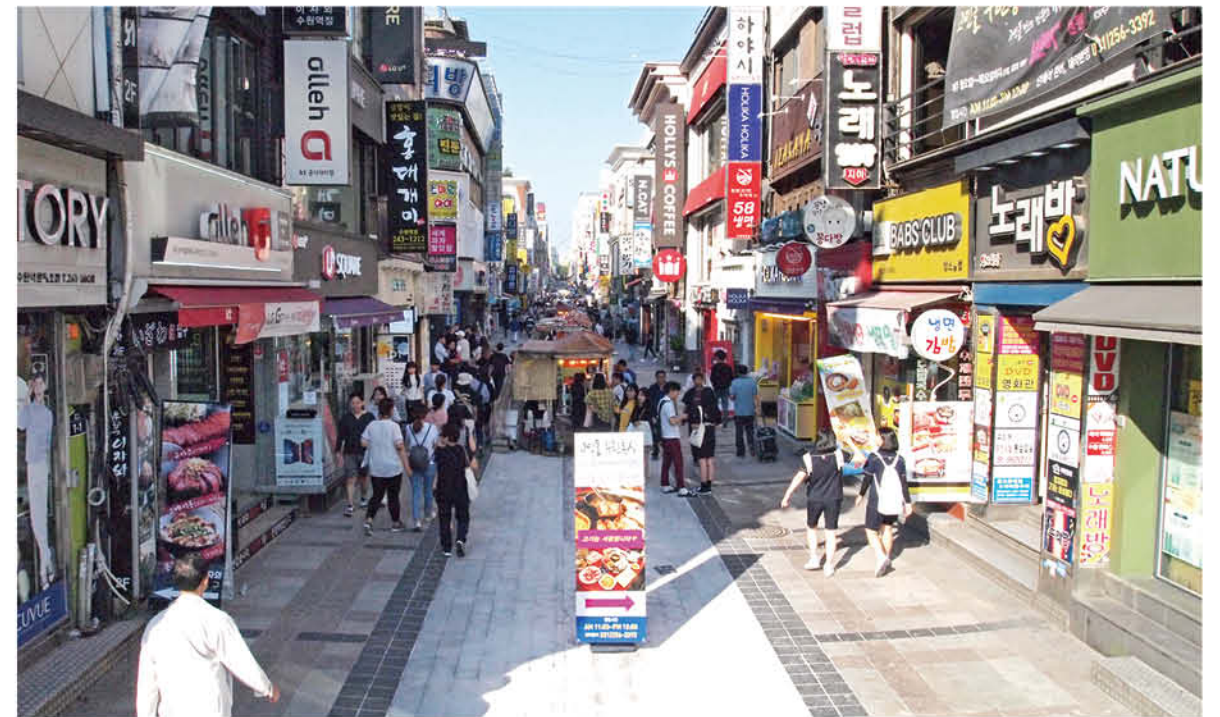
2000년대 로데오거리



1920년대 향교로(조선총독부, 『생활상태조사-수원군』, 1929)
오른쪽 건물이 식산은행으로 현재는 농협이 자리하고 있다.



1971년 향교로(수원상공회의소 제공)
왼쪽 건물은 수원상공회의소로 현재는 농협이 자리하고 있다.



수원역 11번 출구 쪽 로데오거리 풍경

구에서 수원세무서까지 600m가량 일직선으로 쭉 뻗은 이 거리를 사람들은 ‘수원역 로데오거리’라 부르고 있다.¹⁾

이 거리를 포함하여 매산동 일대는 오랜 세월 논밭이거나 개간되지 않은 황무지였다. 1905년 경부선 개통과 더불어 이루어진 수원역의 개통은 이 지역 일대를 근대적 경관으로 탈바꿈시키는 결정적인 사건이었다. 현재 수원역 로데오거리라 명명된 향교로는 당시 수원역에서 수원 화성으로 이동하는 주요 도로로 기능하였을 뿐 아니라, 상공회의소와 금융조합 등 당시 최첨단 기업들이 밀집한 경제 중심지였다. 또한 일제강점기 수원역 앞에서 중동사거리 일대까지는 일본인이 대거 정착한 지역으로 개발되었다. 정조 재임 시기 이래 수원의 중심지였던 수원 화성 외에 새로운 수원의 중심지가 형성된 것이다. 1930년대에 건설된 현 매산로가 1950년대에 4차선 도로로 확장되었으며 1956년에는 현 가족여성회관 본관에 수원시청사가 자리하였다. 195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 남문 밖에서 수원역으로 이어지는 매산로와 향교로 라인은 수원의 정치·경제 중심지 역할을 수행하며 전성기를 누려 왔다.



수원세무서 쪽 로데오거리의 풍경

하지만 수원으로의 인구 유입이 계속되어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수원역 일대의 중심지적 지위는 흔들리게 된다. 증가한 도시 인구만큼이나 늘어난 행정과 상업 등의 수요를 전부 이 일대에서 감당하기에는 공간적 한계가 명확했기 때문이다. 신시가지가 필요하였다. 팽창을 거듭하던 수원시는 도시의 새로운 중심지를 개발하기에 이른다. 1987년에 수원시청사가 인계동으로 이전한 것을 시작으로 수원의 행정시설, 금융기

관, 백화점, 언론사 등이 새로 개발된 인계동 일대에 자리하면서 수원의 중심지는 또 한번 변동하게 되었고²⁾ 현재의 수원역 로데오거리는 거대하지만 단순한 소비위락지역으로 그 위상이 하락하였다.

점차 낙후된 구도심 상권이 되어 가던 수원역 앞 상권을 변화시키기 위한 움직임이 2000년대 들어 일어났다. 관이 전통시장을 정책 대상으로 포착하여 시설 현대화사업 등을 추진하기 시작한 것이다. 수원역 로데오거리 역시 2002년부터 이 거리의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매산로테마거리 조성사업'이 진행되었다. 2005년부터 수원역 11번 출구 앞에서 갓매산로와 접하는 교차로까지 약 400m 거리에 차량 진입을 통제하여 차 없는 거리로 운영하였고 거리를 도보에 용이한 화강석 블록으로 새로 포장하였다. 또한 밤이면 수원역 11번 출구에서 12번 출구까지 즐비하게 늘어선 포장마차를 정리하고 그 자리에 작은 무대를 설치하는 등 일련의 환경개선사업이 진행되었다. 이 일련의 과정에는 '매산로테마거리상가상인회'가 사업 주체로 결합하였다. 이 거리는 2007년에 '매산로테마거리상점가'라는 명칭을 가진 전통시장으로 정식 등록되었으며, 2018년에는 '수원시 매산동 일원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대상지 중 일부로 선정되어 현재까지 정책적 관심 대상이 되고 있다.

'수원역 로데오거리'의 공식적인 이름은 '매산로테마거리상점가'이지만 이 거리명을 사용하는 사람은 드물다. 2002년 '매산로테마거리 조성사업' 이전에는 '먹자골목'으로 불



2014년 수원역 로데오거리(수원시 포토뱅크 제공)



LA 로데오 드라이브의 풍경(네이버지도 거리뷰)



압구정 로데오거리의 풍경(네이버지도 거리뷰)

장 등이 집단적으로 들어선 거리를 이르는 관용적 표현으로 쓰이고 있다. 세계적인 패션 거리로 유명한 미국 LA 비버리힐즈 ‘로데오 드라이브’는 할리우드 스타들이 출몰하는 공간이다. 1990년대 초 서울 압구정 로데오거리는 ‘오렌지족’이라 불리던 강남 부유층 젊은 이들의 공간이었다. 그렇다면 현재 수원역 로데오거리를 ‘로데오거리’라 부르며 이 거리를 활보하는 소비자들은 누구인가. 이들이 수원역 로데오거리를 소비하며 충족하는 욕망은 무엇일까.

렸던 이 거리를 사람들은 현재 ‘로데오거리’라 부르고 있다. 그 명칭만으로는 어떤 테마인지 알 수 없어 막연한 ‘매산 로데오거리’ 대신 거리에 젊은 사람들이 많다는 이유로 ‘로데오거리’라 부른 것인지, 남문 로데오시장의 이름을 가져와 이 거리에서도 같이 쓰기 시작한 것인지 ‘수원역 로데오거리’라는 명칭의 기원은 명확치 않다.

다만 현재 다수의 사람들이 이 거리를 ‘로데오거리’라 부르고 있다는 점이 중요하다. 지명은 단순히 언어적 문제가 아니라 특정 경관의 상징성에 대한 통제와 경합을 드러내는 사회적 문제³⁾이기 때문이다. 소비자 다수가 이 거리를 로데오거리라 호명할 때 이 거리는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 ‘로데오거리’라는 지명은 과거 젊은이들에게 인기를 끌던 로데오 경기장 주변에 이들을 겨냥한 상설 할인매장이 등장하여 형성된 소비경관을 이르던 것이 그 시초로 알려져 있다. 현재는 젊은 소비층의 쇼핑 거리, 특히 패션과 관련한 의류 매

2. 수원역 로데오거리의 소비 스타일

1) 수원역 로데오 거리에 흐르는 인파

수원역 로데오거리를 거니는 사람들을 연령대로 특정화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청년 세대의 비중이 단연 높는데, 특히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청소년 혹은 성년기 초기의 젊은이들이 다수이다. 30대도 많지 않거니와 그 이상의 연령대는 드물다. 이는 AK플라자, 역전지하도상가, 역전시장, 매산시장, 중국인 동포거리 등 수원역 상권을 이루는 다른 구역들과 비교했을 때 더욱 극적으로 비교가 되는 특징이다. 특히 오후 시간에서 저녁 시간대에는 교복을 입은 청소년들이 눈에 띈다. 이 거리를 소비하는 20대들과의 인터뷰에 따르면 이들은 초등학교 혹은 중학생 시기부터 자연스럽게 수원역 로데오 거리에 대해 듣고 접하게 되었다고 한다.

남성 A 수원에 사는 10대들이 처음 문화생활을 접하는 곳이 수원역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여기 와서 영화도 보고 맛있는 것도 먹고 로데오거리 구경하고 …….

여성 A 저는 한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수원역 가서 놀았어요. 처음에는 친구들이 같이 가자고 해서 가게 되었는데, 노래방을 많이 갔어요. 그리고 그냥 길거리 돌아다니고 옷 구경하고, 저렴한 카페 같은 데 가서 뭐 빙수 같은 거 먹으면서 수다 떨고, 팬시샵이라고 하나? 아기자기한 액세서리 팔고 그런 가게들이 있는데, 그런데도 많이 갔어요. 연예인 배지나 부채 같은 것도 많이 사고 친구들끼리 스티커 사진을 많이 찍었던 것 같아요.

수원역 로데오거리는 인근 지역 청소년들이 포래들과 함께 소비적 여가문화를 경험하고 공유하는 수원의 주요한 소비경관이다. 로데오거리에는 이들을 위해 노래방, 카페, 음식점, 화장품 매장, 패션잡화매장, 팬시점 등 다양한 여가 소비상품이 준비되어 있다. 이 거리에서 포래와 함께 행하는 기본적인 소비 행위는 먹고 마시며 대화하는 것이다. 여기에 남성 포래 간의 여가활동에는 PC방, 당구장 등에서의 오락 행위가 추가되기도 하고 여성 포래 간의 여가활동에는 여러 패션 혹은 팬시상품을 쇼핑하는 것이 특징적이라고 할 수 있다. 젊은이들이 수원역에서 데이트를 하는 경우에도 이와 유사한 소비행위들이 연속



수원역 로데오거리의 패션, 액세서리 및 잡화 점포



저녁 8시경 버스정류장에서 바라본 수원역 로데오거리 입구

적으로 이루어진다. 수원역 AK플라자에 입점한 멀티플렉스에서 영화를 관람한 이후 수원역지하도상가를 통해 로데오거리로 이동하여 식사를 하거나 세련된 인테리어의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고, 노래방에서 노래를 부르거나 사진을 찍고, 여타의 패션 상품을 쇼핑한다. 이는 수원역을 향유하는 청소년들의 일반적인 여가·소비문화 패턴이다. 이들이 성인이 되면 이러한 일반적인 여가·소비문화 패턴에 음주라는 강력한 여가활동이 더해진다.

남성 B 집에 가야 하는 밤 시간 때쯤 버스정류장에서 로데오거리를 보면 길이 쪽 보이잖아요. 술 마시고 왁자지껄한 풍경을 한 눈에 보죠. '이제 나도 20살 되면 저기서 놀겠구나!' 생각을 하죠. 그러다 20살이 되면 자연스럽게 여기서 음주를 하며 놀게 되는 것 같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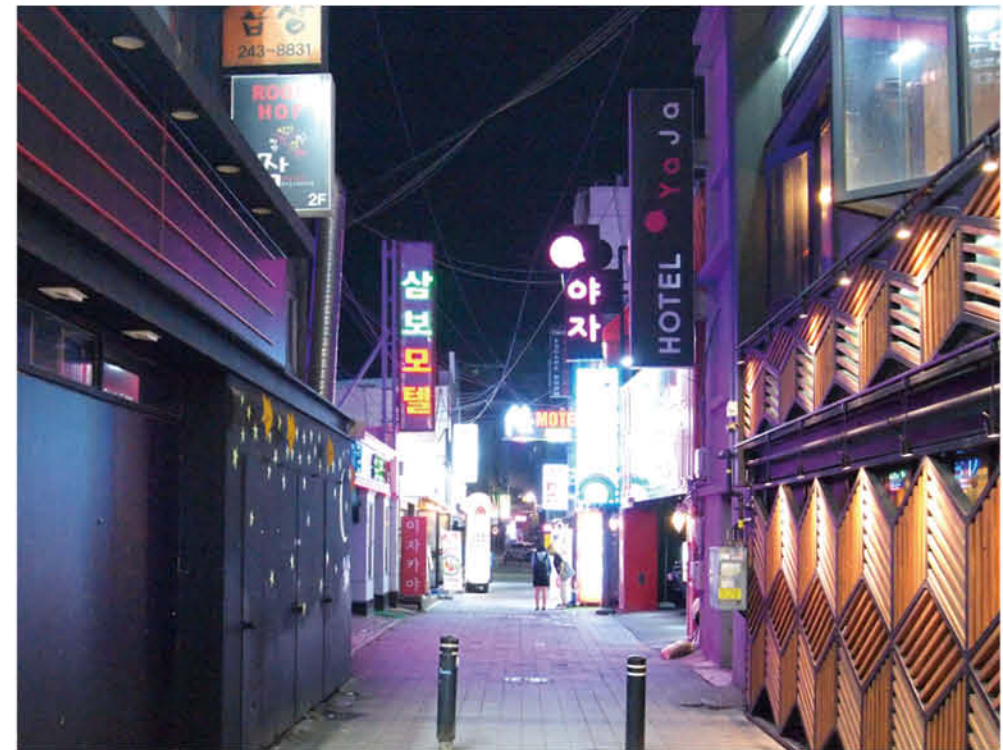
남성 A 놀 때는 자기가 놀러 나왔다는 걸 느끼고 싶잖아요. 술 먹는 자리는 북적북적한 게 재미도 있고 기분이 나죠.



수원역 로데오거리의 즉석 만남 공간

이 거리를 거니는 사람들의 연령대를 특정화하는 것이 어렵지 않은 것처럼 이 거리의 밤을 채우는 활동이 무엇인지 파악하는 것도 어렵지 않다. 젊은이들은 로데오거리에서 그저 그런 동네 주점보다는 더 화려한 인테리어의 술집들과 비슷한 연령대의 사람들이 밀집하여 빛어내는 분위기에 취한다. 수원역 로데오거리에는 평소보다는 조금 더 거창한 식사를 하고 2차와 3차 술자리를 이어 가기에 용이할 만큼 많은 음식점과 술집들이 밀집하여 있다. 그렇게 시끌벅적 취한 채로 여흥을 즐길 수 있는 노래방, 전자게임장, 야구연습장 등과 같은 오락장이 준비되어 있다.

한편 수원역 로데오거리의 주점 중에는 ‘감성주점’이라고 불리는 곳이 있다. ‘감성주점’에는 처음 만난 이성에게 합석을 제안하여 새로운 만남을 이루는 ‘합석문화’가 있다. 겉으로 보기에 술과 음식, 음악과 인테리어가 빛어내는 장소의 분위기를 소비하는 일반적인 유흥 공간처럼 보이지만 보다 더 중요한 ‘감성주점’의 상품은 처음 본 이성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기회이다.



수원역 로데오거리의 사이 골목마다 들어선 모텔

남성 B 20살(2012년) 때는 ○○○○라고 거기가 이제 감성주점이라고 노래 엄청 시끄럽게 나오면서 클럽 같으면서 헌팅도 하고 …… 그리고 ○○○이라고 있거든요. 거기가 원래는 술집 이름이 ○○○였는데 진짜 ‘핫’ 했어요. 거기가 감성주점의 원조고 헌팅술집의 원조예요. 수원역의 1번지였어요.

남성 A ○○○라는 곳이 (이성과 합석이 가능한 술집이라는) 인식이 강해서 ○○○가 있던 건물 자체는 계속 합석 문화가 있게 되요. ○○○도 그렇고, ○○○○도 그렇고, ○○○○○, ○○도 그렇고.

남성 A 합석 문화라는 게 같이 술을 먹다 보면 질어질 수 있잖아요. 하룻밤 생각하게 돼도 숙소를 잡아야 되니까 저쪽, 뒤쪽 골목으로는 다 모텔인데 하룻밤도 많아서 주말에는 방을 잡아 놓고 술을 먹어야 돼요. 2~3시쯤 가면 (빈 방이) 다 없어요. 주말은 꼭 그래요.



수원역 로데오거리의 낮



수원역 로데오거리의 밤

하지만 '감성주점'은 모두의 욕망이 실현되는 공간은 아니다. 그 공간에 진입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하며, 또 주고받을 것이 있는 사람들만이 관계 맺기에 성공할 수 있다. 이들은 상호 욕망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 주체이자 대상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이다. 대상이 될 수 없는 사람들은 주체도 될 수 없다. 20대 사이에 걸 수 없는 나이가 되거나 아시아계 외국인은 욕망의 대상에서 배제된다. 배제된 자들은 다른 공간에서 자신의 자리를 찾을 것이다.

일련의 소비적 여가활동을 즐기기 위해 수원역 로데오거리를 찾아온 젊은이들은 오후부터 늘어나기 시작하여 저녁과 밤 시간대에 절정으로 치달았다가 대중교통 막차 시간을 넘겨 새벽이 다가올수록 줄어들기 시작한다. 누군가는 귀가하고 누군가는 로데오거리 뒤편 골목과 사잇골목에 즐비한 모텔로 사라진다. 그렇게 수원역 로데오거리의 하루가 마감된다. 이렇게 낮부터 밤까지 수원역 로데오거리로 모여드는 젊은이들은 어디에서 오고 다시 어디로 돌아가는 걸까.

남성 B 수원역에서 가까운 동네들은 기본적으로 다 수원역으로 뚫리고요. 약간 거

리가 있어도 주변에 모일 곳이 없는 경우는 수원역으로 와요. 그런데 신도시고 거기 뭐 놀게 있으면 그 주변에 사는 친구들끼리 모이는 거면 거기서 모이고 이제 뭐 고등학교 모임인데 퍼져있고 그러면 수원역에서 모이고요. 너무 흩어져 있으면 무조건 수원역 그런 느낌인 거 같아요. 집에 가기도 편하잖아요. 그리고 이 주변 대학생들도 대학 근처에 뭐가 없으니까 단체로 수원역으로 나와서 먹고 그러는 거 같아요. 저 같은 경우도 대학이 당정역 근처에 있는데 대학교 모임에서 수원역으로 술 마시러 오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여성 A 제일 만나기 쉬운 데가 수원역이니까. (대학교를) 어디 천안에 다니는 친구, 성남에 다니는 친구, 수원에서 다니는 친구 다 모으려면 수원역으로 모여야 하잖아요. 그럼 로데오거리에서.

인터뷰에 따르면, 경기 남부권역의 교통 중심지 역할을 하는 수원역의 뛰어난 대중교통 접근성이 수원의 젊은이뿐만 아니라 수원 외의 지역에서 생활하는 젊은이까지 수원역

로데오거리로 흡수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수원역은 광역철도 외에도 1호선, 분당선 등 도시철도가 지나는 지역거점역이다. 철도뿐만 아니라 수원 각 지, 수원과 인접한 경기 남부권역 도시들, 서울까지 다양한 지역으로 이동할 수 있는 수많은 버스 노선이 수원역 버스정류장을 경유한다. 또한 수원 인근 지역 10개 대학의 등·하교 셔틀버스가 수원역으로 운행하고 있다. 전통적 변화가인 수원역 로데오거리가 여전히 젊은 층, 특히 10대에서 20대가 모이는 소비 상권으로 기능하는 데에는 뛰어난 대중교통 접근성이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수원에 소재한 고등학교를 졸업한 이후 서울과 경기 남부 지역 등 다른 지역으로 흩어진 친구들을 다시 만나는 거점이 수원역 앞 로데오거리다. 반대로 수원에서 성장하지는 않았지만 수원역 인근 지역에 위치한 대학을 진학한 타 지역 출신 젊은이 역시 수원역 로데오거리를 소비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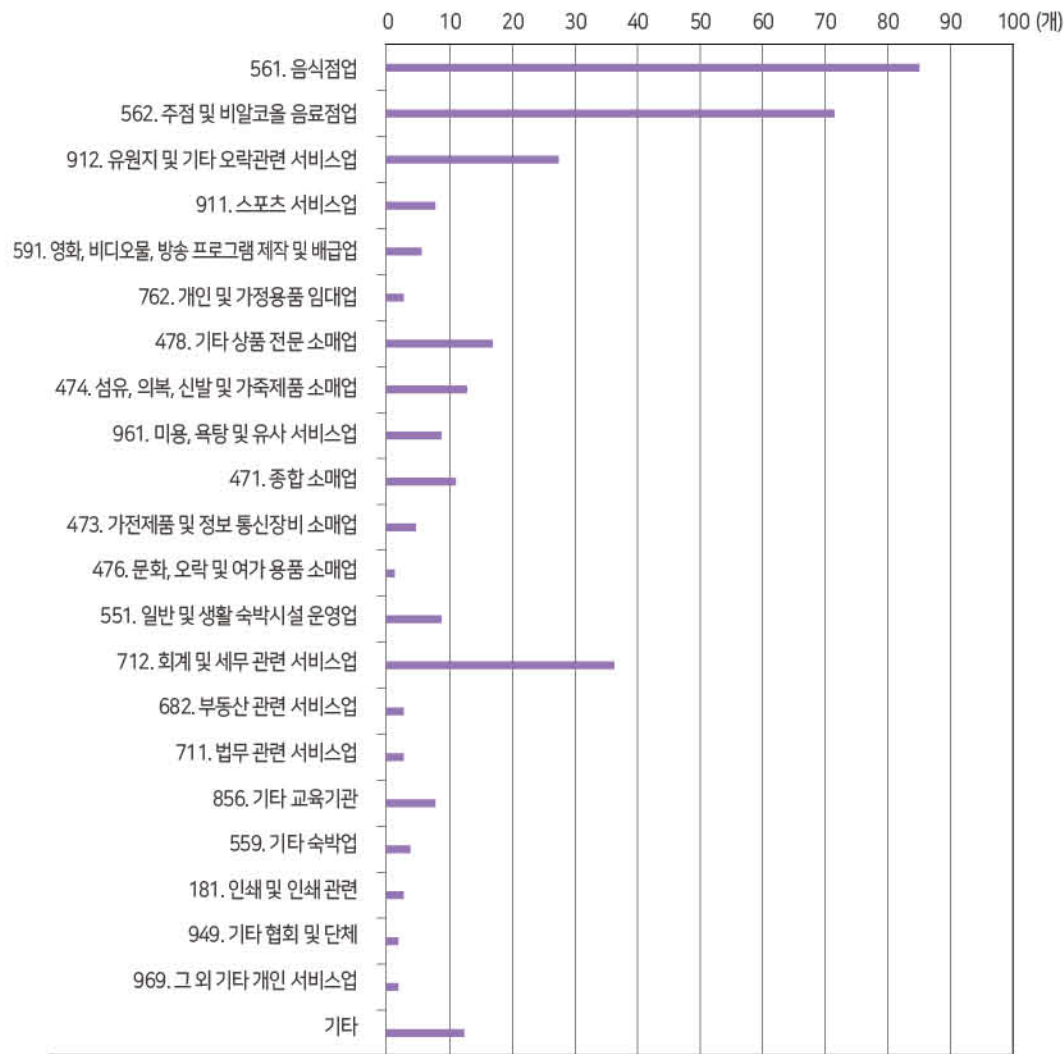
2) 수원역 로데오거리에 준비된 상품

수원의 청년들과 수원 외에 여러 지역의 청년들까지 모여들고 흩어지는 수원역 로데오거리에서 이들의 선택을 기다리는 상품들을 보다 구체적으로 알아보고자 거리의 업종 조사와 분류 작업을 진행하였다.⁴⁾ 2017년 6월을 기준으로 수원역 로데오거리 양 옆 건물들에 자리한 모든 점포의 수는 총 343개로 조사되었다<표 1>. 이 중 음식점, 주점, 비알코올 음료점업으로 분류되는 점포가 158개인데, 이는 전체 점포의 절반 수준인 46%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외식 관련 업종의 비중이 매우 높은 편임을 알 수 있다. 오락 관련 서비스업 점포의 수는 총 45개로 노래방, 당구장, DVD방, 전자 게임장, 야구연습장, 인형 뽑기방, 사격장 등으로 다양한 오락거리를 판매한다. 패션 관련 소매 및 서비스업 점포의 수는 총 39개로 화장품, 안경, 의복, 신발, 액세서리 소매업 및 미용 서비스업이 자리하여 여러 꾸밈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이들 업종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외식 관련 업종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음식점업 및 주점 및 비알코올 음료점업으로 분류되는 점포에 대하여 세 분류를 진행하였으며, 그 비중의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 2010년, 2014년, 2017년 업종별 점포의 수를 파악하였다<표 2>. 그 결과, 음식점 중에 가장 많은 업종은 한식 육류 요리 전문점으로 우리가 흔히 ‘고기집’이라고 부르는 식당들이다. 그 다음으로 한식일반음식점 역시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는데 찌개, 탕, 전, 찜 등의 한식류를 전문적으로 취급하

표 1 2017년 수원역 로데오거리의 업종별 점포수와 비율

	업종	점포수(개)	비율(%)	설명
외식 관련 (158)	561. 음식점업	86	25.1	한식, 외국식, 기타 간이음식점 등
	562. 주점 및 비알코올 음료점업	72	21.0	주점, 비알코올 음료점(카페) 등
오락 관련 (45)	912. 유원지 및 기타 오락 관련 서비스업	28	8.2	노래연습장, 컴퓨터 게임방, 전자 게임장, 기타 오락장 운영업 등
	911. 스포츠 서비스업	8	2.3	당구장 및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591. 영화, 비디오물, 방송 프로그램 제작 및 배급업	6	1.7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762. 개인 및 가정용품 임대업	3	0.9	서적 임대업
패션 관련 (39)	478. 기타 상품 전문 소매업	17	5.0	화장품, 안경 및 렌즈 소매업, 기타 상품 소매업 등
	474. 섬유, 의복, 신발 및 가죽제품 소매업	13	3.8	의복, 신발, 액세서리 소매업 등
	961. 미용, 욕탕 및 유사 서비스업	9	2.6	두발, 피부, 마사지업 등
기타 소매 (17)	471. 종합 소매업	11	3.2	체인화 편의점 등 종합 소매업
	473. 가전제품 및 정보 통신장비 소매업	5	1.5	통신기기 소매업(휴대폰) 등
	476. 문화, 오락 및 여가 용품 소매업	1	0.3	문구용품 및 회화용품 소매업
숙박 관련 (9)	551. 일반 및 생활 숙박시설 운영업	9	2.6	여관업
전문 서비스 (43)	712. 회계 및 세무 관련 서비스업	37	10.8	세무사업
	682.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3	0.9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
	711. 법무 관련 서비스업	3	0.9	법무사업
기타 서비스 (32)	856. 기타 교육기관	8	2.3	외국어 학원, 기술 및 직업훈련학원 등
	559. 기타 숙박업	4	1.2	고시원 운영업
	181. 인쇄 및 인쇄 관련	3	0.9	인쇄업
	949. 기타 협회 및 단체	2	0.6	
	969. 그 외 기타 개인 서비스업	2	0.6	점술 및 유사 서비스업
	기타	13	3.8	직업소개소, 환전소, 금융기관 등
	총 점포수	343	100.0	



2017년 수원역 로데오거리의 업종별 점포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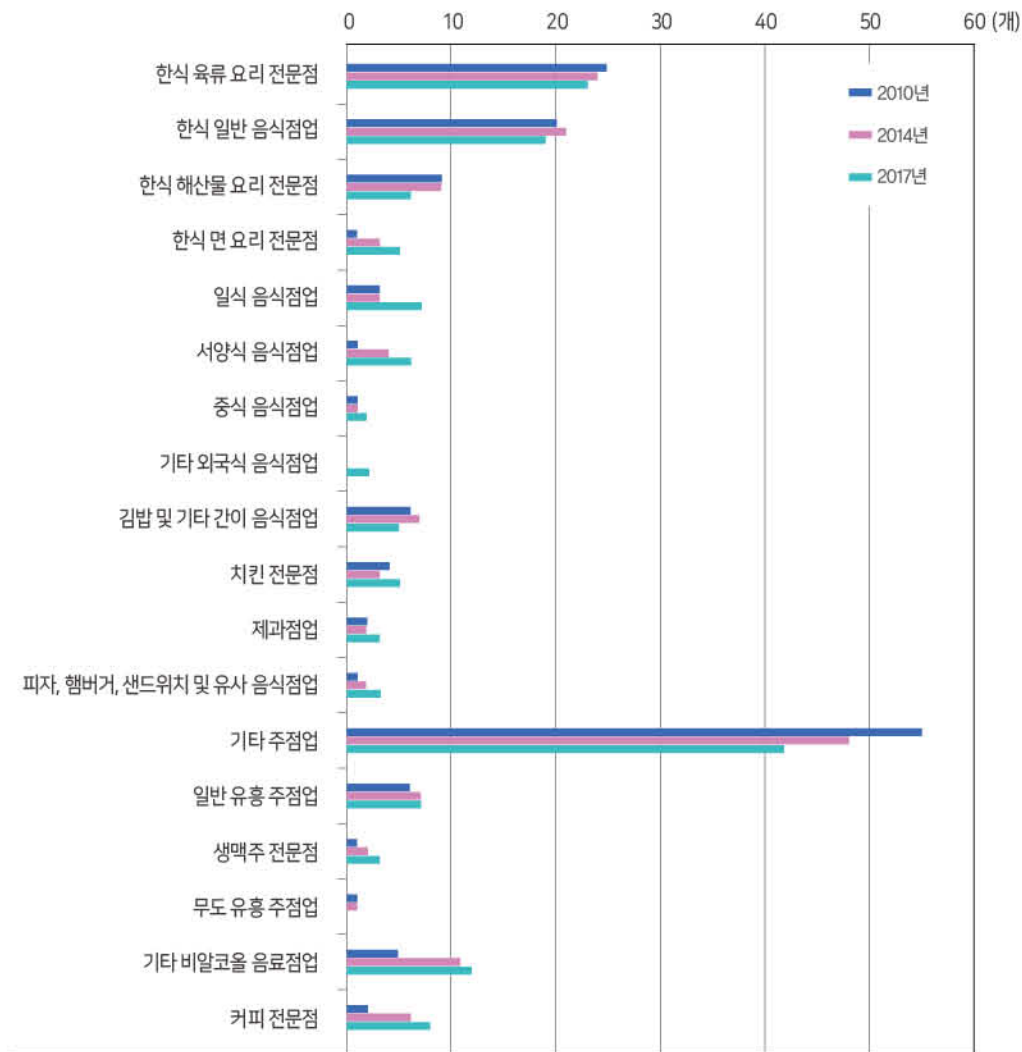
고 있다. 그 다음으로는 일식음식점, 서양음식점, 한식해산물요리전문점, 치킨전문점 등의 순으로 각각 업종별로 5~7개 정도의 점포가 위치해 있다. 이들은 일본식 돈까스, 초밥, 우동, 스테이크, 쌀국수 등을 판매하고 있다. 주점업으로 분류되는 점포들은 소주, 맥주, 막걸리 등을 판매하는 일반 주점과 일본식 선술집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비알코올 음료점으로 분류되는 점포들은 커피전문점 혹은 카페, 생과일주스나 빙수 등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곳이다. 이러한 업종 분포는 2010년부터 현재까지 대동소이한 경

표 2 연도별 수원역 로데오거리의 음식점업과 주점 및 비알코올 음료점업의 점포수

업종		2017년 점포수	2014년 점포수	2010년 점포수	업종 판매 상품 설명 및 예시
한식	한식 육류 요리 전문점	23	24	25	돼지고기, 소고기, 닭, 오리 등 주로 구이류 식당
	한식 일반 음식점업	19	21	20	짜개, 찜, 설렁탕, 족 등
	한식 해산물 요리 전문점	6	9	9	한국식 회, 해산물 전문점
	한식 면 요리 전문점	5	3	1	칼국수, 냉면, 막국수 등
외국식	일식 음식점업	7	3	3	일본식 회, 초밥, 우동, 카레, 돈까스 등
	서양식 음식점업	6	4	1	
	중식 음식점업	2	1	1	
	기타 외국식 음식점업	2	0	0	
기타 간이 음식점	김밥 및 기타 간이 음식점업	5	7	6	
	치킨 전문점	5	3	4	
	제과점업	3	2	2	
	피자, 햄버거, 샌드위치 및 유사 음식점업	3	2	1	
주점	기타 주점업	42	48	55	일반 주점, 주막, 포차, 맥주, 소주, 선술집, 이자카야 등 접객서비스 없는 주점
	일반 유흥 주점업	7	7	6	접객서비스 있음
	생맥주 전문점	3	2	1	생맥주만 취급, 일반맥주 없음
	무도 유흥 주점업	0	1	1	댄스 클럽 등
비알코올 음료점	기타 비알코올 음료점업	12	11	5	빙수, 생과일주스, 다방
	커피 전문점	8	6	2	커피전문점, 카페

향을 띠고 있다.

수원역 로데오거리에는 꽤 다양한 메뉴의 음식점 및 주점들이 밀집해 있다. 그러나 동시에 이 음식점 및 주점 대부분은 전형적인 메뉴를 취급하는 가게들이다. 다시 말해, 전국 어떤 대도시의 번화가를 가더라도 발견할 수 있을 법한 식당과 술집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수원역 로데오거리에서 수원역 로데오거리만의 고유한 성격을 지닌 외식 문화를 경험할 수는 없다. 이 거리의 음식점들은 평범하고 전형적인 외식 메뉴를 제공해 줄 뿐



연도별 수원역 로데오거리의 음식점업과 주점 및 비알코올 음료점업의 점포수

이다. 그럼에도 로데오거리는 동네 식당과 주점보다는 훨씬 더 다양한 선택지를 제공해 준다. 예컨대 조금씩 다른 콘셉트의 한식 육류 요리 식당만 23곳이 있으니 소비자의 입장에서 평소보다는 다양한 선택지를 경험하거나 일상에서 약간 벗어나는 정도의 특별함은 느낄 수 있다. 즉 수원역 로데오거리는 소비자들에게 일상의 전형성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의 다양함, 다른 변화가에서 이미 확인해 봤거나 확인할 수 있는 수준의 안전한 쾌락을 제공한다.

3. 수원역 로데오거리 소비경관의 특성

1) 프랜차이즈 전시장

남성 A 로데오거리 안에서 노포나 맛집은 ○○밖에는 …… 대부분 프랜차이즈라서 …….

여성 A 수원역은 100% 프랜차이즈예요. 프랜차이즈 아닌 데가 없어요.

수원역 로데오거리를 걷다 보면 프랜차이즈 체인점들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로데오거리 초입부터 대기업에서 운영하는 유명한 카페 브랜드와 화장품 로드숍이 눈에 띈다.



수원역 로데오거리의 프랜차이즈 업소

거리 내내 다른 변화가에서도 한 번쯤은 봤던 낯익은 식당 간판들을 쉽게 찾을 수 있다. 예컨대 유명 외식 프랜차이즈 업체의 17개 브랜드 중 8개 브랜드의 ‘수원역점’이 로데오 거리에 입점해 있다. 업종 분포 조사에 따르면, 수원역 로데오거리의 프랜차이즈 매장은 점차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는데 2010년 55개 매장에서 2014년 70개 매장, 2017년 88개 매장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

프랜차이즈는 문화의 중심이 아닌 곳에서 중심의 문화를 복제한다. 프랜차이즈는 표준화된 상품을 소비자에게 제공한다. 프랜차이즈 음식은 서울에서 먹거나 수원에서 먹거나 동일한 맛이다. 매장의 분위기도 별 차이가 없다. 프랜차이즈 상품은 소비자에게 예측가능한 안정감을 준다. 모든 프랜차이즈 상품이 원본이자 복제품이다. 이 때문에 프랜차이즈는 한국의 어느 도시의 변화가와 수원 로데오거리의 차이를 모호하게 만들고 획일화한다. 프랜차이즈 체인으로 연결될수록 소비경관의 개성은 사라지고 일반적인 취향으로 수렴한다.

그런데 프랜차이즈의 증가는 사람들이 수원역 로데오거리를 찾는 이유 중 하나이기도 하다. 사람들은 서울 변화가에 있는 프랜차이즈 매장이 수원역 로데오거리에도 똑같이 있는 것을 보고 서울과 수원이 별 다를 것 없다고 여긴다. 수원역 로데오거리의 소비자들은 서울의 변화가에서 노는 것과 수원역 로데오거리에서 노는 것에 별 차이가 없으며, 프랜차이즈가 서울과 수원의 여가문화 차이를 없애는 데 기여한다고 인식한다.

남성 A 그쪽(서울)에서 잘 안 먹게 되더라고요. 서울 쪽에 가도 똑같다고 생각하거든요. 거기나 여기나 그게 그거라고 생각하니까 …… 요즘엔 프랜차이즈도 많잖아요. 여기(로데오거리)도 다 있어요.”

2) 서울과 수원 간의 문화적 위계 인식

프랜차이즈화는 쇼핑 거리 간의 차이를 상쇄시키지만, 그럼에도 수원역 로데오거리는 서울의 변화가와 동일한 문화적 지위를 얻을 수는 없다. 여전히 서울은 양과 규모, 속도에서 수원을 압도한다. 또한 서울의 변화가에는 모방할 수 없는 문화상품들도 있다. 소비자 인터뷰에 따르면, 이들은 수원역 로데오거리를 자주 가지만 간혹 전시회나 뮤지컬처럼 복제가 불가능한 문화상품을 소비할 때는 수원을 떠나 서울에서 ‘문화생활’을 한다.



수원역 로데오거리(2014년, 수원시 포토뱅크 제공)

남성 A 그쪽(서울)은 문화생활 같은 것, 전시회를 본다거나 뮤지컬을 본다거나 그럴 때, 서울 쪽에는 공연 같은 거 때문에 가지, 기본적인 코스 영화, 밥, 술, 카페 이거는 여기도 다 돼 있잖아요.

남성 B (데이트할 때) 기분 내려 한강 이런데 가끔은 가는데, 거의 4/5는 수원역에서.

“여기도 다 돼 있잖아요.”라는 말의 표면적인 의미는 서울의 변화가에서 여가 소비활동을 하는 것과 수원역 로데오거리에서 여가 소비활동을 하는 것 간에 차이가 없다는 뜻이다. 한편으로 서울의 변화가에서 노는 것‘만큼’ 수원역 로데오거리‘에서도’ 놀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이 진술에는 서울과 수원 간의 문화적 위계 인식이 함께 담겨 있다.

한국 사회의 거의 모든 것의 중심으로 인식되는 서울은 문화 중심지의 지위를 갖는다. 서울의 문화는 그 외의 지역에 대해 계층적 우위를 점한다. 문화는 상위계층에서 하위계층의 방향으로 확산하는 경향을 가지며, 하층은 상층 지향성을 가진다.⁵⁾ 이는 하위계층

이 상위계층과 동일해지고자 하는 욕구이다. 수원역 로데오거리에서도 서울의 변화가의 여가상품들을 소비할 수 있다면, 수원역 로데오거리에 대한 인식은 격상될 수 있다. 그러나 모방하는 주체가 모방의 대상과 같아지고자 끊임없이 노력하여도 모방의 대상이 갖고 있는 지위를 획득할 수는 없다. 모방의 욕구를 가진 주체에 대해 모방의 대상이 가지는 문화적 우월성은 유지된다. 서울은 수많은 유행 상품의 출발지이다. 프랜차이즈 브랜드의 1호점이 개점하는 지역이다. 따라가고자 하는 수원은 지점일 수밖에 없다. 유행하는 문화 상품이 계속해서 생성하고 소멸하는 동안 서울의 유행을 따라가려는 수원역 로데오거리의 변화도 계속될 것이다. 그리고 로데오거리의 그 끊임없는 욕망은 로데오거리를 찾는 소비자의 욕망이기도 하다. 그렇게 수원역 로데오거리는 여전히 지역의 많은 젊은이들을 불러모으고 있다.

3) 변화의 속도와 유행

여성 A 음식점하고 술집은 진짜 빨리 변해요. 진짜 수원역에서 옛날부터 살아있는 술집은 몇 개 안 될걸요? …… 수원역은 요식업도 유행에 민감해. 참 옛날에 매운 갈비점 유행하면 매운 갈비점 사진 찍어서 올리고 먹고 그랬어요.

수원역 로데오거리의 매장은 계속해서 바뀌고 있다. 2010년, 2014년, 2017년 수원역 로데오거리 점포들의 상호를 조사하여 점포들이 없어지고 새로 생겨나는 정도를 <표 3>과 <표 4>로 나타내었다.⁹⁾ 이 중 ‘음식점 및 주점업’, ‘스포츠 및 오락 관련 서비스업’, ‘소매업’의 폐업률이 유독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업종들은 수원역 로데오거리의 대표 업종들이다. 이들 업종은 폐업하는 점포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업종 전체의 점포수는 유지되거나 약간 더 많아지는 경향을 보인다. 즉, 해당 점포의 개별 점포들이 새롭게 개점한 점포로 계속 바뀌고 있는 것이다. 예컨대 음식점 및 주점업의 경우는 2010년에서 2014년 사이에는 51%가 폐업하였고 2014년에서 2017년 사이에는 47%가 폐업하였다. 그럼에도 음식점 및 주점업의 전체 점포수는 2010년 143개소 → 2014년 154개소 → 2017년 158개소로 비교적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다. 거리 전체의 정체성은 변하지 않았지만 그 정체성을 구성하는 개별 성분은 계속 변하고 있는 것이다. 노래연습장의 경우 2014년 12개소, 2017년에 13개소로 점포의 개수는 큰 변함이 없다. 하지만 2014년에는



같은 자리에서 많이 바뀐 건물
(2010년, 네이버 거리뷰)



같은 자리에서 많이 바뀐 건물
(2014년, 네이버 거리뷰)



같은 자리에서 많이 바뀐 건물
(2018년, 네이버 거리뷰)

하나도 없었던 코인노래방이 2017년에는 4곳이 새롭게 개점하였다. 2014년까지는 하나도 없었던 인형 뽑기방 역시 2017년에는 4개소가 신규 운영 중에 있다. 그동안 로테오거리에 존재하지 않았던 VR 체험방 한 곳이 2017년에 새로 생겼다.

표 3 2010~2014년 수원역 로테오거리의 폐업 점포수

구분	2010년 점포수	2014년 점포수	폐업한 점포수	폐업률(%)
음식점 및 주점업	143	154	73	51
스포츠 및 오락 관련 서비스업	30	25	13	43
영상 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8	7	1	13
소매업	34	40	8	24
숙박업	13	13	1	8
전문 서비스업	38	38	1	3
부동산업	3	3	0	0
임대업(부동산 제외)	0	1	0	0
교육 서비스업	4	7	1	25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5	3	2	40
협회 및 단체	3	2	1	33
기타 개인 서비스업	10	13	2	20
기타	7	11	1	14
합계	298	317	104	3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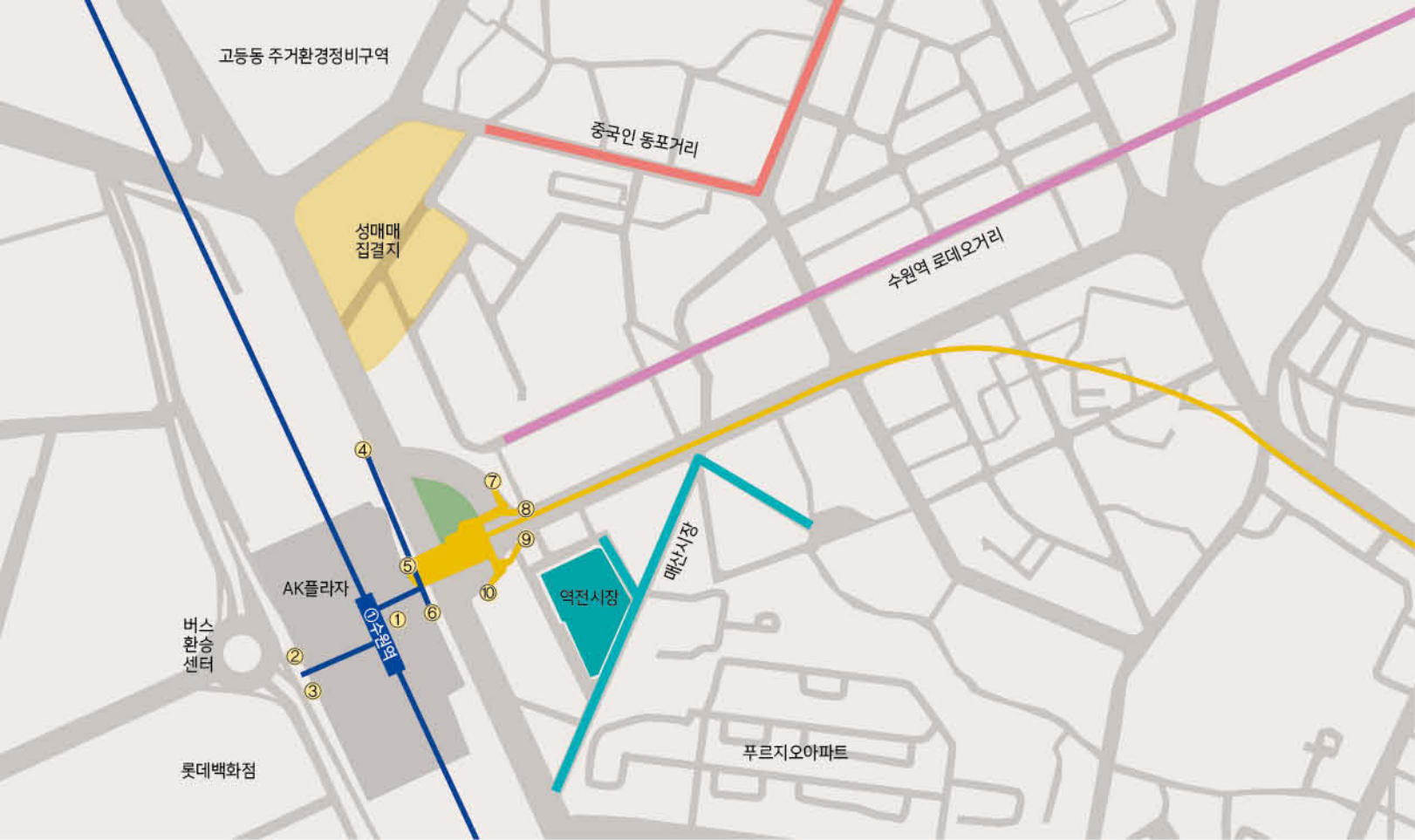
표 4 2014~2017년 수원역 로테오거리의 폐업 점포수

구분	2014년 점포수	2017년 점포수	폐업한 점포수	폐업률(%)
음식점 및 주점업	154	158	73	47
스포츠 및 오락 관련 서비스업	25	36	7	28
영상 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7	6	1	14
소매업	40	47	16	40
숙박업	13	13	0	0
전문 서비스업	38	40	3	8
부동산업	3	3	1	33
임대업(부동산 제외)	1	3	1	0
교육 서비스업	7	8	2	29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3	3	0	0
협회 및 단체	2	2	0	0
기타 개인 서비스업	13	11	8	62
기타	11	13	1	9
합계	317	343	113	36

이러한 새로운 문화상품은 수원역 로테오거리만의 것이 아니다. 서울을 비롯한 대부분의 대도시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 오히려 서울의 변화가에서 비슷한 시기, 좀 더 빠른 시점에 생겨난 것이다. 이렇게 한 유행상품이 타 지역으로 충분히 확산되어 소비되기 시작하면 그 유행의 운동 에너지는 감소한다. 상품성을 잃어 가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다시 새로운 문화상품이 유행하여 확산하고 다시 소멸한다. 이러한 발생-확산-소멸 과정은 계속해서 반복된다. 서울에서 발생한 유행은 수원역 로테오거리를 지나치지 않는다. 수원역 로테오거리는 문화상품의 유행을 빠르게 뒤따라감으로써 젊은이들을 이 거리에 붙잡아 두고 있다.

유행을 쫓는 행위에는 두 가지 상반된 욕망이 담겨 있다. 아직 유행을 따라가지 못한 타인과 자신을 구별하고 부각시키려는 차별화의 욕망과 먼저 유행을 이끌고 있는 집단을 모방하여 이들과 같아지려는 동질화의 욕망이다.⁷⁾ 유행에 동참함으로써 언뜻 상충하는 것 같은 이 두 가지 욕망을 모두 충족시킬 수 있다. 예를 들어, 어떤 매운 갈비점 프랜차이즈 브랜드가 SNS에 자주 오르내리며 서울에서 유행을 타고 있다고 가정하자. 얼마 지나지 않아 수원역 로테오거리에는 매운 갈비점 브랜드의 수원역점이 개점할 것이다. 그렇게 수원역 로테오거리의 소비자가 이 ‘핫한’ 매운 갈비점을 먹게 되었을 때, 그것은 단지 맛있는 갈비점 한 점을 먹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제 한창 유행하는 매운 갈비점을 먹어 본 수원의 젊은이는 아직 그 ‘핫함’을 경험하지 못한 주위의 또래보다 더 트렌디한 사람이 되어 부러움을 살 수 있다. 그러나 이 수원의 젊은이가 맨 처음 매운 갈비점을 먹어 본 사람은 아니다. 매운 갈비점은 이미 유행 중이기 때문이다. 이미 SNS에는 매운 갈비점 경험을 인증한 많은 계정이 있다. 이제 자신도 이들과 동일한 해시태그를 달 수 있게 되었다. 유행을 선점한 누군가를 보고 모방하는 것이다. 모방을 통해 유행을 선점한 집단에 자신을 포함시키고 경험을 공유하는 행위를 통해 자신이 홀로 뒤떨어져 있지 않음을, 준거집단에 소속됐음에 안도감을 느낀다. 또한 유행을 따라가는 사람은 선구자가 가지는 위험부담을 줄어지지 않아도 된다.

유행을 따르는 것은 안전한 선택이다. 수원역 로테오거리는 새로운 문화상품이 개발되어 유행을 설정하는 지역은 아니다. 유행이 확산되는 대상지이다. 즉, 수원역 로테오거리는 소비자에게 안전한 방식으로 차별화 욕망과 동질화 욕망을 충족시켜 주는 소비의 장이다.



수원역 로데오거리와 연접한 중국인 동포거리

매산동 구획 분리에 대한 약도

4) 거리의 안전을 위한 구획 설정과 배제된 자들

남성 A 로데오거리는 무섭지 않은데, 수원역 주변에는 무서운 데가 많아요. 보통 다니는 코스가 저기(로데오거리)부터 쪽 해서 AK, 롯데몰 그제 거의 끝인 거예요. AK프라자나 롯데몰을 가거나, 로데오거리에서 직진만 하지, 중국 동포거리나 이런 데는 7년 동안 한 번도 가 보지 않았어요. 미지의 공간이에요.

수원역 일대는 수원시에서 가장 많은 인구가 흐르는 지역이다. 하지만 물과 기름이 섞이지 않듯 수원역 일대의 공간들은 각 인구 집단별로 구획화되어 있다. 로데오거리와 인접한 갯매산로삼거리 일대는 중국 동포들의 공간이며, 역전시장과 매산시장 뒤편은 동남아시아와 인도, 파키스탄 등에서 온 이주민들의 공간이다. 역전시장과 매산시장은 중장



수원역 성매매 집결지

년층에서 노년층이 주를 이루는 공간이며, 로데오거리는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 연령대 사람들의 공간이다. 이들은 수원역 플랫폼을 함께 통과하여 역전지하도상가를 거쳐 각자의 출구로 흩어진다.

각 구역은 접하거나 아주 인접해 있지만 각 구역의 사람들은 거의 왕래하지 않는다. 정체성이 다른 집단들은 골목 하나를 끼고 각자의 구역에 밀집해 있을 뿐이다. 수원역 앞 일대의 각 구획은 물리적으로 단절되어 있지 않음에도 문화적 분리는 뚜렷하다. 수원역 일대 상권은 '다문화'적인(multicultural) 현상의 상징적이며 압축적인 단위구역이라고 할 수 있다. 왜 이들은 섞이지(intercultural) 않을까?

남성 A 이 줄(로데오거리)에서 노는 사람들은 딱 들어와 보면 알잖아요. 다 한국 사람들이고, 어린 사람들이고, 재미있고, 사람들도 많고, 보는 눈들도 많고 그러니까 한번 들어와 보면 어 팬찮은 것 같아! 놀 만해! 있을 것 다 있고 자기도 젊으니까.

여성 A 저는 그쪽 골목이 되게 무서워요. 음침하고 거기 중국 사람들 있는 거리 있잖아요. 매산시장 이쪽은 골목들이 잘고 무섭고

남성 A 그런데 여기 조금만 옆으로 나가보면 무섭죠. 딱 무서워 보이죠. 사창가 쪽 길부터 해 가지고 거리 도는 쪽은 엄청 무서워요. 그리고 매산시장 뒤쪽으로도 엄청 무서워요.

여성 A 중국거리 이쪽은 그냥 무서워서 가기 싫어요. 차 타고 이동해 본 적은 있어요. (조사자 : 걸어서 가 본 적은?) 없어요. (성매매 집결지는) 친구들과하고 아예 먼 길로 돌아가고, 이 근처에는 가지도 말자고 하고.

수원역 로데오거리는 중국인 동포거리와 성매매 집결지, 매산시장 등 로데오거리와 인접한 거리에 비해 상대적으로 정돈되고 깨끗하다. 이는 2000년대 초반부터 수원역 로데오거리에서 진행된 '매산로테마거리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포장마차 철거, 보도블록 교체, 차 없는 거리 운영, 바닥 LED등 설치와 같은 지속적인 관리 작업이 있었기 때문이다. 외적 환경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는 거리를 보다 밝고 안전하게 느끼는데 기여했을 것이다. 이는 수원역 로데오거리의 주요 소비자들이 상대적으로 로데오거리보다 낙후된 환경에 있는 인접 구역들을 더 위험하거나 지저분한 곳으로 인식하는 하나의 원인일 수 있다.

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낯설고 이질적인 대상에 대한 문화적 거리감이다. 문화



수원역 주변의 외국인

적 거리감은 외양, 음식, 놀이, 언어, 말투, 제스처, 표정 등 삶의 모든 부분에서 발생한다. 수원역 앞 각 거리 간의 이 거리감은 각 구역의 간판 형태, 가게 인테리어, 사람들의 외견과 같은 물리적 실체가 밀집한 형태로 재확인된다. 그렇게 이질적이고 낯선 집단에 대한 공포감이 형성된다. 그리고 이러한 공포감은 위계질서상 내 집단보다 아래 존재하는 것으로 인식하는 외집단에 대한 거부감 혹은 혐오감과 함께 표출되기도 한다. 이질적인 집단을 두려워하고 멀리하려 하고 혐오하는 경향은 집단 간 단절과 심리적 구획화로 귀결된다.

남성 A 솔직히 한국 사람들은 외국인에 대한 시선이 안 좋잖아요. 그러면 솔직히 느끼죠. 자기들도 (로데오거리로) 오기를 꺼려했죠. 다른 데 가려고 지나다니는 것하고 밥집 잠깐 들리고 살 것만 사고 그러는 거 같아요.

수원역 로데오거리의 젊은이들이 로데오거리 외에 다른 구역을 오가는 데 강한 두려움을 드러낸다면, 반대로 이질적인 사람들 예컨대 조선족, 이주 노동자 등이 수원역 로

데오거리를 오갈 때 수원역 젊은이들이 이들에게 보내는 시선은 불편함이다. 그것이 거부 의미이건 혐오의 의미이건 시선의 주체는 그 대상이 이 구역에 나타나지 않기를 바란다. 시선을 받는 대상 역시 자신을 향한 불편함의 시선을 간파하고 그 시선이 미치지 않는 곳으로 이내 벗어나려 한다.

결국 수원 청년들이 로데오거리에서 느끼는 안전함은 물리적이거나 실제적인 안전함이라기보다는 사회심리적인 안전함이다. 낮설고, 이질적이고, 비윤리적이며, 비위생적으로 여겨지는 존재들을 시야 밖에 두었을 때 느끼는 안전함이다. 이는 실질적인 안전함보다 강력하게 작동한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 로데오거리에서 한국인에 의해 벌어진 살인사건이나 빈번한 주폭에 대해 말하면서도 여전히 로데오거리는 안전하다고 여길 수 있다. 이런 심리적인 안전함이 수원역 로데오거리라는 구획과 거리의 정체성을 지속시키는 중요한 요소이다.

4. 수원역 로데오거리를 떠나며

수원역 로데오거리는 이 거리만의 고유한 문화상품이 유통되는 소비경관이기보다는 프랜차이즈 체인으로 연결된 표준화된 소비가 우세한 경관, 즉 일반적인 젊은 세대의 평균적인 취향과 관심을 거스르지 않는 상품들이 모여 있는 소비경관이다. 또한, 수원역 앞 일대의 인접한 타 구역과는 다르게 중·고등학생과 20대 초중반의 여가 소비활동공간으로 경계 지어진 구역이다. 이제 그 시절 수원역 로데오거리를 활보하던 수원의 청년들은 20대 중후반으로 접어들며 여가 소비활동의 주요 무대를 인계동 상권으로 바꾸고 있다.

남성 A 싸구려로 놀자는 느낌이 아니고 조금 더 품위 있게 안주도 조금 좋은 것 먹고, 한국은 나이에 맞는 걸 좋아하잖아요. 우리도 거기(인계동) 가야 할 거 같고, 다른 사람들 다 어려 보이는데 나만 나이 많아 보이면 좀 그렇잖아요.

여성 A 이제는 수원역보다 인계동을 많이 가죠. 수원역은 너무 어린 애들이 결정결령 술 마시고 다니는 게 보기 싫어서 인계동으로 가요. 인계동이 더 세련된 느낌이에요. 수원역은 안주가 싼 곳이 많아요. 싸고, 가성비를 따지면 좋긴 한데 맛이 있지가 않아

요. 돈이 쪼들리는 20~21살에는 수원역에 많이 가도, 인계동은 비싸더라도 맛있는 집이 좀 많단 말이에요. 맛있고 비싸고 그래서 돈을 더 주더라도 갈 수 있는 나이의 사람들이 가는 것 같아요.

남성 B 거기는 30살 넘으신 분들도 엄청 많아요. 여기는 술집 들어오면 다 시끄럽잖아요. 그래도 인계동은 조용한 술집 같은 경우도 있고, 여기(로데오)는 무조건 들떠 있는 느낌인데 거기(인계동)는 종목을 정할 수 있죠.

과거 고등학생 시절에는 “수원역에서 논다 그러면 잘나가 보이는” 그런 공간이었지만, 나이가 들에 따라 수원역 로데오거리에서 받아 온 상징적 힘은 빛을 바래고 있다. 지난 10여 년의 세월 동안 수원역 로데오거리의 정체성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지만, 이제 20대 중후반이 되어 버린 소비자들에게 수원역 로데오거리가 갖는 문화적 위상은 하락하였다. 스무 살 즈음에는 안주가 싸다는 것이 장점이었지만 이제는 안주가 싸다는 것이 단점이 되었다. 로데오거리의 왁자지껄한 분위기와 저렴한 안주는 과거의 취향이 되었다. 지금의 이들이 느끼기에 인계동 상권은 수원역 로데오거리보다 더 세련되고 품위 있게 소비문화 활동을 할 수 있는, ‘내 나이에 적합한’ 소비경관이다. 경관이 구성하는 상징적 의미는 그 경관을 소비하는 행위자의 정체성을 규정하고 사회적 질서로 작동한다.

한때 또래들과 수원역 로데오거리를 누볐던 이들은 이제 새로운 여가 소비활동 무대를 찾아 수원역 로데오거리에 작별을 고하지만 그럼에도 이 거리와 함께한 기억은 남게 마련이다. 한 사람이 10대 후반, 20대 초반 시기에 겪었던 경험은 그 사람의 삶에 강력한 인자로 남곤 한다. 인생 초기에 수원역 로데오거리에서 경험한 소비의 쾌락적 효용은 이후 자신의 삶의 양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 거리를 떠나 ‘더 세련된’ 인계동으로 이동한 수원 청년들은 시간이 지나면 또 다른 곳에서 새로운 자신을 구성하고 확인할 것이다. 그렇게 계속되는 삶의 어떤 순간에는 10대 후반, 20대 초반 시기에 또래들과 함께했던 수원역 로데오거리에서의 소비 경험이 문득, 추억으로 되살아날 것이다. 그리고 그 당시 유행처럼 흘러갔던 어떤 상품은 추억을 증폭시키는 매개물이 될 것이다. 수원역 로데오거리에서는 사람도 흘러가고 상품도 흘러간다. 오랜 시간이 흘러 언젠가 이들이 10대 후반, 20대 초반 시기의 기억을 소환할 때 수원역 로데오거리는 무엇으로 ‘응답’할까.

여성 A 로데오거리는 옛날부터 곁에서 저를 지켜봐 왔던 거 같은 느낌. 로데오거리는 저의 어린 시절을 봤잖아요. 저의 어린 시절부터 젊은 지금의 시절까지 전부 포함하고 있는 공간.

남성 B (로데오거리는) 청춘? 젊음? 그냥 젊음의 상징인 것 같아요. 더 나이 들면 이제 오기 싫어질 것 같고.

- 1) 이 쇼핑거리는 수원시의 전통시장으로 정식 등록되어 있으며, 등록된 명칭은 '매산로 테마거리 상점가'이다. 하지만 이 거리를 찾는 다수의 소비자들은 이곳을 '로데오거리'라고 부르고 있다.
- 2) 김재행 외 3인, 「수원시 등질지역의 구조적 변화」, 『한국도시지리학회지』 12-1, 2009, 51쪽.
- 3) 한지은, 「문화지리학의 경관 연구와 경관의 텍스트성」, 『안과밖』 34, 2013, 140쪽.
- 4) 조사의 범위는 수원역지하도상가 11번 출구 쪽 로데오거리 초입부터 수원세무서까지 600m가량의 일직선 거리 양 옆 건물에 위치한 점포로 제한하였다. 분류 기준은 한국산업표준분류 기준에 따라 5차로 세부분류를 하였다.
- 5) 게오르그 짐멜, 『짐멜의 모더니티 읽기』, 김덕영·윤미애 역, 새물결출판사, 2005, 57쪽.
- 6) <표 3>은 업종별로 2010년, 2014년, 2017년에 점포의 수와 해당연도 사이에 폐업한 점포의 수를 말한다. 예컨대 2010년과 2014년 사이에 '소매업' 점포가 8개가 폐업했지만 새로 14개의 점포가 생겨 34개에서 40개로 늘어난 것이다.
- 7) 게오르그 짐멜, 김덕영·윤미애 역, 『짐멜의 모더니티 읽기』, 새물결출판사, 2005, 57쪽.



이진희 시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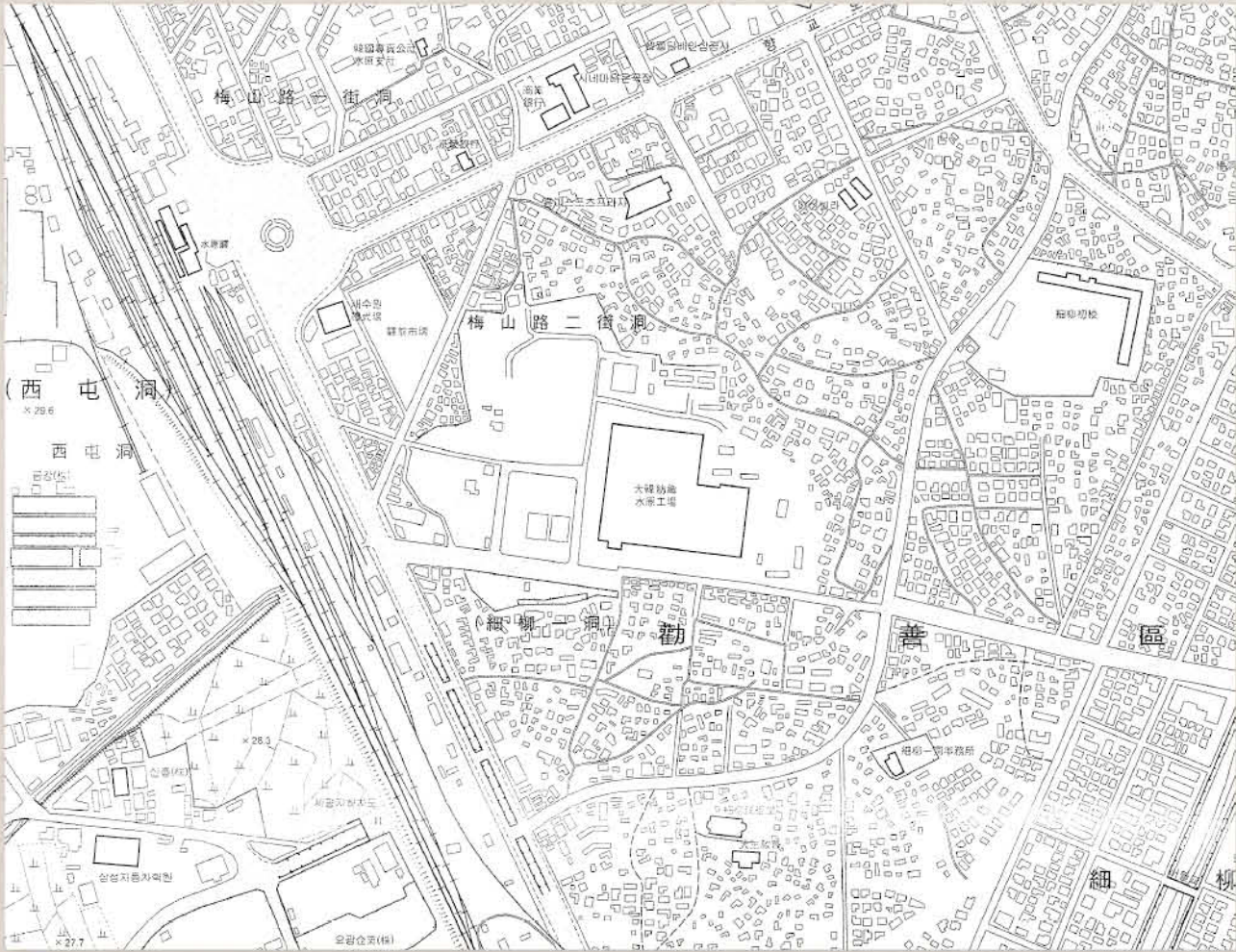
제5장

주민의 건강과 행복을 최우선으로 하는 곳, 매산동 대한대우아파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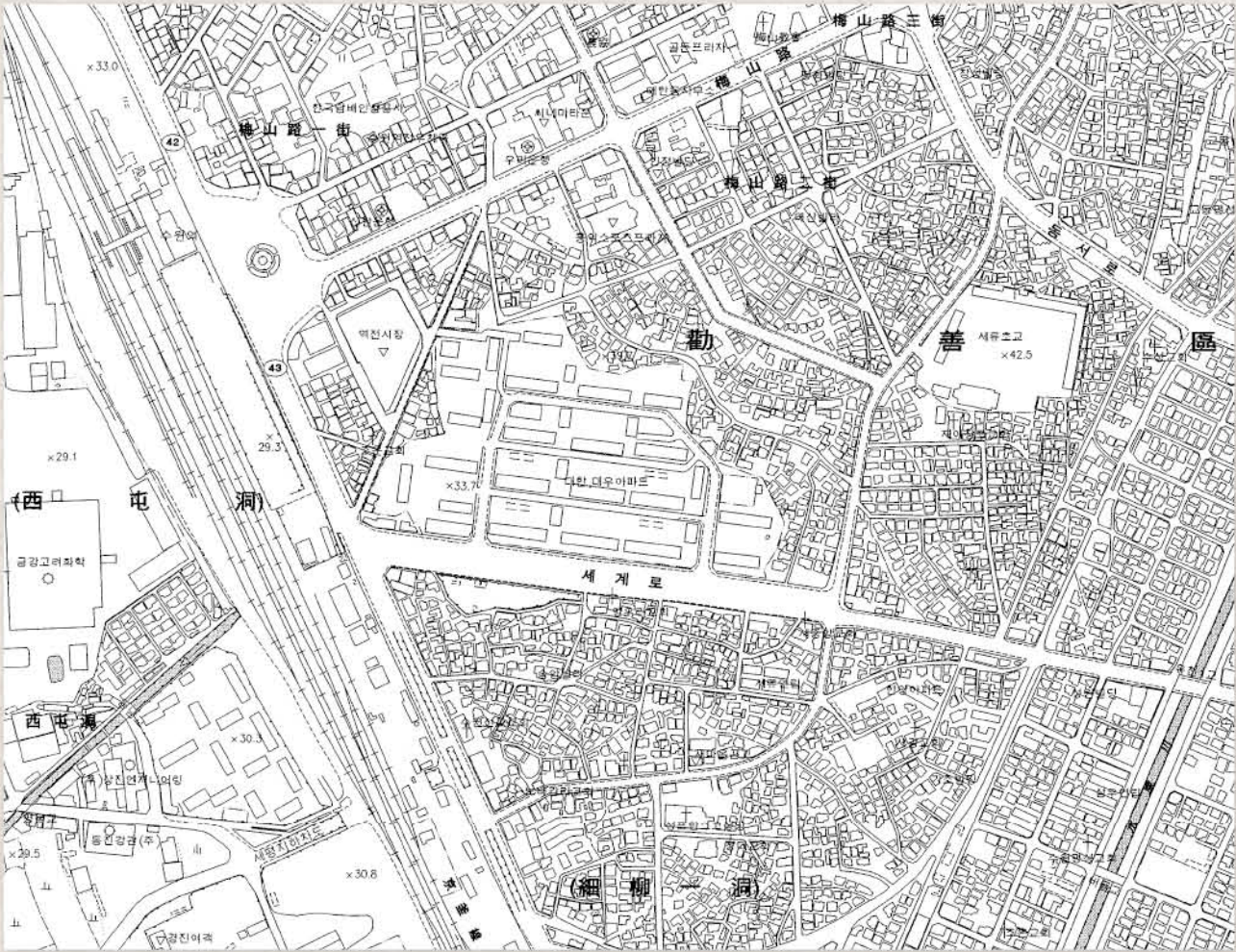
1. 푸르지오 혹은 대한대우라는 이름

수원역을 지나다가 무심코 고개를 돌리면 유독 눈에 띄는 아파트단지가 한 곳 있을 것이다. 오랜 전통의 재래시장을 옆구리에 바짝 끼고 수원역 우회고가를 담벼락처럼 두르고 있는 아파트의 외벽에 쓰여 있는 이름은 푸르지오. 수도권의 어느 역이라도 그 일대가 고즈넉하기는 만무겠지만 전국적으로도 손에 꼽을 만큼 높은 이용객 수를 자랑하는 수원역을 기점으로 펼쳐지는 인근의 풍경은 그야말로 움직임 그 자체라고 할 수 있다. 이른 새벽부터 늦은 밤까지 멈추는 순간이 거의 없다시피 하루가 흐른다. 끊임없이 어디론가 이동하는 사람들과 차량들의 소란함, 이마와 어깨를 뚫뚫하게 맞대고 있는 각양각색의 가게와 간판들의 분주함 속에 20년 가까이 매산동의 자랑스러운 일부로서 그 존재와 위상을 곳곳하게 지켜온 이 아파트의 공식명칭은 대한대우아파트이다.

바깥에서 보면 규모가 얼마 되지 않는 것 같지만 대한대우아파트는 안으로 들어가 보면 총 28개동에 1,293세대가 살고 있는 대규모 단지의 아파트이다. 1인 가구가 늘어나는 추세이기는 하지만 보통 한 가구의 평균 가족수를 3~4인 정도로 잡는데 그 기준으로 대략 계산해 보면 이 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민의 수는 많게는 5,000명, 박하게 잡아도 4,000명 가까이 된다. 2018년 2월 현재 매산동 주민의 총인구가 1만 3,000명 정도니까



대한방직 수원공장



대한대우아파트



대한방직 수원공장(대한방직, 『대한방직사(1953~1995)』, 1997)



대한대우아파트 주민이 매산동 인구의 30%가량을 차지하고 있는 셈이다.

현재는 매산동에 속해 있지만 초창기에 대한대우아파트는 두 개의 주소지를 갖고 있었다. 아파트의 절반은 매산로2가였고 나머지 절반은 세류1동이였다. 주민 입주 이전, 매산동과 세류동은 서로 대한대우아파트를 자신들의 동네 편입시키려고 신경전을 벌였다. 세류동 측은 공장이 가동되던 시절에는 공장이라는 시설이 주는 좋지 않은 이미지를 세류동에 떠넘기더니 그곳에 아파트가 개발이 되니까 매산동으로 편입시키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고 주장했고, 매산동 측은 주민 편의나 생활권 어느 쪽으로 생각해도 매산동으로 편입되는 것이 맞다는 주장을 했다.

세류동과 매산동의 신경전과는 별개로 대한대우아파트 주민들 대다수는 자신들이 사는 아파트가 매산동에 편입되기를 원하였다. 아파트에서 실시한 주민투표의 결과에 따라 대한대우아파트는 매산동으로 편입되었다. 공식명은 대한대우아파트지만 이곳 주민들은 자신들이 사는 아파트 이름이 푸르지오로 알려지기를 원한다. 주민들은 대한대우보다는 푸르지오라는 이름이 자신들이 사는 아파트의 가치를 더 잘 알릴 수 있는 이름이라고 생각한다. 푸르지오는 대우건설이 아파트에 친환경 개념을 도입하여 2003년부터 자신들이 짓는 아파트에 붙여 온 이름이다.

그렇다면 어째서 이 아파트에는 대한대우라는 이름이 붙었던 걸까. 1997년에 대우건설이 사업승인을 받아 1999년 12월에 준공을 마친 대한대우아파트가 들어서기 전, 그 자리에는 대한방직이라는 공장이 있었다. 대한방직은 설립 초기에는 광목이며 이불 안감이나 기저귀감 따위로 쓰는 소창, 실 등을 생산하는 섬유공장이었는데, 대한방직은 더 먼저는 대한방직이라고도 불렸다. 이 지역 사람들은 대한방직 자리를 치사골 혹은 기사골이라고도 부르기도 했다. 매산동과 세류동의 접경지역인 이곳은 지형상 깊은 골짜기여서 물이 많이 괴어 있었고 찬바람이 많이 불어 아주 추운 곳이었다. 죽을 듯이 추워서 치사골, 기를 쓰고 건너다니는 곳이라서 기사골이라는 별칭이 붙은 것이다.

지금도 치사골이니 기사골이니 하는 이름은 고사하고 그 자리에 대한방직이 있었다는 사실조차 사람들의 기억에서 희미해지고 있다. 1953년 8월에 설립되어 1954년 10월, 방직기계 1만 추의 시설을 갖춘 수원공장에서 조업을 시작한 대한방직은 1973년 12월에는 주식을 상장하여 기업을 공개하였다. 섬유산업의 최대 호황기는 1970년대였는데 수원의 대한방직 공장 역시 1980년대까지 국내 섬유생산 활동에 커다란 기여를 했다. 그러다가

3차 산업 위주로 변모해 가는 산업 환경, 그에 따른 인력 수급의 어려움, 채산성 악화 등 여러 요인으로 인하여 1996년 9월 대한방직 수원공장의 가동은 중단되었다.

2. 지나간 시대의 흔적

매산동과 세류동 걸쳐 대한방직이 자리해 있던 세월은 40년이 넘는다. 하지만 현재 그 시절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턱없이 부족하다. 전쟁으로 폐허가 되어 흙구덩이뿐인 세상에서 생활보다는 생존에 급급하며 미래로 가는 발걸음을 재촉했던 대한민국에서 지역을 불문하고 한국 현대사의 구체적인 현장과 그곳에서 일어났던 일들은 그 시대, 그 시절을 겪은 사람들의 기억에만 남아 있는지 모른다. 대한방직 수원공장 역시 그 존재 흔적을 짙막한 신문기사, 개괄된 몇 건의 자료 외에는 공장이 문을 닫은 자리에 대우건설이 지어 올린 아파트의 이름에서 간신히 확인할 수 있을 뿐이다.

1997년 10월 22일자 『매일경제』의 기사에 따르면 대한대우아파트의 공사 시행은 대한방직이, 시공은 대우건설이 한 것으로 되어 있다. 최종적으로는 아파트가 들어섰으나 대한방직주식회사는 가동을 중단한 공장 자리에 유통이나 외식사업 관련 시설 건설을 염두에 두기도 했다. 지금으로부터 한두 세대가 더 흐르고 나면 이곳의 지형과 환경, 명칭은 또 어떻게 변화할까.

수원을 대표하는 화가 이해균은 대한대우아파트가 들어서기 전후의 대한방직 일대를 그림으로 몇 점 남겼다. 그림 속, 재개발을 기다리는 동네의 풍경은 어수선하고 을씨년스럽기 짝이 없다. 이직을 계기로 1980년대 초에 서울에서 수원으로 입성했다는 이해균은 40년 가까이 수원을 근거지 삼아 자신만의 독특한 심상을 작품으로 구현하고 있는데, 문화 계간지 『수원사랑』에 실은 에세이 「수원에서의 첫날밤」에서 그는 대한방직을 잠깐 언급하고 있다.



대한방직 터에 아파트가 건설될 예정임을 알리는 기사 (『매일경제』, 1997년 10월 22일)



이해군 작사가 그린 대한방직 앞(이해군 제공)

나와 직장 동료들은 주말이면 매산시장을 찾는 게 유일한 낙이었다. 그곳엔 통닭집과 순댓국밥집이 늘어서 있었고 우리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시국과 청춘을 안주로 씨주를 마셔댔다. 대통령이 비명횡사하고 유신독재가 종식되는가 했더니 신군부가 광주사태를 촉발한 우울한 시대였다. 소래를 출발한 수인선 협궤열차가 세류동 종착역으로 건널목을 건너올 때, 매산시장 옆 대한방직에선 뿌연 연기가 피어오르고 찌들한 술집 선반엔 처음 나온 컬러 TV가 어색한 피부색을 드러내고 있었다.

1980년대 초반 수원역 일대의 풍경을 단편적으로나마 느낄 수 있다. 민자역사와 함께 2003년에 백화점이 들어서고, 연이어 쇼핑몰이며 영화관, 5성급 호텔까지 세워지면서 나날이 말쑥하고 세련된 모습으로 변모하고 있지만 1990년대 중반까지도 수원역 일대는

퇴락한 중소도시의 이미지를 강하게 풍기고 있었다. 그런 이미지 고착에 많은 영향을 끼친 것이 인근의 재래시장일 것이다. 재래시장은 매산시장과 역전시장으로 구분되고 있는데, 사실 두 시장의 경계를 명확하게 특정하기 어렵다. 출입구가 수원세무서와 가까운 쪽이 매산시장, AK플라자와 좀 더 가까운 쪽이 역전시장인데 이용객들에게는 매산시장이 역전시장이고 역전시장이 매산시장이다.

『수원을 걷는다—근대 수원 읽기』(한동민, 2012)를 보면 수원군 남부면 매산리는 1905년 경부철도가 지나고 철도역이 생기기 이전까지는 넓은 벌판에 채 몇 가구가 살지 않았던 한적한 마을이었다. 마을이 거의 형성되어 있지 않다가 일제강점기에 일본에 의해 개발이 진행된 곳이라 옛 지명이랄 것이 그다지 남아 있지 않다. 반월과 남양, 발안 등지로 오가는 유용한 길목이었던 매산리. 변변한 마을이 없었던 데다 일제강점기에 상업지역으로 급격히 발전하여 지명조차 오랜 세월 매산동으로 불리기보다는 매산로 몇 가라고 칭해졌으리라 짐작되는 매산동.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대한방직이 떠나고 난 뒤 들어선 대한대우아파트는 매산동 주민수 증가와 그 일대의 발전에 크나큰 일조를 한 것이다.



1974년 매산시장 뒤 대한방직 앞길(수원박물관 제공)

3. 뜨거웠던 청약 열기와 IMF사태



대한대우아파트 분양광고
(『한겨레』, 1997년 10월 27일)

분양 초반 대한대우아파트의 평당 공급가는 400만 원에서 430만 원으로 당시 수원 시내에서 분양되는 아파트 중 최고가였다고 한다. 1999년 12월 26일에 입주한 김광선(62세)은 수원 토박이이다. 연무동에서 태어나 남창동에서 어린 시절을 보낸 그는 결혼 이후 매탄 5단지 주공아파트에 살고 있었다. 어느 주말, 아내가 수원시청 앞에 있는 아파트 모텔하우스에 구경을 가져며 그의 손을 잡아끌었다. 그런데 구경을 하고 난 아내는 남편과 상의도 않고 몰래 청약을 넣었고, 덜컥 당첨이 되었다. 그리 된 것을 운명으로 받아들인 김광선은 계약금 3,000만 원에 대한대우아파트 계약했고 잔금을 치르기 위해 얼마간 빚을 내기도 냈다.

분양 당시 대한대우아파트의 평당 가격이 그렇게 높았던 이유 중 첫 번째는 대한대우아파트가 초역세권 아파트였기 때문이었다. 기차와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는

수원역과 2000년 초반에 이전하기는 했지만 분양 당시에는 시외버스터미널이 지근거리 에 있었고, 단지 앞 도로가 서부우회도로와 연결되어 신갈-안산 간 고속도로 진입이 수월한 사통팔달의 교통 여건을 갖췄던 것이다. 그런데다 1997년 말 착공하기로 한 민자역사에는 고급 백화점이 들어설 예정이었고 장을 보기에 편리한 재래시장까지 코앞에 있었다. 그만한 입지 조건과 생활환경이 갖춰진 아파트는 지금도 찾기 드물 것이다. 청약 열기가 뜨거웠다.

하지만 뜨겁던 청약 열기를 한순간에 식혀 버리는 역사적 사건이 터졌다. 바로 IMF 사태이다. 중도금을 치르지 못해 입주를 포기하는 사람들이 속출하였다. 중도금을 연체하면 이자가 30%까지 붙었는데, 이를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한 이들은 몇 천 만 원씩 밀지고 아파트를 되팔았다. 물론 이런 상황 덕분에 이익을 본 입주자도 여럿이었다. 하여간 김광선은 아파트 가격이 입주 당시에 비해 가격이 두 배 정도밖에 오르지 않았으며, 이렇게 입지 조건 좋고 살기 좋은 아파트가 제대로 평가되지 않고 있는 것에 불만을



수원역과 인접해 있는 대한대우아파트(수원시 포토뱅크 제공)

토로한다.

입주 초기에는 동 대표, 총무이사를 맡았고 최근에는 감사를 맡았던 김광선은 대한대우아파트를 보다 살기 좋은 아파트로 만들기 위해 동 대표를 비롯하여 주민들과 관리사무소가 화합하여 정말 많은 노력을 했다고 강조한다. 2008년 『수원일보』에 실린 기사에도 그 내용을 자세히 알 수 있다. 관리비용을 절약해서 모으고 바자회 수익을 합쳐 장학재단에 장학기금으로 기증하고 아파트에 거주하는 어르신들을 위해 봄가을로 효도관광을 떠나는 것부터 해서 다양한 봉사활동을 펼친 대한대우아파트 주민들은 2004년에는 음식물쓰레기 감량 우수단지로, 2006년에는 우수 단지로 선정되기도 했다.

내부구조는 평범하지만 여느 아파트에 견주어도 손색없이 견고하게 지어진 대한대우아파트. 28개 동이나 되다 보니 7~8년에 한 번 하는 아파트 외벽 도색도 만만치 않은 비용이 들어가는데 이 도색작업 하나만 해도 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 과정을 낱알이 공개하

고 페인트의 색깔이며, 제조 회사까지 꼼꼼하게 따져 진행한다. 청소 업체에게 용역을 줄 때도 수의계약을 하지는 않는지, 커미션이 오가는 것은 아닌지 철저하게 따진다. 그래서 아파트 관리 감사를 하는 날이면 관리소장이 벌벌 떴다고 한다. 그렇게 해야 주민들이 내는 관리비가 투명하고 꼭 필요한 곳에 쓰인다는 생각 때문이었다. 본인이 경리팀장 출신이기에 더더욱 사용내역을 꼼꼼하게 들여다볼 수 있었다는 말도 덧붙인다.

과연 대한대우아파트의 관리비부과명세서를 보니 주민들의 편의와 행복을 위해서 관리소와 입주자 대표, 그리고 주민들이 얼마나 노력해 왔는지 한눈에 보인다. 아파트 일정부터 경비원 근무시간과 휴게시간, 입주자 대표회의의 월별 활동사항을 비롯하여 공동생활을 위한 관리 규칙이 세심하고 보기 좋게 정리, 안내되어 있다. 관리비 역시 총괄표를 필두로 10쪽에 걸쳐 항목별로 자세하게 안내되어 있다. 특히 눈에 들어오는 안내사항은 동호회 안내와 맑은 물 공급 시스템 이용 안내이다. 주민의 건강과 화합을 위해 웬만한 상업시설보다도 좋은 시설을 갖추고 있는 곳이 대한대우아파트. 탁구장, 당구장, 테니스장은 대한대우아파트의 자랑거리이다. 4단계의 정수, 살균 시스템을 거쳐 주방으로 맑은 물이 바로 공급되고 있는 점도 놀랍기만 하다. 지은 지 20년이 다 돼 가지만 최근에 지어진 여느 아파트와 견주어도 손색없는 아파트가 대한대우아파트라는 점을 부인할 수가 없을 듯하다.

4. 혼란의 시기를 거쳐 화합과 안정의 나날로

어디든 혼란의 시기가 있기 마련이다. 대한대우아파트에도 입주 후 몇 년 간은 골치 아픈 문제들이 있었다. 2000년대 초반, 아파트 앞 도로에 수원역을 우회하는 고가가 세워지는 과정에서 수원시와 건설사, 주민 간에 갈등이 생겼다. 공사 소음이며 먼지에 시달리는 것은 둘째 치고 고가도로를 떠받치는 교각이 아파트 정문을 가로막아 시야가 완전히 막히고 출입에도 크나큰 불편을 겪었다. 여기저기서 주민들의 불만이 터져 나왔다. 자연스럽게 대책위원회가 꾸려졌다. 그런데 수원시의 무성의한 행정 처리와 건설사의 일방통행에 항의하고 시위를 하던 대책위원과 주민이 집시법 위반으로 소환조사를 받았다. 이 일로 한동안 아파트가 시끄러웠다.

시장으로 통하는 후문 쪽에 좌판에 생선을 놓고 파는 상인 때문에 오랫동안 골치를 썩힌 적도 있다. 장사를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위생 관리에 너무 무심정해서 여름이 아니

라도 악취가 사방으로 퍼졌다. 구정물과 생선 부속을 함부로 버린 탓이었다. 게다가 툭하면 장사를 내팽개치고 술에 취해 난동을 부려서 아파트 주민들이 몹시 난감해 했다. 지구대에 신고를 해도 그때뿐. 다행히 그 상인은 어느 날 어디론가 자취를 감추었다. 그것 말고도 후문 바로 앞에 땅을 몇 평을 사서, 일명 알 박기를 한 사람이 주민들의 출입을 막고 담까지 쌓아 놓고는 막대한 보상을 요구한 일도 있었다. 이 모든 게 지금은 다 웃으면서 말할 수 있는 옛날이야기가 되었지만 당시에는 참으로 속 시끄러운 일이었다.

대한대우아파트는 겉과 속이 많이 다른 아파트이다. 바깥에서 보면 아파트 바로 앞으로 도로가 겹으로 지나갈 뿐 아니라 시장과 역이 가까워서 소음이 심할 것이라 짐작되고, 아파트 안도 거의 온종일 봄비는 바깥과 마찬가지로 정작 안으로 들어가면 다른 세상이 펼쳐진다. 소음은커녕 널찍널찍한 아파트 안쪽에는 고즈넉한 평온함이 감

시장과 연접해 있는 아파트





2006 공동주택 우수관리단지 표지석

돈다. 잘 손질된 조경수, 어느 구석 하나 소홀하게 관리된 곳 없는 깔끔하고 쾌적한 내부가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다.

세대수에 비해 넉넉한 주차공간 덕분에 주민들이 주차문제로 시비를 할 일도 거의 없다. 지상에도 주차장이 있기는 있지만 지하주차장이 지하 2층까지 총 9개동이 마련되어 있다. 지상 주차장의 세 배가량이 지하 주차장이다. 그래

서 그런지 아파트 내부는 더욱 정돈된 느낌이 든다. 물론 명절에는 예외이다. 시집, 장가간 아들딸과 손주들이며 친척들이 찾아오면 아파트 안은 마구잡이 주차로 정신이 없다. 하지만 그때만은 관리사무소와 경비실에서도 주차 규정을 어긴 차들을 어느 정도까지는 눈감아 준다.

한 집에 차량이 한 대 이상은 필수인 시대에 평소에 주차문제로 시비를 겪지 않는 것만도 복 받은 일이다. 주차장이 넉넉한 덕분도 있지만 주차 관리도 철저하게 한 덕분이기도 하다. 아파트 경비실에는 나름의 주차 블랙리스트가 있다. 아파트 후문이 바로 매산시장과 연결되어 편리한 반면 외부인들이 암체 주차를 해서 불편을 겪기도 했다. 그래서 CCTV를 통해 주민이나 아파트 방문자가 아닌 사람들을 일일이 체크하였다. 주차를 하고 바로 후문으로 빠져나갔다가 한참 뒤에 돌아오는 사람들은 여지없었다. 아파트 출입구에 차단기를 도입한 것도 대한대우아파트가 수원시에서 처음이었다고 한다.

이런저런 사건들이 정리되고 7~8년 후부터 대한대우아파트는 안정을 찾았다. 가치 있는 아파트, 쾌적한 아파트, 살기 좋은 아파트를 만들기 위해 동 대표들이 솔선수범하여 주민들의 화합을 이끌어 냈다. 다른 도시의 어느 아파트에서 관리소장이 관리비를 아들의 유학비용으로 유용했다는 소문이 돌리던 때에도 대한대우아파트는 예외에 속하였다. 관리비 장부를 꼼꼼하게 확인하고 행여나 불합리하게 쓰이는 부분은 없는지 철저히 관리하였다. 자전거를 타고 돌며 일일이 주차 관리를 하고, 경비와 방법 부분도 특별히 신경 썼다. 2006년 12월, '공동주택 우수단지'로 선정되어 경기도지사로부터 표창을 받은 것을 기념하기 위해 아파트 주민들은 정문과 동문에 표지석을 세우고 하단에 동판을 새겨 넣었다.



대한대우아파트 단지 내부

5. 너무너무 좋아서 하는 동호회 활동

대한대우아파트만큼 동호회 활동이 활발한 아파트가 또 있을까. 대한대우아파트 안에는 산악회, 국선도, 마라톤, 요가, 헬스, 축구, 당구, 탁구, 테니스까지 모두 9개의 동호회가 있다. 회원들이 각자의 동호회에 애정을 가지고 잘 꾸려가고 있는 데다 운영을 모범적으로 잘하는 동호회는 아파트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지원해준다. 바깥 활동이 힘든 어르신들을 위해 대한대우아파트가 특별히 신경 쓰는 것이 동호회 활성화이다. 탁구며 당구, 테니스 등의 동호회에 가입한 대한대우아파트의 어르신들을 건강을 유지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그중 테니스 동호회는 입주 초기부터 지금까지 회원들 간의 끈끈한 유대감과 적극적인 참여로 잘 꾸려져 오는 동호회 중 하나이다. 입주 초기, 아직 아파트의 지원 체계가 마련되지 않았던 시절, 몇 천만 원이 드는 야간조명도 회장을 비롯한 회원들이 사비를 들여 설치하였다. 에폭시를 깔았던 바닥도 2004년에는 흙을 두텁게 깔아 회원들이 좀 더 편안하게 테니스를 칠 수 있도록 했다. 동호회 사무실 원편 창고에는 롤러에 석회가 차곡차곡 쌓여 있고, 사무실 오른쪽에 딸린 널찍한 화장실 공간에는 칸막이를 해서 한 달에 한 번 있는 동호회 회식 등을 준비하는 장소로도 쓰고 있다. 동호회 사무실 평상도 회원들이 짜 넣은 것이고, 이런저런 집기들도 회비로 마련하거나 회원들이 기증한 것이다.

허풍을 좀 보태자면 테니스 동호회 때문에 대한대우아파트로 이사 온 사람들도 있고, 이사를 가야 할 처지인데도 동호회 때문에 선뜻 이사를 못하는 사람도 있다고 한다. 그만큼 즐겁게 운동을 하고 사람들과 유대관계를 맺고 있는 것이다. 당구동호회의 경우, 처음 만들어졌을 때는 당구라는 스포츠에 대해 가지고 있는 잘못된 선입견 때문에 회원 모집이 어려워서 아파트 측에서 전기료를 감면해 주고 장비 구입에도 도움을 줬다. 테니스동호회는 초창기에서 형성된 동호회라 오히려 혜택을 못 받은 부분도 있지만 회원들이 알아서 부족한 것들을 채우면서 일상에서 쌓인 스트레스를 풀고 있다.

헬스나 당구, 탁구는 운동의 특성상 실내 공간에서 동호회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테니스동호회는 야외 공간을 사용하고 있다. 대한대우아파트 테니스동호회 ‘역전대우푸르지오테니스클럽’이 테니스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장소는 건물 2층 옥상이다. 하지만 흙이 깔려 있어서 여타의 야외 테니스장과 다를 바 없어 보인다. 그



탁구장



테니스장

런데 흥미로운 것은 예폭시였던 바닥에 흙을 깬 후 아파트 안에 있는 건물과 아파트 경계 바깥 주택의 옹벽 사이의 공간에 텃밭이 생겼다는 점이다. 테니스장에 매년 새로운 흙을 덮어 주는 과정에서 나온 여분의 흙을 바깥으로 쓸어내다 보니 건물과 맞붙은 옹벽 사이에 작물을 심을 만한 밭이 만들어진 것이다. 누군가가 여주를 올려 심기도 했고 회원들이 상추는 물론 배추며 무, 오이, 토마토, 파까지 씨앗과 모종을 가져와 심고 가꾸어 수확한 덕분에 고기를 굽는 잔치를 할 때면 야채 걱정이 없다. 최근에는 감나무 묘목도 한 그루 심었다.

6. 이동지역 또는 소비지역이라는 이미지

대한대우아파트에 살아서 좋은 점 중 하나가 “수원 지역 어디에 가서 술을 마셔도 밤 12시까지 수원역에 도착하는 버스가 있어서 택시비가 절약된다.”는 것이라는 김광선. 우스갯소리처럼 내뱉은 말이지만 정말 그렇다. 교통편이 좋다 한들 여기만큼 좋은 곳이 또 있을까. 수원역은 그야말로 경기 남부 교통의 중심지 중의 중심지이다. 수원역에서 시내 버스를 타고 갈 수 없는 수원 지역은 없다. 또한 수원역에서는 모든 상하행선 기차와 전철을 탈 수 있으며 2013년에 개통한 분당선도 이용할 수 있다. 수원-부산 간 KTX가 수원역에 정차하기 시작한 해가 2010년이다. 광역버스가 강남과 사당, 잠실을 수시로 오갈 뿐 아니라 안산, 시흥, 안양, 금정, 범계 방면과 인천, 부천, 주안 방면, 성남, 모란 방면, 병점, 동탄, 오산, 화성, 평택 등으로도 손쉽게 이동할 수 있다. 2000년대 초 자리를 옮긴 시외버스터미널조차 대중교통으로 5분이면 도착할 수 있다.

수원역은 환상적인 교통편뿐 아니라 쇼핑의 천국이기도 하다. 오랜 전통의 재래시장을 벗어나면 곧바로 AK플라자, AK&, CGV, 노보텔 엠베서더, 롯데백화점, 롯데몰, 롯데마트, 롯데시네마가 경쟁하듯 유혹의 손짓을 한껏 보내고 있는 곳이다. 2018년에는 노보텔 엠베서더 뒤편 금강고려화학이 있던 자리에 KCC몰이 문을 열 예정이라고 한다. 대한대우아파트 103동 앞에 서면 역전시장 사이 골목으로 AK플라자 건물과 간판이 직통으로 보인다. 다양한 먹을거리와 외식장소를 원한다면 수원역 버스정류장 뒤편에서 수원세무서까지 이어진 먹자골목을 찾아도 좋다. 수십 년 된 순댓국밥집에서부터 끊임없이 새로운 맛을 추구하는 젊은이들의 입맛을 사로잡는 다양한 식당들이 즐비하다.

하지만 빛이 있으면 반드시 그들이 존재하는 것이 사람살이의 법칙이다. 편리한 교통 조건과 쇼핑 1번지라는 입지 조건을 모두가 매력적으로 여기지는 않는 듯하다. 바로 그런 조건 때문에 이곳에 살지 않는 사람들은 수원역 일대를 이동지역과 소비지역으로만 강하게 인식한다. 토박이들보다는 뜨내기들이 이곳을 삶의 터전으로 삼는 이유도 그 때문인지 모른다. 역전시장 한편에는 이곳이 대한민국이 맞나 싶을 정도로 다양한 언어가 쓰인 간판들을 볼 수 있다. 수원 어느 지역보다 중국이며 베트남, 말레이시아 등 동남아 쪽 이방인들을 많이 볼 수 있는 곳이 수원역이다. 이동과 쇼핑을 하러 수원역을 찾기는 하지만 사는 곳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수원역에 들어서 있는 대한대우아파트의 존재는 그래서 특별하다.

하지만 이곳에도 부족한 것이 있다. 바로 학교. 이동과 소비가 주를 이루는 곳이다 보니 아이들을 학교 문제가 학령기 아이들을 둔 이곳 부모들의 고민이다. 아파트 내 어린이집 수가 6개이고 깨끗하고 안전한 놀이터가 여러 개 있어 입학 전 어린아이들을 키우기에는 좋지만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면서부터 젊은 부모들 대다수가 중고등학교 진학까지 염두에 두고 갈등을 한다. 관리사무소 건물 내에서 운영되고 있는 어린이집에 아이를 보내고 있는 박정윤(38세)은 2000년에 부모님을 따라 이 아파트에 입주하였다. 결혼을 해서도 친정 부모님과 같이 살고 있는 박정윤은 사는 데 큰 불편함이나 어려움을 느끼지 않는다고 한다.

대한대우아파트 주변 환경



대학에 다닐 때는 안성에 있는 대학을 오가기 편한 데다 수원시립도서관이 가까워서 좋았고 지금은 재래시장과 쇼핑센터가 가까이 있어서 좋다. 하지만 아이가 조금 더 자라면 박정윤도 고민에 빠질지 모른다. 대한대우아파트에서 가까운 초등학교는 두 곳이다. 매산초등학교와 세류초등학교. 거리상으로는 크게 차이가 나지 않지만 길을 덜 건넌다는 점에서 학부모들은 심리적으로 세류초등학교를 더 가깝게 여긴다. 하지만 중학교부터가 문제다. 인근의 중학교라곤 세류중학교 단 한 곳이다. 중학교만이 문제가 아니다. 고등학교는 더 멀리 가야 한다. 그래서 대한대우아파트의 젊은 부부들 중에 아이가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기 전에 이사를 가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한다.

7. 걸어서 가는 팔달산, 수원천, 광고저수지

하지만 이십대 초반에 이사와 20년 가까이 이곳에서 살아온 박정윤은 적응이 되어서 그런 건지 몰라도 대한대우아파트에 사는 게 참 좋다고 한다. 단지가 커서 아파트를 서너 바퀴만 돌아도 운동이 되는 것도 좋다. 주차장이 주로 지하에 있어서 산책을 하면서 신경을 곤두세우지 않아도 된다. 아이들도 자전거며 킥보드, 인라인스케이트를 타고 많이 돌아다닌다. 날이 좋으면 수원천 쪽으로 산책을 가도 되고 도청 너머 팔달산도 지척이다. 산책 겸 시립도서관에 들러 책을 빌리고 오는 길에 간단하게 장을 보기도 좋다. 몇 발짝 걸어만 나가면 시장이니 장 보는 문제로 신경을 쓴 적은 거의 없다.

대학생일 때 이사를 온 때문인지 박정윤은 사실 대한대우아파트보다도 아파트 정문을 나서면 바로 보이던, 수원역에서 세류동 방면으로 주르륵 서 있던 스쿨버스 정류장 애기부터 꺼냈다. 수원 인근의 대학이라는 대학은 모두 수원역에 스쿨버스 정류장을 두고 학생들을 캠퍼스로 실어 날랐다. 지금이야 광역버스 정류장이 수원 시내 요지에 포진되어 있어 통학이 수월해졌지만 수원 시내 교통망과 시설이 지금과는 많이 달랐던 시절,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거주 학생들 대부분은 수원역을 거쳐야만 수원시와 인근 지역의 학교에 갈 수 있었다. 수원역의 먹자골목은 어쩌면 수원역을 이용하는 무수한 대학생들 때문에 형성되고 유지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1999년 12월 17일에 대한대우아파트에 입주한 하정숙(65세)은 서울 독산동에 살다가 집을 옮겨야 할 사정이 생겨 수원으로 이사를 온 케이스이다. 그런데 처음부터 수원

으로 이사할 계획은 아니었다. 서울 소재 대학에 다니는 큰아이 통학 때문에 시흥역, 관악역을 거쳐 역 주변 거주지를 알아보며 내려오다가 우연히 대한대우아파트를 구입하게 된 것이다. 길 건너 동남아파트를 구입할까도 생각했지만 당시 중학생, 고등학생이던 둘째와 셋째 아이가 기차길 아래 굴다리로 통학하는 게 위험하지 않을까 하여 대한대우아파트로 눈을 돌렸다. 그런데 부동산을 찾아간 하정숙은 전에 살던 집이 팔리지 않아 분양받은 집에 이사를 못하게 되었다며 급매로 시세보다 싸게 내놓은 집을 우연히 만났다. 그것이 행운의 시작이라고 생각하고 수원으로 이사를 했다. 그렇게 해서 하정숙은 아무 연고도 없는 수원에 정착하였다.

하정숙 역시 산책을 좋아한다고 한다. 버스를 탈 필요 없이 슬슬 걸어 도청 길로 올라가서 서장대를 찍고, 행궁길을 돌아서 지동시장에서 순댓국밥을 먹고 오면 2시간 코스이다. 수원천을 따라 아래쪽으로 쪽 내려가면 비행장 앞 안동네까지 갈 수 있는데 길 끝 왼쪽에 미나리밭이 있어서 이따금 싱싱한 미나리를 박스 채 사들고 오고, 시간이 넉넉할 때는 지동시장에서 천변을 따라 광고저수지까지 걸어갔다 오기도 한다. 아파트 주변을 조금만 벗어나면 산책할 수 있는 길들이 많아서 너무 좋다.

8. 살기 좋은 아파트를 위해 솔선수범한 주민들

하정숙 역시 지금은 이 아파트에 사는 것을 자랑스러워 하지만 이사를 온 당시만 해도 아파트 앞 고가를 세우는 공사가 막 진행되던 때라 먼지가 펄펄 날리고 있어서 한편으로는 이런 먼지 구덩이에서 어떻게 사나 싶어 서글프기도 했다. 게다가 그때는 비가 오면 매산시장 제일곱창 부근의 하수구가 툭 하면 막혀서 역류하였다. 심할 때는 물이 종아리까지 차올랐다. 후문 쪽 상가건물은 개인이 분양받은 건물인데 입주 초창기에 한 유치원 원장이 유치원을 하려고 건물을 샀다가 허가가 안 나서 되팔고 나갔다. 앞서 언급했듯 후문 쪽은 시장인데 당시 그곳에는 동양회관이라는 나이트클럽이 있었다. 아이들 교육상 좋지 않다는 평가를 받은 것이다. 재래시장이 가깝다는 게 크나큰 장점이기도 하지만 모든 게 다 좋을 수는 없다.

24통 통장을 맡고 있는 하정숙은 부녀회에서 오랫동안 부회장과 총무로 일을 해 왔고 지금은 단지 내 자율방범대에서도 맹렬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2007년 9월에 조직된 자



대한대우아파트

울방법대는 대장, 분대장, 부분대장까지 있고 총 6분대까지 있는데 1분대는 6~7명으로 구성된다. 안전한 아파트를 만들겠다는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낮에도 밤에도 시간대 별로 아파트 곳곳을 순찰을 돌면서 어디 이상 있는 곳은 없는지 살핀다. 경찰 지구대와 협력하여 합동 순찰을 할 때도 있다. 대한대우아파트의 자율방법대가 이렇게 활발하게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 초창기 몇 년 동안은 경찰 순찰차가 하룻밤에도 몇 번씩 아파트 안으로 들어오는 일이 있었다. 아파트 주민이 아닌 사람이 아파트 안 놀이터에 술판을 벌이다가 술에 취해 주민에게 시비를 걸거나 자기들끼리 싸우는 일이 있었기 때문이다.

대한대우아파트에 사는 주민이라고 하면 좋은 데 살고 계시다는 소리를 듣는다고 한

다. 이곳이 좋은 아파트라는 것이 알게 모르게 소문이 났는가 보다. 주민들의 헌신과 노력이 없었다면 그런 평가를 받지 못했을 수도 있다. 자율방법대는 한 달에 16만 원을 아파트로부터 보조받는데 야광봉 배터리며 전기충 등 망가지고 소모되는 방법 물품을 보충하고 나면 돈이 부족해서 자율방법 활동에 참여한 주민들이 돈을 내고 방법활동을 할 때도 있다. 아파트에 대한 애정이 없으면 가능하지 않은 일이다. 대한대우아파트의 치안 상태는 지구대 팀장에게도 인정받았다. 하지만 예전에는 널찍하고 컸던 방법사무실이 최소한으로 축소되어 버렸다. 예전 방법사무실이 불법 건물이라며 주민 한 명이 시청에 신고를 했기 때문이다. 이전에 쓰던 컨테이너는 옮겨서 청소하는 분들의 쉼터로 사용하고 있다.

방법활동을 하면서 별일을 다 겪었다. 주취 행패는 말할 것도 없고 늦은 밤 놀이터의 원통형 미끄럼틀 안에서 애정행각을 벌이는 사람들도 종종 볼 수 있었다. 젊은 친구들부터 나이든 사람들까지 주민인가 싶어서 몇 동에 사느냐고 물어보면 얼굴을 보면 영락없이 외부인이었다. 지금은 활발한 방법 활동이 소문이 났는지 낮 뜨거운 일이나 난감한 상황이 거의 발생하지 않지만 대한대우아파트 주변 주택에 사는, 트레이닝 복 바람에 슬리퍼를 신고 갈 만한 곳이 마땅치 않은 사람들이 날이 어두워지면 아파트 놀이터에 자주 놀러 왔다. 아파트에서 주변 주택들로 이어진 길이 있었기 때문이다.

지금은 방법활동에 힘을 쏟고 있지만 하정숙은 한때 대한대우아파트 부녀회의 봉사활동에 열과 성을 쏟았다. 현재 대한대우아파트에 부녀회는 없다. 토요일에 열리는 1일 장터를 비롯하여 부녀회에서 하던 일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진행, 관리한다. 부녀회 시절, 아파트 어르신들을 위해 복달임 행사를 할 때도 품이 이만저만 드는 게 아니었다. 행사 당일 10시 반부터 와서 기다리는 어르신들을 빨리 잡숫게 하려면 전날 저녁부터 분주하다. 수백 마리나 되는 닭을 손질하여 사람도 들어갈 만한 들통 세 개에 나누어 삶았는데, 밤새 불침번을 서며 확인하였다. 닭은 삶아서 건져 놓고 육수는 따로 만들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한꺼번에 들이닥치는 어르신들을 바로바로 대접할 수 없다. 삼계탕을 대접하려면 삼계탕만 필요한 게 아니다. 걸절이부터 다른 반찬까지 일일이 손이 가야 한다. 아파트에서 내려오는 돈이 모자라 부녀회 기금을 보태서 행사를 진행한 적도 있다.

9. 한 번 살아 보고 싶은 아파트

대한대우아파트 출입구는 총 3곳이다. 정문, 동문, 후문. 수원역 우회도로 쪽으로 정문과 동문이 있고, 재래시장 쪽에 있는 것이 후문이다. 차를 가지고 아파트에 방문하려면 동문으로 들어가야 한다. 사는 사람들이야 구조를 아니까 별 불편함을 느끼지 못하지만 대한대우아파트를 처음 방문하는 중에 입구 찾기가 불편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 외부에서 내비게이션을 보고 찾아올 때 눈에 띄는 이정표가 없어서 입구를 지나쳐버리는 경우가 있는 것이다. 2000년대 초반 아파트 정문을 103동 앞으로 바꾸려는 시도가 있었다. 하지만 만장일치가 아니며 안 된다는 조건에 당시 103동에 사는 주민 딱 한 명이 반대를 해서 일이 무산되었다고 한다. 지금은 다들 후회를 한다. 103동 앞은 터가 넓어서 아파트 행사도 그곳에서 자주 하는데 그때 입구를 바꿨더라면 접근성이 훨씬 좋아졌을 텐데 말이다. 사설안내표지판을 세우려는 시도도 있었지만 시의 규정에 따라 점용료를 내야 한다는 말에 설치를 반대하는 주민이 있어 안내표지판 설치는 백지화된 상태이다.

아파트 안은 조용하기 이를 데 없지만 사실 길가 쪽 동 주민들은 어느 정도의 소음을 감수하고 산다. 방음벽이 설치되어 있기는 한데 소음이 완벽하게 차단되지는 않는다. 그래서 재작년과 작년에 걸쳐 시에 건의를 해서 방음벽을 좀 더 높였다. 주민들은 고가에 뚜껑을 설치해 달라고 요구했으나 예산상의 문제로 그 부분은 거절당하였다. 방음벽을 높이면서 조망권과 일조권 보호를 위해 방음벽은 투명한 소재로 변경되었는데, 그 때문에 사생활 침해 논란도 좀 있었다. 속도를 내고 달리는 차량에서 아파트 내부가 들여다보일 리 없겠으나 사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심리적으로 거슬릴 것이다. 부족한 점들을 보완하며 살기 좋은 아파트를 만들어 왔는데 이 문제도 시간이 지나면 좀 더 나은 쪽으로 해결되지 않을까 싶다.

대한대우아파트 주민들의 평균 연령은 좀 높은 편이다. 아무래도 아이들 학교 문제를 간과할 수는 없다. 젊은 부부들은 아이가 저학년 때까지는 잘 살다가 고학년이 되기 전에 이사를 나가는 비율이 높다. 학교 문제만 아니라면 다들 이곳에서 오래오래 살고 싶어 한다. 주민들 간의 화합도 잘 되어서 오순도순 얼굴 붉힐 일 없이 사는 곳이 대한대우아파트이기 때문이다. 최저임금 인상 때문에 경비 인력을 줄이거나 전원 해고했다는 뉴스로 한동안 떠들썩하였다. 대한대우아파트에서도 2017년 12월 말, 경비원 인원 감축 문제를 두고 주민투표를 했다. 결과는 전원 계속 고용. 관리비를 절약하는 것은 좋은 일이



정문 쪽 아파트

지만 그 또한 다함께 살아가는 주민들을 위한 일이듯 그동안 아파트 관리를 위해 밤낮과 계절을 가리지 않고 수고해 준 이들을 하루아침에 해고하는 것은 사람의 도리가 아니라고 주민들은 판단한 것 같다.

아파트 살이에 지친 사람들이 단독주택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는 기사를 본 적 있다. 하지만 이런 아파트에 산다면 이사 갈 생각을 선뜻 못할 것 같다. 인터뷰를 하는 동안 서로서로 오가는 아파트 주민들의 인사말과 분위기를 보니, 말로만 살기 좋은 아파트, 주민들이 화합하는 아파트가 아닌 것이 느껴졌다. 기회가 된다면 이 아파트에 살아보고 싶다.

05 수원 다문화 1번지

매산동의 화교문화와 수원시 한국계 중국인 주거지 분포 특성과 형성 요인 중국동포거리의 형성과 지속

● 매산동의 화교문화와 송무반점

● ● 수원시 한국계 중국인 주거지 분포 특성과 형성 요인

● ● ● 중국동포거리의 형성과 지속



이승연 화성시사면찬위원회 연구원

제1장

매산동의 화교문화와 송무반점

1. 우리 곁의 이웃, 화교

세계화의 시대라고 불리는 요즘, 한국은 단일 민족국가에서 다민족 국가로 변화하고 있다. 한국에 장기체류하는 외국인 근로자들, 다문화 가정, 사업차 한국을 방문하는 이들 등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인구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특히 1982년 중국정부가 공식적으로 조선족의 한국 친척 방문을 허용하고, 1988년 서울올림픽 이래로 고향방문, 노동이주, 유학 등의 목적으로 한국으로 대거 이동하기 시작하면서 조선족의 한국 체류가 급증하고 있다.¹⁾

통계청이 발표한 '2017 인구주택총조사 등록센서스 방식 집계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외국인은 147만 9,000명이다. 이 중 62.2%가 수도권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시군구별로는 안산에 5만 5,061명으로 전체 외국인 인구의 4.7%인 가장 많은 숫자가 거주한다. 그 다음이 우리가 살고 있는 수원시로 전체 외국인 중 3.3%가 살고 있다.²⁾ 통계자료에 따르면 2018년 8월 수원시 거주 외국인 주민은 3만 9,549명으로 수원시 총 인구 124만 2,638명의 3.18%에 해당한다.³⁾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다문화의 시작은 언제부터였을까? 1980~1990년대까지만 해도 '한국에 살고 있는 외국인'이라고 하면 떠오르는 이들 중 하나가 바로 '화교'라는 존재



중국 국민당 주한 직속지부 수원분부 제5계 당원대회 출석당원(수원화교협회 제공)

였다. 1990년대 이후 외국인이 대거 유입되기 전까지만 해도 국내 거주 외국인은 일본인, 미국인, 화교가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그래서 화교들은 본인들이야말로 한국 다문화의 시초이자 상징이라고 말한다.

중장년 이상의 연령층에게 화교가 운영하는 중식당, 화교 연예인, 화교 학교는 꽤 익숙한 존재이다. 현재 한국에 거주하는 전체 외국인 비율 중 화교가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낮음에도 존재감은 적지 않다. 「신세계」, 「인간중독」 등 몇몇 영화의 극중 주인공이 화교 신분이고, 유명 가수, 텔런트, 기업인들 중에도 화교가 있다. 그러다 보니 실제 우리 곁에 거주하는 숫자보다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느끼는 화교의 비중은 더욱 크다고 하겠다.

화교(華僑)란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들을 일컫는가? 일반적으로 중국 국적을 가지고 다른 나라에 정착하여 그 나라에서 활동하는 사람을 화교라고 부른다. 화교의 '화(華)'는 중국을 뜻하며, '교(僑)'는 "일시적으로 집을 떠나 머문다."는 의미로 외국에 있는 중국인



수원화교청년반공구국회 행사(수원화교협회 제공)

을 법적으로 인정해 주는 호칭이다.⁴⁾ 19세기 말까지 화교는 외교관의 신분으로 외국에 거주하는 특정인을 가리키다가 1893년 청국이 '외국여행금지법'을 폐지하고, 1896년 일본과 '교역 및 선박조약'을 체결하면서 외국에 있는 모든 중국인을 화교로 규정한 후 일반인을 가리키는 것으로 대상이 확대되었다. 한국전쟁 후 남북이 분단되고, 중국에서 공산당 정권과 국민당 정권이 분리되면서 냉전체제가 형성되었을 때, 별다른 신분증 없이 지내던 국내 거주 화교들은 1954년 당시 중화민국 총영사관의 '화교거주허가증'을 발급받으면서 법적인 의미에서 '중화민국 국민'이 되었다. 이런 상황에 의해 19세기 말부터 1950년대 중반까지 한국으로 이주한 중국인과 그 후손으로 지금까지 '대만(중화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이들을 가리켜 '화교'라고 부른다.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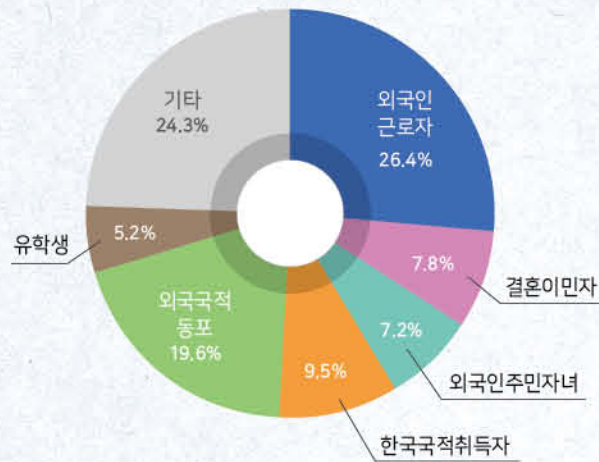
1883년 민간 화교 이주자는 209명이었다. 1910년 '한일합방', 1931년 '만보산 사건', 1931년 '만주사변', 1937년 '중일전쟁' 등으로 화교 중 일부가 중국으로 귀국하기도 했지

만, 중국 국내 정세로 인한 정치적·경제적 목적으로 조선으로 향하는 중국인이 많았기 때문에 국내 거주 화교는 꾸준히 증가하였다. 1907년 7,902명에서 1912년 1만 5,517명, 1922년 3만 826명, 1930년 6만 9,109명으로 상당히 빠르게 증가하다가 1930년대 초반 화교에 대한 일본의 노골적인 탄압과 조선인과의 갈등으로 3년 사이에 화교 인구의 절반 가량이 감소하였다. 국내 화교는 1933년 3만 7,732명을 기록한 후 다시 증가 추세를 보 였지만 광복 직전인 1942년 8만 2,661명을 정점으로 화교 인구는 다시 감소하였으며, 남 북분단 직후 남한에는 불과 1만 7,687명의 화교가 남아 있었다. 종전 시 연합군을 따라 북한에서 남한으로 이주한 화교들이 더해져 1954년 2만 2,000명까지 증가하였다. 이승 만 정부가 이민규제정책을 실시한 이후 화교 인구는 외부로부터의 추가 유입 없이 자연 증가에만 의존하게 되었다.⁶⁾ 화교 숫자는 점차 줄어 2018년 6월 30일 현재 등록외국인 으로 그 규모를 추정하면 2만 326명 정도이다.⁷⁾

화교는 서울을 제외하면 인천에 가장 밀집되어 있는데, 수원에도 일부 거주하고 있다. 수원에서 팔달구는 특히 외국인들이 많은 곳으로, 곳곳에서 중국어 간판을 찾아볼 수 있 으며 한국어와 중국어가 뒤섞여 들리는 공간이다. 수원역이 자리 잡고 있는 교통의 요충 지인 매산동, 교동, 고등동은 특히 중국인들이 몰려드는 공간이다. 중국인에 비하면 비 중은 적지만 대만 국적의 화교들 역시 팔달구에 가장 많이 거주하고 있다. 2018년 7월 31일 기준, 팔달구 등록 외국인 합계는 1만 4,762명으로 중국이 1만 3,470명, 베트남이 252명, 대만이 113명이다. 팔달구 인구는 총 19만 9,268명으로 남성 10만 939명, 여성 9 만 8,329명으로,⁸⁾ 팔달구 전체 인구 중 등록 외국인이 7.4%에 달한다.

표 1 수원시 등록 외국인 현황(2018년 8월 31일 기준)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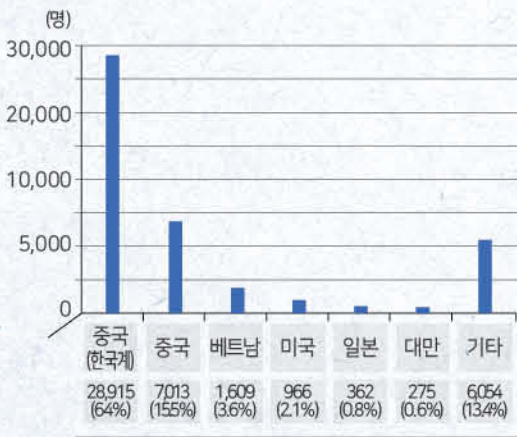
(단위 : 명)												
구분	합계	중국	미국	일본	베트남	독일	필리핀	영국	프랑스	대만	인도네시아	기타
합계	39,549	28,337	375	517	2,640	27	399	82	35	382	98	6,657
장안구	7,121	4,715	64	63	1,060	5	79	20	4	96	29	986
권선구	10,355	8,613	46	94	574	7	164	9	2	69	18	759
팔달구	14,736	13,464	56	58	258	3	65	17	4	114	14	683
영통구	7,337	1,545	209	302	748	12	91	36	25	103	37	4,2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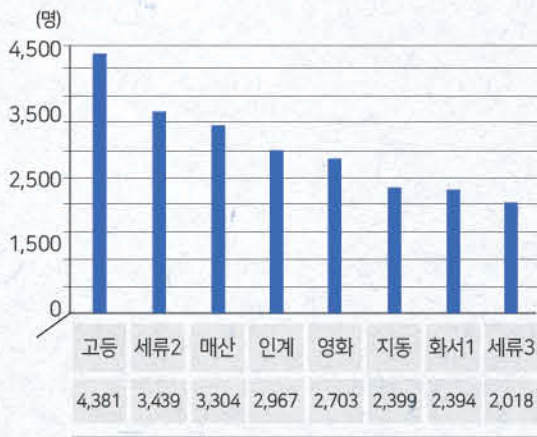
● 외국인근로자	14,311명	(26.4%)
● 결혼이민자	4,245명	(7.8%)
● 외국인주민자녀	3,921명	(7.2%)
● 한국국적취득자	5,169명	(9.5%)
● 외국국적동포	10,629명	(19.6%)
● 유학생	2,818명	(5.2%)
● 기타	13,191명	(24.3%)

*기타 : 기업투자, 취재 등 체류자

국적별 외국인 주민 (2016년 11월 1일 기준)



외국인 주민 집중거주지역



수원에, 매산동에 화교가 들어온 것은 언제부터이며 이들은 어떻게 정착하였을까? 매 산동 일대 중식당인 송무반점, 장서원, 중화원, 동해장, 만빈원, 덕성원 등은 수원 주민 들의 입맛을 사로잡은 화교 식당이었다. 다문화로 익숙한 매산동에 가장 일찍 들어와 뿌

리를 내린 외국인이자 우리의 이웃으로 자리 잡은 화교에 대하여 알아보자. 이를 위해 1950년에 수원으로 이주하여 5대째 거주하고 있는 유기서 가족의 삶을 통해 매산동 화교사회의 모습을 살펴보고자 한다. 수원에 삶의 뿌리를 내려 수원토박이로 정착한 한편 이 사회의 이방인인 화교로서의 정체성도 지키고 있는 유기서의 삶은 수원 화교의 이주와 정착사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사례이다.

표 2 화교 유기서 가족의 삶

세대	생애
1세대 유여동 (유기서의 할아버지)	• 산둥성 푸산현 출신 조부(유여동)는 산둥성과 한국을 오가며 무역활동 • 1940년대 중후반 공산당과 국민당간의 내전 속에서 가족을 데리고 중국을 떠나 한국으로 이주. 서울에 정착 • 한국전쟁 시기 서울에서 수원으로 이주
2세대 유시천 (유기서의 아버지)	• 15세에 아버지를 따라 한국으로 이주 • 한국전쟁 시기 부친과 함께 수원으로 이주 • 중식당에 취업하여 주방 일을 함 • 화교 출신 여성과 결혼 • 1954년 6월 수원역 건너편에 '송무반점' 개업 • 아버지, 어머니, 부인과 함께 가족 중심으로 운영
3세대 유기서 (본인)	• 1951년 수원 남문 인근에서 출생 • 수원화교중정소학교 졸업(13기) • 서울로 유학하여 한국한성화교중고등학교 졸업 • 성균관대학교 졸업 • '송무반점'을 물려받아 부모와 함께 운영 • 『일간경기』 기자활동 • 수원화교중정소학교 교장 역임(1994~1998년) • 2012년 9월 5일 송무반점 폐업 • 대만인 며느리, 한국인 사위를 둠
4세대 유기서의 자녀	• 아들 : 대만의 대학으로 진학, 대만에서 현지 여성과 결혼하여 정착 • 딸 : 한국인 남성과 결혼하여 수원에 거주
5세대 유기서의 손주	• 대만과 수원에 골고루 거주 • 수원에 거주하는 유기서의 손주들은 수원 화교 5세대에 해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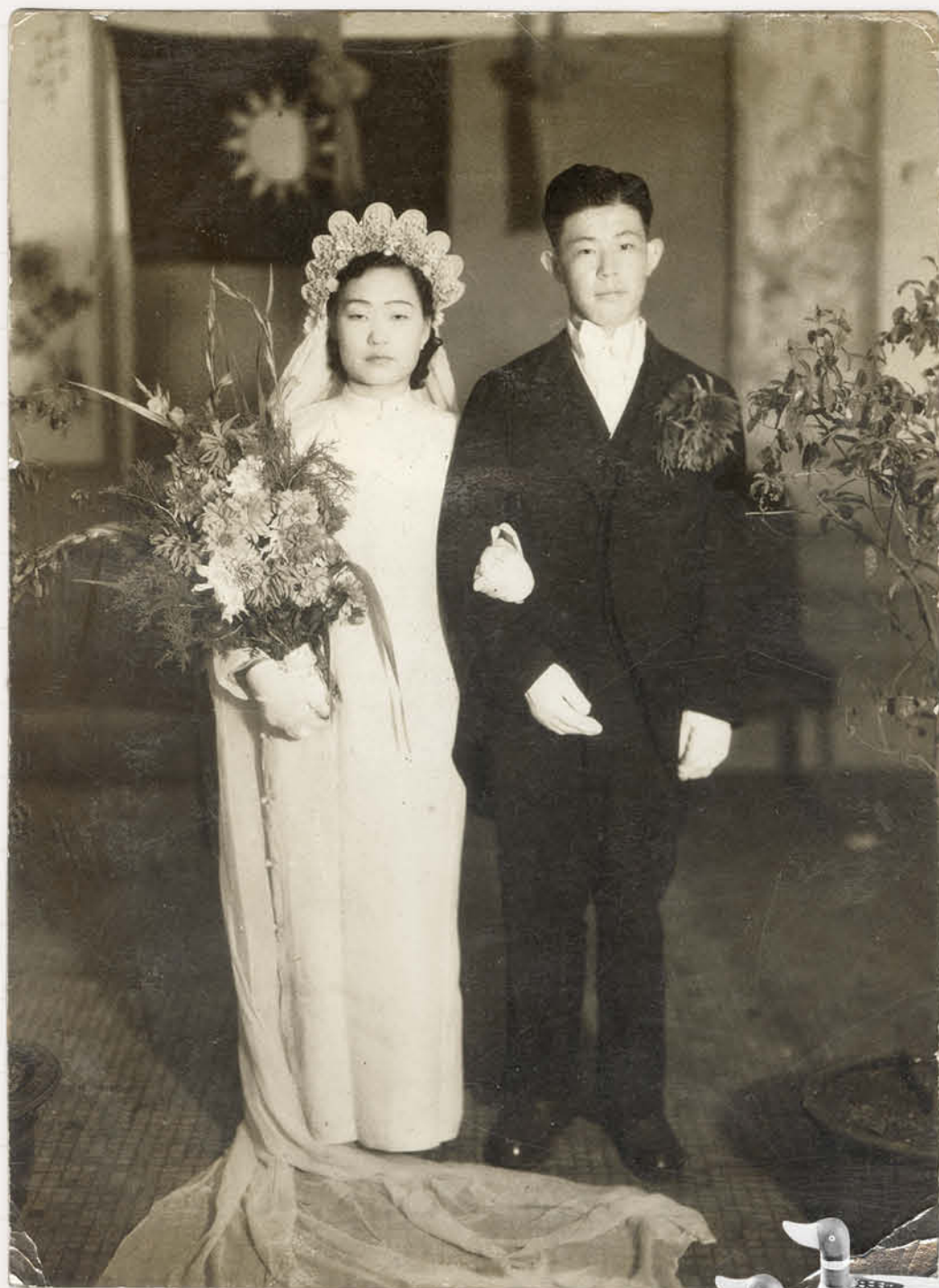
2. 유기서 가족을 통해 본 화교문화와 정체성

1) 매산동 일대 화교사회의 형성

유기서의 할아버지인 유여동의 삶의 행적을 통해 화교 1세대가 수원 매산동으로 들어온 경로와 정착 과정을 살펴보겠다. 산둥성 푸산현(福山縣) 출신의 유여동은 무역회사 소속으로 산둥성과 한국을 오가며 물건을 사고팔던 인물이다. 중국은 국민당과 공산당 사이의 갈등으로 크게 3차례에 걸쳐 국공내전이 벌어졌다. 일본이 항복한 이후인 1946년부터 1949년까지 4년에 걸친 결전 속에서 국민당을 지지하던 유여동은 어지러운 중국 국내 상황을 피하여 한국으로 이주하였다. 한국의 1세대 화교들은 대부분 산둥성 출신으로 유여동과 마찬가지로 생계를 위해 산둥성과 인천을 오가며 장사를 하거나, 중국 내 사회 혼란 속에서 군 입대를 피하기 위해, 혹은 중국 국민당 신분으로 한국에 왔다. 수원 화교도 약 97%가 산둥성 출신으로 유기서의 가정은 수원 화교 이주의 원형이라 할 수 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한국은 남북으로, 중국은 중국과 대만으로 분열되고 냉전체제가 시작되었다. 본인들의 고향인 중국 본토가 공산국가가 되자 한국의 화교들은 적국으로 간주되는 중국으로의 입국이 불가능해졌다. 그래서 원래 고향이 아닌, 자유주의 국가인 '대만'의 국적을 갖게 되었다. 고향인 산둥성 가족과의 교류도 끊어졌다.

유기서 할아버님은 무역회사에서 근무하며 산둥성과 한국을 오가며 한국 물건을 중국으로, 중국 물건을 한국으로 옮겼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서울에 계시다가 6·25전쟁이 나는 바람에 수원에 정착했습니다. 저는 1952년 수원 영동에서 났습니다. 어머니는 외할아버지하고 둘만 오시다가 큰외삼촌, 작은외삼촌은 못 나왔어요. 어머니는 외할아버지 따라왔다가 전쟁 나는 바람에 못 돌아가셨어요.

화교 1~2세대들은 서울이나 인천에 처음 정착했다가 생업을 찾아 인접 도시로 이동하였다. 이들은 이방인으로서 언어 소통에 어려움이 있었고, 외국인에 대한 차별로 취업에도 한계가 있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농업에 종사하거나, 중식당에 취업 혹은 개업하였다.



유시천과 손수영



15세에 아버지를 따라 중국에서 나와 한국에 정착한 유기서의 부친 유시천은 남의 집 가사일을 도와주던 화교 여성과 중매로 만나 가정을 꾸렸다. 그는 중식당에 취업하여 기술을 배우다가 1954년 수원역 건너편 매산동에 중식당을 차렸다. 자본금이 부족하여 6개월치 월급을 미리 받아 가게 잔금을 치르고, 월세로 가게를 시작하였다. 유기서의 고모부도 비슷한 방법으로 수원 남문에서 가게를 열었다. 두 가족 모두 당시 수원에서 가장 교통이 편리한 번화가에 자리를 잡은 셈이다. 그렇지만 역전 주변은 1960~1970년대까지만 해도 시골이었고, 지금처럼 장사가 번창하지는 않았다고 한다.

유기서 집 살 때 잔금 30여 만 원을 마련할 길이 막막하여서, 큰 식당의 지배인을 잘 알았어요. 요리 잘하는 거 알았어요. "장사가 시원찮으면 다시 와서 일해라." 당시 역전은 매우 시골이었어요. 고등학생 때 친구들이 시골 놀러오면 남문으로 옵니다. 역전은 가로등 하나, 건물은 1층, 키 봐야 역전 앞 태양당구장, 다방 있던 곳이 2층 목조건물이었어요. 나머지는 모두 단층이었어요. 저희 집은 논 있던 곳. 가로등도 희미한 시골이었습시다.

수원 시민들의 입맛을 사로잡으며 명성을 얻은 송무반점의 시작은 이렇게 빛과 월세로 시작되었다. 담배인삼공사(전매청)가 역전에 있던 시절, 이곳 직원들은 송무반점의 주요 고객이었다. 유기서의 아버지 유여동은 이윤이 다소 줄더라도, 장인정신을 가지고 요리하면서 한국 중식당과는 조금 다른 화교 중식당으로서의 맛과 정체성을 만들어냈다. 본격적으로 장사가 잘 된 것은 2000년대로 접어들면서였다.

유기서 원래 짜장은 달지 않습니다. 짜장면은 캐러멜소스를 넣지 않습니다. 저희 식당은 달지 않았습니다. 익혀서 볶은 짜장은 고소하고 담백합니다. 꺾바유(꺾바로우)는 중국식 탕수육으로 바삭하고 맛있습시다. 비결은 전분, 불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은 전분가루를 100% 쓰는 사람이 없는데 저희는 서울 소공동의 동일상회에서 100% 찌리를 사왔습시다. 제주도에서 원 전분을 가져옵니다. 우리 아버지는 장인정신으로 만들어야지, 팔보채 해물 들어간 거에서 한 가지 재료라도 없으면 안 팔았어요. 다른 걸로 해도 되는데 장인정신으로요. 팔래도 양심적으로 팔아서 벌어야 된다, 하나 모자란다, 비싸다고 재료를 빼면 맛도 없고 질도 떨어져서 안 된다고 했어요.



1954년경 송무반점

자유당 정권, 박정희 정권 아래에서 화교들은 몇 차례 어려움을 겪었다. 1953년과 1962년 두 차례에 걸쳐 실시된 화폐개혁, 1960년 외국인 토지소유금지법, 1970년 외국인의 점포를 50평으로 제한한 법, 1973년 양곡을 절약한다며 중식당에서 쌀밥 판매가 금지된 것, 물가 안정을 내세워 짜장면 가격 인상이 동결되면서 화교들은 식당 운영과 재산 증식에 한계를 느꼈다. 당시 많은 화교들이 미국이나 대만으로 떠났다. 수원에서도 세 가구가 이민을 떠났다. 화교가 두드러지게 성공하지 못한 유일한 나라 중 하나가 한국이라고 한다.

유기서 박정희 대통령 때 중국집에서 밥을 못하게 했어요. 면과 탕수육. 밥은 수, 토요일 못 팔게 했어요. 볶음밥을 못 팔았어요. 인조쌀밥, 밀가루로 볶아서 팔았어요. 잡곡밥, 보리, 섞어야 되었어요. 위생과에서 나와서 조사했습니다. 세금관계에서도 차별을 많이 받았어요. 돈이 시중에 돌지 않는다는 소문, 화교들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않고 그냥 집에 쌓아둬서라는. 그래서 화폐개혁을 했으나 실패했어요. 실제로 화교들은 돈이 별로 없었어요.

대학 졸업 후 유기서는 조부와 부친이 운영하던 송무반점을 물려받아 운영하였다. 화교 2~3세대들은 한국에서 대학을 졸업하여도 외국인이라는 신분적 한계 때문에 취업이 제한되었다. 한-중 통역과 번역 등으로 기업에 입사해도 승진 등에서 차별이 있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대학 전공이나 적성과 상관없이 중식당을 운영할 수밖에 없었다. 짜장면 대신 피자, 햄버거로 입맛이 바뀌고 외식사업 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하루 종일 가게에 매여 있는 삶에 대한 피로감 때문에 유기서는 2012년 9월 폐업하였다. 3대에 걸쳐 가족이 운영했던 송무반점의 요리비법은 7년간 이 식당에서 일했던 중국인 요리사에게 전수하였다. 장서원, 중화원, 덕성원 등 매산동의 화교 중식당들은 하나 둘씩 문을 닫아 지금은 남아 있는 곳이 없다. 이들은 고객 유치에서는 서로 경쟁관계였지만, 좁은 화교 사회에서 교류하고 의지하며 살았다. 유기서는 중국 음식이 먹고 싶은 날이면 같은 화교 중식당으로 아직까지 영업하고 있는 팔달문 부근의 영화루에 가곤 한다. 대를 이어온 중국요리의 맛을 느끼며, 과거를 추억한다.

유기서 화교중식당이 역전 밑으로 장서원, 중화원, 덕성원이 있었어요. 주인들끼리 경



1995년 송무반점(수원시 포토뱅크 제공)

정관계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교류를 잘 했어요. 다 없어지고 남아 있는 화교중식당이 없습니다. 중식당 자체가 사양길이에요. 식당 운영은 개인시간도 없지요.

2) 결혼과 장례문화 : 전통과 변화의 기로에서

화교들이 전통을 지키고 정체성을 유지하는 모습은 평범한 일상보다는 결혼이나 장례 같은 관혼상제를 통해 잘 드러난다. 화교들은 1~2세대까지만 하더라도 같은 화교들끼리의 결혼을 선호하고 장려하였지만 지금은 한국인, 대만인, 중국인, 미국인 등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과 결혼한다. 언젠가 고향인 중국으로 돌아가서 살겠다는 생각, 한국은 임시로 거주하는 곳이라고 여기던 화교 1~2세대들은 고령으로 작고했거나 이미 한국에서 60~70년을 살아온 이들이다. 이제는 한국사회에 대부분 동화되었고, 수원 지역에 뿌리내렸다는 생각에 손주들의 결혼에 대해 당사자들의 선택과 취향을 존중하는 분위기가

다. 수원 화교 3세대인 유기서 역시 본인은 화교와 결혼하였지만, 대만에 거주하는 대만 국적 며느리와 한국인 사위를 두었다. 결혼할 때 화교 혼주는 중국 전통의 상인 치파오를 입고, 한국식 결혼을 하더라도 중식당에서 따로 화려하게 피로연을 여는 등의 방식으로 전통을 지켰다. 요즘은 일반 예식장에서 한국식 결혼을 하고, 뒷풀이도 생략하는 경우가 증가한다.

유기서 화교 혼주는 치파오를 입습니다. 중국 측 어머니는 치파오, 한국 측 어머니는 양장이나 한복을 입어요. 며느리에게도 치파오를 입혀 줍니다. 시집오면 중국 사람 며느리가 되니까요. 치파오는 대만에 가서 사옵니다. 요즘은 일반예식장에서 현대식으로 합니다. 뒷풀이는 따로 하는 거 없어요. 웨딩드레스 입고합니다. 서울의 동창들 중에 혼주가 동창들에게 차 마시라고 50만 원씩 줍니다. 나머지 돈은 동창기금에 들어갑니다.



결혼 당시 원천저수지에서 유기서와 부인 임미화

화교들의 단결력은 슬프고 외로운 순간, 무엇보다도 장례식에서 잘 드러났다. 경기도청에서 수원과 인접한 화성시의 양감면에 화교 묘역을 빌려준 적이 있다. 수원 화교 1~2세대들의 약 90%는 양감면 화교묘지에서 중국 산동식 전통에 따라 장례를 치렀다. 여가상, 우치민 등 화교 2~3세대들이 상주를 도와 장례의식을 주도하면서 많은 도움을 줬다.

유기서 화교들은 경조사 때 단결을 잘 한다는데, 지금도 그렇습니다. 한국인들도 한인회를 만들어서 서로 왕래 하듯이요. 장례도 중국식으로 지냅니다. 장례문화가 한국과 서로 다르잖아요. 장례에 해박한 우치민 씨, 여가상 씨 등이 주로 도와줍니다. 요즘은 장례식장을 통해서 납골당을 통해서도 하구요, 분산되어 있습니다. 관리는 없습니다. 협회에서 관리하다 관리인이 돌아가신 후 없습니다. 별초는 자손들이 알아서 합니다. 산소 앞 등은 예전에 무 증심을 파서 기름 부어서 불 피워서 산소 앞에 뒀습



결혼 피로연 때 치파오를 입고 하객에게 인사하는 신부



고등반점 여가상 부친상 노제(여가상 제공)



결혼식 피로연



묘를 쓰고 묘제를 지내는 모습(여가상 제공)

화교 2~3세대까지는 관혼상제나 세시풍속에서 화교 정체성을 유지하며 ‘화교다움’을 허물어트리지 않고 있다. 그렇지만 화교들은 앞으로 이러한 문화가 점차 없어질 것이라 예상한다. 장례문화가 매장문화에서 화장문화로 바뀌고 있고, 결혼 예식도 일반 예식장에서 많이들 하기 때문이다. 현재 화교사회에서 전통을 지키며 연락책을 맡는 등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는 60대가 노쇠해지면, 다음 세대가 과연 이를 유지할지 우려한다.

유기서 앞으로는 중국식 전통이 많이 없어지겠죠. 지금 부모 세대가 자식을 기르고, 그 자식이 또 가르쳐야 되는데 그런 경우가 많지 않아요.

3) 화교학교와 교육 : 화교로서 정체성을 유지하는 원동력

고국을 떠나 해외에서 살아가는 이들이 정체성을 확립하고 공동체를 유지하는 데 가장 필요로 하는 요소는 무엇일까? 많은 이들이 교육과 문화행사를 꼽는다.

화교 1~2세대 중에서는 한국에서 수십 년을 거주했지만 한국어를 능통하게 하지 못하는 이들이 있다. 유기서의 아버지도 15세에 한국으로 들어와 청년기를 보냈지만, 한국어가 능통하지 않았다. 하루 종일 식당 주방 안에서 음식을 만들었고, 시간이 날 때면 주로 같은 화교들과 교류하여 한국말을 충분히 익힐 기회가 없었다고 한다. 반면 수원에서 출생한 유기서는 어린 시절부터 동네 친구들과 어울리며 비슷한 유년기를 보냈고 일찍이 한국어를 습득하였다. 그러나 한국 학교에 진학하지 않고, 부모의 바램대로 화교학교에 진학해 대만식 교육을 받았다. 수원 화교 어린이들은 대부분 팔달구 교동에 위치한 수원 화교중정소학교로 진학하였다. 1942년 개교한 이 학교는 기숙사가 있어 수원 뿐 아니라 여주, 이천, 안양, 평택 등 인근 도시에서도 많이 진학하던 곳이었다. 한때는 최고인원수가 270명에 달했다고 한다. 초등학교에 해당하는 소학교를 졸업하자, 수원에 중고등학교 과정의 화교학교가 없었기에 서울로 유학하여 기숙사 생활을 했다. 유기서가 진학할 당시 화교 청소년들의 거의 100%가 서울로 유학했다고 한다. 중국, 한국의 정세가 바뀌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 살게 될 날이 올 리도 모른다는 생각에 부모 세대들은 자녀에게 중국인으로서의 교육을 시키고자 하였다. 유기서는 화교중정소학교 13기 졸업생인데 그 해 졸업 동기들은 모두 서울로 유학하였다.



수원화교중정소학교 준공식(수원화교협회 제공)

수원 화교 학생들이 마땅히 진학할 학교가 없어 서울까지 유학 가는 것에 대해 화교사회는 안타까움을 느꼈다. 남문 근처에서 한의원을 운영하며 재력가가 된 마수신이라는 화교 한 명이 보리밭 5,000평을 매입하여 학교 부지로 기증하고, 교사들의 월급도 부담해 주겠다고 제안하였다. 기독교인이던 그는 학교에서 매주 토요일 1시간씩 기독교 교육을 실시하자는 조건을 내걸었다. 화교협회 관계자들, 화교사회의 어른들은 고심 끝에 이를 거부해서 학교 설립은 무산되었다.

화교학교의 학부모들은 평동과 세류동에서 농사를 짓거나 중식당을 운영하던 이들이 대부분이었다. 부모들은 자녀들이 외국인이라는 차별 없이 직업 선택의 자유를 갖고, 자신보다 나은 삶을 살길 희망하였다. 더 많은 선택지를 갖길 바라는 마음에서 대만이나 미국으로 유학을 보내기도 하였다. 유기서의 중정소학교 졸업 동기 13명 중 현재 한국에 거주하는 이는 3분의 2 정도이다. 나머지는 대만으로 진학해서 취업을 하고 정착하기도 했고, 미국으로 이민을 떠나기도 하였다. 유기서 본인은 한국에서 대학을 졸업하였지만,



세류동에서 농사를 지었던 수원 화교(수원화교협회 제공)

아들은 대만으로 유학을 보냈다. 자녀가 한국에서 대학 입학할 경우 많은 부모들은 의약계열로 진학하길 희망하였다. 부모 모두 화교인 경우는 국내 대학에 진학할 때 정원 외 특례전형에 해당하였다.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은 한의대로 진학하여 수원이나 인근 도시에서 개업하였다.

유기서 제가 대학 다닐 때는 취업이 안 되었습니다. 취업 시험 볼 때 외국인은 안 받는다고 했구요, 식당 운영이 유일한 직업이었어요. 그러니 자녀를 대만에 보낼 생각이 들었어요. 화교중정소학교 동창동문회 13기인데 13명 정도 졸업했습니다. 현재 한국에 2/3 이상 거주해요. 대만 유학 간 여학생이 그쪽에서 결혼하고, 대만으로 진학해서 취업한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자식들을 대만 대학으로 유학 보냈어요. 그곳에서 취업하도록 했습니다. 아들은 대만에서, 며느리도 대만 출신 며느리입니다. 국적이 대만이라서 자리 잡기가 쉬운 편이었어요.



수원화교중정소학교 초창기 건물(수원화교협회 제공)



수원화교중정소학교 건물

매산동 화교들은 화교사회를 지탱하고 중국인으로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하는 원동력으로 화교소학교의 존재를 꼽았다. 소학교 6년 교육을 마치면 중국 역사와 문화 등에 대한 기본 지식을 습득하고, 평생 중국어를 잊어버리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수준이 된다. 이는 중국 산둥성에 뿌리를 둔 화교로서 살아가게 하는 가장 기본 요소로 작용한다.

4) 경제적·법적 차별 속 화교사회의 단결과 지속

현재 한국에 거주하는 화교들의 90% 가까이는 한국에서 태어나고 자란 사람들이다. 수원 화교들 역시 70대 이상의 고령을 제외하고는 한국에서 출생하여 평범한 수원 시민과 똑같이 수원이라는 공간에서 삶을 영위하고 있다. 그렇지만 이 사회에서 외국인이자 이방인이라는 것을 느낄 때도 많다. 주로 경제적, 법적인 부분에서 한국인과 다른 잣대가 적용된다는 점에어서이다.

법무부는 1949년 ‘외국인의 입국출국과 등록에 관한 법률’을 제정·공포하여 한국 거주 외국인은 매년 체류기간 연장 허가를 받게 됐다. 외환을 교환할 때 정부에 등록해야 했으며, 화교 신규 이주 금지, 창고 봉쇄 조치가 연이어 실시되었다. 1957년에는 ‘무역법’이 되어 사실상 화교 상인들의 대외 무역을 금지하였다. 1961년 제정·공포된 ‘외국인토지법’으로 화교를 포함한 외국인들은 ‘합법적’ 방법으로 한국 내 신규 토지 취득이 금지되었다. 1968년 규제가 완화됐지만 거주용은 200평, 상업용은 50평까지만 취득을 허가하였다. 화교 숫자와 경제력에 대하여 한국정부는 경각심을 갖고 있었고, 많은 화교들은 경제적 제재를 피해 대만이나 미국으로 이주하면서 인구가 감소하였다. 해외 화교들이 큰 자본력으로 유명한 것에 비해 한국 화교들은 주로 중소기업의 중국집을 운영하며 소박하게 살게 되었다. 한국 정부의 차별 조치는 화교 인구수 변화에도 영향을 끼쳤다. 화교들은 재산세, 주민세를 내고 있지만 은행 대출, 기초생활수급, 장애인 등록이 금지된 존재였다. 증가일로이던 화교 인구는 1972년 3만 2,989명으로 정점을 찍은 후 감소세로 돌아서서 2018년 4월 현재 한성화교협회 비공식 추산 화교(대만 국적 보유자)는 2만 1,000명 선이다.¹⁰⁾

역사적 고난과 사회·경제적 차별 속에서 화교사회는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내부의 단결과 지속을 강화하였다. 외국인 신분이기때 식당 개업, 급한 의료비 지출, 경조사 등 목돈이 들어갈 때 일반 금융권의 도움을 받기 힘들다. 그래서 수원화교들은 계를 운

영하며 돈을 모아 급전이 필요한 사람을 도와줬다. 화교 공동체의 이러한 역할은 수십 년에 걸친 세월동안 화교사회가 붕괴되지 않고, 수원에 뿌리 내려 5~6대까지 내려오게 하는데 큰 몫을 하였다.

유기서 현재 제가 갖고 있는 화교 연락처는 200명 정도입니다. 수원 화교들끼리는 대부분 서로 알고 지냅니다. 한국인들도 해외에 나가면 한인회를 만들어서 서로 왕래 하듯이요, (한국은 화교에게) 외국이므로 우리를 도와주지 않습니다. 화교들은 은행 대출이 어려웠기에 서로 도와주면서 잘 살게 되었어요. 화교들끼리의 계가 있어서 서로 도와줍니다. 낙찰계예요. 돈을 모아서 가게를 하나 낸다든지 합니다.

한국의 국적법은 속인주의이므로, 한국에서 태어난 화교들은 모두 중화민국 국적이 고, 화교들은 F2 장기 거주 사증을 취득하여 2년마다 갱신하며 생활하였다. 2002년 영주거주비자(F5) 제도가 신설되었는데, F5는 한국에서 원하는 만큼 거주해도 좋다는 영주비자로, 거주비자(F2) 취득 5년이 지난 외국인에게 발급된다. 이와 더불어 ‘외국인등록증’ 제도가 시행되면서 장기 거주 외국인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화교들이 혜택을 입게 됐다. 그런데 일상생활 속에서 외국인등록증이 주민등록증과 같은 역할을 하지 못하기에 인터넷 사용, 전자상거래가 불가능하거나 제약이 따랐다.¹¹⁾ 한국 국적취득을 희망하여도 고위공무원의 신원보증을 요구했고, 귀화 절차가 너무 까다로워 중도에 포기하는 자들이 많았다. 다행히 최근에는 많이 완화되어 국적을 취득하고 정식 대한민국 국민이 되는 화교가 증가하고 있다.

유기서 원래 한국에서 태어난 사람에겐 한국 국적을 줘야 합니다. 1970년대는 한국 국적을 받으려면 1급 공무원 2명의 보증이 있어야 했어요. 국회의원이 누가 보증을 써줍니까? 지금은 완화되었지만 요새도 국적을 신청하면 1~2년 기다려야 됩니다.

수원화교협회는 과거에는 등기부등본 등 서류를 발급하는 일을 했는데 요즘은 외국인 등록증이 있어 협회를 거치지 않고, 관공서에 가서 직접 발급받을 수 있다. 화교협회가 하는 공식적인 업무는 많이 줄어들었으며, 회원 동향에 변동이 있거나 경조사가 있을 때 이를 일괄적으로 연락해 주는 일을 주로 담당한다. 우편물로 배송하던 각종 공지사항,

소식들을 요즘은 핸드폰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등으로 보낸다. 별도의 협회 사무실을 운영하지 않고, 수원화교중정소학교 교무실을 함께 사용하고 있다. 협회 회비가 없고 운영비가 없어 봉급 지급을 할 수 없으니 실무를 담당할 총무를 뽑기도 곤란하다. 수원화교 협회 회장은 선출직으로 척명운이 6년째 업무를 맡아 하고 있다. 앞으로 누가 이 일을 할지, 과연 하겠다는 사람이 있을지 우려되는 상황이다.

유기서 중화인민공화국 부대사를 만나서 지원해 달라고 하고 10만 인민폐 지원받은 적이 있어요. 운영이 어렵다 보니까 봉급 지급이 안 되어서 총무도 없었습니다. 협회는 돌아가며 선출직이고, 할 사람이 없습니다. 봉사직입니다. 척 선생님 다음 대에는 누가 될지 모르겠어요.

외국인등록증에는 이름을 영어명으로 표기하도록 한다. 중국계일 경우 현지어 표기 원칙에 따라 중국식 발음대로 표기해야 한다. 한국에서 ‘강’씨라고 부르고 표기하는 것이, 외국인등록증에서는 ‘장’씨가 되어 버렸다.

유기서 외국인등록증은 발음이 중국어 발음으로 되어 있습니다. 외국인등록증도 2년에 한 번씩 갱신합니다. F2 당시예요. 지금은 F5비자는 영주권이에요. 10년에 한 번씩 바꾸자는 제안이 있어요. 외국인에게 F5비자를 줬어요.

수원에 65세 이상 화교는 이제 7~8명밖에 남아 있지 않다. 귀화가 쉽지 않고, 투표권도 없이 평생을 지낸 고령의 화교들은 2006년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처음으로 투표권을 얻었다. 대부분의 외국인이 국내에서 임시 거주하거나 영주권 취득 대신 귀화를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외국인 투표권’의 혜택을 받게 된 외국인은 대만 국적의 화교가 많다. 화교들은 정부의 화교 차별 정책이 철폐·완화되고 있다고 기뻐했으며, 무엇보다 투표권을 통해 한국에 대한 소속감과 참여의식이 강해진다고 크게 환영하였다.

유기서 수원에 65세 이상 화교는 이제 7~8명밖에 없어요. 수원에는 화교뿐 아니라 외국인근로자, 다문화가정이 많죠.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가, 수원시 자치단체에서도 관심을 가져줘야 합니다.

3. 수원에서 5대째, 추억을 공유하다

1954년 문을 연 송무반점은 할아버지, 아버지, 본인까지 3대에 걸쳐 가족 중심으로 운영되다가 2012년 폐업하며 사라졌다. 매산로1가 37-15번지 송무반점이 있던 자리에는 현재 족발집이 입점해 있으며, 주말이면 젊은이들로 발 디딜 틈 없이 복잡하다. 3~4년이 멀다 하고 새로운 가게가 등장하고, 어디보다도 유행의 흐름에 민감한 곳이 되었다.

화교중식당에서 짜장면, 팔보채, 탕수육을 먹던 고령층들은 옛날 맛이 그림다며 식당 문을 왜 닫았냐고 종종 항의 섞인 문의를 하곤 한다. 유기서는 수원 주민들의 오랜 추억이 깃든 식당을 본인 대에서 폐업했다는 것에 일말의 미안한 감정을 느끼고 있다. 그렇지만 사양길에 접어든 중식당을 운영하면서 하루 종일 가게에 매여 있는 삶에 불안함과 피로감을 느꼈기에 후회하지는 않는다.

유기서 지금은 매산동 역전 중심으로 화교가 하는 중식당이 없습니다. 안타깝지만 장사하다가 사양길을 느꼈어요. 젊은이들은 안 합니다. 식당일은 부부, 자녀와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주말도 없고, 야외에 갈 수도 없어요. 한 달에 2번 쉬었어요. 구정 때 일주일, 추석 때 3일 쉬구요. 식당을 폐업하고 어머니 모시고 집사람이랑 3명이 함께 할 때가 가장 행복하고 즐거웠어요.

유기서를 비롯한 수원 화교들은 부모세대의 고향인 중국 산둥성을 찾아가 남아 있는 친척들을 방문하곤 한다. 이들 친척과는 혈연관계도 있고, 중국어로 서로 대화가 가능하지만, 수십 년이라는 세월의 장벽 속에서 문화적 차이와 이질감도 생겼다. 삶의 터전은 이미 수원이 되었기에 수원의 교통, 경제, 거리 변화, 환경 등이 훨씬 더 피부에 와 닿는다.

유기서 (산둥성 친척들을 만나) 반가운 것은 없었습니다. 저하고 정이 없으니까요. 그냥 아버지 말씀하신 대로 기억 가지고 가본 거예요. 물어보고 물어봐서 마을을 찾았어요. 아버님은 외아들이고, 고모가 두 분이세요. 사촌 형제분들이 계세요. 존함을 기억하고 있었어요. 마을에서 당숙님 네 분을 만났어요. 처음 방문할 때는요, 무작정 가는 거죠. 갖고 있는 건 돈이 있거든요. 달려로 집집마다 한 200불씩 드렸죠. 환전해서 쓰라구요. 그 당시만 해도 산둥성에서도 달러 갖고 환전하는 게 쉽지 않았어요. 당숙



폐업 전 송무반점

들도, 형제들도, 뭐 좋아하는지 몰라서요, 옷 사이즈도 몰라서 갈 때마다 용돈을 드립니다.

62년간 정통 중화요리의 명성을 유지하며 수원 시민들의 입맛을 사로잡았던 식당은 이제 없어졌다. 수원역 전의 역사를 고스란히 알고 있는 가게 사장님, 짜장면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던 시절 굶주린 배를 채우던 곳이 사라진 것은 아쉬운 일이다. 수원 화교의 존재와 역사를 가장 잘 보여 주는 상징적인 공간이 중식당이 없어지면서 화교의 존재를 느낄 기회도 사라지고 있다. 그렇지만 화교 3세대인 유기서는 화교이자 수원 시민으로서 지역사회에 녹아들어 열심히 활동하고 있다. 매산동 일대 화교들은 화교라는 정체성 외에도 팔달구의 주민, 대학 동문회의 일원, 종교단체의 신도 등 다양한 정체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성균관대 수원동문회, 수원시청 아마복싱연맹 등에 소속된 유기서는 친목회에 참여하고 봉사활동도 한다. 그는 중국집 문은 닫았지만, 대학 동문회나 모임에서 봉사활동을 할 때면 짜장면 요리를 도맡아 하면서 재능기부를 한다.

유기서 지난달에 최전방 21사단에 짜장면 봉사를 나갔습니다. 5번째 갔어요. 성대 수원동문회도 돈독합니다. 동네 친목회도 돈독합니다. 어렸을 때 운동도 했었고요, 수원 대표선수로 출전도 했습니다. 수원시청 아마복싱연맹 수석부회장도 맡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경찰서, 경찰청, 법원에서 통역봉사를 하기도 했습니다. 초창기 중국교포들이 많이 왔을 때 통역을 해 줬어요. 요즘은 조선족 숫자가 많고 자치조직이 있기에 안 도와줘도 됩니다.

다문화사회로 가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 되고 있다. 우리는 바야흐로 세계 시민의 시대로 변하는 현장을 함께하고 있다. 화교들은 본인들을 외국인, 이방인에서



족발집으로 변한 송무반점 건물

수원에 정착한 첫 세대라고 말한다. 매산동 구석구석에는 오늘도 외국어 간판과 외국인 숫자가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모습에 불안감을 호소하는 이들도 많이 있다. 화교들은 지금의 현상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 이들은 한국을 찾는 이방인들과 평화롭게 공존하며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어 가자고 목소리를 낸다. 매산동을 근거지로 성실하고 근면하게 살아가는 이들, 같은 공간에서 추억과 웃음과 슬픔을 나누는 이들을 따뜻한 시선으로 포용하는 것, 세계화 시대를 살아가는 주민의 자세가 아닐까.

- 1)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2009년도 출입국·외국인정책통계연보』, 2009, 262쪽.
- 2) 『인구주택총조사』 서울 영등포구 주민 8명 중 1명은 외국인, 『이데일리』, 2018년 8월 27일.
- 3) 『통계로 보는 수원』(<http://stat.suwon.go.kr/stat/index.do>), 2018년 8월 31일 기준.
- 4) 박은경, 『한국 화교의 종족성』, 한국연구원, 1986, 21쪽.
- 5) 박현옥 외, 『한국화교(인천화교)의 경제활동 및 사회적 지위에 관한 연구』, 인천발전연구원, 2003, 9쪽.
- 6) 박현옥 외, 『한국화교(인천화교)의 경제활동 및 사회적 지위에 관한 연구』, 인천발전연구원, 2003, 19쪽.
- 7) 『등록외국인 지역별 현황』(2018년 6월 말 현재), 『법무부 통계자료』(<http://www.moj.go.kr/>)에 따르면 등록외국인은 총 119만 8,900명(남성 68만 7,674명, 여성 51만 1,226명)으로, 한국계 중국인이 33만 5,805명, 중국인이 20만 4,619명, 대만인(타이완)이 2만 326명이다.
- 8) 『통계로 보는 수원』(<http://stat.suwon.go.kr/stat/stats/statsView.do?categorySeqNo=234>).
- 9) 『통계로 보는 수원』(<http://stat.suwon.go.kr/stat/stats/statsView.do?categorySeqNo=234>).
- 10) 『한국의 '오랜' 이방인, 화교의 어제와 오늘』, 『신동아』, 2018년 5월 13일.
- 11) 『한국의 '오랜' 이방인, 화교의 어제와 오늘』, 『신동아』, 2018년 5월 13일.



황성표 수원 영덕고등학교 교사

제2장

수원시 한국계 중국인 주거지 분포 특성과 형성 요인

세계화의 흐름과 국내의 외국인 유입 정책이 맞물려 우리나라의 외국인 수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법무부의 통계¹⁾에 따르면 2016년 6월 말 현재 우리나라의 체류외국인은 최초로 200만 명을 넘어섰다.

등록외국인은 2014년에 100만 명을 넘었고, 2016년 6월 현재 114만여 명에 달하고 있다. 이들은 수도권에 60%가 넘게 집중되어 있고, 국적별로 살펴보면 1위는 중국인²⁾으로 55만여 명에 달한다. 중국인이 많은 이유는 지리적 인접성을 비롯해 중국인 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한국계 중국인의 언어·문화적 동질성 및 우리 정부의 한국계 중국인에 대한 개방적인 유인 정책³⁾ 때문이다.

경기도 수원시의 경우 행정자치부 통계⁴⁾에 따르면 외국인수(4만 6,172명)가 도내에서 안산(7만 108명) 다음으로 많고, 외국인 중 중국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81.0%로 서울(71.2%)이나 안산(74.2%)의 중국인 비중에 비해 높다. 그리고 외국인의 증가로 인한 도시경관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데, 수원에서는 한국계 중국인이 그 변화를 주도하고 있다.

특히, 수원역 인근의 매산동은 외국인이 운영하는 상점의 증가가 눈에 띄게 나타난다. 한국계 중국인이 운영하는 중국 식당, 중국 슈퍼마켓 등이 다수 입점한 거리는 ‘조선족 거리’라고도 불린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한국계 중국인⁵⁾을 대상으로 주거지 분포 특성

과 그러한 분포 특성이 나타나게 된 형성 요인을 고찰하고자 한다.

이 연구에서는 한국계 중국인 주거지 분포와 공간적 분리(격리)에 관련된 이론적 고찰과 선행연구를 검토하였고, 수원시 한국계 중국인 분포 현황에 대한 통계 분석 및 패턴 분석을 시도하였다. 그리고 한국계 중국인 주거지 분포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변수들을 설정하고, 한국계 중국인의 주거지 분포와의 연관성을 파악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또한 매산동 일대의 현지답사와 심층 인터뷰를 병행하였다.

1. 수원시 한국계 중국인 주거지 분포 특성

여기에서는 수원시 한국계 중국인의 주거지 분포 특성을 통계 자료를 활용하여 밝히고자 한다. 연구는 세 시점이며, 2004년, 2009년은 수원시 기본 통계를 이용하였고, 2014년 수원시 기본 통계에서는 구별·국적별 외국인 인구가 제시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2014년은 행정자치부 통계(2015년 1월 1일)로 대체하여 이용하였다.

1) 수원시 구별 한국계 중국인의 분포와 변화

수원시 한국계 중국인의 구별 분포 및 변화를 2004년, 2009년, 2014년 세 시기의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하였고, 그 결과 <그림 1>과 같이 나타났다. 2004년에는 수원시 4개 구의 한국계 중국인 수가 비슷하였다. 그러나 2009년에는 팔달구의 한국계 중국인 인구가 급격히 증가(7,337명)하였고, 그리고 장안구와 권선구도 각각 2,861명, 3,862명이 증가하였다. 영통구는 한국계 중국인이 1,402명 증가하는 데 그쳤다. 그 후 2014년에는 팔달구와 권선구에서 한국계 중국인의 지속적인 증가 경향이 나타났다. 이어서 수원시에 거주하는 한국계 중국인이 어떤 특정한 구에 집중하고 있는지 한국계 중국인의 구별 비율 및 변화를 살펴보면 <그림 2>와 같다.

결국, <그림 1>과 <그림 2>를 통하여 수원시에 거주하는 한국계 중국인은 10년간 크게 증가하였고, 2014년 현재 3만 1,832명이 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수원시 4개 구 중에서 팔달구(1만 5,835명)로 집중하여 수원시 한국계 중국인의 절반 정도가 팔달구에 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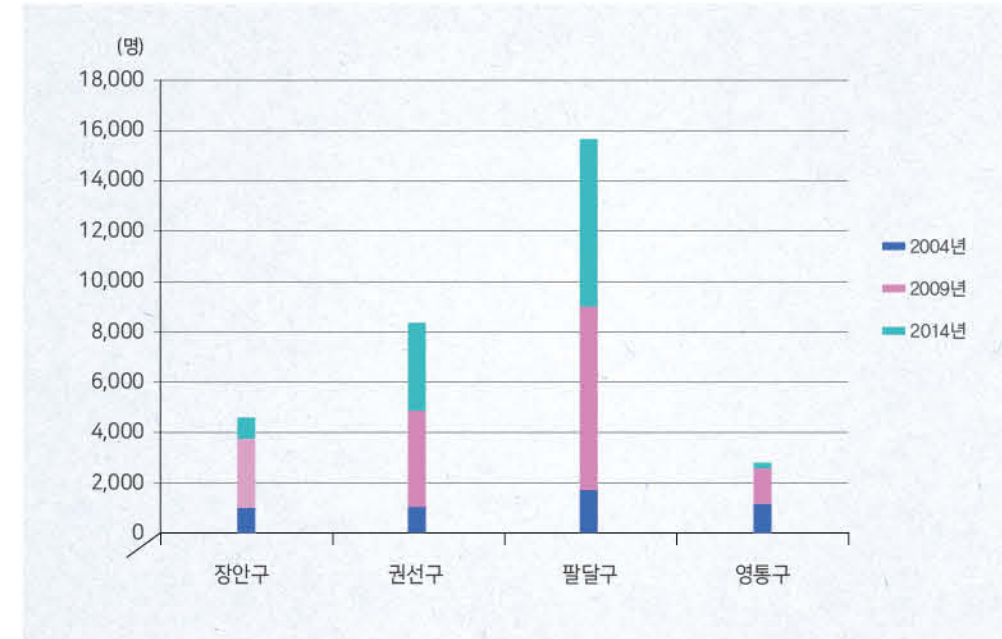


그림 1 수원시 구별 한국계 중국인수 분포 및 변화
(경기도 수원시 기본 통계(<http://stat.suwon.go.kr/>), 행정자치부 홈페이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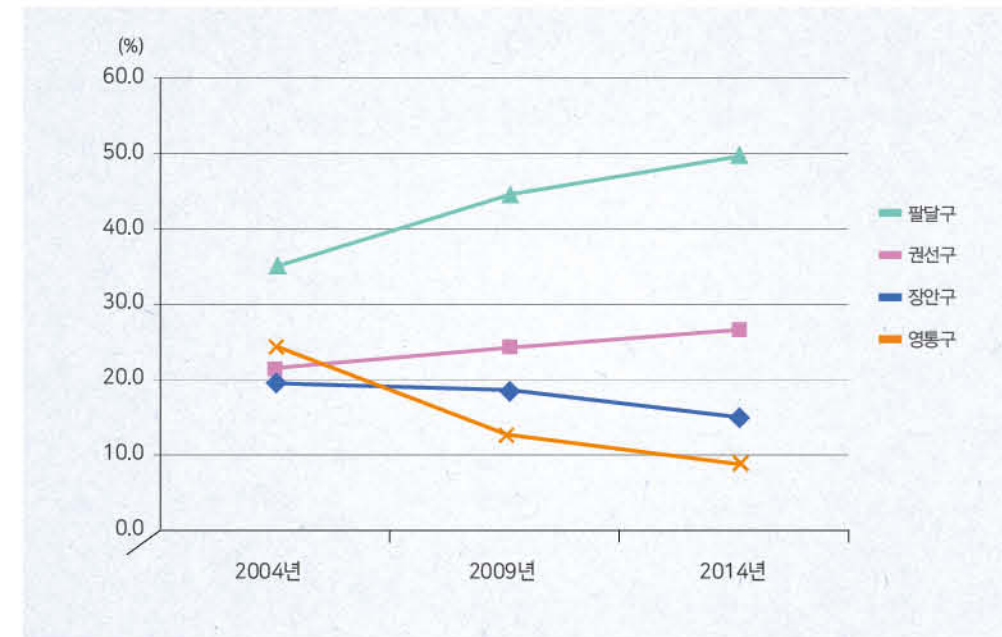


그림 2 수원시 한국계 중국인의 구별 비율 변화
(경기도 수원시 기본 통계(<http://stat.suwon.go.kr/>), 행정자치부 홈페이지)

2) 수원시 한국계 중국인의 동별 분포 패턴

여기에서는 수원시 한국계 중국인의 동별 분포를 2004년, 2009년, 2014년의 세 시기 별로 그래프와 지도로 정리하여 시각화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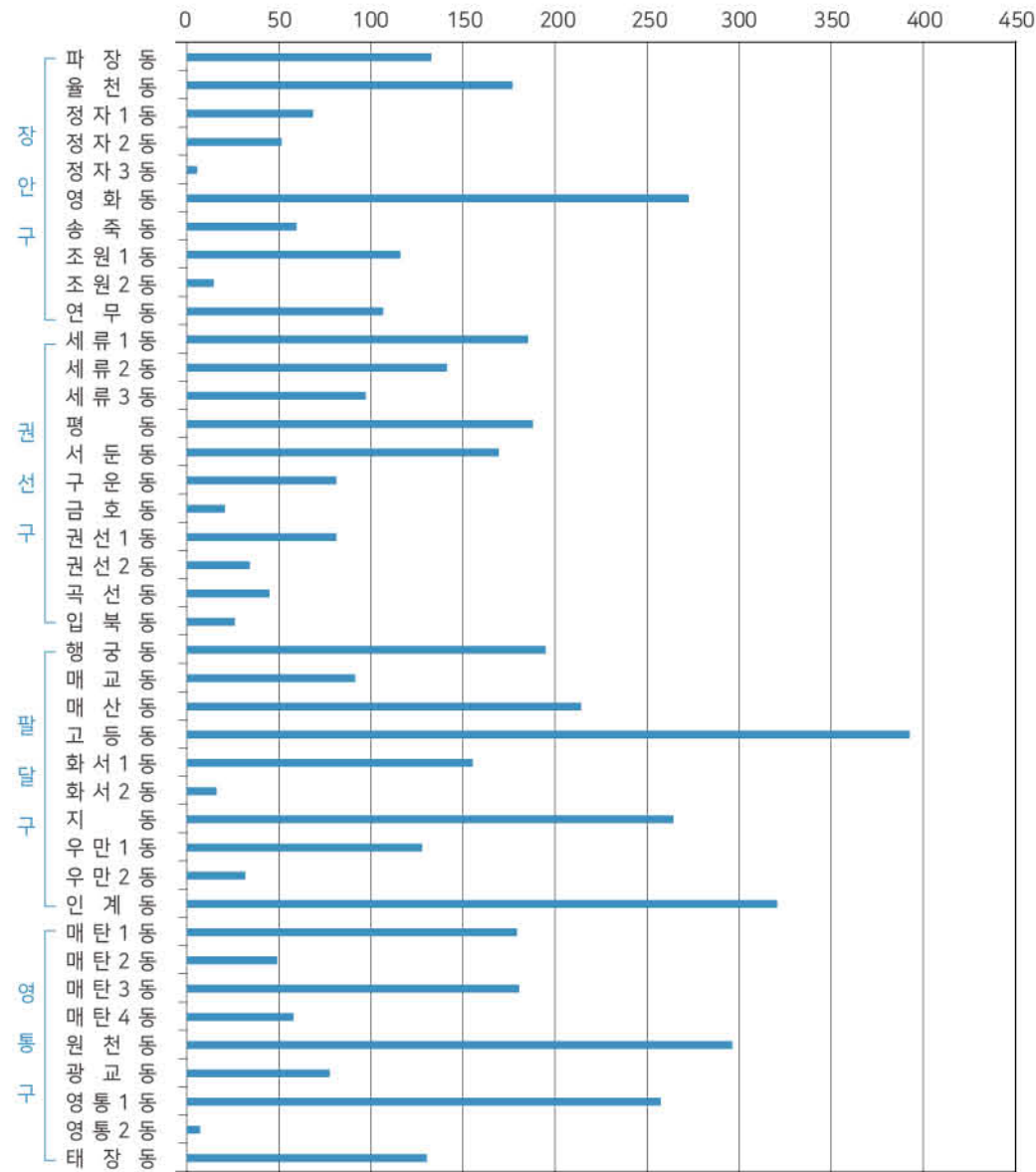


그림 3 2004년 수원시 한국계 중국인의 동별 분포(경기도 수원시 기본 통계(<http://stat.suwon.go.kr/>))
2004년 팔달동, 남향동, 신안동이 2008년 행궁동으로 합쳐짐에 따라 그래프에서는 행궁동으로 나타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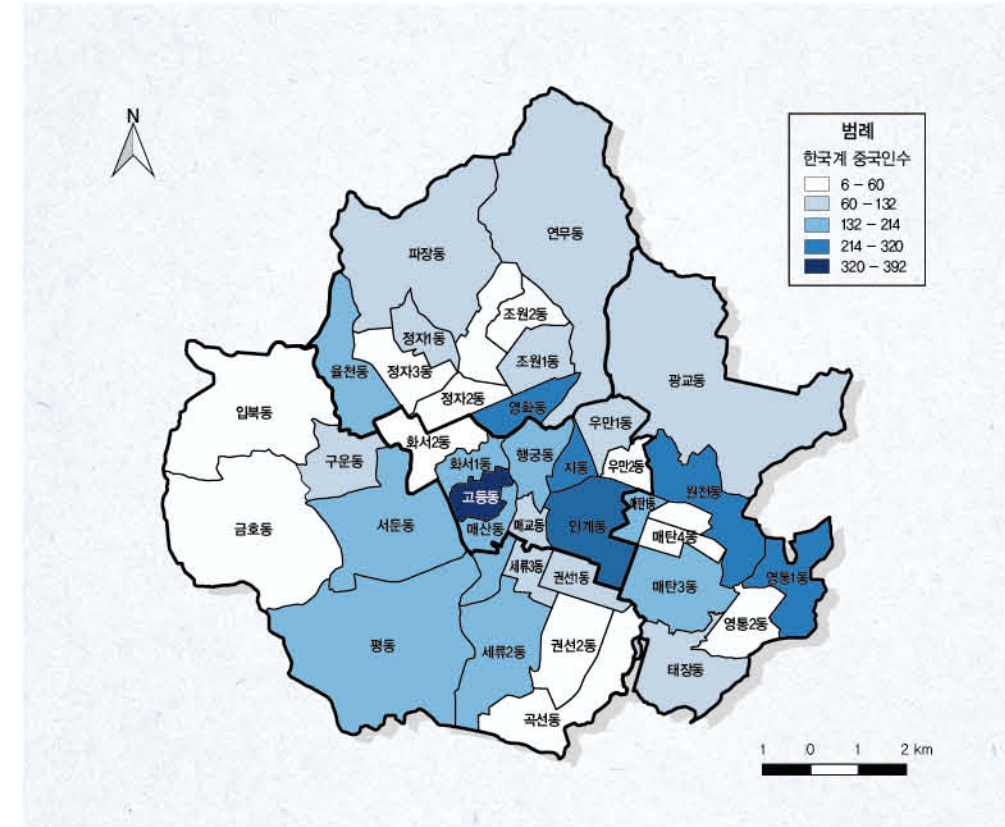


그림 4 2004년 수원시 한국계 중국인의 동별 분포 패턴
범례의 단계구분은 QGIS의 내추럴 브레이크(Jenks)로 설정하였다.

2004년 수원시 한국계 중국인의 동별 분포 및 패턴은 <그림 3>과 <그림 4>와 같다. 2004년은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수원시 구별 한국계 중국인의 수의 차이가 크지 않았던 때이며, 한국계 중국인의 절대적 수가 적어서 동별 차이 역시 크게 나타나지 않았다.

2009년 수원시 한국계 중국인의 동별 분포 및 패턴은 <그림 5>와 <그림 6>과 같다. 2009년은 수원시 4개 구에서 모두 한국계 중국인의 인구가 급증한 시기였다. 2009년 수원시 한국계 중국인은 총 2만 590명으로 2004년 대비 약 3배나 증가하였다. 동별로 살펴보면, 고등동, 세류1동, 인계동, 영화동, 지동의 순서로 많았다. 이는 2004년 대비 고등동, 세류1동은 약 2,000명, 인계동, 영화동, 지동은 약 1,000명 증가한 것이다. 이를 통해 기존 한국계 중국인 집중거주지역이 계속 성장함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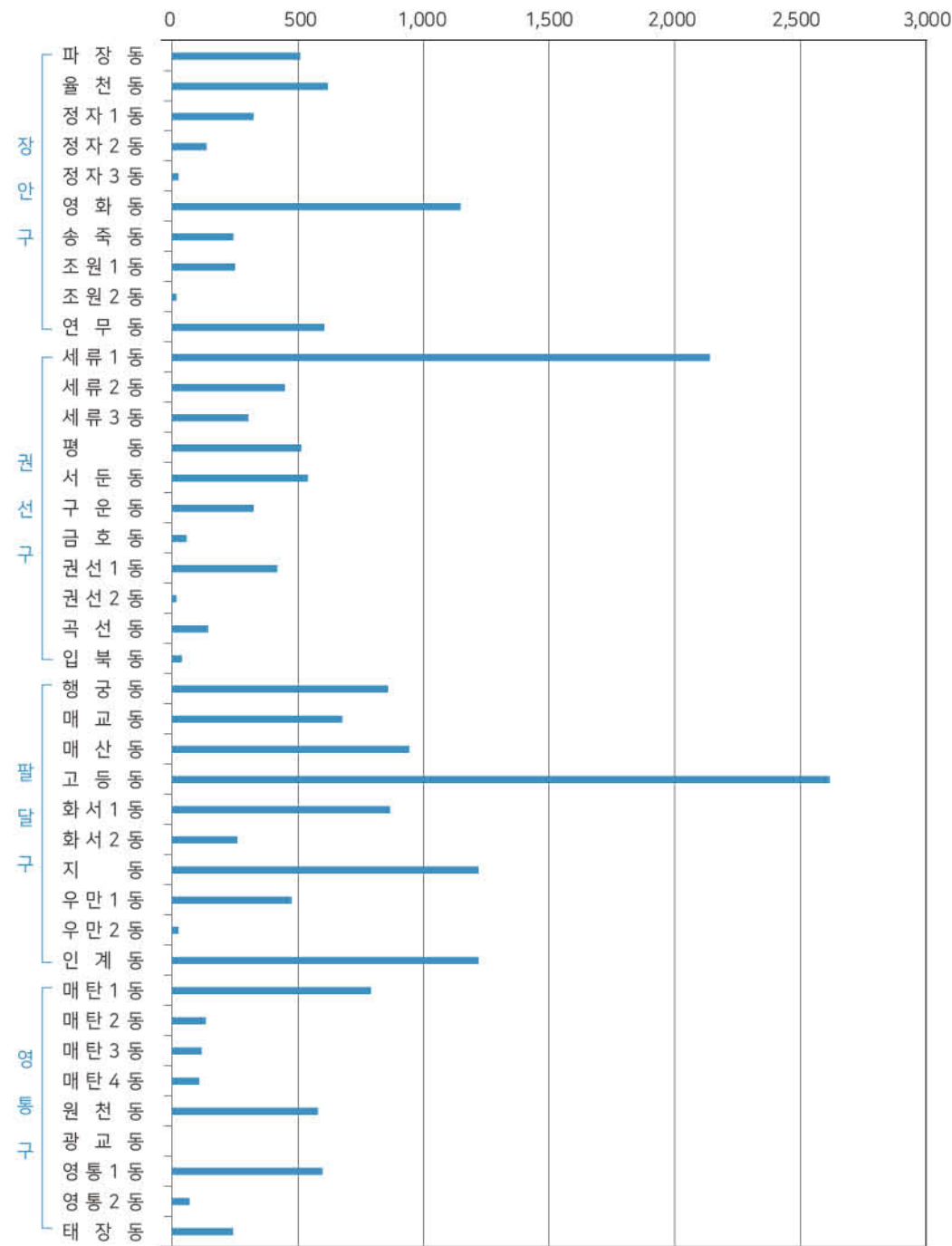


그림 5 2009년 수원시 한국계 중국인의 동별 분포(경기도 수원시 기본 통계(<http://stat.suwon.go.kr/>))
2009년 광고동은 원천동에 편입되어 없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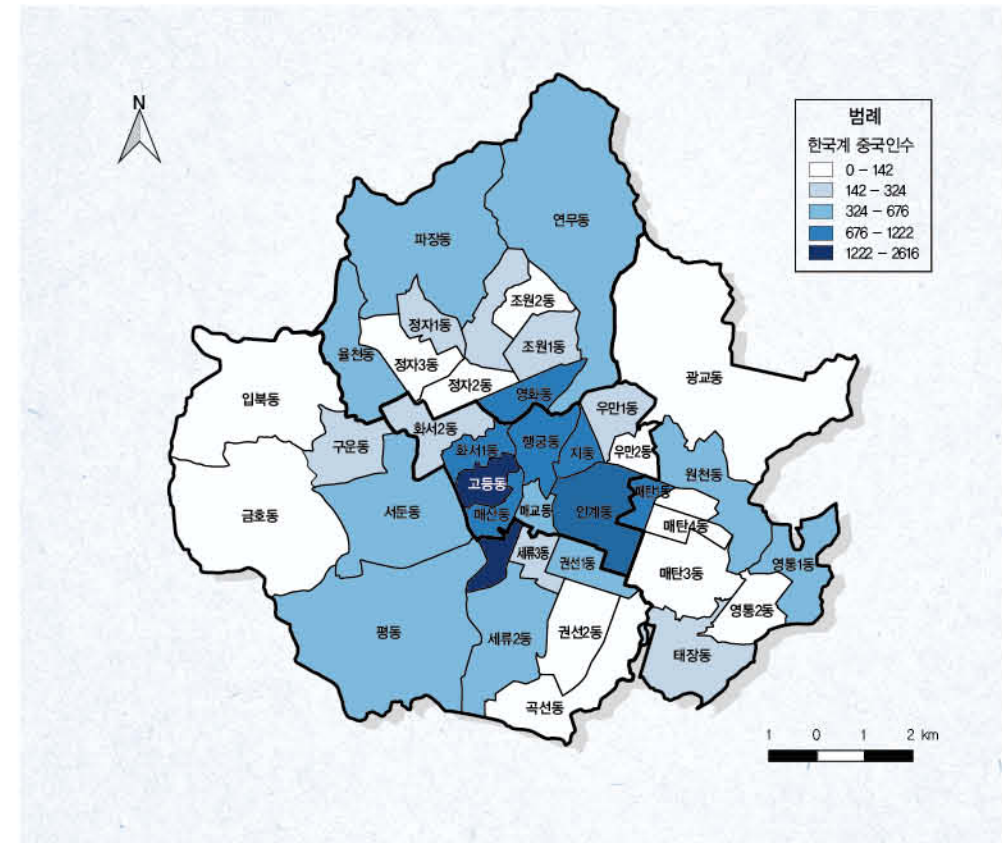


그림 6 2009년 수원시 한국계 중국인의 동별 분포 패턴
범례의 단계구분은 QGIS의 내추럴 브레이크(Jenks)로 설정하였다.

2014년 수원시 한국계 중국인의 동별 분포 및 패턴은 <그림 7>과 <그림 8>과 같다. 2014년 수원시 한국계 중국인은 총 3만 1,832명으로, 2009년 대비 1만 명이 넘게 증가하였다. 동별로 살펴보면, 고등동, 세류1동, 매산동, 인계동, 영화동의 순서로 그 수가 많았다. 특히, 매산동은 한국계 중국인이 세 번째로 많은 동이 되었으며, 2009년 대비 약 1,600명이 증가하여 증가 수가 가장 많은 동이었다. 2014년에는 기존 밀집지역의 한국계 중국인의 수는 증가하면서도, 한국계 중국인의 수가 감소하는 동이 늘어나는 것으로 보아 특정 지역으로 한국계 중국인의 집중이 더욱 심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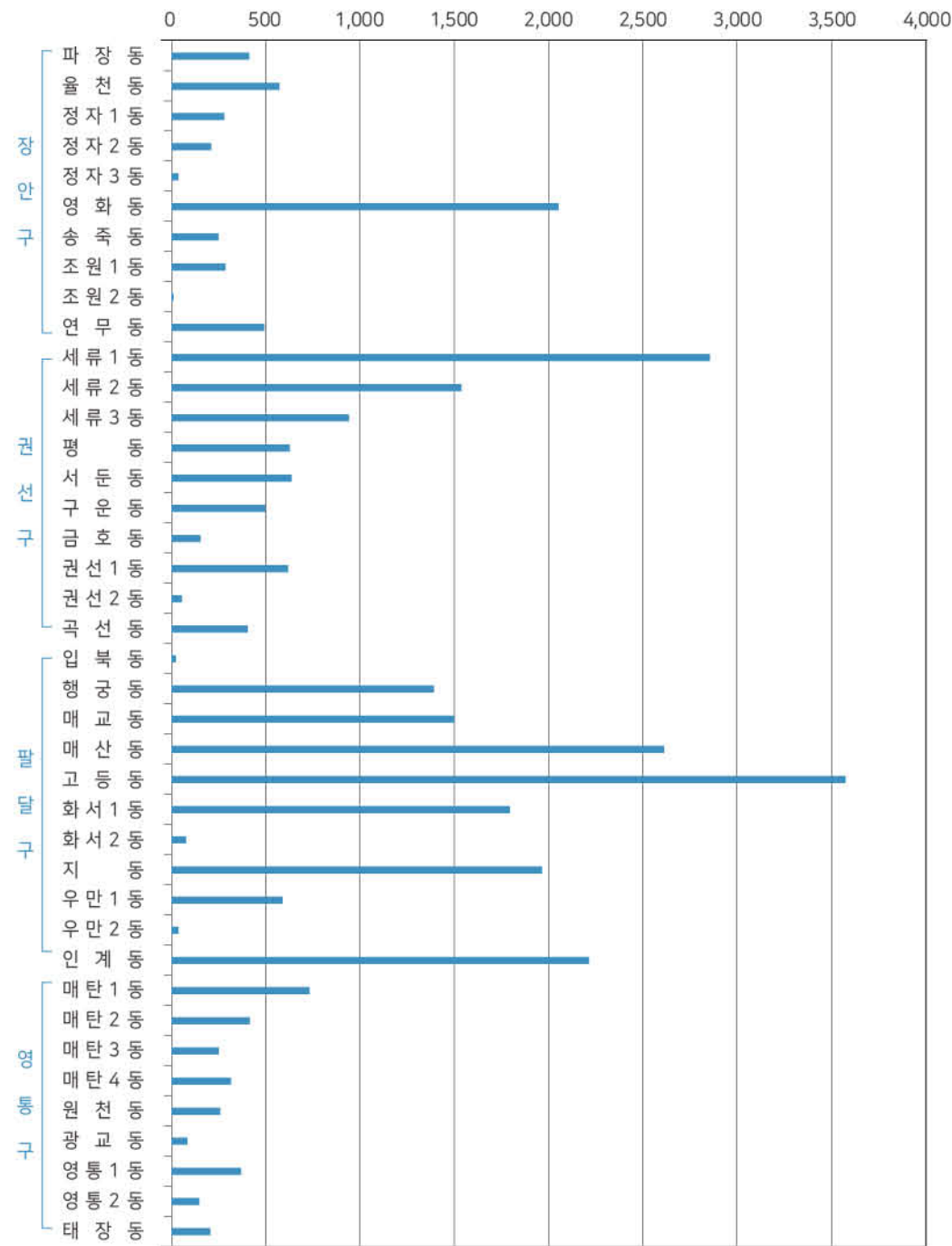


그림 7 2014년 수원시 한국계 중국인의 동별 분포(행정자치부 홈페이지(<http://www.moi.go.kr/>))
2012년 원천동이 원천동과 광고동으로 다시 분리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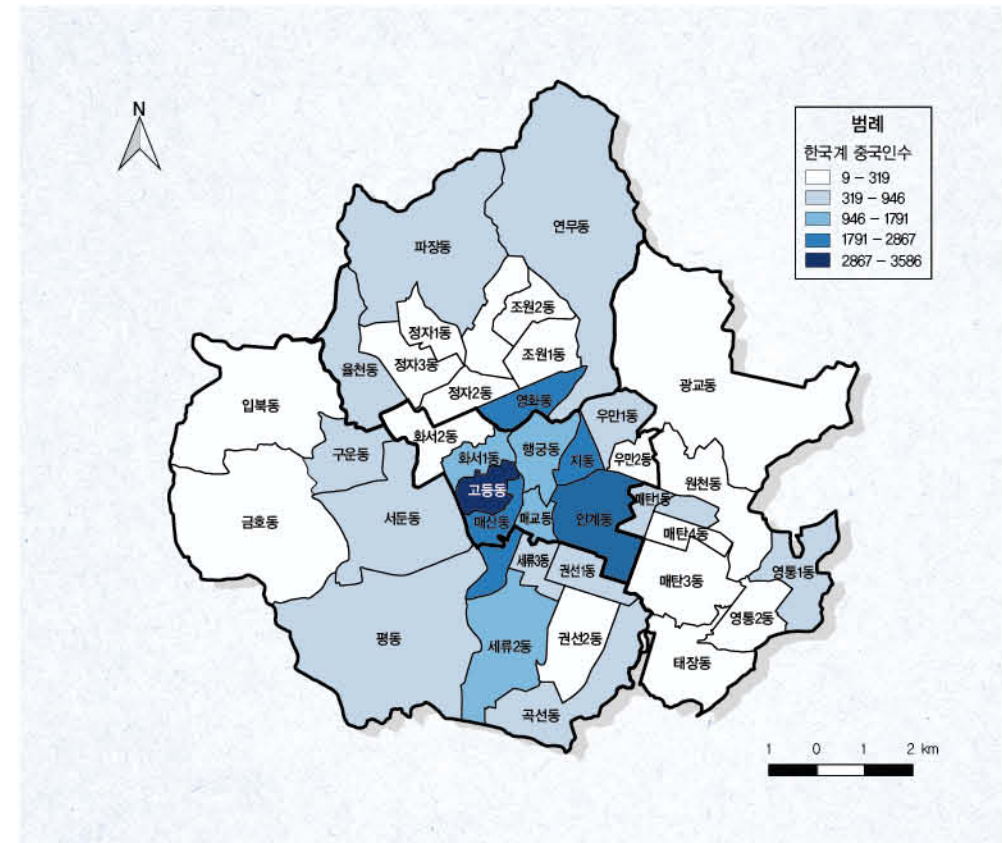


그림 8 2014년 수원시 한국계 중국인의 동별 분포 패턴
범례의 단계구분은 QGIS의 내추럴 브레이크(Jenks)로 설정하였다.

2004년까지만 해도 수원시 한국계 중국인의 동별 차이는 크지 않았지만 2009년, 2014년으로 갈수록 차이가 커졌는데, 특히 특정 동으로의 집중이 더욱 심화되었다. <표 2>와 <그림 9>를 통해 이주 초기에 한국계 중국인의 다수 정착 지역이 새롭게 유입되는 인구를 끌어들이는 연쇄 이주 효과를 불러일으킴을 유추할 수 있다.

표 2 수원시 한국계 중국인 집중 거주지역의 인구 변화

(단위 : 명, %)

구분	2004년			2014년		
	동	인구	비율	동	인구	비율
1위	고등동	392	7.64	고등동	3,586	11.27
2위	인계동	320	6.24	세류1동	2,867	9.01
3위	원천동	296	5.77	매산동	2,622	8.24
4위	영화동	272	5.30	인계동	2,233	7.01
5위	지동	264	5.15	영화동	2,064	6.48
합 계		1,544	30.11	합 계	13,372	42.01

비고 : 비율은 수원시 전체 한국계 중국인 중 해당동에 거주하는 한국계 중국인 비율을 뜻한다.

출처 : 행정자치부 홈페이지(<http://www.moia.g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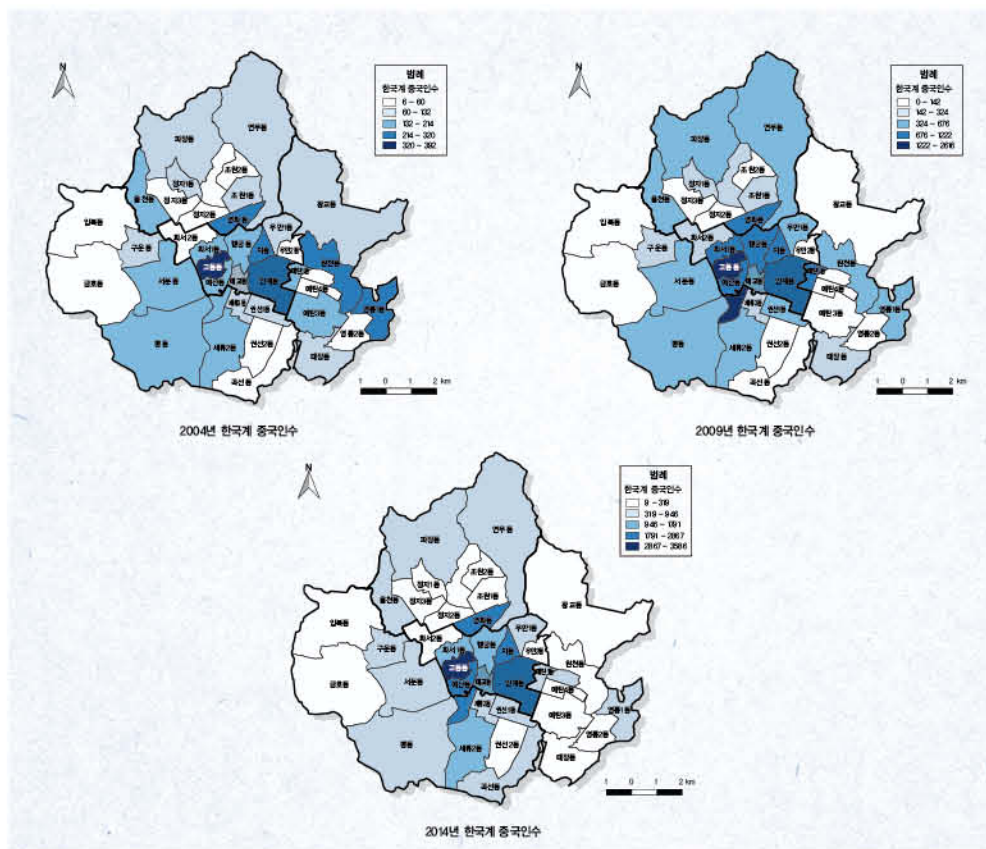


그림 9 2004년, 2009년, 2014년 수원시 한국계 중국인수의 변화 패턴
범례의 단계구분은 QGIS의 내추럴 브레이크(Jenks)로 설정하였다.

2. 수원시 한국계 중국인의 주거지 형성 요인

여기에서는 수원시 한국계 중국인의 주거지 형성 요인을 밝히기 위해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접근하고자 한다. 첫째,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통해 어떤 요인이 주거지 형성에 영향을 주었는지 밝히려고 한다. 둘째, 현지답사, 심층 인터뷰를 통해 계량분석을 보완하고, 현장감을 살리고자 한다.

1) 다중회귀분석

수원시 한국계 중국인의 주거지 형성 요인을 밝히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2014년 단일 시점을 적용하였고, 종속변수를 동별 한국계 중국인 수와 비율로 결정하고, 독립변수는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선정하였다. 이는 <표 3>과 같다.

표 3 연구의 종속변수와 독립변수

구분	자료	내용	출처
종속변수	동별 한국계 중국인 수	동별 한국계 중국인수	행정자치부 (2015년)
	동별 한국계 중국인 비율	동별 한국계 중국인수 / 동별 인구(내국인+외국인)	
산업	제조업·건설업	동별 사업체수	수원시 기본 통계연보 (2014)
	도매 및 소매업	동별 사업체수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동별 사업체수	
주거	아파트 비율	동별 아파트수 / 동별 총주택수	수원시 기본 통계연보 (2015)
	연립 및 다세대 주택 비율	동별 연립 및 다세대 주택수 / 동별 총주택수	
	사글세 및 보증금 없는 월세	동별 가구수	통계지리 정보서비스 (2010)
	30년 이상 노후 주택	동별 가구수	통계지리 정보서비스 (2015)

구분	자료	내용	출처
독립변수	보건업	동별 보건업 사업체수	통계 지리정보 서비스 (2014)
	금융업	동별 금융업 사업체수	
	사회복지서비스업	동별 사회복지서비스업 사업체수	
	종교단체	동별 종교단체 사업체수	
	숙박업 및 음식점업	동별 숙박업 및 음식점업 사업체수	
인구	동별 내국인 인구변화율	(2014년 내국인수 - 2000년 내국인수) / 2000년 내국인수 × 100	통계지리 정보서비스 (2014)
	과거 동별 한국계 중국인 비율	동별 2004년 한국계 중국인수 / 동별 2004년 인구	수원시 기본 통계연보 (2004)

종속변수와 독립변수가 각각 양과 비율 자료가 섞여 있기 때문에 양과 비율 차이에서 오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종속변수와 독립변수 모두를 표준화한 Z값⁷⁾을 계산하고, 이를 이용한 다중회귀분석을 하여 표준화계수(beta)를 구하고자 한다. 원자료를 표준화한 Z값은 <표 4>와 같다.

그리고 Y1, Y2는 종속변수로서 각각 한국계 중국인의 수, 한국계 중국인 비율이다. X1~X14는 독립변수이다(X1 : 제조업 및 건설업 사업체수, X2 : 도매 및 소매업 사업체수, X3 :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체수, X4 : 아파트 비율, X5 : 연립 및 다세대 주택 비율, X6 : 사글세 및 보증금 없는 월세 가구수, X7 : 30년 이상 노후 주택수, X8 : 보건업 사업체수, X9 : 금융업 사업체수, X10 : 사회복지서비스업 사업체수, X11 : 종교단체수, X12 : 숙박업 및 음식점업 사업체수, X13 : 내국인 인구 변화율, X14 : 기존 한국계 중국인 비율).

표 4 다중회귀분석 원자료를 표준화한 자료

동	Y1	Y2	X1	X2	X3	X4	X5	X6	X7
파장동	-0.424	-0.365	0.079	0.106	-0.260	-0.480	0.722	-0.044	0.412
율천동	-0.247	-0.411	-0.483	-0.285	0.139	0.358	-0.126	1.307	-0.169
정자1동	-0.581	-0.473	-0.624	-0.764	-0.709	0.729	-0.636	-0.567	-0.376
정자2동	-0.656	-0.493	-0.233	-0.232	-0.476	0.104	0.094	-0.374	1.175
정자3동	-0.850	-0.567	-0.788	-0.345	-0.044	1.159	-1.220	-0.884	-0.964
영화동	1.445	0.537	0.439	0.288	-0.243	-1.642	1.642	0.648	0.902
송죽동	-0.613	-0.404	-0.202	-0.402	-0.094	-1.018	1.739	-0.600	-0.410
조원1동	-0.566	-0.458	-0.389	-0.402	-0.642	-0.561	1.012	-0.380	0.388
조원2동	-0.897	-0.575	-1.045	-0.550	-0.659	1.220	-1.220	-1.278	-0.965
연무동	-0.331	-0.268	-0.475	-0.553	-0.725	-1.239	1.320	0.389	1.823
세류1동	2.361	4.694	-0.913	-1.173	-0.725	0.367	-0.569	-1.013	-0.406
세류2동	0.858	0.131	0.259	-0.115	-0.592	-1.357	1.504	0.803	0.998
세류3동	0.171	-0.090	0.376	-0.175	-0.559	-1.193	1.059	0.738	1.332
평동	-0.175	-0.349	4.735	1.340	0.638	0.306	-0.425	0.202	0.320
서둔동	-0.174	-0.380	0.533	0.698	-0.276	-1.001	1.797	0.415	0.979
구운동	-0.329	-0.345	0.025	0.024	-0.509	0.132	-0.129	-0.322	-0.928
금호동	-0.731	-0.546	-0.756	-0.414	-0.559	0.956	-0.835	-1.097	-0.943
권선1동	-0.187	-0.259	0.501	1.548	0.505	-0.186	0.154	0.635	-0.740
권선2동	-0.834	-0.561	-0.694	-0.285	-0.576	1.146	-1.137	-1.194	-0.787
곡선동	-0.435	-0.405	-0.038	0.112	-0.243	0.578	-0.851	0.518	-0.961
입북동	-0.871	-0.558	-0.522	-0.783	-0.759	0.919	-0.852	-1.162	-0.579
행궁동	0.690	0.817	0.665	2.210	-0.110	-2.100	0.965	0.492	1.146
매교동	0.811	1.000	0.493	-0.332	-0.060	-1.371	0.918	-0.470	0.659
매산동	2.081	1.764	-0.233	1.996	0.788	-0.604	0.901	2.082	-0.100
고등동	3.180	2.462	-0.647	-0.887	-0.592	-1.882	1.909	1.985	0.237
화서1동	1.134	0.262	-0.366	-0.030	-0.709	-0.645	0.721	-0.419	0.672
화서2동	-0.815	-0.544	-0.686	-0.833	-0.443	1.034	-1.068	-0.852	-0.855
지동	1.343	0.942	-0.100	-0.213	-0.709	-1.665	0.536	-0.083	1.182
우만1동	-0.232	-0.252	0.001	-0.272	-0.476	-0.393	0.483	-0.121	-0.725
우만2동	-0.852	-0.547	-0.905	-0.865	-0.410	0.813	-0.618	1.391	-0.217
인계동	1.638	0.069	2.118	4.201	3.598	-0.039	0.092	2.354	2.212
매탄1동	-0.066	-0.134	-0.850	-0.726	-0.642	0.694	-0.622	-0.781	2.736
매탄2동	-0.421	-0.263	-0.584	-0.660	0.306	-0.021	-0.013	-0.748	-0.962
매탄3동	-0.606	-0.491	-0.092	-0.326	-0.227	0.964	-1.131	-0.341	-0.935
매탄4동	-0.543	-0.413	-0.741	-0.710	-0.725	0.903	-1.097	-0.781	-0.961
원천동	-0.597	-0.435	1.228	-0.200	3.499	0.643	-0.612	0.163	-0.427
광교동	-0.796	-0.560	-0.397	-0.518	1.320	1.093	-1.117	-1.330	-0.965
영통1동	-0.474	-0.466	-0.108	0.553	1.686	1.106	-1.220	2.244	-0.965
영통2동	-0.739	-0.540	0.329	-0.024	0.538	1.217	-1.220	-1.020	-0.938
태장동	-0.668	-0.526	1.087	-0.002	0.738	0.957	-0.850	-0.503	-0.894

동	Y1	Y2	X8	X9	X10	X11	X12	X13	X14
파장동	-0.424	-0.365	-0.496	-0.234	-0.095	2.281	-0.038	-0.215	-0.081
율천동	-0.247	-0.411	0.211	-0.435	0.456	0.283	0.268	-0.147	-0.229
정자1동	-0.581	-0.473	-0.535	-0.737	0.015	-0.003	-0.491	-0.160	-0.613
정자2동	-0.656	-0.493	-0.182	0.068	0.346	0.740	-0.404	-0.220	-0.847
정자3동	-0.850	-0.567	1.508	0.370	1.228	-0.231	-0.068	-0.006	-1.109
영화동	1.445	0.537	-0.064	-0.033	-0.702	1.882	1.185	-0.230	1.074
송죽동	-0.613	-0.404	-0.378	-0.234	-0.922	0.283	-0.134	-0.224	-0.563
조원1동	-0.566	-0.458	-0.535	-0.234	0.236	0.682	-0.387	-0.161	-0.496
조원2동	-0.897	-0.575	-0.103	-0.435	-0.536	-1.659	-0.972	-0.224	-0.991
연무동	-0.331	-0.268	-0.575	-0.435	-0.757	-0.174	-0.055	-0.272	-0.361
세류1동	2.361	4.694	-1.361	-0.737	-1.970	-1.659	-1.290	-0.277	1.904
세류2동	0.858	0.131	-0.339	-0.435	-0.757	1.311	-0.081	-0.261	-0.222
세류3동	0.171	-0.090	-0.771	-0.737	-0.536	0.740	-0.452	-0.242	-0.430
평동	-0.175	-0.349	-0.103	0.872	1.228	0.740	0.019	-0.187	-0.040
서둔동	-0.174	-0.380	0.015	-0.033	1.614	2.167	0.255	-0.110	-0.235
구운동	-0.329	-0.345	-0.968	-0.435	0.015	-0.517	-0.046	-0.209	-0.601
금호동	-0.731	-0.546	0.054	-0.435	1.670	1.368	-0.168	-0.111	-1.029
권선1동	-0.187	-0.259	0.172	0.470	0.401	0.854	0.905	-0.224	-0.549
권선2동	-0.834	-0.561	0.565	-0.033	0.898	-0.631	-0.439	-0.175	-0.948
곡선동	-0.435	-0.405	-0.418	-0.435	-0.316	-0.460	0.015	0.696	-0.739
입북동	-0.871	-0.558	-1.243	-0.737	-0.205	-0.288	-1.063	0.003	-0.546
행궁동	0.690	0.817	1.351	0.872	-1.694	-0.288	0.757	-0.285	1.189
매교동	0.811	1.000	-0.968	-0.737	-1.529	-0.631	-0.413	-0.234	0.440
매산동	2.081	1.764	0.761	1.476	-0.757	-1.031	1.782	-0.214	2.084
고등동	3.180	2.462	-1.204	-0.737	-1.198	-0.745	-0.766	-0.335	1.761
화서1동	1.134	0.262	0.133	-0.133	0.236	0.682	-0.286	-0.243	-0.043
화서2동	-0.815	-0.544	-0.182	-0.133	0.346	-0.403	-0.640	-0.097	-1.031
지동	1.343	0.942	-0.889	-0.737	-1.529	-1.031	-0.753	-0.275	1.492
우만1동	-0.232	-0.252	-0.614	0.068	-0.040	1.139	-0.260	-0.265	-0.256
우만2동	-0.852	-0.547	-0.457	-0.234	-0.812	-0.917	-0.522	-0.099	-0.806
인계동	1.638	0.069	4.023	5.398	0.567	1.196	4.659	-0.199	0.348
매탄1동	-0.066	-0.134	0.015	-0.435	-0.426	-1.202	-0.889	-0.223	0.992
매탄2동	-0.421	-0.263	-0.771	-0.737	-0.922	0.454	-0.601	-0.232	-0.607
매탄3동	-0.606	-0.491	0.604	0.168	0.732	-0.460	0.600	-0.139	-0.031
매탄4동	-0.543	-0.413	-0.771	-0.234	-0.040	-1.088	-0.784	-0.232	-0.751
원천동	-0.597	-0.435	-0.142	-0.133	-0.316	-0.345	0.237	-0.176	1.645
광고동	-0.796	-0.560	0.604	0.068	0.787	-1.145	-0.051	6.132	2.862
영통1동	-0.474	-0.466	1.823	0.470	1.063	-0.403	1.734	-0.219	-0.109
영통2동	-0.739	-0.540	1.665	0.571	2.331	-1.145	-0.086	-0.228	-1.107
태장동	-0.668	-0.526	0.565	0.168	1.890	-0.345	-0.278	0.518	-0.421

한국계 중국인수의 Z값을 종속변수로 설정한 다중회귀분석 결과는 <표 5>와 같았다. 회귀모형의 결정계수(R2) 값은 0.832로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유의수준 1% 내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고 볼 수 있다.

표 5 한국계 중국인수(Z값)를 종속변수로 한 다중회귀분석 결과

회귀분석 통계량	
다중 상관계수	0.912388
결정계수	0.832452
조정된 결정계수	0.738624
표준 오차	0.517762
관측수	40

분산 분석

	자유도	제곱합	제곱 평균	F 비	유의한 F
회귀	14	33.29806	2.378433	8.872182	1.64E-06***
잔차	25	6.701939	0.268078		
계	39	40			

	계수	표준 오차	t 통계량	P-값
Y 절편	1.56E-16	0.081865	1.91E-15	1
제조업 및 건설업 사업체수	-0.04743	0.161858	-0.29306	0.771898
도매 및 소매업 사업체수	-0.33296	0.264354	-1.25951	0.21948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체수	-0.35626	0.176738	-2.01577	0.054692*
아파트 비율	-0.56497	0.396787	-1.42385	0.166852
연립 및 다세대 주택 비율	-0.19065	0.350513	-0.54392	0.591313
사글세 및 보증금 없는 월세 가구	0.235914	0.139733	1.688325	0.103786
30년 이상 노후 주택수	-0.18881	0.123662	-1.52685	0.139351
보건업 사업체수	-0.13587	0.264331	-0.51403	0.611746
금융업 사업체수	0.826881	0.279883	2.954376	0.006736***
사회복지서비스업 사업체수	0.112084	0.19119	0.586243	0.562968
종교단체수	-0.00121	0.1503	-0.00807	0.993622
숙박업 및 음식점업 사업체수	-0.11511	0.316777	-0.36339	0.719367
내국인 인구변화율	-0.36427	0.112077	-3.25017	0.003285***
기존 한국계 중국인 비율	0.785921	0.14349	5.477197	1.09E-05***

비고 : *** : p<0.01, ** : p<0.05, * : p<0.1w

독립변수들의 표준화 회귀계수 값들을 살펴보면 금융업 사업체수, 내국인 인구변화율, 기존 한국계 중국인 비율의 회귀계수 값들이 유의수준 1% 이하로 통계적으로 유의하다고 나타났다. 유의한 변수 중 금융업 사업체수, 기존 한국계 중국인 비율은 한국계 중국인수에 정(+)의 영향을, 내국인 인구변화율은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서 한국계 중국인 비율의 Z값을 종속변수로 설정한 다중회귀분석 결과는 <표 6>과 같았다. 회귀모형의 결정계수(R2) 값은 0.753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유의수준 1% 내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고 볼 수 있다.

표 6 한국계 중국인 비율(Z값)을 종속변수로 한 다중회귀분석 결과

회귀분석 통계량	
다중 상관계수	0.867982
결정계수	0.753392
조정된 결정계수	0.615291
표준 오차	0.62815
관측수	40

분산 분석

	자유도	제곱합	제곱 평균	F 비	유의한 F
회귀	14	30.13568	2.152548	5.455388	0.00012***
잔차	25	9.864323	0.394573		
계	39	40			

	계수	표준 오차	t 통계량	P-값
Y 절편	-1.2E-16	0.099319	-1.2E-15	1
제조업 및 건설업 사업체수	0.004818	0.196367	0.024536	0.98062
도매 및 소매업 사업체수	-0.18867	0.320715	-0.58827	0.561631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체수	-0.41415	0.214419	-1.93149	0.064834*
아파트 비율	-0.02134	0.481383	-0.04433	0.964995
연립 및 다세대 주택 비율	0.080873	0.425243	0.19018	0.850704
사글세 및 보증금 없는 월세 가구	0.089354	0.169524	0.527085	0.602781
30년 이상 노후 주택수	-0.33726	0.150027	-2.24799	0.033642**

	계수	표준 오차	t 통계량	P-값
보건업 사업체수	0.02326	0.320687	0.072532	0.942756
금융업 사업체수	0.664195	0.339555	1.956072	0.061718*
사회복지서비스업 사업체수	-0.14282	0.231952	-0.61573	0.543636
종교단체수	-0.00768	0.182345	-0.04209	0.96676
숙박업 및 음식점업 사업체수	-0.32849	0.384315	-0.85474	0.400813
내국인 인구변화율	-0.45305	0.135972	-3.33196	0.002684***
기존 한국계 중국인 비율	0.934125	0.174082	5.366003	1.45E-05***

비고 : *** : p<0.01, ** : p<0.05, * : p<0.1

독립변수들의 표준화 회귀계수 값들을 살펴보면 30년 이상 노후주택수는 유의수준 1%~5% 사이에서 유의하며, 내국인 인구변화율, 기존 한국계 중국인 비율의 회귀계수 값들이 유의수준 1% 이하로 통계적으로 유의하다고 나타났다. 유의한 변수 중 기존 한국계 중국인 비율만 한국계 중국인 비율에 정(+)의 영향을, 30년 이상 노후주택수, 내국인 인구변화율은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계 중국인 수와 비율의 각각의 Z값을 종속변수로 한 두 다중회귀분석의 결과를 종합해 보면 기존 한국계 중국인 비율이 한국계 중국인수와 비율을 설명하는 데 강력한 변수였다. 내국인 인구변화율도 공통적으로 부(-)의 경향이 나타나는 변수였다.

2) 주거지 형성 요인 분석 : 매산동 현지답사와 심층 인터뷰

한국계 중국인의 주거지 형성 요인을 현지답사를 통하여 양적 연구의 부족한 측면을 보완하고 실제 한국계 중국인 주민과의 대화를 통하여 파악하고자 하였다. 현지답사 지역은 <그림 10>과 같이 수원역 인근의 매산동 일대로 설정하였다.

이 지역은 수원시에서 한국계 중국인 상권이 가장 크게 형성된 곳이다. 고매로와 갯매 산로를 중심으로 한국계 중국인이 이용하는 식당, 술집, 노래방, PC방, 환전소, 행정사 사무소 등 한국계 중국인이 자주 이용하는 서비스업이 크게 발달해 있다. 그래서 이 두 길은 ‘조선족(중국동포)거리’로 불린다. 또한 수원역 인근은 이곳에 사는 한국계 중국인 뿐만 아니라 수원시의 다른 지역 또는 다른 시·군의 한국계 중국인도 여가와 만남을 위해 자주 들르는 곳으로 알려져 있어 심층 인터뷰에 가장 적합한 지역으로 판단하였다.



그림 10 현지답사 지역

현지답사를 2016년 7월부터 2017년 5월까지 총 11차례 실시하였고, 심층 인터뷰는 총 12명의 한국계 중국인과 2명의 한국인을 대상으로 2017년 2월부터 5월까지 실시하였다.

현지답사 지역인 매산동은 한국계 중국인 관련 상점, 사업체들이 즐비하다. 붉은색으로 된 중국어로 된 간판이 매우 많고, 거리에서 중국어나 한국계 중국인 어투의 한국어를 쉽게 들을 수 있다. 이곳은 <그림 11>과 같이 중국 요리 음식점이 매우 많다. 양꼬치를 전문으로 판매하는 곳(a)이 많고, 다양한 중국 요리를 판매하는 음식점(b, c, d)도 쉽게 볼 수 있다. 음식점 운영자, 종업원 모두 한국계 중국인인 곳이 대부분이었다. 이곳은 한국계 중국인의 정보 교환 및 사교의 장으로도 활용되고 있다. 음식점의 손님들도 대부분 한국계 중국인이거나, 최근 들어 한국인의 이용도 늘고 있다.



그림 11 한국계 중국인 대상 음식점(2017년 2월 촬영)

이곳에는 <그림 12>와 같이 한국계 중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체도 많다. 휴대폰 판매업체(a, b), 환전소(c, d), 중국 식품 전문 슈퍼(e, f), 여행사 등인데, 이들 업체도 한국계 중국인이 운영하는 곳이 대부분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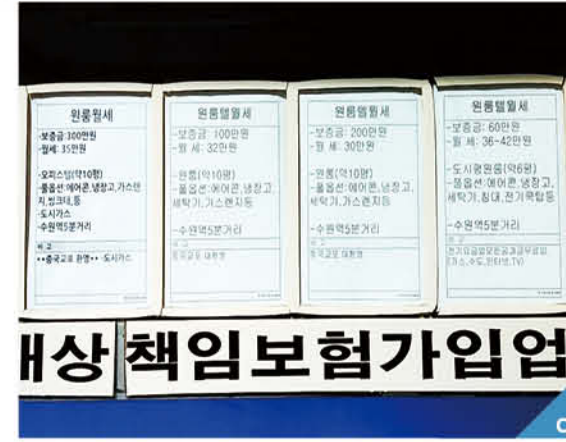


그림 13 한국계 중국인 대상 업체2(2016년 8월, 2017년 2월 촬영)



그림 12 한국계 중국인 대상 업체1(2017년 1~2월 촬영)

〈그림 13〉과 같이 행정사 사무소(a, b), 부동산 중개업소(c), 인력 사무소(d)도 많았다. 행정사 사무소는 출·입국, 비자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부동산 중개업소에서는 한국계 중국인의 주거지 중개 역할을 하고 있다. 인력 사무소에서는 한국계 중국인의 일자리를 알선하고 있다. 이 업체들은 한국인이 운영하는 것으로 이곳에 한국계 중국인이 증가하며 생겨나게 되었다. 낙후되고 침체된 구도심에서 한국계 중국인의 이주 및 정착이 이루어져 내국인의 일자리 창출 및 소득 증대에 기여하게 되었다.



그림 14 현지답사 지역의 주택 관련 경관(2016년 8월, 2017년 1~2월 촬영)

이곳은 <그림 14>와 같이 오래된 건물들(a)이 많고, 좁은 골목(b)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래서 이곳의 일부는 주택재개발 정비사업(c, d) 대상이 되었다. 그리고 낡은 건물을 허물고, 새 건물을 짓는 모습(e, f)도 쉽게 볼 수 있다.



그림 15 한국계 중국인의 주거지 경관(2016년 8월, 2017년 1~2월 촬영)

이곳의 주거 기능 건물은 <그림 15>와 같이 고시원(a, b), 원룸 형태의 다세대, 다가구 주택(c, d, e)이 대부분이었다. 이러한 건물들은 낙후된 것이 많지만, 신축 건물(f)도 증가하고 있었다. 이곳의 한국계 중국인 증가로 건설 및 주택 사업이 다시 활발해짐을 알 수 있었다.

표 7 심층 인터뷰 대상자

응답자	성별	연령대	직업	비자 유형	비고
A	남	50대	일용직	H-2	
B	남	40대	식당 종업원	F-4	
C	남	40대	식당 종업원	H-2	
D	여	40대	식당 종업원	H-2	
E	남	20대	반도체 제조업체 직원	F-4	
F	여	30대	식당 종업원	H-2	
G	남	50대	식당 종업원	H-2	
H	여	20대	휴대폰 매장 직원	F-4	
I	여	20대	대학생	F-4	
J	남	50대	일용직	H-2	
K	남	40대	자동차 부품 공장 직원	F-4	
L	여	20대	대학원 진학 준비	F-4	
M	남	50대	부동산 중개업	해당없음	한국인
N	남	30대	휴대폰 매장 점주	해당없음	한국인

비고 : F-4는 재외동포, H-2는 방문취업 비자인.

심층 인터뷰 대상자를 간단히 정리하면 <표 7>과 같다. 매산동 일대의 한국계 중국인 밀집지역 형성의 원인에 대한 심층 인터뷰 후 얻은 공통적인 의견은 다음과 같았다. 중국의 한국계 중국인들이 가족, 친척, 친구 등의 소개로 이곳을 알게 되어 오게 된다. 이곳은 한국계 중국인의 밀집도가 높아 고향과 같은 분위기로 심리적 안정감을 갖고 생활하게 된다. 또한 구도심 지역이어서 주거비용이 저렴하다. 최근 이곳의 일부 지역에서 재개발이 이루어지며 주거비용이 상승하고 있지만 아직은 감당할 만한 수준이라고 한다. 그리고 이곳에서 직접 서비스업에 종사하기도 하고, 인력사무소나 한국계 중국인의 네트워크를 통해 수원이나 화성, 평택, 오산, 안산 등의 지역에서 일을 한다. 이곳은 버스나 지하철 등이 잘 발달해 있어 타 지역으로 출퇴근도 무리가 없다. 또한 한국계 중국인이 많아 취업이나 비자 등 여러 정보 교환이 용이하여 이곳은 한국계 중국인에게 매우 매력적인 지역이라고 한다.

한국계 중국인은 지리적 근접성과 언어·문화의 유사성을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외국인 인구 증가를 주도하고 있어 관련 연구가 많이 늘어나고 있다. 수원은 한국계 중국인의 성장이 두드러져 이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높은 곳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수원시 한국계 중국인의 주거지 형성요인은 다중회귀분석과 매산동 현지답사의 두 방법을 통해 연구하였고, 결과는 다음과 같다.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한국계 중국인의 수와 비율에 공통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기존 한국계 중국인의 비율, 내국인 인구 변화율임을 알 수 있었다. 즉, 수원시 한국계 중국인의 주거지는 기존 한국계 중국인의 비율이 높으며, 내국인 인구가 줄어드는 곳에 형성된다고 할 수 있다.

수원시에서 한국계 중국인이 밀집되어 있는 수원역 인근의 매산동 일대를 현지답사한 결과 한국계 중국인 대부분은 가족, 친척, 친구 등에 의한 연쇄 이주의 형태로 수원에 오는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매산동과 인근 지역이 한국계 중국인 비중이 높는데, 이는 수원역 인근이 저렴한 주거비용, 많은 일자리, 편리한 교통, 정보 수집의 용이성 때문이었다.

참고자료

- 박세훈·이영아·김은란·정소양, 「다문화사회에 대응하는 도시정책 연구(1) : 외국인 밀집지역의 현황과 정책과제」, 국토연구원, 2009.
- 김현선, 「한국체류 조선족의 밀집거주 지역과 정주의식 : 서울시 구로·영등포구를 중심으로」, 『사회와 역사』 87, 2010, 231~264쪽.
- 방성훈, 「한국계 중국인 밀집 주거지의 특성과 주거지 분화에 관한 연구 : 서울시 가리봉동과 자양동을 중심으로」, 세종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2.
- 원종서, 「서울시 거주 한국계 중국인의 주거지역 선택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3.
- 윤진화·권오규·마강래, 「서울시 중국국적외국인의 주거지 분포 변화에 관한 연구 : 한국계 중국인과 비한국계 중국인 비교」, 『한국지역개발학회지』 26(2), 2014, 39~54쪽.
- 이석준, 김정민, 「서울시 조선족 밀집지 간 특성 분석과 정책적 함의」, 『서울도시연구』 15(4), 2014, 1~16쪽.
- 이승은, 「서울시 '한국계 중국인'의 주요 거주 지형도와 경제활동」, 『중국과 중국학』 27, 2016, 173~194쪽.
- 이정현·정수열, 「국내 외국인 집중거주지의 유지 및 발달 : 서울시 대림동을 사례로」, 『한국지역지리학회지』 21(2), 2015, 304~318쪽.
- 이화용, 「중국국적 이주자 밀집지역의 앤클레이브화와 계도화에 대한 연구 : 서울시 영등포구 대림2동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5.
- 전형권, 「국제이주에 대한 이론적 재검토 : 디아스포라 현상의 통합모형 접근」, 『한국동북아논총』 49, 2008, 259~284쪽.
- 하성규·마강래·안아림, 「서울시 외국인 주거지의 공간적 분리패턴에 관한 연구」, 『서울도시연구』 12(3), 2011, 33~60쪽.
- 국가통계포털(<http://www.kosis.kr>).
- 수원시청(<http://www.suwon.go.kr>).
- 통계지리정보서비스(<http://sgis.kostat.go.kr>).
- 행정자치부(<http://www.moi.go.kr>).

- 1)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홈페이지(<http://www.immigration.go.kr/>),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월보, 2016년 6월호.
- 2) 중국 국적 외국인인 법무부, 통계청 등의 통계 자료에서 '중국인'과 '한국계 중국인'으로 나누어서 분류함. 여기서 중국인은 한국계 중국인과 한국계가 아닌 중국인을 더한 수치임.
- 3) 2007년부터 방문취업제의 시행으로 인해 한국계 중국인의 입국 및 체류가 용이해짐. 방문취업제는 한국계 중국인 및 구러시아계인 등 해외 동포를 적극 활용하기 위해 시행됨.
- 4) 행정자치부 홈페이지(<http://www.moi.go.kr/>), 정책자료>승인통계, 2015년도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
- 5) 행정자치부 2015년도(2015.1.1.) 통계에서 국적별 외국인을 중국인과 한국계 중국인을 분류하여 작성함. 수원시 등록외국인은 총 46,172명, 중국인은 5,550명, 한국계 중국인은 31,832명으로 한국계 중국인이 압도적으로 많음.
- 6) 수원시 기본 통계 자료는 매해 12월 31일 기준이며, 행정자치부 통계는 매해 1월 1일이므로 차이가 거의 없음.
- 7) Z값은 Z점수(Z score), 표준값이라고 하며, 원래의 값이 평균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를 나타낸다. 평균이면 0, 평균을 초과하면 양수, 평균 미만이면 음수 값을 갖는다. 원점수 x , 평균 μ , 표준편차 σ 일 때 Z값의 계산은 다음과 같다.

$$z = \frac{x - \mu}{\sigma}$$



안종수 한양대학교 문화인류학과 강사

제3장

중국동포거리의 형성과 지속

1. 중국동포거리 형성의 배경

수원역 광장에서 로터리 방향을 바라보면 경기도 각지로 통하는 버스들을 볼 수 있다. 그만큼 오고가는 사람들도 많고 그들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상권이 예로부터 형성된 곳이다. 로터리를 지나면 로데오거리로 들어설 수 있다. 로데오거리에는 젊은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상점들이 줄지어 들어서 있다. 삼삼오오 몰려다니는 젊은이들을 뒤로한 채, 갓메산사거리 방향으로 향하면 낯선 풍경을 목도할 수 있다. 한국어로 된 간판 대신 중국어로 된 간판이 즐비한 곳, ‘중국동포거리’에 도착한 것이다. 약자로 된 한자를 제외하고 간판을 더듬더듬 읽어 나가다 보면 익숙한 한자가 보인다. 串(곶), 즉 양꼬치 집이나 飯店(반점)과 같은 식당이 거리를 메우고 있고 노래방과 주점 같은 유흥업소들도 눈에 띈다. 길가는 사람들에게서 연변사투리와 중국어가 들려온다. 아마 방금 로데오거리를 지나오지 않았다면 여기가 한국, 그것도 수원 한복판이라는 것을 잊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낯선 호기심을 자극한다. 이곳은 언제부터 생겼고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을까?

2016년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국내에 체류하는 중국 국적의 조선족¹⁾은 총 61만 4,293명이다. 여기에 한국 국적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는 조선족이 10만 명 정도로,²⁾ 모두 70만 명이 넘는 인원이 한국에 체류 중이다. 이미 100만 명을 넘어선 국내 체류 외국인의 상당





갯매산로 일대의 중국동포거리(김승일 제공)



2018년 수원역 일대 외국인 점포 분포
(김주석, 「수원시 고매로 일대 다문화점포 현황조사 및 대응방안」, 수원시정연구원, 2018)

수는 바로 조선족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우리의 일상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식당을 비롯한 각종 서비스업은 물론 건축현장, 간병인 등등 조선족을 만나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정작 조선족이 어떤 역사적 과정을 거쳐 중국에 집단 거주하게 되었고, 어떻게 한국에 대규모로 이주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지 않는 이상 알기 어렵다.

조선족은 중국의 동북3성(길림, 요령, 흑룡강)과 내몽골 지역에 살고 있는 한민족 동포로, 중국 55개 소수민족 중 하나이다. 이들 대부분은 19~20세기에 만주 지역으로 진출하였는데, 이는 청나라의 봉금정책이 완화되었기 때문에 가능하였다. 조선인의 간도 이주는 함경도 일대 농민이 기아를 못 이겨 청나라가 제공한 개간 지역으로 이주하면서 규모가 커졌다. 이후 1910년 국권피탈 이후 항일투쟁을 위해 만주로 이주했고, 1920년대에는 일제의 양곡 수탈로 토지와 가옥을 빼앗긴 경상도 주민들이 대규모로 이주하였다. 여기에 일제의 정책에 따라 경상도 등지의 농민들이 만주로 강제 이주되면서 1945년에는 그 수가 216만 명에 이르렀다.³⁾ 조선족은 중국의 항일투쟁에 참여하고, 척박한 동북 지역에서 벼농사를 성공시켰다는 점에서 '모범 소수민족'으로 꼽힌다. 조선족의 자부심도 바로 이런 역사적 경험에서 비롯된다.⁴⁾

조선족의 한국 이주는 1982년 중국이 조선족의 한국 친척 방문을 공식적으로 허가한 것을 계기로, 88올림픽과 1992년 한중수교를 거쳐 증가하였다. 초기에는 친척방문이라는 제한된 목적으로만 체류가 허가되었기 때문에 한시적인 여행 목적의 방문이 주류를 이루었으나 1990년대 이후에는 본격적으로 노동, 결혼, 거주를 목적으로 하는 이주가 증가하였다. 이 중에서도 특히 노동을 목적으로 한 이주는 중국의 경제개방과 더불어 값싼 노동력을 원하는 한국 내 한계산업의 수요⁵⁾가 맞물려 수직 상승하였다. 과거 친척 방문이라는 제한적 목적으로 방문하던 시기의 조선족은 말 그대로 동포, 핏줄, 가족의 성격이 강하였다. 하지만 1990년대 이후 노동이주를 목적으로 한 이주가 주류를 이루고 그 수가 늘어나면서 외국인 노동자로서 지난 20~30년간 한국에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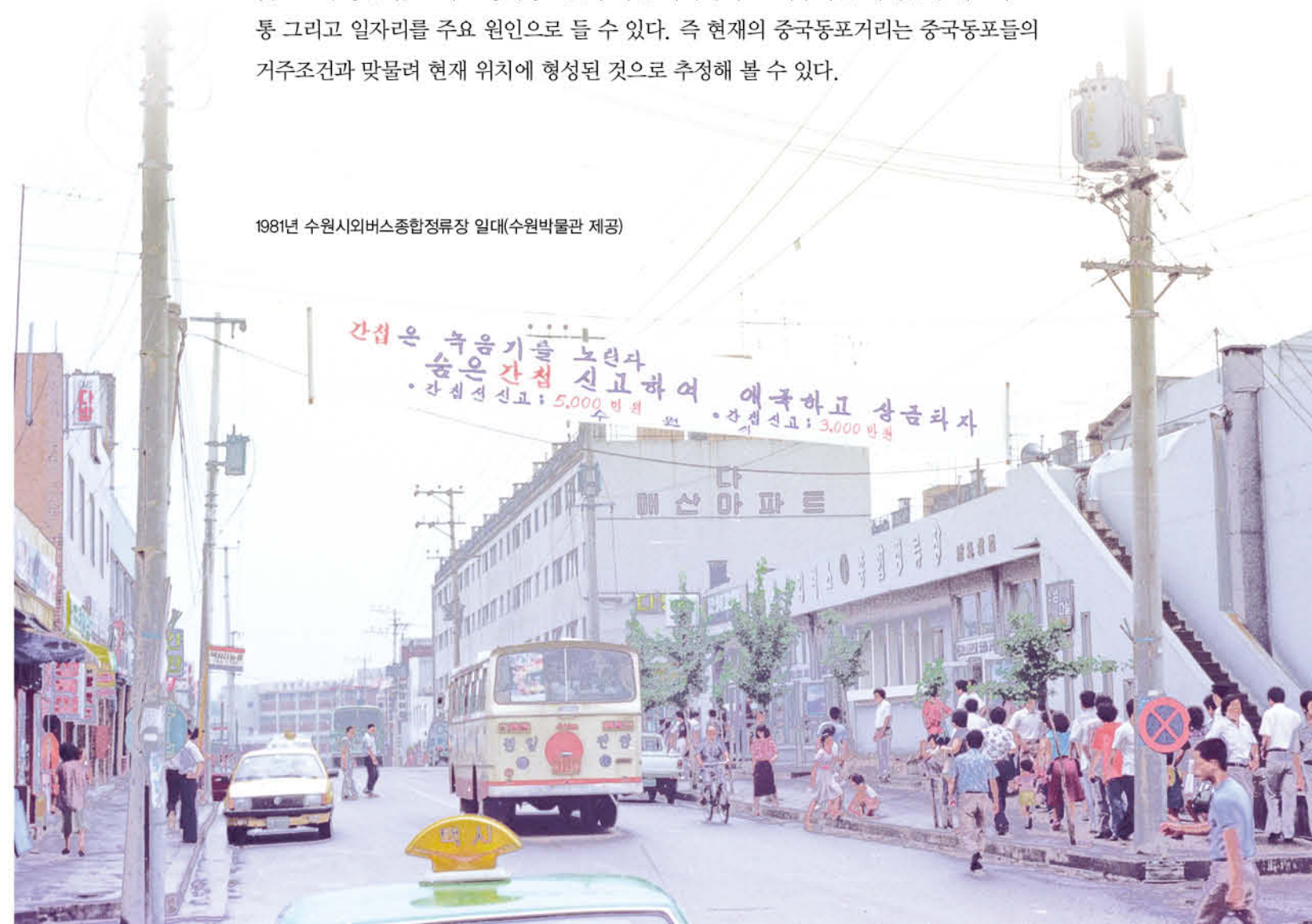
2. 중국동포거리 형성 과정

한국에 체류 중인 중국동포들이 가장 많이 거주하는 지역은 단연 서울이다. 서울에는 2016년 기준 22만 9,352명의 중국동포들이 거주하고 있다. 경기도의 경우 도내 31개 시

군구 단위 행정구역 가운데 안산시가 4만 6,201명, 그 뒤를 이어 수원시가 3만 5,188명이 거주하고 있다.⁶⁾ 서울의 압도적인 수를 감안하더라도 수원시는 전국에서 세 번째로 많은 중국동포가 거주하고 있는 도시인 것이다. 서울과 수도권의 워낙 거대한 인구에 비하면 많지 않은 숫자로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3만 명이면 군 단위를 이룰 수 있는 인구수이기도 하다. 이 세 도시는 중국동포 밀집지역, 소위 중국동포거리(차이나거리)가 형성되어 있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그 중에서도 수원시는 가장 늦게 중국동포거리가 형성되었다. 중국 간판의 가게가 눈에 띄게 늘어나기 시작한 약 3년 전부터 중국동포거리라는 명칭이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현재 수원의 중국동포거리는 갓매산삼거리를 중심으로 동서로 길게 뻗어 있는 형태다. 이는 중국동포들의 주거지가 고등동, 매산동, 세류동에 집중되어 있는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중국동포들이 이들 지역에 주로 거주하는 데에는 임대료와 교통 그리고 일자리를 주요 원인으로 들 수 있다. 즉 현재의 중국동포거리는 중국동포들의 거주조건과 맞물려 현재 위치에 형성된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1981년 수원시의버스종합정류장 일대(수원박물관 제공)





2018년 옛 수원시외버스종합정류장 일대



수원역을 오가는 외국인

1) 임대료와 교통

노순자(1965년생, 여)는 1988년에 한국에 입국한 1세대 중국동포 이주자로 수원에는 2007년부터 거주하기 시작하였다. 그는 중국동포들이 고등동, 매산동, 세류동 일대에 거주하기 시작한 이유로 임대료와 교통을 꼽았다.

노순자 구체적으로 동포거리라고 칭한 거는 한 3년 정도? 여기 동포 분들이 그때 이제 취업방문 비자 이제 허가를 주면서 그때부터 많이 들어왔잖아요? 많이 들어보다 보니까 수원이 교통이 좀 좋았어요. 그래서 수원역 주변에는 어쨌든 간에 그때는 전철로 많이 이동을 했었고, 그리고 터미널이 고 옆에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동포들은 이제싼 가격(임대료)에 교통이 좋은 곳을 선호하다 보니까 그때부터(취업방문비자가 생긴 후, 2006~2007년경) 이제 지금처럼 많지는 않았어요. 구 터미널 쪽으로 고등동 쪽에 그쪽이 좀 약간 낙후하다 그러냐? 그러다보니까 이쪽으로 많이 집중이 된 거 같아요.

중국동포거리가 위치한 매산동 일대는 우선 수원역에서 가깝다. 수원역에서 전철로는 서울과 경기 남부로 이동이 가능하고, 수원역 앞에는 경기 각 지역으로 갈 수 있는 버스 또한 이용이 가능하다. 현재 중국동포거리에서 행정사사무소에서 일하고 있는 이화성(1975년생, 여) 역시 이러한 조건들이 현재 지역에 중국동포들이 밀집해 있는 원인이라고 말한다.

이화성 이유가 교통이 편리하고, 수원역이 있으니까. 첫째는 교통이 편리하고 모든 것이 일단 교통이 편해야 일하기 편하니까. 아마 그게 꽤 중요한 거 같아요. 보통 10시 넘어서 오고 하면 교통이 편리해야 하니까. 그거 때문에 (여기서) 다니는 거 같아요. 출퇴근도 회사 다니는 것도. 제 친구 같은 경우도 이 근처로 자리 잡으려고 하더라고. 차가 바로 오는 것도 그렇고 다른 데는 갈아타야 하고. 임대료는 보통 삼십, 삼십오, 사십. 원룸은 사십, 뭐 사십오만도 있고. 보통 일반 그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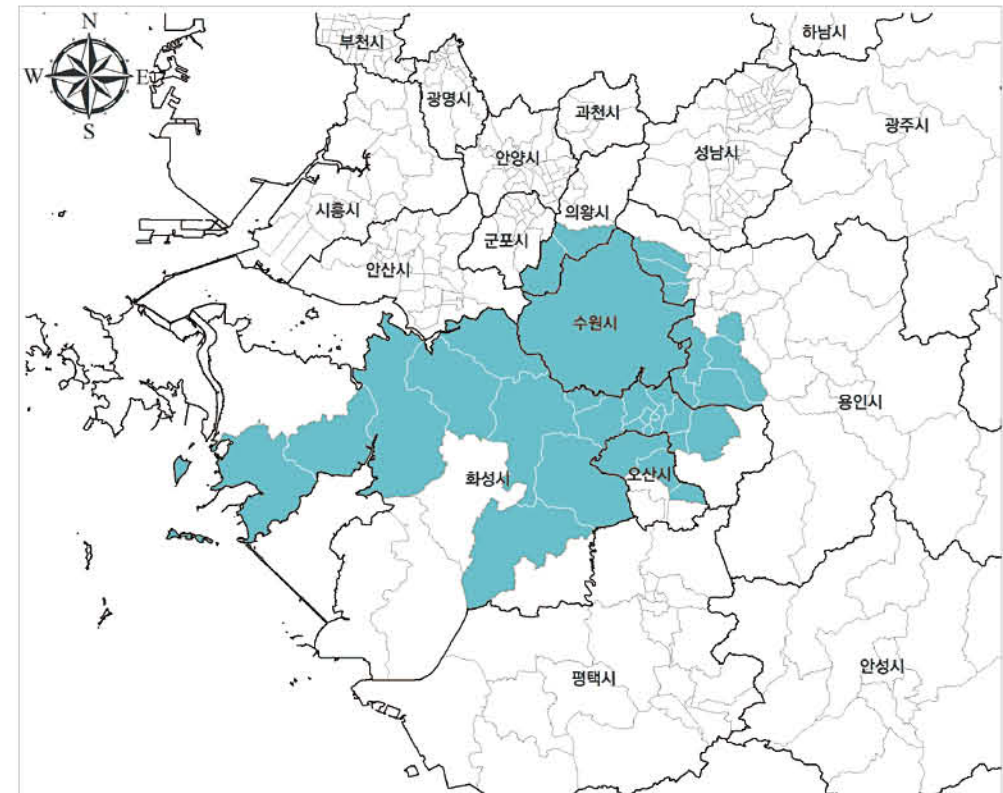
주택들은 삼십, 삼십오, 이십오만짜리, 예전에는 그러니까 삼 년 전에 이십오만, 이십만 짜리 있었는데 갑자기 올라갔어. 비자에 관련해서 교포들이 막 들어오기 시작한 그제 몇 년도지? 교포(동포)들이 점점점 많고, 요즘엔 또 한족 알죠? 한족. 위에서 오는 한족들이 엄청 많아요. 엄청 많이 왔어. 그래서 또 가격이 또 집값이 또 올라갔어. 그뿐만 아니라 동포들만 얘기해서 그런 거지 요즘엔 외국인, 다른 나라 또 이쪽 지역에 많이 집중하고 있어요(집중되고 있어요). 요 근처로 많이 그냥 내 느낌상에는 방글라도 있고 베트남도 있고 러시아도 있고. 내 많이 봤어요. 내(가) 센터에서 많이 봤기 때문에 첫째는 아마 볼 때 교통 수단 같아. 교통수단 때문에 이 근처를 많이 활용하는 것 같애.

주로 저임금 노동에 종사하는 중국동포들의 특성상, 아무리 교통이 편리해도 임대료가 비싸면 거주를 할 수 없다. 하지만 교통이 편리하면 일반적으로 집값과 임대료는 올라가기 마련이다. 교통이 편리하면서 임대료도 싼 곳, 소위 오래된 집과 건물들이 밀집해 있는 구도심이 바로 그곳이다. 현재 수도권 각지의 구도심들은 한국인 저소득층이 주로 거주를 하다가 중국동포들이 그 자리를 메우고, 다시 중국동포들이 떠난 자리를 다른 외국인노동자들이 거주하는 형태로 변모하고 있다. 매산동 일대 역시 과거에는 도심 중심부였지만 몇 번의 재개발이 좌절된 후에 악화된 주거환경으로 인해 임대료가 떨어진 전형적인 구도심의 모습이라 하겠다.

한편으로는 현재 매산동 일대는 중국동포 특수를 누리고 있다고 할 수도 있다. 동포들이 많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떨어지던 임대료가 오히려 반등한 것이다. 또 대규모 재개발은 아니더라도 개인 단위의 재건축 역시 점차 이뤄지면서 전반적으로 3년 전보다는 임대료가 올라갔다고 한다.

2) 일자리

교통과 임대료가 중국동포 밀집지역을 구성하는 조건이라고 한다면, 일자리는 교통조건을 규정하는 요소다. 교통에 유리하다는 것은 결국 주거지에서 일자리에 접근이 용이하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동포 남성들의 일자리는 주로 건축현장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건축이 활발한 서울, 수도권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다. 여성들의 경우에는 직업이 식당일과 같은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아 상대적으로 지역에서 자유로운 편이라 할



2016년 수원의 도시통근권(이성호, 『수원 도시권의 공간적 범위와 특성 변화 연구』, 수원시정연구원, 2018)

수 있다. 하지만 가족 단위로 생활하는 경우 주로 남성의 거주구역을 위주로 주거지역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특히 수원의 경우 주변 신도시 개발 관련 일자리를 구하기에 유리한 입지였다고 할 수 있다.

노순자 말 그대로 제일 중요시 여기는 게 싼 임대료와 교통. 이분들은 항상 아침에 거리가 다 건축 일을 하잖아요? 그리고 여자 분들은 식당일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교통이 좋을 데는 선호는 거예요. 분당도 그렇고 저기 광고 쪽도 그렇고 동탄신도시 쪽으로도 그러다 보니까 건축이 그때는 아마 일 년, 이 년씩 건축일이 연장이 되다 보니까 그때 (동포들이) 엄청 많이 들어온 걸로 알고 있어요. 그때 수원 쪽으로 더 많이 이주를 하게 되고 또 남자 분들이 오게 되면 여자 분들도 따라 오잖아요? 여자 분



화성시 동탄신도시 건설현장과 팔탄면 공단지역

들은 식당은 어디 가도 하는 거니까. 건축 일은 자기 소속된 데로 가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여기 수원역이 (좋은 위치였다). 서울에는 솔직히 너무 많이 (동포들이) 있다 보니까 안산과 서울이 워낙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건축 일들도 수원 쪽에 많았으니까. 그때 이제 신도시들이 수원 쪽에 많이 생겨서 (건축 일이 많아 생겼다) 그때 이제 많이 이주를 해 온 거예요.

건축과 식당일이 주로 장년층의 일자리라면, 젊은 층들은 주로 공장에서 일을 한다. 공장 일자리와 관련해서도 화성, 평택, 오산으로 연결되는 수원은 출퇴근하기에 나쁘지 않은 위치다.

이화성 주로 남자는 거의 현장(건설현장). 어떤 때는 요 근처에 잡을 때도 있고 어떤 때는 먼 데도 가고 다 틀려요(달라요). 그리고 젊은 애들은 회사 뭐 자동차 부품 무슨 화성, 수원, 평택. (연구자 : 그럼 주로 공장 부근에 사는 게 좋지 않나요?) 여기 부모님이 여기 사니까. 출퇴근하니까. 혼자 사는 사람들도 있긴 하지만 가족 단위로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거의 많아요. 그리고 엄마, 아빠랑 같이 살다가 결혼하면 집은 또 옆에 잡고. 부동산도 진짜 잘 돼요. 교포들 많이 있으니까. 여자들은 식당, 회사. 여기 산업단지 있잖아요? 오산이나. 차(셔틀버스) 출퇴근시켜 주고.

연구자 여성 분들도 젊은 사람들은 공장이고 나이 있으신 분들은 식당에서? 네. 그리고 돈 벌면 거의 장사로 가는 게 많아요(돈 벌면 장사하는 사람들이 많다).

3) 주거 밀집지역과 상업지구의 탄생

주거조건이 충족된 것에 더해 중국동포들의 이주민 성격과 가족주의는 주거 밀집을 더욱 부추기는 요소다. 이주는 연고가 없는 것보다 연고가 있는 곳으로 가는 것이 여러 모로 유리하다. 여기에 아직 끈끈한 정을 가진 친척관계가 더해져 서로를 끌어당긴다.

이화성 그런 거 아셔야 됩니다. 우리 교포들 한국 사람들도 옛날에는 그렇게 살았겠지만은 지금 (한국사람들에게) 그런 게 없어요. 우리 교포들은 중국에서 내가 여기 먼저 들어왔어요. 그럼 내가 엄마, 아빠, 이모 뭐뭐 그게 직제가죽이잖아요? 그치만 그 옆에 이모, 사촌, 외사촌, 사돈 뭐 내 하나만 여기 오면 다 우리 집에 먼저 찾아온 다음에 다시 나가고 나가고(한국에 있는 친척 집을 기점으로 중국에 있는 친척들이 모인다.) 무슨 말인지 알죠? 그래서 여기 모여서 '아 여기 수원이 괜찮다' 다 그렇게 해서 여기 모이는 거예요. 여기 다 있어요(친척들). 친척들이 우리 집에 있다가도 다른 친척들이 이 쪽이 더 괜찮다고 하면 우르르 다 몰려서 저쪽에 가 있어 나중에 보면은 아직까지 교포들은 그게 친척 간의 관계가 끈끈해요 아직도. 멀어지거나 그런 게 없어.

여러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동한 경과 매산동 일대는 중국동포들의 주거 밀집지역이 되었다. 동포들이 모여 살기 시작하니 자연스럽게 동포들을 상대로 하는 가게들이 하나 둘씩 생겨나기 시작하였다. 주거지역에 동포들이 많이 거주한다고 해도 시각적으로 확 달라지지는 않는다. 중국동포거리의 풍경을 좌우하는 것은 다름 아닌 '간판'이다. 즉 현재 동포거리의 모습은 식당을 비롯한 중국식 간판을 단 가게들이 늘어나면서 만들어진 것이라 볼 수 있다.

이화성 먼저 식당들이 먼저 들어왔어요. 그거는 꼭 알아야 해요. 중국 식당이 생기니까 '아 여기 중국 사람이 있겠구나.' 하고 이런 기관이, 여행사나 행정사가 들어온 거예요. 그 전엔 감히 들어오려고 못 하거든요. 그런 거 있잖아요. '아 여기 잘 될까? 안



중국동포거리의 간판

될까?’ 뭐 이런 거. 여기 주로 교포들 사나 안 사나 이런 거 알죠? 여기 식당이 한두 개 있으니, 아 역시 있구나. 여기 중국 사람 좀 다니는구나, 그러니까 여행사도 늘고 또 그런 게 있으니 사람들이 ‘아 이쪽에 주로 교포들이 사는구나.’ 해서 여기로 집중 점점 되는 거죠. 아마 그래서 그제(중국동포거리) 시작되었을 거예요. 여기 식당 처음엔 한두 개밖에 없었어요. 그랬던 게 지금 엄청 늘어났죠. 요즘 택시 타고 차이나거리 하면 다 여기로, 그 정도로 그렇게. 7~8년 전에는 여기 (중국)식당 한두 개밖에 없었어요.

노순자 하여튼 그때는 많이는 왔지만 지금처럼 이렇게 집중되어 있지는 않았어요. 장안구나 남문 쪽 그런 데도 꽤나 있었고, 한 삼 년? 근래 들어서 수원역 쪽이 굉장히 이제 뭐라고 해야 되지? 그분들이 장사도 하시고 그런 걸로 자기 본인들이 허가를 내서 사업자를 내서 물류 하는 분들도 계시고 식당 하는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여행사나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집중되다 보니까 수원역 쪽으로 다 몰리게 되는 거예요. 사업을 하면서 그래서 동포거리가 생긴 거예요.

동포 대상이에요. 동포들이 하는 거는 동포 대상이에요. 한국인들 대상이 거의 없어요. 여행사도 한국인이 하는 여행사랑 동포들이 하는 여행사가 다르잖아요? 한국에는 여

행 쪽으로나 그런 쪽이지만 동포들은 비자 쪽도 많고 이제 행정 쪽 일이 많이 때문에 달라요. 그러니까 다 대상은 중국인들이었어요. 동포들 좀 있는 데서 사업을 해야 많이 이용을 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서울 대림동처럼 그냥 모든 것이 사업이라고 하면은 수원 이쪽도 생각이 되니까 이제 수원역 쪽으로 고등동, 매산동 쪽으로 많이 집중이 된 거예요(동포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들은 동포들이 많은 곳에서 해야 하니 대림동이 나 수원 쪽에 가게들이 몰린다). 사업보다 장사, 식당, 식당이라고 얘기해야죠. 자영업이예요.

7~8년 전에는 한두 개에 불과하던 중국식당이 3년 전부터 늘어났다고 한다. 식당이 늘어나니 행정사와 여행사처럼 꼭 필요한 비자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곳들도 생겨났다.

이화성 교포들이 일정한 한계가 있어서 할 수 있는 거가. 그래서 우리가 업무를 봐 주는 거죠. 컴퓨터를 잘 다루지도 못하고, 젊은 아들은 괜찮은데 또 젊은 아들이 아무리 잘 해도 이 쪽 오면은 업무 쪽은 잘 모르니까. 와서 많이 하는게, 그래서 우리가 대신 업무를 봐 주는 게 출입국 업무. 주로 비자 관련 갱신, 연장, 비자 변경 뭐 이런 거. 또 중국에서 요청해서 오고 요청장도 만들고 업무가 많죠. 여러 가지 공증도 하고 뭐 이런 거. 혼자서 못 하거든요.

노순자 여행사보다도 한국에는 행정사라고 거의 그래요. 그리고 식당 그리고 물류. 물류가 많아요. 중국인들이 장사를 많이 하잖아요? 한국에서 (중국으로) 들어가는 것도 있고 거기서 수입도 오지만 (중국으로) 들어가는 게 많죠. 왜냐면 중국인들이 한국제품을 굉장히 선호하잖아요? 그래서 한국의 식품도 있고 화장품도 있고. 굉장히 그게 활성화됐어요. 그래서 물류가 굉장히 활성화돼서 물류도 많고.

여행사나 행정사는 수원 중국동포거리뿐만



이 아니라 안산과 서울 대림동의 동포거리에서도 볼 수 있다. 아니 이들 지역에서만 볼 수 있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다. 이들 업종이야 말로 오직 동포들만을 상대로 하는 업종이고 동포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물류사업과 같이 한국의 물건을 중국으로 수출하는 곳들도 동포거리에서 볼 수 있다.

3. 중국동포에 대한 인식 악화와 동포들의 자구책

영화 '황해'에서 시작해 근래 개봉된 영화 '범죄도시', '청년경찰' 등 영화 속에서 조선족은 주로 범죄와 연루된 이미지로 그려지고 있다. 이러한 조선족의 이미지는 거친 말투, 동포들끼리의 다툼 같은 데서 오는 문화적 이질성과 조선족과 관련된 강력범죄 등, 여러 요인을 찾을 수 있다. 특히 수원에서 일어난 강력범죄들은 동포들에 대한 인식을 매우 악화시켰고 동포밀집지역에 대한 기피현상으로 이어졌다. 이는 결국 중국동포거리가 작게는 한국 사회, 수원시 내에서 자연스럽게 공존하는 장소로, 크게는 다문화의 상징이나 관광명소가 되기 위해 극복해야 할 과제다. 여기에서는 중국동포에 대한 한국 사회의 인식에 대한 동포들의 생각과 인식 개선을 위한 동포들의 자구책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한다.

1) 악화된 동포인식

1980년대 후반에 한국에 들어온 노순자는 처음부터 중국동포(조선족)에 대한 인식이 나빴던 것은 아니라고 말한다. 당시만 하더라도 중국동포 가족이나 친척이 아닌 이상 한국에서 보기란 매우 어려운 일이었고, 막연하게 동포라는 의식 정도만 있던 상황이었다. 하지만 1990년대를 지나며 중국동포 이주자가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인식은 서서히 변해 갔다.

노순자 처음에는 제가 왔을 때도 조선족이라고 그러면 생소하기는 해도 나쁜 인식은 안 받았던 거 같아요. 그때는 뭐 그냥 같등은 없었는데, 차차차차 이제 조선족들도 와서 뭐 약장사 하면서 거짓, 그렇게 가짜 같은 것도 많이 하다 보니까 중국 분들이 이제 사기 많이 친다 그러고 이제 한족들보다 그땐 조선족들이 많이 오니까 조선족들에



수원에 정착한 중국동포

대한 인식이 안 좋았죠. 그리고 이제 수원역 쪽이나 뭐 저기 서울 같은 데도 조선족들이 많이 집중해 있다 보니까 술 문화, 원래 중국에 있는 조선족들이 술을 잘 마시는 민족이다 보니까 술 먹고 좀 다툼도 많이 있고.

인식이 악화되는 계기는 주로 동포와 관련한 범죄, 그리고 주로 술과 관련한 동포끼리의 다툼 때문이라고 노순자는 진단한다. 이는 다른 동포들도 느끼고 있는 부분이다. 하지만 인식이 안 좋을 것과 두려워하는 것은 차이가 크다. 특히 근래 수원에서 일어난 동포에 의한 살인사건은 한국 사람들로 하여금 안 좋은 인식을 넘어서 동포들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했다.

이화성 (중국 동포에 대한 한국 사람들의 인식) 예전보다 변했죠. 변했고 그리고 또 살인사건 난 다음부터 별로 좀 안 좋게 보고, 작년엔가 또 여기 모텔에서 살인사건 나고, 저는 그런 게 아휴, 인식이 또 안 좋겠죠.

노순자 그때부터는 동포들이 장사하는 것도 그렇고 이 한국인들이 동포들에 대한 (시선이) 굉장히 차가웠어요. 정말 차가웠어요. 그냥 두려워하는 것도 있고. 방, 그때는 이제 집을 얻고 할 때, 동포들이 집 얻고 하는 것도 굉장히 제한이 있었어요. 무서우니까. 집 얻는 거, 직장 다니는 거 그리고 지금 출입국에서도 무범죄 경력 같은 것도 다 요구하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저희한테 와 닿는 게 차가운 그 시선, 그게 참 너무 어렵더라고요. 벌써 조선족들은 역량이 다르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보는 것도 그렇고, 시장에 가서도 뭐 살 때도 그렇고 그냥 중국인들, 조선족이라고는 안 해요. 중국 동포들 뭐 칼 가지고 다닌다면서? 너네도 이런 거 먹냐 그러고, 그리고 그 가게가 한국인들 가게하고 같이 있을 때 같이 전디기가 힘들어서 그 때 제가 알기로는 그 저기 남문 시장에서 한 세 분인가? 시장에서 자기네가 그 가게를 빼서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왜냐면 동포들이 하는 걸 팔아 주지를 않고 동포를 이제 두려운 존재로 인식을 하니까 굉장히 어려웠다고 그랬어요. 저도 그때는 그걸 느꼈어요. 시선 자체가 차가워요. 그냥 행동에서 보이는 거 있잖아요? 말보다는 행동이 그랬어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주변 동포들에게) 빨리 말을 배우라고 그랬어요. 한국말을 배우고 한국 문화를 빨리 배우라고 그랬어요. (중략) 다른 나라 사람들은 두려운 존재는 아니잖아요? 그냥 좀 밀으러 보는 경향은 있어도 그렇지만 두려운 존재는 아니기 때문에 좀 나왔어요.

일부 동포들이 일으킨 강력범죄는 한국 사람들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악화된 인식과 차별의 영향을 특별한 관련이 없음에도 받아야 한다는 점에서 성실하게 자기 일에 종사하는 대부분의 동포들 역시 사건의 큰 피해자라고 할 수 있다. 일부 동포들의 범죄가 일어날 때마다 대부분의 동포들은 주변의 시선을 의식하고 움츠러들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나아가 실제로 가게를 접는 등의 경제적 손실로 이어지기도 한다.

2) 인식 개선을 위한 동포들의 자구책

노순자는 동포들과 함께 2016년도부터 수원시 중국동포협회를 설립, 현재 회장을 맡아 활동을 하고 있다. 중국동포협회는 수원지역을 중심으로 악화될 대로 악화된 동포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자 하는 동포들의 자구책으로 설립되었다.

노순자 저희가 협회, 중국동포협회가 있잖아요. 저희가 2016년도 10월 달에 저희가 설립을 했어요. 그때부터 계속, 그때 인원이 많지는 않았지만 그 때부터 우리가 그냥 하고자 하는 것도 그냥 봉사랑. 워낙 그때 오원춘사건 때문에 동포들 인식이 너무 안 좋았어요. 수원 지역은 더 심했어요. 제가 여기서 일을 하다 보니까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한국 대학생들이 여기 와서 다문화 같은 취재를 하겠다고 오셔요. 그분들 논문도 써야 되는 부분도 있고 이제 그래서 와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 수원에서 자기네가 살고 자기 대학을 2년 동안 다니는데 이 동포거리를 한 번도 지나다녀 본 적이 없고 너무 돌아갔대요. 한 시간을 돌아서 갔대요 자기네 집을.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무서워서 자기네는 여기를 올 수가 없었다고, 그래서 왜 무섭냐 그랬더니 뉴스에 보면은 살인을 너무 많이 하고 중국 사람들은 칼을 가지고 다닌다고 들었다고. 그래서 그때 제가 생각한 것은 정말 이 한국인들하고 우리가 잘 해서가 아니고 우리가 노력하면서 알려야 되겠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같이 하면은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알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시작한 거예요.

수원 중국동포협회가 동포 인식 개선을 위한 활동으로 선택한 것은 봉사다. 길거리 청





중국동포 자유행방대 활동(수원시외국인복지센터 제공)

소, 자유행방대 활동, 노인 봉사 등 다양한 활동을 한국단체들과도 함께 활동한다. 봉사를 함으로써 환경정화 및 치안강화와 같은 실질적인 공간 개선도 이루고, 중국동포 역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의 책임을 다하겠다는 의사표현을 한국 사회에 던지는 것이다.

노순자 매산동에서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 길거리 이제 거기 동포거리하고 로데오거리, 요 매산동 쪽으로 해서 우리가 청소, 길거리 정화 활동을 하고 그리고 우리가 작년까지만 해도 한 달에 두 번씩 자유행방대, 밤에 8시부터 9시까지 매산동 지구대나 매산동 직원들 그리고 다른 국회의원들도 계시고, 그리고 또 순찰대들도 또 따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각 지역에서 같이 모여서 우리가 순찰을 해요 저녁에. 지금은 한 달에 한 번씩 하는데, 한국인들하고 같이 하는 걸 하면서 우리 동포들이 정말 꾸준히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정말 지금까지 계속 그렇게 하면서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뭐 이제 우리가 명절 때 되면은 어르신들 영정사진 같은 거 찍어 드릴 때가 있어요. 봉사로 동에서. 그러면 이제 우리는 거기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회비, 중국 분들 회비 좀 모아서 그분들 식사 대접하든가 그런 거 하고, 그리고 공연 같은 거 중국 공연 같은 거 그런 거 좀 해 드리고, 그리고 김장봉사 같은 거 그런 거 좀 하고, 어르신들 복지센터 같은 데 가면은 여기 노인복지관 같은 데 가면 한 달에 한 번씩 급식 그런 거 나눠 주고 정리하고 식당 그런 거 정리청소 그런 것도 하고.

4. 중국동포거리의 달라진 풍경과 지속성

이화성 일요일 일요일 날 되면 일요일에 결혼식 같은 거 하고 하면 사람 진짜 많아요. 여기 와서 다 거의 결혼해요. 교포들이 거의 다 여기 나와 있으니까. 그니까는 친척들이 중국이나 조선족 교포들 다 여기 와 일하니까. 여기서 할 수밖에 없죠. 고향 가면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여기서 결혼식 하고 결혼식장 잡고 한국 사람처럼

주말이 되면 지방에서 친척이나 가족을 만나기 위해 올라온 동포, 한국에서 결혼식을 올리는 동포부부, 주말 여가를 즐기는 동포들 등으로 동포거리는 북적거린다. 연변 시내를 그대로 옮겨 놓은 풍경이라 해도 과장은 아닐 것이다. 그만큼 동포들이 한국 사회에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나타날 수 있는 풍경이기도 하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고립된 느낌을 주기도 한다. 바로 한 블록 옆의 로데오거리와 누가 경계를 긋지 않았음에도 사람들의 오고감이 없다. 앞으로도 이 경계는 공고할까? 동포거리는 언제까지 지속될 수 있을까? 동포거리의 현재 모습을 통해 기늩해 보자.

1) 차분해진 동포거리

술에 취해서 서로 싸우는 동포들의 모습은 동포거리에 다가가기 어렵게 만드는 주요 원인 중 하나다. 소리를 지르고 서로를 밀치거나 폭력을 휘두르는 등, 이러한 다툼은 주변의 분위기를 얼어붙게 만든다. 이는 비단 한국 사람들에게만 불편한 일이 아니다. 동포거리에 사는 동포들에게도 역시 불편하고 싫은 일이었다.

이화성 근데 여기가 예전에는 싸움도 잘 하고, 싸움도 잘(자주) 했어 한 3~4년 전까지는. 근데 법을 나라에서 출입국이나 법을, 살인사건도 일어나고, 알죠? 여기 싸움도 일어나고, 여기서 술 먹고 싸우고 이런 거 엄청 많았는데, 법이 바뀌어서 엄중하게 해 가지고 싸우거나 이러면 기록이 다 남아 가지고 비자를 안 준다든지 연장 잘 안 해 준다든지 이렇게 하니까 싸울려고 안 하죠. 그러니까 조용해지잖아요? 진짜 좋아요. 저는 이런 거 진짜 맘에 들어요. 옛날에는 진짜 싸우고 소리 막 치고 술 먹으니까. 지



중국동포 자율방범대 송년의 밤 행사(수원시외국인복지센터 제공)

금 그런 거 없어졌어요. 조용하게 사는 거죠. (중략) 제일 불편한 거는 일단 교포들 성격이, 조금 성격 뭐 자존심이랄까 그런 게 있었을 거야 아마. 조금 어떻게 말하면 '옥 옥' 이렇게 올라오는 거 알죠? 그리고 자꾸 싸우려고 하고 말다툼 할려고 이런 거 있잖아요? 가만 안 놔둘 것처럼 막. 지금은 법이 이렇게 해 주니까 그런 거 많이 없어지고. (중략) 아 여기 진짜 복잡했어요. 지금 3년 지나니까, 법을 강화시키니까 그만큼 지금. 예전에 여기 다니기도 진짜 싫었어요.

이화성에 따르면 중국동포거리라는 명칭이 붙을 무렵, 그러니까 3~4년 전부터 그러한 다툼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고 한다. 법이 강화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물론 과거에도 법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단지 불법체류 내지 어차피 불안정한 신분에서 법을 신경 쓸 필요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문제는 동포들에 대한 체류자격이 안정화되면서 풀리기 시작하였다. 체류자격이 안정화됨으로써 법의 눈치를 보기 시작한 것이다. 안정적인 체류자격을 획득한 동포들은 그 자격을 잃지 않기 위해서라도 법을 준수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법적 통치를 위해서는 법적으로 안정된 지위를 보장해야 한다는 사례를 동포거리가 보여 주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2) 동포거리의 지속성

우리는 이주민이라고 하면 다시 떠날 수도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이주민들은 여건이 받쳐 주기만 하면 정주하고자 하는 사람들이며 중국동포들 역시 그러한 것으로 보인다. 그들이 정주하는데 가장 필요한 여건은 다름 아닌 일자리이다.

이화성 일단 돈을 벌 수 있으니까. 중국은 오십 대 초반이면 일자리 찾기가 굉장히 어

려워요. 근데 여기 오면은 오십 대 초반이고 육십 살 칠십 살까지 다 일하고 있잖아요? 뭐 간병인 한 다든지, 농촌에 가서 일 한다든지 뭐 다 할 수 있기 땀에 돈을 벌 수 있다는 거. 근데 중국은 그런 게 없어. 그러니까 그런 게 어려운 거고 될 수 있으면 한국 나올려고 그러는 거고. 조건만 되면 한국 나와. 내가 봤을 때 여기 한국에는 나만 부지런하면은 돈 다 벌어. 먹고 쓰고 이렇게 해도 돈 다 벌어 간다고.

일자리는 그래도 다 잘 구해요. 가면 다 일하고, 일자리가 잘 되기 때문에 돈 벌고 갔다가도 "아 우 안 와, 이제 오지 말아야지." 했다가도 또 와. 일자리 때문에 안 된다고. 아직까지 중국이 발전했지만, 시내는 발전됐지만 아직 들어가 보면 멀었어요. (중략) 그런 면에서 많이 봐 주는 거지 한국에서. 진짜 동포들한테 잘 해줘요. 법적으로도 이런 거 잘 해 주고.

노순자 항상 갖고 있는 게 중국이라는 개념을 머릿속에 더 갖고 있죠. 아 집에 들어가면 중국이 더 낫지. 갔다가 또 아 이제 안 와 한국에 안 와 하다가도 또 몇 달 있으면 또 와. 특히 일자리 땀에 올 거예요. 그리고 젊은 사람 계층 있잖아요? 삼십대 후반에서 한 오십대 후반까지 그 사람들은 여기 오래 생활한 사람들은 여기 있으려고 해. 왜냐하면 여기가 또 환경이나 모든 게 서비스나 뭐 이런 거 제공하는 거가 중국보다. 중국이 아무리 발전해도 그런 거는 아직까지 못 하니까. 여기서 그런 걸 느끼고 갔는데 가보니까 또 그런 게 안되니까 그런 걸 힘들어 하더라고. 이런 분들은 여기 한국에 정착하려는 것이고.

중국 내의 부족한 일자리, 특히 장년층과 노년층의 일자리 부족은 중국으로 귀환한 동포를 다시 한국으로 불러들이는 주요 요인이다. 특히 중국의 조선족 자치주는 중국의 비균형 발전정책으로 인해 발전이 정체된 상황이다. 일자리부터 각종 서비스와 같은 삶의



신축빌라 현수막
'중국교포 1억 이상 대출가능'

여건이 한국 같지가 않은 것이다. 게다가 이미 수십 년간 한국 사회의 노동시장에서 동포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지속적으로 늘어왔기 때문에 이를 위한 일자리들이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다. 때문에 중국동포들도 될 수 있으면 한국 사회에 정착하려는 시도를 많이 하고 있다고 한다.

정착의 막바지에 이르거나 정착을 결심하게 되면 찾게 되는 것은 집이다. 어차피 한국에 정착할 것이라면 월세나 전세보다 대출을 받아 집을 사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것이다. 현재 중국동포거리에서 잘 되는 업종 중 하나가 부동산이라는 말이 이 현상을 뒷받침한다. 이제 동포거리는 언젠가 떠날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아니다. 한국 사회에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 앞으로도 계속 존재할 곳이다.

젊은 사람들 중에 또 서로 만나서 여기에 집 얻고, 요즘 집만 얻는 게 아니고 집도 사요. 빌라 일억 오천, 이억, 아파트도 사요. 벌고 또 대출해서, 뭐 예를 들면 내 아는 분들도 많이 샀어. (집이) 한 일억 오천, 일억 이천 된다면 한 오천 정도 모이면 대출받아. 어차피 내가 월세 내는 거면 어차피 여기서 살 거잖아요? 한 십 년 살던, 여기서 밭 붙이면 육십, 칠십까지 살아야 되니까. 그동안 월세 낼 거 생각하면 그렇게 하는 게 낫죠. (연구자 : 그럼 대출은 쉽게 잘 되나요?) 그거야 일자리랑 다 있으니까. 그런 거 보고서 하니까, 요즘 은행에서 잘 내준다고 하던데요? 와서 집 사는 사람들 많아요.

3) 동포들의 바람

안정적인 체류 자격과 일자리, 나아가 집도 장만한 동포들도 있다. 그러나 사회적 인식으로나 문화적으로나 한국 사회의 주변부에 머물러 있는 것이 동포들의 현실이다. 언젠가 떠날 사람, 두려운 사람이 아닌, 언제나 마주할 수 있는 사람, 이 사회의 한 구성원인 사람으로 인정받는 것, 그것이 오늘날 동포거리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바람이다.

이화성 한국 사람들은 잘 안 와요. 거의 교포들이예요. 여기 지나다니는 사람들 거의 교포들이예요. 한 80프로? 90프로? 한국 사람들도 있긴 있겠지만. 차이나타운 그렇게 하면 좋죠. 그럼 더 이렇게 발전되고 이 거리가. 그러면 나중에 또 인천차이나타운 그것처럼 되면 좋죠. 그러면 수원시도 더 유명해지지 않을까. 그러면 좋을 거 같아요.



수원다문화축제(수원시 포토뱅크 제공)

한국 사람들은 그냥 한 몇 가지를 듣고 평가하고 '아 중국 사람들은 나빠' 뭐 이런 거는 아닌 거 같애(좋지 않다). 어디 나가나 똑같은 거 같아요. 좋은 사람이 있고 나쁜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그런데 한두 가지 이런 거 이미지만 보고 막 나쁘다고 이렇게 하지 말고, 될 수 있으면 잘 어울려 가지고, 같이 어울리면서 서로 더 좋아지면 좋을 거 같고.

노순자 그 얘기를 많이 했어요. 왜 중국으로 안 가냐고 왜 여기서 살라 그러냐고. 그 얘기가 참 듣기 안 좋았거든요. 우린 중국에서도 소수 민족으로 살고 굉장히 서러움을 많이 받았잖아요? 그런데 여기 와서 부모 나라고, 우리 조상들이 여기 사람이라고 우리는 또 찾아왔는데 여기서도 그런 대접을 받으니까, 어쨌든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끼리라도 어떻게 방법을 해야 되는 게 소규모로 모임을 하면서 우리가 얘기를 많이 하죠.



- 1) 중국동포를 지칭하는 말은 조선족, 재중동포, 중국교포 등으로 다양하다. 여기서는 기본적으로 중국동포라는 호칭을 사용하지만, 학술 및 인용자료에 조선족이라는 호칭이 쓰인 경우에 한해 조선족이라는 호칭을 사용한다.
- 2) 「수자로 보는 재한조선족 거주 현황」, 『데일리연합』, 2017년 6월 12일.
- 3) 정근재, 「그 많던 조선족은 어디로 갔을까?」, 복인, 2005, 238~244쪽(김현미, 『우리는 모두 집을 떠난다』, 돌베개, 2014, 97쪽 재인용).
- 4) 김현미, 『우리는 모두 집을 떠난다』, 돌베개, 2014, 98쪽.
- 5) 또한 언어가 통한다는 점에서 한국 산업계에 있어 조선족은 다른 외국인 노동자와 비교할 수 없는 매력적인 대상이었다.
- 6) 「수자로 보는 재한조선족 거주 현황」, 『데일리연합』, 2017년 6월 12일.

집필위원

김미엽	서울시립대학교 국사학과 박사과정 수료
김연희	서울시립대학교 국사학과 박사과정 수료
김요셉	한국항공대학교 기계공학과 석사
김현미	수원시정연구원 연구원
김형아	설날 대표
손승호	인천대학교 강사
송지영	강원대학교 강사
안종수	한양대학교 강사
윤정인	아주대학교 사회학과 석사
이동헌	국사편찬위원회 편사연구사
이승연	화성시사편찬위원회 연구원
이정수	아주대학교 사회학과 박사과정
이진희	시인
정가형	수원시정연구원 연구원
조성운	동국대학교 강사
최희진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아시아도시센터 연구원
한동민	수원화성박물관장
황병주	국사편찬위원회 편사연구관
황상표	수원 영덕고등학교 교사

기획·편집

홍현영	수원시정연구원 연구원
-----	-------------

— 수원시 마을지 시리즈 14 —

매산동

수원의 관문, 수원역이 자리한 마을

발행일 : 2018년 12월 31일

발행처 : **SRI** 수원시정연구원
수원학연구센터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수인로 126
(전화 031-220-8057, 팩스 031-220-8060)
<http://www.suwon.re.kr>

제작 및 인쇄 : 경인 M&B(전화 031-231-5522~7)

발간등록번호 : 11-B552980-000001-01

ISBN : 979-11-89160-63-0 94900

ISBN : 979-11-89160-62-3 (세트)

※ 이 책은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므로 무단 전재와
복제를 금합니다.